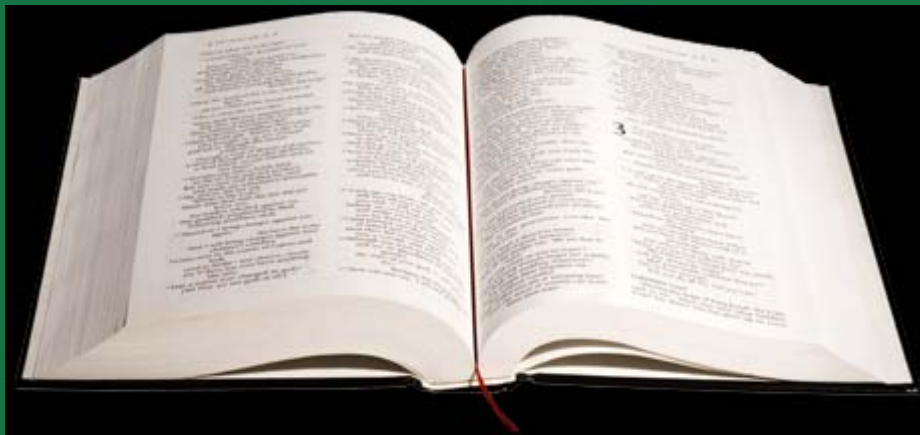


Bible Study Notes

(바이블 스터디 노트 제4권)



말씀의 합리적 이해 개정판
4년 과정 성경 공과 각 반 통합 책

아니타 돌 지음/ 배제형 옮김
도서 출판 벽옥

4년 과정 성경 공과

바이블 스터디 노트

제4권

말씀의 합리적 이해 개정판
공동 번역 성경

BIBLE STUDY NOTES
BY ANITA S. DOLE

아니타 에스. 돌 지음
배제형 옮김

BIBLE STUDY NOTES

MEMORIAL EDITION

By Anita S. Dole

Edited By Wm. R. Woofenden

AMERICAN NEW CHURCH
SUNDAY SCHOOL ASSOCIATION

이 책에 대하여....

이 책, “바이블 스터디 노트”는 자기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얻고자 성경을 꾸준히 읽는 분, 또는 이를 위해 몇 사람들이 매 주 모여 공부하는 그룹들 등등의 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려 해서 편역 출판된 책이다.

역자가 출판한 여러 성경 해설서 중에서 본 권은 과거 1970년도 경에 북미 새교회들의 주일 학교를 위해 아니타 에스 돌 여사께서 매 주 한 공과씩 집필하신 주일 성경 공과(bible study notes)를 번역한 것이다.

현재 시판되는 원서(영문판)은 총 6권으로 성경 책의 순서에 따라 재 편집되어 있다. 하지만 역자는 이 책을 돌 여사가 처음 구상하여 실시하셨던 그대로 매 주 한 공과씩 공부하여 4년에 마치도록 각 권당 40 공과, 전 4권 도합 160 공과로 처음 그대로의 방식을 따라 책을 엮었다.

영문판은 성경 본문을 생략하고 있으나 성경 통독이 우선임을 감안해 책의 부피가 커지는 단점을 감수하고라도 본문을 추가하였다. 또한 처음 성경 읽기에 도전하는 초심자를 감안해 부드러운 성경 번역이라 판단되는 공동 번역을 본문 읽기로 선택했다. 물론 이 번역은 역자의 상응 해석을 위해 마땅치 않은 대목들이 많아 개역 한글판을 인용하는 때도 많이 있다. 어찌됐든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분명하게 다 읽는 것, 더불어 기억에 많이 남게 읽는 것이 아닐까?

이 책은 성경 본문에 이어 교리 요점,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이어서 1, 2, 3반, 기본 상응 공부, 4, 5반, 그리고 각 공과 해설에 도움을 준 이마누엘 스웨덴볼의 저서로부터의 인용문이 첨부되고 마지막으로 각 공과를 마무리하는 일종의 시험지에 해당하는 질문과 답으로 매 주의 공과 공부를 마무리 한다.

각 반은 영문판의 경우 primary(1반), junior(2반), intermediate(3반), senior(4반), adult(5반)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분류는 교회 주일 학교 공과를 위해 나이에 따라 붙여진 것으로 한국식으로 말하면 대략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성인의 성경 공부에 응용하도록 되어 있다. 초등 이하인 유치원 수준의 경우는 공작, 그리기, 등등으로

공부하는데 이 자료는 아래 웹사이트의 books scan에서 발견할 수 있다.

“교리 요점”은 각 공과에 등장하는 공통 주제를 요약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정 예배” 편은 개인 사정상 교회에서 예배를 보지 못하는 가정, 또는 목사와 같은 전문가 없이 한, 두 가정이라도 뜻있는 이들이 모여 예배를 보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설교 자료를 제공하여 어디서나 예배를 이어가게 하고자 편찬된 공과이다.

“기본 상응 공부”는 몇 안 되는 낱말이지만 기억에 담아두면 본문외 성경의 의미파악에 적잖은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다.

“1-5반”의 시작 머리에 있는 작은 글씨체의 글은 성경 교사에게 보내는 글이지만 읽어두면 본문 이해에 보탬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은 각 공과의 의미파악에 도움을 준 이마누엘 스웨덴봄의 저서 속의 문항을 발췌 인용하고 있어 때로 이해가 난감해질 수 있지만 차차 이해될 것이다.

“질문과 답”은 각 반에 해당하는 질문 몇 개씩을 모두 모아 놓고 있다.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이라면 질문 첫 항부터 중간까지는 매우 쉽겠지만 끝 부분 2-3개의 문항은 흥미있을 것이다. 첫 질문이 너무 쉬워 유치한듯 여겨지더라도 거룩한 성경 공부라는 점에서 겸손히 답을 만들며 기억에 더 다진다면 유익할 것이다.

교회에서 이 책을 사용하는 경우는 위와같이 분류하여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 요즘 시대는 각종 자료 수집이 쉽고 활발하기도 한 바, 특정한 어떤 교회를 의지하지 않고 나홀로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많은 이들이 있는 바, 역자는 그분들의 성경에 대한 합리적 사고를 위해 이 책은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리라 확신하여 연령별 분류가 아닌 성경 지식 수준에 따른 분류를 채택하여 1-5반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물론 본 서의 각 반을 매 주 다 읽고 공부한다면 이는 역자의 더할나위없는 바램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이해되지 못해 난해해지거나 혼돈되는 것이 염려되어 각자의 성경 이해 수준에 적합한 반만을 골라 30분 내지 1시간 내에 한 공과 공부가 끝날 수 있도록 각 반을 떼어내 한 권의 작은 책으로 재편집해 들고 다니기 쉽고 책 구입 비용도 줄이고, 공부 부담도 덜되어 꾸준히 이어나가는 성경 공부의 시작 끈 역할을 역자는 기대하여 큰 책인 “바이블 스터디 노트”를 분해하여 각 반별 작은 책 “성경

공과”라는 책명을 붙여 4권x6반=24권으로도 출판해두었다. 이 작은 책은 큰 책으로 부터이기 때문에 95% 정도가 완전히 같다.

성경에 내 영을 위한 양식이 들어 있다 확신하여 성경을 멀리하지 않는 이들이라면 성경 읽기와 읽은 대목의 의미 파악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과제라 역자는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을 읽되 처음부터 단번에 지식을 쓸어 담듯 하지 말고 매우 천천히 매일, 또는 매 주 한 단계씩 밟아 올라 지상의 삶 안에 영계의 것을 담아 나가 저세계로 가져가길 기도한다.

이 책 외에 더 많은 내용은 웹사이트 www.baysidechurch.org를 검색하면 되는데 거기에는 라틴 성경, 이마누엘 스웨덴봄의 초판 저술(라틴어)과 그의 저술 대부분(영문판), 여러 목사들의 성경 해설서 (영문판) 및 이 책을 포함하여 역자의 모든 번역서, 그리고 미국 보스톤 주변 여러 교수들의 논문집(영문판)을 다운받는 것도 가능하다.



제 4권 차례

1. 창조(이렛 날)-----창세기 2장 1-7절-----	11
2. 카인과 아벨-----창세기 4장 1-5절-----	25
3. 바벨탑 이야기 -----창세기 11장 1-9절-----	40
4. 아브라함과 천사들-----창세기 18장-----	54
5. 이삭과 아비말렉-----창세기 26장 1-33절-----	71
6. 야곱의 귀향-----창세기 35장-----	87
7. 요셉의 아들들----창세기 48장, 50장 22-26절-----	104
8. 파월절-----출애굽기 12장-----	120
9. 르비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출애굽기 17장-----	138
10. 금 송아지-----출애굽기 32장 1-24절-----	154
11. 아론의 가지-----민수기 17장 16-28절-----	170
12. 길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여호수아 5장-----	185
13. 거룩한 땅의 분할-----여호수아 18장 1-10절-----	202
14. 판관 삼손-----판관기 14장-----	217
15. 왕을 요구하는 백성-----사무엘상 8장-----	233
16. 아각 왕을 살려둔 사울----사무엘상 15장-----	248
17. 다윗과 예언자 나단----사무엘하 12장 1-25절-----	265
18. 솔로몬의 최후----열왕기상 11장 1-13, 26-43절-----	280
19. 엘리사와 나아만----열왕기하 5장-----	296
20. 시드키야와 예레미야--열하24장,25:1-12;예야 21장-----	311
21. 말씀에 관한 시편-----시편 119편-----	328
22. 벨사살 왕의 잔치-----다니엘 5장-----	353
23. 사자굴에서의 다니엘-----다니엘 6장-----	370
24. 성전 재건에 관한 예언-----즈가리아 4장-----	385
25. 요나와 아주까리(박넝쿨)-----요나 3,4장-----	400
26.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요한복음 1장-----	416

27. 가나에서의 기적-----요한복음 2장 1-11절-----	433
28. 주님과 니고데모-----요한복음 3장 1-21절-----	450
29. 야곱의 우물가에서의 주님---요한복음 4장 1-42절-----	465
30. 베짜타 못-----요한복음 5장 1-16절-----	483
31.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요한복음 9장-----	500
32. 선한 목자-----요한복음 10장-----	517
33. 다시 살아난 라자로-----요한복음 11장 1-46절-----	534
34. 종려주일(4)-----요한복음 12장 12-50절-----	551
35. 포도나무의 비유-----요한복음 15장-----	568
36. 부활절(4)-----요한복음 20장-----	583
37. 여자와 용-----요한 계시록 12장-----	600
38. 두 짐승이 정복되다-----요한 계시록 13장, 19장 11-21절---	615
39. 요한의 환상의 끝-----요한 계시록 22장 8-21절-----	631
40. 새 교회의 날-----요한 계시록 21장 1-12절-----	645

1

창조 - 이렛날

머리말

성경에 기록된 자연계의 창조의 목적을 간략히 설명하고, 성경의 첫 번째 책의 첫 구절을 강조하면서 육일간의 창조를 재조명한 후 이렛날을 살펴보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2장 1-7절

2장: 1. 이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2. 하나님께서는 엿새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3.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로 지으시고 이렛날에는 쉬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4.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순서는 위와 같았다. 야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였다. 5. 땅에는 아직 아무 나무도 없었고, 풀도 돌아나지 않았다. 야훼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던 것이다. 6. 마침 땅에서 물이 솟아 온 땅을 적시자 7. 야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교리 요약

- * 우리가 주님께 관하여 인식해두어야 할 첫째 사항은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이심이다.
- * 말씀은 인간의 발달에 관한 것으로 시작된다.
- * 거듭남은 점진적인 과정이며 어떤 질서에 의거한다.
- * 하나님을 아는 능력은 마음의 보다 높은 평면에 해당되며, 그 능력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되게 해준다.
- * 휴식이라는 안식의 상태는 주님의 진리를 배워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서만 달성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앞서 살펴보았듯이 창세기란 시작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되는 첫 번째 말씀은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이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저절로 생겨난 것이 없다. 하느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다. 따라서 주님께서 성서의 마지막 장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라고 하시는 것이다. 다시 확인해 두어야 할 사항은 성경이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 여러 권의 책으로 쪼개 졌으나 그 책의 진정한 저자는 주님 한 분이시며 그것이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이다.

창조의 이야기는 “빛”이 마음속에 나타나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발달되는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위해 주어진 경이로운 비유이다. 우리 모두는 무지에서 인생의 여정을 시작한다. 이것이 1장 2절의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라는 구절에 담긴 내용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진리를 배우며 그대로 살아가는 긴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그분의 영을 받게 되며,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분을 신뢰해 가면 언젠가 신뢰 또는 그분께의 순종을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행복한 심정 상태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속의 이기적인 마음이나 세속적인 욕망을 극복해 낼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시험에 따르는 투쟁이 없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안식 날의 쉼이 의미하는 바다.

일주일 중 쉬게 되는 이렛날은 주님에 의하여 거룩한 날로 정해졌다. 그 이유는 이 날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규칙적으로 쉬며 변화해야 한다. 더욱이 이 휴식은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일요일이라는 날을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즐기는 날로 착각한다면, 주일은 우리속의 모든 이기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활성화되어 이것들이 여느 다른 날보다 더 극성을 띄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할 사항은 우리의 영혼이 쉼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완벽한 본모습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행동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는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도 가르치시며 병을 치유해 주셨고, 안식일에 제자들과 들판을 걸으시며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셨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안식일에 관한 한 가지 간략한 규율을 주고 계신다. 즉 “안식일 에라도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주일을 “선을 행하는

날로”,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그분으로부터 배우는 날로” 그리고 “나의 욕심을 잊고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를 실천한 후에는 주님께서 본문 2장 3절에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고 안식일에 대하여 적어 두신 이유를 어떤 이의 설명이나 조언 없이도 깨닫게 될 것이다.

제 1반

진정한 행복은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된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 때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본문이 기록된 책을 성서 또는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이 책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된 내용은 주님과 천국에 관한 것과 그분께서 항상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책인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는 여러 권의 책들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가 방대한 내용을 담은 짧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그 이야기들 곳곳에서 우리의 인생에 관하여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엿볼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을 창세기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Genesis 라고 부른다. 이는 시작을 의미하며, 세상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로 출발한다. 이 출발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둘째 날에 아래 물로부터 윗물을 갈라놓으심으로써 하늘과 땅을 분리시키셨다. 그분은 셋째 날에 더 낮은 물을 바다로 모으시고, 지상에 푸른 움과 낱알을 내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가 돌아나도록 하셨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이 나타났다. 다섯째 날에는 고기와 새들이 창조되었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다. 그 다음 본문으로 이어진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일곱째 날에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 * 제 2장 3절에 근거하여 주님께서 일곱째 날을 다른 날에서 따로 떼어 두신 까닭은 무엇인가?
- * 이렛날은 어떻게 다른가?
- * 우리는 이렛날을 어떻게 부르는가?
- * 이렛날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어야 하는가?
- * 우리가 이렛날에 특별히 신경 써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제 2반

진정한 안식일이 토요일인지 아니면 일요일인지를 알아보는 기회를 가져본다. 그리고 성경의 참고 문헌을 인용하여 안식일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다음의 질문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억을 재고해 보자.

- * 우리는 성경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가?
- *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누구인가?
- *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 * 이 책은 크게 무엇으로 둘로 나눌 수 있는가?
- * 성서의 첫 번째 책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왜 성경의 첫 책을 창세기라고 부르는가?
- * 창조는 며칠 동안 있어졌는가?
- * 몇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었는가?
- * 마지막 창조는 무엇이었는가?
- * 사람은 동물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 * 사람은 무엇을 지배하게 되었나?
- * 주님께서는 이렛날에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쯤은 상식으로 알고 있다. 우리 모두는 쉬고 잠을 자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때로 우리는 자신의 일상적인 활동으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에게 지루한 일이 되어 우리의 마음은 모든 즐거움을 잃게 되며 결국 우리의 육체마저 헐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육체에게 정기적인 휴식과 변화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마음 역시 그러하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이것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 이렛날을 쉬는 날로 정하시고 다른 날에서 따로 떼어 거룩한 날로 정하셨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이 만든 창조물을 위해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분이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안식일이 어느 요일이냐에 대해 토요일이 주님께서 따로 떼어 두신 안식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으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간략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에 있어서 일주일의 시작이 일요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경시하는 사항 중 하나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은 주님께서 안식일의 법을 사람에게 처음 주신 뒤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야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안식일은 지금의 달력상의 요일과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서 육일은 일하는 날이요 하루는 거룩한 날로서 쉬는 날로 규정하셨을 뿐이기 때문이다. 단어 안식일은 영어로 Sabbath라고 쓰는데, 이는 히브리어의 쉼이라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안식일로서 토요일을 지켜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인들은 일요일 즉 달력에서의 첫날인 일요일을 안식일로 선택했다. 그 이유는 그날이 “주님의 날”이며, 그 날에 주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일어 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주일에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과 토론해 본 경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토론이 되는 까닭은 주님께서 거룩한 날로 정하신 이 날에 대한 각자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토론을 하기에 앞서 성별함 또는 거룩한 날로 정하심이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Sanctified란 “거룩하게 만듦”이라는 뜻을 먼저 인지해 두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신약성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그분이 세상에 계셨을 때 안식일에 행해야 하는 것들에 관하여 바리사이파인들과 그분의 견해가 달랐다는 것과 그분께서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그들에게 지적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본보기를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일에 해야 할 것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우선 누가복음 4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이 구절과 같이 우리는 교회와 성경공부에 참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타인을 마땅히 도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주시는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분의 본보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는 주일에 우리의 친구나 이웃과 같이 먹고 같이 걸으며 대화하는 것이 지당하다는 것이다.

이제 마태복음 12장 1-8절을 읽어보자.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일반적인 법을 주고 계시며, 주일에 관하여 우리의 마음에 늘 간직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심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즉 “안식일이라도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다. 우리의 영혼에게는 이렇게 쉽니 있는 날이 매우 필요하다. 그 이유는 여기서의 쉽니란 육일 내내 자신의 욕구를 채워 보려는 이기심과의 투쟁에서 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날로 되어져가야만 한다. 그 이유는 모든 행복이 바로 이타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이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러한 마음은 주님에게서 문을 닫게 되어 그분의 사랑이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그 마음이 행복해질 수 없음이 당연하다. 주일은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이 주님을 향해 활짝 열려 있는 날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뜻을 더 많이 배워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 3반

본문의 일반적인 영적 의미만 언급하고 세부사항은 생략한다. 대신 natural, spiritual 그리고 celestial이란 단어의 의미를 다뤄본다.

우리가 창조 이야기에서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사항은 먼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창조하시되 어떤 질서에 따라 점차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창조의 순서를 순서대로 기억해 두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 맨 먼저 창조된 것은 하늘과 땅이었고, 이후 빛이 주어져서 뒤에 창조되는 모든 것을 인도하게 하셨다는 것이 제일 처음 언급된다. 이후 물이 바다로 모여 마른땅이 드러나서 풀과 과일나무가 나타났지만 살아있는 창조물은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살아있는 창조물이 창조된 순서는 고기, 새, 동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었다. 특별히 인간이 동물과 다르게 창조된 까닭은 인간이 하느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땅과 땅위의 창조물을 정복하도록 명하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창조의 이야기와 더불어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첫 번째 사람이 교회로 발달되어 가는 과정과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이 전적으로 자연적이며 세상적인 존재로부터 영적이며 천국적인 존재 곧 진정한 인간 존재인 하느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본문은 창조 이야기의 마지막 단계인 이렛날에 관한 것이다. 우선 2장 1-3절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이렛날은 쉽이 있는 거룩한 날 곧 안식일로 정하심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글자 그대로 읽어보면 매주일 있게 되는 일곱째 날이 쉬는 날이라는 교훈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주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알고 계신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곱째 날을 쉬는 날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쉽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렛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이 날이 단순히 쉬기만 하는 날이 아니라 거룩한 날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주님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병자를 치료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들판을 걸으셨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셨다. 이는 주일이 우리가 교회 예배나 성경 공부시간에 참석하는 날이라는 의미이고, 가능하다면 타인을 도와주며 친구나 친척들과 함께 즐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일은 우리속의 이기적인 사고나 감정들을 한쪽으로 밀쳐버리는 날이며, 그분에 관하여 더욱 배우며 그분께 예배함으로써 스스로에게 행복을 만들어 주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에서 복이란 곧 행복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안식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아주 간단한 규율을 바리사이파인들에게 주셨다. 이 규율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있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말씀이다.

이제 본문의 내적인 의미를 헤아려 보기로 하자. 내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이렛날은 첫 사람 창조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천적”인 교회를 상징한다. 창조 또는 우리 영혼의 발달의 마지막 상태인 천적인 심정 상태는 주님의 진리를 배우려고 노력하면서 순종해가면 누구라도 달성 가능한 상태이다. 그리고 안식일의 쉽은 단지 일에서 손을 놓는 것만이 아니라 시험과의 투쟁이나 걱정근심으로부터 쉬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상적인 상태는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분의 뜻을 행함을 사랑할 때와 그 행함 자체를 즐겁게 여기는 상태에 이르게 될 때에 도달되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용어들이 있다. 그것은 “천적 (celestial)”이라는 단어와 “영적 (spiritual)”이라는 단어이다. 천적인 상태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에 근거를 두고 자발적으로 의를 행하는 상태를 뜻하고, 영적인 상태란 우리가 말씀에서 배운 진리들에 의거하여 이웃을 사랑함에 근거를 두고 의를 행하는 상태를 뜻한다. 모든 교인들은 크게 구분하자면 위의 두 부류로 살펴볼 수 있다.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공부하는 가운데 특별히 기억해 두어야 할 사항은 우리가 천적 혹은 영적인 마음상태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가장 낮은 단계인 자연적인 또는 세상적인

상태로 태어나서 영적인 상태를 거쳐 천적인 상태로 발전하게 된다.

우리는 흔히 선의지를 품고 있으면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이 올바르며 설령 남을 해치는 일을 했다할지라도 호의를 갖고 행했으므로 용서될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은 우리의 자연적인 곧 타고난 상태의 선한 의도는 우리에게 선과 악을 가름하는 지침을 줄만큼 현명한 안내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며 말씀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스스로의 느낌과 사상을 고쳐나가야만 한다. 우리는 모두 자연적인 즉 세상적인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 말은 우리의 타고난 느낌이나 생각들은 가시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시작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진리에 의거하여 자신의 사상이나 느낌을 고쳐가게 되면,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거둬나게 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우리가 위와 같은 노력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참 목적으로 삼고 열심을 낸다면,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게 되며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적인 사람이 된다. 그리하여 그동안 우리를 슬하게 괴롭혀온 우리속의 자연적인 사람이 원하는 것과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 사이의 몸부림이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게 행해지느라, 즉 행함을 사랑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의 마음상태가 안식일의 쉼에 해당된다.

본문 4-7절에서는 창조 이야기 전체가 함축되어 있다. 즉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천국적인 것과 지상적인 것에 관한 주님의 창조가 시작되어 인간이 “살아 있는 영혼”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가장 바깥부분에서부터 가장 안쪽 부분까지 다 채우시는 모습인 것이다.

제 4반

주님의 뜻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부단한 노력과 더불어 육일간의 창조 과정과 쉼의 안식일이 우리의 전 인생을 걸쳐 있게 됨을 강조한다.

본문은 창조이야기의 완성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창세기 2장 4-7절에 함축되어 있다. 하늘과 땅이란 우리가 가진 자연적인 사람이 되는 능력과 영적인 사람이 되는 능력을 뜻하고, 육일간의 창조란 우리속의 자연적인 능력이 교육되어져서 영적인 능력 밑에 복종됨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질서의 체계를 갖추어 가는 과정으로서 한마디로 거둬나가는 과정을 뜻한다. 제 7절은 이에

대하여 한층 더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다. 진흙이란 우리속의 자연적인 수준의 능력을 상징하며, 이러한 자연적인 속성이 발달되는 때가 곧 주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는 때인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셨다.” 이는 우리속의 자연적인 사람이 주님께 관한 지식과 그에 따른 믿음을 획득하는 시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은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란 우리의 전 인생이 주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되는 때를 의미하며, 이것이 곧 진정한 사람의 의미이다. 또한 창조 이야기는 첫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 즉 태고교회로의 발달되는 과정도 그려주고 있다.

이렛날의 쉼은 거듭남 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그려주되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쉼이란 천적인 수준에 도달됨을 의미한다. 우리 속에 천적인 사람이 살아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진리에 따라 행동해야하는 바른 생활이 힘겨워서 몸부림치거나 그로 인해 고통 받지 않게 된다. 그 이유는 올바르게 행동함이 곧 우리의 행복이 됨과 더불어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 때문이다. 태고교회는 천적 수준의 교회여서 그 교회에는 진리에 대한 직접적인 지각력이 주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태고교회도 그러한 높은 수준에서 하향하기 시작하자, 즉 그들의 의지가 악용되어 가자 그들에게 주어진 진리에 대한 지각력이 거둬지고 말았다. 이렇게 천적인 높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지상에 사는 인간들의 한계인 것이다. 그러나 천적인 상태야말로 우리가 분투에 노력을 더하여 이뤄야만 할 높은 이상이며, 우리 삶을 충분히 신실하게 엮어 가노라면 달성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적인 상태를 이루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뤄지거나 1-2년 사이 혹은 한번 참석한 부흥집회의 감명으로 딱딱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전 인생에 걸쳐서 아주 조금씩 이뤄져서 변화된 듯 여겨질 때도 있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듯 느껴지며 얄치락뒤치락하는 인생사를 통해서 시나브로 진행되어 진다. 안식일인 이렛날 이전의 육일의 창조가 바로 이러한 과정에 대한 자세하면서 상징적인 묘사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28장 10절에서 “명령에 또 명령을, 명령에 또 명령을, 규칙에 또 규칙을, 규칙에 또 규칙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쉼의 안식일은 오로지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된다. 성경의 글자상의 의미나 성경의 내적 의미에서 이 쉼의 확실한 것은 말씀에서 휴식이라는 것이 단지 게으르게 빈둥거리며 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안식일 또는 이러한 마음상태란 이기적인 생각과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의 성취를 위해 앞 뒤 가리지 않고 하던 투쟁을 이 날만은 한쪽으로 미뤄두고 전 심령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전심전력을 해야 하는 날이란 뜻이다. 주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어서 막연히 쉬는 날로 여기며 세월을 보내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더 지당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삶의 진정한 규칙은 “악행을 중지하고 선행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이 축복되고 거룩한 날로 정해진 것은 우리가 이 날에 악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선을 잘 행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리새이파인들은 안식일에 관한 많은 금지 사항을 더해놓아서 사람들에게 그 날을 아주 힘겨운 날로 만들고 말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함은 타당하다.”라는 말씀으로 이러한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금지사항들을 싹 쏘아 내셨다. 안식하는 상태란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마음상태이지 소극적이고 음성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주님께 관하여 배우는 것과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타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태초에 섭리해두신 가장 이상적인 상태 곧 천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제 5반

성경에 관한 간략한 소개 더불어 창세기 제 1장을 다시 한 번 읽어 본 후 일곱째 날이 지나는 역사상의 의미와 그 영적인 의미를 살펴본다.

우리는 매 해 성경공부를 다시 시작할 때마다 창조이야기를 거듭하여 읽게 되며, 그 때마다 그 이야기의 범위와 중요성에 한층 더 깊은 인상을 갖게 된다. 창조이야기의 근본 가르침은 만물이 주님께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과 우주에 신성한 질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단순한 고등동물이 아니라 천국적인 가능성을 지닌 창조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모든 창조물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우리가 인간으로서 소망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천국적인 평화와 행복중의 하나이어야 하는 것이다. 창조 이야기에는 좋고 유용한 것만 나타난다. 우리는 이를 31절의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며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두 좋은 것뿐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창조의 이야기들을 영적인 의미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다시 읽게 될 때 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한층 더 깊은 교훈을 주게 된다. 인간 영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의 이야기 속에 주님의 질서대로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창조의 이야기는 개인 혹은 인류로서의

우리의 형상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 즉 가장 높은 경지로의 도달 가능성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에 따르면 안식일의 신성한 제정이 창세기 2장 2-3절에 있다고 한다. 즉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스웨덴북에 따르면 안식일은 사실 태고 교회에서부터 있어 온 주님의 질서였다고 한다. 인간을 만드신 주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다. 우리의 신체는 반복되는 일과로부터 7일에 하루쯤은 쉬어야 하며 변화 또한 필요로 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은 쉼과 변화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7일 중 하루라도 우리의 생각을 세상적인 관심사로부터 위로 들어 올려 내적으로 강해짐을 예배와 성서 그리고 교육과 명상 등을 통해 갱신해 가야 한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렛날에는 쉬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안식일의 신성한 제정에 관한 이와 같은 간단한 서술에는 어떤 꺾끄러운 느낌이나 금지에 관한 어떤 암시도 없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 자신을 발달시키고 있다면, 우리는 안식일에 관하여 어떠한 문제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안식일은 ‘기쁜 날’”이라고 암시하는 바대로 안식일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에서 안식일을 깨트림과 모독함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문들을 주는 까닭은 인간이 그들에게 주어진 바른 길에서 이탈함으로써 엄숙한 안식일의 준수가 사라지게 되어 인간이 세상의 것과 이기심에 잠기게 되면 하느님과의 접촉을 잃게 되어 결국에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한때 청교도인들이 안식일을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진 날로 만드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는데, 우리는 이와 비슷한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바리사이파인들이 주님의 율법에 자신들의 해석을 덮어 씌워 놓아 그것을 무겁게 만드는 것에서 엿볼 수 있다. 복음서에서는 바리사이파인들이 주님에게 안식일의 규정을 깨트리고 있다고 역지를 쓰는 모습과 이로 인해 그분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당신임을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참석하심으로써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며 제자들과 걸으시는 것을 보이심으로써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가르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으로 안식일에 대한 참된 법을 요약하여 주신다.

이제 본문이 가진 속뜻을 살펴보기로 하자. 「천국의 신비」 제 83과 84항에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것은 인간이 옛날이 되었을 때인데, 그때서야

믿음이 사랑과 [인간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믿음과 사랑이 이룰 때 그는 영적인 원리에서 그치지 않고 천적인 원리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하여 천적인 사람이 되어 간다. 이러한 천적인 사람이 ‘이렛날’인데, 주님이 옛세 동안 일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일’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전투가 중단될 때 주님께서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쉰’것으로 말해지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태고 교회의 발달이 본문의 속뜻을 통해서 묘사되고 있는데, 이 교회가 바로 천적인 교회이다. 이 교회는 주님을 사랑함이 심정을 통치하면서 내적인 지각을 통해 진리가 주어질 수 있었던 교회이다. 따라서 그들은 외적인 경로를 통하기보다 내적인 경로를 따라 진리를 받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범하기 쉬운 실수는 이러한 첫 교회속의 첫 사람들 또한 창조 이야기에서 있는 각 날로 표현된 영적인 발달의 단계들을 모두 거쳐서 영적인 사람이 된 후 다시 천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거듭남 역시 이와 같아서 창조의 이야기에 묘사된 바대로 진행된다. 그리고 우리가 신실하다면 천적인 경지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그 가능성의 진정한 실현은 우리가 이세상의 삶을 끝내기 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육신을 지는 상태에서는 참된 영적인 경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은 스웨덴보의 저서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의 허락하심을 통해서 천적인 상태를 맞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신속의 어떤 특별한 악인 못된 버릇을 인식해서 주님의 도움으로 싸워가다 보면 그 악이 더 이상 자신을 충동질하지 않는 지점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 악의 경우에 국한해서 볼 때 쉽의 상태인 안식일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가 인식하고 싸워야 할 우리 안의 악은 끝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서 새로운 진리를 배우려고 꾸준히 노력할 때만이 우리속의 악을 더욱 잘 인식할 수 있고 싸워나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영적인 발달을 위한 완전한 안내자가 결코 되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삶 속에서 스스로의 양심을 계속적으로 교육시키며, 그것을 올바르게 잡아가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발달시켜 가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 없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진보도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쉽의 상태인 안식일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안식일에 있게 되는 쉽이란 ‘할 일이 없다’ 혹은 ‘게으르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시험에서의 투쟁을 쉰다는 의미이다. “이렛날에는 쉬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라고 말해지는데, 우리는 행복이 자아를 잊는데서만 비롯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관해 배우고 그분과 더불어 이웃을 섬기려 할 때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이타적인 사랑의 유입이 가능해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정기적인 예배와 교훈 그리고 이타적인 섬김을 위해 안식일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쉽이라는 천적인 상태를 달성하는 것에 우리를 도와주는 최상의 보조자가 될 것이다. 안식일을 “선을 행하는 날”로 사용하여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만들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 스웨덴borg의 저서에서 (From the Writings of Swedenborg)

『천국의 신비』 제 82-83항: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은 인간이 이제 ‘엿새날’에 도달될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하늘’은 인간 속성 중 내부적인 부분을 그리고 ‘땅’은 외부적인 부분을 의미한다. ‘그 속의 모든 것’인 사랑과 믿음 그리고 그에 관한 지식들은 큰 발광체와 별들로 의미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보았다. ‘하늘과 땅’ 둘 다 인간의 속성을 묘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비록 하늘과 땅이 태고 교회에 관해 우선적으로 언급해진다고 할지라도 말씀의 내용들이 어떤 교회를 의미하게 되면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개개인도 포함하는 것이 말씀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스스로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의 일부가 되지 못하는 바, 주님의 성전이 없는 사람이 성전이 된다. 즉 [이러한 사람은] 교회나 천국에 의해 의미 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태고 교회는 ‘사람’으로 불려진다.”

“‘하늘과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지는 바, 이는 인간이 ‘엿새날’이 되었을 때이다. 그 때에야 사랑과 믿음이 [인간 안에서] 하나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때 믿음이 아닌 사랑이, 다른 말로 영적이 아닌 천적인 원리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해지기 시작한다. 이리하여 [그는] 천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우리는 어떤 책을 공부하는가?
- 2) 이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
- 3) 성경의 첫 권은 무엇인가?

- 4) 창세기란 무슨 뜻인가?
- 5)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는가?
- 6) 창조 첫날에 무엇이 세상에 주어졌는가?
- 7) 몇 일만에 창조가 완료되었는가?
- 8) 본문 속의 “날, day”은 24시간이라는 하루와 같은가?
- 9) 주님의 마지막 창조는 무엇인가?
- 10) 사람은 동물과 어떻게 다른가?
- 11) 인간에게 무엇을 정복하라고 했는가?
- 12) 창조가 끝나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그분은 이렛날에 무엇을 하셨는가?
- 14) 그분은 이렛날을 다른 날과 어떻게 구별되게 하셨는가?
- 15) “복 있다”란 어떤 뜻인가?
- 16)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동안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는가?
- 17) 그분 스스로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는가?
- 18) 천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19) 영적으로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질문의 답

- 1) 성전 2) 하느님 3) 창세기 4) 시작 5) 한 처음에... 6) 빛 7) 6일
- 8) 아니다 9) 사람 10) 하느님의 모습 11) 모든 땅 12) 참 좋았다 13) 쉬셨다
- 14)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15) 행복하게 만듭 16)선
- 17) 예배드리며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며 친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심
- 18) 1. 사랑으로부터 의를 행함 2. 진리에 의거 의를 행함
- 19) 시험과의 투쟁에서 쉽

2

카인과 아벨

머리말

에덴의 동산을 재고하면서 공부를 시작한다.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이유와 그로 인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는 것 등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4장 1-15절

4장: 1. 아담이 아내 하와와 한 자리에 들었더니 아내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외쳤다. “야훼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2. 하와는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카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3. 때가 되어 카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야훼께 예물로 드렸고 4.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만배의 기름기를 드렸다. 그런데 야훼께서는 아벨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시고 5. 카인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시지 않으셨다. 카인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야훼께서 이것을 보시고 6.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느냐? 7. 네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에 굴레를 씌워야 한다.” 8. 카인은 아우 아벨을 “들로 가자”고 피어 들에 데리고 나가서 달려들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9. 야훼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카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잡아떼며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10. 그러나 야훼께서는 “네가 어찌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고 하시면서 꾸짖으셨다.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11. 땅이 입을 벌려 네 아우의 피를 네 손에서 받았다. 너는 저주를 받은 몸이니 이 땅에서 물러나야 한다. 12. 네가 아무리 애써 땅을 갈아도 이 땅은 더 이상 소출을 내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13. 그러자 카인이 야훼께 하소연하였다. ”벌이 너무 무거워서, 저로서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14.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아주 쫓아 내시니, 저는 이제 하느님을 뵙지 못하고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15. ”그렇게 못하도록 하여 주마. 카인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일곱 갑절로 벌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훼께서는 누가 카인을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표를 찍어 주셨다.

교리요점

- * 주님은 미래를 알고 계시며 미래를 위해 준비해두신다.
- * 태초의 사람들은 자연속의 만물에 대한 상응을 알고 있었다.
- * 마음속에 사랑이 있지 않으면 주님을 예배함에 선함이 없게 된다.
- *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순종할 때 우리 안의 모든 사랑이 주님에게서 오게 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지상에 창조된 첫 사람들이 이렛날로 그러지는 단계에 도달되자 그들은 첫 번째 위대한 “교회”, 즉 태고교회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날의 우리와는 매우 달랐다. 그들은 이 세상 것에는 별 관심 없이 천국과 매우 가깝게 접촉하면서 늘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보호와 인도를 의존하고 살았다. 이는 마치 갓난아기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과 같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살았던 아름다운 상태를 동산으로 그려서 에덴의 동산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설화에서는 이를 황금시대라고 한다.

에덴의 동산에는 동산의 한 가운데에 주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열매를 가진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리고 뱀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여 주님의 지혜를 의심하게 했고, 금지된 열매를 먹도록 그들을 꾀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우리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마음 상태를 상징하고, 뱀이란 물질세계의 것만을 우리에게 사실처럼 보여주는 오감을 상징한다.

아담과 이브가 주님대신 뱀에게 귀를 기울여서 금지된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그들은 동산 밖으로 추방되었다. 어린이는 무언가를 새로 알거나 이루게 될 때 스스로가 부모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나 하고 착각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어린이는 유아기 시절에 지냈던 행복하며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하는 마음상태를 상실해 간다. 이러한 상실이 바로 성경에서 쫓겨남 또는 추방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것이다. 누군가가 “이세상이 모든 것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선언한다면, 그는 천국적인 행복인 높은 곳으로부터 아래를 향해 줄달음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아담과 이브가 동산 밖으로 쫓겨난 후 그들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났다. 카인과 아벨은 각기 믿음과 이타애를 상징한다. 믿음이란 이해성으로 주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타애란 마음으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둘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함께 일하며 서로 도와야 하는 형제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인도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 이 둘은 분리된다. 이렇게 믿음과 이타애가 분리되면 주님에 대한 믿음은 단지 “입술로만 섬김”이 되어 버린다. 이것이 카인의 제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안의 모든 순수한 사랑은 죽어 간다. 그 이유는 진실로 이타적인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배우며 순종할 때 그분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주님은 아우인 아벨을 죽인 후에도 카인이 파멸되는 것을 허용치 않으셨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설사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만 말하거나 형식적인 예배라도 바치는 동안은 그런 형식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자기반성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하고 주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이다.

제 1반

에덴의 동산과 추방 그리고 뱀 등을 간략히 살펴본 후 자기 고집으로 돌아감이 카인의 기절임을 설명한다.

성경은 이 땅의 창조와 지상의 모든 것이 창조 된 후 인간들에게 살도록 주어진 에덴의 동산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첫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에덴의 동산에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들에게 하지 말도록 명령된 한 가지 것도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첫 사람들, 즉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 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결코 하지 말라고 하는 일, 즉 저지르게 되면 반드시 나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그것을 부모 모르게 해 보고 싶은 충동을 갖는 것과 흡사하다. 아담과 이브는 주님께 불순종했다.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는

대신 자신의 것을 위하여 아름다운 동산을 떠나야 했고 고되게 일을 해서 삶을 꾸려야만 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된 지 얼마 후 두 아들을 가졌다. 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본문이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첫 부분을 경청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본문에서의 두 형제 모두는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했다. 카인의 제물 또한 아벨의 것만큼 좋은 것이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알고 계신다. 그분은 카인이 선한 척만 했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다. 즉 카인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가 자기 마음속에 가진 느낌이란 아우에 대한 시기심이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사랑을 담고 있다면, 우리는 타인을 해치려하기 보다는 그들을 돕고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아담과 이브의 첫아들은 누구인가?
- * 둘째 아들은 누구인가?
- * 카인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 * 아벨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 * 그들은 주님께 어떤 제물을 가져왔는가?
- * 왜 주님께서 카인의 제물을 반기지 않으셨는가?
- * 그래서 카인은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 * 카인은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알고 있었는가?
- * 주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카인에게 물으셨을 때 카인은 뭐라고 대답했는가?

제 2반

에덴의 동산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재조명한 후 에덴의 동산을 한 폭의 그림처럼 마음에 담아두도록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인류의 영적인 역사와 우리의 영혼이 발달되는 것에 관한 비유임도 설명한다.

우리는 에덴의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의 비유임을 알고 있다. 주님은 아담과 이브 그리고 아름답고 열매가 풍성한 동산을 통해서 그분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한 사람들 사이에 형성된 첫 교회, 즉 태고 교회인들의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마음 상태를 묘사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듭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삶의 진정한 것을 주님께에서 배우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그분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게 되는 곤경은 아담과 이브처럼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보다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데서 시작된다. 그 결과 우리는 제일 먼저 부모에게, 선생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께 불순종하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는 인생을 “어려운 길”로 배워가게 된다.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의 불순종이 또 다른 불순종을 야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 난 뒤 그들은 카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가졌다. 우리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읽다보면 주님께서 불공평하시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한다. 그 이유는 카인과 아벨이 바친 두개의 제물은 각기 달랐지만 각자가 최선의 것을 드렸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각 제물이 실제로 무엇을 표현하는지는 차후 더 공부하기로 하자. 성경은 두 제물의 차이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카인의 제물을 주님께서 거절하셨던 이유도 설명되고 있다. 7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우리는 본문에서 카인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부류의 인간인지를 스스로 드러낸 것 또한 엿볼 수 있다.

간혹 우리는 선한 척하려고 하는 때가 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 카인이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는 주님을 예배하는 척만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이기적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주님께 제물을 가지고 온 것은 주님의 호의를 사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요즈음의 사람들의 경우에도 종종 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 주님을 사랑함이나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의지가 마음에 없으면서 막연히 교회에 출석하거나 교회에 헌금을 바치는 일 그리고 자선을 행하는 일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카인처럼 명예를 얻거나 남들의 시선을 끌게 하는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타인이나 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이 원했던 것이 이뤄지지 않게 되면, 카인이 아우에게 달려들어 쳐 죽였듯이 타인에게 화를 내거나 심지어 타인을 다치게 하는 파국으로 치닫기도 한다. 카인의 인격은 간단히 표현하자면 과거 아담과 이브가 주님께 순종하는 대신 자신의 판단에 따르기로 선택할 때 취했던 잘못된 자세가 조금 더 나쁜 쪽으로 진전된 것이다. 카인은 주님도 사랑해야 하고 아우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카인이 당연히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능한 한 돕는 사람이었어야 함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문의 이야기는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뿐만 아니라 믿음 속에 있어야 하는 사랑도 갖지 않은 채 그분을 신뢰한다는 식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의 문제점을 묘사하고 있다. 사랑과 믿음은 형제이고 둘은 공존하며 함께 일해야만 한다. 사랑과 믿음 중 어느 한쪽이라도 파괴되면 불행이 당연히 뒤따르게 마련인 것이다. 카인은 아우를 죽인 벌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공포 가운데 살아야만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결코 정착하여 고향을 갖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기적이며 악한 사람들은 언제나 이러한 불행을 마음 깊은 곳에 지니고 있다. 설사 그들이 세상에서 눈에 띄게 번영하는 듯 보여도 그것은 변함이 없다.

주님은 카인이 살해됨을 허락지 않으셨다. 이는 카인이 믿음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실상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속의 이기심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되돌아 설 기회도 얻게 되며 궁극적으로 더 나은 것을 행할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에제키엘서 18장 23절을 읽고 본 반의 공부를 마무리 짓도록 하자. “그가 못된 행실을 한 자라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이라도 그 가던 길에서 발길을 돌려 살게 되는 것이 어찌 내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에덴의 동산과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세상은 며칠 동안 혹은 몇 단계로 창조되었는가?
- * 창조의 마지막은 무엇이었는가?
- * 사람은 동물과 어떻게 다른가?
- * 인간은 지상에 존재하는 다른 창조물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인가?
- * 이렛날에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 * 이렛날에 주님은 무엇을 따로 떼어 놓으셨는가?
- * 주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는가?
- * 안식일에 대해서 그분은 어떤 규율을 주셨는가?
- * 에덴의 동산에서 물은 어떻게 흐르고 있었는가?
- * 에덴의 동산의 강은 몇 줄기로 나뉘었는가?
- * 동산의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는가?
- * 주님은 두 번째 나무에 대해서 아담과 이브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 * 누가 주님께 불순종하도록 아담과 이브를 꾀었는가?

- * 그들은 어떤 벌을 받았는가?
- * 아담과 이브의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 누가 형인가?
- * 형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 * 동생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 * 카인은 어떤 제물을 주님께 드렸는가?
- * 아벨은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
- * 주님은 어떤 제물을 받기셨는가?

제 3반

태고교회 사람들이 선택의 자유를 이기적으로 사용한 결과가 믿음과 이타애의 분리임을 강조한다. 믿음과 이타애의 의미 그리고 이 둘이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필요함을 설명한다.

에덴의 동산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상당히 익숙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며 그분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그분을 자신의 인도자로 찾으며 만사에 그분의 지원을 받는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상태에 대한 상징으로 우리 마음에 주지되도록 그분께서 주신 비유인 것이다. 이것은 태고교회의 상태이며 천적인 천사들의 상태이기도 하다. 에덴의 동산은 창조의 목표로서 이렇날로 묘사된 상태의 발달을 더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거의 완전한 상태에서 살았던 태고교회인들이 행복한 상태에 계속해서 있지 못했음을 알고 있다. 그들 역시 주님의 축복을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적으로 갖게 된 것은 아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스스로의 추론 능력과 선택의 자유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이 정하여 주신 방향에 대해서 의혹을 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스스로 자신을 인도하고자 원했다. 이런 모습이 뱀에 의해 이브가 유혹 당하여 금지된 열매를 따먹는 이야기로 표현되고 있다. 그 다음 그들은 동산 밖으로 쫓겨났고 땅을 갈아서 생존하게 되었다. 그들은 스스로 인도해 가야만 했고, 과거의 행복하고 순진하며 평화스러운 상태는 없어져 버린 것이다. 이때로부터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 양식을 위해 땀 흘리며 일해야만 하게 된 것이다.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아담과 이브는 두 아들을 가졌다. 성경 전체를 망라해서 자녀의 출생은 선과 진리 혹은 악과 거짓에 관한 새로운 단계를 묘사하는데, 그들이 이 중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는

부모의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결정된다. 첫 사람들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는 하향했지만, 결코 악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인식하며 그분을 섬기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바램이 그들의 마음을 둘로 나뉘지게 만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인도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말씀 속에서 두 아들이 태어날 때, 하나는 항상 진리나 믿음을 표현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항상 선함이나 이타애를 표현한다. 믿음이란 우리의 이해성이 주님을 신뢰함이고, 이타애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이다. 이 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올바른 것을 배워야 함과 더불어 그것을 행하기를 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인과 아벨, 이 두 “형제”는 언제나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선택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할지라도 무엇이 올바른가를 배우려고 노력하지는 않음을 알고 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그것이 옳음을 스스로의 이해성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다. 본문의 이야기에서 카인은 믿음을 상징한다. 그래서 카인은 밭을 가는 농부였던 것이다. 밭이란 이해성을 상징한다. 아벨은 이타애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는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양은 순진하고 선량한 것에 애착하려는 마음을 상징한다. 카인과 아벨은 모두 각자 수고해서 얻은 열매를 주님께 제물로 드렸다. 주님은 아벨의 예물은 반기셨지만 카인의 것은 반기지 않으셨다. 상응으로 이를 이해하자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반기시나 우리의 이해성은 원치 않으심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기 보다는 그분을 무조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말씀 하신다. 주님께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는 우리가 실질적인 종교생활에 있어서 이해성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문에서 주님은 카인에게 “네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라고 꾸중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카인이 잘못된 것이 제물 그 자체가 아니라 제물 뒤에 있는 그의 마음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신앙심을 표현하게 되면 이타애 - 주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함 - 는 그들의 마음에서 살해되게 된다. 본문의 이야기에서 카인은 시기심으로 마음이 들끓었는데, 이는 오늘날 자기 본위인 사람들 가운데서 흔히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님께서 카인이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명확하게 답하고 계신다. 이 구절은 우리 자신의 신앙진술서에도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구절만큼은 알고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 구절이야말로 이기적인 욕망에 대항해줄 방어벽이기 때문이다.

믿음이 이타애에서 분리될 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올바른 것을 행함 없이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그들의 이해성은 굳건한 기초를 잃게 된다. 그 이유는 선하며 온유한 삶이 영혼의 진정한 고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영혼의 고향에서 내쫓겨져 실망과 자포자기로 방황하게 된다. 이것이 카인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도 카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다. 왜냐하면 믿음은 진리를 공부하여 받아들임을 의미하는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마저 없으면 우리는 자신을 인도하는데 자기 고유의 사상만을 갖게 되 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 어느 곳에 있는 믿음일지언정 항상 보존해 두심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음 구절을 외우면서 본과를 마무리 짓도록 하자.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복음 13:34-35).

기본 상응 공부

카인 = 믿음

아벨 = 이타애

땅 = 이해성 또는 마음

양 = 순진한 애정

제 4반

믿음과 이타애의 분리로 있게 되는 결과를 세상적인 측면과 교회 역사의 측면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참고 문헌 AC 363항을 읽고 이해의 폭을 넓히길 바란다.

카인과 아벨은 성경에서의 형제들 중 첫째에 해당된다. 성경에서 있어지는 모든 결혼들이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한 우리속의 바램과 생각이 하나를 이룰 때 이 둘은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 안에 결과들을

생산하게 된다. 남녀가 결혼해서 낳게 되는 아이들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결과에 해당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로운 바램들은 딸들로서 그리고 새로운 생각들은 아들로써 상징된다. 그리고 우리의 바램이 이해성 안에서 의식될 때는 의지속의 것들이 아들로써 상징되기도 한다. 그래서 형제는 항상 새로운 발달에서의 의지와 생각 측면을 상징한다.

본문의 카인과 아벨은 각기 신앙과 이타애를 상징한다. 카인과 아벨은 형제이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서로가 서로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진리가 그것에 따르는 삶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올바른 것을 행하고자 하는 바램이 무엇이 올바른지를 모른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앙을 표현하는 카인은 이타애를 상징하는 아벨보다 먼저 우리 속에서 태어난다. 그 이유는 우리 삶의 전반에 있게 되는 새로운 진보의 각 단계는 이해성으로 들어오는 사상 또는 새로운 지식을 통하여 먼저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웨덴복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각 진리 안에는 그것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의지를 주님께서 은근히 심어 주신다고 설명한다. 이것이 아벨의 출생 또는 이타애가 의미하는 바다. 그리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양심의 기초이기도 하다.

땅의 소산인 카인의 제물이란 우리가 이해성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필수적이며 올바른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받아들여진 진리에 따라 살아 주지 않으면 그 진리는 무가치해지고 만다. 아벨의 제물은 의지에 의한 수용을 상징한다. 주님은 카인에게 “네가 잘 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라고 꾸중하셨다. 선함이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바램이 그분으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온 진리에 따라 사는 것 이상 다른 것은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으나 그것에 따른 삶을 이루지 않을 때 본문에서 카인이 아우 아벨을 살해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안의 선의지를 해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카인의 벌은 망명생활이요 방랑생활이었다. 우리가 배운 진리를 삶의 지침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치욕이나 처벌이라는 두려움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기초가 없어져 끊임없이 방황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종종 신앙이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도 무조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널리 퍼져있는 이타애에 관한 정의는 가난한 자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새교회의 교리는 이에 대해서 아주 다르게 설명한다. 즉 신앙이란 우리 스스로가 진리라고 발견한 것을 믿는 것이요 이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타애란 자아대신 주님과 이웃을 섬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말하는 것이다. 신앙이란 우리가 그에 따라 살지 않으면 신앙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삶의 인도를 위해 주님을 찾고 모든

선을 주시는 분으로 그분을 인식치 않으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타애는 실제로 이타애가 아닌 것이다.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는 바는 신앙과 이타애의 분리가 오늘날의 우리에게서도 발견되지만 사실 그것은 오래 전 태고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브에 대한 뱀의 말이 의미하는 바를 재고해 보도록 하자: 인간이 주님께서 주신 진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 세상에 속한 현상적인 것들을 기초로 하여 있어지는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고자 결심하는 인간의 첫 기우러짐이 곧 태고교회가 하향하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다. 신앙과 이타애의 분리는 우리 삶의 인도하심을 주님대신 자아에게서 찾겠다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있게 되는 인과응보인 것이다. 뒤의 참고문헌은 이 분리가 그 후의 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제 5반

태고교회와 고대교회라는 두 “교회”의 차이점을 중심과제로 삼는다.

창조과정 중 이렛날은 태고교회 사람들의 천적인 상태를 묘사한다. 이 상태란 그들이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내적인 지각에 의해서 그분의 진리를 받을 수 있었다. 태고교회의 이러한 아름다운 상태는 에덴의 동산으로 한 걸음 더 진전되어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태고교회의 사람들은 이 상태에 머무는데 만족하지 않았다. 이러한 그들의 불만족이 그들 안에서 발달된 자의식이었고, 이것이 이브의 창조로 상징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자의식을 사용하면서 오게 되는 시험, 즉 주님의 진리에 대한 내적인 명령을 신뢰하는 대신 자기들의 육체적 감각을 통해 갖게 된 증거를 근거로 진리를 추론하려는 시험을 접하게 된다. 이것이 뱀에 의해 상징되고 있다. 그들은 결국 동산에서 추방되었다. 인간에게 자의식이 발달되고 ‘나’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면서 인간은 삶의 초기인 유아기에 있었던 순진하고 신뢰하는 마음상태를 상실하고 경험으로부터 배워야만 하는 고된 삶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우리는 말씀의 내적 의미가 설명하는 교회의 역사적 측면에서 태고교회이후 있게 되는 교회들의 특성들 가운데 이러한 영적 퇴보를 엿볼 수 있다. 카인과 아벨의 탄생 그리고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는 태고교회의 퇴보에 대한 기초가 되는 이야기인 것이다. 스웨덴북은 이에 관하여

“태고교회의 퇴보 또는 그 교회 교리의 왜곡됨 그리고 그 왜곡으로 인해 카인과 그의 후손들 밑에서 다른 이교도나 종파가 등장했다. 태고교회의 교리가 [카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왜곡된 과정과 태고교회의 이교도나 종파에 관한 것을 이해하려면 진정한 교회의 본성을 먼저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그 교회에 대한 고찰이 가능하다. 앞서 태고교회에 관하여 그 교인들이 천적이었고 그들의 믿음이 오로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밖에 없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이 사랑을 통해 주님께로부터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에 속하는 제반사항을 [내적인] 지각을 통해서 알았다. 이들의 경우가 오늘날의 우리들과 현저히 다른 점은 오늘날은 믿음이 이타애에 앞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타애는 여전히 믿음을 통해 주님께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서 이타애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고대교회 시대의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그 믿음을 사랑에서 떼어냈을 때 그 교회의 교리가 왜곡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교리를 왜곡 시킨 이들이나 믿음을 사랑에서 분리시킨 이들 또는 믿음만을 고백하는 이들을 일컬어 ‘카인’이라고 부른 것이다.”라고 말한다.

카인이라는 이름은 “소유함 또한 뭉가에 사로잡힘”이란 뜻이다. 카인은 믿음을 표현하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해성 속의 믿음이 자아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믿음으로서 이타애가 떨어져 나가버린 믿음을 말한다. 아벨은 이타애를 표현하는데, 이는 마음으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함을 말한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다. 양은 순진한 애정을 상징한다. 카인은 밭을 가는 농부였다. 밭이란 자연적인 상태의 마음을 상징한다. 「천국의 신비」 제 345항에서는 “육체적이고 지상적인 것들을 찾는 이들이 ‘밭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설명된다. 카인과 아벨은 주님께 제물을 드렸다. 제물이란 곧 예배를 상징한다. 스웨덴북은 카인과 아벨의 제물에 대하여 “‘땅에서 난 곡식’은 이타애가 결핍되어서 그 자체가 죽은 것 같은 믿음이다. 그 이유는 그 믿음이란 단지 외적인간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천국의 신비 #348). 양떼 가운데서 만배의 기름기를 바친 아벨의 예물은 사랑과 그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을 표현한다. 기름기란 ‘천적인 것 자체’를 표현한다.”라고 설명한다.

주님께서 카인의 제물을 흡족해 하시지 않으셨던 것은 성경의 이야기에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주님은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셔서 그분이 보시기에 카인의 마음은 “잘했다”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러한 카인의 마음 상태는 그가 아우를 죽였을 때 명백히 드러난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태고교회 이후의 상태가 함축되어 있어서 스웨덴북은 “믿음과 이타애가 동시에 믿음의 교리로 부터 있는 동안에 사랑이 분리된 믿음은 이타애를 무시한 결과 이타애를 소멸 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경우는 오늘날 믿음만으로 구원된다고 하면서 이타애의 어떤 일도 구원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이타애를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카인의 본심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라고 말한 그의 대답에 역력하게 표현되고 있다.

주님은 카인의 그러한 태도를 보시고도 카인이 파괴됨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 아벨을 쳐 죽임은 마음속의 순진한 사랑의 파멸을 의미한다. 사실 주님은 이 순진한 사랑을 이용하셔서 태초 이래로 인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제 그 섭리가 끝이 났다는 말이다. 여기서 주님께서 예견하신 바는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에게 닿을 수 있고 구원되도록 하는 새로운 수단이 발달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런 수단을 설비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상에서 계속되는 교회 가운데 천적인 형태는 오로지 태고교회 뿐이었다. 「천국의 신비」 제 393항에서는 태고교회에 대해서 “태고교회 사람들은 사랑에 속한 것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특성을 가진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언급하는 것조차도 반기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통해서만 믿음에 속한 것들을 지각했기 때문이다.”라고 기술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대로 태고교회의 인간들은 위와 같은 완전한 상태 속에 계속 머물지 못하고 믿음에서 주님사랑을 분리시켜 믿음 자체를 교리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믿음만이 인간들에게 남은 이상 그 속에서의 구원, 즉 믿음을 통하는 구원 혹은 믿음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인간은 주님으로부터 이타애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인간에게 먼저 있게 되는 것은 지식을 듣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이타애, 즉 이웃사랑과 자비가 주님께 의해 인간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타애는 믿음에서 결코 분리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근본이 되므로, 우리는 반드시 믿음과 함께 이타애를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태고교회 사람들이 가졌던 내적지각 대신 양심이 그 뒤를 계승했다. 양심은 이타애와 접합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형성된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진정한 것과 진정하지 않는 것 모두를 받는 특성이 있다. 게다가 주님이 말씀 속에서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특성도 있다. 하지만 설령 이타애가 없는 믿음일지라도 믿음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 이유는 인간이 자기의 이해성 속에서 하느님을 인식하는 한 믿음 속에 뭔가가 그 사람의 심정을 두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7-19절에 있는 방탕한 아들의 비유에서 보듯이 “제정신이 드는”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가 카인이 죽지 않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신 이유 중의 일부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340항: “ ‘카인’이라는 믿음을 가진 이들은 사물 자체만을 인정하고 인식한다. 이러한 믿음 이전의 사람들은 마치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과 같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에 속한 모든 것을 지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따로 떼어내 독자적인 교리로 만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지각으로 알았던 사물을 교리 안으로 밀어 넣고 그 사물을 ‘나는 사람, 여호와를 가졌다’라는 식으로 부르는 바, 마치 자기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이라도 한 듯 여겼던 것이다. 따라서 마음속에 새겨지기 전 존재한 것들은 단지 안다는 수준에 머물게 했던 것이다.”

「천국의 신비」 제 362항: “ ‘카인’이라고 불리는 믿음의 교리가 여기서 기술되고 있다. 이 믿음은 사랑에서 분리된 것이다. 그 결과 이 믿음은 사랑의 소산인 이타애와 분리된 것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곳은 어디든지 다른 의견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그 이유는 인간이 믿음속의 어떤 특별한 항목을 고집하는 한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속성은 인간사고의 본성이어서 많은 항목 중 어느 것 한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거나 자신이 그 항목을 발견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주장할 때 혹은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이 그를 부추길 때 그 사람은 더욱 완고하게 그것을 주장하게 된다. 이리하여 세상의 모든 것이 그가 주장하는 항목에 동의하고 확증되는 듯 여기게 된다. 그래서 설령 그 항목이 거짓일지라도 그 사람은 그것을 자신에게 옳다고 여기며 맹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카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믿음이 사랑보다 더 필요한 것처럼 만들었고, 그로 인해 사랑 없이 살게 되어 자아사랑이나 몽상까지 그 믿음에 합세하여 확증해주는데 이르렀다.”

질문 정리

- 1) 누가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했는가?
- 2) 이 창조는 며칠(단계)에 있어졌는가?
- 3) 마지막 창조는 무엇인가?
- 4) 이렛날에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 5) 이렛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6)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는 무슨 뜻인가?
- 7) 이렛날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일요일을 어떻게 사용하도록 가르치는가?

- 8) 성경의 어떤 이야기가 지상의 첫 교회 사람들의 상태를 그리는가?
- 9)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금한 것은 무엇인가?
- 10) 그들을 불순종하게 유혹한 것은 무엇인가?
- 11) 불순종의 벌은 무엇인가?
- 12) 본문의 이야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가진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13) 카인의 직업은 무엇인가?
- 14) 아벨의 직업은 무엇인가?
- 15) 그들은 주님께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 16) 누구의 예물을 반기셨는가?
- 17) 카인의 예물은 왜 거절되었는가?
- 18) 카인의 진짜 인격을 드러낸 행동은 무엇인가?
- 19) 그의 벌은 무엇인가?
- 20) 주님은 카인이 파괴됨으로부터 어떻게 해주셨는가?
- 21) 카인과 아벨은 각기 무엇을 표현하는가?
- 22) 카인이 아벨을 쳐 죽임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하느님 2) 6 3) 사람 4) 쉬셨다 5)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라
- 6) 행복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셨다 7) 다른 이를 행복하게 함, 예배드리는 날
- 8) 에덴 9)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10) 뱀 11) 동산에서 추방
- 12) 카인, 아벨 13) 농부 14) 목자 15) 곡식, 새끼 양 16) 아벨의 예물
- 17) 불성실 때문에 18) 아벨을 죽였다 19) 방황자 20) 표를 찍어 주셨다
- 21) 믿음, 이타애 22) 올바른 것을 행함 없이 단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함

3

바벨탑 이야기

머리말

노아와 홍수에 관한 간략한 내용을 서론으로 삼는다. 홍수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여 있게 된 인과응보였다는 것과 창조한 인류의 보존을 위한 주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노아의 구원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인간의 자만과 우둔함으로 인해 역사가 다시 반복되어 본문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설명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11장 1-9절

11장: 1. 온 세상이 한 가지 말을 쓰고 있었다. 물론 낱말도 같았다. 2. 사람들은 동쪽에서 올라오다가 시날 지방 한 들만에 이르러 거기 자리를 잡고는 3. 의논하였다. “어서 벽돌을 빚어 불에 단단히 구워내자.” 이리하여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 4. 또 사람들은 의논하였다. “어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데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5. 야훼께서 땅에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이렇게 세운 도시와 탑을 보시고 6. 생각하셨다. “사람들이 한 종족이라 말이 같아서 안 되겠구나. 이것은 사람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에 지나지 않겠지. 앞으로 하려고만 하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7. 당장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쓰는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야겠다.” 8. 야훼께서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도시를 세우던 일을 그만 두었다. 9. 야훼께서 온 세상의 말을 거기에서 뒤섞어 놓아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고 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다.

교리 요점

* 성경에서 동쪽이란 주님에게 가까움을 상징한다.

- * 성경의 첫 7장까지는 고대 말씀에서 취해진 순수한 상징적 이야기이다.
- * 말씀에서 온 진리 대신에 자기 사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건설된다면 우리에게는 항상 혼동이 있게 된다.
- * 다른 사람 위에 자신을 놓고 싶은 욕망이 멸망의 원인이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지상에 첫 번째로 있었던 위대한 “교회”의 결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이다. 이 교회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그들의 마음은 점점 이기적인 것으로 가득 차고 말았다. 그런 와중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자 했던 이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묘사된다. 주님은 그들에게 진리에 대한 새로운 계시인 고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지닌 성경 이전에 존재했던 것으로 성경의 곳곳에서 가끔 인용되거나 언급되기도 한다. 그들은 이 말씀으로부터 선조들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단순하며 순진함을 유지하는 동안 받아왔던 진리가 선조들에게는 내적 지각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배웠다.

두 번째 교회에 해당되는 고대교회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고대말씀으로부터 아주 현명해졌다. 그들은 아마 오늘날의 우리보다 더 현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의 지혜를 뽐내기 시작했는데, 이는 오늘날 학식이 있다고 우쭐대는 자들의 자만과도 비슷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지식의 근원이 주님이시고 자신들의 마음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잊어 버렸다. 따라서 그들 역시 이타애에서 신앙을 분리시켜 가서 진정한 선함과 주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로부터 빗나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바벨탑의 이야기는 두 번째 교회의 끝을 묘사하고 있다. 영적인 면에서 이 사람들은 낮은 계곡, 즉 사고가 세상적인 수준 밖에 안 되는 곳에서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의 삶을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살게 되었다. 그로 인해 본문에서 언급되는 벽돌과 역청, 즉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인 돌 대신에 자신들의 사상인 벽돌과 마음속에 있는 이타애인 흙으로 돌들이 서로 붙어 있도록 하는 대신에 이기심인 역청을 사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까닭은 그들의 목적이 스스로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려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각기 스스로의 편익만을 추구한다면 사람들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만 말하여 서로 이해 할 수가 없게 되어서 결국에 모두 흩어져 사는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초기의 인간들이 지상의 표면에 흠어져 살았다는 것과 그들이 아주 다양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좋아하며 아주 야만적인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항들은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바지만, 이는 진정한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역사가자들이 발견해낸 인류의 모습은 고대교회가 깨어짐에 따라 있게 된 파편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각국의 신화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기록된 역사 이전에 금 시대와 은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금과 은의 시대에 인류는 제각기 나뉠대로의 전통을 이루며 수 세기를 거쳐 구전으로 고대말씀을 전승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에 대한 지식을 주고 계시는데, 성경의 첫 7장까지에 있는 기록이 그에 해당된다.

제 1반

단어 바벨과 그 의미를 설명한 후 우리에게 혼한 요소인 “과시”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문의 이야기는 카인과 아벨의 때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의 일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태초에 그들에게 주신 그 곳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 그들은 첫 시대인 단순한 시대 이래로 아주 많은 것을 습득해 온 터라 스스로가 상당히 현명하다고 자부했다. 우리는 스스로 꽤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실제로는 상당히 어리석음을 경험을 통해서 안다. 그 이유는 지혜는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지식을 사용하되 주님이 사용하라는 대로 그것을 사용할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문을 순서대로 다시 읽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그들은 자신들이 하늘까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지을 수 있다고 착각했다. 둘째, 그들은 이 건축을 산꼭대기에서 시작하지 않고 낮은 계곡(평야, 시날 지방 한 들판)에서 시작했다. 셋째, 그들은 최상의 재료가 아닌 다른 것을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보였다. 그들은 벽돌과 역청을 사용해서 탑을 지었고, 그들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탑을 짓는 목적이었다.

누구든지 본문을 읽으면 그들이 아주 어리석었음을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일이 허다함을 알아야 한다. 즉, 우리는 일을 하되 선하고 유용함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단지 스스로의 이름을 떨쳐보겠다는 심산에서 일하는 자세, 한파디로 흔히 말하는 “과시”하는

행동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결코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우둔한 자라고 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과시적인 행동이 남들로 하여금 자신을 우러러보게 하기보다는 결국 곤경에 빠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동 시키심으로 그들의 작업을 멈추도록 하셨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단어는 혼동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혼동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에 관해서만 몰두할 때 서로 함께 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기심과 자만심은 사람들을 흠어지게 하는데, 이는 본문에서 주님이 바벨의 사람들을 흠으시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주변에도 항상 존재한다. 우리가 누군가와 더불어 뭔가 유용한 일을 해보려고 할 때에 어느 한 쪽이 자신의 방법만을 내세우고 상대방이 자신의 방법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그들은 서로 다투거나 헤어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데에 있다.

제 2판

지속적으로 존재했던 교회들의 진실한 의미와 교회들이 타락한 이유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의 상응에 대해서 설명한다.

성경은 최초의 사람들이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대신 자신의 판단에 의존해 버린 뒤 점점 더 악해져 갔다고 전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엿볼 수 있다. 즉 누군가가 주님께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다. 태초 사람들의 이기심과 거짓사상은 너무나 커져서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키운 악으로 인해 파멸되고 말았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범죄자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붙잡혀 사형을 당하는 것과 유사하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태고교회의 파멸이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로 그려진 것이다. 우리가 홍수의 이야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순종하고자 원했던 사람들이 다소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한편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은 주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또 다시 이기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주님께 빗지고 있음을

망각해 버렸다. 그런 다음 그들은 모든 지혜와 공적을 스스로에게 돌리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자신들이 꽤 중요한 것처럼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홍수 이전의 사람들 같이 이기심이라는 거인은 아니었지만,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지혜가 스스로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착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의 힘과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에 의해서도 천국에 도달하여 하느님 같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가 현명하다고 믿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는 말처럼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아주 우둔하여서 결국 또 다른 파멸을 초래하고 말았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동 시키심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함께 탑을 쌓는 일을 할 수 없도록 하셨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한국어만 할 수 있는 한국 사람과 영어만 할 수 있는 외국인이 함께 일을 해야 한다면 일의 진행이 힘들 것과도 같다. 물론 서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일을 하더라도 진행이 잘 안될 때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해의 문제이지 의사소통의 문제는 아니다. 바벨탑의 이야기에서처럼 언어가 혼동되어 버리면,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의사소통 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마치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듯 한 상황이 초래되기도 하는데, 이는 극히 이기적인 사람들은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에 전혀 흥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기적인 사람끼리 일을 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언어적 장벽이 있는 것 보다 더 잘못된 상황이 초래되기도 한다. 또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타인들이 말에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바벨탑의 이야기에서 언어가 혼동되었다는 말은 실제로 인간의 언어가 혼동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오만함이 극에 이르러서 더 이상 서로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에덴의 동산 이야기로 묘사된 사람들은 지상에 존재했던 첫 번째 교회이자 가장 위대한 교회를 상징한다. 우리는 이 교회를 태고교회라고 부른다. 노아의 이야기로 묘사된 사람들은 태고교회를 잇는 두 번째 교회였는데, 우리는 이 교회를 고대교회라고 부른다. 고대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교회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 오늘날 유대교나 기독교를 제외한 세계의 모든 종교들, 특히 이슬람교는 이 고대교회로부터 내려온 종파의 한 가닥인 것이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의 공부를 정리해 보자.

* 아담과 이브의 첫 두 아들은 누구누구였는가?

- * 카인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 * 아벨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 * 아벨은 주님께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
- * 카인은 주님께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
- * 주님은 왜 카인의 제물을 반기지 않으셨는가?
- * 카인은 아벨에게 무슨 짓을 했는가?
- * 카인의 악행에 대한 벌은 무엇이었는가?
- * 주님은 카인이 파멸됨으로부터 어떻게 그를 구해 주셨는가?
- * 카인과 아벨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가?
- * 홍수 이야기에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 * 노아는 어떻게 구원되었는가?
- *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온 후 어떤 징조가 그에게 주어졌는가?
- * 주님은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 * 바벨탑의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탑을 쌓은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 * 사람들은 어디에서 탑을 짓기 시작했는가?
- * 그들이 사용한 건축 재료는 무엇이었는가?
- * 그들은 흙 대신 무엇을 사용했는가?
- * 주님은 탑을 쌓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 * 그들은 왜 탑 쌓는 일을 멈추어야 했는가?
- * 그들이 쌓은 탑의 이름은 무엇인가?
- * “바벨”이란 어떤 의미인가?
- * 언어가 뒤섞여진 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제 3반

본문은 매우 짧으므로 한 절 한 절 해석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본문 이야기의 상응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확한데, 그에 관하여 언급한다. 또한 고대교회의 성격과 그것이 퇴보된 이유 그리고 그 교회의 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한다.

우리는 앞서 카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와 홍수의 이야기를 공부했다. 위의 두 이야기들에 관한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꽤 익숙한 편이므로 여기서는 두 이야기가 갖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홍수란 악과 거짓의 홍수를 의미하는데, 이는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자아에 집착해버린 태고교회 사람들을 침수시킨 악과 거짓을 상징한다. 그 예로 어린아이를 살펴보자. 아이는 처음에는 순진하고 순수하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지도나 교훈에 귀를 막아버리면 그 아이는 차차 나쁜 길로 접어들어 결국에는 악행을 일삼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진실대신 거짓을 매일 조금씩 자기 마음에 집어넣으며 스스로의 악행을 정당화하면서 점점 더 큰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밝혀져 감옥에 가게 되고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태고교회의 교인들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며 서서히 타락해 갔던 것이다. 물론 태고교회 사람들 모두가 홍수라는 파멸로 상징되는 마음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사상과 악들에 흠뻑 빠져 있었지만, 그들 중 소수는 여전히 주님을 인식하면서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 이렇게 그나마 최소한의 선함이라도 갖고 있어서 구원된 태고 교회의 ‘나머지’가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상징된다. 그래서 그들은 홍수가 빠진 후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제단을 쌓는 일을 했다. 주님은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징표가 바로 무지개였다. 이것이 두 번째 교회인 고대교회의 시작인 것이다.

고대교회는 태고교회와는 아주 다른 특징을 지녔다. 그 특징이란 다름 아닌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방법에 있다. 주님은 태고교회의 경우 인간들에게 진리를 내적 지각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실 수 있었지만, 고대교회의 경우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고대교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계발해 주시기 전에 먼저 외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리를 배워야만 했던 것이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에게 적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무언가를 배우고 진리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고대교회의 사람들에게 큰 관심사였고 경외의 대상이었다. 그들의 연구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연구가 상응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그들의 과학까지도 발달시켰다. 상응 연구의 첫 번째 대상은 주위의 세계에 관한 것이었고, 그 목적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배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상응 연구의 본연의 목적은 점차 희박해져갔고, 지식에 대한 단순한 탐구와 욕망만이 남게 되었다. 그 결과가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의미되는 이기심과 자만심이 극대화되어 인간들 스스로가 신이 될 수도 있다고까지 믿게 된 것이다. 바벨탑 이야기

속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 그 일을 시작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주님과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홍수의 이야기처럼 본문의 이야기도 교회의 마지막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의 교회란 두 번째 교회인 고대교회를 말한다. 이제 본문에 있는 이야기들의 상응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하자. 본문은 “온 세상이 한 가지 말을 쓰고 있었고 물론 낱말도 같았다”로 시작된다. 이는 넓은 의미뿐만 아니라 좁은 의미로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종교가 가르치는 교리에 동의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그들은 “동쪽에서 옮겨가고 있었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태양이 뜨는 동쪽은 성경에서 주님 또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선과 진리에 상응되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은 옮겨가다가 한 들판에 이르게 된다. 들판이란 낮은 지대로서 우리 삶의 낮은 심정상태에까지 내려갔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그곳에 자리를 잡고,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스스로의 이름을 세상에 떨쳐보려는 것이 탑을 쌓은 목적이었다. 도시란 교리를 표현하며, 그 안의 탑이란 자아 숭배를 의미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요 내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나의 사상을 형성할 때만이 나의 이익에 가장 좋을 것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할 때 많은 이들로부터 칭송 받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본문의 사람들과 같이 도시를 세우며 그 안에 탑을 쌓는 격이 되는 것이다.

바벨탑의 건축자는 돌 대신에 벽돌을 재료로 삼았다. 돌은 진리를, 그리고 벽돌은 인위적인 진리를 상징한다. 그래서 벽돌은 자아사랑이라는 불로 단단히 구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다. 돌을 쌓을 때 사용하는 흙은 진정한 이타애를 상징하지만, 뜨거워질 때 녹는 역청은 자아사랑을 상징한다.

위의 간단한 상응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그들의 말을 뒤섞고 온 땅에 흠으셨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어떤 모임에서 누군가가 자기주장만 내세우게 될 때 그 사람은 자기주장에 반하거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어떤 생각도 듣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다면 결국 그들은 같이 일할 수 없게 되어서 흠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대교회는 깨어져 사방으로 흠어지고 말았다. 이 교회들이 가졌던 지식의 일부들은 각기 다른 나라들의 전통으로 전해 내려갔다. 우리는 이에 대한 흔적을 그리스, 로마 신화, 이집트의 상형문자 그리고 인도의 고대신화에서 엿볼 수 있다.

기본 상용 공부

도시 = 교리

탑 = 자아 숭배

돌 = 진리

벽돌 = 인위적인 진리

역청 = 이기심

제 4반

주님의 계시 위에 인간적인 총명을 놓으려는 어리석음을 공부의 중심으로 삼는다.

태고교회인이 신앙과 이타애를 분리시킨 결과로 인간의 마음에서 이타애가 사라져 버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인간들은 괴상한 악들을 더욱 발달시켜 왔는데, 창세기 6장 4절이 이에 대한 것을 전하고 있다. 여기서 “하느님 아들들”이란 태고교회에 전해 내려 온 진리들이고, “사람들의 딸들”이란 이기적인 욕망들이며, 이들의 결혼이란 진리가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 사용될 때 있게 되는 진리의 왜곡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리의 왜곡은 고대인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거대한 신체를 가진 거인이 등장했다. 우리는 이러한 거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널리 알려진 바산 왕 옥이나 갓 족의 골리앗을 포함한 모든 거인들은 태고교회의 악으로부터의 파생된 존재들이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태고교회의 끝은 홍수의 이야기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인 고대교회의 건설이 방주로 구원되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무지개의 언약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 고대교회는 태고교회와는 그 특성이 달랐다. 태고교회인들에게는 그들의 마음 안에 존재했던 선에 의해 주도되는 방법인 내적인 지각으로 진리를 아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것이 상실되자 그들 속의 의지와 이해성도 분리되어졌다. 그래서 고대교회 사람들은 주님이 그들을 계발하실 수 있기 전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우리 안에 쌓여있는 곳인 기억적인 진리를 먼저 획득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고대교회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바른 방법으로 나아가는 동안에는

그 교회가 지혜로 가득하고 상응의 연구를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상응에 따라서 있어진 각종 아름다운 예배형식을 가진 교회로 발전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점차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지혜를 뿜내고자 하는 욕망이 커지게 되자 악이 그들의 삶이나 예배 속에 있었던 순수성을 서서히 침식시켜 갔다. 고대교회의 퇴보에 관한 역사는 창세기 10장에서 긴 계보로 설명되고 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계보의 인물들은 각각 어떤 새로운 종류의 악과 거짓의 발달을 그려주고 있다. 스웨덴본은 우리가 10장을 읽다보면 생소하고 어려운 이름들이 계속되어 답답하고 지루하게 여길지도 모르나 사실 이 장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 이유는 설사 우리가 읽고 있는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는 천사들이 그 구절들의 속뜻을 이해하며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감명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벨탑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고대교회의 끝에 관한 것이다. 성경은 불과 이흠 절 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 굉장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동쪽에서” 옮겨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에서 멀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시날 지방 한 들판인 낮은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주님께에서 최대한 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 상태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 이사야 55장 9절의 “하늘이 땅에서 아득하듯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깊다.”하는 말씀이다. 그들은 거기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늘에 닿을 탑을 쌓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포부는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위대해지려는 욕심이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내가 혼자서 해냈어!”라고 떠벌리는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자. 어떤 일이든지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한 정말로 혼자 힘만으로 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설사 눈에 보이지 않고 언뜻 보기에 혼자서 다 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힘이 모여져서 일이 성사되는 것이다.

제 3절은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쓰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돌이란 진리를 상징한다. 돌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다. 반면에 벽돌은 인간이 만든 것으로서 신성한 진리를 자신의 사상으로 대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인위적인 진리를 상징한다. 역청이란 자아사랑을 상징한다. 자아사랑을 지닌 사람들은 쌍방에게 있어질 이익이 같으면 한동안은 서로 어울리기도 하지만, 화가 나는 분함이 생겨서 거기에 조금만 열을 가하면 서로 어울린 고리는 녹아져 끊기고 만다. 인간이 만든 모든 삶의 철학이 바로 바벨탑이요, 낮은 차원에서 시작하여 하늘까지 닿아보려는 노력을 벽돌과 역청으로 허둥대는 것이다. 이리하여 주님께서 “사람들이 한 종족이라 말이 같아서 안 되겠구나.”라고 말씀하신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진리에 관해서 하나의 교리만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 상태는 깨져 버렸다. 인간이 자신에게서 진리를 찾으려 할 때는 진정한 표준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인간의 사상은 각기 다르며, 각각 자신의 이기적인 노선을 따라 생각하려든다. 따라서 서로 논쟁이 시작되고 다투며 이해해 보는 것까지 중단하기에 이른다. 그 이유는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사상 안에서만 흥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래서 고대교회는 “말이 뒤섞여” 또는 종교적인 사상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으로 다툼질하여 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실제로 고대교회 사람들이 온 지상에 흐트러진 것이다. 그래서 바벨이란 “혼동”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제 5반

고대 교회가 퇴보된 이유를 살펴본 후 노아와 함, 구스, 니므롯 그리고 바벨로 연결되는 이야기의 의미를 살펴본다.

태고교회의 퇴보는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는 창세기 제 5장의 족보에서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7절에서는 제 5장까지 망라된 자아 사랑의 마지막 상태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태고교회 사람들의 파멸은 허락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내적인 지각을 수단으로 하여 그들에게 진리가 전달되었는데, 그들의 의지가 이기적으로 되자 그들이 진리를 거짓화해 버렸기 때문이다. 방주로 구원되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무지개로 그려진 새 언약의 성경적인 의미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무지개의 언약에 기초된 고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의지와 이해성이 분리되었다. 이 후부터 인간들은 배움을 통해 신성한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본문에서는 “사람들은 동쪽에서 올라오는” 여행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들이 주님에게서 멀어져 갔다는 의미이다. 결국 그들은 시날 지방 한 들만에 이르러 그곳에서 성을 쌓고 바벨이라 불리는 탑을 쌓기 시작했다. 바벨이 처음 언급되는 곳은 창세기 10장 10절이다. 이는 함의 손자요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이 세운 도시들 중의 하나이다. 고대교회의 세 가치를 표현하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은 내적인 것이 없는 외적 예배 또는 이타애가 없는 믿음을 상징한다. 그래서 함의 아들 구스는 “말씀의 내면 지식을 가지고 거짓 원리를 확증하는 사람(이타애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를 상징하게 된다. 구스의 아들 니므롯은 내용이 없는 외적인 것에만 치우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외적예배를 상징한다. 니므롯은 “힘센 사냥꾼”이었다. 스웨덴북은 그가 이런 사냥꾼

으로 불린 까닭을 인류의 대부분이 내적인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외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쾌락과 탐욕 혹은 자신과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한마디로 감각에 속한 것들에 안주하려 들기 때문이라고 말한다(천국의 신비 제 1178항).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와 같은 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종교에 쉽게 사로잡히는 것이다. 바빌론 왕에 관하여 이사야 14장 13-14절에서는 “네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더냐?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나의 보좌를 저 높은 하느님의 별들 위에 두고 신들의 회의장이 있는 저 북극 산에 자리 잡으리라. 나는 저 구름 꼭대기에 올라가 가장 높으신 분처럼 되리라.’” 라고 전한다. 단어 바빌론은 바벨에 대한 그리스어로 혼동이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원인 “Babel”과 연결된다. 영적 혼동은 자아를 추켜올리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성경에서 바빌론왕의 자기 자랑과 퇴보된 고대교회 사람들의 자기 자랑은 모두 비슷한 용어로 기술된다. 그러나 고대 말썽인 아주 오래된 이야기는 이에 대해서 탐을 쌓는 그림, 즉 “어서 벽돌을 빚어 불에 단단히 구워 내자. 이리하여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쓰게 되는”것으로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돌이란 진리의 상징물로서, 특별히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진리를 상징한다. 주님 역시 자신을 “모퉁이 돌”이라고 부르신 적이 있다. 그리고 복음서의 많은 곳에서 “바위”라고 명명하신다. 벽돌은 인간이 돌 대신에 사용 하고자 흙을 가지고 만든 것이다. 따라서 벽돌은 인간이 주님의 진리 대신에 자신의 마음에서 취해서 만든 원리들을 의미한다. 벽돌을 더욱 단단해지게 하는 불이란 자아 사랑이라는 불이다. 그래서 그들은 벽돌을 서로 붙여있게 하는데 이웃사랑이라는 흙 대신에 자기 이익이라는 역청을 사용한 것이다.

고대교회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여 물질계의 것들로부터 영적인 것을 끌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자아로 돌아서게 되자 그들은 이러한 지식들과 예배를 자신들의 명성과 권력을 획득하는데 사용하고 말았다. 만일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태고교회 사람들처럼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들은 태고교회들이 악의 거인이 되었듯이 거짓이라는 괴물이 되었을 것이다. 본문 6절의 “앞으로 하려고만 하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라는 표현에서 그들의 마음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로부터 물질적인 것 속에 든 영적 의미를 알게 하는 이해성을 거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현상들 혹은 물상들 속에 존재하는 거룩한 것을 뒤집거나 모독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사람들이 쓰는 말을 뒤섞어 놓으셨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주님께 의지함으로부터 비롯되는 내적 조화가 자만심을 통해 파괴되었고 무지개의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색깔인 생각과

예배의 모든 다양함이 그들에게 불일치와 분열의 근원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고대교회의 사람들은 나뉘지고 흩어졌는데, 그 이후로는 예배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는 대신에 전통으로 이어받은 예배의 형식에 따라 종족이 형성되어 갔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형성 초기에 발견되는 우상숭배의 근원이다. 자연숭배와 조상숭배 그리고 우상숭배 등은 종교의 초기 모습처럼 전해진 것들로서, 이들은 은 시대, 즉 고대교회 사람들이 가진 아름다운 상응적인 예배가 퇴보되면서 남아있는 잔여물이다. 그리고 신화는 초기 사람들의 진정한 상응적인 이야기들이 왜곡되어 전해진 잔존물이다. 상형문자는 상응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많은 국가들의 신화나 설화에서 발견되는 홍수 사건은 모세가 우리를 위해 고대 말씀에서 베껴 쓴 최초의 이야기가 그렇게 전해진 것이다.

바벨탑의 건축에 관한 명백한 고증에 대한 노력은 종교 발달을 “자연적인 역사 개념”으로 보는데서 엿볼 수 있다. 그 개념이란 종교가 영적 원인이나 신성한 계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것들에 관한 지식들에서 인간이 직접 만들었다는 것이다. 고대교회에 관련된 지식과 더불어 바벨탑의 이야기 속에 담긴 영적 의미는 새교회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종교의 자연발생설에 감염되는 것으로부터 예방되는 효과를 줄 것으로 본다. 또한 성경마저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전제할 때 제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양심적인 탐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론은 무신론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경이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인간이 하느님을 연구하기 위해 만든 책이나 하는 두 가지 접근방법은 실로 중요한 차이가 있다. 후자의 연구방법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이라면, 전자는 교회를 세우는 모습인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1304항: “이웃을 향한 이타애가 [마음에서] 분리되고, 그 자리를 자아사랑으로 채운 교회의 본성 속에는 믿음속의 교리가 곧 자아 숭배이며, 자아를 위한 것 외에는 어떤 거룩한 것도 그 속에 있을 리 만무하다. 자아사랑은 항상 이런 식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 이유는 타인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추종하지 않는 이들은 모두 미워하고, 자신에게 이득을 주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어떤 제한이 있지 않으면 하느님보다 더 찬양 받는 자리까지 차지하고자 덤비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아사랑에 고삐를 늦추어 주게 될 때 있어지는 모습은 이미 나에게 보인 바 있다. 이런 것이 ‘성과 탐’이 의미하는 바다. 자아사랑과 이 사랑에서 파생된 탐욕은 추잡하고 모독된 모든 것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옥적인 것이다. 이로부터의 결론이란 자아 숭배라는 성질은 그 속이 지옥적인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카인과 아벨은 누구의 아들인가?
- 2) 그들의 직업은 무엇인가?
- 3) 그들은 주님에게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 4) 왜 카인의 예물은 거절되었는가?
- 5) 어떻게 주님은 카인을 보존하셨는가?
- 6) 본문에서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옮겨갔는가?
- 7) 그들은 어디에서 멈췄는가?
- 8) 그들은 무엇을 짓기로 했는가?
- 9) 탑을 쌓는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 10) 그들은 무엇을 건축 재료로 사용했는가?
- 11) 주님은 그 건축을 어떻게 멈추도록 하셨는가?
- 12) 사람들이 건축을 못하자 어떻게 되었는가?
- 13) 본문은 어떤 교회의 종말을 묘사하는가?
- 14) 이 탑은 무엇으로 불리는가?
- 15) 성경에서 그리스어의 어떤 말이 히브리어의 바벨과 같은 어원을 갖는가?
- 16) 바벨탑을 쌓는 것은 무엇을 그리는가?
- 17) 진리를 받는 측면에서 태고교회와 고대교회 사이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아담과 이브의 아들들 2) 농부, 목자 3) 곡식, 새끼 양
- 4) 불성실, 위선적이었다 5) 인(mark) 6) 동쪽으로부터
- 7) 시날(바빌론) 8) 탑 9) 하늘까지 닿기 위해
- 10) 벽돌과 역청 11) 언어를 뒤섞으셨다 12) 흩어졌다 13) 고대교회 14) 바벨
- 15) 바빌론 16) 이기심을 가지고 삶을 건설함 17) 지각, 양심

4

아브라함과 천사들

머리말

본문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중간 부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부분까지 있게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간략히 살펴 보면서 본과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한다. 주님의 방향에 맞추려는 아브라함의 바램과 바벨탑 이야기에서의 사람들의 바램을 비교해 본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18장

18장: 1. 야훼께서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대낮에 천막 문 어귀에 앉아 있다가 2. 고개를 들어 웬 사람 셋이 자기를 향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천막 문에서 뛰어 나가 맞으며 땅에 엎드려 3. 청을 드렸다. “손님네들, 팬찮으시다면 소인 곁을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십시오. 5. 물을 길어 올 터이니 발을 씻으시고 나무 밑에서 쉬십시오. 5. 떡도 가져 올 터이니 잡수시고 피곤을 푸신 뒤에 길을 떠나십시오. 모처럼 소인한테 오셨는데, 어찌 그냥 가시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그렇게 하여 주시겠소?” 6.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 가 사라에게 고운 밀가루 세 말을 내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이르고 7. 소떼가 있는 곳으로 달려 가 살이 연하고 맛있어 보이는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종에게 맡겨 빨리 잡아서 요리하게 하고는 8. 그 송아지 요리에다가 엉긴 젖과 우유를 곁들여서 손님들 앞에 차려 놓고, 손님들이 나무 밑에서 먹는 동안 그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9.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부인 사라는 어디 계시오?” 하고 묻자, 아브라함은 사라가 천막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10.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새싹이 돌아날 무렵, 내가 틀림없이 너를 찾아오리라. 그 때 네 아내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천막 문 어귀에서 이 말을 엿듣고 있었다. 11.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늙은이였고 사라는 달거리가 짧은 지도 오래였다. 12.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내 남편도 다 늙었는데, 이제 무슨 낙을 다시 보랴!”하고 중얼거렸다. 13. 그러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사라가 다 늙은 몸으로 어떻게 아기를 낳으라고 웃으니, 될 말이나? 14. 이 야훼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내년 봄 새싹이 돌아날 무렵에 내가 다시 찾아오리라. 그 때 사라의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15. 그러자 사라의 겁이 나서 웃지 않았다고 잡아뵈었으나, 야훼께서는 “아니다. 너는 분명히 웃었다” 하시며 꾸짖으셨다. 16. 사람들은 길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도 그들을 배웅하느라고 같이 왔다. 17. 야훼께서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 “내가 장차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18. 아브라함은 강대한 민족이 되고 세상 민족들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 복을 빌 것이 아닌가? 19. 나는 그로 하여금 그의 자손과 그의 뒤를 이을 가문에게 옳고 바른 일을 지시하여 이 야훼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려고 그를 뽑아 세우지 않았던가? 그러니,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어야 하리라.” 20. 이렇게 생각하시고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아우성을 나는 차마 들을 수가 없다.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짓고들 있다. 21. 내려가서 그 하는 것들이 모두 나에게 들려오는 저 아우성과 정말 같은 것인지 알아보아야 하겠다.”

22. 그 사람들은 걸음을 옮겨 소돔 쪽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야훼 앞에 서 있었다. 23. 아브라함이 다가 서서 물었다. “당신께서는 죄 없는 사람을 죄인과 함께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24. 저 도시 안에 죄없는 사람 오십 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 곳을 쓸어버리시렵니까? 죄 없는 사람 오십 명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25. 죄 없는 사람을 어찌 죄인과 똑같이 보시고 함께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라면 공정하셔야 할 줄 압니다.” 26.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 죄 없는 사람이 오십 명만 있으면 그 죄 없는 사람을 보아서라도 용서해 줄 수 있다.” 27.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다. “티끌이나 재만도 못한 주제에 감히 아뢰니다. 28. 죄 없는 사람 오십 명에서 다섯이 모자란다면 그 다섯 때문에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저 곳에 죄 없는 사람이 사십 오 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29. 아브라함이 “사십 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여쭙자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사십 명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30. 아브라함이 또 여쭙었다.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십 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삼십 명만 되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시자 31. 그가 또 다시 여쭙었다. “죄송하오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이십 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이십 명만 되어도 그들을 보아서 멸하지 않겠다.”하고 대답하셨다.

32. 아브라함이 다시 “주여, 노여워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열 사람밖에 안 되어도 되겠습니까?”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그 열 사람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33. 야훼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자리를 뜨셨다.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교리 요약

- * 주님께서는 강림하시기 전에 그분의 실재하심을 천사에게 채우심으로써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
- * 말씀에서의 역사적인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다.
- * 믿음은 진실로 마음속에 있다. 이해성은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 *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이타애에 필수적이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거의 백세가 다 되었다. 그가 선조들의 고향인 갈대아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부름 받았을 때, 그는 주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되어 든든한 기반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약속 중 한 가지가 아직 성취 되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상속받으며 큰 국가가 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목이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인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상속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의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은 주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그분께 대한 순종이다. 주님은 이러한 그의 장점으로 인해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번성하도록 해 주실 수 있었고, 본문에서와 같이 그에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셨던 것이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흥미로운 사항은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세 사람의 여행자를 천사 또는 주님의 특사로서 곧바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문이 진행되면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화는 한 사람과만 이뤄지며 아브라함의 질문들에 주님께서 대답하고 계시다는 것과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과 아브라함만이 대화를 나누고 있음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사라에 의해 태어날 상속자에 대한 약속의 갱신을 아무런 의심 없이 수긍했지만, 사라는 의심이

드는 속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래도 우리 모두가 아는 바대로 사라는 그 해안에 주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다.

본문에서의 교훈은 신뢰와 순종이 결코 헛되지 않아서 언제나 장래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때로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이는 자에게 늘 고생과 손해만 뒤따르고 악한 자가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 눈에 그렇게 비쳐지는 까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종종 이처럼 영의 눈이 멀어져 버리는 까닭은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중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장차 천국에 가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에 담겨있는 것들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본문의 후반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악한 성(성)인 이기적인 바벨과 나쁜 생각들을 다정한 친구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뜻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항상 노력해 나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천국에까지 안전하게 이르도록 해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재삼 약속하고 계신다.

제 1반

본문의 두 단원 중 첫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 관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선조들은 이미 자아 중심으로 변하여 천국적인 것들을 모두 다 잊어버렸지만, 아브라함은 주님에 의해 가르쳐지기를 원했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을 가르치실 수 있었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실 수 있었던 것이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착하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아주 긴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정착했다. 헤브론은 때로 마므레라고도 불린다. 주님은 그를 번성시켜서 금과 은 그리고 가축 떼를 많이 가진 부자가 되도록 하셨다. 그와 그의 가족은 오늘날의 우리와는 아주 다르게 목자와 목부들로서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다. 그들의 집은 간단한 이동식 천막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가축 떼를 위해 풀밭을 찾아서 늘 이동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주님은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장차 그가 큰 국가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러

나 그와 그의 아내 사라에게 여전히 아들이 없었고 그들의 나이 또한 고령이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대단히 곤란한 문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언제나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사람은 주님의 천사들 또는 특사들이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금방 알아보고 환영했으며, 그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그들을 대접하며 행복해 했다. 비록 아내인 사라가 그들의 말을 의심했으나 아브라함은 그들이 말을 믿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누가 아브라함을 보러 왔는가?
- * 아브라함은 이들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 *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했는가?
- *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어떤 다른 음식을 제공했는가?
- *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가?
- * 사라는 속으로 웃고 난 후 그것이 발각되자 뭐라고 변명했는가?

제 2반

성서 지도와 더불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공부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삭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 살펴본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질문을 넓은 의미에서 살펴본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교회가 없도록 내버려두시지 않으신다. 아브람(아브라함의 원래 이름)과 그의 가족은 사실 선조들로 인해 하느님과 종교에 대하여 아주 나쁜 사상에 젖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길만을 고집하기보다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을 하고자 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가르치실 수 있었던 것이다.

주님은 아브람에게 딸려 있는 모든 가족과 소유를 가지고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후에 아브람은 헤브론에 정착했는데, 이곳은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때로 마므레라고도 불렸다. 여기서 주님은 아브람과 다시 약속하셨는데, 그 표시로 아브람(Abram)의 이름을 아브라함(Abraham)으로 해 주셨고 사라(Sarai)의 이름을 사라(Sarah)로 바꾸어 주셨다. 그들의 이름에 더하여진 철자 “h”는 주님의 이름인 “Jehovah”의 h이다. 이렇게 이름이 바뀐 이유는 그들이 주님께 순종하여서 그들이 주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었음을 표시해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본문의 첫 절에 등장하는 지역 이름 마므레(Mamre)는 헤브론(Hebron)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다. 성서 지도에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성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 성들은 롯이 그의 정착지로 선택했던 평야에 있었다. 롯은 그곳에 살면서 곤경을 치렀는데, 그 이유는 그가 사악한 성에 너무 가까이 붙어살았기 때문이다. 한 때 롯과 그의 가족은 왕들에게 포로로 잡히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들을 구출해주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성들은 그 사악함이 극에 달해서 파멸을 부르는 지경에 이르고야 만 것이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언급하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기서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은 주님이 친절하시며 자비로우셔서 우리 속에 남아 있는 선이 아무리 적다하더라도 그것이 있기만 하면 도우실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고 온전히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 버리면 그분께서도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을 더하며 더욱 더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간다면 그분께서 더 많은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된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의 공부를 정리해 보자.

- * 지상의 첫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가?
- * 성경은 이 교회의 마지막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
- * 두 번째 교회는 뭐라고 부르는가?
- * 두 번째 교회 속에서 발달된 심각한 과오는 무엇인가?
- * 이러한 교회들이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으려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 성경에서 이 일이 어떤 이야기로 기술되어 있는가?
- * 누가 마므레에 있는 아브라함을 방문 했는가?
- *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먼저 무엇을 하도록 제공했는가?
- *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무엇을 하도록 했는가?
- *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어떤 먹을 것을 제공했는가?
- * 천사들은 그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었는가?
- * 사라는 그들의 약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가?

- * 소돔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주님께 무엇을 건의했는가?
- * 아브라함이 언급한 숫자들의 순서는 어떠한가?

제 3반

아브라함의 상응을 주요과제로 삼는다. 그리고 그를 부르심의 의미와 유아시절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차후에 있게 되는 우리 영혼의 발달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브라함은 주님께 순종해온 자이다. 처음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오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은 아브람으로 하여금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긴 여행을 거쳐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는 그의 가족과 소유물들을 챙겨서 고향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출발 당시에 형제인 나홀과 그의 가족, 형제 하란의 아들인 조카 롯 그리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길을 떠났다. 하지만 그들의 여행은 천막과 더불어 가족 때의 풀밭을 찾아가며 이뤄지는 여정이었다. 그들이 멈추었던 장소 중의 한 곳은 가나안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나홀은 그곳에서 정착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이 지역의 이름을 롯의 아버지 하란의 이름을 따서 불렀는데, 성경에서는 흔히 “나홀성”이라고도 부르는 곳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 앞서 이 이야기를 수차례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그 이야기의 중요성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롯은 하인과 가축들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의 여행을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세겜과 베텔 두 지역에서 멈추기도 했는데, 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후 다시 남쪽을 향해 여행을 계속했다. 그리고 한 때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가 머물기도 했는데, 그는 거기서 번성하여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 온 후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분가했다. 롯은 비옥한 요르단 평야를 거주지로 선택했는데, 그곳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사악한 성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산이 많은 지역을 택했고 헤브론을 거주지로 정했다. 이 헤브론이 본문과 연결된다. 이상의 모든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에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여행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린 아이적인 상태들을 표현하고, 그 상태들이란 단순히 신뢰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아시절의 우리는 무지하며, 우리의 지식은 겨우 보고 만지는 현상적인 것들에 불과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였던 것이 바로 이러한 유아기 시절의 우리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당신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우리 속에 있음을 보고 계신다. 갈대아 지역이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자아 중심적인 상태를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도록 주님께 의해 부름 받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천국 또는 천국적인 인격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아 중심적인 상태에서 천국적인 인격의 상태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 순종해가면 가나안의 땅이 영원히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임을 약속하시고 계신다.

본문에서의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정착하여 한 가지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풍족하여 아주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 한 가지 것이란 바로 그에게 상속자가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으나 이스마엘은 사라의 이집트 출신 하녀로부터 얻은 자식으로서 주님께서 이스마엘이 그의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온 세 사람은 주님의 특사 또는 천사임을 금방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천사들이 때로는 “그, He”라고 부르고 있고 그들이 제 13절에서는 “주님 또는 야훼”라고 지칭됨을 알 수 있다. 스웨덴북은 이 점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오시기 전 그분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쓰신 방법 중의 하나는 그분의 내재하심을 천사에게 채우시는 것으로 하셨다”라고 설명한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반갑게 영접하여 그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대접했다. 이 모습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항상 그리고 끈게 열려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의 무조건적인 순종은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어 가르침을 받게 할 때 그들이 아주 단순히 기쁨으로 그 가르침을 받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사라와 아브라함은 고령이어서 사라가 그 말을 의심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사라에게 상속자를 낳도록 하여 주시겠다고 한 약속은 우리가 배운 진리와 우리가 행한 선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언제나 결실을 맺을 것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천국적인 인격의 발달이 더욱 증진하도록 인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약속인 것이다.

본문의 후반부는 상속자를 주신다는 전반부의 내용과는 무관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적인 의미로 볼 때 후반부는 전반부의 내용을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고 있다. 사악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게 되는 이기적인 본성으로 인해

우리에게 당연한 듯 여겨지는 악과 거짓들을 의미한다. 때로 우리는 “나는 나쁜 성향만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해볼 도리가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선행하려는 노력을 포기해 버리기도 한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야 할 정도로 사악한가를 보기 위해서 천사들이 길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이르렀다는 16절 이하의 말씀에 대한 간략한 의미이다.

이제 본문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자.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숫자는 상응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사용한 각 숫자들은 각기 다른 선들과 그 선들의 수준을 묘사한다. 50이란 삶 속에 선과 진리가 충분한 상태를 뜻한다. 마지막의 10이란 숫자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아껴두신 것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주님께서 유아시절에 우리 속에 담아 두신 좋은 것들을 말한다. 우리는 간혹 주위에서 이미 전과자로 전락해 버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며 어린 시절의 순진했던 자신의 상태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처한 상황을 바꾸겠다고 결심하여 인생역전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어린 시절 때에 우리 속에 “아껴두신 것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따라서 주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로 구성된 본문은 우리가 전에 지녔던 선함과 진리의 일부를 주님께서 어떻게 들어 쓰시는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우리속의 선함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온전히 이기적인 괴물로 변해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언제나 노력하고 계심을 알려준다.

기본 상응 공부

아브라함 = 아주 어린 시절의 상태
 갈대아 땅 = 태어날 때의 자연적인 상태
 가나안 땅 = 천국 또는 천국적인 인격
 소돔 = 자아에서 온 악
 고모라 = 자아에서 온 거짓
 50 = 가득 찬 것 (선으로 가득 찬 진리)
 10 = 아껴두신 것

제 4반

소돔과 고모라에 관해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우리가 쉽게 받는 시험 중 하나는 “교회에 가는 것이 내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묻게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실감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의 것을 올바르게 선택함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아브라함에게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부르심의 말씀은 각 개인의 삶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완전히 무지하며,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경향성에 의해 이기적으로 되려는 상태가 우리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태고교회와 고대 교회로부터 발달된 악과 거짓에 대한 경향성은 먼 옛날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좋지 않은 상속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상속물, 즉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하게 하여 영적인 진보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이기적인 경향성에 대한 “반작용적인 충동”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버릇없이 행동하는 대신 착하게 행동하는 습관이 좋음을 느낄 수 있다. 즉, 창세기 12장 1절의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부르심을 주님에게서 받고 있는 것이다.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기심을 떠나라는 분부이고,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은 천국적인 인격이 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장차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은 유아기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있어지는 우리의 영적 발달을 그려준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주 어린 시절을 상징한다. 아브라함은 어린 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며 순종하듯이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상태를 표현한다. 앞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여행에 대해서 공부했다. 즉, 그의 형제인 나홀이 하란지역에 정착했음과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지역의 세겜과 베델에 도착했다는 것 그리고 롯이 기근으로 인해 이집트에서 잠시 체류했다가 가나안으로 되돌아 온 후 아브라함으로부터 분가했다는 것이다. 롯은 분가 당시 요르단 평지를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거주지로 산악지대를 선택했다. 그리고 롯의 이야기에서 그가 사악한 성인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 근접하여 거주한 결과 곤경에 빠졌음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롯은 우리의 자연적인 경향성, 즉 세상에 매력을 느껴 쉽게 악에 빠져버리는 마음의 외적인 부분을 상징한다.

아브라함이 산악 지대에 거주지를 정하고 살던 때가 바로 본문에서 읽게 되는 부분이다. 그곳은

헤브론 또는 마브레로 불리는 지역이었다. 그는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든든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여 매우 부유해졌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라의 몸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못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제외하면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되며 그 상속자는 아내인 사라가 낳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오는 세 사람에 의해 재확인되고 있다. 본문을 자세히 읽다보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었으나 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말해지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정중히 맞아들이고 그들이 주님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스웨덴북은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전 인간에게 나타나시되 그분의 내재하심을 천사에게 채우시는 것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사야 63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즉, “누구를 대신 파견하거나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친히 오시어”라는 구절을 읽고 이해하게 되면 스웨덴북의 설명이 말씀에 의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스웨덴북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에 관하여, “이 세 사람은 신성 그 자체와 신성한 인간 그리고 신성한 작용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 없이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삼위인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신이 있고, 삼위는 곧 하나임이 모든 이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천국의 신비 제 2149항).”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이 이야기를 주님의 아주 어린 시절에 대한 언급이라고 설명한다. 즉, 내적인 의미 속에서 취급된 주체는 여호와로서 이 여호와와는 주님으로 나타났고 그분이 이를 지각한 것인데 이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졌던 나타남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보인 것은 역사적인 사실임과 동시에 신성한 지각을 표현하거나 주님께서 인성을 입고 계실 때 가지셨던 신성으로부터 온 지각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상속자를 주시겠다는 약속은 주님의 순종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낳음을 의미한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사라의 웃음은 ‘선택하려는 노력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인가?’하고 의심하는 우리의 자연적인 경향성을 묘사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주님과 대화의 기술한 사건을 읽게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상속자의 약속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다. 숫자란 선택과 진리의 다양한 상태를 상징한다. 50이란 충분한 상태를 상징하고, 5란 언제나 “조금”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하늘을 우리러 축사하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에 대한 기적을 베푸심을 생각해 보면, 숫자 5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빵 다섯 개란 우리 속에 있는 조금밖에 안 되는 선택을 상징한다. 50보다

5가 적은 45란 충분한 선과 진리의 상태에서 조금 덜한 선과 진리의 상태를 상징한다. 그리고 숫자 40은 일반적으로 시험을 상징한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상기해야 할 사항은 시험에 관한 주님의 섭리일 것이다. 즉, 설사 우리에게 시험을 겪겠다는 결심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시험에 저항할만한 힘이 보이지 않으면 주님께서 시험에 빠지도록 허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험은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자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어서 육체적 혹은 물리적인 것을 시험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숫자 30 역시 시험을 의미하지만 시험의 수준이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40이란 상태의 시험은 시험을 충분히 겪은 상태이나 30이 의미하는 시험은 아직 초반에 불과한 상태의 시험인 것이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받은 주님의 시험과 40일 주야로 내린 홍수를 상기해 보면 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이란 “무지의 선”을 의미하는데, 선한 가운데 있는 이들 중에서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이들 또는 대략 20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있는 선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선한 마음이 있으나 그 마음이 악과 거짓에 정면으로 부딪친 적이 없는 선으로서 이는 마치 전투경험이 없는 군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10이란 “아껴두신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는 주님이 우리들 속에 저장해 두신 좋은 것들로서 특별히 그분께서 우리의 어린 시절에 저장해 두셔서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 도움을 주게 되는 것들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위의 숫자들이 의미하는 선함의 상태 중 어느 곳에 해당되든지 간에 그 안에 구원의 요소가 들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 속에 영적인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를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습득한 어떤 진리든지 간에 그것을 꼭 붙잡고 그에 따라 살고자 최선을 다해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실수나 타락의 다소에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주님께 관해 배워가기를 멈추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인 파멸로 이르는 길에 접어드는 것이다.

제 5반

세 사람의 방문과 사라의 웃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내용을 주로 살펴본다.

우리에게 친숙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 번 상기해 두어야 할 사항은

모든 역사가 서서히 일어난 변화의 기록이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듯 보이는 사건이나 납득이 잘 안 되는 사건의 경우 역시도 그 사건의 원인은 오래 전부터 싹이 터서 진행되어 온 결과라는 것이다. 고대교회가 아주 서서히 황폐해지면서 그 끝에 이르렀듯이 유대교회의 시작 또한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있어진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꼽으며, 유대교의 시작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에서부터 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스웨덴북의 저서를 유심히 읽다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은 고대교회의 마지막 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스웨덴북은 세 단계의 고대 교회에 관하여 설명한다. 첫 교회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의해 상징되고, 둘째는 에벨로 시작된다. 이 에벨은 말씀에서 언급되는 첫 실존 인물로서 그로부터 히브리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로서 기술되고 있다. 아브라함 역시 우상 숭배자였지만, 진정한 교회의 필수요건인 자아보다 하느님을 더 섬기려는 바램이 그에게 있었다.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러한 바램은 존속되었다. 그 후에 생겨난 유대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닌 단지 교회라는 것을 표현한 것에 불과했는데, 이 교회는 야곱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사이에서 설립되었다. 스웨덴북은 창세기 32장과 33장 그리고 34장의 주석에서 이에 관한 설명을 더하고 있다.

스웨덴북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들을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든 천적의미를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의미란 주님의 유아시절로부터 성인시절까지의 각 상태에 대한 설명, 즉 그분의 인간적 평면이 점진적으로 열리어 그 인간성 속에 내재하신 신성과 하나를 이루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저서를 읽을 때 상기해야 할 사항은 인간이 거둬나는 과정은 주님께서 영화하신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의 유아시절에 있는 영적 상태, 즉 천적인 순진과 신뢰의 상태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무지의 상태도 그린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부름이란 우리가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 어긋나는 대신 착해져야 함에 대한 첫 번째 인식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듣게 되는 “아브람의 부름”과 같다. 우리가 이 부름에 순종하면, 우리는 여행을 시작하여 긴 여정을 거치지만 결국 거룩한 땅에 도착하게 된다.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자신의 영적 삶의 유지에 필요한 말씀의 지식을 위해 이집트라는 기억적인 지식으로 내려가 그 지식으로부터의 부를 쌓아야 한다. 그래서 그가 “금과 은 그리고 가축 떼가 많은 부자”가 되어 귀향하듯이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되는 과정 역시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이는 우리의 자연적 부분이 외적 만족만을 추구함을

눈치 채게 될 때 우리속의 영적 부분이 자연적 부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감을 의미한다. 우리 인생의 초기 투쟁의 대부분은 가장 외적인 평면에서 있어지는데, 이는 롯이 사악한 성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서 곤란에 휩쓸렸을 때 아브라함이 구출해 주는 이야기에 해당된다.

본문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한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본문의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을까 하고 의아해 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속자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의문이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이삭은 우리의 보다 높은 합리적 능력을 그리고 이스마엘은 자연적 합리성, 즉 보다 낮은 합리적 능력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유아 상태를 벗어나 발달할 때 탄생하는 첫 능력인 “현상에 근거한 추론”이 바로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바다. 아이들이 부모와 연쟁을 막 시작하는 시기가 아마 이에 해당될 것이다. 한가닥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며 순종해야 함을 심정으로 알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사라로 그려지는 것, 즉 완전한 지혜 속에서 있게 되는 순진한 기쁨은 의아심이라는 것들로부터 이 시기에 공격당한다. 이것이 본문 11절에서 사라가 웃는 것의 의미이다. 상속자를 주시겠다는 약속이란 의를 행하겠다는 우리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한없이 많이 맺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한 의심은 아이들에게 “부모님께서 항상 착한 일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부모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본문 제 1절을 살펴보자. “마므레의 상수리나무”라는 표현이 있다. 상수리나무란 기억속의 지식에서 오는 지각을 뜻하고, 아브라함이 천막 문어귀에 앉아 있음이란 예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1절은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관계를 갖게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스웨덴북은 강림 전 주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에 그분의 실재하심을 천사에게 채우는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말한다.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천사 또는 주님의 특사로서 영접했다. 「천국의 신비」 제 2149항에서는 “세 사람이란 신성 그 자체, 신성한 인간 혹은 신성한 작용을 의미한다.”라고 밝혀져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와 같은 삼위가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바이며 이 삼위는 하나이다.”라고 설명한다. 그 다음 스웨덴북은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과 천사들의 대화를 분석하여 “이는 천사들이 하나로써 말을 걸고, 한 명이 대답하듯이 하여 이 하나가 주님이심을 명백히 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제 19장에도 있다. 롯에게 온 두 사람들이 소돔에 있는 동안에는 복수인 “그들”로 언급되지만, 롯이 성을 나간 뒤에는 단수인 “그 사람”으로서 언급된다.

천사들의 방문은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확인해 주고, 태어날 시기까지 일러주는 것이었다. 스웨덴볼은 의심을 폭로한 사라의 웃음에 관하여 “사라는 합리성에 대한 애정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합리성 안에 있는 애정이 웃음 같은 것에 의해 겉으로 나타나는 한 그 안에는 세상적이거나 육적인 어떤 것, 즉 인간적인 것이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한다. 주님 역시 그분의 지상 생활 초기에는 합리성 속에 든 이러한 인간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계셨지만 차차 다 추방되어졌다. 그래서 사라의 웃음은 천적인 의미에서 위와 같은 의미를 내포한다.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아브라함의 질문과 주님의 대답을 다른 각도로 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착해지라고 모두들 말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라고 한번쯤 갖게 되는 의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리고 그 줄거리는 구원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에 관한 연구도 된다. “소돔성에 죄 없는 사람 오십 명만 있으면, 그 죄 없는 사람을 보아서라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다.” 50이란 “가득 찬 것”을 의미하는데, 본문에서는 “선이 가득 담긴 진리”를 뜻한다. 이 숫자는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배워 그것에 따라 살아가려는 노력을 끝까지 지속해 온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에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항상 절감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언제나 50보다는 적은 숫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즉, “죄 없는 사람 오십 명에서 다섯이 모자라다면 그 다섯 때문에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란 말이다. 5란 “적은 것”을 의미한다. 40과 30은 모두 시험을 의미하지만, 30은 40보다 시험을 덜 거친 상태를 의미한다. 진정한 시험은 거듭나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는 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영적 시험이란 우리로 하여금 외적인 시련이 아니라 의를 행하려는 바램을 자포자기하도록 하여 전투를 포기하게 하거나 보다 쉬운 아래쪽을 선택하도록 유혹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적 투쟁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이란 “무지속의 선”, 즉 “시험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선한 이들”을 표현한다. 스웨덴볼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0-20살 사이에 있는 청소년들 이라고 설명한다. 그 이유는 이들이 여전히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질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이들은 결국에는 구원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2216항: “합리성에 대한 애정과 합리적으로 진리 또는 거짓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웃음의 근원이다. 합리성 안에 이와 같은 애정이 웃음으로 그 자체를 드러내는 만큼 그

안에는 인간적인 것, 즉 세상과 육적인 어떤 것이 있는 것이다. 천적인 선과 영적인 선은 그들의 기쁨이나 상쾌함을 웃지 않고 얼굴, 언어, 몸짓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표현한다. 그 이유는 웃음에 많은 다른 요소가 있고 심지어 경멸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이 사항은 때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웃음은 마음의 상쾌함과 쉽게 구별된다. 주님께 있었던 인간적인 합리성이 사라의 ‘웃음’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이 웃음에 의해 선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있게 되는 합리성의 진리가 어떤 종류의 애정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과 이것이 벗겨져야하고 그 대신 신성으로 입혀져야 함을 의미한다. 즉, 주님께서 웃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전에 있었던 합리성을 신성으로부터 지각하시면서 인간들이 얼마나 그 속에 있을 것인지와 이것이 차차 추방되어져야 할 것임을 지각하셨다는 말이다. 이상의 내용이 사라의 ‘웃음’에 의해 내적으로 의미되는 것들이다.”

질문 정리

- 1) 아브라함의 첫 고향은 어디인가?
- 2) 주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3) 그의 마지막 정착지는 어디인가?
- 4) 어느 날 누가 그에게 왔는가?
- 5) 그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 6) 사실 그들은 누구인가?
- 7)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일러주었는가?
- 8) 왜 사라는 웃었는가?
- 9) 천사들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그들은 어디로 향했는가?
- 10) 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는가?
- 11) 아브라함이 주님께 묻은 첫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 12)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13) 아브라함은 몇 개의 질문을 물었는가?
- 14) 주님은 그 때마다 어떻게 답하셨는가?
- 15) 아브라함이 언급한 가장 작은 숫자는 몇 명인가?

- 16) 아브라함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도록 함은 무엇을 그리는가?
- 18) 아들의 출생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우르 2)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3) 헤브론(마브레) 4) 세 명
- 5) 귀중한 손님 대접 6) 천사들 7)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8) 자기가 늙었는데 어떻게 애를...의심했다 9) 소돔 10) 성을 멸하려고 11) 선한 이를 나쁜 자들과 함께 죽이지렵니까?
- 12) 만약 그 성에 죄 없는 사람이 오십 명이 있다면... 13) -5, 40, 30, 20, 10 (다섯 질문)
- 14)...하다면 멸하지 않겠다 15) 10 16) 단순한 신뢰와 순종의 상태
- 17) 이기적인 인생관을 떠나 천국적인 인격을 발달시키라
- 18) 새로운 지적 능력 또는 진리의 새로운 발달

5

이삭과 아비멜렉

머리말

이삭의 출생과 리브가와의 결혼 그리고 이삭의 삶을 먼저 살펴면서 공부를 진행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26장 1-33절

26장: 1. 그 지방에는 아브라함 당시에도 흉년이 든 일이 있었지만 그런 흉년이 또 들었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는 그랄로 가려는데 2. 야훼께서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 주는 땅에 자리 잡고 3. 그 땅에 몸 붙여 살아라. 나는 너를 보살피 주며 너에게 복을 내려 주리라. 네 아비 아브라함과 맺은 내 맹세를 지켜 너에게 복을 내려 주리라. 네 아비 아브라함과 맺은 내 맹세를 지켜 이 모든 지방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4. 그리고 네 자손을 하늘에 있는 별만큼 불어나게 하여 그들에게 이 모든 지방을 주리라.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네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5.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따라 내가 지키라고 일러 준 나의 계명과 규정과 훈계를 성심껏 지킨 덕이다.”

6. 이리하여 이삭은 그랄에서 살게 되었는데, 7. 그 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 이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이삭은 그가 자기의 누이라고 대답하였다.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곳 사람들이 리브가 때문에 자기를 죽이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어 자기 아내라고 하기를 꺼렸던 것이다. 8. 이삭이 그 곳에 자리 잡은 지 얼마 뒤의 일이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9. 이삭을 불러 들여 나무랐다. “그 여자는 분명히 네 아내다. 그런데 왜 네 누이라고 하였느냐?” 이삭이 아내 때문에 죽게 될 것 같아서 그랬노라고 대답하자 10. 아비멜렉은 “어찌다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하마터면 내 백성 가운데 누가 네 아내를 범할 뻔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쓸 뻔하지 않았느냐?” 하고 나무라고 나서 11. 온 국민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을 받을 것이다.”

12. 이사악은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그 해에 수확을 백 배나 올렸다. 야훼께서는 이렇듯 복을 내리셔서 13. 그는 부자가 되었다. 점점 재산이 불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14. 그는 양떼와 소떼와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사게 되었다. 15. 블레셋 사람들은 전에 이사악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 생전에 땀던 우물을 모조리 흙으로 메워 버렸다. 16. 한편 아비멜렉은 이사악에게 “너는 우리보다도 훨씬 강해졌으니 여기에서 물러 나거라”고 하였다. 17. 이사악은 그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천막을 쳐 자리 잡고 18. 아버지 아브라함이 땀던 우물들을 다시 땀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 버렸던 우물들이다. 이사악은 그 우물들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19. 이사악의 종들은 그 골짜기에 우물을 파다가 물이 팔팔 솟는 샘 줄기를 찾았다, 20. 그런데 그랄에 사는 목자들이 그 물을 저희 것이라고 하면서 이사악의 목자들에게 싸움을 걸어 왔다. 우물을 두고 싸움이 벌어졌다고 해서 이사악은 그 우물을 에섹이라고 불렀다. 21. 또 다른 우물을 땀더니, 그들은 그 우물도 탐이 나서 또 싸움을 걸어 왔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시트나라 하였다. 22. 그는 자리를 옮겨 우물을 또 하나 땀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 우물을 두고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사악은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부르며 “마침내 야훼께서 우리 앞을 활짝 열어 주셔서 우리도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다”고 소리쳤다. 23. 그는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올라 갔는데, 24. 그 날 밤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의 심복 아브라함을 보아

너에게 복을 내려 네 자손이 불어나게 하리라.“

25.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아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고 그 곳에 천막을 쳤다.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땀다. 26. 어느 날 아비멜렉이 친구 아후삿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사악을 찾아 왔다. 27. 이사악이 그들에게 “내가 미워서 쫓아 낼 때는 언제고 왜 나를 찾아 오셨습니까?”하고 물으니 28. 그들이 대답하였다. “야훼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그대와 우리 사이에 조약을 체결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그대와 계약을 맺고 싶다. 29. 우리는 그대에게 손 하나 대지 않고 잘 대접해 주었으며 떠날 때에도 편안히 보내 주었다. 그러니 그대도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그대야말로 정녕 야훼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30. 이삭은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셨다. 31. 이튿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서로 서약하여 조약을 맺고 환송을 받으며 흐뭇한 마음으로 떠나갔다. 32. 바로 그 날 이삭의 종들이 저희가 파던 우물에서 샘 줄기가 터졌다고 와서 알렸다. 33. 이삭은 그 우물을 세바라 불렀다. 그래서 그 도시를 오늘날까지 브엘세바라고 부르고 있다.

교리 요점

- *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어린이로서의 우리를 발달시키시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 * 그 방법은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있다.
- * 말씀 속에는 결코 우연히 이뤄졌거나 불필요한 것이 없다.
- * 원하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의 교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 진정한 합리성은 말씀속의 진리를 배워 순종하고 싶은 바램에 기초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다. 앞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이 열 네 살이었음을 살펴보았다. 그가 아기 이삭을 놀려대자 사라는 화를 냈고, 이로 인해 이스마엘은 어머니 하갈과 함께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다. 성경을 글자대로만 읽는다면, 어린 소년 이스마엘의 부질없는 행동 하나로 인해 죽을지도 모르는 광야로 모자를 쫓아낸다는 처벌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속에 “이스마엘”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마엘이란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 성향은 현상에 근거해서 판단하려 하고 영적인 깊은 원인이나 원리들을 삭감해 버리려 하는 속성을 지닌다. 우리의 인생 중에서 이러한 특질이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이다. 우리는 이 시기에 자신이 어른들 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는데, 이는 곧바로 반항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 범죄의 원인 중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어른들은 이런 청소년들의 어리석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른들 역시 스스로가 주님보다 무엇이 선한지를 더 잘 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이 내재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도록 태어났으며, 우리의 성숙한 판단을 의미한다. 이 판단은 주님의 인도 하에 천천히 성장하며 발달도 늦게 이뤄진다. 그리고 이 발달은 꾸준하며 순종적이다. 본문은 이 성숙한 판단 곧 보다 높은 판단력이 아브라함에 의해 표현되는 어린 시절 속에 있는 단순한 순종과 신뢰함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버린 후에도(창세기 25:7)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방향 지을 수 있도록 하시는가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요한복음 4장 5-14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자.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그분의 진리가 마음의 정결과 원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꼭 가서 마셔야 할 샘이라는 것과 그 샘물만이 우리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아주 어린 시절에 배운 성경의 이야기들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로 상징된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속의 세상적인 사상이나 욕망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실망시키거나 파괴하게 될 때, 우리는 15절의 블레셋 사람들처럼 우물을 흙으로 메워 버리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삭이라는 우리속의 보다 더 성숙해진 판단력은 18절에서와 같이 메워버린 우물들을 다시 파게 된다.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다시 팠을 때 그를 쫓아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까지도 그와 우호 조약을 체결하자고 방문할 정도로 주님께서 그를 번성시켜 주셨다. 우리가 의심을 갖게 될 때 혹은 조언이나 필요성을 느낄 때 찾아가야 할 사람은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포부로 인생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교훈을 자신의 깊고 확실한 반석(우물)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제 1반

이삭이란 이름과 뜻 그리고 우물과 브엘세바를 주로 살펴본다.

이삭이 다 성장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심복을 형제인 나홀이 정착한 하란으로 보내 친척들 사이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도록 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았으며, 아들인 이삭이 주님을 모르는 여자들과 결혼하여 진정한 예배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아브라함의 심복은 나홀의 손녀 리브가를 데려왔고, 이삭은 그녀를 매우 사랑했다. 그리하여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인 예사오와 야곱을 가졌다. 이에 대한 내용은 차후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 가장이 되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삭이 과거 그의 아버지가 위대했듯이

그가 위대한 사람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본문에서 이삭이 그의 목부들과 그 땅의 목부들이 다투는 것을 방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오히려 다른 이들이 원하지 않는 우물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우물을 팠다. 그리하여 아비멜렉은 이삭이 자신의 적이 아님을 느끼게 되어 이삭에게 와서 평화 조약을 맺었던 것이다. 만약 우리가 자신과 관련된 일로 계속 다투어 간다면, 누군가가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에는 모두 불행해지게 될 것이다. 반면에 쌍방중의 어느 한쪽이 계속되는 다툼을 피하여 다른 방향을 모색하거나 그 외의 방향을 선택한다면 일은 원만히 수습될 것이다. 따라서 다툼이 시작될 때는 그 다툼을 먼저 멈추는 자가 가장分別력이 있는 자임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아브라함의 첫 정착지는 어디였는가?
- *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은 어디인가?
- * 아브라함과 사라는 원한 것 중에서 가지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 * 누가 주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왔는가?
- * 메시지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 * 그 후 얼마 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가졌는가?
- * 이삭은 무엇을 뜻하는가?
- *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몇 살이었는가?
- * 이삭은 흉년으로 인해 어느 지방으로 갔었는가?
- *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왜 이삭을 두려워하며 떠나달라고 청했는가?
- * 이삭은 자기의 가축 떼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 * 그곳에서 가장 먼저 우물을 팠던 사람은 누구인가?
- * 블레셋 사람들은 그 우물들을 어떻게 했는가?
- * 몇 개의 우물을 가지고 이삭의 목부들과 그 지방의 목부들이 다투었는가?
- * 이삭은 세 번째 우물을 뭐라고 불렀는가?
- * “르호봇”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 * 누가 이삭이 다시 판 첫 두 우물을 소유했는가?
- * 그 후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와서 무엇을 요구했는가?

제 2반

본문 이전까지 있는 이삭의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공부를 시작한다. 이삭이 그의 아내를 두고 한 거짓말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는 내적인 의미로 설명이 가능함을 언급한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창세기 12:10-20, 20:1-11)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음을 언급하고, 우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살펴본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되었다. 그는 근처의 왕들과 동맹을 맺었고, 좋은 초지와 풍부한 우물들을 발견하여 자신의 가축 떼를 번성시켰다. 마침내 이삭이 그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었지만, 그 땅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안 것같이 이삭을 알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을 그리 대단치 않은 자로 인정했던 것이다. 아브라함이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그곳에 흉년이 들어 그는 이집트로 내려가야만 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흉년이 있지만 주님은 이삭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제 창세기 21장 22-32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아비멜렉(Abimelech)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왕의 선조”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 이름은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닌 블레셋 왕들의 전 계보를 통칭하는 말로 사료된다. 그래서 과거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조약을 맺었듯이 지금의 이삭도 그렇게 했다. 세바란 “맹세”라는 뜻이고, 브엘이란 “우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브엘세바(Beersheba)란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다.

이제 성서지도에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있는 블레셋(Philistine)의 영토를 찾아보도록 하자. 우리는 차후 이 블레셋에 관계되는 많은 사건들을 성경에서 읽게 될 것이다. 지도에서 브엘세바도 확인해 보자. 이곳은 거룩한 땅 중에서 가장 남쪽에 해당된다. 그리고 성서 지도의 가장 북쪽은 단이다. 따라서 성서에서 간혹 읽게 되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은 거룩한 땅의 전 영토를 의미한다.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과거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람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이삭은 기근이 들자 어디로 갔는가?
- * 당시 블레셋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이삭은 리브가에게 대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 아비멜렉은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임을 어떻게 발견했는가?

- * 이삭은 블레셋 영토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 * 아브라함이 그곳에 파놓은 우물은 어떻게 되었는가?
- * 왜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떠나가라고 했는가?
- * 왜 이삭은 자기 종들이 파 놓은 두개의 샘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 * 이삭의 종들이 세 번째 우물을 발견한 후 어떤 일이 있었는가?
- * 이삭과 아비멜렉은 어떤 합의를 보았는가?
- * 이삭은 그 합의를 이룬 장소를 뭐라고 불렀는가?

제 3반

이삭의 출생에서 본문까지의 이야기를 기점으로 이삭이 우리의 삶에 위치한 관계, 그가 블레셋사람들보다 더욱 번성한 이유, 우물의 의미 그리고 우물을 중심으로 발생한 것들을 살펴본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유아기, 즉 아주 어린 시절 속에 있었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한다. 이 상태가 정말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아기로서 평생 있기를 원치 않으며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한 아기가 진정한 자신의 위치를 세상에서 얻기 위해서는 자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추론하는 것을 배우는 시기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성서에서 그려지고 있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의 어머니는 사라의 몸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이었다. 이집트에 관련된 기록은 성서에 상당히 많다. 이집트는 나일 강으로 인해서 농토의 비옥함을 강우량에 의존하지 않게 되어 타 지역들이 가뭄과 흉년을 동시에 겪을 때에도 그곳만은 예외였다. 그래서 근동에 흉년이 있어 기근이 들 때면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오곤 했다. 우리는 기억 속에 많은 사실들을 저장한다. 설사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라도 우리는 일단 저장해둔다. 이집트 여인을 어머니로 하여 태어난 이스마엘이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생각과 추론하는 능력의 초기적 형태를 표현한다. 하지만 이스마엘로 상징되는 이 능력은 현상에 속한 것을 보고 들음을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할 뿐 가시적인 이상의 것, 즉 보이지 않는 세계 속의 것이나 현상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단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우리는 차차 세월이 흐르면서 사물이 현상 그대로 계속해서 존속되는 것만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때로 우리의 감각들이 오히려 우리를 현혹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가 계획한대로 삶이

이뤄지기를 기대하지 않아야 함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가시적인 현상의 세계 안에 우리가 배우고 순종해야 할 영적인 법칙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 법칙이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 속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본문을 보면 과거 아브라함의 시절에 흉년이 있었듯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과거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서 기근을 피했던 것처럼 이삭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이는 우리속의 보다 높은 것을 추론하는 능력은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지식에 의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능력은 주님과 영적인 삶에 관심이 있는 교리를 배워야만 되는 것이다. 이런 지식들이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제 블레셋 사람과 이삭의 차이점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자. 비록 이삭은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영토에 살게 되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크게 번성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시기를 사게 되어 마침내 그 땅을 떠나도록 요구받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이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알고 말하며 추론하고자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는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삭 역시 이와 똑같은 것을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되 주님이 원하는 삶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삭은 번성했고 블레셋 영토 내에서까지도 큰 부자가 되었던 것이다.

블레셋 사람과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의 또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들이 본문에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파 놓은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덮어 버렸다는 부분이다. 앞서 수차례 설명했듯이 물은 진리를 상징한다. 말씀 속에서 우물이란 우리가 성서를 읽는 가운데 발견하는 진리를 의미한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판 우물이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의 성경을 의미한다. 이 우물을 흙으로 메웠다는 함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타나는 진리의 안내를 받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선호하여서 자신에게 진리가 다가옴을 멈추게 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사항은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의 두 우물을 그들의 것이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말씀이 주님에 의해 영감 된 글이라고 하는 대신에 인간이 지은 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씀속의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 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단지 자신들의 사상만 볼 뿐이다. 사실 이러한 경향성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데, 이것의 근원이 바로 자아사랑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와 논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진실로 경청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단지 자신의 주장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에만 골몰한다.

이삭이 리브가가 자신의 누이라고 아비멜렉에게 말하는 것은 이삭의 외관상 나타나는 거 것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소 내용이 길어지므로 간략한 이야기만 살펴보도록 하자. 본문에서의 거짓말은 성경의 이야기에서 세 번째 일어난 것이다. 오래 전 아브라함은 사를 자신의 누이라고 아비멜렉을 속였고, 이집트에서도 이와 똑같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이 이야기들은 창세기 20장 2-7절과 12장 11-20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스웨덴북은 이러한 사건이 세 번씩이나 성경에 등장한 것은 거기에 매우 깊고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것은 위 문단에서 말한 바대로 현상이란 있는 그대로 존속되지 않는다는 것과 우리의 계획한 바가 언제나 우리의 예상대로 되지 않음에 대한 예증도 될 것이다.

조약의 체결이 브엘세바에서 있었던 본문의 사건 역시 두 번째 있게 된 사건이다. 이는 창세기 21장 22-31절을 보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히브리어로 브엘(beer)이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sheba)란 “맹세”라는 뜻이다. 따라서 브엘세바(Beersheba)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게 된다. 이 브엘세바는 거룩한 땅의 최남단에 위치한다.

말씀이 인간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조약체결의 반복이 저작상의 실수, 즉 성경을 베껴 쓴 율법학자들의 실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진리의 우물이 흙, 즉 인간의 사상으로 메워지는 모습중의 하나임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 두어야 할 사항은 주님께서 실수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이집트 = 기억속의 지식

블레셋 영토 = 교리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

제 4반

우선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을 거쳐 이삭으로 가는 발달 과정을 블레셋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고자 말씀에 대한 지적 흥미를 가진 후에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함을 강조한다.

진정한 영적 진보는 이삭을 통하여 오는데, 이는 이삭이 영적으로 합리적인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이 진정으로 올바르게 발달하려면 아브라함으로 상징되는 유아기의 완전한 상태가 이삭으로 상징되는 합리적인 추론능력으로 무리 없이 발전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25장 5-9절에 기록된 바로 의미되고 있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죽게 된 후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브라함을 매장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인 에사오와 야곱을 가졌다.

이후 본문으로 이어진다. 과거 아브라함이 처음 그 지역에 왔을 때처럼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모습이란 우리의 어린 시절에 자연적인 지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삭은 주님께 의해 이집트로 가지 말도록 분부되고 있다. 그 대신 그는 블레셋 족의 땅으로 가라는 주님의 명을 받았다. 그 이유는 이집트로 상징되는 자연적인 지식은 영적인 추론의 기초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블레셋 땅은 교리에 관한 지식을 상징한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브라함 역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과 그들의 영토에서 우물을 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은 후의 블레셋 사람들이란 교리를 배우고자 하나 그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유기적 상태를 상징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모든 자연적인 지식을 배우면서 말씀으로부터 오는 이야기들을 배우고 연장자들로부터 이런 이야기에서 얻어진 교훈들도 습득하게 된다. 이런 교훈이 바로 아브라함이 판 우물에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는 자라면서 자신의 의지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우물들이 자신속의 세상적이며 이기적인 착상들로 덮여버려 쓰이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흔히 나타나는 양상은 교회에 굳이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태도 혹은 성경에 대한 것은 과거에 다 졸업했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이다. 심지어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는 것마저도 서슴없이 무시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도 자신을 돌볼 수 있다고 하는 과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삭이 우리 속에서 발달되는 때가 온다. 이러한 시기에 대한 흔한 표현중의 하나는 “세상일이 내 뜻대로 다 되질 않아.”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푸념 섞인 말로 끝맺게 되는 삶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있게 되는 때가 바로 우리 안에서 이삭이 발달되는 때이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깨닫고 이 세계에 뭔가 다른 뜻이 있지 않는가를 살필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리는 순간 우리들 속에서 즉시 이삭이 발달되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바로 영적인 흉년을 느껴서 블레셋 영토로 내려가 다시 우물을 파야만 하는 것이다. 설령 자신이 이렇게 다시 우물을 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우리속의 블레셋족이 그 동안 너무 강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우물을 파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자신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우물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다음 이삭은 과거 아버지와 아비멜렉이 맹세를 했듯이 그와 또 다른 맹세를 할 수 있게 된다. 브엘세바(Beersheba)란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다. 말씀 속에서 우물은 성경의 상징으로서 자주 사용된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을 퍼 올리듯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진리를 끌어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둬 나가기에 작정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도록 해 줄 교리를 찾고 성경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보게 해 줄 교리를 발견할 때까지 그것을 찾는 일을 멈추서는 안 될 것이다.

본문의 일부는 종종 사람들을 당혹케 하는데, 이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아비멜렉에게 속인 구절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과거 사라에 관해 파라오를 속였고, 후에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속였다(창세기 12:11-20, 20:2-7). 성서 비평가들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된 것은 성서를 베꼈던 학자들의 실수였을 것이라고 하며 의문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제시하는 의문 자체가 본문 18절에 있는 바대로 아브라함이 땀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우는 구절이 의미하는 것의 실제적인 예이다. 스웨덴북은 “똑같은 사건이 세 번씩 발생했고 게다가 세 번씩이나 말씀에 기록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안에는 아주 큰 비밀이 있음이 분명하다. 내적인 의미로 이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결코 알 수 없다”라고 말한다(천국의 신비 3386항). 누이는 내적인 의미로 볼 때 합리적인 진리를 상징하지만, 아내는 선과 하나를 이룬 진리를 상징한다. 블레셋으로 상징되는 것과 같은 마음 상태하의 사람들은 합리적인 진리를 배우는 데는 흥미를 갖고 있으나 습득한 합리적인 진리를 자신의 지침으로 응용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와 유사한 진리, 즉 그들이 행해야 한다고 표현되는 진리일 경우에는 차라리 그것의 근원을 파괴하려고 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상응을 통해서 성서를 이해하다 보면, 우리는 과히 힘들지 않게 성서속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한다. 하지만 우리는 배우면서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오는 선한 충고를 언제나 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제 5반

이삭의 일반적인 사상은 알고 있으리라고 간주하고 경시하기 쉬운 부분만 주로 살펴본다.

어린이들을 양육해 본 부모들 또는 유아 시절에서부터 십대 초반까지의 성장과정을 유심히 관찰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본문에 있는 교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의 요지가 되는 단어는 아마 우물일 것이다. 성경 전체를 망라하여 우물이란 말씀에 대한 상징물이다. 진리를 위해 말씀을 읽는 것은 우물을 파는 모습과 같다. 그리고 우물이 없는 들판을 광야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씀이 없는 우리의 삶은 황무지에 불과하다.

과거 아브라함은 블레셋 영토에서 우물을 팠었다.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에 말씀 속의 이야기들을 배우고 그것들로부터 교훈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유아기를 지나 성장하게 될 때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 관한 것과 세상에 속한 표준을 배워가면서 가시적인 것을 기초로 하여 추론하는 이스마엘이 우리 안에서 태어나게 된다. 우리속의 블레셋은 이스마엘이 성장함에 따라 진리의 우물들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며, 심지어 인간적인 사상인 흙으로 이 우물들을 아예 메워 버린다. 블레셋 족들은 해안을 따라서 거룩한 땅 내에 거주해왔다. 이들의 영토는 성서 속에서 교리에 관한 지식을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란 “지식들로 비롯된 기억적 지식”을 상징한다. 따라서 영적인 진리들 역시 이러한 지식 속에 담겨 있으나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자기 속에 블레셋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항상 끼꺼이 사용하는 진리보다 더 많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가 옳아서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것을 행하는 데에 걸리는 것이 많아 자신의 처지가 불편해져서 진리를 행하는 것을 피하는 쪽으로 진리를 추론하여 유도한다면,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흙으로 메워버리는 15절의 말씀과 대동소이하게 되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제 2883항에서 주님의 생애를 통해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통하는 진보에 관한 진실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거듭남의 모습이기도 하다. 아브라함은 앞서 수차례 설명한 바대로 주님의 내적 인간을 표현한다. 반면에 이삭은 그분의 합리적인 인간을 그리고 야곱은 그분의 외적인 인간을 표현한다. 주님의 내적인 인간은 여호와 자체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합리적 인간은 그분의 내적 인간이 외적 인간 안에 있는 기억적인 지식을 추구함으로써 그 속에 유입되어 잉태되어진 바 그 인간을 통해 신성이 인성과 결합된 것이다. 이로부터 이스마엘로 표현되는 첫 합리성은 인간적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주님에 의해 신성으로 만들어졌다. 그 다음 이렇게 신성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이삭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첫 추론능력이 비록 주님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라 할지라도, 이는 우선적으로 자연적인 지식들을 기초로 하여 응용되게 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자연적인 지식, 즉 가시적인 것 혹은 현상들이 종종 우리를 현혹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을 통해 비가시적인

영적 원인이나 원리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위한 진정한 기초임을 배워 감으로써 첫 추론능력이 두 번째 추론능력에 의해 수정된다. 현명한 부모가 자녀들이 다루기 힘든 연령, 즉 사고를 잘 일으키며 잘못되기 쉬운 연령을 거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이 그에 대한 간단한 예다. 현명한 부모들은 이렇게 위험한 연령을 거치는 것이 그들의 자녀가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단계라고 인식하며 그들의 자녀가 그 시기에 이르면 매우 조심하기도 한다. 이 연령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바대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불리는 사춘기를 의미한다. 부모들은 이러한 과도기를 지나 자녀에게 성숙한 판단력의 첫 징조가 보이면 그런대로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된다.

아브라함 이전에 사라가 먼저 죽게 되는데(23:2), 그 후의 아브라함 주변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아내로서 어린 시절의 단순함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을 상징한다. 어린이들이 자신이 생각한 것으로 행동하고자 할 때면 이 순수한 마음을 벗어나 성장하기 시작하지만, 어린 시절에 들어 있던 선의지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저항하면서 미약하나마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되 처음의 형태가 아닌 또 다른 형태와 결합하게 된다. 이러한 결합이 바로 사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이 크투라와 재혼하는 모습으로 상징된다(25:1-6). 현대 정신의학은 개인의 어린 시절에 가졌던 경험을 정밀히 분석하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현재의 정신적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으로 21장 2절에 있는 아브라함과 크투라의 여섯 아들 그리고 이들의 후손들도 살펴볼 수 있다. 이 후손들은 구약성서 전체를 망라하여 등장하는데, 통상 이삭의 후손과 적대 관계로 등장함을 보면 위 문단의 내용을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25장 5절의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었다”라는 대목이다. 우리는 이 구절이 우리의 모든 영적 발전은 여하한 애매모호함 없이 말씀 속에 기초를 둔 진정한 합리적인 판단력에만 의존됨을 단적으로 보여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두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아비멜렉이란 “합리적인 것을 찾는 믿음속의 교리”를 상징한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설사 교리에 관심이 많다고 할지라도 교리에 관한 스스로의 추론으로 남들과 다투지 않는다. 흥년이 들자 주님은 이삭을 이집트로 내려 보내지 않으시고 블레셋 영토 그랄에서 살도록 하셨다. 이것은 블레셋 영토가 교리에 관한 지식을 그리고 이집트가 자연적인 지식을 상징함을 의미하는데, 진정한 합리성은 교리에 관한 지식에 의존해서만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삭 역시 이미 아브라함이 두 번씩 사용했던 책략을 반복하도록 인도되었다(창세기 12:11-20, 20:2-7). 여기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이삭의 누이로

표현되고 있다. 누이로서의 리브가와 아내로서의 리브가의 차이점은 영적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갖는 차이점을 뜻한다. 즉, 누이로서의 리브가는 단지 지적인 실력 발휘를 위해서 진리를 사모하나 아내로서의 리브가는 자신의 삶을 통제해나가기 위해서 진리를 사모함을 뜻한다. 스웨덴 북은 “삶의 길을 전향하려고 하지 않는 이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선행에 관련시켜 권면하게 되면, 이러한 진리들은 처음에는 거절되게 되고 그들에게 권면된 영적인 진리는 단지 그들의 지적인 흥미 수준에만 그치게 된다. 하지만 그들이 진리들에 대해서 일단 지적인 측면에서라도 인정하게 되면, 그 후에는 차츰 그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진리를 사랑하게 되어 점진적으로 진리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지적한다.

브엘세바(Beersheba)란 “맹세의 우물”이란 뜻을 가진 지역인데, 이후 이삭의 고향이 된 곳이다. 이는 거룩한 땅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우선 우리는 네 방위 중에서 남쪽과 북쪽방위는 성서에서 영적계발의 정도를 측량하여 말할 때 사용됨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북쪽은 무지의 정도를 그리고 남쪽은 영적계발의 정도를 뜻한다. 이삭이 브엘세바에 정착하여 우물을 팠고 제단을 쌓은 후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은 일련의 모습은 외적뿐만 아니라 내적으로의 선한 삶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초인 영적 계발의 진정한 모형을 우리에게 주는 것임을 인식한 후 성서 본문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자.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3464항 (Arcana Coelestia n3464): “말씀의 글자에서 오는 교리라는 점에 국한하여 보면, 사람들이 교리 안에 있음과 더불어 그것에 따라 삶을 영위할 때 그들 스스로 상응을 이해하게 된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외면의 진리에 국한되어 있으나 그와 함께 하는 천사들은 내면의 진리에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그는 교리적인 것들을 통해서 천국과 교통을 갖게 되는데, 그 수준은 자기 삶 속에 있는 선행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 예로 성만찬을 받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때 ‘이것은 나의 몸과 피다.’라고 낭독되는 말씀으로부터 듣는 이는 자기의 단순함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하는 천사는 이것을 들을 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이타애라는 생각 안에 있게 된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은 주님의 몸 또는 빵에 상응되고, 이웃을 향한 이타애는 피와 포도주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응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찬을 받고 있는 당사자의 거룩한 마음 상태 안에는 함께 하는 천사들을 통하여

천국의 애정이 흐르게 된다. 그는 이 사랑하는 심정을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선함에 일치시켜 받아들이게 된다.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는 천사들의 거주지가 바로 우리의 삶에 관한 애정인 바, 즉 각자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리적인 것들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각자의 삶과 불일치해서 있어지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 불일치하는 삶의 경우를 예로 살펴보자. 만약 누군가가 교리적인 것들 수단으로 하여 자신의 명예와 부를 얻고자 한다면, 그와 함께 한 천사들은 지쳐서 떨어지고 지옥의 것들이 그의 마음 안에 거하게 된다. 자신과 세상을 위한 목적으로 교리적인 것들을 확증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주입해 놓은 사람의 믿음은 타인의 마음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하는 구변의 진실여부는 개의치 않는다. 그 결과 진정한 믿음은 그런 사람에게서 거두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에게 입술에만 교리가 있어져 단지 자아사랑이나 세상적인 사랑으로 수식되는 열기만 내뿜게 될 뿐이다.”

질문 정리

- 1)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은 누구인가?
- 2) 이사악의 아내는 누구인가?
- 3) 이 아내는 어느지역 출신인가?
- 4) 이사악과 리브가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 5) 주님은 이삭이 흉년을 맞아 어디로 가는 것을 막으셨는가?
- 6) 그 대신 이삭은 어디로 갔는가?
- 7) 불레셋의 왕은 뭐라고 부르는가?
- 8) 그는 이삭을 환영했는가?
- 9) 누가 과거 불레셋 영토에서 우물을 팠는가?
- 10) 불레셋사람들은 이 우물을 어떻게 했는가?
- 11) 불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파 놓은 우물의 몇 개를 못 쓰도록 방해했는가?
- 12) 이사악은 그들과 다투었는가?
- 13) 아비멜렉은 결국 이사악과 어떤 합의를 보았는가?
- 14) 합의가 이루어진 장소를 뭐라고 불렀는가?
- 15) 브엘세바란 무슨 뜻인가?

- 16) 이삭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우물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불레셋사람은 무엇을 그리는가?
- 19) 불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파 놓은 우물을 메워 버린 모습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이삭 2) 리브가 3) 하란 4) 예사오와 야곱 5) 이집트
- 6) 그랄 지방 7) 아비멜렉 8) 환영했다 그러나 후에 그를 두려워했다
- 9) 아브라함 10) 우물을 흙으로 메워 버렸다 11) 두개 12) 다투지 않았다
- 13) 평화의 맹세 14) 브엘세마 15) 맹세의 우물 16) 영적인 추론력
- 17) 말씀 18) 진리를 알고자 하나 그에 따라 살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
- 19) 주님의 안내를 받는 것보다 자신의 의견을 선호하는 것

6

야곱의 귀향

머리말

야곱의 출생이 언급되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장까지의 이야기를 기억하면 본문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25장부터 34장까지 시간을 내어 읽은 후 본문의 공부를 시작하기 바란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35장

35장: 1.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이러고 있지 말고 베델에 올라 가 거기에 자리를 잡아라. 네가 형 에사오를 피해 갈 때 너에게 나타났던 이 하느님에게 제단을 쌓아 바쳐라.” 2. 야곱은 곧 그의 온 가족과 그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있는 남의 나라 신들을 내버려라. 깨끗이 몸을 씻고 옷을 갈아 입어라. 3. 이제 우리는 여기를 떠나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나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호소를 들어 주시고 내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보살피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자 한다.” 4.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남의 나라 신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모두 물었다. 5. 그리고 그들은 그 길로 떠났다. 그러자 신비한 두려움이 주위에 있는 도시들을 휘어잡아서 아무도 야곱의 지손들을 추격하지 못했다. 6. 야곱은 자기에게 딸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루즈에 이르렀다. 6. 이 루즈가 곧 베델이다. 7.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 하였다. 야곱이 형을 피해 갈 때 하느님께서 그 곳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이다. 8. 베델 아래쪽 상수리나무 밑에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묻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곳을 알론바굿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9. 야곱이 바편아람에서 돌아오는데 하느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20. 말씀하셨다. “네 이름이 야곱이었지. 그러나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리하여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되었다. 11. 하느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너는 많이 낳아 번성하거라. 너에게서 한 민족이, 아니 여러 민족이 모인 집단이 나리라. 네 후손 가운데서 왕들이 태어나리라. 12. 아브라함과 이사악에게 주었던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또한 너의 뒤를 이을 후손에게 준다.” 13. 하느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14. 야곱은 하느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그 곳에다 석상을 세웠다. 그는 그 돌기둥 위에 술을 붓고 또 기름을 부었다. 15. 야곱은 하느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그 곳을 베델이라 이름하였다. 16. 그들이 베델을 떠나 가는 도중, 에브랏까지는 아직 얼마 더 가야 하는 데서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다. 난산이었다. 17. 아이를 낳지 못해 고생하는데 산파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아들이입니다”하고 위로하는 것이었다. 18. 마침내 라헬은 죽게 되어 숨을 거두면서 아기 이름을 벤오니라고 불렀다. 그러나 아기 아버지는 베냐민이라 불렀다. 19. 라헬은 에브랏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다.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다. 20. 야곱은 라헬의 무덤 위에 비석을 세웠다. 그것이 이날까지 라헬의 묘비로 알려져 있다. 21.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떠나 므달에텔 건너편에 이르러 천막을 쳤다. 22.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고 있을 때였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소실 빌하를 범하였는데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귀에도 들어갔다.

야곱에게는 아들 열둘이 있었다. 23. 야곱이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맏아들 르우벤, 그 아래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싸갈, 즈불론이었다. 24.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25.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얻은 아들이요, 26. 가드와 아셀은 레아의 몸종 질바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이들은 야곱이 바탄아람에 있을 때에 얻은 아들들이다.

27. 야곱은 마침내 아버지를 찾아 키랏아르바라고도 불리는 마므레에 이르렀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사악이 몸붙여 살던 헤브론이다. 28. 이사악은 백 팔십 세나 살았다. 29. 이사악이 이렇게 명이 다하여 숨을 거두고 죽어 세상을 떠나 선조들 곁으로 가자, 아들 에사오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교리 요약

- * 주님은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주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의 이기심까지도 사용하신다.
- * 말씀속의 어떤 것도 우연히 이뤄지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 * 모든 것은 먼저 지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는 생각이나 행동의 첫 원인이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야곱의 꿈은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잘 알려진 것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젊은 야곱이 홀로 여행하던 중 베델에서 노숙하면서 있었던 일이다. 그는 그곳에서 지상에서 하늘까지 닿고 있는 사다리를 보는 꿈을 꾸었는데, 그 꼭대기에 주님이 계셨고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야곱은 아침에 깨어나 주님께 서약을 했다. 즉, 주님이 자신을 번영시켜 주신 다음 고향으로 안전하게 되돌아가도록 해주시면 주님을 언제나 섬기겠다고 하는 서약이었다.

꿈을 꾸는 그 순간 야곱의 바램은 사실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 보장을 받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야곱은 하란에 도착한 후 삼촌의 딸인 라헬을 사랑하게 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는 하란에서 이십여 년을 체류했고, 삼촌을 섬기면서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라헬과 라헬의 언니 레아를 아내로 맞았을 뿐만 아니라 아내들의 하녀 빌하와 질바를 얻었고, 그들로부터 열 한 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얻었다. 위의 이야기는 간단해 보이지만, 청소년기의 삶에서 발생하는 것들에 관한 것이 담겨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좋은 가정에서 양육되고 학교와 교회에 다니면서 그들을 인도해 줄 종교적인 원리도 받아들이게 된다. 그들 중 일부는 특별히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사랑하기도 한다. 그런 다음 스스로의 신앙을 깊이 다져야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집을 떠나 대학이나 직장을 찾아 떠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이성을 만나 사랑하게 된 후 결혼하면서 불어나는 식구들을 위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인생이 전개되면서 이들의 마음과 삶은 세상에서 요구되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 그들이 어렸을 때 가졌던 이상향은 그들의 마음에서 잊혀져 간다.

그러나 인간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더 깊고 더 높은 것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있다. 그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기에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이 자기들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 곧 누가복음 15장의 방탕한 아들이 말 한 “어서 아버지께 돌아가자.”라는 구절의 뜻을 헤아리게 될 것이다. 이는 본문에서 야곱이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으로도 의미된다. 즉, 자신이 쟁취하던 그릇된 포부와 세상적인 만족을 한쪽으로 밀쳐놓고 과거에 약속했던 주님과의 서약을 성취시키기 위해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라, 내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받고, 이 세상을 기초로 예비 된 왕국을 상속받으라.”라고 하신 말씀을 청종하는 부류에 속해야 할 것이다.

제 1반

야곱의 꿈과 본문을 연관 지어 살펴본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사랑하던 아들이었다. 그녀는 에사오의 분노로부터 야곱을 살리기 위해 남편 이삭을 설득시켜 하란에 있는 오빠 라반에게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환영을 받았고, 그곳에서 만족해하며 이십여 년을 머물렀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부다처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야곱은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했고, 두 아내의 몸종들인 빌하와 질바까지도 아내로 거느렸다.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은 이야기와도 유사하다.

본문에서 필히 기억해 두어야 할 사항은 주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인 이스라엘(Israel)을 주셨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후손”으로도 불리게 된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야곱에게 열 한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이 태어난 곳은 어디인가?
- *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인가?
- * 언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는가?
- * 야곱이 하란으로 향하던 도중 경이로운 꿈을 꾸었던 곳은 어디인가?
- * 주님은 그 때 그곳에서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 * 베들레헴 근처에서 태어난 아들은 누구인가?
- * 누가 그곳에서 죽었는가?
- *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 *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어디서 뵈었는가?

제 2반

야곱의 이야기를 질문형식으로 엮어감으로써 기억을 되새겨보도록 한다.

야곱은 하란에서 삼촌인 라반의 환영을 받았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라반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일부다처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하란에서 레아로부터 여섯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고, 라헬과 레아의 몸종인 빌하와 질바로부터도 네 아들을 낳았으며, 마지막으로 라헬이 요셉을 낳았다. 그

후 야곱은 가나안 땅의 고향으로 되돌아가기로 작정했는데, 이때는 하란에 온지 이 십 여년이 지난 후였다. 그는 여전히 에사오를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막상 에사오를 만나자 이미 오래 전 동생인 그를 용서했고 기쁘게 환영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했다.

야곱이 처음 집을 나섰을 때 베델에서 그가 꾸었던 경이로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되새겨 보도록 하자. 즉, 지상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와 그 꼭대기에 주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다. 창세기 28장 16-22절을 보면 야곱이 주님께 서약하는 내용을 알 수 있다. 베델이란 “하느님의 집”이란 뜻이다. 그리고 본문은 야곱이 이 서약을 지키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아들로써 열두 번째에 해당된다. 본문 23-26절을 보면 야곱의 열 두 아들들의 이름을 모두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이름들에 친숙해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후 성서의 많은 부분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시조가 되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요셉과 베냐민이 열 두 아들 중 마지막에 해당되며,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삭은 막벨라 동굴에 안장되었는데, 그곳은 과거 사라가 죽었을 때 가문의 묘지로 삼기 위해 아브라함이 사둔 땅이다. 이삭이 죽은 후 야곱은 그 가문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을 우리는 세 열조들이라고 부른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주님은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고 이르셨는가?
- * 야곱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 * 누가 베델에서 죽었는가?
- * 주님은 야곱에게 어떤 다른 이름을 주셨는가?
- * 주님은 그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 * 누가 베들레헴 근처에서 죽었는가?
- * 누가 베들레헴 근처에서 태어났는가?
- * 누가 수 백 년 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가?
- *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어디서 살고 있음을 발견했는가?
- * 그가 죽었을 때 누가 이삭을 안장했는가?

제 3반

야곱이 갖는 일반적인 의미를 살펴본다.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이 결코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한쪽에 놔두어야겠다는 인식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아브라함은 성경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아주 어린 시절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고, 이사악은 우리가 어린 시절을 지나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여 주님의 법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기 시작하는 상태를 표현한다. 우리의 영적 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이사악의 단계는 아마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즈음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과 잘 어울릴 수 있는가, 즉 어떻게 하면 부와 명예를 얻고 멋진 상대와 결혼할까 하는 것 등에 골몰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았지만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집을 나서서 대학이나 직장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제 “자립적으로” 뭔가를 해내겠다는 각오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는 자연적인 평면에서의 삶의 발달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시기가 바로 성경에서 야곱의 이야기로 묘사된다.

야곱은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했다. 이 두 여인은 각기 자연적인 인간 안에서 외향적인 진리와 내향적인 진리를 사랑함을 표현한다. 야곱에게는 이 두 아내의 몸종 빌하와 질바도 아내로 주어졌다. 이리하여 야곱은 네 여인으로부터 한 명의 딸과 열 두 아들을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두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만이 야곱의 첫사랑이기도 한 라헬의 자식이었다. 또한 그는 하란에서 가축 떼를 많이 지닌 부자가 되었다. 야곱의 아들들이란 젊은이가 자립적인 삶을 시작하는 시기에 그 안에서 발달되는 다양한 자질들을 상징한다. 야곱의 가축 떼란 이 시기에 우리에게 있게 되는 지식이나 능력들을 뜻한다.

야곱은 이 십여 년이 흐른 뒤 어느 날 갑자기 고향으로 가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이는 내적으로 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즐기는 것으로는 만족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모든 소유물과 능력을 챙겨 아버지의 고향, 즉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되돌아가야 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 귀향 길 - 가나안 땅의 경계선 - 에서 발생하게 되는 첫 번째 사건이 야곱과 에사오의 재회였다. 형인 에사오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기억하고 있는 야곱으로서는 에사오를 두려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에사오는 야곱을 기쁘게 반겼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선의지와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음을 실감하는 순간을 의미한다. 그런 다음 본문이 이어진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야곱이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룻밤을 노숙한 것과 꿈속에서 지상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본 경이로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 야곱이 주님께서 자기를 번성시켜 주시며 다시 고향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신다면 그분을 예배하며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이 약속대로 이제 번성하여 되돌아왔다. 그래서 야곱은 우선적으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주님을 예배하게 된다.

제단을 쌓기 전 이야기에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 야곱의 모든 식구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남의 나라 신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모두 내놓아야 했고, “세겜 근처 느티나무 밑에 그것들을 모두 묻었던” 것이다. 스웨덴볼에 따르면 젊은이들이 발달 시켜온 세상적인 사상이나 포부들이 바로 ‘남의 나라 신들’이 의미하는 바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젊은이들은 세상적이며 이기적인 것의 자극에 유혹되기 쉬운 바, 이런 것들로 인해 잘못된 일을 저지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들’이 의미하는 바다.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무가치함을 인식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전에 자신이 순수해질 수 있도록 그것들을 마음 밖으로 밀어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본문 8절에는 “베델 아래쪽 상수리나무 밑에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묻혀 있었다.”라는 구절이 있다. 창세기 24장 59절에서 이 유모가 언급되고 있다. 우리는 오래 전 하란에서 리브가가 올 때 함께 온 그녀의 유모가 갑자기 야곱의 이야기 중간에 언급되는 것을 의아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대목은 글자대로 설명하기가 대단히 난처한 부분이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8절이 대단한 의미를 함유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한마디로 리브가의 유모란 유전적인 악을 상징한다. 인간은 누구나 그 속에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태생적인 이기심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신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한 때 기대되는 보상(칭찬)과 불순종할 경우 예상되는 처벌(매)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처신하도록 인도되는 것과도 비슷하다. 주님께서는 이사악의 단계에 접어든 사람들 또한 그들이 가진 이기적인 요인들을 사용해서서 그들로 하여금 그분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인간의 됾됨이가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교리적인 진리인 리브가는 우리의 유전적인 이기심에 의해 젓 먹여져 길러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와 세상적인 성취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주님을 섬기는 순종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결심할 때에 위와 같은 이기적인 요인들은 영원히 우리에게서 떨어뜨려지

게 된다.

이 후 야곱은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 이삭과의 재회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가문의 우두머리로서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게 된다. 이제 이삭은 죽고 두 아들들인 예사오와 야곱이 그를 안장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삭이 죽어서 매장되었으니까 그가 상징하는 우리의 영적 합리성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야곱과 예사오는 완전한 어른이며, 가문의 우두머리들로서 이사악의 후계자들이다. 따라서 이는 영적인 합리성이 오히려 우리의 일상생활 또는 매사에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스며있어서 더 이상 우리의 이해성 속에서 별도로 서 있을 필요가 없어졌음을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표현하는 초기시절의 신뢰함과 순종 역시 우리의 일부가 되어야 함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창세기 25:7).

기본 상응 공부

예사오 = 자연적인 선한 의도
야곱 = 진리를 자연적으로 이해함
타국의 우상들 = 세상적인 포부들
리브가 = 교리적인 진리를 사랑하는 것
리브가의 유모 = 유전적인 악
금 귀걸이 = 우리가 순종했던 이기적인 자극들

제 4반

야곱이란 상태에 대한 영적 교훈을 언급한다. 특별히 야곱이 집을 떠날 때에 품었던 바램이 20여 년 후에 이뤄짐을 주로 살펴본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들은 천적인 의미로 볼 때 주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뒤 유아기로부터 성인이 되실 때까지 발달되는 그분의 내적인 삶에 관해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분이 발달시킨 인간으로서의 삶과 우리의 삶은 아주 유사하여 우리에게도 상당부분 적용된다고 덧붙이고 있다. 주님은 마리아로부터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것, 즉 태생적인 인간의 유전성을 입으셨다. 그리고

주님은 이 유전성이 삶에서 주게 되는 시험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남의 표본이 되시기도 한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시대 뒤 에사오와 야곱의 시대로 이어진다. 야곱과 에사오를 주님과 관련시켜 보면 우리 삶의 평면 중에서 자연적인 평면을 상징한다. 야곱은 진리의 측면에서 그리고 에사오는 선의 측면에서의 자연적인 평면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서 자립적인 삶을 꾸리기 시작하는 시점과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아브라함으로 표현되는 아주 어린 시절의 우리는 마음의 이상적인 두 상태인 순진과 신뢰를 잠재의식 속에서 경험하고 저장해 두게 된다. 그 다음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표현되는 어린 시절의 우리는 지식들을 습득하면서 그것들로 추론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추론능력의 발달 초기에 외면적이며 피상적인 안목만 지니게 되지만, 차츰 가치라는 개념에 비중을 둔 보다 진정하고 깊은 안목으로부터 추론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후 우리는 청년기 시절에 이르러 자립적인 삶을 시작하면서 세상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몰두한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이 시기에 이르면서 거룩한 땅을 등지고 서서 지극히 세속적인 일상생활속의 실용적인 문제들에 자신을 헌신한다고 말할 수 있을 지경에까지 이른다. 이런 상태가 바로 본문의 앞장에서 전개되는 하란에서의 야곱의 장기체류가 의미하는 바다.

그러나 하란은 우리의 진정한 고향을 상징하지는 않는다.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는 우리의 삶이 본격화되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삶의 이상이 언제나 움츠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용적이라는 삶의 굴레에 불만족하게 되면 우리의 얼굴은 본향을 향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본문 이전의 야곱과 같이 천천히 여행하고, 삶의 낯은 사상을 되돌아보며 점검하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란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가족 떼들까지 끌고 본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고향예로의 도착이 지연 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비록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본향의 경계선에 도착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본향에 실제로 진입하기 전에 우리안의 야곱과 에사오의 재회가 먼저 있어야만 한다. 이는 천국적인 삶이 주님을 섬기는 면에서 우리의 의지와 이해성이 결합할 때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 다음 본문이 시작된다.

여기서 베델과 연관 지어 상기해 볼 사항은 과거 야곱이 형 에사오의 분노를 피해 집을 떠날 때 그에게 용기를 준 첫 사건인 사다리의 꿈이 이곳에서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 때 야곱은 주님께서 자신을 잘 돌봐 주시고 무사히 귀향하도록 해 주시면 그분을 섬기겠노라고 약속했다. 이제 본문에서 주님의 약속이 모두 성취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야곱이 번성하여 부유함과 함께 평화스럽게

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베델로 되돌아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기 전 가족들에게 그들이 소유한 타국의 우상들을 버리고 옷을 깨끗하게 하도록 명령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천국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느낌과 생각 그리고 행동들을 바꾸며 주님께 등을 돌리는 분단된 충절이 있어지지 않도록 한다면 지켜야 할 사항이다. 야곱의 모든 식구들은 그들이 가진 우상들과 귀에 걸었던 귀걸이까지도 야곱에게 내어놓았다. 남의 나라 신들인 우상은 그런 대로 이해되지만 귀걸이까지도 벗어 놓아야 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귀나 귀걸이가 순종과 순종에서 있게 되는 기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이것들은 자기 고집에만 귀를 기울여서 행동하려는 우리의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야곱은 베델로 가기 전 이 모든 것들을 세겔 근처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다. 스웨덴붉은 상수리나무 아래에 뭔가를 매장함이란 묻은 것들을 영원히 거절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세겔에서 일시 체류하는 야곱의 모습은 그가 평화로운 상태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노력하는 목표가 서로 나누어져 있는 동안에 우리는 위의 야곱이 갖게 되는 평화의 상태에 이를 수 없다. 이를 가장 명확히 가르치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의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다. 이리하여 야곱이 베델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 다음 구절에서는 난데없이 리브가의 유모가 베델에서 죽었고 상수리나무아래 매장되었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리브가의 유모는 창세기 24장 59절에서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에게 팔려 보내고.”라고 적힌 부분에서 짧게 등장되는데, 과거 아브라함이 그의 심복을 하란으로 보내 아들 이사악의 아내를 데려오는 이야기에서 잠깐 언급된 여인이다. 그렇다면 왜 갑작스럽게 과히 중요하지 않은 리브가의 유모가 매장되어 있다고 이 구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일까? 이 구절의 글자적인 의미만으로는 이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이 구절에는 오묘하신 주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 즉, 우리속의 악들은 우리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되 갑작스럽거나 단번에 또는 하루아침에 제거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자신 안의 악을 끊임없이 거절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도록 허용된다는 섭리인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24-30절의 밀 사이에서 자라도록 놓아두신 가라지의 비유를 읽어보면, 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베냐민은 베들레헬에서 태어났다. 그가 그곳에서 태어난 까닭은 우리 삶 중에서 자연적인 삶이 실행할 수 있는 선 가운데 가장 높은 종류의 선을 그가 상징하기 때문이다. 베냐민으로 상징되는 선은 거룩한 땅으로 귀향하기 전에는 생산될 수 없는 선이기도 하다. 물론 이 선으로 이끌어 주는 진리인 요셉은 거룩한 땅 곧 우리가 목표하는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태어나지만 그 진리의

결과물이 되는 선은 아직 생산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라헬의 죽음은 사라가 죽음과 같이 우리의 발달 단계 중 어느 한 단계의 끝을 상징한다. 이 끝남이란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에 더욱 흥미를 갖게 되면서 과거의 경험들이 그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뒷자리로 물러서는 때를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라헬이나 사라 등과 같은 여자들의 죽음이 갖는 의미이다.

이삭의 죽음은 우리의 영적발달을 보다 큰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볼 때 마지막 단계, 즉 사건이다. 이 사건이란 유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성인에 이르는 성숙의 상태로서 발달의 완료됨을 의미한다. 창세기 49장 31절을 읽어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막벨라 동굴에 안장되었고 그 뒤 야곱과 레아도 그곳에 안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야곱의 첫사랑은 라헬이었다. 사실 야곱으로서는 레아와 역지로 결혼했기 때문에 야곱과 라헬이 그곳에 안장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레아가 열조들에 소속되어 있었는가를 궁금해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라헬이란 진리의 내면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고 레아란 진리의 외면(외적인 진리)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징한다. 따라서 야곱이라는 자연적인 이해성의 이상향은 라헬이었으나 이런 이해성에 실질적으로 걸 맞는 짝은 작은 레아가 될 수밖에 없다. 이삭은 앞서 공부한 바대로 우리의 영적인 추론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삭의 죽음이 영적인 추론을 포기함을 뜻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야곱은 이삭의 모든 것을 소유하였고,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 열조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삭이 우리의 자연적인 삶 곧 일상생활 속으로 흡수되어 이미 하나가 되어 흐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 이삭이 흡수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매일의 각종 사건과 생각이 매일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꺼낸 진리에 의거해서 분석되고 생각되며 행동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진정으로 선한 외적인 삶이란 삶 속에 아브라함의 순진과 신뢰 그리고 이삭이라는 영적인 가치 개념에 관한 합리적인 이해까지 모두 다 함유하고 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기억하길 바란다.

제 5반

먼저 야곱의 초기 생애를 간략히 살펴본다. 그 다음 우상과 귀걸이를 묻는 것과 베델에 드보라의 묘지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베델레헴에 라헬의 묘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이 묘지들이 이삭의 묘지로 이어지면서 야곱의 장자 상속이 따르게 됨을 언급한다. 특별히 행위적인 선을 종교의 첫 번째 일로 취급하려는 경향을 본문과 관련 지어 살펴본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관련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야곱과 에사오가 삶의 자연적인 곧 일상적인 평면을 상징하며, 그중에서도 야곱이 진리적 측면을 뜻하고 에사오가 선의 측면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신앙의 증거로서 행위적인 선행을 강조한다. 물론 우리 모두가 이러한 행위적인 선행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수긍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행이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지성 속에 그분의 본성과 뜻을 헤아리는 것을 싹틔워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선행이라는 것이 종교의 내면에 있는 특질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늘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고 주님의 자비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행한 선은 단지 과장상의 문제일 뿐 주님과 이웃사랑 혹은 자신의 결점을 인식함과 주님의 자비를 대신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야곱과 에사오는 처음에는 서로 경쟁관계였고, 나중에는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기도 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자연적인(인간적인)선과 자연적인(인간적인) 이해성의 불협화음을 뜻한다. 우리 속에 있는 인간적인 선을 이루는 선의지는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것, 즉 자신의 선행을 남들이 인정하도록 하는 것에 열심일 뿐 그러한 선행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는 진정한 가르침에 관해서는 성급하기만 하다. 그리고 우리의 자연적인(인간적인) 이해성 곧 세상적인 차원에서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해성은 뭔가를 조금 이해했다고 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여기며 스스로를 추켜올리려 들 뿐 자신을 발전시키는 방법에는 너무나 엉성하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 27장 11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즉, 에사오는 털이 많고 야곱은 매끈매끈 했다는 것이다. 털이란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외적인 삶을 표현한다는 것을 참고로 에사오와 야곱이 상징하는 바를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란지역에서의 야곱의 장기체류는 그에게 고향에 대한 진정한 값어치를 가르쳐 주고, 형과의 화해에 대한 절실함을 느끼게 하는데 필요했던 것이다. 이는 흔히 젊은이들이 자신만만하게 부모의 곁을 떠나 세상에서의 본인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자체에 어떤 다른 값고 중요한 것을 체득하기 위한 과정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들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부딪치며 살아가다 보면, 그들은 물질적인 성공 외에 더 나은 것이 삶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그들이 과거 어린 시절에 받았던 가르침 속에 들어 있는 영적인 원리들과 어린 시절에 품었던 선한 심정 상태를 되찾아야겠다고 결심하며 그 시절로의 귀향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데에 긴 세월이 소요됨을 의미하고 있다.

스웨덴북은 야곱의 이야기에 천적인 의미를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그의 이야기는 자연적인 수

준에서 영화되어 가시는 주님의 진보에 대한 묘사이다.”라고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스웨덴붉은 그분의 영화하심의 질서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거듭남을 조심스럽게 지적한다. 창세기 32장 28절을 찾아보도록 하자. 이 구절에서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천사와의 씨름 후에 있었다고 전하는데, 본문 10절에서도 이러한 개명에 대한 언급이 있다. 왜 주님은 성경을 쓰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개명함에 대해서 두 번이나 언급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 부분의 이야기가 천적인 의미로는 주님의 영화 하시는 질서의 단계 중 어느 한 단계의 완성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은 주님의 자연적인 면의 외적인 부분을 그리고 이스라엘은 내적인 부분을 표현한다. 이런 연유로 성경 상에서 이 두 이름이 자주 언급되며 어떤 때는 한 구절 안에서 두 이름이 동시에 등장하기도 한다. 이는 야곱이 당시의 교회가 단지 교회라는 껍데기만을 표현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고대 히브리인의 예식들이 표징해 준 진정한 교회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상의 이름들이 반복되는 것이 실수로 인해서라든가 혹은 한 구절에서 같은 인물에 대한 다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기록상의 실수가 아닌가하고 추측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에 있는 모든 글자 특별히 성경상의 이름들은 어떤 명확한 목적 없이 교체되거나 사용되는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하란에서 야곱에게 태어난 아들들이란 우리가 세상 삶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발달된 우리속의 자질들을 그려준다. 그 중에서도 하란에서 태어난 마지막 아들 요셉은 순수한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하란으로 상징되는 단계에서 있게 되는 마지막 자질을 의미한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귀향하고자 결심한 때는 요셉의 출생 후였다. 그러나 순수한 진리에 걸 맞는 선을 상징하는 베냐민이라는 아들은 야곱이 예사오와 재회하고 가나안 땅에 귀향해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후에 탄생하게 된다.

본문에서는 성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유명한 장소들인 세겜, 베델, 베들레헴 그리고 헤브론 지역이 등장하는데, 이 이름들을 반드시 기억해두기 바란다. 야곱은 그의 식솔들이 내놓은 남의 나라 신들과 귀결이를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다. 남의 나라 신들과 귀결이란 우리 마음을 잡고 있는 거짓들 곧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진 거짓들을 표현한다. 그리고 이것들을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다함은 우리속의 각종 거짓들을 영원히 멀리함을 뜻한다. 이 사건은 세겜에서 이뤄졌다. 세겜은 과거 아브라함이 거룩한 땅에 들어온 후 머문 첫 장소로서, 우리가 거듭나는 중에 “처음으로 받게 되는 빛인 내면적인 진리”를 표현한다. 이것은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 전에 그분의 지혜와 사랑에 불일치되는 우리속의 나쁜 습관과 거짓사상을 반드시 떨쳐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다음 야곱은 베델로 전진한다. 야곱의 귀향길은 과거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거룩한 땅에 왔을 때의 길과 같다. 처음 세겜에, 그 다음 베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브론에 정착한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다. 이 모습은 순진과 신뢰가 거룩한 마음 상태 안으로 조금씩 전진해 가는 과정에 대한 묘사이다. 아브라함의 여행은 주님의 어린 시절과도 흡사하다. 반면에 야곱의 여행은 보다 세상적이고 자연적인 순종의 여행이나 아브라함보다 더 완숙된 과정을 표현해 준다. 아브라함은 무지와 우상숭배로부터 빠져 나와 있어진 여행에 불과하다. 하지만 야곱의 귀향은 세상속에서 오랫동안 배회한 후, 즉 세상적인 삶에 빠져 주님 앞에 죄인이 된 자신을 인식하고 거기서 빠져 나와 거룩한 곳으로 귀향한다는 점에서 아브라함의 여행과는 매우 다르다. 이를 적절히 표현하는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누구도 하늘나라에 들어 올 수 없다.”이다. 이를 곰곰히 생각해 보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님은 야곱이 베델 즉 “하느님의 집”으로 되돌아 왔을 때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과거 아브라함과 이사악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새로이 하셨다.

베델에서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이란 새로운 것이 발달될 때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을 중지함을 말한다. 드보라란 어머니로부터 온 유전적인 악을 상징한다. 이 악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행동들의 안에 놓여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한 것에 더 열심을 내게 된다. 유전적인 악은 비록 어린이들이 부모에 의해 통제되고 그들과 함께 하는 천사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가 있다할지라도 아이들이 하는 매사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들의 자유의지로부터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악들은 실제적인 악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것이 유아들이 순진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유아기의 순진은 그 안에 유전적인 악은 지니고 있지만, 실제적인 ‘나’의 삶이 없어서 실제적인 악이 없게 된다. 반면에 지혜로운 순진은 실제적인 삶을 통해 악을 극복해가면서 형성된 순진이어서 그 속에 실제적인 악이 있을 수는 있지만 유전적인 악은 없게 된다. 우리의 자연적(인간적) 상태는 그 속에 함유된 거짓과 악들을 순수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상태에 진입하게 된다. 베델 - 하느님의 집 - 은 자연적 상태가 새로운 상태로 진보함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진리가 거쳐하는 집이란 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델에서 야곱이 쌓은 제단은 우리의 자연적인 마음이 주님을 예배함을 뜻하게 된다.

본문은 성경의 이야기에서 베들레헴이란 지역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다. 베냐민이 출생하고 라헬이 죽는 사건이 이 지역과 연결되는 첫 사건이다. 베들레헴은 오랜 후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에 근접하여 위치하게 된다. 이곳에는 베냐민과 다윗의 출생 그리고 오랜 후에 주님이 탄생이 있었는데, 이 모든 출생은 큰 변화의 시작을 특정 지어 준다. 베들레헴 근처에서의 라헬의 죽음이란 천적인 의미에서 진리의 내면을 사랑하는 마음속의 인간성이나 유전성으로부터 있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에 의해 추방되는 모습을 그려준다. 우리가 인간의 어머니로부터 갖게 되는 사랑하는 마음이란 지극히 이기적이며 세상적이다. 따라서 그 마음속의 선은 기껏해야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 주님께서도 이에 대한 시험을 겪으셨으나 모두 이겨내셨다. 우리 역시 우리 속에 든 이러한 악들을 인식하고 그분의 도움으로 극복해나가야 한다.

창세기 49장 29-32절을 보면, 이삭이 헤브론에서 죽고 아들 야곱과 에사오에 의해 막벨라 동굴에 안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야곱은 가문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리하여 아브라함 - 이삭 - 야곱으로 열조가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삶의 평면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천적인 평면을, 이삭은 영적인 평면을 그리고 야곱은 자연적인 평면을 의미하게 된다. 이것은 달리 보면 유아기로부터 청소년기를 거쳐 성숙된 어른으로 자라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가 “나는 다 컸어.”라고 생각하는 때 또는 자연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자신의 생각이나 시간을 모두 투자하고 매혹되는 때가 바로 야곱에 해당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후 우리의 흥미는 야곱의 아들들이 거룩한 땅에 널리 퍼져 살았듯이 수많은 분야로 가치를 뻗쳐가게 되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유아기와 어린 시절로부터 있게 되는 상속물을 계속 가지고 있다. 그 상속물 중에는 요셉과 베냐민으로 표현된 상속물, 즉 더욱 깊고 높은 것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다. 이 상속물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과 천적인 것들이 연결되도록 해준다. 이러한 우리의 어릴 적 상태들은 우리 속에 생존하면서 우리의 만사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언급된 많은 지역들이 거듭하여 성경의 이야기에서 언급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4563항: “인간이 부모로부터 악을 이어받는다든 것과 그 악이 유전적인 악으로 불린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인간은 이런 악 속에 태어나지만, 이 악은 인간이 성인이 되어 자기의 이해성과 의지로 행동하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악은 감추어져 있는데, 특히 유아기 때에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주님의 자비로 인해 어느 누구도 유전적인 것 때문에 질책되지 않으며, 실제적인 것에 의해서 질책 받게 된다(m. 966, 2308). 그리고 유전적인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이해성과 의지로 행동할 때까지는 실제적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주님은 유아들의 경우 그분의 천사들을 수단으로 하여 인도하시기 때문에 설사 이러한 유전적인 악들이 유아들이 하는 모든 것에 잠복되어 있다할지라도 유아들은 순진한 상태를 그들의 모습에서 드러내게 된다. 심지어 이 유전적인 악은 유아들에게 자양분을 주며 흔히 유모의 역할을 해주는데, 이는 우리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시기까지 있게 된다. 그 다음 그들이 거둡나게 되면 주님에 의해 새로운 유아의 상태로 인도되고, 마지막으로 천국적인 지혜 곧 순수한 유아 상태 혹은 순진성 안으로 인도된다. 그 이유는 순수한 유아 또는 순진성은 지혜안에 거처를 두기 때문이다. 유아기의 순진에는 유전적인 악이 그 속에 있는 반면에 지혜의 순진에는 유전적인 악과 실제적인 악이 모두 없어서 두 순진은 아주 다른 것이다.

질문 정리

- 1) 왜 야곱은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갔는가?
- 2) 그는 그곳에서 얼마나 체류했는가?
- 3) 그가 결혼한 두 여자는 누구인가?
- 4) 하란에서 몇 명의 아들이 그로부터 태어났는가?
- 5) 아들 중에서 누가 가장 어렸는가?
- 6) 열 두 번째 아들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 7) 그의 이름은 무엇인가?
- 8) 야곱이 하란에서 귀향할 때 그는 어디로 향했는가?
- 9) 그가 베델에 도착하기 전 멈춘 장소는 어디인가?
- 10) 야곱은 세겜에서 그의 식솔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했는가?
- 11) 누가 베델에 이미 묻혀 있었는가?
- 12) 야곱은 베델에서 무엇을 했는가?
- 13) 주님은 거기서 그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가?
- 14) 야곱은 이사악을 어디서 발견했는가?
- 15) 야곱과 에사오는 어디에 이사악을 안장했는가?
- 16) 리브가의 유모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17) 리브가의 유모가 죽고 매장되었다는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에서 언급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2) 20여 년 3) 레아, 라헬 4) 11명
- 5) 요셉 6) 베들레헴 근처 7) 베냐민 8) 세겔
- 9) 남의 나라 신들과 귀걸이를 버려라 11) 드보라
- 12) 돌로 제단을 쌓았다 13) 큰 국가의 선조가 되게 하리라
- 14) 헤브론(마르레) 15) 막벨라 동굴 16) 유전적인 이기심
- 17)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귀향할 때 우리에게 있었던 이기적인 동인들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7

요셉의 아들들

머리말

요셉의 생애를 간략하게 재조명 한 후 공부를 시작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48장, 50장 22-26절

48장: 1. 이런 일이 있은 뒤 요셉은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는 두 아들 므나쎄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다. 2. 아들 요셉이 문병 왔다는 말이 야곱에게 전해지자, 이스라엘은 기력을 가다듬고 침상에 일어나 앉았다. 3. 야곱이 요셉에게 일렀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가나안 땅 루즈에서 나에게 나타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4.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이 생겨 불어나게 하여 많은 민족이 모인 집단을 이루게 하리라. 또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어 길이 차지하게 하리라.’ 5. 그런데 내가 너를 만나러 이집트로 오기 전에 네가 얻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나쎄는 이제 르우벤이나 시므온과 같이 내 아들 항렬에 들어야 한다. 6. 그 아이들 다음으로 난 아들들이 네 자식이 되는 것이다. 그 아이들은 형들이 차지할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7. 내가 바탄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길을 가는 도중에 네 어머니 라헬이 죽었다. 에브랏 채 못 미친 길가에 나는 네 어미를 묻었다. 그 에브랏이 곧 베들레헴이다.”

8.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물었다. “애들이 누구냐?” 9. “이것들은 하느님께서 이 곳에서 저에게 주신 제 아들들입니다”하고 요셉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리로 가까이 오게 하여라. 내가 그 아이들에게 복을 빌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10.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앞을 못 보는 처지였다. 요셉이 그들을 가까이 데려 오자 야곱은 그들에게 입을 맞추며 끌어안고 11.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네 얼굴을 보리라고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느님께서 네 아이들까지 보게 해 주시는구나.”

12. 요셉은 자기의 아이들을 아버지의 무릎에서 받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했다.

13. 그리고 요셉은 두 아이 가운데 에브라임은 오른 손으로 이끌어 이스라엘의 왼쪽에, 므나쎄는

왼손으로 이끌어 이스라엘의 오른 손 쪽에 가까이 가게 했다. 14. 그러자 이스라엘은 손을 엇갈리게 내밀어 아우인 에브라임의 머리에는 오른손을, 맏아들인 므나쎄의 머리에는 왼손을 얹고 15. 이렇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사악이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아 주신 하느님, 태어날 때부터 이날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느님, 16.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내준 하느님의 천사가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조상들의 이름 아브라함과 이사악이

이 아이들에게 살아 있기를.

이 세상 한복판에서 왕성하게 불어나기를 빕니다.

17.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는 못마땅하게 여겨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아버지의 손을 므나쎄의 머리에 옮겨 놓으려 했다. 18.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아뢰었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오른손을 이 아이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19. 그러자 거절하며 대답하였다. “아들아, 나도 안다. 왜 모르겠느냐? 이 아이도 한 족속을 이룰 것이다. 크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아우가 형보다 더 커져 그의 후손은 술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20.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의 덕을 입고 살며

‘하느님께서 너를 에브라임처럼

므나쎄처럼 세워 주시기 바란다’ 하리라.” 이렇게 그는 에브라임을 므나쎄보다 앞세웠다.

21. 그리고 나서 그는 요셉에게 다시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겠지만 하느님께서 너희를 보살펴 주시어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22.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 손에서 빼앗은 세겜 하나만은 네 형제들에게 주지 않고 너에게 준다.

50장: 22. 그 후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서 살다 보니 요셉의 나이 백 십 세가 되었다. 23. 그는 에브라임의 후손 삼 대를 보았다. 그리고 므나쎄의 아들 마길의 낳은 아이들도 자기 무릎에 받아 아들 향렬에 들였다. 24. 요셉이 일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을 터이지만 하느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어 이 땅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사악, 야곱에게 주시마고 맹세한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25. 다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서약을 시켰다. “하느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너희는 그 때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그리로 올라가거라.”

26. 요셉이 백 십 세에 죽자 사람들은 그를 썩지 않게 만들어 관에 넣어 이집트에 모셨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마리아로부터 인간성을 입으시고 그 인간성을 영화 하셨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주님은 인간성을 통해 오게 된 시험들을 극복해 내셔서 인간성을 신성으로 만드셨다.
- * 말씀의 가장 깊은 의미 또는 천적인 의미는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동안 있어진 그분의 내적인 삶을 기술하고 있다.
- * 주님은 우리 속에 저장된 어릴 때의 믿음의 형태를 보존하셔서, 그것을 차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초로 삼으신다.
- *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기 전에 올바른 것을 배워야할지라도 선의지는 반드시 먼저 실재해야 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는 자라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 보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요셉이 구약성서에서 전적으로 칭송 받는 몇 사람 중의 하나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또한 요셉의 이야기에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지상생활을 생각나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질시 받았다. 오랜 후에 주님이 “사람들에게 경멸당하고 거절되었던”것같이 말이다. 요셉은 은 몇 푼에 팔려 졌다. 그는 섭리에 의하여 죽음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이집트로 옮겨 졌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신뢰하며 올바르게 처신했기 때문에 슬기롭고 위대한 자가 되었다. 이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의 “주님이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받게 되었다”라는 구절을 떠올리게 해준다. 마침내 그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고개 숙여야만 하는 통치자가 되었지만, 자기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다.

요셉은 우리속의 보다 높은 영적인 지각력을 표현한다. 이 지각력은 우리 속 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노력들이 세상적인 성공에 쏠려 있는 동안에 이 지각력을 잊으려고 애쓰며, 아예 눈에서 안보였으면 하고 마음 한 구석에 쳐 박아 둔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것들을 보존하셔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 지각력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고, 주님은 이때를 위해 그것을 강건케 해 주신다.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나쎄란 두 아들을 가졌다. 우리는 성경에서 두 형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들은 언제나 신앙과 이타에 또는 이해성과 의지를 표현한다. 요셉의 두 아들은 주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성한 진리를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인식함에서 비롯되는 우리의 생각과 의도들을 표현하고 있다. 므나쎄는 형이었는데, 그는 우리속의 의도심 또는 의지에 해당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의지에 해보고 싶다는 자극이 먼저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각이나 행동이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리하여 므나쎄, 즉 의지가 첫 번째로서 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알게 되는 사항은 야곱이 죽기 직전 형인 므나쎄보다 동생인 에브라임을 앞세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형과 동생의 순서를 바꿔 놓은 사건이다. 에브라임은 생각에 해당된다.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자극이 먼저이다. 하지만 선한 의도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성취해야 할 방법을 배우기전까지 그 선한 의도는 어떤 것도 수행할 수 없고, 설사 일을 한다하더라도 헛수고에 불과하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라고 중얼거리는 말을 흔히 듣게 되는데, 그 이면에는 선한 의도가 잘못 수행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를 주일 성경학교에 보내고 우리 모두의 전 생애를 통해서 꾸준히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며,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우리는 전 생애에 걸쳐 시기에 상관없이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진리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설령 우리의 의도가 선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에서 새로운 진리를 계속 받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영적 진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 1반

요셉은 구약성서에서 주님으로부터 책망 받을 행동을 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귀감이 된다. 우선 요셉의 부모와 요셉의 아들의 이름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야곱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해두자. 야곱이 자기 손을 엇갈리게 놓아서 축복한 모습은 과거 야곱 자신이 형의 자리를 차지할 때의 모습을 연상하도록 해줌도 언급한다.

야곱은 큰 흉년이 거룩한 땅에 왔을 때에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양식을 사도록 했다. 그들은 요셉에게서 양식을 사야만 했다. 요셉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과거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잘못을 모두 용서해주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을 포함하여 가축 때까지 몰고 이집트로 내려와 흉년이 끝날 때까지 살도록 해주었다. 또한 파라오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왕이 요셉을 지극히 총애하고 있던 터라 요셉은 이집트에서 가장 기름진 땅인 고센 지역을 야곱의 아들들에게 할당해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고향으로 되돌아가기를 원치 않게 되었고, 수많은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체류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 누가 큰 아들인가?
- * 요셉은 야곱이 많이 아프게 되자 무엇을 했는가?
- * 요셉은 그의 아들 중에서 누가 더 나은 축복을 받아야한다고 기대했는가?
- * 야곱은 요셉의 아들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었는가?
- * 야곱과 요셉은 어디에서 죽었는가?
- * 요셉의 유언은 무엇이었는가?
- * 시신이 썩지 않도록 만드는 이집트인들의 방법은 무엇인가?

제 2반

요셉의 이야기를 상기하면서 야곱에 대한 이사악의 축복과 본문의 축복을 연관 지어 설명한다. 이를 위해서 창세기 27장 1-9절과 45장 4-11절을 읽어본다. 이 두 부분은 주님의 섭리, 즉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까지도 선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와 우리가 해를 주려했던 이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덕을 베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알려줌을 설명한다. 또한 에브라임과 므나세가 요셉을 대신하여 지파의 우두머리이자 야곱의 아들들로 불리게 된 이유도 설명한다.

주님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돌보셨다. 그 이유는 그가 선했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항상 그분께 순종했기 때문이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매사를 잘 처리해서 위대한 인물, 즉 이집트에서 두 번째 가는 통치자가 되었다.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 우리는 주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불행이 닥치도록 결코 내버려두시지 않으심을 알아야 한다. 야곱은 큰 흉년이 들자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양식을 사오도록 이집트로 보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이집트의 위대한 통치자가 과거 자기들이 못된

것을 한 동생 요셉임을 알고는 벌벌 떨었다. 요셉은 그들을 안심시키고 용서해 주었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45장 4-11절에 담겨 있다. 이리하여 야곱과 모든 가족들은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요셉을 지극히 아끼던 터라 요셉의 가족들에게 이집트의 가장 기름진 땅 삼각지인 고센을 거처로 배려해 주었다.

성경의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축복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 축복이 언제나 주님에 의하여 영감 됨으로서 그 성취가 확실했기 때문이다. 야곱의 경우에도 마땅히 형 에사오에게 돌아가야 할 축복을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가로챘다. 그러나 이렇게 야곱이 가로챈 축복 역시 그 안에 더 큰 것을 위한 주님의 섭리가 있으므로 허락된 것이다. 본문에서의 야곱은 과거 그의 아버지가 속아서 잘못 행한 축복을 의도적으로 행하고 있다. 그래서 두 축복이 갖는 내적인 이유가 같은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하느님의 말씀안의 모든 것이 말씀 내부에 깊은 의미와 교훈을 담고 있다는 정도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이뤄진 지파들 사이에서 요셉지파는 없어지는 대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나쎄 지파로 불리는 두 지파가 있게 됨을 배운다(* 그러나 계시록 7장 8절의 경우 요셉지파가 다시 언급되고 있다). 야곱은 요셉의 상속분에 특별한 몫을 더해 주었는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33장 18-20절과 요한복음 4장 5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었고, 그의 시신은 썩지 않도록 만들어졌다고 전한다. 이집트인들은 향과 소금을 사용하여 길고 가느다란 천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시신을 싸서 보존했다. 이렇게 취급된 시체의 일부가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완전히 보존된 채로 이집트의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것을 미이라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미이라를 만드는 이 비밀스런 방법을 잃어 버렸다. 이리하여 야곱의 후손들은 매장지를 향해 출발하기 전 칠십 일 동안 곡을 했다. 야곱의 후손들은 그의 시신을 거룩한 땅으로 옮겨서 막벨라 동굴에 안장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이미 안장되어 있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이집트로 되돌아가서 정착했다. 요셉은 후에 그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이장할 것이라고 유언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면 야곱의 후손들이 요셉과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알 수 있다. 요셉의 시신은 막벨라 동굴에 안장되지 않았지만, 과거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특별히 선물한 장소에 매장되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이집트에서 태어난 요셉의 두 아들은 누구인가?

- * 누가 형인가?
- * 왜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에게 그들을 데려 왔는가?
- *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누가 만아들인가를 알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했는가?
- *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 * 요셉이 야곱의 손을 움직이려 했을 때 야곱은 뭐라고 말했는가?
- *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어떤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는가?
- * 요셉의 임종 직전 그는 어떤 약속을 일가 사람들에게 하라고 했는가?
- * 가족들은 요셉의 시신을 일시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제 3반

전체적인 면에서 요셉의 이야기에 대한 상응을 소개한다. 그리고 선의지와 더불어 올바른 것을 아는 지식도 가져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요셉의 죽음이 차후 출애굽기가 열리는 변화의 준비가 됨도 언급한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그의 지혜를 입증 받아서 큰 권력을 얻게 되었다. 이후 그의 형들은 원조를 청하기 위해 그에게 와서 절하게 되었다. 그 뒤 그는 그의 온 가족을 구할 수 있었는데, 가뭄과 기아에 허덕일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 주었다.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충분히 성장해서 영적인 자질 없이 살수 없음을 인식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들을 보존해두심을 의미한다.

본문은 개인적 측면에서 볼 때 자연적인 발달의 시기가 끝나는 지점을 의미한다. 즉, 야곱이 죽음에 임박한 시기가 이 시점이라는 것이다. 요셉이 그의 아들들을 야곱에게 데려 와 축복 받도록 하는 이야기는 과거 야곱과 에사오에 대한 이삭의 축복을 연상케 한다. 에브라임과 므나쎄는 야곱과 에사오가 진리와 선을 의미한 것처럼 유사한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나쎄의 경우는 우리가 천국적인 삶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진보된 상태에서의 평면을 표현함에 그 차이가 있다. 비록 선이 실질적으로 제일가는 원리일지라도 인간의 영적인 발달에 있어서 진리가 먼저 놓여 져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어떤 바램(욕구)으로부터 진행되더라도 우리의 바램을 착수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에 대한 올바른 것을 배워야 하며, 그것을 사랑할 수 있기 전에 그것을 행해 보도록 자신을 만들어야 한다. 야곱이 제 19절에서 “아들아 나도 안다, 왜 모르겠느냐?”

라고 대답함으로써 진리가 먼저 놓여 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의식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의 이해성은 보다 완숙된 이해성, 즉 분명한 목적을 가진 이해성을 의미함으로써 과거 우리 삶이 이삭의 단계에 있었을 때에 진리를 먼저 놓은 우리의 모습이 단지 맹목적인 행동의 반복이었을 뿐임을 의미하는 것과는 상이점을 갖게 된다.

야곱은 5절에서 에브라임과 므나쎄에게 자신의 아들과 동등한 위치를 부여한다. 이렇게 되면 요셉에게는 상속의 몫이 두 배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이 주님에게 빚지고 있다고 인식할 때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두 배의 몫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48장의 마지막 구절도 주목해 두어야 한다. 요셉에게 주어진 부가적인 몫을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33장 18-20절과 여호수아 24장 32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5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야곱은 백 사십 칠 세에 죽었고, 그의 시신은 썩지 않게 만들어졌다. 「The Sower」에서 Mr. Worcester는 “이집트인들이 시신을 썩지 않도록 만든 것은 그들이 나중에 다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미술작품을 보면 그들이 영혼은 사후에 육체를 떠나되 영체 안에 계속 머문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체는 십중팔구 영혼의 형태를 옷 입히고 있음을 의미하고, 선하게 살아 온 이들과 더불어 있는 영체는 계속 보존되기를 원했음을 암시해 준다.”라고 설명한다. 이집트인들은 악한 이들이 죽으면 매장조차도 하지 않았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러한 사항을 실제로 알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간에 이는 야곱과 요셉의 시신을 썩지 않도록 함에 대한 의미이다. 야곱의 시신은 헤브론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안장된 막벨라 동굴에 안장되었다. 야곱의 시신을 안장시킴이란 자연적인 선함의 평면에서 우리가 성취한 모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인격의 한 부분이 되도록 즉시 저장된다는 의미이다.

요셉 역시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 같은 약속을 그의 일가친척들에게 확인시켰다. 하지만 그가 죽었을 때 그 약속은 즉각적으로 성취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썩지 않도록 해서 이집트의 관속에 모셔두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들이 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들을 보존시켜 주신다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적인 발달로 더욱 전진하고자 한 때라도 그것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 그것들이 약화되어 기억 속에 오래 방치되는 잘못을 행하게 됨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세상적인 번성을 얻은 후 이집트에서 노예 신세로까지 전락되는 세월동안 요셉의 시신이 이집트에서 계속 관속에 놓여져 약속된 해방과 거룩한 땅으로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에브라임 = 우리가 요셉을 수단으로 하여 배우는 진리

므나쎄 = 진리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

제 4반

므나쎄와 에브라임이 갖는 의미를 에사오와 야곱의 경우에 비교하여 주로 살펴본다. 이 두 형제들의 경우는 우리 삶에서 거듭 발생하는 상태들인데, 거듭되면서 놓이는 그 상태들의 수준은 우리의 영적 진보에 따라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삶을 시작할 때 세상의 것을 따르는 대신에 주님께 순종하는 쪽, 즉 흔히 말하는 땅의 이치보다 하늘의 이치를 택해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각 사람 안에 교회가 시작되는 때이며, 이때로부터 진정한 영적 투쟁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게 된다. 우리속의 모든 이기적인 사고나 습관들은 우리의 이러한 새로운 각오와 그 영향력에 저항하려고 일제히 일어서게 된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속의 회미한 곳, 즉 우리 자신도 알아채기 힘든 우리 속 깊은 어딘가에 우리의 “요셉”을 보존해 두시면서 그를 위대하고 능력 있게 발달시켜주신다. 그리하여 주님은 기근의 때 곧 실제 시련이 닥쳐오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요셉을 재발견하도록 해주시고 이집트에 있는 그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다. 이때로부터 우리는 가장 진지한 역사를 시작한다. 그 역사란 주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에 대한 진정한 배움이 시작된다는 말이다.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의 보호와 보살핌 하에 스스로를 맡겼던 성경의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앞서 공부했던 에사오와 야곱의 이야기를 연상케 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야곱이 비록 쌍둥이 중의 맏이는 아니었지만 에사오로부터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서 가계를 계승했다는 것이다. 므나쎄와 에브라임 형제도 에사오와 야곱처럼 선과 진리를 상징한다. 그러나 그들이 상징하는 선과 진리는 에사오와 야곱과는 수준이 다르다. 에사오와 야곱이 상징하는 선과 진리는 거듭나지 않고 있는 자연적인(인간적인) 평면에서의 선과 진리, 즉 단순히 선택지고자 하는 의향과 생기가 넘치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란에서 있게 되는 야곱의 체류와 베델로의

귀환 그리고 요셉이 봉기하여 권력을 쥐게 되는 사건들은 우리의 영적인 전진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지점까지 그리고 선함을 지적으로나마 경험한 지점까지 도달하게 된다.

스웨덴봄은 “교회의 지적인 것”과 흔히 말하는 “지적인 것” 사이를 명확히 구분 짓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뒤의 참고 문헌에서 언급되고 있다. 에브라임과 므나세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선에 대한 우리의 의지 혹은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교회의 지적인 것과 그 교회의 선을 표현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러한 선이나 진리가 자칫 영적인 수준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 선과 진리는 자연적인(인간적인) 평면에서 존재한다. 그 이유는 므나세와 에브라임의 본적지가 이집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므나세와 에브라임이 상징하는 선과 진리는 우리 영혼의 보다 높은 곳에 근원을 둔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근원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접촉되는 장소임을 유념해할 것이다.

므나세는 에사오처럼 맏아들이었다. 즉, 항상 의지가 먼저라는 말이다. 우리는 의지가 발동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으며 손 발 하나도 까딱거리지 않게 된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는 올바른 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고 끊임이 생각하게 하는 시점으로 우리가 이르도록 우리의 심정에 좋은 자극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안의 선한 의도가 방향을 잃어버린 듯이 보이거나 심지어 일을 선하게 처리하려고 의도했으나 막상 일을 하다 보니 남을 다치게 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흠칫 놀라게 되는 일 등이 흔하다. 우리의 선한 의도가 올바른 행동을 낳게 하려면, 우리는 먼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생각해야만 한다. 이런 이유로 야곱이 형 에사오를 밀치고 형의 역할을 하는 것, 즉 앞서기가 허용된 것이고, 본문에서 에브라임이 므나세보다 앞서도록 허락된 것이다. 요셉은 본문 18절에서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말한다. 이는 우리의 내적 지각인 요셉이 의지가 먼저 있어야 함을 알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9절에서 야곱은 “아들아, 나도 안다. 왜 모르겠느냐?”라고 대답한다. 즉, 우리의 “실용적인 본성”은 우리의 이해성이 먼저 심사숙고함을 가져야만 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야곱은 이렇게 아들들에게 분부하고 나서 침상에 바로 누워 마지막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이 49장의 마지막 구절 말씀이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었다. 하지만 그의 유언에 따라 그의 아들은 그의 시신을 아브라함과 사라, 이사악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묻혀 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 동굴에 안장했다. 요셉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참동안 더 생존했지만, 그 역시 이집트에서 죽었다. 그는 야곱처럼 즉시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백성들이 모두 돌아갈 것임을 예견하고 그들이 돌아갈 때 “너희는 그 때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그리로 올라가거라.”하고 일가 사람들에게 서약을 시켰다. 하지만 요셉이 죽은 후로도 이스라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상당한 세월동안 머물렀다.

위의 글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반화된 모습이다. 즉, 우리가 부단히 노력한 결과 영적인 건강이나 위안이 특별한 노력 없이도 우리에게 보증되어 진다고 생각하는 때에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업이 번창하고 모든 가족이 교회에 참석하며, 이웃을 전도하면서 교회의 일에 협조하고 있으니 별 근심이나 걱정이 없어.”라고 생각하며 안심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유사하다. 그리고는 “나는 구원 받았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심지어는 ‘나는 교회 활동에 협력하고 열심을 내니까 이제 교회 내에서 존경받을 만한 완전한 인격자가 되었을 거야.’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은 “그 동안 말씀을 너무 많이 읽었으니까 다른 것도 좀 읽어야지”, “이젠 성경이 뇌리에 박혀있어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될 거야.”.혹은 “내 양심대로 해도 선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중단기도 한다. 이런 궤변적인 태도가 바로 출애굽기 제 1장이 표현하고 있는 바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이집트에 체류하는 기간에 상관없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요셉이 백 십 세에 죽자 사람들이 그를 썩지 않게 만들어 관에 넣어 이집트에 모셨다”라는 구절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요셉이 언젠가 제자리로 복귀될 때를 위해 이집트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말한다. 즉, 주님께서 과거 우리의 영적 지각을 보존하시어 우리가 그 지각을 다시 필요로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이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사항은 주님의 섭리가 우리의 외적인 삶 곧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넘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지각의 필요성을 깨우치도록 우리에게 닥치는 경험(고난)을 허락하시는 섭리(출애굽기 11장)를 하심을 알아야 한다.

제 5반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나세의 상응을 주로 공부한다.

성경의 특징들 중에서 두드러진 사항 중의 하나는 반복되는 것, 즉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문에 있는 에브라임과 므나쎄의 사건은 과거 야곱과 에사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카인과 아벨과도 유사한 점이 많다. 이들 형제들은 쌍으로서 믿음과 이타에 또는 진리와 선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들이 상징하는 선과 진리의 수준은 문맥에 따라서 달라진다. 각 경우에 사건들은 두 형제로 시작되어 그 관계로까지 이어진다. 첫 경우인 카인과 아벨에서는 이야기의 뒤 배경 때문에 믿음을 상징하는 형이 먼저 태어난다. 두 번째 경우인 에사오와 야곱에서는 비록 사랑을 표현한 형이 먼저 태어나지만 아우에 의해 형과 아우의 자리가 뒤바뀐다.

이러한 형제들의 이야기는 결코 우연이 아닌데, 이는 이들을 통해 가르쳐지는 교훈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어떤 회전 속에서 진행된다. 즉, 우리가 거치게 되는 영적인 발달은 각각 진리와 선의 새로운 위급 상황과 함께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는 말이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하고 있다면, 이러한 회전은 우리를 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옮겨 놓게 된다. **나사못**을 세워 놓은 형태로 된 계단을 떠올려보면 이 회전에 대해 쉽게 납득될 것이다. 즉, 이러한 계단을 한 바퀴 돌게 되면 위치상으로는 원위치로 오게 되지만 실제로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있다면, 이 과정은 밑으로 있어진다. 따라서 지옥은 인간으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회전을 뜻하게 된다(천국의 신비 361항 참조).

야곱의 일생은 그 중의 한 회전주기에 해당된다. 그는 시험과 발달을 거치며 살았다. 그는 결국 고향으로 되돌아가 그의 형과 화합했고, 아버지 이삭의 위치를 승계하여 족장이 되었다.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아들들인데, 이들은 야곱이 귀환한 후에도 여전히 어린 아이들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영적 회전 주기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들 역시 사랑과 진리를 상징하며, 이 형제사이에는 어떤 다툼이 없었다. 하지만 요셉과 그의 형들 간에는 다툼이 있었고, 형들은 그를 미워하며 경멸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진정한 교회인 고대교회의 마지막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꺾이기만한 교회에 해당되어서 표징에 불과한 교회인 이스라엘 교회의 선조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상이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문에서 두 이름이 사용된 것도 주목해야 한다.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면, 그 안에서 새로운 교회가 건설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어떤 연결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 연결이 요셉을 통해서 이뤄진다. 요셉의 형들의 영이란 영적인 자질들이 내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교회 속의 영들을 말한다.

학술적인 용어를 상용한다면, 베냐민은 “천적인 것으로부터 비롯된 영적인 것들”을 그리고 요셉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비롯된 천적인 것들”을 상징한다. 먼저 이러한 표현은 단지 말의 앞뒤만 바꾸는 어떤 궤변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베냐민과 요셉이 상징하는 바를 이해하고 그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깊은 차원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주님으로부터의 유입이 직접적으로 있게 되는 곳인 영혼의 가장 깊은 곳, 즉 천적 평면과 물질계와의 접촉이 이뤄지는 가장 바깥쪽인 자연적 평면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천적 평면과 자연적 평면의 문을 열게 해 주는 것이 내면적 또는 합리적 평면임을 이해해야 한다. 베냐민은 신성한 진리가 천적평면으로부터 합리적 평면을 거쳐 자연적 평면으로 흐를 때의 신성한 진리를 표현한다. 그리고 요셉은 이 진리에 속하는 선 또는 천적인 것들을 표현한다. 요셉의 형들은 자연적 평면 자체에서 발달되는 다양한 자질들을 상징한다. 이 자질들은 요셉을 거절하거나 섬김에 따라 선한 쪽에 속할 수도 있고 악한 쪽에 속할 수도 있다.

거듭나고 있는 모든 남녀의 일반적인 발달이란 관점에서 보면 야곱의 시기는 세상에서 스스로의 자립된 생활을 발달시키는 시기에 해당된다. 우리는 이러한 발달 시기 중에서 ‘나에게는 단지 세상적이기 보다는 좀 더 높은 발달을 의미하는 영적인 발달이 있다’고 의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출생이 의미하는 바다. 야곱은 요셉이 어린 나이였을 때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 가 주님에 대한 예배를 스스로 다시 확립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심은 새로운 투쟁에 대한 신호탄이기도 하다. 우리속의 자연적 자질들은 보다 높은 권위에 간섭받는 것을 싫어한다. 이에 대한 표현이 바로 창세기 37장 19절에서 “야, 꿈장이가 오는구나.”라는 형들의 말이다. 그리하여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갔다. 즉, 우리속의 자연적 자질들은 보다 높은 자질의 간섭에 반발 하여 신성한 진리를 기억 속의 지식에 처박아 그곳에 영영 감금해 두려고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셉의 이야기가 주님의 지상생활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임을 공감한다. 주님은 헤로데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이집트로 피신하셨다. 그 뒤 공인된 당시 교회의 시야에서 멀어져 있으시면서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 주님의 섭리는 거듭나는 인격 속에서 신성한 진리를 받는 자질을 우리 안에서 발달시키고 돌보신다. 즉, 우리가 우리의 인격에 기근의 때가 올 때 스스로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판단을 섭리에 맡기게 될 때까지 주님이 우리 속에서 진리를 가꾸고 계신다는 말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새롭게 배우는 시기에 접어든다. 이것이 바로 야곱과 그의 전 가족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이주하는 모습이 의미하는 바다.

창세기는 이집트인들의 질서 있는 상태를 보여준다. 즉, 자연적 원리라는 파라오가 보좌에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그가 자발적으로 요셉을 전 국토의 통치자로 임명했고, 이집트 땅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에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을 살도록 허락하여 기근을 피하게 했다. 이 모든 것은 질서 있게 배우는 우리의 시기를 표현하는데, 우리가 가진 선택의 자유가 손상되거나 줄어든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통치자로서 선택하고 자연적 애정이나 생각들을 각기 적당한 위치에 배치해서 그것들이 그분과 연관되게 하여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도록 정착되었을 뿐인 것이다.

이런 그림들 중에서 두드러진 사항은 본문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는 모습이다. 야곱은 “이제 르우벤이나 시므온과 같이 내 아들 항렬에 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르우벤과 시므온은 자연적 평면에서의 믿음과 순종을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나세는 지적 평면에서의 믿음과 순종을 상징한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제 6216항에서 에브라임에 관하여 “이 지적인 것은 교회속의 지적인 것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단순히 기억속의 지식에서 오는 지적인 것보다 더욱 내면적이다. 그 이유는 이것이 어떤 사물이 그러하다고 말할 때 그 말이 기억속의 지식의 명령이나 철학 같은 데서 있는 표현이 아니라 그 사물의 영적 의미가 말씀의 지시를 받는 지각에 의해 있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에브라임과 므나세는 야곱에 의해 자식으로 맞아 들여졌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요셉의 아들이고, 위쪽에 있는 마음에서 합리적 마음에 들어가는 신성을 표현하고 있다.

야곱은 므나세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을 므나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먼저 놓았다. 이것은 말씀이 반복하여 가르치는 교훈으로서 상기해야 하며, 스웨덴북의 저서에서도 아주 명백히 말하는 것, 즉 누구든지 말씀을 깨울리 취급하면 거기에는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음을 잘 표현하는 구절이기도 하다. 원론적으로는 의지가 첫째이다. 우리는 의지의 발동 없이는 어떠한 생각이나 행동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의지가 어떤 목적을 성취할 수 있기 전에 지성이 반드시 교육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과정은 전체가 한 번에 이뤄질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말씀에 있는 모든 회전주기에서 계속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다. 제아무리 마음이 비단같이 곱고 선한 의도만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배우고 스웨덴북의 저서를 통해 말씀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진리를 획득해가지 않는다면 그에게 영적 진보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누군가가 최고의 학문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양심이 모두 발달되었다고 여기며 자신을 삶의 인도자로서 삼으면, 그 사람은 지독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셈이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와 같이 자신 속의 요셉을 썩지 않게 만들어 관에 넣어 두고 이집트인들의 지휘 하에 자신을 정착시키게 되는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6222항: “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교회 속에 있는 교리나 교의를 여러 가지를 동원하여 확증하는데 숙련된 자 또는 많은 학설들을 꿰어서 남들로 하여금 다른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들이 교회 속에서도 지적인 자들일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교회 속에 든 지적인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교의를 확증하는 것은 지적인 것이 아니라 감각이 발명해낸 재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아주 사악한 자들이나 무신론자들에서도 무수히 존재하며, 입만 벌리면 거짓말만 일삼는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흔한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확증하려는 것은 누구에게나 손쉬운 일로 지극히 단순한 자에게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교회의 지적인 것은 어떤 교의가 확증되기 전 그 교의의 진위여부를 보거나 이를 지각한 다음에 그 교의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에브라임에 의해 표현되는 지적인 것이다. 그러나 므나세로 표현된 교회속의 선은 주님께서 믿음속의 진리를 수단으로 하여 교회속의 사람 안에 그 사람도 모르게 은근히 심어 놓으신 이타애로부터 있게 되는 선인 것이다. 그 이유는 이타애의 선을 가진 이들에게 지적인 것이 흘러들어가서 그들을 계발하고 그 선이 지적인 것을 만들어 의지는 한 마음 곧 진리와 선에 관한 모든 애정이 하나로 되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적인 부분은 계발이 되는 것이며 여타 다른 근원으로부터 흐르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으로부터 내적인 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교회의 지적인 근원이 없다.”

질문 정리

- 1) 왜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로 가게 되었는가?
- 2) 요셉은 그의 가족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 3) 이집트에서 요셉으로부터 태어난 두 아들은 누구인가?
- 4) 요셉의 큰아들은 누구인가?
- 5) 왜 요셉은 야곱의 임종이 다가오자 그의 아들을 데려 왔는가?
- 6) 요셉은 그의 아들 중에서 누가 먼저 축복 받아야 한다고 예상했는가?
- 7) 야곱은 누구에게 첫 축복을 내렸는가?

- 8) 야곱은 어떤 특별한 혜택을 요셉의 아들에게 내렸는가?
- 9) 야곱은 어디에 매장되었는가?
- 10) 그 매장지에는 야곱 외에 누가 더 매장되어 있었는가?
- 11) 요셉은 죽을 때 가족에게 어떤 약속을 받아 냈는가?
- 12) 요셉의 시신은 어떻게 보관되었는가?
- 13) 므나쎄와 에브라임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4) 왜 야곱은 둘째 아들에게 첫 축복을 내렸는가?

질문의 답

- 1) 기근 2) 먹을 것과 집을 제공했다 3) 므나쎄, 에브라임 4) 므나쎄
- 5) 축복 받기 위해 6) 므나쎄 7) 에브라임 8) 그들을 자식으로 삼았다
- 9) 막벨라 동굴 10) 아브라함, 사라, 이사악, 리브가, 레아
- 11)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자신의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는 것 12) 미이라
- 13) 에브라임 = 교회에 대한 지식, 므나쎄 = 교회의 지식에 따라 살고 싶은 바람
- 14) 우리에게 항상 첫 번째로 있어야 할 사항이 올바른 것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8 과 월 절

머리말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변화와 모세의 출생 그리고 그를 부르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다. 그리고 본문에 있는 마지막 재앙인 열 번째 재앙과 과월절을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12장

12장: 1. 야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2.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고, 달수를 이 달에서 시작하여 계산하여라. 3. 너희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알려라. 이 달 십일에 사람마다 한 가문에 한 마리씩, 한 집에 한 마리씩 새끼 양을 마련해 놓아라. 4. 만일 식구가 적어 새끼 양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생각하여 옆집에서 그만큼 사람을 불러다가 먹도록 하여라. 5. 흠이 없는 일년 된 수컷이면 양이든 염소든 상관없다. 6. 너희는 이 달 십사일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해질 무렵에 잡도록 하여라. 7. 그리고 그 피를 받아, 그것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문 상인방에 바르라고 하여라. 8. 그 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도록 하는데, 9. 날로 먹거나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10.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 두어서도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살라 버려야 한다. 11.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나 야훼에게 드리는 과월절이다. 12. 그 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전국에 있는 만이들을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조리 치리라. 또 이집트의 신들도 모조리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다. 13. 집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것이 너희가 있는 집이라는 표시가 되리라. 나는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를 보고 너희를 쳐 죽이지 않고 넘어 가겠다. 너희가 재앙을 피하여 살리라. 14. 이 날이야말로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야훼께 올리는 축제일로 삼아 대대로 길이 지키도록 하여라.

15. 너희는 칠 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아예 첫날에 집안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 버려야 한다.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 든 빵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제명된다.

16. 첫날 거룩한 모임을 열고 칠 일째 되는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그 날에는 그 동안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 말고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17. 너희는 무교절 축제를 지켜야 한다. 이 날은 바로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날이니,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영원한 축제일로 정하고 지키도록 하여라.

18. 정월 십사일 저녁부터 이십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19. 칠 일간 너희 집안에서 누룩이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누룩이 든 음식을 먹은 자는 외국에서 와 사는 사람이든지 본 고장 태생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제명되리라.

20. 누룩이 든 것은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너희가 어디에 머물러 살든지 누룩 없는 빵만을 먹어야 한다.”

21.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다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집집마다 양을 한 마리씩 끌어다가 과월절 제물로 잡으시오.

22. 우슬초묵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받은 피를 묻혀 문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시오. 아침까지 아무도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오.

23. 야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며 지나가시다가 문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는 그 문을 그냥 지나가시고 파괴자를 당신들의 집에 들여보내어 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실 것이오.

24. 당신들은 이것을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을 위하여 길이 정해 놓고 반드시 지켜야 하오.

25. 당신들은 야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가게 되거든 이 예식을 지키시오.

26. 당신들의 자녀들이 이것이 무슨 예식이냐고 묻거든

27. 이것은 야훼께 드리는 과월절 제사라고 일러 주시오.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그냥 지나가시어 우리의 집을 건져 주신 야훼께 드리는 것이라고 일러 주시오.” 이 말씀을 듣고 백성은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

28.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서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29. 한밤중에 야훼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만아들을 모조리 쳐 죽이셨다. 왕위에 오를 파라오의 만아들을 비롯하여 땅굴에 갇힌 포로의 만아들과 짐승의 만배에 이르기까지 다 쳐 죽이셨다.

30. 그러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한밤중에 모두 일어났다. 이집트에서는 곡성이 터졌다. 초상나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31. 파라오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들어 말하였다. “너도 이스라엘 백성도 어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 가거라. 너희가 말하던 대로 가서 야훼를 예배하여라.

32. 너희가 요구한 대로 양도 소도 모두 끌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 다오.”

33. 이집트인들도 자기네가 모두 폐죽음을 당하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떠나 달라고

재촉하였다. 34. 그들은 빵 반죽이 부풀기도 전에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 메고 나섰다. 35.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일러 준 대로 이집트인들에게 은불이와 금불이와 옷을 내라고 하였다. 36.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집트인들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인들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내어 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인들을 털었다. 37.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라므세스를 떠나 수쪽으로 향했는데, 딸린 식구를 빼고 장정만도 육십 만 가량이 되었다. 38. 그 밖에도 많은 잡식구들이 따라 나섰고 소와 양 등 가축들도 떼지어 따랐다. 39.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누룩 없는 빵 반죽으로 과자를 구워야 했다. 이집트에서 경황없이 나오느라고 먹을 것을 미처 장만하지 못했던 것이다. 40.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머무른 것은 사백 삼십 년 동안이었다. 41. 마침내 사백 삼십 년이 끝나던 바로 그 날에 야훼의 군대는 모두 이집트 땅에서 빠져 나왔다. 42. 그 날 밤, 야훼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밤새워 가며 지켜 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대대로 야훼를 생각하며 이 밤을 새워야 하는 것이다.

43.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과월절을 지키는 규칙은 이러하다. 외국인은 아무도 제물을 같이 먹지 못한다. 43. 다만 돈을 주고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자이면 같이 먹을 수 있다. 45. 머슴이나 몸 붙여 사는 사람도 같이 먹지 못한다. 46. 어느 집이든지 한 집에서 먹여야 고기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뼈를 꺾어도 안 된다. 47. 이스라엘 회중은 누구나 과월절 축제를 지켜야 한다. 48. 너에게 몸붙여 사는 사람으로서 야훼께 과월절 제물을 드리려면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함께 먹을 수 있고 같은 본토민처럼 되는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같이 먹을 수 없다. 49. 본토민이든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사람이든 이 법 앞에서는 동등하다.” 50.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51. 바로 이날에 야훼께서는 부대를 편성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던 것이다.

교리 요점

- * 우리는 악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 과월절은 말씀에서 거듭 반복되어져 우리에게 기억되는 사건이며, 말씀의 각 책을 한 권의 책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준다.

- *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은 영적인 용도에 충당될 수 있다.
- * 말씀에서 배운 것을 즉시 실행하는 영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단어 출애굽은 “나감”이란 뜻이다. 출애굽기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이백년 이상 머무른 후 모세의 인도 하에 이집트를 빠져 나와 광야를 거쳐 거룩한 땅인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진정한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근으로 인해 요셉으로부터 의식주를 공급받고 보호를 받고자 이집트로 내려갔다. 이집트는 천연의 기후풍토 때문에 고대 세계의 큰 곡식창고여서 가뭄과 흉년이 근동을 강타할 때 근동의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러 모여들던 곳이었다. 이러한 이집트란 우리 안에 있는 지식에 관한 세상의 창고를 표현한다. 우리가 삶의 또 다른 단계에 접어들 때 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이 이집트로 상징되는 지식의 창고로 가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필요로 하는 지식은 세상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창고 속에는 그와는 다른 지식들도 있다. 즉,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들이 바로 그것들이다. 지식이란 넓은 의미에서 주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를 망각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즉 자신의 발전만을 위한 것에 몰두하게 되면, 우리는 요셉이 죽고 난 후에도 이집트에 오래 동안 머물렀던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되는 것이다. 요셉은 우리의 보다 높은 것 곧 영적인 지각을 표현한다. 우리는 이 지각이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신세로 전락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집트라는 것의 노예가 되고 만다. 한 마디로 우리의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요 고된 길이 되는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노예 신세로부터 벗어나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차후에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이 주어진다. 그래서 모세는 신성한 법을 표현한다. 이 법은 우리의 거짓 생각과 이기적인 모든 바램 그리고 세상적인 삶의 모든 것을 들춰내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지만 이 법에 순종하면서 선행하고자 하는 이들은 천국으로 인도되기도 한다.

이집트를 빠져나가기 전날 저녁 큰 축제를 가지도록 명령되었는데, 이를 과월절 축제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축제를 위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좌우 문설주와 문상인방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인들의 만아들을 죽일 때 그들의 집은 지나치도록 하는 표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장래에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이 절기를 기념하도록 명령되기도 했다. 이 절기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주님은 과월절을 기념하시면서 기독교회를 위해 과월절 대신 성만찬을 제정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과월절 어린 양”으로도 불리신다. 우리가 성만찬을 기념하는 까닭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꺼내셔서 본향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함이다.

제 1반

먼저 성경의 첫 번째 책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알고 있는가를 검토해 본다. 그리고 과월절이 주어진 의미에 대해서 주로 살펴본다.

이집트의 왕들은 요셉의 사후 약 이백년 이상이 지난 후 과거 요셉의 공로를 거의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고센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안전하고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처음 이집트로 이주했을 때는 칠십 여명에 불과했으나 본문에서는 육십만 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그들의 인구증가는 걱정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집트 왕들은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심지어는 히브리인의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여 없애라고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과월절과 그 이름이 주어진 까닭을 기억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 절기가 이후 성경의 이야기에서 많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성경의 두 번째 책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출애굽이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가?
- *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 *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자유롭게 하도록 누가 들어 세워졌는가?
- * 이집트인에게 내려진 마지막 재앙은 무엇인가?
- * 주님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가?
- * 우리는 그들이 떠나기 전 기념한 날을 뭐라고 부르는가?
- *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어떻게 준비되어졌는가?
- * 그들이 식사할 때 그들의 의복 차림은 어떠했는가?

- * 이 날을 기념하도록 어떤 명령이 주어졌는가?
- * 그들은 그 날을 기념할 때 무엇을 기억했는가?

제 2반

앞서 공부했던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고 그것에 관하여 질문한다. 그리고 이집트에서의 체류기간, 인구의 증가, 과월절을 기념함이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것 그리고 과월절과 성만찬의 연결사항을 공부한다.

성경의 두 번째 책의 이름은 출애굽기이다. 출애굽이란 히브리어로 “나감”이라는 뜻이다. 이 책은 창세기 50장 24절에 있는 요셉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에 관하여 말해준다. 요셉이 죽은 후 거의 이백년이 지나서까지도 이 예언은 성취 되지 않았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참고하면,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열쇠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되었는데, 마지막 재앙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본문 2절에서는 과월절의 사건이 아주 중요해서 주님께서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달력을 바꾸도록 하셔서 과월절이 있는 달을 그들 종교력의 첫 달로 삼으라고 분부하고 계신다. 이 달은 실제로는 봄철에 속한다. 히브리인들의 달(months)은 달(moon)의 변화에 의해 규율되는데, 오늘날의 달력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첫 달은 일반적인 태양력의 3월에 시작되거나 4월 초에도 있게 된다. 주님은 세월이 많이 지난 뒤 유대인의 과월절 기념주기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절이 과월절에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 이유로 부활절이 태양력으로는 매 해 같은 달의 같은 날에 오지 않는 것이다.

과월절은 이스라엘의 후손을 위해 열 번째 재앙을 피하도록 해준 날일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날, 즉 그날 밤에 그들의 여행을 시작했던 날이기도 하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떠남을 매우 기뻐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금이나 은 또는 의복 등을 기꺼이 내주었다. 이들이 내 준 물건들은 달리 보면 빌린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물건들은 나중에 성막을 건설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료로 사용되었다.

창세기 46장 26-27절을 읽어보자.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증가되었는가를 알려준다. 본문 40절에서는 이 후손들이 430년간 이집트에 머물었다고 전한다. 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에서 머물렀던 때로부터 계산된 것으로서, 야곱과 그의 가족의 체류기간만 계산한다면 약 250년 정도가 될 것이다.

우리는 과월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그 절기가 신약성서에 이르기까지 자주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본문에서와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절기를 매 해마다 준수하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그 절기 대신 새로운 축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 축제란 다름 아닌 주님의 성만찬이다. 이 축제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과월절의 기념을 가지신 때에 제정되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죽임을 당한 어린양”으로도 불리신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을 상기하기 위해서 과월절을 기념한다. 우리가 성만찬을 가지는 이유는 주님이 지상에서 사심으로써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왜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 *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 * 모세와 아론은 몇 가지 재앙을 이집트인들에게 내렸는가?
- *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었는가?
- * 히브리인들이 마지막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했던 것은 무엇인가?
- * 왜 이 축제를 과월절이라고 부르게 되었는게?
- * 이 축제는 무엇으로 구성되어졌는가?
- * 그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먹었는가?
- *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얼마나 되었는가?

제 3반

과월절의 일반적인 의미와 세부사항의 상응을 살펴본 후 그것을 성만찬과 연관 지어 살펴본다.

앞서 우리는 모세의 출생, 모세가 준비되어진 것,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가도록 허용하기 위해서 내려진 열 가지 재앙 등을 살펴보았다. 사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 왔던 터라 기근이 끝난 후로는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야만 했다. 기근의 때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때여서 더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를 의미한다. 이집트 땅이란 우리의 기억 속에 든 지식들을 말한다. 요셉을 통치자로 가졌던 이집트란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에 관한 외적 진리들이 삶의 진정한 목적과 적절한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이집트란 성경의 글자에 관한 지식을 뜻한다. 새교회인을 위해서는 이와 더불어 주님께서 말씀의 글자로부터 진정한 교리를 끌어내 보여 주시고자 사용한 도구, 즉 스웨덴보의 저서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 지식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자신과 이웃속의 악을 점검하고 정정하고자 성경에서 공부한 바를 사용하기 보다는 단지 성경공부 자체에 흥미를 느껴 시간을 허비해간다면,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기근이 끝난 후에도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가지 않은 것과 같아지는 것이다. 되돌아가지 않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얻은 안락과 번영에 젖어 들면서 그들의 진정한 고향을 차츰 잊어 갔고, 심지어 주님에 대한 그들의 의무와 하느님의 이름까지 송두리째 잊어 갔다. 처음 그들이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통치했던 그 나라의 규정들은 시간이 흐른 뒤 상당히 바뀌어졌다. 1장 8절에는 “그런데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왕이 새로 이집트의 왕이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위의 이야기들을 엮어주고 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차츰 노예가 되어 갔다. 이는 마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지 않을 때 지식 그 자체의 노예가 되는 것과 같다. 이러면 인생은 무거운 짐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보여주시고자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국가와 종교를 발달시키도록 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집트를 떠난 달을 매 년의 첫 달로 삼고, 첫 달의 14일부터 21일까지의 일주일 동안 과월절을 기념하도록 그들에게 명령되었다. 주님께서 지상생활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도 이 과월절을 기념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부활절이 다가 오는 주간에 과월절도 기념되는 것이다.

과월절이란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열 재앙 중 마지막 재앙 때에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땅에 있는 장자들과 가축의 첫 배 새끼 모두를 밤중에 죽이려 다닐 때 히브리인들의 집은 건너갔기 때문이다. 이 재앙이란 전적으로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삶의 마지막 결과, 즉 첫 배에 태어난 것이 표현하는 살아 있다는 믿음이 발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은 바로 지옥에 있는 모든 영들의 상태이기도 하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나타나는 선과 진리를 모두 거절한다.

본문에서 열 번째 재앙이 떨어지자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떠나기를 간절히 원하여 그들이 소유했던 금과 은 그리고 의복까지 기꺼이 내어 주는 모습이 바로 이를 표현한다. 과월절 축제는 해방됨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다. 주님은 계시록에서 ‘마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도 보이고 있다. 어린 양이란 순진을 상징한다. 스웨덴북은 “순진이란 선이 자신에게는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존재함을 알고 인정하면서 믿되 입술로만이 아닌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순진이란 단어는 “해치지 않음”이란 뜻이다. 우리는 우리 속의 자만이 타인을 해치는 것을 말하고 행하게 만드는 것임을 진실로 실감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속 깊은 곳을 면밀히 살펴보고 솔직히 인정하면, 주님은 순진이란 특질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자신을 보게 하는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중요한 사항은 이를 진실로 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순진 속의 이 특성은 반드시 사랑으로부터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본문에서 ‘어린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라는 표현이 뜻하는 바다. 누룩 없는 빵이란 어떤 거짓된 사상과도 혼합되지 않는 선함 또는 진리를 상징한다. 쓴 나물이란 시험을 상징한다.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여행에 얼마간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11절에서 출발 준비를 한 채 과월절 음식을 먹는다고 함은 우리가 선한 해결책을 가진다면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함을 뜻한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절기를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어 그들만의 국가를 형성하게 된 것에 대한 기념으로 지켜오고 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마지막 과월절에 과월절 대신 기념할 절기인 성만찬을 제정하여 지키도록 기독교에 분부하셨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을 입시고, 우리가 겪은 모든 시험을 겪으셨다. 그분은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시기 위해 지상에 오신 과월절 어린 양이시다. 우리가 성만찬 때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이 우리의 본보기이시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과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성만찬 때의 빵과 포도주가 그분의 삶과 피라고 부르셨던 것이다. 과월절이 지닌 깊은 의미처럼 성만찬을 기념하는 까닭은 우리가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삶으로 유혹하는 악들을 실감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그러한 삶을 자신 뒤에 떨어뜨려 놓겠다는 각오와 더불어 모세로 표현되는 신성한 법의 인도 하에 거룩한 땅으로의 길고 힘든 길을 여행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재확인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자신이 가졌던 세상적인 지식과 성취 속에 든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지니고 거룩한 땅으로 향해야 한다. 이런 모습이 본문 34-39절에서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고 “이제부터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곧장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구원되었다는 것 곧 거룩한 땅에 진입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렸다는 것은 우리가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꾼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모든 시련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 오고, 우리가 거룩한 땅 경계선에 도착하기 전까지 많은 실수를 행하며 그로 인해 고통도 받게 됨을 미리 감지해야 할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첫 배 = 믿음

어린 양 = 순진

누룩(이스트) = 거짓

쓴 나물 = 시험

제 4반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오래 동안 이집트에 체류하여 바뀐 조건들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있었던 제양들의 필요성과 과월절의 세부사항에 대한 의미와 더불어 성만찬의 의미도 살펴본다.

우리는 본문으로부터 성경의 두 번째 책에 접어들게 된다. 단어 출애굽이란 히브리어로 “나감”이란 뜻이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50장 24절에 있는 요셉의 예언이 약 200년이 지나서 성취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 본문 4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머무른 것이 430년 동안이었다”고 함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에 머물렀었던 때로부터의 햇수이다.

창세기 46장 26-27절을 보면 야곱에게 딸린 모든 식구가 칠십 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본문 37절에서와 같이 과월절 밤에 이집트를 빠져나간 숫자는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60만 명이나 되었다. 이집트인들은 이러한 인구증가를 두려워하여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만들고 말았다. 이로 인해 히브리인들의 이집트 생활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이집트에 머문 시기란 우리가 기억 속에 지식을 획득하는 시기를 표현한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위해서 말씀의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들 속에 든 내적 의미를 토대로 이뤄진 교리까지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될 때 그것을 우리의 삶에 사용하는 것을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기근이 끝나자마자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아갔었어야 함이 의미하는 바다. 반면에 우리가 지식을 습득해서 사용하려는 노력 없이 계속 기억 속에 담아 놓기만 하면, 우리는 “이집트 안에서 노예”가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요셉의 보호 곧 영적인 힘에 의해서 보호되지 못한다. 이 내용이 1장 8절에서의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왕이 새로 이집트 왕이 되어”가 의미하는 바다. 이리하여 우리는 이스라엘의 후손들 같이 하느님의 이름, 즉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보기마저 잊어버리게 된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까지 이르게 되면, 주님은 우리 안에 형성된 세상욕과 무신론의 극렬한 결과를 보여 주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 이것이 바로 장자를 죽이는 재앙으로 극에 달한 이집트에 대한 열 가지 재앙들이 의미하는 바다. 장자는 믿음을 상징한다. 어떤 이가 파라오같이 세상적이고 악한 과정의 나쁜 결과를 누차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계속 저항한다면, 결국 그는 믿음속의 참 가능성마저 파괴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리하여 이스라엘로 표현되는 영적 삶 속에 든 모든 것이 그로부터 빠져나가게 되고, 그가 습득한 지식 속에 든 가치 있는 것들도 영적인 것과 함께 빠져나가게 된다. 이것이 파라오에게 닥친 재앙들의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진군하고 있다. 이 백성들은 모든 재앙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인들이 당한 대 황폐를 목격하면서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빠져나갈 준비를 갖추었다. 모세란 신성한 법을 상징한다. 그들은 다른 아홉 가지의 재앙들과 달리 마지막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뉘가를 해야만 했다. 즉, 그들 스스로 주님께 순종하며 그분께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인정하는 무언가를 행동으로 보여야 했다는 말이다.

과월절의 어린 양은 순진을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의 참고 문헌을 읽어 보면 이해될 것이다. 어린 양의 피란 순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는 진정한 생각들을 의미한다. 각 집의 문설주란 마음의 문을 상징한다. 그래서 거기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순수한 애정에서 솟아나는 진정한 생각으로 마음의 문을 거짚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킴을 의미하게 된다. 주님께서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그것을 “불에다 구워 먹고, 삶거나 날로 먹지 않도록” 명하셨다. 그 이유는 선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단지 정신적 관념차원에서 선에 대한 흥미를 갖고 즐기거나 단순히 인정하는 식으로 선을 대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누룩 없는 빵이란 케케묵은 거짚 사상과 혼합되지 않은 근본적인 선함을 표현한다.

그 당시의 누룩(이스트)이 오래된 빵가루이었음을 생각해보면 위의 내용이 이해될 것이다. 쓴 나물이란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고 극복해야 할 시험들을 상징한다. 끝으로 우리가 위의 사항들을 이행할 때(먹을 때), 우리는 여행할 채비 곧 허리에 떠를 띤 채로 먹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새로운 원리를 사용해야겠다고 결심한 즉시 실행해야 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새 길이 솟아나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여행을 출발함에 있어서 이집트에서 가치 있는 것들인 금과 은 그리고 의복을 모두 챙겨 가지고 떠나야 한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습득한 가치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식 모두를 챙겨서 새로운 삶의 길로 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과거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체류하다가 귀향할 때 금과 은 그리고 가축 떼를 많이 가진 부자가 되어서 귀향했음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제자들과 함께 그분의 마지막 만찬인 과월절 음식을 드시며 그 날을 기념하셨다. 그분은 이 기념식에서 모든 제자와 기독교회를 위해서 과월절 대신 기념해야 할 새 축제를 제정하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성만찬인 것이다. 주님의 성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는 어린 양의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대신하고 있다. 성만찬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옥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것은 주님이 율법과 예언을 성취시키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제 5반

본문의 전체적인 것을 언급하되 몇 가지 사항을 주력하여 살펴본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의 보호 하에 번성했던 이야기를 상기해두면, 본문의 공부를 시작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그들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 이집트에 잠시 머문 터라 기근이 해결된 후에는 고향인 거룩한 땅으로 귀환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집트를 그들의 고향 보다 더 나은 곳으로 여기며, 이집트가 마치 그들에게 계시된 천국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그들의 후손들이 그 땅에 아예 정착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태는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요셉이 백 십 세에 죽자 사람들이 그를 썩지 않게 만들어 관에 넣어 이집트에 모셨다”라는 구절과 더불어 출애굽기 첫 장 첫 칠 절까지에서 묘사되고 있다. 성경이나 교회의 교리를 공부해야하는 목적은 우리의 영적 발전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공부의 목적이 천국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근접하며 이웃을 더욱 섬겨야 하는 것임을 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이나 교리 공부로 얻게 되는 보상이 천국보다 세상에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고 심지어 세상적인 것들이 더 실질적이며 가치 있다고 느끼게 된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을 달콤하게 여기고 그것의 호소에 굴복하게 되면, 우리는 일상적인 삶의 평면에 있어서 주님의 진리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원리들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으로 인생의 방향을 차차 굳혀가게 된다. 이런 모습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그런데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왕이 새로 이집트의 왕이 되어...”라는 구절로 묘사되고 있다.

우리가 위와 같이 되면, 주님은 제 1장 9절 이하에서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힘든 길’을 통해서 진리를 익히도록 허용하신다. 이른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가 되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삶에서의 우리의 마음은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하게 되고, 인생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어 “내 팔자야, 이게 사는 것인가?”라며 한탄하게 된다.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알 수 있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파라오에게 노예 신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그들의 진정한 하느님의 이름까지도 잊어버린 상태였다. 이런 상태의 삶을 사는 인간은 스스로 황폐함의 대열에 끼어들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쓴 경험에 의해서 가르쳐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열 가지 재앙들이 모세에 의해 하나씩 열거된다. 열 가지 재앙들이란 모세로 표현되는 하느님의 법이 세상적인 삶으로만 우리를 인도하는 악과 거짓이 무엇인가를 단계적으로 명백히 알려주는 것을 상징한다. 재앙이 시작 되자 이집트인들이 더욱 고통 받았지만, 파라오는 오히려 히브리인들에게 더 고된 조건을 내세웠다. 한마디로 파라오의 마음이 더 강박해진 것이다. 오직 마지막 재앙만이 히브리인들을 파라오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을 뿐이다.

우리는 모두 자연적인 상태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이 세상 삶의 목적은 거듭남에 있다. 즉,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는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 갈 자가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다. 스웨덴북의 저술에서는 ‘믿음이 성경에서 장자로 표현된다.’라고 기술된다. 그 이유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악과 거짓을 극복하도록 하여 첫 부활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이집트에 입한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구원된 것이다. 하지만 믿음이 파괴될 때의 사람에게는 어떤 구원도 있을 수 없게 된다. 영적으로 볼 때 파라오의 장자란 두려움에 근원을 둔 복종적인 믿음이다. 달리 보면, 의를 행함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에 해당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은 심각한 시험에 부딪치면 버티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이집트인들의 장자들이 죽는 모습의 의미이다. 또한 이것은 악 위에 떨어지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기도 하다. 선과 진리에 관한 기억속의 모든 지식이 마지막으로 소멸되는 상태와 더불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재구성 혹은 개과천선뿐이다. 이 모습은 본문 31절에서 묘사되고 있다.

이집트인들의 소유물은 그 자체로서는 악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가 삶의 자연적인 평면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의 우리 삶뿐만 아니라 교회의 측면에서 가장 바깥상태, 즉 겉으로 드러나 보이게 되는 모든 것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것들이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어떤 교회들의 경우 영적인 본질이 퇴보하게 되면 의식적인 행사에 공을 많이 들이거나 또는 건물을 더욱 멋지고 웅장하게 지으려하거나 아니면 재정을 넉넉히 하여서 영적인 본질의 부채를 가리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려는 경향을 띤다. 사실 이런 모든 자연물들은 그 자체로서는 모두 좋은 것이요 필요한 것들이다. 한마디로 없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다.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은 영적 생명을 지켜주는 방어물이기도 하다. 교회에서 있게 되는 정규 예배, 교훈, 찬송, 기도, 성경 암송, 성경 강좌 혹은 성경 읽기 또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한 방과제들로서 필수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의 글자를 명백히 알고 있거나 많이 기억하면 할수록 그 속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더 나은 준비를 갖추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성장해가면서 삶에 중요한 수많은 기억속의 지식들을 획득해 가는데, 어떤 누구도 이것들이 정말로 요긴하게 쓰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지식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질서인 것이다. 이런 내용이 35절의“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일러 준 대로 이집트인들에게 은불이와 금불이와 옷을 내라고 하였다”라는 구절에 담겨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인들로부터 물건들을 얻도록 명령하셨고, 이렇게 획득된 물건들은 차후 새 생활에 요긴하게 쓰인다. 우리는 교회속의 진정한 보물, 즉 주님사랑과 이웃사랑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 은불이”인 교회의 예배형식과 말씀을 담은 글자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의복이라는 지상적인 성공과 더불어 인간의 법칙으로서의 성경글자에 있는 명령들을 우리 삶의 원리와 도덕적 수준의 진리로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의 기억 속에 담겨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탱하며 섬기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재앙과 더불어 과월절이 설립되었다. 이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로서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됨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마다 준수되어 왔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과월절과 더불어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 아마도 어린 양일 것이다. 양이란 순진을 표현한다. 그리고 고기를 먹는다고 함은 순진이라는 특질을 자신의 것으로 삼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순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질문과 더불어 어린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연상될 것이다. 어린이들의 특질은 단순하고 신뢰적이면서도 실재적인 악에는 무지한데, 이러한 순진을 스웨덴봄은 “무지의 순진”이라고 명한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어린이로 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지한 상태로 되돌아가라고 요구하시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스웨덴봄은 순진의 또 다른 종류인 “지혜의 순진”에 대해서 설명한다. 순진이란 단어는 “해가 없음”을 뜻한다. 우리는 타인을 해칠 수도 있는 자신속의 이기적인 욕구들이 이유를 막론하고 모두 자아사랑으로부터 비롯됨을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스웨덴봄은 「천국의 신비」 제 3994항에서 야곱이 하란에서 샅으로 검은 양을 선택하는 구절에 관하여 ‘검은 양은 인간의 것에 속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인간의 것’이란 온전히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그 자체는 악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가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며 ‘인간의 것’이란 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믿고 그것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기적인 자아사랑의 극치이며 그로부터 만악(만(萬)惡)이 생겨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깨닫고 주님께서 부재하시면 나의 의지란 악 뿐이요 내가 이해하려 드는 것은 단지 거짓됨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진실 되게 하고 진심으로 그것을 믿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주님은 그분의 모든 선과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유입시켜 주실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과 거짓을 보고 느끼고 인정한 후 주님의 도움으로 그것들을 극복한 후에 이르게 되는 상태가 바로 지혜의 순진이요 과월절 어린 양이 의미하는 바다.

제 7절에서의 “이 어린 양의 피를 받아 그것을 먹은 집의 좌우 문설주와 문 상인방에 바른다”란 과월절 어린양이 뜻하는 것을 각자 자신 속에 들어오도록 허락한 모든 생각 위와 들어오도록 허락한 모든 욕구위에 가훈이 방의 벽에 붙어 있듯이 우리의 마음에 써놓고 매일매일 묵상해야 함을 의미한다. 양고기를 날로 먹거나 삶아 먹는 대신 ‘불에 구워 먹는다’고 함은 주님의 선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랑 없이 이뤄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선과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흡족해 하고 즐기는 상태에서는 그분의 선과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진실로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선과 진리를 받아야 한다고 분부하시는 것이다. 누룩 없는 빵이란 거짓으로부터 순수해진 진리이며, 쓴 나물이란 시험을 수단으로 주님의 선과 진리를 얻게 됨을 뜻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반드시 불에 구워먹어라. 그리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

두어서도 안 된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사랑의 선과 진리가 모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소화되고 이용되어야 하되 우리의 가장 깊은 면에서부터 가장 바깥 것에 이르는 모든 부분에 영향이 미치도록 그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11절에서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 먹도록 했다.”라고 기록된다. 이 구절은 우리가 자아와 주님께 관한 깊은 신념을 삶의 매사를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준비 과제로 세워야 함을 뜻한다.

이집트로부터 가나안까지의 여행은 길고 어려운 여정이었다. 물론 우리는 본문의 백성들처럼 처음에는 그 여행이 얼마나 길고 고될지 눈치 채지 못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여행은 자연적인 삶으로부터 영적인 삶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영적 여행을 표현한다. 그리고 과월절은 이러한 여행을 위한 준비에 해당된다. 과월절 축제동안 주님이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 발생된다. 주님은 열두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이 과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려고 얼마나 빨리 왔는지 모른다(누가복음 22:15).”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주님은 19절에서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라고 하심으로 성만찬을 제정하셨다. 성찬식은 기독교회가 과월절을 대신하여 거행하는 전통이 되었고, 이는 인생 여정에서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한다.

주님은 과월절에 제물이 된 어린 양이 상징한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요한복음 1:30).”라고 선포했던 것이다. 어린 양이 가진 가장 깊은 의미는 주님의 측면에서 볼 때의 신성한 순진이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모든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자극들을 끄집어내어 주님께 바친 후 그분의 신성한 의지를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완전히 성별됨을 의미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3994항: “진정한 선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선속에 반드시 순진이 존재해야 한다. 순진 없는 이타에는 이타애가 아니다. 더욱이 순진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순진은 사랑과 이타애 그리고 선에 대해서 불가결한 요소이다. 순진이 존재하는 인간의 것(proprium)이란 자신에게 있는 것은 오로지 악뿐이며 모든 선은 주님으로부터 존재함을 알고 인정하며 믿되 입으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믿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 속에 든 것은

검은 것 밖에 없다는 것 곧 의지라는 자아 속에는 악뿐이며 이해성이라는 자아 속에는 거짓뿐임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믿게 되면, 주님께서 선과 진리를 가지고 우리 안에 흘러들어 오시게 되고 빛나는 백색의 천국적인 자아를 우리에게 심어 주신다.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지 않는 어떤 이도 진정한 겸손 속에 있을 수 없다. 자아가 절멸된 속 혹은 자아가 없는 속이야 말로 주님의 신성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 것이다. 주님은 이를 수단으로 하여 성결된 마음, 즉 겸허한 마음 안으로 선을 갖고 흘러들어 오시는 것이다.”

『천국의 신비 제』 7996항: “넓은 측면에서의 축제는 고대시대 때에 저녁 식사 혹은 잔치이든 간에 모두 교회 안에서 행해졌는데, 이는 그들이 사랑으로 연합되고 사랑과 믿음에 속한 것 또는 천국에 속한 것들이 서로에게 훈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그 당시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기쁨이었고, 만찬이 있어진 목적이기도 하다. 이리하여 영과 육이 서로 일치하고 상응되어 자양분을 섭취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건강하게 장수했으며, 총명과 지혜를 가졌던 것이다. 또한 그들 중 어떤 이는 천사과의 교통이 열려 있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내적인 것이 모두 사라지자 잔치가 의미하던 진정한 내용물은 인간의 마음에서 없어져버렸다. 지금까지도 이러한 잔치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영적 결합 없이 단지 세상적인 결합만 있어서 뭔가를 얻기 위한 자리가 되어 버렸다. 즉, 명예나 쾌락 등 육체적인 것을 위한 자양분만이 잔치에 남아 있을 뿐 마음에 관한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질문 정리

- 1) 요셉이 죽은 후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무엇이 발생했는가?
- 2) 누가 이 후손을 이집트에서 꺼내도록 세웠는가?
- 3) 무엇이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이 후손들을 떠나가도록 만들었는가?
- 4) 몇 개의 재앙이 이집트인들에게 내려졌는가?
- 5) 마지막 재앙은 무엇인가?
- 6) 장자가 죽지 않도록 이스라엘 후손에게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가?
- 7) 이집트인들은 이 후손들이 빠져나가는데 무엇까지 제공했는가?
- 8) 이 후손들은 이집트를 떠나기 직전 무슨 축제를 가졌는가?

- 9) 왜 이 축제가 과월절이라고 불리게 되었는가?
- 10) 어린 양의 고기는 어떻게 요리하도록 지시되었는가?
- 11) 그 고기와 더불어 무엇을 먹었는가?
- 12)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떤 차림으로 먹었는가?
- 13) 먹고 남은 어린 양의 고기는 어떻게 했는가?
- 14) 이집트를 떠날 때 이 후손의 인구는 얼마였는가?
- 15) 그들은 과월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회상했는가?
- 16) 이 축제는 일 년에 몇 번 준수되었는가?
- 17) 기독인은 과월절 대신 어떤 축제를 지키는가?
- 18) 이 축제는 언제 그리고 누구에 의해 제정되었는가?
- 19) 어린 양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20) 순진이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노예가 되었다 2) 모세 3) 재앙 4) 10 5) 장자가 죽는 재앙
- 6) 문에 어린양의 피를 바르라 7) 금, 은, 의복 8) 과월절
- 9) “그 피를 보고 너희를 처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10) 불에 구웠다
- 11) 누룩 없는 빵, 쓴 나물
- 12)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 13) 불에 살랐다 14) 60만 15) 노예로부터의 해방
- 16) 매해 한 번씩 영원히 17) 성만찬
- 18) 예수님께서서 목요일 저녁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19) 순진
- 20) 해치지 않음, 주님의 인도를 기뻐함

르비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머리말

우리에게 친숙한 출애굽기에서의 몇 가지 사건들인 홍해를 건넜던 것,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되었던 것, 엘림에서의 휴식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음 등을 간략히 언급하면서 본문을 시작한다. 앞서 했던 공부와 본문의 요점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해주셨던 것이라고 사료된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17장

17장: 1.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썩 썩 광야를 떠나 야훼의 지시대로 진지를 옮겨 가면서 전진하였다. 르비딤에 이르러 먹을 물이 없는 것을 보고, 2. 백성들은 모세에게 먹을 물을 내라고 들이대었다. 모세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느냐?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하고 말했지만, 3. 백성들은 당장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었으므로 모세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어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 내 왔느냐? 자식들과 가족들과 함께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4.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저를 돌로 쳐 죽일 것만 같습니다.” 5.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 오너라.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오너라. 6. 내가 호렙의 바위 옆에서 네 앞에 나타나리라. 네가 그 바위를 치면, 물이 터져 나와 이 백성이 마시게 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켜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7.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들었다고 해서 이 고장 이름을 므리바라고도 하고 “야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하며 야훼를 시험했다고 해서 마싸이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8.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 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움을 벌였다. 9.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다. “장정을 뽑아서 내일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나는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 10.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다.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언덕 위에 올라 가 있었다. 11. 모세가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후르는 모세의 팔을 좌우에서 각각 붙들어 떠받치니 해가 질 때까지 그의 팔은 처지지 않게 되었다. 13.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쳐 이겼다. 14.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후세에 남겨 두어라. 그리고 내가,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늘 아래에서 전멸시키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똑똑히 일러 주어라.”

15. 모세는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 니씨라고 이름을 붙이고 16. “야훼의 사령기를 향해 손을 들자. 야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 주시리라”하고 외쳤다.

교리 요점

- * 우리는 주님께 꾸준히 도움을 간구할 때 우리의 시험들을 극복할 수 있다.
- * 우리가 어떤 삶이 올바른가를 모색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한다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 *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실제로 믿고 있지 않는 것이다.
- * 우리를 낙심 속에 빠지게 하려는 악은 언제나 우리 속 깊은 곳에 드러누워 있다.
- * 낙심은 이기심의 발현이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월절을 기념한 날 밤에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는 여행을 시작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이 가야할 방향을 보여주셨다. 이 여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고달팠지만, 주님은 여행기간 동안 내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뒤 파라오는 마음이 변해 그들을 추격하도록 홍해까지 군대를 보냈다. 하지만 홍해가 백성들 앞에서 갈라져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집트의 군대가 계속 추격하여 바다 속으로 들어서자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 이집트의 군대가 몰살된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뒤에 불과 구름기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쪽으로 인도해갔다.

우리가 자아 중심으로 세상적인 것을 위해 사는 것이 노예 생활임을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기

로 결심하면서 그분이 “복되다”고 부르시는 일련의 삶을 향한 길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이집트에서 거룩한 땅으로 향하는 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여행 초반에는 누구든지 열심을 내며, 열광적일정도도 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처럼 열광적으로 나선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을 실망시키는 이런저런 곤경에 휘말리게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느끼고 극복해야 할 나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가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즉, 광야 여행 곧 모든 시련과 낙망을 가진 이 여행은 우리 앞에 한동안 계속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말이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시련 가운데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나이 산으로 향하는 도중이었다. 그들은 르비딤이라고 불리는 메마른 계곡을 통과하도록 인도되어서 매우 목이 말랐다. 주님은 사마리아 지방의 우물에서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요한복음 4:13-14).”라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호렙의 바위를 지팡이로 쳤을 때 솟아난 물은 위 구절과 똑같이 생명이 있는 물, 즉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해 하느님의 말씀에서 출원되는 진리를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둘 사항은 성경에서 주님이 바위와 말씀 모두로 불린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이 해결된 직후 첫 전투로 돌입해야만 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배운 후 자신 안에 든 악을 때려 부수는 데에 그것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 진리가 여전히 자신의 것이 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성을 낮은 계곡으로부터 위로 들어 올려야만 한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서서 그의 팔을 들어 올리고 있어야만 했던 것 그리고 아론과 후르가 모세의 팔을 떠 받쳐 올려 주어야 했던 것들 모두는 우리의 지성을 들어 올려서 싸워 승리할 때까지 주님께 꾸준히 도움을 청해야 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선한 해결책 혹은 그 원리들을 우리를 지탱시키고 견고해지도록 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

제 1반

르비딤에서의 두 사건을 주로 언급하되,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그의 팔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란 그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임이 확실히 기억될 수 있도록 강조한다. 그리고 본문이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되는 부분임을 기억한다. 또한 주님의 현존과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함도 강조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월절 음식을 먹었을 때 이집트를 떠날 채비를 완료하고 있었다. 그들은 급히 이집트를 떠나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여행을 추진해 갔다. 그리고 따라오는 그들이 모두 떠난 후 마음이 변하여 그들로 하여금 되돌아오도록 군대를 보내 추격했다. 이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이를 때쯤에 그들에게 근접하게 되었고, 그들은 탈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백성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셨다. 먼저 주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쪽으로 보내서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보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셨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둘로 갈라지게 되어 마른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다. 이집트 군대 역시 바짝 추격해 와서 홍해 안으로 들어섰지만, 다시 바닷물이 합쳐져 모두 익사하고 말았다. 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땅에 도달하기까지 긴 여로를 따라 여행해야만 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그들이 직선으로 여행했다면, 어느 지역을 통과해야 했는가?
- * 주님은 어떻게 그들을 먹이셨는가?
- * 본문에서 그들은 어떤 지역으로 오게 되었는가?
- * 그들은 무엇을 불평했는가?
- *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물을 공급하셨는가?
- * 누가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했는가?
- * 모세가 팔을 들고 있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모세가 팔을 내리면 어떤 일이 발생되었는가?
- * 모세의 팔이 지치자 아론과 후르는 어떻게 조치했는가?
- * 이 전투 후 모세는 르비딤에 무엇을 세웠는가?

제 2반

성서지도에서 광야 여행 경로를 살펴볼 것인데, 특별히 이집트와 시나이 산과의 지리학적 관계를 살펴본다. 본문의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주님께로 향해 있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완료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다음 지나간 여정을 성서지도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그들이 마라에서 일단 멈춘 후 주님이 그곳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도록 해주셨고 열두 개의 샘과 일흔 그루의 종려나무가 서 있는 엘림에 이르러 그들이 휴식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제 16장은 메추라기와 만나라고 불리는 기적적인 양식이 공급되었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양식은 광야생활 40여 년 동안 매일 공급되었다.

그 이후가 바로 본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안가를 떠나 시나이 산을 향해 여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양쪽에 산이 있는 좁은 계곡을 통과해 가고 있었다. 이 계곡은 홍수기에는 급류가 흘러내렸으나 본문에서는 메마른 상태이다.

성경에서는 시나이 광야에 있는 산맥중의 봉우리 하나를 호렙 또는 시나이라고 칭한다. 우리는 통상 시나이 산을 계명이 주어진 산봉우리로서 연상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광야 여정에서의 첫 전투를 가져야만 했다. 아말렉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적으로 종종 언급된다. 아말렉이란 단어는 “계곡에 거주하는 자”라는 뜻이다. 그들의 전투 공격 수법은 상당히 특이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명기 25장 17-18 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아말렉 사람들은 패배했고, 모세는 르비딤에 제단을 세워서 아말렉족과 싸울 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나 도우실 것임을 기념했다. 아말렉은 세월이 지나 기드온의 지휘 하에 그런 다음 사울의 지휘 아래 그리고 다윗의 지휘 하에서 또 다시 싸워야만 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목마른 백성들은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 * 모세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는가?
- * 주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셨는가?
- *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 이 백성들이 도착한 지역의 이름은 무엇인가?
- * 바위가 있는 지역은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 * 누가 이스라엘의 전투 용사를 지휘했는가?
- * 누가 모세와 더불어 언덕 위에 있었는가?
- * 모세가 그의 팔을 주님께 들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그가 팔을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 * 모세가 지치자 아론과 후르는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제 3반

본 반의 요점은 교회에서 배운 모든 진리가 우리의 일생 생활이나 생각들에서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의 영적 진보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고향인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길고도 고된 여행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것은 우리의 재구성과 거듭남, 즉 우리의 천국적인 고향으로 향한 여정이 길고도 느린 과정임을 의미한다. 출애굽기 12장부터의 모든 사건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지는 재구성의 시기를 묘사하며, 이 시기란 우리가 자신만의 결점들을 인식하여 하나씩 고쳐보려고 노력해 가는 때를 의미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행 동안 하나님의 법을 표현하는 모세와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고 밤에는 불기둥이 된 두 기둥들에 의해 인도되었다. 주님께서 백성들을 멈추게 하려고 하실 때 그 기둥들이 멈추어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이러한 기둥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실재하심을 표현한다. 스웨덴북은 “이 기둥은 실지로 천사들의 집단이었고, 이를 통해 주님이 그들과 함께 실재하심을 분명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한다.

주님은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는 천사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이미 배운 진리를 상기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에 순종하도록 격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올바른 삶을 배우고자 원할 때 주님은 이런 천사들을 통해 말씀 속에 든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이다. 그 이유는 비록 우리가 성경의 글자를 읽고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한 천사들이 그 글자속의 영적인 뜻을 우리와 함께 읽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넜고, 그들을 추격했던 이집트 군대는 몰살되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한 후 곧바로 있게 되는 실제적인 영적 시험을 묘사한다. 우리는 이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너무나 벅찬 것으로 여기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나약하고 게으른 자아가 아닌 주님을 신뢰하며 계속 전진하게 되면, 우리는 무사히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덮친 적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였는가를 되돌아보게 된다.

이 후의 본문 역시 공부한 내용인데, 광야에서의 몇 주 동안의 사건들이다. 즉, 주님이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만드셨던 것과 주님이 엘림에서 백성들을 쉬도록 해주셨던 것 그리고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매일의 양식을 위해 만나를 공급하셨던 것에 관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르비딤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공부하고 있다. 르비딤은 시나이 산으로 가는 길에 위치해 있는데, 양쪽에 산을 가진 협소한 계곡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에 접어들자 우선적으로 물이 없었다. 모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도록 했다. 물과 바위는 모두 진리를 상징하지만, 진리라 하더라도 각기 다른 형태의 진리를 뜻한다. 바위는 선한 삶을 건설해야 할 기초가 되는 진리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배우고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진리들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꽉꽉한 듯” 여기게 할 때도 많다. 따라서 우리가 이 진리를 사용하고자 전력을 쏟을 때만이 그 사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모습이 제 6절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물이 터져 나와짐”은 이 진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응용되어 만족을 주며 주님의 진리가 얼마나 유용한가를 새삼스럽게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을 의미한다.

이러한 발견 후 새로워진 진리를 실질적인 사용처에 가져다 놓을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즉, 우리는 자신 속에 결점들이 있음과 이기심이나 세상욕 때문에 우리의 이해성 속에 잠복하여 대기하고 있는 빼뿔어진 사상들을 인지하기 시작한다. 이런 결점이나 사상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상징하는 바다. 아말렉 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면 신명기 25장 17절-18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보려는 노력도 이제 지쳤어.”라고 말하게 되면, 잘못된 생각들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기습하기 시작한다. 이런 기습 공격, 즉 게릴라식 전투수법을 이용하는 아말렉이란 악은 한 번의 전투로 극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만으로 승리가 보장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투에의 작전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 전투에서 우리의 지휘자는 여호수아이다. 여호수아는 “싸우는 진리”를 상징한다. 그리고 그는 후에 거룩한 땅을 정복해 가는 전쟁의 지휘자가 되었다. 모세는 언덕위로 올라가서 주님께 그의 팔을 들어 올렸다. 이는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함이 주님의 법이라는 것과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도우실 것임을 의미한다.

아론과 후르는 모세와 함께 가서 그의 팔이 들려 있도록 협조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인데 주님께서 그를 모세의 대변자로 세워 파라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도록 한 인물이다(출애굽기 4:10-16). 아론은 교회의 가르침 속에서 하느님의 법이 우리에게 부상되었을 때의 상태를 표현한다. 후르는 백성의 지도자의 한 명으로 세워진 인물인데, 우리의 선생님과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개별적인 진리들을 표현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모든 가르침들이 우리의 내적 시험을 올바르게 대처하여 주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이다.

전투가 승리로 마무리된 후 모세는 르비딴에서의 이 일을 기념하는 제단을 쌓았다. 우리는 흔히 “우린 경험으로 어떤 것을 습득해야만 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순간에 자신의 실수나 실패들을 연상하게 된다. 승리 역시 우리의 경험에 속하는데, 우리는 승리들을 더욱 기억해두어야 한다. 특히 우리가 승리하게 된 원인이 주님께서 주신 힘 때문임을 더욱 더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다. 르비딴에서의 제단은 “야훼 니씨 또는 여호와 니씨”로 명명되었는데, “주님은 나의 깃발 또는 야훼께서 깃발을 드셨다”란 뜻이다. 그리고 모세는 “야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 주시리라”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릇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끓어오를 때마다 모세의 이 말을 기억한 다음 주님께 도움을 청하여 그러한 생각들을 몰아내어야 할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바위 = 근본 되는 진리

물 =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진리

모세 = 신성한 법

여호수아 = 싸우는 진리

아말렉 =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

제 4반

성인기로 접어드는 연령을 주로 공부할 것인데, 이는 그때가 이집트를 떠나 광야 여행을 시작하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배회하는 생활의 모든 이야기들은 성인기에 접어드는 연령층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으로서, 장차 그들이 겪게 될 시험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공부함으로써 시험과 부딪치는 방법들을 미리 습득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간혹 “만약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그곳에 있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구름(불)기둥이 나를 인도해 주는 것을 경험하며 마라의 쓴물을 맛본 뒤 기적적으로 바뀐 단물을 마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는 경험들을 했다면, 나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께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을 거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있게 되는 경험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임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말씀은 항상 우리 앞에 있으며, 구름(불)기둥처럼 앞장서서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한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며 먹여 주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이나 시험이 닥치게 될 때마다 “하느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하는 태도를 보이며 불평하고 의심하기 시작한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따라 남쪽으로 여행하고 있다. 그들의 여로는 시나이 산을 향하고 있었지만 내륙으로 돌아가는 길로 가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르비딤이라고 불리는 좁고 메마른 계곡을 통과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목말라 죽겠노라고 불평을 터트렸다. 목마름이란 진리의 결핍을 뜻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정말 좋은 교인처럼 보였던 사람이 극심한 곤경에 처했을 때 “내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왜 내가 이런 곤경에 처해야 하는 것일까?”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순식간에 주님을 잊은 듯한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본문의 4절에서 ‘당장 돌로 쳐 죽일 것만 같이’ 모세에게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의미하는 바다. 이 순간 주님은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 오너라. 나일 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오너라.”라고 대답하신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인정하신 원리들 중 얼마를 취하여 과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셨던 모든 것에 관한 기억을 찾아내고 그렇게 얻은 원리와 기억들을 동원해서 당면한 문제에 응용해 보라는 것이다. 주님은 6절에서 “내가 호렙의 바위 옆에서 네 앞에 나타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호렙의 바위란 우리가 발견한 진리 중에서 특별히 말씀 속에서 발견한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네가 그 바위를 치면, 물이 터져 나와 이 백성이 마시게 되리라.”하고 말씀하신다. 지팡이로 바위를 친다고 함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을 진실로 우리의 삶에 응용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말씀으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분부인데, 이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진리 곧 생명수를 주실 것이라는 의미이다.

위와 같이 주님은 우리가 곤경에 처하게 될 때 우리 안의 숲 속에 잠복해 있는 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신다. 게다가 우리가 이러한 적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들과 싸워 보기 전까지는 어떤 영적인 진보도 이루지 못함도 알고 계신다. 그 적이란 바로 아말렉이다. 아말렉이란 이름은 “계곡에 거하는 자”라는 뜻이다. 창세기에 따르면 아말렉은 에사오의 손자로서 아브라함의 가계에서 파생된 분과 중 하나다. 아말렉이란 우리가 인생의 초기에 자아 의지나 자기 이익만을 추구함에 따라 파생되는 결과를 표현하는데, 이 결과는 그 저항성이 아주 강한 것이 특징이다. 신명기 25장

17-18절에서 알 수 있듯이 아말렉족은 숲 속에 잠복해 있다가 등 뒤에서 공격하며 심지어 뒤쳐지는 허약한 병사만을 해치워 간다. 따라서 우리가 지치고 실망할 때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튀어나오는 과거의 낡고 잘못된 습관들을 말한다.

여호수아는 본문에서의 전투에서 지도자로 처음 언급되는 인물인데, 그는 후에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다. 여호수아란 싸우는 진리를 표현한다. 사실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리더십만으로 전투를 승리로 이끌 만큼 잘 훈련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체계도 없는 상태였다. 예를 들어, 젊은 시기의 전투들 곧 자신이 지닌 진리를 어떤 논쟁에 사용하려고 할 때 그 논쟁이 타인과의 사이에서나 자신속의 이기적인 느낌과의 사이 또는 진리를 사용하는 면에서의 경험 미숙으로 상대방이나 자신속의 악에 말려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본문에서 아주 교활한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신다. 이시기의 우리는 아직 모세, 즉 계명에 단순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다. 이러한 순종은 주님의 권능을 우리 삶 안으로 가져다준다. 모세는 언덕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향해 그의 팔을 들어 올렸다. 즉, 우리가 계명에 대한 우리의 순종심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싸우고 있는 낮은 심정 상태에서 들어 올려 극복해낼 힘을 주님께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모세가 힘이 빠지자 그는 바위위에 앉았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지치게 되면 잠시라도 주님 안에서 휴식해야 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론과 후르는 모세의 팔을 떠받쳐 주었다. 본문의 모세와 아론 그리고 후르는 세 가지 수단을 상징한다. 주님은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치고 실망할 때 공격해오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탱시켜 주신다. 모세란 우리가 말씀에서 직접 받는 진리이며, 아론이란 교회의 교리를 통하여 받는 진리이다. 그리고 후르란 교회나 주일학교 또는 부모나 선생님들을 통해 받는 진리로서 우리가 진리를 삶에 적용시키 고자 할 때 상당한 도움을 준다. 출애굽기 24장 13-14절에서의 모세는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오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백성들에게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아론과 후르에게 판단해 달라고 일러두고 있는데,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바로 위의 말에 대한 예가 될 것이다. 우리가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진리를 꾸준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시험이 끝나는 때 곧 이기적인 욕구가 솟구치는 것을 의미하는 “해가 질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참고 견디게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마침내 시험을 정복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승리의 영예를 자신에게로 돌려서는 안 된다. 16절에서 모세가 주님께 제단을 쌓아 승리한 장소를 표시해 두어 기억하려고 했듯이, 우리 역시 주님을 찾을 때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제 5반

말씀으로 향한 올바른 접근 그리고 실망이나 시험 혹은 의심의 때에 특별히 주님께 의존함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중요한 교훈이다. 우리는 흔히 “주님을 믿으며 그분의 권능에 의존해 살고 있으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며, “말씀을 믿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삶에서 위급한 시기에 처하게 되면 주님의 도움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음을 본 반을 공부하면서 반성해보도록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월절 음식을 먹는 동안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있었으며 손에는 지팡이를 쥔 채로 즉시 떠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첫 추진력이 좌절당하기 전 홍해에 다다랐다. 하지만 그들에게 좌절은 왔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한 가지 선한 해결책만으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홍해에서 이집트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의 따라 잡았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 속에 든 옛 습관이 여전히 우리 속에서 강건한채 있으며 그 세력을 과시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힘만으로는 자신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극복하지 못함을 인식하게 된다.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분은 수호천사의 형태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와 파괴자 사이에서 계신다.

스웨덴북은 “추격해 온 이집트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홍해에서 밤새 서 있었던 두 기둥과 이어서 그들의 광야 여행을 쫓 인도해 온 이 기둥들은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 천사들이었다.”라고 말한다. 시편 27편에서의 “나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당신의 초막 안에 숨겨 주시고...”라는 구절과 위의 문단을 연관 지어 생각해 보면 더 깊은 뜻을 음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자유로워지기 전에 주님께 의해 우리들 앞에 열려진 길을 보게 되는 많은 경험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전진한다면 우리를 뒤쫓고 있던 우리 안의 악들이 얼마나 무기력해지는가도 경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모습인 것이다.

앞서 우리는 마라에서의 쓴물이 단물로 되었던 것과 엘림에서 충분히 휴식하는 광경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는 대목들을 공부했다. 이와 같은 광야 생활에서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인생 초기의 경험들로서,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개혁하고자 하여 애쓴 노력의 대가로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첫 번째 은택을 묘사한다. 우리는 광야의 여행이 거듭남의 삶이 시작되기 전 에 반드시 거쳐야 할 재구성의 시기를 묘사하고 있음을 항상 염두 해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구절을 읽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배고픔은 우리가 자신 안에 선함이 없음을 실감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만나를 주시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 삶을 강건케 해주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분의 선함을 주실 것임을 약속하심을 뜻한다. 목마름이란 우리가 삶을 위해서 진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만나가 공급된 후 호렙의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본문이 이어진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 오너라. 나일 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오너라. 내가 호렙의 바위 옆에서 네 앞에 나타나리라. 네가 그 바위를 치면, 물이 터져 나와 이 백성이 마시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다. 5절과 6절이야말로 실질적인 삶에서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진리를 발견하는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다. 이 구절을 보다 상세히 이해해 보도록 하자. 우리의 지도자로서의 모세는 우리가 하느님의 법에 반드시 순종해야 함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호렙의 바위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말씀임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진리를 위해서 반드시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는 데는 특별한 지시가 수반된다. 즉,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라는 부분이다. 이는 교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원리들과 함께 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나일 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함께 가야한다. 성경에서 지팡이는 힘은 상징하는데, 특별히 주님의 권능을 상징한다. 이 구절은 과거 자신의 위기 때에 경험했던 진리를 회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손에 이 지팡이를 들고서 바위를 쳐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필요한 진리를 위해서 말씀을 읽되 그 진리를 이해하여 사용할 힘이 주어질 것임을 확신하면서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한낱 인간의 작품으로 간주하거나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추론을 뒷받침해줄 자료 정도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그들 안에서 생명의 물을 솟아오르게 하지 못함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의 여정 초기에 반드시 익혀두어야 할 교훈들 중의 하나이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다루는 본문의 후반부는 삶에서 수없이 필요로 하게 되는 교훈을 담고 있다.

본문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특별히 해낸 일 없이 단지 구름(불)기둥만을 따라 다녔을 뿐이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것조차도 단지 누군가를 따라서 꾸준히 전진하는 것에 불과했다. 주님은 그들의 길을 열어 주셨고, 그들의 적들도 파괴시켜 주셨다. 따라서 그들은 단지 그들의 요구를 주님께 말했을 뿐이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싸워야 할 적과 부딪치도록 허락되어졌다. 이것은 세상적인 삶에서 떠나 약속된 땅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그만 확증과 힘은 실습을 거쳐야만 얻어진다는 뜻이다.

아말렉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그들의 위치는 르비림이란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내륙으로 빠지기 위해 좁은 계곡을 통과하여 전투지역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였다. 아말렉이란 “계곡에 거하는 자”라는 뜻이다. 아말렉은 본래 에사오의 손자였다. 그는 우리의 의지 속에 있는 악 또는 수준이 낮은 상태의 의지를 상징한다. 아말렉의 전법은 신명기 25장 17-18절에서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들은 숲 속에 매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뛰어나와 공격하는 게릴라 전법을 사용했고, 대열에서 뒤쳐지는 힘없는 병사만을 골라 해치우는 방법을 주로 썼다. 우리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매우 지쳐 있을 때 주님을 의심하고 그분께 실망하는 시험에 빠지거나 성급한 판단 혹은 말이 튀어 나와 갈등을 못 잡도록 하는 지옥의 시험에 건디기 어렵다고 느끼기도 한다. 이런 때는 우리의 전 인생에서 수없이 다가오며 지나치기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의지력은 저자세에 머물게 되고 자신의 약점들을 스스로 보게 되면서 “될 대로 되라.”하는 식으로 주저앉을 때가 허다하다. 사실 이런 때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본성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고 주님의 보호나 도움이 절실하다고 느끼게 된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나는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라는 계시가 필요하다. 이는 우리가 그 시험에 응전하는 첫 자세이다. 즉, 우리의 생각을 주님을 향해 들어 올리고 과거에 그분이 우리를 도와 주셨던 때를 기억하며 또 다시 확신하고 그 힘을 그분에게서 구하라는 말이다. 보다 정확히 설명하자면, 모세는 우리가 직접 말씀을 읽는 가운데 찾게 되는 진리로부터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주님의 법을 상징한다. 이 법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첫 번째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들려 있는 한 이스라엘 용사들은 우세했다.

그러나 “모세의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법은 간단히 말해서 십계명이다. 십계명은 “...하지 말라”가 그 주축을 이룬다. 우리를 떠받친 “...하지 말라”라는 강경자세만으로 전투를

해나가게 되면 곧 피곤해져 힘이 빠진다는 말이다. 스웨덴북은 본문에서의 모세와 아론 그리고 후르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세 단계의 진리를 상징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진리를 표현한다. 다시 말해서, 말씀 그 자체에 대한 지식이다. 아론은 대 제사장으로 임명될 인물이었고 시작 초부터 모세의 대변인이 된 자로서, 말씀이 교회의 교리로 설명됨에 따라 우리에게 오는 말씀속의 진리를 표현한다. 후르는 백성들의 지도자 중의 한 명이다. 따라서 그는 선생님들, 부모님들 또는 자신의 묵상이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말씀속의 진리라고 사료된다. 우리는 지치고 낙심되어 자신의 나약함으로 빨려들어 가도록 유혹될 때 말씀에서, 교회에서 또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으로부터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회상해야 한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갖다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후르는 모세의 팔을 좌우에서 각각 붙들어 떠받치니 해가 질 때까지 그의 팔은 처지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쳐 이겼다.” 우리는 우리의 바위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쏟으시는 그분의 사랑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를 강건케 해주며 구원하시는 그분의 권능을 한껏 이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속의 자아사랑이라는 태양이 지고 승리할 때까지 그것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에 대해 그분께 감사를 돌려야 한다. 모세는 이를 기억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을 “야훼 니씨”라고 불렀다. 그 뜻은 “야훼께서 깃발을 드셨다.”이다. 우리가 한 가지 시험에 승리하고 나면 또 다른 시험의 전투가 우리를 기다린다. 우리는 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를 강하게 해줄 또 하나의 경험을 우리 속에 축적하게 된다. 우리는 가벼운 마음 그리고 여유 있는 자세로 다가 올 시험을 주님께 의지하고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8555항: “앞장에서의 내적인 의미는 세 번째 시험에서 다뤄진 것으로서 그 시험은 선의 결핍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바이며 본문에서의 내적인 의미는 네 번째 시험이 취급되는데, 그 시험은 ‘백성들은 당장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으므로 모세에게 불평을 터트린’ 구절이 의미하는 바다. 그러므로 믿음의 진리가 주님에 의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호렙의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구절에 대한 의미이다. 그런 다음 악에서 온 거짓과 믿음의 진리와 선 사이에 전투가 뒤따른다. 이 전투가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투로 표현된다. 믿음의 진리와 선 가운데 있는 이들은 그들이 주님을 향해 위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적을 정복하지만 아래를 쳐다 보고 있게 되면 굴복당하고 마는 것이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장면으로 표현되고 있다.”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가?
- 2) 무엇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는가?
- 3) 본문에서 이 백성들이 도착한 지명은 무엇인가?
- 4) 그들은 왜 불평했는가?
- 5) 주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6) 모세가 바위를 치자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 7) 이후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 8) 누가 전투를 위해 지도자로 임명되었는가?
- 9) 모세는 무엇을 했는가?
- 10) 누가 모세와 더불어 언덕에 올라갔는가?
- 11) 모세는 전투 상황을 어떻게 좌우할 수 있었는가?
- 12) 그가 지치자 누가 그를 도왔는가?
- 13) 모세는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 14) 바위에서 물이 솟아남이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아말렉은 무엇을 그리는가?
- 16)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한 이스라엘이 승리했는데, 이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본문에서의 아론과 후르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홍해가 갈라짐 2) 구름(불)기둥 3) 르비딤 4) 물이 없어서
- 5) 바위를 치라 6) 물이 솟아났다 7) 아말렉 8) 여호수아 9) 언덕위로 올라갔다
- 10) 아론과 후르 11) 팔을 들고 있음으로 12) 아론, 후르, 돌 13) 제단
- 14) 팍팍한 진리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기울임
- 15) 실망, 유전적인 자아 의지에 기초를 둬
- 16) 하나님쪽으로 생각을 들어올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분의 도우심을 회상함
- 17) 아론 - 교회의 교리, 후르 - 성경학교, 교회, 부모님, 선생님에게서 배운 생각들

10

금 송 아 지

머리말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출애굽기 19장과 20장 그리고 24장을 읽은 후 시나이 산에 도착해서 본문까지의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기억되도록 한다. 모세는 계명을 받기 위해 여러 번 산을 오르내렸다. 특별히 24장 18절은 32장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된다. 모든 백성들이 산에서 오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고 몇 번씩이나 그분께 순종하겠노라고 약속해왔던 점을 상기하면서 본문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자.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32장 1-24절

32장: 1. 백성은 모세가 오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물려와 청하였다. “어서 우리를 앞장설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 온 그 어른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 아론이 그들에게 “너희 아내와 아들 딸의 귀에 걸린 금고리를 나에게 가져오라”하고 대답하자 3. 백성이 모두 저희 귀에 걸린 금고리를 떼어 아론에게 가져왔다. 4.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수송아지 신상을 부어 만들자 모두들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 내 온 우리의 신이다.” 5. 아론은 이것을 보고 그 신상 앞에 제단을 만들고 “내일 야훼 앞에서 축제를 올리자”하고 선포하였다.

6.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친교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나서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정신없이 뛰놀았다. 7.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당장 내려 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에서 데려 내 온 너의 백성들이 교약하게 놀아나고 있다. 8. 저들이 내가 명령한 길에서 저다지도 빨리 벗어나 저희 손으로 부어 만든 수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 내 온 우리의 신이다’라고 떠드는구나!” 9. 야훼께서 계속하여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이 백성을 잘 안다. 보아라,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10.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진노를 내려 저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너에게서

큰 백성을 일으키리라.”

11. 모세는 그의 하느님 야훼의 노기를 풀어 드리려고 애원하였다. “야훼여, 당신께서는 그 강하신 팔을 휘두르시어 놀라운 힘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 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이토록 화를 내시옵니까? 12. 어찌하여 ‘아하, 그가 화를 내어 그 백성을 내다가 산골짜기에서 죽여 없애 버리고 땅에 씨도 남기지 않았구나’ 하는 말을 이집트인들에게서 들으시려 하십니까? 제발 화를 내지 마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려든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13. 당신의 명예를 걸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다 너의 후손에게 주어 길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겠다’고 맹세해 주셨던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14. 이 말을 들으시고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셨다.

15. 모세는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돌아 서서 산에서 내려 왔다. 그 두 판 양면에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새겨져 있었는데, 16. 그 판은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었다. 그 판에 새겨진 글자도 하느님께서 손수 새기신 것이었다. 17. 백성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하였다. “진지에서 들려 오는 저 소리를 들으니 전쟁이 터졌나 봅니다. 18. 모세가 말을 받았다.

“그것은 승리의 노래도 아니요,

패전의 곡성도 아니다.

나 듣기에 저것은 화답하는 노랫 소리다.”

19. 모세가 진지에 가까이 이르러 보니, 무리가 수송아지를 둘러싸고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격분한 나머지 손에 들었던 두 판을 산 밑에 내던져 깨뜨렸다. 20. 그는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끌어다가 불에 태우고 뿔아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하였다.

21. 모세가 아론을 나무랐다. “이 백성이 당신을 어떻게 했기에, 당신은 그들이 이토록 큰 잘못을 저지르게 하였소?” 22. 아론이 변명하였다. “우리의 영도자여, 노여워 마시게. 이 백성이 얼마나 악에 젖어 있는지 당신도 잘 알지 않는가 23. 그들이 나에게 와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 내 온 그 어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앞장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조르더군. 24. 그래서 내가 금을 가진 사람이 없느냐고 했더니, 금을 가진 자들이 몸에서 금을 떼어다가 주기에 그것을 불에 넣었지. 그랬더니 이 수송아지란 놈이 나오더군.”

교리 요약

- * 주님 외에 다른 어떤 대상물이 삶의 첫 번째에 놓이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속해야 한다.
- * 주님은 성경에서 사람들의 약함을 보여 주시는데, 실상 우리의 약함을 보여주고 계신다.
- * 우리 역시 감각적인 경험만을 의존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기가 쉽다.
- *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은 우리를 올바르게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년을 광야에서 배회하며 생활하는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것은 두 기둥들, 즉 낮의 구름기둥과 밤의 불기둥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둥들이야말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실재하심이라고 인식하고, 기둥들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며 기둥들이 그들을 인도하는 데로 이동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다. 때로 우리를 격려해주거나 우리에게 경고해 주기 위해서 또는 시험 등 다양한 형태로 많은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따라서 인생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것이다.

르비딴지역으로부터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나이 산으로 인도했다. 이 산은 바닥은 평지이면서 산만큼은 높고 가파른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전 백성이 산 근처에 있는 평지에 야영할 수 있었다. 그들은 11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그 때에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삶과 예배를 위한 모든 법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으로 인해 유목민에 불과했던 수준에서 조직화된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그들이 표현 하는 이스라엘 교회도 건립되었다.

그들에게는 제일 먼저 십계명이 주어졌는데, 계명이 주어지는 소리는 천둥과 번개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들려 졌다. 사실 그들이 십계명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다시 보여 주셔야만 했는데, 이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십계명의 법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요 모든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되는 신성한 법이기 때문이다. 이 법은 결코 바뀔 수 없으며, 해를 자초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것이다. 모세는 십계명 외에 다른 법과 규정들을 받기 위해서 산꼭대기로 주님으로부터 몇 번이나 부름

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는 사 십일을 주야로 구름에 감추어져 산 위에서 지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다. 우리 모두는 **자연계 속에** 있는 것 중 예를 들어 보이지는 않는 중력이나 전력들에 아주 큰 힘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욱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본문의 금송아지는 우리가 이 세상의 쾌락이나 성공을 자기 삶의 최상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를 명심하면서 본문을 읽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경이로운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제 1반

본문의 이야기는 간단하면서 극적인데, 계명을 주님과 연관 지어 살펴보도록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이로운 방법으로 이집트를 빠져 나왔는데, 주님은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그들은 기둥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밤낮에 상관없이 기둥이 멈출 때는 멈추도록 지시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이동하지 않았다.

기둥들은 백성들이 르비딴을 떠났을 때 그들을 시나이 광야로 인도했다. 그곳은 넓은 평지에 불연이 솟은 듯 한 산이 있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기까지는 무려 석 달이나 걸렸다. 백성들은 기둥이 시나이 산 앞에 머무르자 그곳에 천막을 치고 거의 일 년 동안 그곳에서 지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하자.

- * 백성들은 산꼭대기로부터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가?
- * 모세는 계명과 다른 법 그리고 예배와 삶을 위한 규정들을 받도록 어디로 불러 졌는가?
- * 누가 모세와 함께 산에 오르도록 지시되었는가?
- * 모세는 산에서 며칠이나 있었는가?
- *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주님께 한 약속을 이행했는가?
- * 백성들은 모세가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자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 * 아론은 그들을 위해 어떤 우상을 만들어 주었는가?
- *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었는가?
- * 모세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되자 돌 판을 어떻게 했는가?
- * 모세는 금송아지를 어떻게 했는가?

제 2반

본 반에서는 시나이 산의 모습, 그곳에서 십계명이 주어진 과정, 첫 돌 판이 깨진 후 두 번째 돌 판이 산 밑에서 다듬어져 그 안에 계명들이 새겨진 까닭,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예배하고자 했던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사이의 유사점을 살펴본다.

시나이 산은 큰 평야에 우뚝 올라 선 큰 바윗덩어리들의 집합체인 듯 보이며, 그 가장자리는 날카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산의 정상은 해발 8-9천 피트정도 된다. 이 산 덩어리들의 길이는 약 2마일이며, 그 폭은 대략 1 마일정도이다. 그 밑에 위치한 평야는 약 2마일정도의 길이와 약 1/2마일정도의 폭을 가지는데, 넓이로 보면 약 400에이커 해당된다. 그리고 이 지역의 공기는 경이로울 정도로 맑아서 보거나 듣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다.

십계명은 천둥과 번개와 자욱한 연기로 뒤덮인 시나이 산 꼭대기로부터 주님의 소리로 말해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다. 신명기 5장 22-24절을 읽어보기 바란다. 모세는 산꼭대기로 불리어져 스스로 깎아 만든 두 돌 판위에 주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진 계명을 받도록 명령되었다. 주님은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모든 법, 특히 예배에 관한 법들을 그에게 주셨다. 그리고 성막과 그 속의 가구를 설비하는 것에 따른 지침들도 주셨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모세에게 단번에 주어진 것은 아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산에서 내려왔고, 백성들은 그때마다 그를 통해 주신 모든 법에 순종하겠다고 응답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산에 올라 갈 때 모세의 시종으로서 동행하도록 허락되었지만, 그는 멀찍이 떨어져서 모세를 기다렸다. 이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제외하고는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까웠음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아론과 후르는 모세가 없는 동안 평야에 있는 백성들을 책임지도록 지시되었다.

백성들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산으로 불리어져 구름에 덮인 산꼭대기에서 사십 일간을 주야로 머무르자 그가 영영 가버린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주님께서 여태껏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경이로움과 그들이 주님께 약속했던 것을 모두 잊어버렸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잊는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도 흔히 있는 일이다. 우리는 교회에서 또는 성경공부 중에 마음을 감화시킨 말씀속의 어떤 진리에 젖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약속을 잊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이러한 진리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들을 버렸다고 판단되자 아론에게 그들의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과거 이집트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 우상들 중에서 으뜸가는 것은 아마도 이집트인들의 우상인 송아지였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신을 원했다. 한마디로 그들은 보고 만질 수 있는 신이야말로 그들에게 더 가까이 있으며 실재적인 것처럼 여겼던 것이다. 사실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어떤 것을 실재한다고 믿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힘든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한 힘이 자연계에 있음을 상기한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실재하심 또한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본문 4절과 24절을 읽어 보도록 하자. 아론은 모세가 우상에 대해서 꾸짖자 자신이 직접 우상을 만드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경향이 있을 것이다. 즉, 어떤 잘못을 행한 후 그것이 적발되면 일단 발뺌하고 보는 것이다. 모세는 아론과 백성들에게 매우 화가 났지만, 우선적으로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했다.

그 후 주님은 모세에게 시나이 산 밑에서 돌 판 둘을 만들어 산꼭대기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새 돌 판에 다시 계명을 쓰셨다. 그리고 모세는 새 돌 판을 백성들에게 가지고 왔다. 이 돌 판이 후에 케 안에 보관 된 돌 판이다.

그 다음 주님은 백성들에게 그분만을 예배하며 우상을 발견할 때는 언제든지 파괴해야 한다고 언약하셨다. 또 그들이 거쳐 가는 여정의 길목에 사는 민족들이나 그들의 주변에 섞여 같이 사는 타민족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의 모든 작물과 가축의 첫 소산은 주님께 바쳐지도록 명령되었다. 그리고 매해마다 세 가지 축제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즉, 과월절(무교절 또는 유월절)과 밀 곡식을 처음 거두어들일 때의 칠칠절(추수절) 그리고 해가 바뀔 때인 가을철 모든 곡식을 안전하게 수확하는 초막절(수장절)이다. 이처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분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애쓰셨다. 그리고 그들이 위의 조항을 성심껏 준수한다면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주님의 모든 명령들은 우리의 선함을 위해 주신 것이요, 이 선함이야말로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하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이 됨을 명심하기 바란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우리는 성경의 어느 이야기에서 귀결이에 관하여 공부했는가?(창세기 35:4)
- * 아론은 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 *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 * 그는 이 돌 판으로 무엇을 했는가?
- * 그는 금송아지를 어떻게 했는가?
- * 그는 백성들을 어떻게 처벌했는가?

제 3반

우상숭배, 특별히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에 대한 상응을 주로 공부한다. 그리고 첫 돌 판이 깨트려지고 두 번째 돌 판이 산 밑에서 다듬어지도록 하였던 까닭도 살펴본다.

십계명은 천둥과 번개와 더불어 주님의 소리로 주어졌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이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은 사실 새로운 법은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의 사람들도 십계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은 이 세상 모든 국가의 법에도 기본이 된다. 계명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주님의 소리로 주어진 까닭은 이 법이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닌 하느님의 법임을 인식 시켜주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이 법은 시공을 초월하여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 법이 깨트려지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인 해와 자연적인 해가 있게 된다.

이후 주님은 모세로 하여금 산꼭대기로 올라오도록 부르신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야 할 다른 법들도 그에게 주셨다. 제 21-23장은 성서의 소제목들만 보더라도 이 법에 대해서 대충 짐작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레위기서에 수록되어 있다. 사실 이 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법이라고 부르는 내용이다. 우리는 이 법들이 글자상의 의미로는 이스라엘 족을 위한 것이지만 그 안에 담긴 영적 의미로서는 전시대의 전 인류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후 모세는 예배와 그에 관련된 규정들, 특히 성막과 그 안의 가구들 그리고 사제들의 제복과 바칠 제물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받기 위해 산에 올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느님께서 손수 쓰신 십계명의 두 돌 판이 주어졌다. 모세는 마지막 훈계의 시기에 산꼭대기를 덮은 짙은 구름 속에서 사십 일을 주야로 지냈다. 40이란 시험이 완성이 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우리가 어떤 시험에 저항할 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끼는 막바지의 상태에 도달하기도 하는데, 이를 성경에서 40이란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사라졌다고 판단되자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대한 충절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만져서 알 수 있는 어떤 것을 예배하길

원했다. 이는 영적인 가치는 덧없는 그림자처럼 보이고 세상적인 성공만이 삶의 유일하며 진정한 목적처럼 보일 때의 우리의 상태와 같은 것이다.

소는 이집트에서 총애 받는 우상이었다. 이는 이집트인들이 아주 오래 전 이세상의 선한 것과 세상적인 지식을 사랑했고, 소란 외적 또는 자연적인 선함과 그에 따른 애정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소가 가진 상응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소에 대한 본래의 용도였지만, 소가 예배의 대상으로 세워지게 되자 그 상응은 악으로 변해 갔다. 그래서 아론이 만든 우상이란 이세상의 것들을 주님과 그분을 섬기는 데에 사용하기보다 이세상의 것 자체에 몰입함을 의미하게 된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라는 표현은 성경, 특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많이 발견된다. 여기서 들음이란 순종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는 “네 마음이 주님의 가르침에 열려 있다면 그 가르침에 순종하라.”가 되는 것이다. 금귀고리란 주님께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행복을 표현한다. 그러나 백성들의 귀로부터 금귀고리를 떼어내자 그것들은 금송아지가 되고 말았다. 앞서 우리는 귀고리가 언급되는 부분을 살펴보았다. 즉, 「야곱의 귀향」을 다룬 곳 곧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베델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전 그들이 하란에서 달고 왔던 귀고리들을 떼어 내 세겜의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던 이야기에서이다(창세기 35:1-8). 하란에서 단 귀고리란 그들의 의도 속에 있는 자연적인 옛 상태를 표현한다.

모세가 처음 가지고 내려 온 두 돌 판은 산꼭대기로부터 취한 돌이었다. 이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높은 영적인 상태에서의 계명을 말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와 같은 영적인 것을 감지해서 그 진가를 알기는커녕 이해조차도 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첫 돌 판은 깨지게 되었다. 두 번째 돌 판은 모세가 산 밑에서 다듬어 가지고 올라와 주님께서 다시 새겨주신 돌 판이다. 이는 낮고 낮은 세상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 계명의 중요성이 인상 깊게 새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명에 대한 힘들고 외적인 형태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서 그것을 억지로 지키다보니 삶이 힘들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모세는 첫 돌 판을 산 밑에 내던져 깨뜨린 후 송아지를 뺨아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것을 마시도록 했다. 이는 당시 이후로 계속되어 온 그 교회속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법을 외적인 형태에서 제아무리 잘 준수한다고 할지라도 그들 속에 있었던 영적인 진리는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사랑들에 의해 왜곡 될 것임을 의미하는 구절이다.

기본 상응 공부

40 = 시험이 가득 찬 상태

송아지 = 외적인 선을 사랑함

제 4반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와 이러한 상태로 되기 쉬운 우리의 모습을 본문에서 명확히 살펴본다. 세상적인 삶으로 나가거나 이미 세상적인 삶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속의 '모세'는 '산꼭대기의 구름 안으로 사라져 버린 듯' 여겨질지도 모른다.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러한 시험을 겪게 되거나 혹은 처해 있다면, 본문을 통해 이러한 시험을 확실히 인식하는 기회로 삼고 버티는 힘을 갖기 바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석 달 동안의 광야여행 끝에 시나이 산 밑에 도착하여 진을 치게 되었다. 성서 역사가자들은 십계명이 모세 이전 시대에 이미 고대인들의 법속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어떤 이들은 십계명이 시나이 산으로부터 주님의 의해 주어지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자체를 믿지 않으려고 든다. 그러나 십계명은 주님께서 주신 법칙으로서 인간 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질서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십계명이 주님의 법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실상은 십계명의 원칙에 의해서 세워진 사회의 기본 법칙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어떤 국가적인 형태 없이 노예 생활을 해 온 터라 자기들의 진정한 하느님의 이름까지도 잊어버린 상태였다. 그들은 지상적인 삶에서의 만족 외에 어떤 다른 바램도 갖지 않게 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영적인 자유를 간섭하지 않고서도 그들의 역사를 인도하실 수 있었다. 그들의 관심사가 오로지 외적인 것들에만 있어서 주님께서서는 장차 그들의 역사가 상응의 의미를 가져서 성경 속에 담겨지도록 하셨다.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외적인 예배형태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분을 따르면 보상이라는 희망을 주실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분을 배반하면 처벌이라는 체벌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인도하실 수 있었다.

본문은 위의 사실들을 상징적인 형태로 말해주고 있다. 또한 본문은 우리가 세상적인 상태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도 알려준다. 모세는 신성한 법을 상징한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진리를 표현한다는 말이다. 모세는 성막의 관리와 건축을

위한 지침을 받기 위해 산으로 불러 졌고, 여호수아가 그와 동행하도록 허락되었다. 그리고 아론과 후르는 백성들의 사건을 담당하기 위해 백성들과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모세는 산꼭대기의 구름 속으로 사라져서 그곳에서 사십 일을 주야로 지냈다. 우리에게도 이와 아주 유사한 일이 일어난다. 즉,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의 권능과 그분의 직접적인 리더십에 대한 느낌들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여겨지며 종교 훈련이나 습관적이고 도덕적인 규약들만 남아 있는 듯 여기는 때이다. 우리는 이러한 때, 즉 우리의 영적인 삶이 아주 퇴보된 듯 여겨지는 때에 세상적인 생각이나 사랑에 몰입되기 쉽다. 사십 일 주야란 이런 시험이 우리 안에 가득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소란 세상적인 용도인 사업, 전공분야, 예술, 음악, 학문 그리고 과학 등에 빨려드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다. 이런저런 세상적인 용도가 주님과 이웃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선한 용도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단지 그것들 자체를 신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송아지란 이런 세상적인 용도들에 관한 지식을 사랑함을 상징한다. 따라서 본문에서 송아지를 예배함이란 세상적인 성공을 삶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의미하게 된다. 좀 더 설명하자면, 우리가 자신의 전공을 살리기에 바빠서 또는 자신의 사업이 일요일에 특별히 더 잘 되어서 또는 일요일에는 친구들이 모일 수 있어서 등의 핑계를 내세워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거나 교회에 갈 수 없다고 할 경우에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충만해지면(6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상태는 신성한 법의 심판에 갑자기 노출되고 만다(19절).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양손에는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새긴 계명의 두 돌 판이 들려 있었다. 이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신성한 법 곧 행복한 삶의 기본법이 계명임을 명시해 주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지상적인 것들 외에는 어떤 것에도 가치를 부여할 수 없게 변해 있었다. 19절에서 이른바 “송아지를 둘러싸고 춤을 추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첫 돌 판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세워 놓았던 우상이 먼저 파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태의 사람, 즉 이기적인 사랑에 의해 자신의 삶이 점유되도록 방치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진리란 더럽혀진 형태의 진리 곧 거짓화된 진리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20절에서의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끌어다가 불에 태우고 뺏아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 마시게” 한 구절이 뜻하는 바다.

모세는 첫 돌 판과 송아지가 부서지고 백성들에 대한 처벌이 끝난 후에 다시 산으로 부름을 받았다. 주님은 모세에게 산 아래서 돌을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오면 첫 돌 판에 새겼던 계명을 그대로 다시 새겨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34:1-4). 사람들은 종종 성경을 읽다가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주시되 드높은 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가혹하고 거친 어찌면 야만적인 느낌까지 들 정도의 방법들을 쓰셔야만 했을까?”라고 의문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한 답은 본문에 따른 주변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첫 돌 판은 주님이 산꼭대기에서 친히 다듬으셨다. 이는 주님께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진리의 형태, 즉 높은 형태인 영적인 진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백성들은 주님을 예배함에서 돌변해있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들 혹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일 것이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은 영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첫 돌 판은 깨어질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방법이 동원되었다. 즉, 인간이 산 아래로부터의 돌을 가지고 돌 판으로 다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두 번째 돌 판에도 똑같은 계명이 주님께 의해서 새겨 졌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들의 상태에 걸 맞는 낮고 세속적인 상태에 잘 채워지는 수준으로 주님의 계명을 받아야만 했다. 그래서 34장 마지막 문단인 30절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쳐다보니 그의 얼굴 살결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으므로 모두들 두려워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3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쳐다보면 그 얼굴 살결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야훼와 대화하기 위하여 들어갈 때까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어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우리가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마음 상태 안에 있으면 드높고 아름다운 형태로서의 진리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방법 곧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위협을 동반하는 거칠고 호된 명령이 있어야만 그나마 질서가 지켜진다는 것이다.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상태는 순수성 속에 든 진리를 쳐다볼 수조차 없는 것이다.

제 5반

본문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19-31장, 특별히 24장 12-18절을 읽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가 성경공부를 게을리 하더라도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간주함으로써 초래되는 결과를 살펴본다.

우리가 시나이 산을 뇌리에 떠올리면 쉽게 연상되는 사항은 그곳에서 십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주어질 때 산이 연기로 자욱했고 천둥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꼭대기로부터 계명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간혹 성서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반론 중 하나는 십계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계명이 모세시대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법전들 속에

포함되어 있음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씀에 있는 계명이 주어지는 사건은 무효하다고 주장한다. 사실 이 계명들은 태초로부터 인간 사회가 발견되는 곳마다 그리고 세상 질서의 기본법으로 존재해 왔다. 스웨덴본은 ‘태고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지각을 통해 알았고, 고대교회의 사람들은 법을 계시를 통해 알았다’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이 계명은 이집트의 법전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출애굽 시대의 인간들은 이 법이 신성하다는 것 곧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님을 이미 까맣게 잊고 있었고 오히려 그것을 인간이 만든 것으로 간주하여 인간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우리가 고대까지 추적해보지 않더라도 십계명에 대한 이런 태도는 근대 세계에서도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는 계명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영적으로 들어야 한다. 계명은 곧 신성한 법이다. 이 법은 바깥쪽 질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서까지도 주관한다. 그래서 외적으로 이 법을 깨트리면 자연적인 질서가 붕괴되어 자연적인 피해가 초래되며, 영적인 계명의 깨트림은 영적인 피해를 자초하게 되는 것으로 결코 깨트려져서는 안 되는 하느님의 법인 것이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 체제 또는 규약이 계명에의 준수나 이로 인해 얻게 되는 이득을 악화시킬지 도 모르지만 계명을 깨트림에 대한 대가의 존재는 여전하다.

우리가 본문을 숙고하면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계명이 주어졌다는 것과 모세가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번 이상 산을 오르고 내려왔다는 것 그리고 그 때마다 백성들이 만사에 있어서 주님께 순종하겠노라고 매번 스스로 서약을 했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성경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24장 12-18절을 반드시 읽어보기 바란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기해야 할 사항은 모세란 말씀에서 우리에게 직접 오게 되는 진리를 상징하고 여호수아란 싸우는 진리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론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오는 법들을 상징하며, 후르는 각자의 명상이나 경험에 의해 확증되는 종교적인 원리들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산에서 내려 온 모세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라고 질문한다. 24장 14절에서 모세는 자신이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사건이 발생되면 아론과 후르에게 가도록 백성들에게 일러 주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시나 충고를 위함이 아니었다. 하지만 백성들이 아론에게 물려와 요구한 것은 32장 1절에서와 볼 수 있는 바대로 “어서 우리를 앞장설 신을 만들어 주시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론은 그들의 금귀고리들로 그들의 신을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과거 야곱이 하란에서 귀향하면서 베델에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자신의 식구들로 하여금 예배를 준비하도록 위해 각기 가진 다른 나라의 신들을 버리라고 했던 구절을 기억한다. 즉, 창세기 35장 4절의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남의 나라 신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모두 야곱에게 내어놓았다. 야곱은 세겔 근처 상수리나무 밑에 그것들을 모두 묻었다.”라는 구절이다. 귀는 순종을 그리고 귀걸이는 순종의 기쁨을 의미한다.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에서와 본문에서의 순종과 기쁨은 외적이며 세상적인 사랑들에 속한 것이다.

후에 모세가 아론을 꾸짖자 아론은 “그래서 내가 금을 가진 사람이 없느냐고 했더니, 금을 가진 자들이 몸에서 금을 떼어다가 주기에 그것을 불에 넣었지. 그랬더니 이 수 송아지란 놈이 나오더군.”라고 변명했다. 이렇게 아론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사실과 다름은 4절에서 아론과 금귀고리에 관한 것에서 이미 언급되고 있다. 즉,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구번역 참조)”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각도로 새겨서 우상을 만든다.’고 함은 인간 자신의 총명으로부터 거짓 교리를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자아사랑과 세상 사랑을 흠모하는 데에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를 적용시킴으로서 결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이 인간을 지배하게 될 때 그 인간은 천국으로부터의 어떤 계발 속에 있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총명으로 모든 것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자신의 총명에 대한 증거로 삼는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이렇게 잘못된 적용과 거꾸로의 해석을 빌미로 말씀을 왜곡해버린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제 10406항에서 “그런 후에도 이런 잘못된 적용이나 왜곡된 해석이 그들 자신으로부터 있어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말한다.

금송아지란 위의 과정으로부터 있어지는 결과이다. 송아지란 외적인 선 또는 자연적인 선을 표현하고, 우상으로서의 송아지란 자연적인 기쁨 또는 감각적인 기쁨을 드높이는 것을 표현한다. 즉, 우리가 말씀에 자신의 영적인 인도를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 될 때 그리고 신성한 진리로 자신속의 악들을 드러내놓게 하여 이를 극복하기를 중단할 때에 우리속의 악들은 의기양양 해져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지성까지도 점령해 버린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자아사랑의 목적으로 수행되어지고, 우리의 이해성은 이 사랑과 일치하는 것들만을 추구하며 수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모세와 여호수아가 돌아왔다. 이는 우리가 갑작스레 신성한 진리와 그 심판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우리의 삶에서 종종 있게 된다.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사가 잘 되어서 그 방법에 익숙해져 있고 자신이 즐기는 우상도 잘 세워져 있는 모습은 세상에서 모범적인 성공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도 말씀에서의 어떤 인용구 혹은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찌르고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치게 될 때가 있다.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언급되고 있다. 산에서 내려 온 모세의 양손에는 하느님이 산꼭대기에서 다듬어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의 두 돌 판이 들려져 있었다. 즉, 주님은 우리가 계명을 받되 사랑의 법칙으로서 곧 높고 영적인 형태로써 그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낮은 평면에서만 움직이고 있다. 후에 계명이 새겨진 두 돌 판, 즉 궤 안에 놓인 돌 판은 산 아래에서 모세에 의해 다듬어진 후 계명이 새겨진 돌 판이다. 결국 법의 글자는 낮고 거친 형태로 밖에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형태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형태요, 세속적이며 이기적인 우리들 역시도 주님의 말씀에 청종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인 것이다. 금송아지는 파괴되었으나 빵아서 만든 가루는 그 백성들의 마실 물에 혼합되어졌다. 즉, 우리가 세상욕과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원칙 곧 금송아지 숭배를 잘못된 것으로서 인식하여 거절할지도 모르지만 세상욕과 자아애의 부산물적인 거것들 곧 가루가 된 금송아지를 우리의 이해성에 들어오는 진리와 계속해서 혼합하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자아라는 요소가 배여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10407항: “표현적인 예배 속에 있었던 고대인들은 각종 동물들에 의해 상징되는 것을 알았다. 그 이유는 각 동물이 각기 고유의 의미를 가지며 그 의미에 따라 천국에서 동물들이 나타나고, 그 의미에 따른 결과가 말씀 안에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대인들은 이에 따라 번제물이나 제물을 정했다. ‘송아지’는 외적 또는 자연적 인간 안에 있는 이타애나 순진의 선이 의미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선이 없는 때, 즉 내적인 것이 없이 외적인 것만 있는 사람의 경우에서 ‘송아지’란 자연적이고 감각적인 기쁨을 의미한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으로서, 자아 또는 탐욕인 욕의 쾌락에서 오는 기쁨들이다. 이런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내적인 것 없이 외적인 것만 가진 이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들만을 예배하는데, 이는 인간이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 역시도 우주의 하느님을 예배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입으로만 하는 것일 뿐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이들로 의미된다. 이집트인들은 여느 사람들보다도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 그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상응과 표현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졌다. 이로 인해 그들은 다양한 우상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유물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그들에게 가장 중심이 된 우상이 바로 송아지였다. 그들은 그것이 그들 예배의 외적인 선으로 의미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들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상응이나 표현의 지식에 정통하게 되었을 때 그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지식들은 마술로 변했다. 그러면서 송아지가 그 반대의 의미, 즉 외적 사랑의 기쁨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송아지가 그들의 신전에 놓여 신으로 예배되었을 때의 송아지는 예배에서 이와 같은 반대적인 기쁨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이런 우상적인 것들을 도입했을 때, 즉 송아지가 그들에 의해 신으로 예배되어졌을 때 예배 속에서도 그 국가가 사랑하는 것들의 기쁨을 의미하게 되었다.”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 후손은 시나이에서 얼마나 오래 야영했는가?
- 2) 백성들은 주님께서 시나이산 꼭대기로부터 말씀하시는 무엇을 들었는가?
- 3) 주님은 그 외의 어떤 지시를 백성들을 위해 모세에게 주셨는가?
- 4) 모세는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 어디로 갔는가?
- 5) 본문에서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가?
- 7) 백성들은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 8) 아론은 백성에게 무엇을 내놓으라고 했는가?
- 9) 그는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었는가?
- 10)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었는가?
- 11) 모세는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백성을 보자 무엇을 했는가?
- 12) 그는 이 송아지를 어떻게 했는가?
- 13) 아론은 자신을 어떻게 변명했는가?
- 14) 금송아지는 무엇을 그리는가?
- 15) 첫 돌판과 후에 산 아래서 다듬어졌던 둘째 돌판의 상이점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거의 일년 2) 계명 3) 행동 지침의 법, 예배에 관한 사항 4) 산꼭대기
- 5) 40일 6) 영원히 갔다고 7) 신들 8) 금귀고리 9) 송아지 10) 두 돌판
- 11) 돌판을 깨트렸다 12) 불에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렸다
- 13) 불 속에 금을 던지니 송아지가 나왔다 14) 세상적 성공과 육의 쾌락을 사랑함
- 15) 첫 돌판 = 율법의 높고 영적인 형태
둘째 돌판 = 세상적인 사람의 수준에 적합한 율법의 형태

11

아론의 가지

머리말

앞서 공부했던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서 아론에 관한 부분인 출애굽기 28장 1-4절과 40-43절을 먼저 읽고 민수기 33장을 참고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길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의 열 두 스파이, 특히 14장 26-35절을 읽고 그 내용을 상기하면서 본문을 공부하기 바란다.

성 서 본 문: 민수기 17장 16-28절

17장: 16.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17.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각 가문에서 나뭇가지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되, 각 가문별로 어른들이 하나씩 가져오게 하여라. 이렇게 가져온 열 두 가지에 각기 자기 가문의 이름을 새기게 하되 18. 레위 가문의 가지에는 아론의 이름을 새겨라. 각 가문마다 그 가문의 어른에게 나뭇가지가 하나씩 있어야 한다. 19. 그것들을 내가 너를 만나는 만남의 장막 안 증거궤 앞에 놓아 두어라. 20. 내가 택한 사람의 가지에서 싹이 돋으리라.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너희를 향하여 불평하지 아니하리라.”

20.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전하자 각 가문별로 대표들이 나뭇가지를 하나씩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온 열 두 가지 중에는 아론의 가지도 있었다. 22. 모세는 그 가지들을 증거의 장막 안 야훼 앞에 놓아두었다. 23.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 가 보니 레위 가문을 대표한 아론의 가지에 싹이 돋고 꽃이 피었으며 감복송아 열매가 이미 익어 있었다. 24. 모세가 그 가지들을 야훼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데로 내오자 그들은 저마다 자기 가지를 찾아 가지고 돌아갔다. 25.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의 가지는 증거궤 앞에 다시 가져다 보관하고 두 반역자들에게 경계가 되게 하여라. 그리하면 나에게 불평을 하다가 죽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리라.” 26. 모세는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27.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호소하였다. “이젠 끝장이요, 영락없이 망했소. 모조리 망하게 되었소. 감히 야훼의 성막에 나갔다가는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아주 망해야 한단 말ियो?”

교리 요약

- *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다는 정도는 인식해야 한다.
- *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징조는 우리를 위한 징조도 된다.
- *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측량된다.
- * 자아로부터 행해진 것 속에는 순수한 선이 하나도 없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나이를 떠나 광야를 거치는 중이다. 한때 그들은 거룩한 땅이 보이는 접경에까지 이르렀으나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그 이유는 거룩한 땅을 정탐하도록 미리 보낸 스파이들 중 열 스파이가 그 땅에는 견고한 성과 힘센 민족 그리고 거인들까지 살고 있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기는커녕 오히려 죽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들 중 두 명의 스파이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님이 함께 하시므로 승리할 수 있으니 쳐들어가자고 권유했지만, 대 다수의 백성들이 열 스파이의 보고에 이미 무척 실망한 상태였다. 그 결과 주님을 신뢰함이 결핍되어 겁먹은 선택으로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만을 제외하고 죽을 때까지 40여년을 광야에서 배회하다 죽어야만 했다. 우리 역시도 이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어떤 큰 혜택을 종종 잃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여 전진하는 자세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다른 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흡사하다. 즉, 우리가 자신이 행한 잘못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을 때 그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남에게서 발견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자신들에게 고달픔이 있다고 불평하며 그들에게 반역했다. 민수기 16장을 읽어보면 그 반역의 즉각적인 결과와 거기에서 주어지는 교훈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은 또 다른 종류의 교훈을 그들에게 주셨다. 주님은 시나이에서 아론을 대사제로

임명하였고, 그의 후손만이 사제직을 승계 하도록 명령하셨다. 지금 주님은 가지들의 징조를 통해 모든 백성들의 눈에 그분의 선택을 확인시켜주신다. 주님은 각 지파마다 열 두 가지들 중에서 나뭇가지 하나씩을 가져와서 그것에 해당지파의 이름을 적고, 성막의 지성소 안의 궤 앞에 그것을 밤새 놓아두도록 하셨다. 이튿날 아론의 가지에는 싹이 돋고 꽃이 피었으며, 감복송아 열매가 이미 익어 있었다. 그러나 다른 가지들은 그대로였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열매가 행위를 의미한다는 정도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감복송아는 맛있고 자양분이 많으며 생명력이 길 뿐만 아니라 그 꽃 또한 매우 아름답다. 우리는 이에 대한 교훈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즉,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함 곧 인내하는 선함이 우리를 선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론의 가지는 증거궤 앞에 다시 가져다 보관하여 두고 반역자들에게 경계가 되게 하여라.”하신 명령처럼 본문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 1반

모세와 백성들에 비교하여 아론의 지위, 레위지파의 직능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의 임무를 살펴본다. 그리고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관한 이야기를 상기하면서 본문을 진행하도록 한다.

모세는 금송아지가 파괴된 후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했다. 성막이란 주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천막이다. 주님은 모세에게 성막 속의 가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하달하셨다. 가구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은 궤인데, 그것은 금박을 한 상자이다. 이 궤 안에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 판이 보관되었다. 앞서 우리는 모세가 첫 번째 새긴 돌 판을 가지고 하산했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첫 돌 판을 깨트렸음을 공부했다. 그 후 주님은 모세로 하여금 산 아래서 새 돌 판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도록 하시고, 그 돌 판에 백성을 위해 다시 계명을 새겨 주셨다.

모세와 항상 동행하는 그의 형은 아론이었다. 주님은 모세에게 아론이 이스라엘의 대사제가 되고, 그의 아들들은 사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모세와 아론이 속해있던 레위 지파는 성막의 관리와 백성의 예배에 관련된 모든 것을 관장하도록 허락되었다. 그러나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예배의 일 중에서 가장 높은 일을 하도록 허락되었다.

이 백성들이 시나이를 떠난 뒤 불(구름)기둥은 광야의 곳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긴 여행과 고달픔을 모세와 아론의 탓이라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고난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는가?
- * 주님은 누구만이 대사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셨는가?
- * 모세에게 가져온 가지는 모두 몇 개였는가?
- * 그들은 자신의 지파의 가지를 어떻게 알았는가?
- * 가지들은 어디에 놓아두었는가?
- * 다음날 아침 모세는 아론의 가지에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보았는가?
- *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주님은 모세에게 아론의 가지를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제 2반

역사적이고 지리학적인 연속성을 언급하면서 씨를 가진 식물들의 상응으로 본문에서의 씨를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를 살펴본다.

백성들은 시나이에서 머무는 동안 성막과 그 속의 가구를 만들고, 그에 대한 건축자재의 헌납과 제물을 바치는 일 등으로 분주히 보냈다. 이것은 그들이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일이었다. 레위지파는 주님께 의해 따로 분리되어 예배에 속한 모든 것을 관장하도록 허락되었다. 그들은 백성들이 야영하면 성막을 세웠고, 백성들이 진군하기 시작하면 성막을 거두어 운반했다. 또한 그들은 제물이나 축제행사도 관장했다. 그러나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사제가 될 수 있었다. 주님은 아론을 대사제로 임명하셨고, 그의 후손 외에는 어느 누구도 대사제의 직분을 맡지 못하도록 명하셨다.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구름기둥이 움직이자 미리 준비된 두개의 은 나팔을 불어서 행군의 시작을 알렸다. 그들은 시나이 북쪽의 아라비아 반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바란 광야로 인도되었다. 민수기 33장에는 그들이 거쳐 간 지역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카데스바르네아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거룩한 땅의 남쪽경계에 근접한 곳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각 지파에서 한사람씩 뽑아 12명을 그 땅으로 보내어 정탐하도록 했다. 12명 중 열 명은 정탐 후 돌아와서 그곳에는 자기들이 정복할 수 없는 강한 적들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나머지 두 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쳐들어가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결국 백성들은 열 명의 보고를 선택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결핍되어 있어서 당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배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잘못을 행하고 그로 인해 처벌받게 되면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러한 벌의 원인이 자신의 결점이었음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벌을 덮어씌우려고 한다. 심지어는 잘못된 일이 행해지기 전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참사람(주님)에게 그 탓을 돌리기도 한다. 본문은 코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부분이다.

감복송아 열매는 보관이 쉬우며 좋은 향기가 있고 자양분이 풍부한 견과이다. 또한 감복송아 나무는 아주 아름다운 꽃도 핀다. 주님은 아론의 나뭇가지(지팡이)에 꽃이 피고 감복송아 열매를 맺도록 하셔서 백성들이 이 징조를 보고 그분께 순종하는 예배만이 진정으로 그들을 행복하고 선하게 만들 수 있음을 알려 주셨다.

실제로 백성들은 아론을 대사제로 임명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우리가 가끔씩 자신의 방법으로도 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함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의 선한 애정을 갖고 있다. 부모에 대한 사랑, 연구에 대한 사랑 또는 유용한 일을 행함에 대한 사랑 등이 선한 애정들의 예이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로 하여금 선함을 행하도록 인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애정들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우리가 자신이 행한 것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의지가 더더욱 약해지는 것이 극단적인 예일 것이다. 주님을 사랑함만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올바른 길에 있도록 지켜준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보시며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까지도 모두 아신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 사항을 평생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아론의 가지는 증거케 앞에 다시 가져다 보관하여 두고...”라고 지시하신 주님의 명령의 의미이다. 주님은 계명이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져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본문이 성경에 내재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순종함만이 행복해 질 수 있다고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이스라엘 백성들이 11개월 동안 야영한 장소는 어디인가?
- * 백성들은 시나이 산으로부터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가?

- * 시나이 산에서 계명 외에 어떤 다른 지침이 주어졌는가?
- * 모세는 주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어디로 가야했는가? (출애굽기 19:20)
- * 마지막으로 산에 오를 때는 며칠간 산에 머물렀는가? (출애굽기 24:18)
- *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게 되자 아론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했는가?
- * 모세는 첫 돌 판을 어떻게 했는가?
- * 모세는 금송아지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 * 모세는 어디서 두개의 새로운 돌 판을 다듬었는가?
- * 누가 그 돌 판에 계명을 새겼는가?
- * 주님은 본문에서 각 지파 별로 무엇을 가져오라고 모세에게 지시하고 계시는가?
- * 몇 개의 나뭇가지가 있게 되었는가?
- * 자신의 지파의 가지임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 * 누구의 이름이 레위지파의 가지에 쓰여 졌는가?
- * 모세는 이 나뭇가지들을 어떻게 했는가?
- * 다음날 아침 아론의 가지에서는 어떤 일을 발견할 수 있었는가?
- * 아론의 가지를 어떻게 하라고 모세에게 분부되었는가?

제 3반

본문의 배경에 해당되는 이전의 성경을 재고한 후 본문을 살펴보도록 한다.

본문은 민수기서이다. 앞서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의미 그리고 그 책들의 이름이 그렇게 불려진 이유를 공부했다. 레위기서는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법전에 대한 상세한 서술이다. 이 책은 레위인을 위한 법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주님께서 레위지파를 따로 분리하여 그들이 유대인의 예배임무를 맡도록 하였고, 율법의 가르침과 그 법의 집행도 맡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민수기서의 경우 첫 장의 네 구절을 읽어 보면 그 책의 이름이 왜 민수기인지를 알 수 있다. 모세는 백성들이 시나이 산을 떠나기 전 주님의 명령을 받아 지파 별로 모든 사람의 수를 세었다. 민수기서는 숫자의 나열이 다른 책과는 달리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열 두 지파의 이름, 그들의 지도자 그리고 각 개인의 직능 등에 관심을 갖도록 해준다. 본문 역시

이런 사항중의 하나에 속한다.

출애굽기 28장에서는 레위지파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님에 의해 사제 임무가 주어지고 있다. 제 40장 13절에서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성별 하여라. 그러면 그가 나를 섬기는 사제가 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다음으로 이어지는 두 구절을 통해 아론이 대사제가 되었고 그의 후손만이 그 직무를 맡을 수 있도록 허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광야 여행 중 가장 많은 햇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나이 산을 떠난 뒤에 있게 된다. 민수기 33장은 이 백성들이 거쳐 간 지역들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다. 이들이 거룩한 땅의 남쪽 경계인 카데스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열 두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해 보도록 했다. 그 중 열 스파이는 그 땅의 적들이 너무 강해서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했고, 백성들은 이를 듣고 무척 낙담했다. 그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청종치 않았다. 그 결과 주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열 스파이의 말을 청종한 이들, 즉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그들이 광야를 배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거룩한 땅으로의 진격이 다시 있기까지의 40여년의 세월이 소요된 것이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 고통 받게 될 때 그 고통의 원인을 부모님, 배우자 또는 자녀 심지어 하느님께까지 돌려던 적이 있었음을 돌이켜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모세와 아론의 탓으로 여겼다. 지도자로서의 모세와 아론은 신성한 진리와 사랑이 우리를 지도함을 표현한다. 우리가 이러한 지도자들에 반역할 때 “땅,” 즉 세상육은 그 입을 벌려 우리를 집어삼키며 자아사랑은 우리 마음속의 사랑을 불살라 없애게 된다. 이것이 제 16장에서 이어지는 코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이 반역하는 이야기가 묘사하는 침울한 측면이다. 그러나 주님은 17장 후반부의 말씀에서 신성한 법에 순종함으로 있게 되는 밝은 결과를 아름답게 보여주고 계신다. 열 두 지파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선한 애정과 생각들을 상징한다. 레위지파, 특히 대사제로서의 아론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선함을 사랑함을 의미한다. 각 지파 별로 하나씩 제출한 나뭇가지란 우리속의 이런저런 애정들이 실제로 놓일 때의 힘 또는 실제로 놓이게 하는 원리를 상징한다.

우리는 선한 애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즉, 배움에 대한 사랑이나 유용한 일들에 대한 사랑 등 그 예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런 것들이 나뭇가지로 표현된 어떤 것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애정들은 시험당하고 있는 순간에는 실패하기 쉽다. 한마디로 완전하지 못한 애정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저런 시험과 환경 등을 망라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은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다. 이 사랑의 힘이 본문에서 아론의 가지로 상징되고 있다. 새교회의 가르침 중 첫 째 가는 것은 악이 하나님에 반대되는 죄임을 알고 그것을 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지침을 설정할 때에 자신이나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의 법칙을 표준으로 삼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전적으로 보장된다.

아론의 가지 또는 주님을 사랑함에서 비롯되는 힘은 “싹이 돋고 꽃이 피었으며 감복송아 열매를 맺었다.” 싹이란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우리속의 자극을 상징한다. 꽃이란 우리속의 선에 대한 자극에 따라 그것을 어떻게 행위로 나타낼까를 궁리하는 생각을 말한다. 그리고 열매란 순수하게 선한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견과가 자양분이 풍부하면서도 오래 보관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아론의 가지는 지성소의 궤 앞에 다시 가져다 보관되도록 모세에게 명령되었다. 이는 진정으로 인도해주는 원리, 즉 주님을 사랑함을 우리 마음속에 견고히 세워 놓아야 함을 의미한다.

기본 상응 공부

열 두 지파 = 우리의 모든 선한 애정과 생각
 대사제로서의 아론 =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선함
 나뭇가지 = 힘 또는 권능
 감복송아 열매 = 생활의 선

제 4반

사익을 위해서 행해진 선행과 주님께 순종하여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행해진 선행은 구별된다. 교회 내에서도 자아 찬양은 늘 존재하는데, 이러한 자기만족으로 행해진 선행들에는 내적 생명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0장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시나이를 떠나지 않고 있음을 본다. 그들은 제일 먼저 성막을 지어 그 속의 가구를 갖추고, 그것을 세우고는 봉헌했다. 그런다음 주님이 명하신 예식에 따라 예배가 시작되었다. 주님은 아론을 대사제로 임명하시고(출애굽기 28장), 그의 아들들

에게 그의 밑에서 사제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사제직은 아론의 가문만이 이어받도록 명하셨다. 레위기서는 모세와 아론의 지파인 레위지파를 가르치며 그들에 의해 집행될 상세한 법전을 주고 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지파 별로 인구조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이 바로 민수기서의 시작이다. 민수라는 이름 역시 백성의 수를 센다는 의미이다.

성서지도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여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시나이에서부터 거룩한 땅 남쪽 경계인 카데스바르네아까지 직행해서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민수기 33장에서는 이 여정을 따라 진을 친 그들의 야영지역이 일괄적으로 나열되고 있다. 그들은 카데스에서 거룩한 땅을 정탐하기 위해 열 두 명의 스파이들을 뽑아 보냈다. 이들의 정탐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그 땅을 정복하고자 시도했던 것에서 실망하고 통곡하며 아우성을 쳤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를 거역하는 짓은 하지 맙시다... 야훼께서 우리의 편이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고 역설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충고에는 이렇듯 못마땅하고 나약하며 소극적인 선택을 했다. 주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나약했던 그들의 심정과 그분의 권능을 신뢰하지 못한 대가로 당시 선택(선거)권이 주어지는 나이인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주님께서 그들 모두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배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희망과 격려가 먼저처럼 흠어짐과 더불어 그들의 마음에 있던 이기심은 주님이 그들을 위해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하며 투덜거리도록 만들었다. 본문의 바로 뒷장은 코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에 합세하여 향을 피우고 나왔던 이 백 오십 명의 반역에 관한 이야기이다. 일반적으로 성서에서 향을 피운다 함은 주님을 모신다고 고백하는 마음을 상징한다. 하지만 주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분의 지시에 거역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 속에 들어있는 세상욕과 자아사랑이 그들을 집어 삼켜서 욕망의 불에 태워지는 처벌을 받게 된다.

주님은 이처럼 강렬한 교훈과 더불어 또 다른 징조를 백성들에게 주신다. 즉, 아름다운 모습 곧 주님만을 사랑하면 순수하고 오래 지속되는 열매를 생산할 수 있다는 진리에 대한 교훈도 주고 계신다. 열두 지파란 우리속의 모든 선한 애정과 생각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뭇가지는 힘을 상징한다. 대사제로서와 사제 지파의 지도자로서의 아론은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면서 그분의 뜻을 배워 행하려는 노력을 우리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 원칙에서 오는 힘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행복하며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본문에는 아론의 가지 외에도 열 한 개의 가지(지팡이)들이 더 있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가지들

역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대표자들의 가지이므로 영감된 가지가 아니냐고 반문할 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일을 많이 행하거나 이루게 되면 비록 그가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한 사람이라고 칭찬한다.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 인지해야 할 사항은 그 사람이 남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그의 인생 초반에 있었던 종교적인 영향이나 종교적인 훈련으로부터의 자극 또는 종교적인 근원에서 가치를 쳐서 나온 사회의 표준을 수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그가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 하느님을 인식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는 그 선의 근원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의 그 사람의 선행은 단지 외적인 면에서의 선일 뿐 순수한 선은 아닌 것이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복음서를 읽어보자. “한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왜 나에게 와서 선한 일에 대하여 묻느냐? 참으로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마태복음 19:16-17).” 주님은 이 이야기에서 그분만이 선을 행할 힘의 근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그분께 순종함을 사랑하는 것 외의 어떤 원리도 열매 맺을 수 없음을 본문에서 “만남의 장막 안 증거케 앞에” 가지들을 놓아 둔 뒤 이론의 가지에서만 “싹이 돋고 꽃이 피었으며 감복송아 열매가 이미 익었다”는 구절로 우리에게 확실히 하고 계시는 것이다.

감복송아 나무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꽃이 풍만하게 피어난다. 그 꽃은 사랑스럽고, 그 열매는 풍미가 좋으면서 자양분이 많고 오래 보관된다. 초목의 꽃은 특별한 용도 혹은 대체적으로 선한 일에 관한 우리의 생각들을 표현한다. 그리고 그 열매란 선한 일 자체를 의미한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사랑함과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바램을 원칙으로 삼고 규율되어 진다면, 우리는 그분의 진리를 생각함에서와 그 진리를 특별한 상황에 응용하면서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섬기되 깊은 기쁨으로 오래 지속되는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놓여 질 그 날에 우리의 삶이 결코 빈약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주님이 이 같은 징조를 보여주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그들의 지도자로서 확신했던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해주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증거란 그분의 뜻을 실천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쁨이다. 우리는 이 기쁨과 만족을 보고 즐길 수 있을 때까지 사실상 자야로

되돌아서려는 시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위한 방파제가 바로 25절에 있다. 즉, 주님께서 주신 확신에 대한 꾸준한 되새김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론의 가지는 증거궤 앞에 다시 가져다 보관하여 두고 반역자들에게 경계가 되게 하여라. 그리하면 나에게 불평하다가 죽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리라”하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확신을 꾸준히 생각하기 위해서는 “궤 앞에 열매가 익은 가지”를 가져다 놓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법이 새겨져야만 죽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꾸준한 되새김은 언제 있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고난과 시험의 시기에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시기에 과거 주님께 순종함으로 인해 자신에게 있었던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위로 등의 각종 축복들을 상기하면서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변치 않아야 할 것이다.

제 5반

근대적인 인본주의와 그 뜻을 밝히 알려주는데도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주로 살펴본다. 그리고 본문의 초점이 사회를 향한 비평이 아니라 자기 검중에 있음을 강조한다.

앞서 우리는 아론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이 바친 이상한 불로 인해 타죽는 이야기(레위기 10:1-7), 카데스에서 열 두 스파이를 파견했으나 그 중 열 명의 스파이들의 보고에 겁먹은 백성들의 결정에 따른 저주로 광야를 배회할 수밖에 없게 된 이야기(민수기 13장과 14장) 그리고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기를 드는 이야기 (민수기 16장)등을 공부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주님의 명령과 가르침에 반대하여 자신들의 의지와 총명을 꾸준히 내세우려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질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가 경이롭고 극적인 이야기들 가운데서 주님께 거역하면서 자신들의 총명이나 의지를 내세우려는 이스라엘 민족의 경향성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쉽게 인식하게 된다. 이런 경향성들이 우리 속에도 있다고 인식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려는 것에는 굉장히 더디다. 사실 이러한 경향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아주 보편적인 것이다. 그래서 국가 간에는 공의보다는 국력을 신뢰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재력과 능력을 위한 투쟁에 기초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신과 견해가 다른 이들, 특히 자신의 의견을 따라주지 않는 이들을 경멸해버리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런 경향성은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하느님을 알아보기 위해 인간이 올라가야한다는 식의 우쭐대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하며, 심지어 성경이

인간의 작품이라고 역설하기도 한다. 우리의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향성 중의 하나는 공의와 공정성에 관한 표준 대신에 교회활동, 즉 외적인 활동의 성과에 따라 자신을 측정하거나 교인들의 신앙을 측정하려드는 것이다.

본문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징조를 주고 계신다.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하다. 나뭇가지에서 싹이 돌아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이 어떻게 기적의 표시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가하고 의아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을 통해 백성들이 이 징조에 따라 곧바로 기억하는 사건이 바로 앞장(16장)에서 기술된 격렬한 사건이며 그 사건과 이 징조가 곧바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사항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 주님은 시나이에서 아론을 대사제로 임명하셨고 그의 아들들은 사제가 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사제직은 아론의 가문에서만 승계 받도록 하셨다. 아론과 모세는 레위지와 소속인데, 야곱의 열 두 아들 중 레위는 이타애를 상징한다. 스웨덴북은 이에 대해서 「천국의 신비」 제 342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회가 잉태하고 생산하는 것은 신앙과 이타애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와 똑같은 모습이 야곱으로 출생하는 아들들 중 레아가 낳는 아들로 의미된다. 즉, 르우벤은 신앙을 상징하고 시므온은 행동 상에 있는 신앙을 뜻하며 레위는 이타애를 상징하는 바, 레위지파가 사제직을 받아 ‘양떼의 목자’로 상징되고 있다.” 또한 그의 다른 저서에서는 이타애란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비롯되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웃 사랑이며 이러한 주님을 인식함과 이타애는 교회의 필수 사항이라고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레위지파의 사람 중에서도 아론만 대사제로 발탁되었다. 아론도 성경상의 여타 인물들같이 기본적인 상응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론이 갖는 상응은 그가 등장하는 성경의 문맥에 따라 다양한 색깔로 입혀지게 된다.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가 신성한 선 또는 제사장(대사제)이라는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대사제가 되기 전에 모세의 대변인으로서의 임무가 주어졌는데, 이때의 아론은 “선과 진리인 것에 관한 교리”를 표현한다. 이에 대해서는 「르비답에서의 이스라엘 백성」편에서 살펴보았다. 모세와 아론이 동시에 불리는 때에 모세는 내향적인 의미에서의 신성한 법을, 아론은 글자적인 의미에서의 신성한 법을 표현한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아론은 대사제인데, 백성들은 대사제인 아론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사제의 직책 수행에 관련하여 아론은 선에 관한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의문시하는 것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 오직 한 분이심”을 인정하기를 거절하는

것이 된다(마태복음 28:17). 우리가 자신을 선하다고 여기며 선을 자신 속에서 발견하려 하고 타인이 자신의 행동에 따르지 않을 때 그에게 뭔가 흠이 있다고 지적하며 성경이 뜻하는 바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착각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대사제로서의 아론에게 반기를 들게 되는 것이다. 사실 말씀전체를 망라하여 겐손에 대해 배우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우는 것들 중에서 가장 힘든 항목이다.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이다. 겐손의 행위는 스웨덴북의 저서에서도 거듭하여 강조된다. 스웨덴북은 순진 없이는 이타에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과월절」 공부에서 살펴본 바대로 순진이란 자기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악 뿐이며 모든 선은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됨을 알고 인정하며 믿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나뭇가지란 힘을 상징하는데, 본문의 경우에는 진리로 훈련된 힘을 특별히 상징하고 있다. 열 두 지파란 복합적으로 교회 속에 존재하는 모든 선과 진리를 상징한다. 열 두 지파의 나뭇가지란 교회속의 선과 진리로 훈련된 힘을 상징한다. 우리는 이 모든 선과 진리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처해있는 환경이나 장소 또는 용도 등이 아주 다양하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필요한 것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말씀의 각기 다른 이야기 속에서 각 지파가 불리면서 변천되는 질서 체계를 공부하게 되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레위지파의 직무는 변함없이 남아 있다. 레위 인들은 거룩한 땅 내에서도 다른 지파들과 같이 따로 할당된 지역 없이 각 지파의 영역 내에 있는 도시들에서 거주하도록 되어 있었다. 열 두 지파의 가지가 지성소의 궤 앞에 놓였을 때 레위지파를 대표한 아론의 가지만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

앞서 우리는 종자식물에 대한 상응은 수차례 공부했다. 씨란 말씀으로부터 온 진리를 상징한다. 나무 자체는 어떤 원리를 상징하고, 잎은 그 원리로부터 온 생각들을 상징한다. 그리고 꽃은 어떤 유용함이 수반되는 생각을, 열매는 그러한 생각의 활용 자체를 상징한다. 마른 열매는 오래 보존되는 것으로 길게 지속되는 선들을 상징한다. 스웨덴북은 감복송아에 관하여 “이 나무 자체는 영적 의미에서 선에 근원을 둔 내면의 진리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그 나무의 꽃이란 선으로부터 온 내면의 진리를 뜻하고, 그 나무의 열매란 이에서 파생되는 생활의 선을 말한다.”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아론의 가지에 있는 징조는 주님만이 선이며 그분의 선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생산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인정함을 뜻한다. 궤 앞에 열두 가지를 놓는다고 함은 주님의 심판과 더불어 인간이 그것을 가늠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뒤 아론의 가지를 반역자들에게 경계가 되도록 증거궤 앞에 보관한다는 것은 이미 열매가 익었다는 것으로 그려진 원리들은 마음으로 취해서, 즉 그것을 결코 잊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심판위에 자신을 세워 죄짓는 일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땅이 입을 벌려 다단과 아비람을 삼킨 죄 그리고 코라와 그를 지지한 250명의 회중 대표들을 살라 버리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나온 불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계의 표시이기도 하다.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는 사항은 인간을 예찬하면서 예배하러 드는 것, 선천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하는 것, 주님이 밝혀주신 믿음 없이 도덕적 법전을 세우려고 시도하는 것 그리고 외적으로 타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선함의 척도를 삼으려 드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이다. 큰 두 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분리되어 순종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의 새 계명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이 새 계명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이웃사랑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위해 주님을 찾아야 할 필요성과 이웃사랑을 실현하고 발달시키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 주님을 찾을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문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5622-2,3항: “‘감복송아’란 내면의 자연성숙에 든 선함에서 비롯되는 진리에 상응되는 생활의 선을 의미한다. 이 나무 자체는 영적 의미에서 선으로부터 존재하는 내면의 진리에 대한 지각을, 그 나무의 ‘꽃’은 그 지각에서부터 있어지는 생활의 선을 의미한다. 이런 견지에서 ‘감복송아 나무’가 예레미야서 1장 11-12절에서 언급된다. ‘레위가문을 대표한 아론의 가지에서 싹이 돋았다’라는 구절 역시 생활의 선 또는 이타애의 선을 의미한다.”

질문 정리

- 1) 주님이 시나이에서 이스라엘 후손에게 주신 처음의 법은 무엇인가?
- 2) 주님은 그곳에서 그 외의 어떤 법을 주셨는가?
- 3) 왜 백성들은 모세가 아주 가버렸다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 4) 백성들은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 5) 아론은 그들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었는가?
- 6) 아론은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는가?

- 7) 모세는 산에서 가지고 내려 온 첫 돌 판을 어떻게 했는가?
- 8) 모세는 금송아지를 어떻게 했는가?
- 9) 주님은 누구를 이스라엘의 대사제로 임명하셨는가?
- 10)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이나 광야를 배회한 까닭은 무엇인가?
- 11) 이 백성들은 곤경의 탓을 누구에게 돌렸는가?
- 12) 모세와 아론에 반기를 든 사람에게 어떤 변이 발생했는가?
- 13) 본문에서 모세는 각 지파의 대표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했는가?
- 14) 열 두 가지는 어떻게 구분되었는가?
- 15) 레위지파의 나무에는 누구의 이름이 쓰여 졌는가?
- 16) 모세는 그 가지들을 어디에 두었는가?
- 17) 다음날 아침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 18) 이 광경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 19) 주님은 아론의 가지를 어디에 보관하라고 분부하셨는가?
- 20) 아론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21) 감복송아란 어떤 영적인 특질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십계명 2) 많은 부속법들 3) 40일 동안 가 있었기 때문
- 4)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5) 송아지 6) 귀에 걸린 금고리
- 7) 돌판을 깨트렸다 8) 파괴했다 9) 아론 10) 믿음의 결핍
- 11) 모세와 아론 12) 멸망했다 13) 가지 14) 가지에 이름들을 새겼다 15) 아론
- 16) 증거궤 앞 17) 아론의 가지에 감복송아 열매가 달렸다 18) 아론만이 대사제이다
- 19) 궤 앞에 보관 20)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사랑함
- 21) 영적 진리를 지각하는 것에 기초한 오랫동안 지속되는 선행

길갈에서의 이스라엘백성

머리말

본문을 읽어보면 지난 줄거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알 수 있다. 즉,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승계 그리고 주님이 내리신 여호수아의 임무(1:7-9)등이다. 요르단을 건넌과 길갈에 세워지는 열두 개의 돌에 관한 이야기는 본문과 연관 지어 기억해두어야 할 것이다.

성 서 본 문: 여호수아 5장

5장: 1. 요르단강 건너 서편 지역에 있는 아모리의 모든 왕과 해안 지역에 있는 가나안의 모든 왕은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르단강 물을 말리시어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모두 났을 잃었다. 2. 그 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3.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아랄롯 언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4.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푼 까닭은 이러하다.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 가운데 군인 연령에 이른 남자는 이집트를 떠나 오는 도중,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 5.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이집트를 떠나오는 도중 난 백성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 6. 이집트에서 나올 때 군인 연령에 이른 층이 다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사십 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다. 그들이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까닭에 야훼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우리에게 주마고 우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이 땅을 그들은 보지 못하리라고 다짐하셨던 것이다. 7. 그들 대신에 그들의 후손을 일으키셨는데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풀어 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이 아직 우멍거지였던 것은 도중에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8. 온 국민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 천막에서 쉬며 아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9.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인들의 수모를 벗겼다.” 그리하여 그 곳 이름을 지금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10.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쳤다. 그리고 그 달 십 사일 저녁때에 예리고 평야에서 과월절을

지켰다. 11. 과월절 다음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맛보았다. 바로 그 날 그들은 누룩 안 든 떡과 볶은 곡식을 먹었던 것이다. 12.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멎었다. 그 후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당년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13. 여호수아가 예리고 지방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그가 고개를 들고 보니 자기 앞에 칼을 뽑아 들고 서 있는 것이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나? 우리 원수의 편이나?” 14.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야훼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이제 온 것이다.” 이 대답을 듣고 여호수아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물었다. “내 주여, 당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15. 야훼 군대의 총사령관이 지시하였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였다.

교리요점

- * 주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적을 대적하실 수 있다.
- * 말씀에서 언급되는 모든 지역명은 각기 특별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 우리가 거듭나기 시작할 때 영적인 진보를 계속 해가려면 지속적으로 성경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 * 할렐란 자아사랑으로 더러워진 심정을 깨끗하게 함과 상응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에 거룩한 땅이 건너다보이는 요르단 강의 독으로 인도되었다. 그 세월 동안 주님께 반역적이었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고, 모세조차도 그곳에 도착하기 직전에 죽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아 있었다. 이제 이전의 청소년들은 성장 했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우리가 모세라는 지도자 곧 주님의 법을 지도자로 삼는 동안 질서 있는 생활을 우리의 습관으로 형성하면서 과거 우리 속에 있던 주님께 반역적인 생각이나 느낌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의 상태가 준비된 우리의 모습을 묘사한다.

기독교인이라면 성경 이야기에서의 거룩한 땅이 천국을 상징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천국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즉,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 천국이 시작되지 않아서 우리 안에 천국적인 인격이 발달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 천국에서 살게 되는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로 태어난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관하여 배우고, 그 아버지로부터만 발견할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랑과 진정한 지혜의 이모저모를 우리 속의 마음과 이해성에 이식시켜 키워감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거듭남이며 여호수아서에서 거룩한 땅을 정복해 가는 모습으로 의미되는 것이다. 거룩한 땅 내에 있는 적이란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 안에서 항상 존재하는 악과 거짓들을 의미한다.

주님은 과거 홍해를 가르시듯이 요르단 강물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 앞의 길을 그분께서 언제나 열어 주신다는 뜻이다. 이 백성들이 강을 건넌 뒤의 첫 숙영지는 길갈이었다. 길갈이란 단어의 뜻은 “굴림, 회전 또는 벗김”인데, 본문 9절에서 주님이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인들의 수모를 벗겼다.”하고 말씀하신 것에서 연유되어 길갈이라고 부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땅에서 자유인이 되었던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 주었다”하고 말씀하고 계신다. 본문의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거룩한 땅에 진입할 때 곧 거듭 나는 상태로 진입하게 될 때 과거의 나쁜 습관들을 더 이상 동경하지 않고 오로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설사 순종함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때에 해야 할 일은 우리 속에 든 적들을 끊임없이 추적하여 없애버리기 위해 우리 마음의 사령관의 지휘 아래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이다.

이러한 순종과 노력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상기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관한 이모저모가 바로 본문의 요지이다. 먼저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계명에 끊임없이 순종해야만 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여호수아서 4장 1-5절과 20-24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둘째로 우리를 구원해주는 주님께 늘 감사해야 한다(5:2-8). 그리고 말씀에서 받은 진리의 씨를 우리 마음에 심고 가꾸어 좋은 곡식을 거두어야 한다(5: 11-12). 그런 다음 우리는 거듭 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과 거룩한 삶이란 우리 속에서 당연하다는 듯 걸어 다니는 세상적인 사상을 끊고 주님의 진리를 우리속의 이기심과 싸우는 데에 사용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5:13-15).

제 1반

본문의 첫 부분대신 4장의 마지막 단원을 살펴본다. 열두 개의 돌을 길갈에 세웠던 것과 여호수아라는 이름 그리고 길갈의 의미를 기억하도록 한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과월절을 연관 지어 생각해 본 후 만나에 관한 것도 기억을 재고해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땅에 진입하기 위해 요르단 강을 건너야만 했다. 그러나 그 때는 마침 봄철로서 홍수기였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홍해를 건넌던 과정을 기억한다. 지금 주님께서는 과거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처럼 요르단 강물을 갈라 주셨다.

주님은 그들이 모두 강을 건너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임명해서 각자 요르단 강 한복판에서 돌 열두 개를 메어내도록 여호수아에게 분부하셨다. 그들이 돌들을 가지고 첫 숙영지에서 했던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4장 19-24과 5장 9-16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거룩한 땅 내에 이 백성들의 첫 진영지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왜 그곳을 그렇게 부르게 되었는가?
- * 그들은 그곳에서 어떤 날을 기념하였는가?
- * 과월절에 관해 기억나는 것은 무엇인가?
- * 만나는 길갈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 * 누가 길갈에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는가?
- * 여호수아는 그에게 뭐라고 물었는가?
- * 그는 뭐라고 답변했는가?
- * 그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했는가?

제 2반

열 두 스파이와 모세의 죽음 그리고 여호수아의 임무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본다. 그리고 길갈에서 있던 사건을 순서대로 공부한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 벌을 받게 된 모든 성년들이 광야에서 죽기까지는 40년이 소요되었다.

모세 역시 광야에서 죽어야 할 마지막 사람이었다. 구름(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시 가나안 땅 접경 부근으로 인도했을 때 모세에게는 네보산 꼭대기로부터 약속된 땅을 볼 수 있는 것은 허락되었다. 그런 다음 그는 그곳에서 죽었다. 신명기 34장 6절에서는 “주님께서 그를 모압 땅에 있는 벳브올 맞은 편 골짜기에 묻었는데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는 오늘까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는 백 이십 세였고 그의 눈은 아직 정기를 잃지 않았고 그의 정력은 떨어지지 않았었다.” 신명기란 ‘법의 되풀이’라는 뜻이며, 모세 오경 중 마지막 책에 해당된다.

여호수아서는 거룩한 땅의 정복과 분할 그리고 정착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신명기 1장 38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임무를 승계 받을 것이라고 말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본서 1장 7-9절에서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주신 임무가 말해지고 있다. 즉,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법을 한눈팔지 말고 성심껏 지켜라”와 “이 책에 있는 법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되새기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만 되면 네 앞길이 열려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너는 내 명령을 듣지 않았느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 떨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느님 야훼가 너를 떠나지 아니 하리라”라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전투의 지휘관이었다. 그는 과거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사들을 이끌면서 우리에게 알려진 인물이다. 그리고 열 두 스파이들 중 그와 갈렙만이 카데스에서 백성들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겁낼 것 없이 그 땅을 쳐들어가 정복해 버리자”하고 제안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것 중의 하나가 요르단 강을 건너는 모습에 있다. 하지만 사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4장 1-5과 19-24절을 읽어 보도록 하자. 우리는 과거 아브라함과 이사악 그리고 야곱이 곳곳에 주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며 그분께서 자신들에게 베푼 은혜를 상기하려고 했음을 기억한다. 그리고 모세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제단을 쌓기도 했다. 지금 여호수아가 거룩한 땅에 발을 디디면서 행한 첫 번째 일은 요르단을 건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념하고자 강 한복판에서 얻은 열 두 개의 돌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항상 그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창세기 17장 9-12절을 읽어 보도록 하자. 이 구절은 유대인의 할례식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 까지는 이 예식을 계속 지켜왔으나 광야에 들어가면서 이를 소홀히 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식을 다시

계속해야 함을 알았다. 오늘날의 세례는 기독교인을 위한 할례로서 거행된다.

우리는 길갈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차후 거룩한 땅의 정복을 위해 필요한 준비과정임을 염두 해야 한다. 그리고 본문의 첫 문단과 끝 문단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금 주님의 권능과 보호하심이 시작 초부터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음을 명백히 알도록 성경의 글자에서도 배려하고 계심을 주지해야 한다. 우리는 여호수아란 이름부터가 “구원자”라는 뜻을 지니며 그 이름을 그리스어로 바꾸면 곧 “Jesus, 예수”임도 알아두어야 한다.

길갈은 한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본부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예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후 기브온 족에 관한 이야기인 9장 6절에서 “그들은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지로 여호수아를 찾아 가.”라고 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길갈이란 이름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인들의 수모를 벗겼다”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유래된 것이다. 길갈은 과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해 오셨던 땅에서 자유인임을 마지막으로 확고히 하셨던 지역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거룩한 땅의 경계까지 왔을 때 왜 곧바로 그 땅에 진입하지 못했는가?
- *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에 대한 그들의 벌은 무엇이었는가?
- * 이 벌에서 면제된 두 사람은 누구인가?
- * 이 백성들이 거룩한 땅에서 처음 진을 친 장소는 어디인가?
- * 길갈이란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 * 어떤 연유로 길갈이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 * 어떤 축제가 이 길갈에서 거행되었는가?
- * 과일절 다음날 그들은 무엇을 먹었는가?
- * 이날 무엇의 공급이 바로 중단되었는가 ?
- * 왜 그것의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제 3반

광야 여행과 거룩한 땅의 정복의 차이점을 상응으로 살펴본다. 즉, 우리의 재구성과 거듭난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다시 말해서, 각 개인의 상태에 따른 법의 위치와 그에 수반되는 주님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할례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기독교인의 두 가지 성례식들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본다.

광야 여행은 재구성의 시기를 의미한다. 재구성이란 우리가 주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삶의 행동을 그것에 맞추려고 애쓰는 시기를 말한다.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부각되는 주님의 법이 모세로 상징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기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보다 더욱 주님께 순종하길 원치 않으며 그들보다도 주님의 법이 우리에게 더욱 가혹하게 여겨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강압적인 순종의 상태는 의를 행하는 우리의 태도가 자연스러워지는 때 곧 습관처럼 되어서 우리 속에 있던 주님의 법에 대한 반역적인 생각이나 느낌들이 모두 파괴될 때까지 지속된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겁먹은 열 스파이들의 권고를 선택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들이 뼈를 문을 때까지 광야를 떠돌아야 했던 것으로 의미되고 있다. 모세 역시도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죽는다. 모세가 죽음이란 주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시기가 완료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모세의 죽음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주님의 법을 더 이상 가혹한 법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마침내 우리의 친구이며 방어자로서 주님의 법을 확신하며 용기와 신뢰를 가지고 그것을 따라야 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호수아 곧 “싸우는 진리”가 우리의 지도자가 된 것이다.

여호수아서 1장 7-9절을 보면 지도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알 수 있다. 즉, “용기백배, 있는 힘을 다 내어라. 그래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법을 한 눈 팔지 말고 성심껏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이 책에 있는 법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되새기며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어김없이 성심껏 실천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하면 네 앞길이 열려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너는 내 명령을 듣지 않았느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 떨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느님 야훼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이다.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 주님께서서 홍해를 가르셨듯이 요르단 강물을 가르셔서 마침내 그 강을 건너 거룩한 땅 내로 진입해 있다. 거룩한 땅의 정복은 여호수아서에서 다뤄지는 내용이며, 이는 거듭나는 시기의 우리의 내적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다. 거듭남이란 우리가 우리의 바깥쪽 지침인 일상생활에 있는 나쁜 습관들을 발견하고 수정한 후 고쳐진 습관이 우리의 새로운 습관으로 정착되어 우리속의 마음과 이해성 속에 든 악과 거짓을 수색하여 그것을 치워내는 작업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계에 이른 사람이 주님께 순종하는 까닭은 보상이나 불순종으로 인한 벌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섬김을 사랑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스스로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 때문인 것이다.

거룩한 땅 내에서 이스라엘의 첫 숙영지는 길갈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길갈이란 단어는 “굴뚝 또는 벚짐”이라는 뜻인데, 그 지역이 그렇게 불린 까닭은 본문 9절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집트는 우리의 외적인 지식 평면을 표현한다. 그러나 이평면이 나쁜 의미로 말해질 때, 즉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었을 때의 이집트란 세상적인 것을 뜻한다. 사실 우리 모두는 세상적인 상태로 태어나서 세상에서의 성공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래서 본문의 “이집트인들의 수모”는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로서 주님의 진리를 스스로 인정할 때까지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길갈에서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건들이 발생했다. 먼저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요르단을 건널 때 강 한복판에서 열두 개의 돌을 메어내다가 길갈에 그것들을 세웠다(4:1-5, 20-24). 거룩한 땅의 경계선으로서의 요르단 강은 거듭 나는 삶에 있어서의 입문적인 역할을 하는 진리를 상징한다. 강을 건넌 것에 대한 기념비로서 길갈에 열 두 개의 돌을 세웠다고 함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임무 중의 하나였다. 즉, “모세의 법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이 책에 씌어 있는 법을 밤낮으로 되새길 것, 그리하면 네 앞길이 열리고 뜻대로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되새기며 우리에게 있어서 계명을 지키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명령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선택된 민족임을 의미하는데, 8세 이상의 모든 사내아이가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 여행을 통해서 이 할례 예식을 게을리 해왔다. 할례란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사랑들로부터 순수해짐을 의미한다. 스웨덴북은 세례식이 할례식을 대신하여 기독교회에서 거행된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길갈에서 할례가 있는 다음날 과일절을 기념했다. 과일절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 달력으로 첫 달 십사 일에 지켜졌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땅에 도착된 날짜도 새해의 시작에 부합되도록 주님께서 시간을 맞추셨음을 알 수 있다. 말씀 속에서 뭔가가 발생된 때는 언제나 중요하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연의 일치란 결코 없기 때문이다. 그 실례가 바로 주님의 성만찬이 과일절을 대신하여 기독교회에서 거행되도록 새로이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우리의 거듭나는 삶을 시작하는 체계적인 기초가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과일절을 기념한 다음날 만나의 공급이 중지되었다. 만나란 우리가 주님의 뜻 곧 의를 행해보려고

노력할 때 비록 고통스럽고 번거롭게 여겨지는 주님의 분부일지라도 열심을 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항상 공급하여 주시는 선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백성들은 광야 여행 동안 만나로써 삶을 연명했다.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그들이 매일 먹어야 하는 만나에 진저리가 났다고 투덜거렸지만 사실 그들이 만나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거룩한 땅에 들어갔을 때 마침내 광야의 불모지는 그들의 뒤에 남겨졌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선 즉시 “그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었고, 당당하게 씨를 뿌려 그들 자신의 곡식도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거둬 나가는 상태에서의 선함이 오래 지속됨을 의미한다. 이 선함은 과거 만나를 하루만이라도 더 보관하려고 하자 해가 떠서 녹아 버리거나 못 먹게 되어 버릴 때 만나가 상징하는 선함과 다르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칼을 뽑아 들고 서 있는 천사의 형태로 계신 주님의 환상을 보았다. 여호수아는 원래 이스라엘의 전투 지휘관이었고,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그는 자신에게 승리의 힘을 주신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결코 잊지 않았다. 본문의 서두인 1절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을 건너도록 강물을 가르심으로 인해 거룩한 땅 내에 있던 이스라엘의 적들이 낮을 잃게 되었다라고 전한다. 그리고 본문 말미에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분부되고 있다. 주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우리의 신발이란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날마다 우리와 함께 걷고 있는 우리의 자연적인 사상들을 의미한다. 우리가 거둬 내려면 곧 다시 태어나려면, 우리는 우리속의 영적인 적들을 극복할 힘을 주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한 순간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천국적인 인격 혹은 천국적인 선함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칭찬받게 해 주고 존경받게 해 주는 정도의 도덕적 수준에 있는 선함이나 선한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였다” - “거룩한 땅” 곧 천국은 우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실재하심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요르단 = 입문적인 진리들

할례 =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것에서 순수해짐

신발 = 선함에 관한 자연적인 사상들

제 4반

거듭남의 과정이 성인에게 해당되는 과정임을 설명한다. 본문에서는 거듭남과 재구성의 차이점 그리고 거듭남을 기초하는 필수사항이 열거되고 있다. 겸손, 말씀과 교리에 관한 근본적인 진리에 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 그리고 성례식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과거 40여 년 전 거룩한 땅을 정탐했던 열 두 스파이 중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겁에 질렸던 열 스파이들의 보고에 이견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모세의 지휘 하에 홍해를 건넜던 모든 성인들 중에서 거룩한 땅에 발을 딛게 될 유일한 자들이었다. 본문의 성인들은 새로운 세대로서 홍해에서 수행되었던 기적과 유사한 기적이 이 세대들을 위해서 수행되었다.

우리는 이 기적에 대한 설명을 제 9절에서 볼 수 있다. 길갈이란 굴림 또는 벗김이란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여행을 하는 동안 이집트로 되돌아 갈 궁리만 하면서 그곳에서의 좋은 것만을 회상할 뿐 그곳에서의 비참함은 모두 망각한 채 고난과 위험에 직면하게 될 때마다 반역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과 태도는 영적인 재구성을 단행해 가는 우리의 상태, 즉 신성한 법이 요구하는 질서에 우리의 행동 지침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때를 묘사한다. 이 시기에 우리는 과거 재구성을 시도하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즐겼던 어떤 쾌락을 회상하고 그리워하면서 재구성을 단행하게 해 준 어려웠던 체험은 망각한 채 우리를 이끌고 있는 원리들에게 종종 반기를 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반역적인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그 충동 자체를 차츰 죽여 가게 되면, 주님의 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가혹한 공사장의 십장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전진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지휘자로서 부상하게 된다. 이것은 모세가 죽고 싸우는 진리를 의미하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를 승계 받는 모습에 해당된다.

여호수아서는 거룩한 땅의 정복에 관해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의 측면에서 볼 때 거듭남의 시기에 해당된다. 즉,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땅 곧 천국적인 인격을 소유하기 위한 길가에 버티고 서 있는 우리 속 깊은 곳의 악과 거짓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주님의 권능과 그분의 이름을 내세우고 전진하는 하느님의 자녀임을 실지로 느끼게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언제나 완전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불순종으로 인한 극악한 모습과 그들의 소심함으로 인해 완전한 정복이 이뤄지지 못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집트로 상징되는 순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뒷걸음쳐 빠지는 일뿐만 아니라 광야에서와

같은 불평이나 반역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요르단 강을 건넌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다. 따라서 거듭남으로서의 진입이란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작에 앞서 명심해야 할 사항은 1장 7-9절에서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사항임에 틀림없다. 본문은 우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전진하게 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주님의 경고인 것이다.

본문 4장 19-24절에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을 뽑아 요르단 강을 건널 때 그 강 한 복판에서 열두 개의 돌을 메어다 놓으라고 분부하고 계신다. 열두 개의 돌들은 그들의 첫 숙영지인 길갈에 기적으로 요르단 강을 건너게 됨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로 세워졌다. 요르단 강물은 기독교 신앙으로의 입문적인 진리들을 상징한다. 기념비는 우리가 이 진리들을 명심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진리들을 계속 탐구해 나가야 한다.

본문의 서두는 거룩한 땅 내의 적들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르단을 건너도록 강물을 가르셨다는 소식을 듣고 낮이 빠졌던 일로 시작되고 있다. 즉,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권능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적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금방 인식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명령했다. 할례란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정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타고난 속성 안에는 오로지 악뿐이며 주님께 순종할 때만이 그분께로부터 선함을 받게 된다고 인식하는 것도 의미한다. 사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예식 중 하나였으나 광야생활 동안 그것이 소홀히 취급된 것뿐이다. 이는 우리가 재구성을 단행하는 동안 반역적인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우리의 태생적인 욕망들이 오로지 악뿐임을 기꺼이 인정하지 않게 됨을 보여준다. 뒤의 참고문헌을 보면 기독교회에서 할례 대신에 세례가 거행되는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으리라 보고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할례가 베풀어진 뒤 과월절이 기념되었다. 이는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항목인데, 그들이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도록 해 주신 분이 곧 주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기독교회에서는 과월절 대신 주님의 성찬이 거행된다.

과월절의 기념이 끝난 다음 날 만나의 공급이 중단 되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재구성되는 시기에 있을 때 빵으로 표현되는 선함(만나)은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힘이었지만 그 선함은 우리에게 의해 생산되거나 보존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

이유는 그 시기에 갖게 되는 우리의 욕망이 주님께 순종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자아와 세상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상태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게 되면,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선함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의 시험을 극복하도록 해 주시는 방법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우리는 매일 이른 아침마다 주님이 주시는 선함을 수집해야 하지만 그것을 저장해 둘 수는 없는데, 재구성의 상태에서는 그러한 까닭을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출애굽기 16장 15절을 읽고 만나의 뜻이 “이게 무엇이냐?”임을 알게 된다면 그 까닭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세월이 계속 반복되어 우리 속의 반역적인 생각이나 욕구들이 다 쓰러지고 새로운 것들로 다시 태어나게 될 때에 비로소 순수한 선함이 무엇인지와 그 선함이 어디서 오는가를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진리의 씨를 뿌려 가꿀 수 있게 되고 좋은 곡식도 먹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는 자신이 뿌리고 가꾼 선함이 설령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일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영원한 인격 속에 오래 오래 저장할 수도 있게 된다.

본문의 마지막 세 구절은 앞서 언급된 기억해야 할 사항들이 함축되어 있다. 군대의 총 사령관으로서의 주님과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여호수아의 환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를 향하여 그분의 진리를 수단으로 우리의 영적 진보가 꾸준히 있게 해주실 것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제 5반

본문에는 주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세부적으로 들어있다. 거듭 나는 삶의 기초 역시 본문에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간과되어야 할 부분이 하나도 없음을 강조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땅에 진입함은 영적인 발달에 있어서 재구성의 시기를 지나 거듭남이 시작되는 것을 표현한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불)기둥을 계속 따라간 것처럼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분부들을 계속해서 순종해가면, 우리는 우리속의 반역적인 것들이 차츰 사그라지고 파괴되어 참으로 선한 새 의지를 주님께서 내리실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제 3200항에서 ‘우리의 거듭남의 과정은 이 세상에서의 삶 전반을 통해 있게 되고, 저 세상에 가셔도 영원히 계속 해 나가게 된다.’라고 전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결코 영원히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찌됐든 거듭남의 시작과 함께 우리의

반역적인 시기는 끝을 맺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의식적으로 기꺼이 주님 편에 서려하고 주님의 권능이 아주 명확하게 자신에게 와 있음을 알게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이기적인 의지의 자극 혹은 우리의 이해성을 우물쭈물하도록 만들었던 거짓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새 의지의 힘 앞에서 넋을 잃게 된다. 이런 적들의 모습은 본문 1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모두 넋을 잃었다.”라고 묘사된다. 이런 모습은 이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계에서든 진실로서 우리의 유전적인 본성이 주님에 의해 일일이 점검되어 꼼짝 못하게 되며,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과신하려고 들지 않는 이상 자신 안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단지 그런 속성이 자신 속에 여전히 있음을 순간순간 회상하며 지내게 된다.

사실 본문을 포함한 거룩한 땅의 정복에 관한 성서의 모든 이야기는 천국에 가서도 있어지는 거둢남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의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둢남의 진보에 관한 것이다. 비록 여호수아서에서 더 이상 주님께 반역하거나 과거 자신이 가졌던 세상적인 쾌락에 군침을 흘리는 행위 따위는 발견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과정에서 판단상의 실수와 불순종에 관한 한 가지 경우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의 미약함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둢남의 시작에 들어서면 본문 9절에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인들의 수모를 벗겼다.”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확실한 성과이다(길갈이란 굴림 또는 벗김이란 뜻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죽지 못해 모세에게 순종하는 형식 곧 과거 파라오에게 순종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억지로 순종하는 방식으로부터 멀리 떠나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쪽으로 기꺼이 움직이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 있다는 말이다.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복음서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변한 것이다.

성경에서 모든 새로운 상태의 시작은 “기념비”처럼 차후 세대가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제단을 쌓는 것으로 구분되고 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 4장 1-5과 20-24절을 통해서 여호수아에 의해 거룩한 땅으로 진입한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였으며 그 땅에 들어가 여호수아가 행한 첫 번째 일 역시 그들이 건넌 요르단 강 한복판에 열 두 개의 돌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명령했다. 스웨덴본은 “할례란 불결한

사랑으로부터 순수해진다는 표시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천국의 신비」 제 4462항에서 “포피는 생식기를 싸고 있어서 태교교회에서는 이 포피가 선과 진리에 대한 희미한 상태와 상응되었다. 그러나 고대교회의 경우 이 포피는 선과 진리를 모독함에 상응되었다. 그 이유는 태교교회인이 내적인 사람이어서 선과 진리에 대한 심정 상태가 희미해질 수는 있어도 모독할 수는 없었던 반면에 고대 교회인은 상대적으로 외적인 사람이어서 선과 진리가 모독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외적인 것들, 즉 외적인 사랑들은 모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의 설명과 같은 이유로 태교교회 사람들은 할례에 관한 것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고대교회인들은 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대교회로부터 할례가 많은 나라들로 퍼져갔다. 즉, 이 예식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만 있었던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 예식은 단지 다른 나라(민족)에서 연속되지 않았을 뿐이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경우는 그들이 교회에 소속된 것에 대한 표시로 이어받은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할례의 전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소홀시 되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재구성의 시기에 우리들같이 자신들의 바깥쪽 행동 지침에만 관심을 두고 자기 검증과 같은 안쪽의 행동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할례는 거듭남이 시작되는 이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의무조항임이 분명하다.

할례 행사가 끝난 후 길갈에서는 과월절 기념행사가 있었다. 우리가 거듭남의 시작부터 인식하고 인정해야 하는 사항은 세상과 육적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과월절과 더불어 기독교회에 과월절을 대신하는 성찬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문은 거듭나는 기독교인의 삶이 질서 있게 시작되는 데에 주님에 의해 제정된 두 가지 기독교 성례식들의 중요성을 명백히 알려준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러한 성례식들을 생략하거나 경시해버리면 우리의 영적 진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주님은 이 예식에서 내적인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도달되시는데, 우리는 설사 예식 중에 주님의 현존을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현존이 분명한 사실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성례식을 준행해야 하는 까닭은 주님이 이를 행하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알고 계심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의 과월절 기념 후 그 땅의 소출을 먹었고, 과월절 다음날 만나의 공급은 중단 되었다. 이는 우리가 주님께서 새 의지를 주실 수 있도록 준비되었을 때 그분의 선택 중 어떤 것이 우리의 것인 듯 여겨지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이며, 그 선택을

보존하고 발달시켜 가는데 우리 역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되는 모습을 말해준다. 주님의 선함에 참가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가 성찬식의 빵을 먹을 때로 표현된다. 광야에서의 만나란 주님의 선함이 거둬 나기 전의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선의 형태인데, 그 형태란 한 번에 조금씩 그리고 매일 마다 필요한 만큼 곧 그날그날 요구되는 각자의 강건함을 위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선함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4절 이하에서와 같이 자아사랑의 햇볕이 뜨거워지면 남은 것은 녹아지고 그날 사용되지 않은 만나(선함)는 구더기가 끓고 냄새가 나서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물론 이 백성들 곧 거둬 나는 삶 이전의 재구성의 시기에 우리는 그러한 이유와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만나가 가진 뜻이 “이게 무엇이나?”인 것이다. 거룩한 땅의 곡식은 오래 도록 보존이 가능한 선함인데, 우리는 말씀에서 얻은 진리의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기 위해 협력하는 데에 전적으로 만족한다.

본문은 칼을 뽑아 들고 서 있는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하고 명령하는 장면으로 끝맺어지고 있다. 여호수아는 “싸우는 진리”를 표현한다. 거둬남의 진보를 이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인식해야 할 사항이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다. 즉, 거둬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과 우리가 우리속의 적들과 대항하기 위해 신성한 진리의 칼을 뽑아들고 서 계신 분의 지휘 하에서 전진하려면 과거에 져어 있었던 물질주의적인 사상을 우리 발에서 벗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제 700-14항: “요르단 강물이 입문 역할을 하는 진리들을 의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 한복판에서 열두 개의 돌을 메어 와서 그들이 하룻밤을 지낸 첫 야영지에 그것들을 운반해 놓으라고 명령된 것이다. ‘돌’은 진리를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대로 열 두 개의 돌’이란 교회속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여호수아는 이 돌들을 여리고 동쪽인 길갈에 세웠는데, 그 이유는 ‘길갈’이 자연적인 진리를 의미하고, 자연적인 진리는 교회로 들어오는 입문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기독교 종교』 제 674항: “교회들이 고대 시대 때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전의 교회들은 나중의 교회보다 외적인 것, 즉 이전 교회의 예배는 주님이 세상에 오시어

기초를 이룬 기독교회의 내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외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회는 주님에 의해 맨 처음 세워졌음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교회가 아시아의 다른 교회들과 후에 있게 될 기독교회와 우선적으로 다른 점은 할례였다. 앞서 말한 바대로 이스라엘 교회의 모든 것은 외적인 상태여서 내적인 상태의 기독교회의 모든 것을 형태적으로 미리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 교회에 있는 특별한 표시들은 기독교회의 내적인 표시와 같게 된다. 즉, 할례는 육적인 갈망을 거절함 또는 악으로부터 순수해짐을 의미하며 세례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로부터 명확해지는 사항은 세례가 할례를 대신하도록 분부되었다는 것과 세례가 기독교회와 유대교를 구별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적인 교회임을 더욱 명확히 인식해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광야를 배회했는가?
- 2) 모세는 어디서 죽었는가?
- 3) 누가 모세를 대신하는 지도자가 되었는가?
- 4) 이 백성들은 어떻게 요르단 강을 건넜는가?
- 5) 그들은 강바닥에서 무엇을 취했는가?
- 6) 그들은 열 두 개의 돌을 취해 무엇을 했는가?
- 7) 거룩한 땅에서 이 백성들의 첫 숙영지는 어디였는가?
- 8) 길갈은 무슨 뜻인가?
- 9) 왜 길갈이 그렇게 불렸는가?
- 10)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어떤 예식을 지키도록 했는가?
- 11) 그곳에서 어떤 날을 기념했는가?
- 12) 그곳에서 만나의 공급은 어떻게 되었는가?
- 13) 왜 그들에게 만나가 필요 없게 되었는가?
- 14) 여호수아는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
- 15) 천사는 자신이 누구라고 말했는가?
- 16)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했는가?

- 17) 광야에서의 배회생활은 무엇을 그리는가?
- 18) 거룩한 땅으로의 진입은 무엇을 그리는가?
- 19) 모세와 여호수아가 표현하는 상이점은 무엇인가?
- 20) 세례와 성찬의 모양을 나타내는 길갈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은 각각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40년 2) 네보산 3) 여호수아 4) 기적 5) 열 두 돌
- 6) 기념비를 세움 7) 길갈 8) 굴림, 벗김
- 9)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인들의 수모를 벗겼다” 10) 할례
- 11) 과월절 12) 중지 되었다 13) 그곳에는 풍부한 양식이 있기 때문에
- 14) 칼을 뽑아 들고 서 있는 천사 15) “야훼 군대의 총 사령관”
- 16)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17) 개혁
- 18) 실제로 영적인 삶의 시작
- 19) 모세 - 두려워서 진리에 순종함, 여호수아 - 삶 속에서 진리가 싸워 나감
- 20) 할례(순수해짐에 대한 예식), 과월절(구원해주심을 기억함)

13

거룩한 땅의 분할

머리말

본문은 거룩한 땅의 분할 이전인 그 땅의 정복에 관한 줄거리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의 정복에 따른 세 가지 작전과 명령을 살펴보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여호수아 18장 1-10절

18장: 1.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만남의 장막을 쳤다. 전 지역이 이미 그들에게 정복되었던 것이다. 2.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아직도 유산을 받지 못한 지파 일곱이 남아 있었다. 3.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렀다. “언제까지 너희 조상의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겠느냐? 4. 당장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출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어 분할 받을 땅을 답사하여 지적도를 만들어 오게 하리라. 5. 그들은 그 지역을 일곱 몫으로 나누는데, 유다는 그대로 남쪽 자기 영토를 차지하고 요셉 가문은 그대로 북쪽 자기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6. 너희는 그 땅을 일곱 몫으로 나누어 지적도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우리 하느님 야훼 앞에서 추첨을 하여 너희의 몫을 결정해 주리라. 7. 레위 사람들은 너희들과 어울려 한 몫 받지 못한다. 야훼를 섬기는 사제 직분이 그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가드와 르우벤과 므나쎄 지파 절반은 야훼의 종 모세에게서 받은 대로 요르단강 동편을 유산으로 받았다.”

8. 이리하여 그들은 길을 떠났다. 지적도를 만들려고 떠나가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였다. “너희는 그 지방에 가서 답사하며 지적도를 만들어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야훼 앞에서 추첨을 하여 너희 몫을 결정해 주리라.” 9. 그들은 길을 떠나 각 지방을 돌아 다니면서 그 곳 성들을 일곱 몫으로 나누어 지적도를 만들어 가지고 실로의 진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10.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그들의 몫을 결정하려고 야훼 앞에서 추첨을 하였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몫 한 몫 떼어 주었다.

교리 요점

- * 제비뽑음이란 우리가 뭘가에 대한 결정을 주님께 맡긴다는 뜻이다. 추첨이라 할지라도 기회나 우연 같은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신성한 섭리에 의해 통제된다.
- * 말씀은 서로 긴밀하게 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자주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의미를 받게 된다.
- * 우리는 천국적인 인격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적을 우리 속에서 몰아 내야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여호수아는 거룩한 땅을 정복하는데 세 가지 작전을 펼쳤다. 첫 번째 작전은 그 땅의 중심부에서 있었다. 우리가 자신의 인격을 천국적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감정이나 거짓 사상들과 맞부딪쳐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자기 속에 자아사랑이 들어 있음을 인식하고 그 사랑과 싸워야 한다는 말이다. 그 다음의 작전은 남부에서 있었는데, 이는 우리가 자아사랑에서부터 튀어나오는 잘못된 욕구들과 싸워야 함을 의미한다. 세 번째 작전은 북쪽에서 있었는데, 이는 우리속의 지성이 거짓사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똑바로 잡는 일이다. 사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룩한 땅 내의 많은 적들을 견드려 보지도 못한 채 유보해 버린 것처럼 자신 안에 천국적인 인격을 전적으로 완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도움으로 자신을 지배할 충분한 실력을 갖추 수 있으며, 천국적인 질서에 자신의 삶을 정착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본문과 더불어 그 앞장과 뒷장이 말해주는 각 지파에게 거룩한 땅이 분할되는 사항에 내포된 요지이다.

케를 안치한 성막이 거룩한 땅의 중앙에 있는 실로에 세워졌다. 이는 평화를 알고자 하면 계명이 마음속에 새겨져야 한다는 뜻이다. 실로란 “평화”라는 뜻이다. 레위지파에게는 전 지역에 산재해 있는 성읍들이 그들의 소유지로 주어졌다. 이것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바램이 우리가 하는 매사에 침투되어 있어야만 함을 의미한다. 레위지파에게 할당된 임무가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를 관장하는 것이었음은 앞서 배운 성경의 내용을 상기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의

모든 지파들에게도 나뉠대로의 상속이 주어졌다. 즉, 우리의 모든 능력과 재능이 천국적인 인격의 완성을 위한 것에 방향을 맞추어 각 나뉠대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거듭남이 우리의 할당된 몫을 행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거저 가져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우리와의 협력에 의해서만 성취되며, 그 협력은 생각 속에서 뿐만 아니라 행동 속에서도 마땅히 있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 안의 적을 정복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우리의 장소는 그분으로부터 우리 각자의 상속물로 할당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주님에게서 배우는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되며, 그분의 도움을 언제나 구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을 기어 다니는 숨어있는 악들에 맞서 자신을 수호해야 한다. 우리속의 악은 미리 발견 되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악이 뭔가 사고를 저지르는 때에야 비로소 그것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오직 주님만이 그러한 악을 사전에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부주의해지고 자아 만족에 빠지게 될 때 우리속의 악이 서서히 고개를 쳐들어 우리를 지배하려고 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제 1반

실로에 성막이 세워 졌음을 주로 살펴본다. 또한 실로와 추첨의 의미, 주님이 선택을 결정하신다는 것 그리고 각 지파가 정착한 지역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여호수아는 첫 숙영지 길갈로부터 가나안의 전역을 정복하기 위해 전사들을 지휘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일생에서 20년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 있는 적을 완전히 소탕하지 못했다. 그들은 무려 7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 그 땅의 세력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각 지역을 지파들에게 분할한 후 정착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 성막이 실로에 세워졌는데, 성막은 그곳에서 삼백년 이상 머무르게 되었다. 성막이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시나이 산에서 만들어진 예배를 위한 천막을 일컫는다. 그리고 궤는 주님이 손수 새기신 계명이 적힌 두 돌 판을 보관한 금으로 입혀진 상자이다. 이 궤는 언약궤라고도 불리며, 성막의 지성소인 가장 깊은 방에 언제나 모셔져 있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제단위에 항상 성경을 보관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성막은 광야 여행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같이 움직였는데, 특별히 레위지파에 의해

운반되었다. 레위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예배에 속한 모든 일을 관장하도록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광야 여정 중에 성막을 모든 진영의 한 중앙에 모셔왔다. 그러나 거룩한 땅이 정복된 후 더 이상 성막을 옮겨 세울 일이 없게 되자 그들은 성막을 항구적인 장소에 설치해 놓았다.

레위인들은 그들만의 특정 구역을 받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 전역에서 48개의 성이 주어졌는데, 이는 각 지파에서 4개씩의 성이 할당된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각 지파에 퍼져 살면서 일 년 내내 명령된 제물과 헌납을 받고 주님을 예배함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과월절과 다른 두 가지 큰 축제는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이뤄졌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그들은 성막을 어디에 세웠는가?
- * 실로란 무슨 뜻인가?
- *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거룩한 땅을 구획 했는가?
- * 유다와 요셉지파에게는 어느 구획이 주어졌는가?
- * 제 5절에서 “북쪽”이란 어느 곳을 말하는가?
- * 요셉으로 비롯된 두 지파는 무엇인가?
- *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나쎄 반쪽 지파에게는 어느 구역이 주어졌는가?
- * 구역을 할당 받지 못했던 나머지 일곱 지파는 어떻게 구역을 갖기로 결정했는가?
- *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주어진 구역은 어디인가?
- * 갈렙에게 특별히 주어진 구역은 어디인가?
- * 헤브론에 관해 기억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제 2반

본문은 성서 지도와 많은 성경 구절을 참고 할 기회가 된다. 본문을 통해 성서의 인명과 지명 그리고 성경 의 이야기들을 상기해 보자.

여호수아는 길갈의 첫 숙영지를 본부로 해서 거룩한 땅의 정복을 시작했다. 이 정복은 세 가지 작전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그 땅의 중심부에서 시작된 후 남부에서 실시되었고 마지막으로 북부에

서 실시되었다. 이 작전 수행에 관한 것이 여호수아 6-11장에서 기술되고 있다. 제 12장은 우리에게 과거 모세가 요르단 서편에서 아모리족의 시혼 왕과 바산의 옥 왕을 정복했던 이야기들을 상기시켜 준다. 이 세 작전은 7년 동안 수행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그 땅의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어 땅들을 각 지파별로 나누고 고향에 정착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땅의 적들을 완전히 정복했던 것은 아니며, 그 땅의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의 적이 아닌 것도 아니었다.

갈렙은 과거 주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에 의해 자신을 위한 구역을 얻도록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신명기 1:36). 그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던 과정은 여호수아서 14장 6-15절과 15장 13-14절을 참고하도록 하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의 구역 안에서 그를 위한 성이 주어졌다(여호수아 19:49-50). 본문에서와 같이 다섯 지파는 땅의 분할이 마지막으로 있기 전에 이미 땅을 할당받았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요르단 강 건너 중앙과 남쪽을 받았고, 므나세 반쪽지파는 요르단 강 북쪽을 할당받았다. 그리고 므나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로서 열 두 지파에 소속되어 거룩한 땅의 중심부를 차지하게 되었다. 유다에게는 이미 땅의 남쪽 부분이 주어졌다.

지파 별로 나누어진 대로 거룩한 땅의 성서지도를 찾아보면 땅의 남쪽 부분이 유다와 시므온 지파에게 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단의 후손에게 중앙부분이 돌아갔고, 그 외 다른 지파들에게 북쪽 부분이 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 제 19장 47절을 보면 단 지파의 구역이 너무 협소하여 그들 후손의 일부가 레셋으로 쳐 올라가 정복하여 그곳에 정착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 지역을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도 불렀다. 이리하여 거룩한 땅에서 단이 최북단이 되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이 성경에서 언급되면 거룩한 땅의 전 구역을 의미하게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호수아 19장 9절을 보면 시므온의 구역이 유다의 구역에서 취해졌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너무 많은 땅이 유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 후의 성경의 이야기에서는 시므온 지파에 관한 언급이 드물다.

제 20장과 21장은 6개의 도피성과 48개의 레위인의 성읍에 관하여 알려준다. 민수기 35장 1-15절을 보면 레위지파에게 성읍이 주어졌던 까닭을 알 수 있다.

지금 성막은 정복기간 동안 있어 왔던 길갈에서 옮겨져 실로에 세워졌다. 실로란 히브리어로 “평화”를 의미한다. 성서 지도에서 실로를 찾아보면 거룩한 땅의 중심부근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성막은 삼백년 동안 위치하고 있었다. 그동안 이곳에서 예배가 집전되었고 백성들은 유대인의 세 가지 큰 축제를 위해 실로를 방문하게 되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헤브론은 과거 누구의 고향이었는가?
- * 여호수아는 어떻게 나머지 땅을 분할했는가?
- * 각 지파가 가질 영토들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는가?
- * 제비가 던져졌을 때 선택을 결정짓는 이는 실제로 누구인가?
- * 왜 레위지파에게는 특별한 구역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제 3반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으로부터 악과 거짓을 뿌리 뽑는 작업이 먼저 이뤄진 후 계명예의 순종과 주님을 섬김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거듭남의 순서를 강조한다.

여호수아는 세 가지의 작전 수행으로 거룩한 땅을 정복했다. 첫 작전은 그에게 땅의 중심부를 장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제 6-9장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예리고와 아이 성의 함락 그리고 기브온 족과의 우호조약 등의 이야기도 이에 포함된다. 두 번째 작전은 그 땅의 남부 지역을 장악하게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 10장에서 기술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작전에 의해 북쪽 지역마저 장악하게 되었다. 제 12장에서 상기되는 사항은 과거 모세가 요르단 건너편 동쪽을 정복했다는 사실이다. 제 13장은 모세가 정복했던 요르단 건너편 지역을 상속으로 물려받은 2½지파들의 땅의 경계에 관하여 알려준다. 그런 다음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유다지파의 정착이 남쪽 땅이라는 것과 갈렙에게 에브라함의 고향인 헤브론 성읍이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요셉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나세 반쪽지파에게 그 땅의 중심부가 할당된 것 등에 관하여 언급되고 있다.

가나안 북방의 정복은 여호수아에게 지워진 임무를 완성시켰다. 즉, 여호수아에게 완강히 버티었던 민족들이 파괴되고 본문의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전 지역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11장 13절과 22절에서 “언덕에 서 있는 성은 하나도 불을 지르지 않았다” 그리고 “아나킴은 가자와 갓과 아스돗에 약간 남아 있을 뿐”이라고 기술되어 가나안 땅의 토착민들이 모두 전멸되지 않았음을 시사해 준다. 이것은 우리가 정복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즉 거듭 나겠다는 첫 노력의 결과 치명타를 입은 우리속의 악과 거짓이 동면상태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우리속의 악과 거짓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자만할 때 그것들이 다시 일어나

세력을 떨칠 소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역은 실로에 성막을 세우는 일이었고, 성막은 그 후 삼백년 이상 그곳에 있었다. 실로란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뜻이다. 여호수아에게는 할당받지 못한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일이 남아 있었다. 제 18장과 19장은 이 지파들의 경계에 대해서 알려준다. 열 두 지파란 우리의 모든 능력과 재능들을 의미한다. 야곱(이스라엘)의 열 두 아들이 태어나는 순서는 우리속의 능력과 재능이 발달되는 순서인데, 이는 어린 시절 우리가 사용한 단순하고 일반적인 것들을 시점으로 하여 세상에서 갖게 되는 우리의 어떤 장소를 결정짓게 하는 능력의 발달로 이어진 후 야곱의 마지막 두 아들인 요셉과 베나민으로 그려지는 보다 높은 영적 능력의 발달로 끝맺게 된다. 거룩한 땅의 분배 과정을 보면 맏아들들인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유다가 모두 남쪽부분에 위치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우리 본성의 의지부분에 해당된다(물론 레위지파는 전국도에 흩어졌는데, 이는 그 지파가 예배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의 여섯 아들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생각 부분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 땅의 중심부분은 보다 높은 지역이며 성막이 세워진 곳으로, 베냐민 지파와 요셉의 아들 므나쎄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되어 있다. 지도에서 보면 단 지파도 중심부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지파는 해안선 쪽에 해당되고, 후에 더 북쪽으로 퍼지게 되었다. 이런 이유는 단이 판단력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어떤 올바른 판단이 형성되어 진리가 우리의 의지와 이해성으로 들어오기 전 이 판단에 필요한 자료 곧 계시(밝히임)의 진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이 경계선 역할을 하는 지파가 되어 처음에는 해안선 쪽의 경계에서 북쪽의 경계선으로 일부가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리하여 모든 지파가 제자리에 앉혀져서 12지파의 지도가 작성된다. 완성된 12지파의 지도의 모습은 우리의 모든 능력과 재능들이 천국적인 인격을 연마 하고자 배치된 우리의 내적인 모습인 것이다.

제 21장에서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목장지대가 딸린 48개의 성읍에 관하여 언급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며 움직이는 모든 것 속에 주님을 예배함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 2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2 & 3지파에게 그들이 형제들의 거룩한 땅의 정복에 열심히 참여하여 과거 그들이 약속했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에 따른 축복을 해주며 미리 분배된 땅으로 그들을 되돌려 보내는 모습이 기술되고 있다. 그들은 과거의 못처럼 산악 지대보다 비옥한 평야 지대를 선택했다. 이는 우리의 자질 중에서 세상적인 활동이나 즐거움을 선호하는 경향을 묘사해준다. 여호수아는 떠나가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번성하고 싶다면 주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엄숙하게 경고했다. 그들은 이를 기억하면서 지키기 위해 보기에다 어마어마한 제단을 요르단 강가에 쌓았다. 그들이 제단을 쌓은 까닭은 거기서 예배나 제물을 바치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약속의 표시로 세웠던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좋은 것과 세상에서의 활동을 즐기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언제나 영적인 삶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당부하신다. 주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 6-19절의 말씀은 이러한 목적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는 이 구절을 직업을 선택할 때 등 우리 삶의 운영 방침을 세울 때에 직접적인 안내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거룩한 땅의 남쪽 부분 = 우리속의 의지 또는 애정 부분
 요르단 강 건너지역 = 우리의 자연적인 또는 외적인 삶

제 4반

열 두 지파의 의미와 각 지파에게 배당된 구역의 의미를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속의 적들을 모두 정복하지 못하므로 그것들을 발견하고 극복해내기 위해 경계해야 한다는 것과 성경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에리고와 아이를 정복한 후 기브온과 우호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거룩한 땅을 정복하는 시작단계였다. 여호수아는 이 정복으로 인해 그 땅의 중앙 지역을 이스라엘의 통제 하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나눔과 정복”이 성경의 원리가 된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그 땅의 중심부분을 장악함으로써 그 땅의 세력권을 두 가지 전투 작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두 작전이란 하나는 남부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북부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모든 정복의 이야기에서 기적의 요소들을 발견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결코 잊지 않았다. 여호수아의 지휘아래 얻어진 정복은 우리의 거듭나는 과정의 초기 상태, 즉 우리의 신앙 상태가 광신적이라고 할 정도로 열정적이어서 자신의 결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공격하는 때를 그려준다.

그런 다음 본문이 연결된다. 거룩한 땅은 이제 정복되었다. 이는 우리 마음과 이해성 안의 적들이

복종하는 상태에 놓여 지는 모습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11장 13절과 22절의 “이스라엘은 언덕에 서 있는 성은 하나도 불을 지르지 않았다”와 “그리하여 아나킴은 가자와 갓과 아스돗에 약간 남아 있을 뿐...”라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서, 많은 적들이 정복되었으나 일부의 적들이 살아남아 그들의 성 안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어찌됐던 완강했던 적들이 소탕된 상태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속의 완강한 악들과의 대대적인 충돌이 극복되는 때 일시적인 평화가 있게 됨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본 후 미래를 위해 질서 있는 계획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본문에서 각 지파가 할당된 구역을 가지고 정착할 준비를 갖추는 모습과 같다. 미가서 4장 4절의 “사람마다 제가 가꾼 포도나무 그늘, 무화과나무 아래 편히 앉아 쉬리라.”라는 말씀은 이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다.

정착한 후의 첫 작업은 그 땅의 중심인 실로(평화)에 성막을 세우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모두 동의할 것이다. 그 다음 과거 요르단 건너지역을 선택했던 2 1/2지파에게 그곳으로 되돌아가서 그 땅을 소유하도록 허락된다. 갈렙은 오래 전 여호수아와 더불어 그 땅을 정탐했다. 갈렙은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적들이 무척 강하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여 쳐들어가자고 백성들을 권고했었다. 그의 이러한 충절로 인해 특별한 상속이 약속되어진 바,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했던 헤브론이 그의 유업으로 주어졌던 것이다. 레위인들은 가나안의 전 지역에 48개의 성읍이 주어져 골고루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것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인도하도록 해 주었다. 아직 구역을 할당받지 못한 지파는 추첨에 의해 그 땅을 나누었다.

이 분할은 질서 있는 삶, 즉 우리의 모든 자질들이 제각기 한 장소를 맡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장 높은 자질인 영적인 자질이 중앙에 위치한다. 야곱의 마지막 두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이 영적인 자질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소위 일컫는 실용적인 삶보다 훨씬 늦게 발달한다. 시므온과 유다 지파는 남쪽에 위치했는데, 이 장소는 우리의 유아적 상태(아브라함의 고향인 헤브론이 남부지역에 있음)가 존속하는 곳 곧 우리 삶의 애정적인 부분을 상징한다. 그 외의 지파들은 우리의 지적인 삶에 관계되며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요르단 건너에 있는 지파들은 우리의 활동적인 평면을 말하는데, 위의 세 가지 형태는 활동 평면에서 필요하게 된다.

거룩한 땅에서의 단 지파의 위치는 매우 흥미롭다. 그들은 땅의 중심부분 근처이되 해안선을 따라 있는 지역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19장 47절에서 “그들은 영토가 좁아서 모두 살수가 없었다. 그래서 단 후손은 레셋으로 쳐 올라 가 칼로 무찌르고 그 성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다”라고 기술된

바대로 그들은 정복된 땅 중 최북단에 위치하게 된다. 단은 라헬의 하녀인 빌하가 낳은 아들로써 라헬로 그려지는 영적인 사랑의 첫 결실이되 간접적인 결실을 의미한다. 단이란 히브리어로 “판단함”이란 뜻이다. 스웨덴북은 “단이란 우리가 하느님을 믿어야 한다고 인정한 후 선한 삶을 이룩하겠노라고 확언할 때의 우리의 판단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어서 “확언함이나 인정은 거듭나려는 사람에게 첫 번째 되는 일반원칙이지만, 이는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나중이 되는 일반 원칙이다”라고 부연한다. 이것이 단지파가 처음에는 중앙부 근처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가 정복된 땅의 최북단 경계로 이동된 이유이다.

우리가 위의 서술을 근거로 정복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위험천만한 착각이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구역 내의 적들을 계속 정복하고 이미 정복된 적들을 복종시키는 상태도 잘 유지시켜야 한다고 각별히 명령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강제적인 명령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빠져드는 미묘한 시험 중의 하나는 자아에 심취되는 것, 즉 자신이 더 이상 악과 투쟁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아 만족에 빠지는 시험이다. 이런 시험의 결과들은 판관기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제 5반

거듭남의 모든 과정이 본과에서 설명된다. 우리는 우리의 거듭남에 있어서 주님과 협력 없이는 성취되는 과정이 하나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잘 정돈된 내적인 것과 이에 따른 바깥쪽 삶의 성취가 바로 거듭남이다.

앞서 우리는 제 6-9장에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전투 중 가장 중요한 작전인 첫 작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작전이란 그 땅의 중심부를 점령해 가는 작전인 예리고성과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과의 조약체결이었다.

그 외의 지역에 대한 정복은 다시 두 가지 작전으로 나뉘어 수행되었다. 그중 첫 작전은 남부지역에서 그리고 두 번째 작전은 북부지역에서 수행되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남부는 애정의 상태를, 북쪽은 지적인 상태를 표현한다. 그래서 이 두 작전은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 안에 있는 악과 거짓들을 인식하여 극복해 내려는 노력을 표현하게 된다. 우리는 악과 거짓이란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보지도 않은 채 사용하는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사업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 이 생각에 포함된 악은 이기적인 소득을 사랑하는 것이다. 거짓은 우리가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행하는데 것에 대한 변명이다. 즉,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스스로를 잘 돌봐야 한다는

것 혹은 모든 이들이 사업에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 혹은 이런 이득들을 미리 챙기지 않으면 사업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등의 거짓을 핑계로 내세운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악의 근원은 바램에 들어 있다. 거짓은 이 바램을 받쳐주며, 핑계를 제공하는 생각과 추론들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은 거룩한 땅이 적군들로 가득 차 있었듯이 악과 거짓들로 가득하다. 이것들은 거듭나려는 우리에게 대항하고자 한테 뭉친다. 그래서 한 악을 끄집어내면 다른 것들도 영커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거짓 하나를 끄집어내면 다른 거짓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음도 보게 된다. 따라서 한 개의 악이나 거짓과 싸운다는 것은 결국에는 많은 악이나 거짓과 싸우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가끔 실족하기도 한다. 이런 모습은 넓은 의미에서의 여호수아의 작전 수행이 뜻하는 바다. 그는 처음에는 남부의 다섯 왕과 싸웠다. 연맹한 다섯 왕이란 악한 바램의 연맹인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북쪽의 왕들과 싸웠다. 이 왕들이란 거짓 사상과 추론의 군사들을 말한다. 하지만 남쪽에서의 작전 수행이 먼저 있었는데, 이는 우리가 자신이 해왔던 변명의 진정한 본성을 보고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추기 전에 근원적인 악들을 인식하고 극복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님은 남쪽에서의 전투에서 적에게 우박을 보내셨고,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빛을 주심으로써 완전한 소탕 작전이 이뤄지도록 해주셨다. 우리속의 악은 우리의 노력보다는 주님의 진리의 권능과 말씀의 빛에 의해서 정복된다는 말이다. 북쪽 지역의 작전 수행에서는 기마와 병거의 등장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기마와 병거란 우리의 지적인 능력과 그 능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생각의 체계들을 말한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군마의 다리 힘줄을 끊고 불로 병거를 태워 버리게 해 주겠다.”하고 약속하셨다. 즉, 자신의 지혜를 추키려는 것이 깨지며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한 거짓사상이 사랑으로 파괴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 작전 수행 후 거룩한 땅의 주도권을 잡아 그 땅에 정착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이는 그들이 모든 적을 썩어 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주님은 비록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이 우리 안에 많이 존재하지만 우리에게 영적 삶을 즐기는 것도 허락하신다. 한 마디로 영적 삶을 즐기면서 싸움도 하게 하신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결코 영적인 전투를 끝낼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계에서 천국의 평화와 기쁨을 어느 정도는 맛볼 수 있다. 성막이 실로에 세워졌다. 실로의 뜻은 히브리어로 “평화”이다. 거룩한 땅은 각 지파에게 내리는 상속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그 땅이 이스라엘 후손에게 내린 주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천국이란 곳, 즉 천국적인 인격은 주님을 하늘 아버지로 인식하여 그분의

뜻을 실천하려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속인 것이다. 우리는 각자 다른 선물과 특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따라서 각자의 것은 각자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것으로 본인 외의 누구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그 때에 그 임금의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나라를 차지하여라.’”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야곱의 열 두 아들은 우리 안에서 완전한 인격을 구성하게 하는 갖가지 선한 애정들을 표현한다. 이 애정들 각각은 완전한 삶 속에서 제각기의 위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애정들에 의해 통치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제각기의 장소를 가지게 된다. 제비뽑아 그 땅을 분할하는 것은 균형 잡힌 영적 삶을 그리며, 균형 잡힌 영적 사회 안에서 모든 남녀가 제각기의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려 함에 목표를 두고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항은 우리가 설 곳이나 우리의 몫에 대한 결정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점이다. 제비 뽑아 결정짓는다고 함은 모든 결정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나세 반쪽지파는 거룩한 땅을 형제들이 정복하도록 도와준 후 요르단 강 동쪽 건너편에 정착하도록 허락되어졌다. 요르단 강 건너편은 자연적인 삶의 평면을 표현한다. 그곳은 가축을 키우는데 적절하고 비옥한 땅이었다. 즉, 자연적인 삶의 평면은 외적인 측면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선한 애정을 수행해내는 것임을 뜻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은 채 풍요로운 외적인 삶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열망한다. 그들은 집에서 유용하고 친절하고 외적인 삶 속에 있다. 그들이 예배와 교리속의 더 깊은 것을 필요로 하고 자신을 검증하려고 노력하며 이기심과 이를 부추기는 변명 따위를 정복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외적인 섬김을 위해 삶을 소비하도록 자신들에게 그 땅이 허락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매우 깊고 높은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 역시 유용하며, 그들 나름대로는 행복한 것이다. 주님의 공생애의 일부가 이 요르단 건너편에서 있었다. 이 지역을 상속해달라고 요구한 두 지파가 갖는 근본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르우벤은 자연적 인간 속에 등장하는 첫 믿음을 표현한다. 그리고 갓은 외적 종류에 속한 선한 일을 표현한다. 그리고 므나세 반쪽 지파에게는 두 지파의 지역 북쪽이 할당되었다(므나세지파가 지분을 요구한 기록은 없다- 민수기 32:33참조). 요셉의 큰아들인 므나세는 교회속의 선을 표현한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의 북쪽에 담벼락과 같이 놓인 므나세 지파의 지형이란 자연적 평면에 정착된 이들은 자신들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선함이 비롯됨을 항상 염두 하고 자신을 수호해야 함을 의미한다.

레위지파는 상속분으로 타 지파들처럼 특정지역을 할당받지 않았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백성들의 예배와 영적 가르침을 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막을 섬기는 일도 수행해야 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주 하느님이 그들의 유산이다.”라고 말해지고 있다(신명기 18:2). 지파 별로 볼 때 레위지파는 예배에 관한 요소들을 표현한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직접적으로 찾으려는 우리속의 애정 그리고 그분에 관해 배우는 것에 만족하며 그분에 대해 명상하려는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찬양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사항은 잘 정돈된 삶의 어느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삶의 전반에 고루 퍼져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은 레위지파의 거주자들이 전국에 퍼져 있듯이 주님과 관계없이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은 모든 지파들의 십일조가 레위인을 부양했듯이 예배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한다. 즉, 일요일에는 예배에 참석하며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주중에도 주님과 그분의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의 한 개의 분과와 같이 칸막이를 하여 우리의 이해성 속 어딘가에 종교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침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의한 우리의 행동 지침이 시험을 거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너희는 삼가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여라.”(신명기 12:19)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2913항: “야곱의 열 두 아들은 열 두 개의 일반적인 것 또는 기본적인 것을 기술한다. 이를 수단으로 거듭나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동안 인간에게 영적이거나 천적인 것들이 전수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거듭날 때 또는 교회를 만들게 될 때에 (즉, 죽은 자로부터 산 자로 또는 육적인 것에서 천국적으로) 다양한 상태를 통해 주님께 의해 인도되기 때문이다. 이때에 통과되는 다양한(일반적인) 상태들이 ‘열 두 아들’ 후에는 ‘열 두 지파’로 표현된다. 이런 이유로 ‘열 두 지파’는 사랑과 믿음 내에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일반 사항들은 특별한 것들이나 개별사항들을 망라하기 때문이다. 특별한 것들은 일반적인 것들에 관계되어 생산된다. 인간이 거듭나게 될 때 내적인간은 외적인간과 결합하고, 내적인간 속의 선과 진리는 외적인간 속의 선과 진리와 결합하게 된다. 그 이유는 인간이 선과 진리로부터 진정한 인간이 되기 때문이다. 이 두 인간은 어떤 수단 없이 결합될 수 없다. 수단이란 이쪽에서 파생된 어떤 것과 다른 쪽에서 파생된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어느 한 쪽에 동의하는 만큼 다른 쪽도 이에 응하는

결과로부터 수단이 발생된다. 이런 수단들이 ‘하녀’가 의미하는 바다. 그래서 내적 인간 쪽의 수단은 ‘라헬의 하녀’로, 외적 인간 쪽의 수단은 ‘레아의 하녀’로 의미되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여호수아는 몇 개의 작전으로 거룩한 땅을 정복했는가?
- 2) 이 작전은 어떤 순서로 수행되었는가?
- 3) 첫 작전과 익숙한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 4) 그 땅의 모든 적은 정복되었는가?
- 5) 항구적인 성막은 어디에 설치되었는가?
- 6) 실로란 무슨 뜻인가?
- 7) 누가 그 땅의 분할 경계를 그렸는가?
- 8) 각 분할 지역을 차지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 9) 제비를 뽑을 때 그 결정은 실지로 누가 하는가?
- 10) 그 땅의 중심부는 어떤 지파에게 돌아갔는가?
- 11) 요셉의 두 아들은 왜 이 땅을 분할하는 데에 자격이 있었는가?
- 12) 요르단 건너 지역에는 어떤 지파가 정착했는가?
- 13) 그 땅의 남부는 어떤 지파에게 할당되었는가?
- 14) 갈렙에게는 어느 성이 주어졌는가?
- 15) 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할 해주지 않았는가?
- 16) 그 대신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 17) 열 두 지파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실로에 성막을 세웠다 함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3 2) 중심부-남부-북부 3) 예리고, 아이, 기브온 4) 그렇지 않다
- 5) 실로 6) 평화 7) 각 지파의 세 사람들이 지적도를 만들

- 8) 추첨 9) 주님 10) 요셉, 베냐민, 단 11)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양자로 삼았기 때문
12) 르우벤, 가드, 므나쎄 반쪽 13) 유다, 시므온 14) 헤브론
15) 예배를 관장하기 때문 16) 48개의 성읍 17) 모든 우리의 정신적인 자질들
18) 우리 삶의 정착된 부분의 중심에 예배를 놓아야 한다는 것

14

판관 삼손

머리말

본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실용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다. 본문은 삼손이란 인물의 부주의함과 자만심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꾸준히 필요함을 예증해준다. 삼손의 힘이 그의 머리카락에 있었음과 더불어 삼손이 내는 수수께끼의 의미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를 행하는 것에 행복이 있음도 언급한다.

성 서 본 문: 판관기 14장

14장: 1. 삼손은 덤나로 내려 갔다가 거기에서 불레셋 처녀 하나를 보고 2. 부모에게로 돌아와서 청을 드렸다. “제가 덤나에 갔다가 불레셋 처녀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처녀한테 장가들고 싶는데 얻어 주십시오.” 3.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러지 못한다고 하였다. “네 일족이나 네 겨레 가운데는 여자가 없어서 할례도 받지 않은 불레셋 색시를 얻으려느냐?” 삼손은 아버지를 졸랐다. “그 여자가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색시를 얻게 해 주십시오.” 4.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모두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 줄 몰랐다. 그 때는 불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였기에 야훼께서 불레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마련하시려는 것이었다.

5. 삼손이 덤나로 내려가서 덤나에 있는 한 포도원에 다다랐을 때의 일이다. 난데없이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오르렁거리며 달려드는 것이었다. 6. 그 때 야훼의 영이 갑자기 내려 덮쳐 삼손은 양 새끼 찢듯 맨손으로 그 사자를 갈기갈기 찢었다.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7. 그 여인에게로 내려 가 이야기해 주었다. 그렇게 그 여인에게 빠져 있었다. 8. 얼마 후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가다가, 가던 길을 벗어나 죽은 사자가 있는 데로 가서 그 죽은 사자 몸에 벌이 꿀을 쳐 놓은 것을 보았다. 9.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따가지고 길을 가면서 먹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얼마 따다가 부모에게도 대접해 드렸다. 그러면서도 그 꿀이 죽은 사자 몸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만은 하지 않았다. 10. 삼손은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젊은이가 장가갈 때 하는 풍속대로

잔치를 벌였다. 11. 그러나 그들은 삼손이 무서워서 들러리를 삼십 명이나 뽑아 함께 머물게 하였다.

12. 그 자리에서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수수께끼 하나를 낼 터이니, 잔치가 계속되는 이렛 동안 생각해서 맞춰 보게. 알아내기만 하면 내가 모시옷 서른 벌과 예복 서른 벌을 내지.

13. 그러나 맞춰 내지 못하면 자네들이 나에게 모시옷 서른 벌과 예복 서른 벌을 내야 하네.” 그들은 좋다고 하면서 수수께끼를 말해 보라고 하였다. 14. 그래서 그는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15.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15. 나흘째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올리메었다. “네 신랑을 피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서 알려 다오. 그렇지 않으면 네 일족을 불에 태워 죽이겠다. 네가 우리를 초대해 놓고는 홀랑 벗길 셈이냐?” 16. 삼손의 아내는 그에게 매달려 눈물을 흘리며 떼를 썼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 하고 있어요. 우리 동족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으셨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저한테마저 숨기실 건 없지 않아요?” 그는 “그것은 내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않았는데 어찌 당신에게라고 말하겠소?” 하면서 거절했지만 17. 잔치가 끝나기까지 이렛 동안 색시가 매달려 울면서 조르는 바람에 삼손은 이레째 되던 날 털어 놓고야 말았다. 색시는 그 수수께끼의 답이 무엇인지 제 동족들에게 일러 주었다.

18. 이레째 되는 날이 와서 삼손이 신방에 들려고 하는데, 그 성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고

사자보다 힘센 것이 어디 있으랴?”

29. “자네들이 내 암소로 밭을 갈았구나 그래서 내 수수께끼를 알아맞힌 거지?” 삼손은 이렇게 말하고는 19. 야훼의 영에 사로잡혀, 아스클론으로 내려 가 거기에서 삼십 명을 죽이고 그들의 나들이옷을 벗겨 수수께끼를 알아맞힌 사람들에게 주고는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 왔다.

20. 일이 이쯤 되자 삼손의 아내는 들러리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에게 시집가고 말았다.

교리 요약

* 삼손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는 주님의 권능을 표현한다.

- * 말씀의 힘은 말씀의 글자에 있다.
- * 블레셋이란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 따라 살고자 함을 소홀히 다루는 마음을 표현한다. 이것은 소위 “믿음만으로”라는 것에 해당된다.
- * 가슴속에서 사랑이 떨어져나가면 어떤 실질적인 힘도 없게 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손의 이름이 제기되면 그의 강한 힘과 델릴라의 배신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손을 알고는 있으나 그에 관한 성서의 이야기를 읽지 않아서 그의 힘이 주님께 순종할 때만 있어졌다는 것과 그가 욕망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하찮은 델릴라의 간계에 넘어가지도 않았을 것임을 모르고 있다.

판관기서의 마지막장 마지막 절에서는 “그 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라고 전한다. 우리는 주위에서 이와 비슷한 표현인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한다. 이 말은 꽤 합리적인 것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일 뿐 주님의 진리로 자신의 욕망이나 생각들을 검토해 보지 않는 것으로서 결국에는 핑계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의 왕만을 모셔야 하며,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즉, 우리가 그분의 법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스스로의 법을 자신 속에 갖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무질서가 초래되어 오로지 곤란과 다툼만이 있게 될 뿐이다.

삼손은 나지르인이었다. 그가 나지르인이라는 것은 그가 하느님을 섬기도록 따로 구분 되었다는 것이다. 나지르인으로 들어나는 첫 번째 특징은 머리털을 결코 깎지 않는 것이었다. 주님은 삼손이 이를 준행하고 있는 한 그와 함께 하시며 적군을 무찌를 수 있는 강한 힘을 그에게 주실 수 있었다. 따라서 그의 힘의 근원은 그의 머리털에 있었던 것이다. 그의 첫 번째 승리는 사자를 때려잡는 것이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도 무찌를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뒤 죽은 사자의 몸에서 발견한 꿀이란 시험에서 승리한 후 맛보게 되는 행복을 의미한다.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배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삼손처럼 사자를 잡을 수 있는 힘을 받은 경험과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얻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또한 삼손이 내놓은 수수께끼에 대한 답도 이미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힘은

주님의 진리의 가장 외부적 형체인 말씀의 글자를 준행하는 데에 존재한다. 이 모습은 본문에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그의 머리털에 있는 것으로 의미되고 있다.

제 1반

판관기서의 일반적인 배경과 판관과 왕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그리고 나지르인에 관한 것과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분리시킴”을 의미한다는 것도 설명한다. 또한 머리털이 잘리자 삼손의 힘이 사라졌던 까닭도 살펴본다.

블레셋 족들은 거룩한 땅의 해안가를 따라 살고 있었는데, 본문에서는 그들의 세력이 아주 강해져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시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된다. 주님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 그의 부모들에게 그가 장차 나지르인이 될 것이라고 분부하셨다. 이는 주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하느님을 섬기도록 그를 발탁했음을 의미한다. 나지르인의 특징은 머리털과 탁수염이 자라나는 대로 허용하며, 그 털들을 깎거나 손질하지 않는 것이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감옥에 쳐 넣고 그의 눈을 뽑아 버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머리털은 자라났고 그의 힘은 다시 복구되어갔다. 그러는 동안 블레셋의 군중들이 그들의 신전에 모여 삼손을 조롱하기 위해 감옥에서 그를 꺼내어 신전으로 데려 왔다. 그가 신전을 버티는 두 큰 기둥을 밀자 신전이 무너져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깔려 죽었다. 삼손은 그가 전과같이 그들을 죽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의 마지막 섬김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였던 것이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을 무찌르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었는가?
- *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착각을 했는가?
- *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 그들은 상황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지자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는가?
- * 주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세우셨는가?
- * 본문에서는 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가?
- * 본문에서의 판관은 누구인가?
- * 삼손의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 * 왜 그는 블레셋 영토에 갇혔는가?

- * 그는 길가는 도중 자신의 힘의 위력을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 * 그 다음 그는 돌아오던 길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수수께끼를 내었는가?
- *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답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사람은 누구인가?
- *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고 그의 머리털을 자른 사람은 누구인가?

제 2반

이전에 공부했던 이사야와 아비멜렉 편을 상기해보고, 성서지도에서 블레셋의 영토를 확인해 보자. 삼손의 출신지는 단지파의 영토였음을 언급한다. 그리고 삼손이 가진 힘의 위력을 14장-16장에 걸쳐 살펴본다.

주님은 거룩한 땅을 정복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기적을 수행해 오셨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율법을 공부하는 방법과 그것에 순종해야 함을 당부해 두셨다. 물론 그는 이 임무를 충직하게 수행했다. 그러나 그가 죽은 뒤 백성들은 이 임무를 잊고 말았다. 판관기 제 2장 6-13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후세들이 어떻게 되어갔는지를 알 수 있다. 주님은 백성들이 그분께의 순종을 중단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다. 따라서 그 땅의 적들은 다시 세력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한 새 고향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들은 각자의 개인적인 일들에 몰두하면서 주님의 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기들이 적들을 견제할 수 있고 슬기로우 수 있다고 착각했다. 판관기의 마지막장 마지막 절은 이 백성들의 과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즉, “그 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는 것이다. 이 구절은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어야 하며 그분의 분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 땅의 전역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기는커녕 참으로 나약했다. 시간이 흐르자 적들이 곳곳에서 그들을 성가시게 하며 억누르면서 결국 그들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일이 이쯤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처럼 그들을 도우셨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면 그분이 언제나 우리를 도우심을 의미한다. 주님은 적들이 공격해 온 지역에서 적들에 대항하여 그 지역의 백성들을 이끌 강한 지도자를 들어 세워주셨다. 이 지도자를 판관이라고 부르며, 판관기서는 그들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다.

본문의 시대는 그 땅의 남쪽지역의 백성들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 살고 있는 블레셋에 억눌려 있던 때이다. 성서지도에서 그들이 살았던 장소를 살펴보면 단 지파도 그 옆에 정착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다의 경계선 근처에 소라 지방이 위치해 있고, 그 남서쪽에 담나 지방이 위치하고 있다. 소라는 단 지파에 소속된 지역이고, 담나는 블레셋에 소속된 지역이다. 제 13장에서는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해준다고 약속하면서 그 아이가 비로소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건져 낼 것이라고 말해짐을 볼 수 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남편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제물을 바쳤고, 그 제단의 불을 타고 올라가는 천사를 목격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메시지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천사는 그들에게 그 아이가 반드시 나지르인으로 양육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지르인이란 주님을 섬기는데 바쳐진 사람을 말한다. 나지르인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으며 머리털을 깎지 않는 특징이 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들은 아이를 삼손이라고 이름 지었다.

제 15장에서는 삼손이 행한 많은 공훈에 관하여 언급된다. 이 장을 읽게 되면 블레셋이 그를 두려워하고 미워했던 이유도 알게 된다. 그들은 삼손이 인간의 힘 이상의 것을 가졌음을 알게 되자 그가 사랑한 여인을 통해 그에게 올라미를 씌우려고 했다. 삼손을 배신한 두 번째 여인의 이름은 델릴라였다. 그녀는 삼손에게 힘이 센 이유를 말해달라고 감언으로 설득하여 비밀을 캐냈다. 주님은 삼손이 나지르인의 법에 충실하고 그의 머리털을 깎지 않는 한 그에게 힘을 주실 수 있었다. 그가 머리털이 잘린 후 잠에서 깨어난 다음의 이야기는 판관기 16장 20-31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그가 성장해서 부모를 불쾌하게 만든 요구사항은 무엇이었는가?
- * 그가 담나로 가는데 무엇이 그를 위협했는가?
- * 삼손은 사자를 어떻게 죽였는가?
- * 그는 두 번째 내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 그는 어떤 수수께끼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내기를 했는가?
- *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답을 얻었는가?
- * 삼손은 그 내기에서의 의무를 어떻게 지켰는가?

제 3반

단 지파와 블레셋 그리고 삼손과 그의 머리털에 대한 상응을 살펴본다. 또한 삼손의 수수께끼가 갖는 의미를 우리의 경험을 예로 들어 살펴보도록 한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전역을 규율할 지도자가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백성의 군사력을 집중시킬 조직적인 통제도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지역의 적이 그들의 후손을 못살게 굴고 지배하려고 들면 도움을 위해 주님께 얼굴을 돌렸고, 그때마다 주님은 적들을 격퇴시키기 위해 그 지역의 지파들을 이끌 강한 지도자를 부상시켜 주셨다. 이런 지역적인 지도자를 판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판관들이란 주님께서 우리가 처하는 특정한 시험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이해성에 불러 세우시는 특정한 진리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며 순종해가면, 주님은 언제나 시험을 정복할 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우리가 곤란을 당하는 까닭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지 우리 속에 든 악이 강해져서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순종했을 때, 주님의 권능은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의 적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삼손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삼손이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 한 사자를 맨손으로 갈기갈기 찢었듯이 많은 적들을 해치울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는 자신 안의 낮은 욕망들이 그를 미혹하도록 방치하자 힘을 잃게 되었다. 제 13장은 그의 출생 내력과 그가 준수해야 할 갖가지 사항들에 관하여 알려준다. 그는 단 지파 출신이었다. 단 지파는 우리속의 이런저런 것들 중 계시되는 진리 또는 계시로부터 비롯된 진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을 표현한다.

삼손은 말씀의 글자에 단순히 순종함을 상징한다. 그는 포도주나 독한 음료수(술)의 어떤 것도 마시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런 사항은 진리를 지적으로 파악하는 힘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는 머리털이 자라는 대로 내버려두어야 했다. 머리털은 우리 신체 부분 중에서 가장 적게 생명을 담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머리털은 가장 바깥쪽 곧 외적인 것을 그려주는 바, 말씀의 글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우리가 삼손이라는 인격적 측면에서 배울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말씀속의 글자적인 명령까지 순종해가면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적도 과감히 만나서 해치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블레셋 사람들이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결코 완전히 정복되지 못한 유일한 적으로서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은 강하나 배운 진리에 따라서는 살려고 하지 않는 마음 상태를 표현한다고 설명한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끈질긴 적중의 하나이다.

다시 설명하자면, 올바른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 버리는 시험이 이에 해당된다. 간단한 예로서,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참석하여 진리를 배우며 그 가르침을 재미있게 여기지만 막상 집 또는 직장으로 돌아가서는 배운 것과 무관해질 때가 많다.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각자의 마음과 이해성을 좌지우지했었는지를 자주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의미도 된다.

삼손은 블레셋 출신의 아내를 원했다. 이는 진리에 대한 지식만을 요구하는 욕망에 시험된 모습을 의미한다. 본문 4절을 보면 삼손이 그런 아내를 원하도록 허용된 것은 사실 주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마련하시려는 것”이라는 섭리인 것이다. 블레셋 영토의 포도밭에 있는 어린 사자란 앞서 블레셋에 대해 설명한 바대로 지식의 충족이라는 수준, 즉 피상적으로 지적인 것을 생활에 접근시켜 보려는 시험의 강력한 힘을 그린다. 삼손은 이 사자를 때려 눕혔고, 후에 죽은 사자 몸에서 꿀을 발견했다. 꿀은 건강에 좋으면서도 단 식품인 바, 이는 올바른 것을 행함에서 오는 기쁨을 의미한다. 삼손의 도움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풀 수 없었던 수수께끼란 우리에게 “시련으로부터 선한 것을 얻고 삶의 투쟁에서 행복을 끌어내는 것은 가능한가?”라고 영적으로 묻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에게 닥치는 시험을 극복하는 데에 주님께 서 주시는 힘을 사용해본 사람들만이 위의 질문에 대한 진정한 답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삼손은 블레셋 족들의 간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레셋의 아내를 원하고 있었다. 삼손과 델릴라에 관한 이야기는 16장에서 기술되는데, 그 이야기는 매우 강력하여 배신하도록 미혹시키는 것들의 상징 중 하나로서 우리에게 인상 깊게 기억되고 있다. 이 세상 모든 것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배신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행함 없이 지식을 사랑하는 것이다. 삼손의 머리털이 잘리지 않았다면 블레셋의 낚시꾼이 그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할 수 없었음은 당연지사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있는 한 안전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때라도 계명을 거절하게 되면 악이 우리를 동여매게 되고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눈이 빠진 장님이 되게 하며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야 할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판관 =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시험에 대항하기 전에 강건케 되도록 주님께 의해 우리의 이해성에 세워진 특정한 진리

삼손 = 판단, 좋은 측면에서는 계시의 진리를 인식함

블레셋 = 진리에 따라 살겠다는 의도 없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
머리털 = 삶의 가장 바깥형태 또는 말씀의 글자
사자 = 힘
꿀 = 의를 행함에서 오는 기쁨 또는 달콤함

제 4반

자신의 선함과 영적인 힘을 과신하는 어리석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위험성을 주로 언급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들이 좋아서 합리화시키는 위험과 이런 어리석음과 위험성으로부터 자신을 수호하는 유일한 길은 말씀의 글자임을 설명한다.

판관기 2장 7절 이하에서는 판관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여호수아 생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줄곧 야훼를 섬겼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해 주신 큰일을 목격한 장로들이 살아 있는 동안은 줄곧 야훼를 섬겼다... 야훼를 모르는 새 세대,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모르는 새 세대가 비롯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들을 섬겨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못할 짓들을 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우리가 거둬나는 삶을 막 시작하려 할 때는 광신적인 행동이 보일 정도로 주님을 섬기는 데에 열심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자신이 새로운 삶의 틀을 정립했다고 판단한 뒤 자기 확신으로 빠지거나 방심하는 버릇이 생겨 세상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느낌의 충동을 조금씩 허용하려고 든다. 그러면 우리속의 영적인 적들은 비좁은 틈을 타고 다시 강세를 얻게 되어 우리 인격의 통제탑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판관들은 주님께서 때 맞춰서 그 땅의 곳곳에 들어 세운 자들이다. 이들은 우리가 만나는 특정한 시험에 저항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상기시켜 주는 특정한 진리들을 상징한다. 판관의 시대란 우리가 자신의 약한 정도와 주님의 인도하심의 절실함을 경험으로 배우기 전에 있어지는 삶이 흔들리는 시기를 의미한다.

거룩한 땅의 남서부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은 블레셋이었고, 본문 시대의 판관인 삼손은 단 지파의 출신이었다. 좋은 의미에서의 단이란 우리가 하느님을 믿으며 선한 삶을 이룩하고자 하는 우리의 확신과 인식을 표현한다. 삼손은 나지르인이었다. 나지르인이란 “분리된” 사람 또는 주님을 특별하게 섬기도록 따로 떼어 둔 사람을 의미한다. 나지르인의 특징은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고 머리털을 깎지 않는 것이었다. 주님은 이 표시를 준행하는 한 그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뒤의 참고 문헌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블레셋 족이란 진리를 알고자 하나 알게 된 진리에 따라서는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표현한다. 따라서 위의 설명을 참조하면 블레셋을 휘어잡기 위해 단 지파 출신인 삼손이 등장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삼손의 이야기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이야기들 중의 하나이다. 삼손의 힘은 그의 머리털에 있었다. 즉, 삶을 규정하는 법에 순종함으로부터 힘이 있었다는 것이며 그의 힘이 단순한 인격 속에 있었다는 뜻이다. 삼손에게 닥친 시험은 두 여자였는데, 이 두 여인들은 모두 블레셋 출신이었다. 여자란 우리 삶의 의지 부분을 표현한다. 삼손의 주님에 대한 성실함은 삼손의 애정애대 대고 계속 졸라댄 두 여자의 호소력에 의해 좀먹어 들어가 닳아지고 만다.

삼손이 처음 블레셋 영토에 갔을 때 그에게 대든 사자란 삼손을 굴복시키려는 시험의 힘을 표현한다. 사자를 때려잡은 승리란 시험에 잘 견뎌내는 것은 주님의 도움으로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블레셋 영토에 내려가면서 죽은 사자의 몸에서 발견한 꿀이란 시험의 극복이 언제나 만족을 가져옴을 되새겨 주는 것을 말한다. 꿀이란 의를 행함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상징한다. 천국은 진리를 알고 그것에 따라 사는 기쁨의 상태로 이뤄진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한 땅(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하는 것이다. 사실 삼손은 위의 사자에게서 있었던 경험과 그 직후에 따라오는 여자와의 사건에서의 경험으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었어야 했던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익히 아는 바대로 삼손은 또 다시 같은 시험에 빠지고, 심지어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 이야기가 바로 세상에 잘 알려진 삼손과 델릴라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제 16장에 서술되어 있다. 델릴라는 삼손의 힘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갖가지 애교로 그를 미혹하여, 결국 그가 잠자는 동안 그의 머리털을 잘라 버렸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붙잡았고 그의 눈을 뽑아 버렸다. 이것은 우리가 계명의 글자에 대한 순종을 포기하는 쪽으로 배신되어 가고 있음을 모른 척하고 방치하면 갖가지 종류의 거짓 추론에 동여매어지게 되어 결국에는 옳고 그름을 식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상실하고 만다는 것을 의미한다. 철학이나 심리학의 모든 구조는 마치 블레셋 영토에 널려 있는 물고기 신상인 다곤의 모습과도 같이 인간의 지적인 것 그리고 그 지적인 것의 성취를 찬양한다. 이런 학문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혹은 단순 소박한 사람들을 여흥거리 정도로 여기며 자신들의 흥을 얻기 위해 사용한다. 이른바 16장 25절에서 “흥을 돋우게 삼손을 불러내라”고 하며 장님이 된 삼손을 블레셋이 여흥을 돋우는 도구로 사용하려드는 모습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16장 22절에서는 “그러는 동안 잘렸던 그의 머리가 점점 자랐다.”라고 전한다. 이 구절은 우리가 자신의 우둔함을 직시하여 삶의 원칙이 주님의 계명임을 받아들이는 곳으로 되돌아가 다시 한 번 전력을 다해 계명을 지키려는 각오로 돌진하게 되면 다곤 신전을 버티게 해주는 두 큰 기둥이 힘없이 주저앉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6장 28-30절에서 삼손의 마지막 소원기도와 노력을 읽으며 본문의 공부를 마무리 지어보자.

“ ‘주 야훼여, 한번만 더 저를 기억해 주시고 힘을 주시어 제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복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틴 기둥 하나에는 왼손을 대고 다른 하나에는 오른손을 대고 부르짖었다. ‘블레셋놈들과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밀자, 그 신전은 무너져 거기에 있던 추장들과 사람이 모두 깔려 죽었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제 5반

판관 시대의 의미, 삼손의 수수께끼, 그의 힘과 약점 그리고 블레셋의 시험에 관한 일반적인 의미를 주로 살펴본다. 그리고 ‘말씀의 글자는 그 속에 든 모든 영적인 지식과 힘을 떠받치는 기반이요 그릇이며 기초다’라고 한 스웨덴북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함을 설명한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야훼를 경외하며 일편단심으로 그를 섬기시오(여호수아 24:14).”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땅 내에서 각 지파에게 분할된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다짐받던 내용의 일부이다. 그는 백성들에게 각 지파 내에 잔존하고 있는 적과 싸워 그들을 모두 멸절시키라고 단단히 당부했다. 판관기의 첫 장은 모든 지파들이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긴 그들의 임무를 성취하는 데에 얼마나 무관심했었는지를 보여준다. 오직 한사람, 즉 갈렙만이 자신이 받은 상속지를 완전히 정복한 것으로 보인다. 「요한계시록 설명」 제 768-21항을 보면, 갈렙은 “교회로 입문한 사람들”을 의미함을 알게 된다(「천국의 신비」 제 2909항을 보면 헤브론의 역사와 그 의미에 관한 간단한 요약 발견할 수 있다). 그 외 나머지 백성들은 더 이상 적들이 자기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음 놓고 자기들의 편안에만 관심을 두었다. 판관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거듭나기 시작한 후에라도 우리 자신의 영적인 안전이 보장될 만큼 정착된 상태에 도달되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 참석하니까 나는 구원될 거야.”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3절의 “만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는지 집주인이 알고 있다면 그는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구절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면 이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자만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배신하도록 한다. 잠언서 16장 18절의 “거만엔 재난이 따르고 불손엔 멸망이 따른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생각해 보자. 거만과 불손을 방치함에 따라 우리속의 적들은 다시 세력을 얻기 시작하고,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의 늪지에 또 다시 폭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거만과 불손을 뿌리째 뽑아야 하며 계속 뽑아야 한다는 교훈을 배우는 데에 이처럼 꽤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 판관은 전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아니었고, 다만 각 지역의 곳곳에서 간간히 튀어나오는 적들을 부수기 위해 주님께서 들어 세운 지역적인 지도자들이었다. 따라서 판관들은 우리가 부딪친 특정한 시험에 싸워 이기도록 돕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이해성 안에 들어 세워 주신 특정한 진리들을 표현한다. 앞서 우리는 판관들 중 드보라와 기드온 그리고 압다에 대해서 공부했다.

본문에서는 판관인 삼손이 언급된다. 그는 블레셋 족에 대항하여 공훈을 세운 인물이었다. 블레셋 족에 대해서는 「이사악과 아비멜렉」에서 공부한 내용을 상기해 보도록 하자. 이들은 거룩한 땅의 서부 경계선을 따라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근원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다르다. 어떤 학자는 그들이 아리안족 출신의 해적들로서 가나안족을 누르고 강제로 정착한 민족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창세기 10장 14절에서는 그들이 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 시대 때에 정착된 민족이 되었다고 한다. 아브라함과 이사악은 모두 블레셋 영토에서 한 때를 보내면서 그들과 조약을 맺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시대 때에 곧장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이 허락되지 않았었다(출애굽기 13:17). 전시대를 통해 블레셋 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가신 민족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종종 블레셋에게 응징을 가하며 그들의 견고한 성읍을 빼앗기도 했지만 그들을 뿌리 채 뽑지는 못했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의 영적인 평화에 대항해서 항상 존재하는 적이라는 것과 그들과의 타협은 시험만을 야기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평화를 위해서 그들과의 타협이 아닌 그들을 짓눌러야 함이 함축되어 있다.

스웨덴붉은 블레셋이 의미하는 적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보여준다. 이른바 블레셋 사람이란 믿음과 이타애에 관한 지식에 대한 앎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타애에서 분리된 믿음 속에 있어서 믿음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며 매우 힘모하나 알게 된 믿음의 지식에 따른 삶이 없는 자들이다. 결과적으로 믿음만으로 구원된다고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천국의 신비 제 8093항). 이 교리는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에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루터조차도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되기 위해서 이 교리를 채택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 뒤 세월이 흐르면서 이에 관한 믿음의 논쟁에 그 역시 휘말렸다. 이 교리가 바로 기독교의 황폐화를 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스웨덴북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이 교리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이 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구원을 위해 그분을 찾는 한 별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우리는 때로 이 교리가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교리를 노골적인 형태로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교리에 대한 명백한 발표들로 인해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교리의 어떤 형태에서든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타교회의 교인들과 갖가지 비평들에 관하여 말하거나 그들의 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슬그머니 뒤로 빠질 때에 그들과 격리되는 것처럼 느끼며 어딘가가 비어 있는 듯이 느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블레셋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지닌 자존자대나 자아충명의 자량은 믿음 만으로의 교리에 대한 귀에 찌른 표시 같은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알고 그분의 방법을 배울수록 자신이 결점이 많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배운 진리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행함 없이 오직 앞에만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블레셋의 시험이다.

그래서 본문같이 블레셋에 대항하여 삼손이 판관으로 일으켜 세워진 것이다. 그는 단 지파 출신이었다. 단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선한 삶을 영위해야 함을 확신하며 인정하는 것을 표현한다. 이것은 거듭 나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있어지는 일반원리이다. 삼손은 블레셋에 대항하여 특이한 승리들을 얻었다. 스웨덴북은 「성경에 관한 교리」 제 49-2항에서 “진리의 말단에 속하는 것들로부터 오는 주님의 권능이 유대교회 내에 있는 나지르인에 의해 표현되었다. 그래서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나지르인이었다고 말해지고, 그의 힘은 그의 머리털에 있었다고 말해진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계시록 설명」제 619-18, 1086-2항에서 이러한 생각을 좀 더 상세히 삼손의 면모와 더불어 상술하며,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가 말단에 속하고 그 말단 안에 신성한 진리의 권능이 거주하고 있다고 말한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결연을 맺도록 유혹되었고, 한번 이상이나 그들에게 당했다. 이와 같이 지식에 대한 우리의 애정은 종종 우리를 배반한다. 우리는 배운 지식을 사용하려는 생각 없이 많은 지식을 배우게 된다. 이것이 삼손을 위협한 어린 사자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극복해 내면 삼손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발견한 꿀로 그려지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 기쁨은 배운 진리를 삶에 응용함으로써만 오게 되는 기쁨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수수께끼를 결코 풀지 못했다. 의를 행하려는 노력이 없는 사람은 의를 행함 속에 기쁨이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한다는 말이다. 삼손은 블레셋 출신의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데에 푹 빠져 있었다. 우리는 우습게도 세상과 욕정 그리고 악마에 매력을 느끼고, 올바른 길 대신 쉬운 길을 자주 선택하게 된다. 한마디로 쉽게 미혹된다는 것이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모든 세부사항들은 그의 이야기가 주는 직접적인 교훈 외에도 그 안에 있는 상응이나 유용성들 때문에 많은 흥미를 자아낸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인상 깊은 으뜸가는 진리는 삼손의 힘이 그의 머리털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머리털은 신성한 진리의 말단에 상응된다. 그래서 주님의 권능은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에서 충만한 상태로 존재한다. 이런 상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머리를 망신거리로 생각하게 되었고,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아 꺼져라”라고 놀린 아이들이 암곰에게 찢겨 죽었던 것이다. 세레자 요한을 포함해서 많은 예언자들이 털이 많은 의복을 걸쳤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 1장 14절에서 “주님의 머리털은 양털같이 또는 눈같이 희다”라고 기술되기도 하다. 말씀의 글자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그분에게서 권능을 받는 유일한 수단이다.

우리는 마음속에 저장한 말씀의 글자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심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매일 읽음으로써 그분의 현존과 권능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온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게다가 주님은 그분의 재림에서 말씀을 여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이고 천적인 사항들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여 주님께서 이를 삶에 꾸준히 응용해 갈 수 있도록 섭리해 두셨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받쳐주며 담고 있고 기초가 되는 것은 말씀의 글자임을 다시 강조해둔다. 우리는 말씀의 글자를 영적 의미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는 스웨덴볼이 여러 번 강조한 사항이기도 하다. 즉, 삼손의 힘은 그의 머리털이 잘리자 사라지고 말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새교회인 특히 영적 의미를 많이 다루는 새교회를 위한 특별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 지식 속에서의 기쁨이 모든 영적 힘의 근원에서 분리되도록 미혹당하는 일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성경에 관한 교리」 제 49항: “신성한 진리의 권능은 특별하게는 악과 거짓, 즉 지옥에 대항하도

록 방향을 잡고 있다. 이에 대항하는 싸움은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에서 온 진리가 담당하게 된다. 더구나 주님은 인간 속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 이유는 인간이 재구성되고 거듭나는 것, 즉 지옥으로부터 꺼내져 천국으로 입문하는 것은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에서 온 진리를 수단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주님의 권능이 진리의 말단적인 것들에 있음이 유대교회 내의 나지르인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삼손은 모태로부터 나지르인이었고, 그의 힘은 그의 머리털에 있었다고 말해지는 것이다. 말씀에서 ‘머리’가 의미되는 바를 알지 못하면, 누구도 나지르인의 규칙이 제정된 까닭과 삼손의 힘이 그의 머리털에 있었던 이유를 알지 못할 것이다. ‘머리’는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천사와 인간들이 주님에게서 받는 천국적인 지혜를 의미한다. 따라서 ‘머리 부분의 털’은 말단에 속한 것들 안에 있는 천국적인 지혜와 말단에 속한 것들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신성한 진리의 권능 또는 말씀속의 권능이 글자적인 의미 안에 존재하는 까닭은 거기에서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왕국 속의 천사들과 지상의 사람들이 더불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 후손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가?
- 2)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 3) 그들이 주님께 얼굴을 돌릴 때 그분은 어떻게 도우셨는가?
- 4) 삼손은 어느 지파에 소속되는가?
- 5) 그가 장차 어떤 신분이 된다고 그의 부모에게 말해졌는가?
- 6) 나지르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 7) 삼손이 사는 지역에서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위협했는가?
- 8) 삼손의 힘의 비밀은 무엇이었는가?
- 9) 그의 약점은 무엇이었는가?
- 10) 그가 처음 불레셋 여자에게 갈 때 드러난 그의 힘은 무엇이었는가?
- 11) 그는 두 번째 방문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12) 그는 어떤 수수께끼를 불레셋 사람들에게 주었는가?
- 13) 그 이후의 삼손의 삶과 죽음은 어떠했는가 ?

- 14) 불레셋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삼손의 힘이 그의 머리털에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6) 삼손의 수수께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질문의 답

- 1) 하느님을 잊었다 2) 적들이 봉기했다 3) 판관들 4) 나지르인
- 6) 머리털을 깎지 않음 7) 불레셋 8) 머리털 9) 여인, 자만
- 10) 사자를 죽임 11) 꿀
- 12)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 13) 머리털이 잘리고 눈이 빠졌다
- 14) 진리를 알고자 하나 그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은 자
- 15) 말단적인 것들에 있는 권능 16) 행복은 투쟁으로부터만 비롯된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

머리말

먼저 사무엘 이전의 판관들과 판관인 사무엘의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무엘의 출생과 부르심을 살펴보면서 본문의 공부를 시작한다.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8장

8장: 1.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지자 두 아들을 판관으로 임명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2.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였다. 이들은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3.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 잇속만 차려 뇌물을 받고는 법대로 다스리지 못하였다. 4.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 곳에 모여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 가 5. 건의하였다. “당신은 이제 늙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으니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을 세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6. 사무엘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 주시오”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언짢아 야훼께 기도하니 7.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백성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 주어라. 그들은 너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모시기 싫어서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8.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려 내온 이후 이날 이때까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런 짓을 해왔다. 너한테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다. 9. 그러니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 주어라. 그러나 엄히 경고하여 왕이 그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일러 주어라.” 10.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달라는 백성에게 야훼께서 하신 말씀들을 낱낱이 일러 주었다. 11. 사무엘은 이렇게 일러 주었다. “왕이 너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알려 주겠다. 그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대나 기마대의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12. 천인대장이나 오십인대장을 시키기도 하고, 그의 밭을 갈거나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보병의 무기와 기병의 장비를 만들게도 할 것이다. 13.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도 하고 요리나 과자를 굽는

일도 시킬 것이다. 14.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좋은 것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 곡식과 포도에서도 십 분의 일세를 거두어 자기의 내시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16. 너희의 남종 여종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좋은 소와 나귀를 끌어다가 부려 먹고 17. 양떼에서도 십 분의 일세를 거두어 갈 것이며 너희들마저 종으로 삼으리라. 18. 그 때에 가서야 너희는 너희들이 스스로 뽑아 세운 왕에게 등을 돌리고 울부짖겠지만, 그 날에 야훼께서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19.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 주었던만 백성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을 모셔야겠습니다. 20. 그래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되지 알겠습니까? 우리를 다스려 줄 왕,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이끌고 나가 싸워 줄 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1.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나서 야훼께 아뢰니, 22. 야훼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 주어라”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모두들 자기의 성읍에 가 있으라고 일렀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각 상태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다.
- *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변화과정을 여실히 보여 준다.
- *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주시는 원리들을 이해하고자 함은 당연한 바램이다. 그러나 이런 바램의 혜택을 즐기려면 그 뒷면인 어려운 점을 반드시 인식해 두어야 한다.
- * 스스로 어떤 것을 해보고자 하는 선택에는 주님을 거절하는 면이 약하든 강하든 언제나 있게 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그 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라고 함은 앞서 공부했던 판관시대를 묘사하는 대표적인 구절이다. 이런 백성들의 상태는 그들을 약하게 만들었고, 그 땅의 적들과 타협점을 모색해 가도록 유도했다. 결국 그들은 적들에게 짓밟히는 고난을 체험하고 말았다. 이때마다 비로소 주님을 섬기는데 헌신한 이들, 즉 판관들이 들어 세워졌는데, 마지막 판관이 바로 사무엘이다. 그는 처음부터 그의 부모에 의해서 주님께 바치겠노라고 서원되어 있었고, 그

약속대로 늙은 대사제 엘리의 감독하에 실로의 성막에서 양육되었다. 주님은 그가 어렸을 당시 한밤중에 그를 부르셔서 엘리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주셨다. 그 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써 그가 한 모든 말이 그대로 이뤄지게 하였고,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야훼께서 세우신 예언자로 받들게 되었다. 따라서 마지막 판관인 사무엘은 전투지도자로서의 판관이 아닌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판관이었다. 또한 그는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인정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서 인정되었던 판관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그 가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는 자기의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오곤 하였다.”라고 성서에 기록된 것이다.

그러나 본문의 첫 절에서 전하는 바대로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지자 두 아들을 판관으로 임명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두 아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제 잇속만 차렸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 주시오”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자신들을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는데, 이는 그들이 주변 나라들의 방법을 상당히 좋게 여겼다는 말이다. 당연히 사무엘은 이 요청에 불쾌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가 야훼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하고 명함심과 더불어 엄히 경고하여 왕이 그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알려주도록 하라고 분부하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며 하느님이 계시며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함을 믿고 성경이 어찌됐든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이 상황이 바로 본문에서 사무엘을 주님의 예언자로 인정하는 모습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 후손들이 중요하게 여겼듯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요구는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 즉,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것들이 없고 당장 성취되는 것도 없는 것처럼 여길 때 그리고 이런 것이 하루 이틀 지속되다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취에 그대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강하게 부각시켜 줄 어떤 대단한 원리를 원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것이 본문의 표제인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담고 있는 의미이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 미래의 향방을 어떻게 이끌든지 간에 우리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모든 약함을 이해하시며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실 뿐이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선택 앞에 놓이게 되는 곤경에 대해 경고 해주시며, 그 선택으로 인한 실수까지도 이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제 1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와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를 상기해보는 기회를 갖는다.

사무엘은 마지막 판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판관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사무엘외의 판관들은 한 지파만을 다스렸지만 사무엘은 모든 지파들이 인정하는 지도자였다. 그 이유는 사무엘의 시대 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인도자로 주님을 찾게 될 때만이 그들이 강건했음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무엘은 군사지도자 대신 종교지도자였던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사무엘은 어디서 성장했는가?
- * 주님은 언제 사무엘을 부르셨는가?
- * 사무엘의 집은 어디였는가?
- * 그가 나이 들었을 때 백성들을 불쾌하도록 한 일은 무엇인가?
- *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
- * 이 요청에 사무엘은 기뻐했는가?
- * 주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분부하셨는가?
- *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가?
- *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믿었는가?
- * 백성들은 어떤 근거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는가?

제 2반

정부 형태의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재고해 본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우리의 생활과도 깊이 관련됨을 기억한다.

사무엘은 판관시대의 마지막 판관이었다. 그가 다른 판관들과 달랐던 사항은 그가 군사적인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도움 없이는

잘 살 수 없다고 실감하기 시작했다. 물론 극소수이지만 일부 백성들은 자기들보다 주님이 더 슬기로우심을 확신하고 언제나 그분께 신신했다. 우리는 1장을 통해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의 주님에 대한 예배가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 성막의 예배를 관장한 대사제는 엘리였는데, 그는 아주 나이가 많았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그의 어머니는 주님께 아들을 바치겠다고 서약했었는데, 그녀는 약속한 바대로 그를 실로의 성막에 데려다가 성막에서 양육되도록 했다. 그 후 주님은 그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밤중에 그를 불러서 엘리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다. 이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사무엘상 1-3장을 읽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사무엘상 3장 19-20절에는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와 한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야훼께서 세우신 예언자로 받들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어느 한 지역이 아닌 이스라엘 전 지역의 판관이었던 말이다. 사무엘상 12장 1-5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선하며 의로웠는가를 알 수 있다. 본문의 시대는 사무엘이 고령이 된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에야 비로소 그의 리더십 하에서 편치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제 7장 마지막의 몇 구절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과히 멀지 않은 라마에 살면서 오늘날의 순회판사가 여러 지방을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판결하듯이 베텔과 길갈 그리고 미스바를 순회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전 국토를 순회한 것은 아니었다.

히브리라는 국가를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자. 이 백성들의 첫 지도자는 아브라함이었다. 그는 자기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부름을 받고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 그 뒤 이사와 야곱 역시 백성들을 통치할 권한을 주님께에서 직접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오래 체류하는 동안 그들의 지도자 대신 파라오의 통치하에 있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을 세워 달라고 하는 요구에 상당히 언짢아했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주님께에서 그에게 “그들은 너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모시기 싫어서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으로부터 추측할 수 있다. 백성들은 자기들을 통치하는 누군가가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님께 의해 임명되는 대신 그들 스스로 누군가를 통치자로 뽑기를 원했다. 이른바 타민족들이 하는 것과 같은 왕의 통치를 원했다는 말이다.

위에서 대략적으로 열거된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어져 내려 온 이스라엘의 긴 역사는 사실 우리 삶의 긴 역사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유아기라는 어린 시절을 거치는데, 이 성장기의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 의해 통제된다. 즉, 하느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사람들인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타인에 의해 통제 받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의해 스스로를 통제하기를 원하는 시기에 접어든다. 이런 시기들이 판관 시대와 비슷한 것이다. 우리는 이 시기동안 자신의 판단에 의해 선택된 갖가지 것들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는 자승자박하는 모습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런 시기의 뒤죽박죽 되는 삶 속에서 내려지는 결론은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자신에게 더 안전하다는 것이다. 이 시기가 바로 사무엘의 시대에 해당된다. 어찌됐던 간에 세월은 흐르고 우리는 계속 성장하여 아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발로 굳게 세상에 서 보길 원하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통치해나갈 것인가를 선택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을 인도할 원리를 스스로 선택하여 이해하려고 원한다. 이것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의미하는 바다. 차후 이 백성들이 선택한 첫 왕이 어떤 종류의 왕이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의 공부를 정리해 보자.

- * 사무엘은 자기 밑에 누구를 판관으로 세웠는가?
- * 그의 아들들은 어디서 판결을 했는가?
- * 그 아들이 어떤 불의를 저질렀는가?
- *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 * 백성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사무엘은 기뻐했는가?
- *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사무엘은 왕이 있게 되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거라고 경고했는가?
- * 그래서 백성들은 마음을 바꾸었는가?
- * 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는가?
- * 그는 어떻게 선택되었는가?
- * 누가 모세를 따랐는가?
- * 여호수아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
- * 판관들은 어떻게 선발되었는가?
- * 사무엘은 어떻게 선택되었는가?

제 3판

판관시대에서 열왕 시대로 접어드는 변화의 의미와 그 변화의 연결 고리인 사무엘의 의미를 주로 살펴본다.

먼저 사무엘의 주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그의 부모들은 실로에 있는 성막에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러 다녔는데, 그들은 당시 일부 남아있던 신실한 사람들에 속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그곳에서 아들을 갖게 해 달라고 주님께 서원해 왔고, 기도가 응답되면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노라고 약속 했었다. 이러한 연유로 사무엘은 상당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실로의 성막으로 데려와져 늙은 대사제 엘리에게 맡겨져 성막의 일을 도우면서 자라게 되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밤 사무엘을 부르셔서 엘리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주셨다. 그런 다음 주님은 3장 19-20절에서 알 수 있는 바대로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함께 하시며 그가 한 모든 말이 그대로 이뤄지도록 하였고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야훼께서 세우신 예언자로 받들도록 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전에 있었던 판관들과는 아주 달랐다. 즉, 그는 군사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였으며 전 국토가 인정하는 판관이었다는 것이다. 판관이란 주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특수한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우리의 이해성 속에 불러 세운 그분의 특수한 진리들을 표현한다. 그러나 오직 마지막 판관인 사무엘만이 전체적인 면으로서의 말씀을 표현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곤경에 처하여 막다른 골목이게 된 자신을 발견하여 자신의 판단이 명석하지 못함을 깨닫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동안에는 일이 잘되어 간다. 한 마디로 삶이 편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편해진 후 또 다시 주님을 잊어 고난에 빠지고 주님을 찾는 반복을 거듭하다보면 우리의 실제 고난은 쓰레기장의 퇴적물같이 쌓이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침내 삶의 사소한 부분에 대한 지침까지도 주님께 구하지 않으면 어떠한 안전이나 평화도 보장될 수 없다고 깨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전 국토의 백성들이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집중된 사무엘상 전반부 이야기의 배경이 갖는 간략한 의미일 것이다.

사무엘은 한 시대를 끝내고 다른 시대를 시작하고 있다. 그의 삶은 두 시대를 하나로 엮어주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우리 삶 속에서 부단히 일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닥쳐 올 것들을 보고 계신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가 주님께 의존했었던 것과 같은 상황으로 일단 되돌아 갈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관관시대로 그려진 무관심의 시대를 이어서 전 백성의 심령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집중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 때 주님을 떠났던 이가 그분께로 되돌아올 때 어린이와 같은 마음인 단순한 순종심과 의존심을 가지고 그분을 다시 모시는데 만족해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후 그가 주님께 꾸준히 자신의 방향에 대한 설정을 의뢰해야 한다고 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스스로 자신의 길을 위한 지침들을 이해하여 채용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속성인 것이다. 이런 바람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 달라는 백성들의 상태이다. 왕이란 통치하는 진리를 상징한다. 이 진리는 각각의 진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진리인 일반적인 원리를 뜻하는 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조직화되도록 하는 원리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 달라고 한 이유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다스려줄 왕,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이끌고 나가 싸워줄 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대답에서 알 수 있다. 사실 다른 국가들은 모두 왕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모든 이들이 각기 삶을 통치할 일반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향간에 떠도는 말 중 “우선 나부터 살고 봐야 할 게 아닌가?” 혹은 “태어나게 한 이상 세상이 나도 살 수 있게 해 줄 의무가 있어.” 등과 같은 표현은 이기적인 원리일수도 있다. 이런 원리들은 거룩한 땅 내에 있는 이스라엘 적들의 왕이 표현하는 바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적에게 강하게 맞서도록 해줄 왕을 기대했다. 그들은 사무엘의 입을 통해 날마다 받게 되는 주님의 명령에 단순히 순종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7절에서 주님이 사무엘에게 “그들은 너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모시기 싫어서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정말로 신실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매일 지도 받기 위해 지혜로운 사랑을 베푸는 부모님을 찾듯이 주님을 찾는 것에 만족해하는 때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우리의 젊은 시절에는 흔히 올 수 없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며, 그 길의 상태가 바뀌어 질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다. 주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 주어라”라고 분부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이 백성들이 미처 알지 못한 사항들이 있다는 것이다. 주님은 이 백성들이 실제로 가져야 할 통치자의 종류를 그들의 경험을 통해 배워지도록 그들에게 선택의 방향을 주셨다. 새교회에서 가진 기본적인 가르침 중의 하나는 주님이 결코 우리가 가진 선택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바를 명백히 말씀해주시고 고 피해야 할 모든 것들을 경고해 주신 뒤 우리로 하여금 우리 뜻대로의 길과 주님의 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남겨 두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9절에서 주님이 사무엘에게 “그러니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 주어라. 그러나 엄히 경고하여 왕이 그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일러 주어라”라고 분부하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치할 어떤 원리를 선택하는 순간 그 원리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에 상관없이 그 동안 즐겨 왔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함을 예상해야 한다. 그 포기의 내용물들이 10-18절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는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다 배울 때까지 진리는 우리에게 험한 공사장의 십장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의 전 생애에 거쳐 있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에 대한 우리의 첫 이해가 결점뿐이어서 우리의 삶에 골칫거리만 더해 주는 실수의 연발탄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차후 공부과정에서 이를 정정할 가능성을 찾도록 해주시는 주님의 은택을 맞볼 수 있을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사무엘 = 전체적인 면에서의 주님의 말씀

왕 = 통치하는 원리

제 4반

왕을 요구함에 대한 의미를 주로 살펴본다. 리더로서의 진리가 선에서 분리되면 역경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를 상응으로 해석해 본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첫 번째 이해가 의존할 것이 못 된다는 것과 사무엘의 역할도 확실히 기억해 둔다.

사무엘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님께 바쳐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그가 아주 어렸을 때 실로의 성막에 있는 늙은 대사제 엘리에게로 그를 데려가 성막의 일을 도우면서 양육되도록 했던 것이다. 주님이 한밤중에 사무엘을 부르셔서 엘리에 관한 예언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 엘리는 사무엘이 주님의 특사라고 인식했다. 그리고 3장 20절에서 사무엘은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가 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야훼께서 세우신 예언자로 받들게 되었다”라고 말해준다. 따라서 사무엘은 여느 판관들이 특정한 지역에서 지도자로 부상했던 것과는 달리 전 국토의 백성들에 의해 주님의 예언자로 인정된 판관이 된 것이다. 사무엘의 주거지는 실로와 후기 예루살렘이 있게 된 성읍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라마인데, 이곳은 거룩한 땅의 중심부이다. 그리고 그는

현대의 순회 판사같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고 판결해 주었다.

사무엘 지도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자기들을 인도하도록 선택한 한 사람을 통해 받게 되는 주님의 방침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쪽으로 복귀했다. 사무엘 이전의 판관들은 개별적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했던 개별적인 진리를 표현한다. 반면에 사무엘은 전체로서의 말씀을 표현한다. 우리는 자신에게서 영적인 판단과 힘이 나온다고 믿고 그것을 사용해 본 결과 시험을 이기는데 부적당함을 발견하여 주님께 의존하는 데로 되돌아간 후에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지시사항들을 큰 불만 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지시를 받는 것에 만족하게 된다. 이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채택해야 하는 태도임을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께서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구절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능력에 만족하게 될 때 그들 속의 자연적인 경향은 어린이와 같은 순종으로 주님께 단순히 순종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스스로의 생각대로 세상적인 방향뿐만 아니라 영적인 방향까지도 결정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갈망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제에 담긴 의미이다.

스웨덴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성한 선의 직능은 사제로 표현되고 신성한 진리의 직능은 왕으로 표현된다.’고 설명한다. 사실상 선과 진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이고 하나로서 그분으로부터 나와 이러한 직능이 수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로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도록 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본문의 주역인 사무엘이라는 인격은 선과 진리가 하나 되어 있음을 표현한다. 그러나 위 문단에서 설명했던 바대로 우리 속에는 이 세상에만 집착하여 생각하는 경향성과 “제 잘난 멋에 사는 것 아니냐?”와 같이 스스로를 은근히 드러내고자 하는 경향성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 된 형태로서의 선과 진리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진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설령 우리가 진리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순간이라도 그렇다는 말이다. 즉,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 쪽으로 맞춰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경험을 통해 배워질 수밖에 없다. 경험이나 체험이라는 것은 펜을 가지고 종이 위에 쉽게 써내려가듯 쉽지는 않다. 경험은 고통과 험난한 여정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 맛볼 수 있는 인생의 모든 상황이 포함된 것임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의 본성을 다 알고 계신 고로 각자의 본성에 맞춰 인생을 설비해 주신다. 그래서 본문에서 백성들이 사무엘을 거절했다고 하지만 사무엘이 주님의 예언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말해지는 것이다. 주님은 사무엘에게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고 분부하셨다. 주님은 그들이 기꺼이 순종한 첫 왕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후 공부하게 될 것이다.

사제의 직능에서 왕의 직능이 분리됨은 유대인의 역사에서 또 다른 시대로 시작됨을 의미한다. 우리는 성경의 각 시대 속에서 선과 진리 또는 이타애와 믿음의 분리에 따른 표현물들이 있어 왔음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진리를 사랑할 때까지 진리에 의해 인도되어야만 한다. 사실 인도라는 말보다 끌려 다녀야 한다는 표현이 더 옳을지도 모른다. 즉, 진리는 공사장에서 눈을 부릅뜨고 일을 독려하는 심장과도 유사한 것이다. 오직 주님만이 진리가 심장과 같음을 알고 계셔서 본문 9절에서 사무엘에게 “그러나 엄히 경고하여 왕(진리)이 그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일러주어라”하고 분부하셨던 것이다. 우리가 우리 삶의 통치자로서 스스로 채택한 원리는 그것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희생, 즉 대가를 치러야 한다. 본문 11-18절에서 사무엘이 낱알이 언급한 사항들은 이와 같은 희생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그 희생을 일축하면, 우리가 그 원리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느낌과 생각 그리고 행동지침을 만족하는 여부에 관계없이 수정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진리가 단단해서 구부러지지 않고 그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질책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9장 24-26절까지의 “‘거듭 말하지만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러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보시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을 보면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무엘은 이후 30년 이상을 더 살면서 이스라엘의 첫 왕과 둘째 왕에게 기름 부었다. 주님께서 그가 죽는 날까지 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바, 그는 계속해서 그 땅의 종교적인 지도자로 군림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놓으신 신성한 섭리의 제도적인 장치였다. 위의 이야기는 우리들 각자가 자신의 길에서 종교적인 원리의 진정한 이해를 발견하게 되기까지 예상되는 험난한 세월을 거침에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예비를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년이 된 후에도 여전히 어린 시절의 단순한 신뢰심을 계속 보유하는 상태가 바로 사무엘이 삼십 년을 더 살며 둘째 왕 다윗을 기름 부은 것임을 기억해길 바란다.

제 5반

사무엘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살펴본다. 특히 그가 왕이 세워진 후에도 주님의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했고 백성들도 이를 인정했음을 강조한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회전하면서 진보해간다. 어떤 높은 탑을 올라 갈 때 놓인 나사못 같은 층계를 연상하면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의 이야기는 또 다른 시작점, 즉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 또 다시 한 바퀴를 돌려는 전환점에 들어서는 시기에 해당된다. 이 전환점의 특징은 20절에서 언급되는 바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이끌고 나가 싸워줄 왕의 필요성에 초점을 두어서 선의 측면보다 진리의 측면을 더 선호하여 선택하려고 한다.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과 예사오 같은 형제간에 대한 의미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임을 미리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본문에 언급되는 선택의 측면은 아주 미묘하고 복잡하다. 그 이유는 왕이 등극하여 사무엘을 밀어 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사무엘이 실질적인 통치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왕의 선택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무엘의 출생이나 그를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외의 이야기, 즉 그가 성경의 이야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실제적인 위치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사무엘의 이야기가 판관기서에서 시작되지 않아서 그가 마지막 판관으로서 판관시대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열왕의 시대가 곧바로 성경에서 부각되어서 사무엘이 열왕의 시대와 겹쳐져 있다는 것도 소홀하게 다뤄진다. 우리는 그가 사실 이스라엘의 둘째 왕인 다윗을 기름 부을 때까지 살았다는 것, 사무엘하서의 경우는 다윗의 통치 말기에 관하여 알려준다는 것 그리고 성서의 책이름 역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이므로 그의 역할과 위치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이는 변화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갑작스레 오는 것이 아님을 예증해 준다. 우리는 변화가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있게 된 것처럼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변화는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조건들이 잘 조정되도록 주님의 시야에서 언제나 예견되고 준비되어진다.

앞서 살펴본 사항과는 달리 스웨덴본은 그의 저서에서 사무엘에 관한 두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의아스럽게 여겨지기도 한다. 그는 「계시록 설명」 제 750-21항에서 “모세와 사무엘은 그 표현상에서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즉, 판관들이 지방적인 판관으로서 개별적인 진리를 표현하지만 사무엘은 전 지역의 판관으로서 인정되어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보인다는 측면으로 볼 때 모세처럼 일반적인 진리 곧 말씀 전체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성서의 이야기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판관들이 일생동안 전투에서 주님의 대변자 역할을

했던 반면 사무엘은 군사적 측면보다 종교적 측면에서 백성을 이끌었던 것이다.

스웨덴본은 두 부분에서 사무엘의 기능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는 「천국의 신비」 제 6148항에서 “신성한 선은 사제에 의해, 신성한 진리는 왕에 의해 표현되었다. 고대의 표현적 교회에서 사제직과 왕권은 한 사람 안에서 연합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주님께에서 진행되는 선과 진리가 하나이고, 천국의 천사에 있어서도 그 둘이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표현적인 교회가 야곱의 후손사이에서 구성되어 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흐르는 신성한 선과 진리를 동시에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두 기능은 분리되었다. 백성을 통치한 이들은 ‘지도자’ 후에는 ‘관관’이라고 불린 반면 거룩한 일들을 담당한 이들은 ‘사제’라고 불렸다. 이 사제들은 아론의 후예와 레위인 중에서 임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기능은 후에 한 사람 안에서 결합하게 되었는데, 그 인물은 엘리와 사무엘이었다.” 이를 통해 사무엘이 비록 레위인은 아니지만 사제이면서 관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무엘상 3장 20절에서 그가 주님의 예언자로서 모든 백성들에 의해 공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관관시대의 정점은 사무엘 시대 때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성한 리더십 없이 편안히 지내고자 했던 이 백여 년 동안의 혹독한 경험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주님을 예배하는 데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깨달았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사무엘은 실로의 성막에서 성장한 후에 그 땅의 중심인 라마에 정착했다. 그는 그곳을 거점으로 하여 백성을 판결해 주기 위해 여러 지역을 순회했다. 우리가 이쯤에서 상기해야 할 사항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 궤가 성막에서 꺼내져 전쟁터로 옮겨졌던 것과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궤를 빼앗긴 후 되돌아오긴 했지만 그 궤가 원위치로 다시 놓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사항들은 본문 당시의 백성들의 예배 속에 이미 신성이 비어있었음을 암시해 준다. 이 사항은 「천국의 신비」 제 6148-5항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이 백성들 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무 강세를 떨쳐 그들 사이에 있던 표현적인 교회마저 유지되지 못하였고 다만 빈 껍질로서의 교회만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두 기능이 분리되도록 허용되었고, 신성한 진리는 왕이 표현하도록 하고 신성한 선은 사제에 의해 표현되도록 섭리되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백성들의 의지에 의해서 있어진 것임은 사무엘에게 내린 여호와와의 말씀에서 확실해진다(사무엘상 8:7, 12:19-20).” 백성들은 주님을 예배하되 사무엘이 표현하는 신뢰함과 순종함의 측면에서 예배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다른 국가들처럼 자기들을 군대로 무장시켜 적들을 부수게 해 줄 왕을 원하면서 예배할 뿐이었다.

「천국의 신비」 제 6148-6항에서는 본문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즉, “신성한 선에서

분리된 신성한 진리는 모든 이를 질책한다. 반면에 신성한 선과 결합된 신성한 진리는 구원해준다. 그 이유는 인간이 신성한 진리 만에 의하면 지옥으로 가게 되고 신성한 선에 의해서는 들림을 받아 천국으로 올려지기 때문이다. 구원은 자비인 신성한 선속에 존재하고, 저주나 질책은 인간이 자비를 거절할 때 곧 신성한 선을 스스로 거절할 때 야기된다. 이리하여 인간은 진리에 의거한 심판에 서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생각을 근거로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진 후 그들이 왕의 요구에 저항하면 당하게 될 ‘왕의 태도’를 그들에게 말해주라고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이유도 설명된다. 본문 11-18절에 언급되는 사항들은 선에서 분리된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에 관한 것이다.

아래의 인용문헌에서 주어지는 본문에 대한 설명은 내적인 의미와 역사적인 의미에 관한 것이어서 유대교회의 역사에 본문이 적용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개인의 삶에도 이 설명을 쉽게 응용할 수 있다. 개인의 삶의 측면에서 판관기의 시대란 스스로 거듭날 수 있다고 자신하여 더 이상 시험과의 투쟁 없이도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 나가 즐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시기를 말한다. 이러한 생각과 판단은 자신 속의 악과 약함을 노출하게 되어 재난을 초래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 이겨 보겠다고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에는 주님께 의지 하고자 그분께로 되돌아오도록 만든다. 되돌아오는 형태는 우리의 어린 시절의 형태, 즉 순종함과 신뢰함이라는 형태의 옷을 입게 된다. 그래서 주님의 예언자인 사무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 이런 시기의 우리는 사실적인 어린아이는 아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지닌 무지의 순진을 거쳐 간 지 오래고, 지혜의 순진에 도달되기에는 아직 먼 길을 걸어야 하는 지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의 우리는 자신이 따라야 할 종교 원리를 스스로 독파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님은 결코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간섭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걷고 있는 길의 상태에 알맞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그분의 통치형태를 채택하면서 왕을 가지도록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채용할 원리에 따라 요구될 희생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경고해두신다.

참고 문헌: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2015-10, 11항: “‘왕’은 진리를 의미하는데, 이는 주님의 왕 또는 제사장이라고 불릴 때의 내적 의미에 있는 사항들로부터 알 수 있다. 또한 왕 혹은 제사장으로 표현된 주님에 관한 사항으로부터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왕은 그분의 신성한 진리를 뜻하고 제사장은 그분의

신성한 선을 표현한다. 진리에 의해서만 통치되는 형태는 모든 이를 지옥으로 이르게 질책한다. 그러나 선으로부터의 통치형태는 모든 이를 천국으로 들어 올린다. 그런데 왕이 진리를 표현하여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 요구는 아주 불쾌한 것으로서 견책을 자청하게 된다. 진리 자체만으로 볼 때의 진리의 본성은 왕의 권리가 기술된 사무엘상 8장 11-18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사무엘 시대보다 훨씬 이전인 모세 시대 때에도 이뤄진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겔치레가 아닌 선으로부터 존재하는 순수한 진리를 선택해야 한다고 명령되어진 것이 다 (신명기 17:14-18). 그리고 그들이 추론이나 기억속의 지식 같은 것으로 순수한 진리를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는 명령도 주어졌다. 이런 사항은 모세에게 주어진 왕에 관한 지침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의미를 글자에서 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내적 의미에 포함된 몇 가지 사항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왕’ 또는 ‘왕도’는 오직 진리를 표현하거나 의미하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누가 마지막 판관인가?
- 2) 그는 어디서 성장했는가?
- 3) 사무엘이 어릴 때 누가 대제사장이었는가?
- 4) 사람들은 사무엘이 예언자임을 어떻게 알았는가?
- 5) 사무엘과 다른 판관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6) 사무엘의 고향은 어디인가?
- 7) 그가 고령이 되어서 백성들을 불만족하게 한 일은 무엇인가?
- 8) 백성들은 무엇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는가?
- 9) 사무엘은 이 요구를 반겼는가?
- 10) 주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11) 사무엘은 백성에게 왕이 무엇 같다고 말했는가?
- 12)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은 마음을 바꿨는가?
- 13) 왕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4) 사무엘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사무엘 2) 실로 3) 엘리 4) 주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5) 종교적 지도자, 전 백성이
지도자라고 인정했다 6) 라마 7) 자기 아들에게 판결하게 했다 8) 왕 9) 반기지 않았다
10) 왕을 세워 주시오 11) 거친 감독 12) 바꾸지 않았다
13) 우리 삶을 통치하는 진리들 14) 전체적 측면에서 우리 삶의 질서를 잡아주는 말씀

아각왕을 살려둔 사울

머리말

사울의 기름부음, 제비로 뽑혀진 사울, 사울의 용모에 흠족해한 백성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전투에서의 승리 등을 언급하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의 첫 변절에 관한 10장 8절과 13장 8-14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15장

1.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였다. “야훼께서 나를 보내시어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소. 그러니 이제 야훼의 말씀을 들으시오. 2. 만군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한 짓 즉,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일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로 하였다. 3. 그러니 너는 당장에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 재산을 사정 보지 말고 모조리 없애라.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여야 한다.’”

4. 그래서 사울이 총동원령을 내리고 텔라임에서 점호해 보니 보병이 이십 만이었고 유다측에서도 일만이 가담했었다. 5. 사울은 아말렉의 시에 이르러 골짜기에 군인들을 잠복시켜 놓고 5. 켄 사람들에게 전갈을 보냈다. “아말렉 편에서 떨어져 내려오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대들이 그렇게 잘해 주었는데 우리가 아말렉을 칠 때 그대들까지 치는 불상사가 일어나서야 되겠는가?” 이 말을 듣고 켄 사람들은 아말렉에서 떨어져 나왔다. 7. 사울은 아말렉을 공격, 하월라에서 시작하여 이집트 동쪽에 있는 수르까지 따라 가며 쳤다. 8. 그는 아말렉 왕 아각만 사로잡고 나머지 군대는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9. 사울이 거느리는 이스라엘군은 아각 뿐 아니라 양과 소 중에서도 좋은 놈, 기름진 짐승과 새끼 양들과 그 밖에 모든 탐스러운 것들을 없애 버리기가 아까워 그대로 살려 두고 쓸모없고 하찮은 것들만 없애 버렸다.

10. 이 일이 있은 후 야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내렸다. “나는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에게 등을 돌렸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애가 타서 밤새도록 야훼께 부르짖었다. 12. 이튿날 아침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나서자 누가 그에게 이런 말을 전해 주었다. “사울왕은 오는 길에 가르멜에다 자기의 승전비를 세워 놓고 그곳을 떠나 길갈로 내려 갔습니다.” 13.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 만나자 사울이 “야훼께 복을 받으십시오. 저는 야훼께서 시키신 대로 다 하였습니다”하며 인사를 하였다. 14. 사무엘이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이요? 또 소 우는 소리도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이요?”하고 물었다. 15. 사울이 “군인들이 아말렉에게서 빼앗아 온 것입니다. 양떼, 소떼 중에서도 좋은 놈을 살려 두었다가 선생께서 모시는 야훼 하느님께 잡아 바치려고 끌어 온 것입니다. 그 밖의 것은 모조리 없애 버렸습니다”하고 변명하자 16. 사무엘이 “그만하십시오. 지난밤 야훼께서 나에게 내리신 말씀을 전할 터이니 들으시오”하고 말하였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17. 사무엘이 입을 열었다. “그대는 본래 자신을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야훼께서 그대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다. 18. 야훼께서 그대를 출정시키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셨소? ‘가서 저 못된 아말렉족을 없애 버려라. 그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전멸시켜라’고 하지 않으셨소? 19. 그런데도 그대는 어찌하여 야훼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전리품에만 덤벼들어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소?” 20.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하였다. “나는 야훼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야훼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서 아말렉을 전멸시키고 아말렉 왕 아각만 잡아 왔습니다. 21. 단지 군인들이 죽여 없애야 할 짐승 가운데서 양과 소를 좋은 놈으로만 잡아 왔습니다. 그것도 길갈에서 선생께서 모시는 야훼 하느님께 잡아 바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22.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야훼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번제나 친교제 바치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그분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염소의 기름보다 낫소. 23. 그분을 거역하는 것은 점장이 노릇만큼이나 죄가 되고 그분께 대드는 것은 우상을 위하는 것만큼이나 죄가 되요. 그대가 야훼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니, 야훼께서도 그대를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키실 것이요.” 24. 사울이 사무엘에게 빌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군인들이 무서워서 야훼의 명령과 선생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25. 이제 부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야훼께 예배를 드리러 돌아 갈 터인데 함께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26. “같이 갈 수 없소. 그대가 야훼의 말씀을 저버렸으니, 야훼께서도 그대를 이스라엘 왕위에서 밀어 내실 것이요.”

이 말을 남기고 사무엘이 27. 돌아서 가려고 하자 사울이 도포를 붙잡는 바람에 도포자락이 찢어졌다. 28. 사무엘이 그에게 일렀다. “야훼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그대에게서 찢어 내시어 동쪽 가운데서 그대보다 훌륭한 사람에게 주셨소. 29. 이스라엘을 비추시는 이는 빈말을 하시거나 변심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는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니시오.” 30. 사울이 애원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을 한 번만 보아 주십시오. 내가 선생께서 모시는 야훼 하느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선생께서 저와 함께 돌아 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31. 그리하여 사무엘은 사울을 따라 갔다. 사울은 야훼께 예배를 드렸다. 32.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아말렉 왕 아각을 데려 오라고 하였다. 아각은 마침내 죽을 고비를 넘겼나 보다고 생각하며 좋아서 사무엘 앞으로 나왔다. 33. 그러자 사무엘이 “너의 칼에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자식을 잃었는지 아느냐? 네 어미도 그런 여자들처럼 자식을 잃어야 마땅하다”하며 야훼 앞에서 아각을 난도질하였다. 길갈에서 있었던 일이다. 34.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가고 사울은 기브아에 있는 궁궐로 돌아갔다. 35.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야훼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셨다가 후회하신 일을 생각하고 통곡하여 마지않았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순수하고 이타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서 이기심을 몰아내는 일을 무엇보다 먼저 추진하신다.
- * 말씀에 관한 우리의 첫 이해성은 외적으로 나타난 것에 기초를 둔다.
- * 주님을 믿는다는 함은 설사 우리의 판단에 반대된다 할지라도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 * 우리의 유전적인 자아 사랑으로부터 많은 생각들이 비롯됨을 인식해야 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국가 형성의 시대를 접하게 된다. 우리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세상적인 위치가 가장 중요하며 그들이 찾던 것이라고 여겼음을 추측할 수 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첫 세 왕들, 즉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 목적을 성취했으나 안전과 행복이 세상적인 권력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을 쓴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만 했다.

사울은 그들의 첫 왕으로 주님이 뽑아 주셨는데, 이는 백성들이 사울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걸맞은 왕의 모습을 지녔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11장 23절에서 전하는 바대로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자 그들의 키는 모두 그의 어깨에도 차지 못하였던 것이다.” 한마디로 백성들이 그를 부러워하게 된 이유는 눈에 보이는 그의 건장함 때문이었다. 우리 역시 젊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외관으로 쉽게 판단했던 것처럼 외적인 것을 더 중시하기도 한다.

사울은 젊은이들이 가진 건장함과 약점을 동시에 가졌다. 즉, 그는 용감하고 열성적이면서도 자만심으로 가득하여 경솔하고 성급했던 것이다. 그는 첫 전투에서 승리한 후 마음이 바뀌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예언자임을 알면서도 사무엘을 통해 전달되는 주님의 교훈을 정확히 실천하지 않았다. 본문은 사울의 불순종했던 행동과 그로 인한 그의 왕국의 결과를 보여준다. 아말렉 인들은 이스라엘의 끈질긴 적이었다. 이들이 르비딤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처음 공격했을 때(출애굽기 17:8-16)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는데, 이는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간 아론과 후르가 해가 질 때까지 주님을 향해 들고 있는 모세의 팔을 받쳐주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내적인 적으로 야기되는 시험에 저항하는 우리속의 모든 힘은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된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의 선함이나 지혜를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이 행해야 할 최선의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울처럼 어떤 것을 행함에 있어 뭔가 유용한 것 같고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켜줄 것이라고 판단되면 주님의 포기하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된다. 한마디로 우리는 자신에게 올 고난의 뿌리에 도끼를 대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뿌리란 다름 아닌 자아 사랑과 자기만족일 것이다. 우리속의 이런 모습들을 비유의 언어로 본문 8절에서 서술되고 있으며, 이는 표제인 「아각왕을 살려둔 사울」의 의미이기도 하다.

제 1반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그가 뭔가를 잘해보려고 했으나 결국 곤경에 처하게 된 까닭을 설명한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첫 싸움은 출애굽기 17장 8-16절에 서술되어 있는데, 이 싸움의 승리와 본문에서의 사울의 승리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사울은 선한 왕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첫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이 승리는 그에게 자기 능력의 과시가 되어 그를 잘난 인물이라고 착각하도록 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도 사무엘은 여전히 주님의 예언자였다. 사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어서 사무엘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울은 성급하여 다른 적들의 위협을 받게 되자 군대를 소집했다. 그리고 전투가 있기 전 사무엘이 와서 제물을 바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울은 미처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물을 바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했다. 그러나 사무엘은 주님께 순종함을 사울이 엄격히 수행하지 못했기에 사울의 왕국이 길게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으른 아이가 자신의 게으른 행동을 감추고자 부모에게 아양을 떠는 경우가 있다. 물론 자녀의 귀여움을 싫어할 부모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양을 부리기보다 ‘게으르지 말라’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자녀를 더 행복해주는 길임이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본문에서 어떤 적과의 전투가 언급되는가?
- * 이 적들과의 전투가 처음 언급된 성경의 책은 무엇인가?
- * 이스라엘은 처음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를 얻었는가?
- * 사무엘은 사울에게 전투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했는가?
- * 사울은 이 전투에서 주님께 어떻게 불순종했는가?
- * 그는 어떤 변명을 늘어놓았는가?
- *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 사무엘은 아각왕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제 2반

사울의 장단점 그리고 아각과 가축 떼를 살려둔 것에 대한 그의 변명을 주로 살펴본다. 또한 본문에서는 사울의 실수인 자신의 판단을 명석하게 여기는 경우가 젊은이들에게 빈번함이 경고되고 있다.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할 것임과 그로 인해 자신이 현혹됨을 경험에 의해서만 배워야 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사울의 첫 전투는 요르단 건너에 있는 암몬족과 대결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이 전투를 대승으로 이끌었다. 백성들은 이 전투로 인해 사울이야말로 왕으로서의 책임자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승리로 인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게 되었다. 그는 잘 해보려고 노력하며 용감하기도 했지만 슬기롭지는 못했다.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위협하자 심히 당황하여 전투를 이끄는 적당한 방법조차 생각해내지 못했다. 사울은 비록 자신이 왕이더라도 사무엘이 주님의 예언자인 이상 전투를 시작하기 전 칠일동안 사무엘을 기다리고 제물을 바친 뒤 전투에 임하라는 사무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울은 그의 마음속에서 성급함이 일어나게 되자 칠 일째 되는 날 사무엘이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제물을 바쳐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 후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요?”라고 꾸짖으며, “그대는 어리석은 짓을 하였습니다. 지키기만 했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대의 왕조를 길이길이 세워주실 터인데, 이제 그대의 대는 더 이어가지 못할 것이요.”라고 예언했다.

사울이 대항하여 처음 승리를 거둔 적은 암몬족이었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끈질긴 적이었다. 이 적들은 사울이 싸움을 걸기도 전에 싸울 태세를 하고 달려들기도 했다. 본문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자기들을 직접 위협하지 않은 듯 보이는 과거의 적들을 단번에 공격하여 쓸어버리라고 말한다.

사울은 아말렉과 싸우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아주 강하여서 전투에 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래서 그와 이스라엘 군대는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그는 자신이 주님보다 더 현명하다고 착각했던 것이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자신에게 무가치하고 나쁘게 여겨지는 것들을 모두 파괴해 버렸지만, 자신에게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남겨 두고 싶은 시험은 물리 칠 수 없었다. 과거 여호수아 시대 때에 누군가가 이런 태도를 취함에 따라 그 사람은 물론 전 이스라엘군이 고통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 여호수아서 7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스라엘이 가진 전투는 우리가 이기적인 욕구와 잘못된 생각에 대항하여 갖게 되는 전투를 의미한다.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과 가까이 싸우려고 하는데, 이는 우리가 그것들이 결국에 우리를 해치며 곤경에 처하게 할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사울과 같이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겉보기에 분명히 해를 줄 것 같은 것들은 모두 파괴하고 좋을 것 같은 것, 즉 “양과 소중에서도 좋은 놈”은 없애 버리기를 아쉬워하게 된다. 즉,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속의 이기심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분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즐기는 속성이다 보니 그것을 아낀다는 말이다. 어떤 이들은 “난 성미가 정말 불같아.”라고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는 듯 말하면서도 툭하면 화를 낸다. 그리고는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우리가 이렇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가 겉으로만 자신의 성미가 나쁘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결점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거나 즐기고 있음을 보게 된다. 물론 그가 화를 낸 후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 순간이나마 화를 누그러뜨려 자신의 잘못된 점을 조절해야 한다고 인식하지만, 이는 실제로 상식적인 차원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기회만 닿으면 그러한 잘못된 속성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의 주위사람들, 특별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은 그의 잘못된 속성이 없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가 이처럼 제삼자도 금방 지적할 수 있는 외적으로 잘못된 것은 파괴시키면서도 더 중요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왕을 살려둘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든 고난의 뿌리는 건드려보지도 못한 채 버려두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의 공부를 정리해 보자.

- * 본문에서 언급되는 이스라엘의 적이란 누구인가?
- *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그 적의 이름과 그 적과의 전투를 공부했는가?
- * 그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승리했는가?
- * 아말렉 족의 공격수법은 어떤 것인가?
- * 사무엘은 아말렉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했는가?
- * 사울은 어떻게 불순종했는가?
- * 사울은 가족들 중 좋은 것들을 남겨둔 것에 대해 사무엘에게 어떻게 변명했는가?
- *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하자 사울은 그를 어떻게 가지 못 하도록 했는가?
- * 사무엘은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했는가?
- * 아각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제 3반

세 왕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왕인 사울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사울이 신성한 진리에 대한 우리의 미숙한 이해성을 표현한다는 것과 그가 실패한 이유를 강조한다.

성경에서 왕이란 통치하는 원리를 표현한다. 이스라엘의 첫 세 왕들인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은 주님께 의해 선택되었는데, 그들은 우리 삶을 통치하는 주님의 진리를 표현한다. 주님의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성은 우리가 그 진리를 사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발달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말이다. 처음에 우리는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수준의 이해만을 가질 뿐 말씀을 삶에 응용하는 수준은 아주 기본적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보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에 대하여 성급하고 무리한 판단을 하기도 한다. 이런 수준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사울로 의미되고 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는데, 이는 사울이 그 당시 백성들의 수준에서 볼 때 그들이 인정하여 따를 수 있는 책임자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무엘상 10장 23-24절의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서자, 그들의 키는 모두 그의 어깨에도 차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우리 임금 만세’라고 외쳤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도로 그를 판단했다. 이것은 우리 역시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더 깊은 것을 보기 전에 빠지기 쉬운 함정인 것이다.

사울은 첫 전투를 멋지게 해냈다. 이 전투의 적은 요르단 건너에 있는 암몬족들이었다. 요르단 건너편의 땅은 행동 지침의 바깥 평면을 표현한다. 사울로 표현되는 진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바깥 평면상의 시험, 즉 금방 눈에 띄는 시험에는 쉽게 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승리로 인한 스스로의 공적때문에 우쭐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앞서 공부했던 바대로 블레셋이 적이었을 때(제 13장) 성급해져서 사무엘의 도착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물을 바쳤던 것이다. 사울의 군대에는 비록 그의 지휘를 받지는 않았지만 블레셋을 무찔렀던 부대도 있었다. 이 승리는 자아 대신 주님을 신뢰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용기에 기인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울의 왕국이 더 이상 대를 잇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이 경고했었음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진리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이해가 사울로 상징되는데, 이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해주고 어느 정도까지는 가시적인 악들을 극복하도록 해준다. 하지만 이 이해는 현상적인 것을 믿고 그것에 쉽게 미혹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명령 혹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그분의 명령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성급함을 지닌다. 본문은 이런 이해의 수준이 우리에게 아주 부적절함

을 예증해주는 것이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처 부순 적은 아말렉인데, 이들은 에사오의 후손들이다. 에사오는 야곱의 쌍둥이 형으로서, 야곱이 자연적인 진리의 평면을 표현하는 반면 그는 자연적인 선함의 평면을 표현한다. 이 두 평면 곧 우리에게 있게 되는 기초적인 선과 진리가 서로 분리되어 승강이를 벌이게 될 때 우리 안에 많은 악들이 초래된다. 에사오는 광야에서 살았다. 이것은 인도자적인 진리가 결여되면 선의지는 방향을 잡기 힘든 광야에서의 삶을 영위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선과 진리가 분리된 상태 하에서 있게 되는 삶의 나쁜 결과들 중의 하나가 바로 자신 속에 있는 선한 의도에 취해서 자아 만족감으로 빠져 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삶을 잘 꾸려보겠다고 뭔가 걱정할 때 우리 속의 옳고 그름에 대한 사상 역시 당연히 올바르게 설 것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쉬운 예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자아사랑의 한 종류이며, 우리는 그로 인해 곤경에 빠지기 전에는 결코 그것을 눈치 채지 못한다. 에사오의 후손이라는 측면에서의 아말렉은 우리 속에 감춰진 채로 드러누운 자기만족에서 비롯된 거짓사상을 표현하는데, 이는 우리가 영적인 삶의 요구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실망이나 낙망으로 빠지도록 한다. 아말렉은 언제나 수풀 속에 잠복했다가 갑자기 덮치는 게릴라식 전법을 사용했다. 앞서 우리는 그들과 이스라엘 간의 첫 접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판관 기드온에 관한 내용에서도 다른 적에 합세하는 그들의 기질을 엿볼 수 있다(판관기 6:3). 또한 모세가 산에 올라가 그의 팔을 주님을 향해 들고 있는 때만이 아말렉 군대를 쳐부술 수 있었음을 출애굽기 17장 8-16절에서 볼 수 있다. 이는 자아 만족에 빠져서 겪게 되는 시험은 우리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아말렉이 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사울의 시대 때에 공개적으로 사울을 공격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들을 찍어 넘기고 참혹하게 파괴시키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셨다. 사울은 기꺼이 공격을 감행하여 승리를 거뒀지만, 그는 이때에도 주님의 명령 위에 자신의 판단을 얹어 놓아 결국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아각왕을 살려놓았기 때문이다. 아각 왕이란 제일가는 거짓을 상징한다. 그리고 사울은 “양과 소중에서도 좋은 놈”은 없애지 않고 가져 왔다. 이 대목에서의 “양과 소”란 이 악들이 드러내는 표면화를 상징하는데, 이는 우리의 자연적인 추론이 이런 양이나 소가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여김을 의미한다.

사무엘이 이러한 일에 대해 사울의 불순종을 지적했을 때 사울은 “선생께서 모시는 아훼 하느님께

잡아 바치려고 한 것입니다.”라고 변명했다. 이러한 사울의 변명은 계명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가장 흔한 핑계이다. 마가복음 7장 9-13절에 이러한 악의 대표적인 본보기가 언급되며, 주님의 의해 심각하게 질책되고 있다.

예언자로서의 사무엘은 말씀을 상징한다. 따라서 그의 도포는 말씀을 담은 글자를 상징한다. 사울이 사무엘의 도포를 찢는 모습은 우리의 자연적인 이해가 진리를 통째로 지키려 하지 않음을 묘사한다. 이런 이유로 사무엘이 “그대의 대는 더 이어가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그대보다 더 훌륭한 사람에게 그 나라를 넘기실 것이다”하고 예언한 것이다. 다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위 말씀을 되새면서 공부를 마무리 짓도록 하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교묘하게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모세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너희는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해드려야 할 것을 하느님께 바쳤습니다.’라는 뜻으로 ‘코르반’이라고 한 마디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전해 오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나? 너희는 이 밖에도 그런 일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 예수께서는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는 내 말을 새겨들어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는 것은 도리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기본 상응 공부

사울 = 신성한 진리를 자연적으로 이해함 또는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아각 = 자아만족이 삶을 통치하는 원리

제 4반

아말렉이라는 시험을 실례를 들어 살펴본다. 그리고 세상적인 이익에 걸맞은 생각이나 논쟁을 진리인 냥 덥석 물고 마는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거룩한 땅을 여호수아의 지휘 하에 정복한 이스라엘은 정착의 시작과 더불어 편안함이 찾아오자 주님을 섬기는 것에 느슨해졌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인 판관 시대에 더욱 느슨해져서 주위의 적들이 강세를 얻게 되자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적들에 대항할 수 있는 협력된 힘을 조직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왕을 세우기를 바랬던 것이다.

판관 시대의 마지막 판관이기도한 사무엘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을 기름 부었고, 사울은 그의 장대하고 웅장한 용모로 인해 백성들에게 왕으로 환영받았다. 연합된 조직 곧 국가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은 진리에 대한 자연적인 이해성을 상징하는데, 이런 이해성은 젊은이들에게 가장 흔한 것이다. 이 이해성 역시 주님을 잘 섬기고자 하며 행동 면에서 아주 열성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이해성은 어떤 일이 지체되면 참지 못하고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사건의 현상에만 근거하여 추론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낫다고 여기는 결점을 지닌다. 사울은 암몬족과의 첫 전투에서는 승리했으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결론적으로 실패했다. 그는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할 제사를 미처 기다리지 못했다. 그리고 그나마 조금 승리하게 된 것 역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아들인 요나단의 용맹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사무엘은 이 싸움에서 사울을 심하게 나무라면서 왕국이 더 이상 사울의 계보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우리가 자연적인 수준에서 진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통치할 수 없음을 묘사해 준다.

이와 더불어 본문은 사울의 장단점을 여실히 보여 주기도 한다. 사울이 지금까지 무찌른 두 적에 대한 전투는 공개적으로 싸움을 걸어온 적들에 대한 것이요 전면전이었다. 그러나 본문의 적인 아말렉은 공개적으로 전투를 유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적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적을 꼬집어내어 파멸시키도록 사울에게 명령하셨다. 사울은 이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그는 “너는 당장에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 재산을 사정보지 말고 모조리 없애라.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나 나귀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여야 한다”라는 주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 즉, 그는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았고 양과 소 중에서도 좋은 놈은 없애버리기가 아까워 살려두어 결론적으로 주님의 명령위에 자신의 판단을 얹어 놓아 스스로 처벌을 자초했던 것이다.

스웨덴북은 아말렉이 내면에 든 악으로부터 온 거짓을 표현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 악이 신실하게 의를 행하려 노력하고 있는 때조차도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좋은 것들에 쉽사리 “o.k.”라고 말하는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적인 수준에서 진리를 가름하는 이해성은 악들이 눈에 보일 경우에는 분명하게 그것을 저주한다. 그러나 서로에게 좋은 것 곧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방법을 선호하고, 깊게 뿌리내린 이기적인 사상은 건드리지도 않은 채 남겨둔다. 사울이 아각 왕을 사로잡고 아말렉의 양과 소 중에서 좋은 놈들은 없애버리기가 아까워 살려두고 하찮은 것들만 없애버린 본문의 이야기가 이에 해당된다. “양이 우는소리가 들리는데 어찌된 일ियो? 또 소 우는소리도 들리는데...”라는 사무엘의 물음에 사울은 “군인들이 아말렉에게서 빼앗아 온 것입니다. 양떼, 소떼 중에서도 좋은 놈들을 살려 두었다가 선생께서 모시는 야훼 하느님께 잡아 바치려고 끌어 온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울의 주장은 우리가 스스로를 속박하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태두리를 보여 주는 것을 묘사하며, 우리 주변의 사업이나 사회 특별히 정치생활에서의 수많은 이기적이고 잘못된 행동들이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시켜준다”라는 논쟁으로 변명하게 해 줄지도 모른다.

사무엘이 “그대가 야훼의 말씀을 저버렸으니, 야훼께서도 그대를 이스라엘 왕위에서 밀어내실 것이요.”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서 가려고 하자 사울이 사무엘의 도포를 붙잡는 바람에 도포자락이 찢어졌다. 여기서 사무엘은 말씀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의 도포는 말씀의 글자를 상징한다. 사울이 사무엘의 도포를 찢는다고 함은 신성한 명령을 담은 글자를 기꺼이 준수하지 않으려는데 사울의 약함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영적인 힘은 우리가 신성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즉, 우리의 판단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간섭하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어느 인간보다 슬기로우시며 영원히 지혜로우신 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뒤의 참고 문헌은 아말렉에 의해 상징되는 시험과 그 시험의 근원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준다. 아말렉 족은 과거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집트를 떠난 후 실제로 싸워야 했던 첫 번째 적이었다. 이 전투는 광야의 르비딤에서 있었고 모세는 전투동안 산에 올라가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있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의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후르는 모세의 팔을 좌우에서 각각 붙들어 떠받치니 해가 질 때까지 그의 팔은 처지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쳐 이겼다(출애굽기 17:8-16).” 본과 뒤의 인용문은 위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인 “야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 주시리라”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스웨덴본은 아말렉이 표현하는 악령을 ‘evil geni’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 악령이 아주 음흉하고 강하기 때문이다. 이 악이 우리 속에서 봉기하는 방법은

우리의 자연적인 이기심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만심에 쉽게 기울어지는 진리에 대한 우리의 자연적인 이해성은 이 악을 당해내지 못한다. 따라서 본문 뒷부분에서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처형하는 대목은 사울만으로 아말렉을 근절할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아말렉이라는 악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자신의 악함과 자신 속에 자아사랑이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의 차원으로부터 주님께 대한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들어 올려야 하는 것이다.

제 5반

사울 그리고 사울이 이길 수 있었던 적과 이길 수 없었던 적을 상응으로 살펴본다.

이스라엘의 전국을 통치한 세 왕들인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은 우리 삶을 통치하는 주님의 신성한 진리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 세 왕들과 싸운 적들은 신성한 진리가 우리 삶을 통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우리속의 악과 거짓을 상징한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은 결코 완벽한 인물들이 아니었고, 그들의 전투 역시 모두 승리로 끝나지 않았다. 이는 신성한 진리의 어딘가에 허점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십인십색의 인간들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신성한 진리는 그만큼 다양하고 더욱이 같은 진리라 하더라도 삶을 통해 있게 되는 각자의 진보의 단계에 따라 다른 단계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넓은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왕들의 시대는 성인의 상태, 즉 각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그 선택에 책임져야 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시기는 우리의 거듭나는 삶을 표현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땅에 들어와 있어서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 되어 있다. 하지만 관관기가 그러주듯이 우리는 시험을 거쳐 가면서 신성한 진리의 통치하에 우리의 안과 밖의 악들을 정복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내자임을 인정한다. 이는 본문에서 사무엘이 여전히 주님의 예언자로 군림하는 것의 의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언제나 승리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불완전하고 자아사랑과 오만함으로 기울려는 우리의 유전적인 경향성이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하면서 진리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경향성을 어떤 때는 인식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허다함을 미리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울은 우리가 거듭나는 단계에서 신성한 진리를 처음 보았을 때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진리를 표현한다. 사울도 백성들로부터 환영받았다. 그 이유는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서자 그들의 키가 모두 그의 어깨에도 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주님은 사무엘에게 “이제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 주어라”고 하시며 사울을 선택하셨고, 사무엘에게 사울을 기름 붓도록 명령하셨다. 주님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의 자유가 보존 되도록 하신다.

교회내의 청년층의 모습을 살펴보면 사울의 통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뭔가 잘해 보려는 것 곧 선한 측면으로 인생을 이끌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세상을 덜 살았다는 측면에서 경험이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출발하기도 한다. 이런 모습은 제 9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사울이 하는 대답으로 의미되고 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그렇지만 저는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저희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저의 문벌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초라합니다. 그런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사울은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제비로 왕을 뽑을 때 왕으로 발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짐작이 든 틈에 숨어 있었다.”라는 구절을 통해 그의 겸손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사울은 청년들처럼 용감하며 열성적이어서 기꺼이 전투에 앞장섰다. 그래서 그는 첫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했는데, 그 전투의 적은 암몬족으로서 요르단 건너편인 아베스길르앗을 공격했던 자들이었다. 이 적을 물리쳤다고 함은 우리가 명백히 보이는 외적인 시험은 잘 이겨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첫 승리는 사울이 왕으로서 백성들로 하여금 인정받도록 해주었지만, 내면 상으로는 그가 왕으로서 부적당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유는 승리를 얻게 된 후 그의 머리가 이상해졌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가 승리로 인해 주님대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청년 시절에 이러한 사울과 같은 모습을 한때나마 드러내게 된다.

사울의 성급함은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언급되는 13장에서 드러난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 이전에 사무엘이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친 후에 접전하라는 사무엘의 지시에 따라 칠일 동안 기다렸어야만 했다. 그러나 사울은 공격해온 블레셋 진영의 세력과 그의 군사들이 하나둘씩 빠져 도망가는 모습에 성급해져서 자신도 사무엘처럼 번제를 드릴 수 있다고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울처럼 진리를 보는 우리의 첫 이해성은 현상, 즉 눈에 보이는 사실에 기초하게 된다. 이런 이해성을 가진 우리는 어떤 일의 진행이 지연됨을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그 일을 치루기 위해 허둥지둥하게 된다.

“야훼께서 우리를 도와만 주신다면 적의 수가 많은 적은 무슨 상관이겠느냐”라고 말한 요나단이 자신의 힘보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감행한 과감한 돌격으로 인해 블레셋 진영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울이 공격할 수 있게 되어 적군을 무찌를 수 있었다. 진리에의 순종 없이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블레셋이란 적으로 표현되는 시험이다. 이 시험은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과신하는 한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것이다.

본문은 사울이 비록 이후에도 오랫동안 왕으로 군림했지만 그가 왕으로서 결국 실패했다고 전하고 있다. 아말렉족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집트를 떠난 뒤 처음 대적한 적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 적과 싸울 때 산에 올라가 주님을 향해 두 팔을 쳐들고 아론과 후르가 그 두 팔을 받쳐 해가 질 때까지 버텼으므로 승리할 수 있었다. 아말렉족은 내면에 든 악에서 비롯된 거짓을 상징한다. 스웨덴본은 「천국의 신비」 제 8593항에서 아말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의 속 깊은 데에 감추어 놓인 악들 곧 내면에 든 악들은 인간의 의지 속에 감추어져 있고, 이로부터 인간의 생각 속에도 감춰져 있어 인간의 외부에 속한 것인 행동이나 언어 또는 얼굴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저 세상에서 이런 종류의 악 속에 있는 이들은 악령이라고 불리지 않고 악한 지니(evil geni)라고 불린다. 이 악이 인간을 침해하는 과정에서 파괴하려 드는 것은 믿음속의 진리가 아닌 믿음속의 선들이다. 왜냐하면 이 악들은 부패된 애정들을 수단으로 행동하여 선한 생각들을 전복시키는데, 이런 방법은 납득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 악들은 공개적으로 인간을 공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원기 왕성하게 저항할 때는 공격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 선을 이루는데 지쳐 있거나 느슨해져 있을 때에 갑자기 덮쳐 인간을 엎어버린다”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하면 자연적 수준에서 신성한 진리를 이해함을 표현하는 사울이 현상에 기초한 까닭과 사울이 자신에게 좋게 보이는 것들이 적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살려 두었던 이유 그리고 사울이 아말렉의 왕을 살려 두었던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본은 본문 32절과 연관 지어 악한 지니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것들이 고상하게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감언이설에 의한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은 영을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연장자들은 젊은이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이른바 ‘성급하여 덥석 덮에 걸리는 판단’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끊임없이 도와야 할 것이다.”

본문 22-25절을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자. 사울은 주님께서 명백히 주신 명령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실제적인 왕권에 중지부를 찍고 말았다. 왜냐하면 다음 장에서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갔고 다윗에게 기름 붓자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고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엘의 도포가 사울로 말미암아 찢어지는 모습은 이 변화에 대한 암시이다. 「계시록 설명」 395-5항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사무엘이 명확하게 만든 것, 즉 ‘외투자락이 찢김’은 사울로부터 왕국이

찢김을 의미하는데, 사무엘이 말한 ‘야훼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을 그대에게서 찢어 내시어 동족 가운데서 그대보다 훌륭한 사람에게 주셨소.’라는 구절로 알 수 있다. ‘왕’ 또는 ‘왕권’이란 교회 속에 있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하고, ‘외투자락’이란 교회속의 아주 작은 세부사항들 속에 있는 신성한 진리 곧 큰 진리 안에 있는 작은 진리들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후손위에 군림한 왕은 신성한 진리와 관련된 주님을 표현하며, 그 왕국이란 신성한 진리와 관련된 교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문의 역사적 사실은 왕인 사울이 더 이상 주님을 표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과 그 왕국이 사울에게서 찢기지 않게 되면 교회를 표현했던 것마저 절멸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참고 문헌: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8593항: “내면의 악이란 인간에게 깊숙이 박혀 있는 악이다. 즉, 인간의 의지 부분에 있는 악으로서 생각 속 깊은 데에 자리하여 인간의 외적인 것들인 행동이나 언어 또는 얼굴로 추적당하지 않는다. 이 악 속에 있는 자들은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존경받을 만한 것 혹은 정당한 외형을 가진 것들 속에 악들을 감추거나 저장해두려고 한다. 심지어 그들은 이웃사랑이라는 명분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 속에 악에 관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때에도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들 속의 것이 악처럼 보이지 않도록 가려 놓는다. 또는 악 자체가 악처럼 보이지 않게 색칠하기도 한다. 그들의 삶의 큰 기쁨은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거나 잘 감추어 놓으려고 시도할 때만 있게 된다. 이런 것이 내면의 악이라고 불린다. 이런 악 속에 있는 이들은 믿음의 진리를 공격하지 않고 믿음의 선들을 공격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부패된 애정들을 수단으로 선한 생각들을 뒤집기 때문이다. 어떤 악들은 전혀 파악되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악한 지니들은 인간을 정면에서 공격하지 않고, 원기 왕성한 저항력이 인간에게 있을 때에도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은 인간이 선한 소출을 생산하는 것에서 지쳐 있을 때 갑자기 덮쳐 인간을 굴복시킨다. 이상의 설명을 기반으로 아말렉으로 표현된 이들의 속성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말렉이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적이라고 여호와로부터 판결이 내려진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계시록 설명」 제 395-3항: “‘예언자’란 말씀에서 온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추상적 측면에서는 말씀에서 온 교리 속에 든 진리도 의미한다. 그들은 이러한 ‘예언자’의 의미

때문에 털이 많은 외투를 걸쳤는데, 이 외투는 말단 선상에 있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질문 정리

- 1) 첫 왕은 누구인가?
- 2) 그는 어떻게 왕으로 선출되었는가?
- 3) 왜 백성들은 그가 왕이 됨을 기뻐했는가?
- 4) 그는 어느 영토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는가?
- 5) 그가 두 번째 맞이한 적은 누구인가?
- 6) 그는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가?
- 7) 그는 누구의 도움으로 승리했는가?
- 8) 본문에서 사울에게 어떤 적을 공격하라고 명령되었는가?
- 9)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이 적에 대하여 공부했는가?
- 10) 이 적과의 최초 전투에서는 어떻게 승리했는가?
- 11) 주님은 이 적을 어떻게 쳐부수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셨는가?
- 12) 사울은 어떻게 불순종했는가?
- 13) 사무엘은 사울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 14) 어떤 징조가 발생했는가?
- 15) 사무엘은 아각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 16) 아말렉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왕으로서의 사울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사울 2) 제비로 3) 키가 크고 힘이 세서 4) 요르단 건너 지역 5) 불레셋 6)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다 7) 요나단 8) 아말렉 9) 출애굽 후 광야에서의 최초의 적이었다 10) 모세가 팔을 들고 있음으로 11) 완전히 파괴하라 12) 왕과 좋은 가족을 살려 두었다 13) 그는 왕국을 잃게 된다 14) 도포가 찢어짐 15) 사무엘이 그를 죽였다 16) 내면의 악에 기초한 거짓 17) 진리를 세상적으로 생각함

다윗과 예언자 나단

머리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저지른 불순종은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그대에게서 찢어 내시어 ...”라는 사무엘의 엄명이 떨어지게 함과 더불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 다음 사울이 계속 왕위에 있는 동안 다윗의 생애는 사울과 겹쳐진다. 따라서 이 두 왕의 상이점과 다윗의 업적을 살펴보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사무엘하 12장 1-25절

1. 야훼께서 예언자 나단의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2. 부자에게는 양도 소도 매우 많았지만, 3. 가난한 이에게는 품삯으로 얻어 기르는 암컷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새끼 양을 제 자식들과 함께 키우며, 한 밥그릇에서 같이 먹이고 같은 잔으로 마시고 잘 때는 친딸이나 다름 바 없이 품에 안고 잤습니다. 4. 그런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 찾아 왔습니다.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소나 양은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집 새끼양을 빼앗아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5. 다윗은 몹시 패썹한 생각이 들어 나단에게 소리쳤다. “저런 죽일 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6. 그런 인정 머리없는 짓을 한 놈을 그냥 둘 수는 없다. 그 양 한 마리를 네 배로 갚게 하리라.”

7.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울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8. 나는 네 상전의 딸과 아내들까지 네 품에 안겨 주었다. 나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딸들까지 너에게 주었다. 그래도 모자란다면 어떤 여자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9.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알보며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을 했느냐? 너는 헛 사람 우리야를 칼로 쳐 죽였다. 암몬군의 칼을 빌어 그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10. 네가 이렇게 나를 얹보고 헛 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네 아내로 삼았으니, 너의 집안에는 칼부림 가실 날이 없으리라.’ 11. 야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네 당대에 재난을 일으킬 터이니 두고 보아라. 네가 보는 앞에서 네 계집들을 끌어다가 딴 사내의 품에 안겨 주리라. 밝은 대낮에 네 계집들은 욕을 당하리라. 12. 너는 그 일을 쥐도 새도 모르게 했지만, 나는 이 일을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리라.’”

13. “내가 야훼께 죄를 지었소.” 다윗이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자 나단이 말하였다. “야훼께서 분명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임금님께서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14. 그러나 임금님께서 야훼를 얹보셨으니, 우리야의 아내가 낳게 될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15. 나단은 이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다. 야훼께서 우리야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 준 아이에게 중병을 내리셨다. 16.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베옷을 걸친 채 밤을 새우며 어린것을 살려 달라고 맨땅에 엎드려 하느님께 애원하였다. 17. 늙은 신하들이 둘러서서 일어나라고 했으나, 그는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더불어 음식을 입에 대려고도 하지 않았다. 18. 아기는 마침내 칠 일만에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신하들은 다윗에게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차마 알리지 못하고 수군거렸다. “아기가 살아 있을 때에도 우리 말을 듣지 않으셨는데, 아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면 무슨 변이 생길지 모른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는 아이가 죽었음을 알아채고 아기가 죽었느냐고 물었다. 신하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20. 다윗은 땅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야훼의 전에 들어가 예배를 올렸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 음식을 차려 오게 하여 먹기 시작하였다. 21. 신하들이 물었다. “아기가 살아 계실 때에는 잡수시지도 않고 아기 생각만 하며 우시더니, 막상 아기가 돌아 가시자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어찌 된 일이십니까?” 22. 그가 대답하였다. “그 애가 살아 있을 때 굶으며 운 것은 행여 야훼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아기를 살려 주실까 해서였소. 아기가 이미 죽고 없는데 굶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내가 굶는다고 죽은 아이가 돌아오겠소? 내가 그 애한테 갈 수는 있지만, 그 애가 나한테 돌아 올 수는 없지 않소?”

24. 다윗이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니 바세바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다. 야훼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 25. 야훼께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시어 당신이 사랑하는 아이라 하여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내리셨다.

교리 요약

- * 주님은 오직 우리의 선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슬픔을 허용하신다.
- * 성서의 하느님의 말씀은 모두 비유이다.
- *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까닭은 타인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 * 우리는 더 이상 악에 빠질 염려가 없다는 수준의 선한 상태에까지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다. 주님은 사울이 불순종하자 베들레헴으로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 붓도록 하셨다(사무엘상 13장). 당시의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어린 소년이 있을 뿐이다. 그가 온 백성의 앞에 왕으로 군림하게 된 것은 이로부터 아주 오랜 후의 일이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거룩한 땅의 남쪽 지역만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다윗은 전 백성에 의해 왕으로 인정되기 전까지 칠 년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했다. 이후 그는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수도로 삼았고 그곳에 궐을 안치했다. 그는 그곳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적과의 전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고, 그 나라의 국경은 전보다 훨씬 확장되었다.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모든 것을 잘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불완전한 인간이며 자칫하면 시험에 빠지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그는 간음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깨트리면서 자신의 드높은 지위가 그로 인한 처벌까지 면제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주님은 사무엘이 죽은 후 또 다른 예언자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 시험에서 상기해야 할 사항은 우리에게도 나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말씀은 우리의 예언자인 것이다. 본문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가를 보여준다. 나단은 다윗에게 간단한 비유 하나를 말해주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이 말하고자 하는 진의가 자신의 행함에 관한 것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곧장 비유속의 부자를 질책했다. 그러자 나단은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다윗에게 말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삶 속의 죄와 과오가 말씀 속에 그림처럼 그려져 있음을 보게 된다. 반면 우리가 다윗과 유사한 죄를 행하고 있으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각토록 하여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지적해 준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고 그 결과 더 많은 선을 이룰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의 결과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 이것은 바세바가 낳은 다윗의 첫아들의 죽음으로 의미된다. 즉, 악은 선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본문의 후반부는 누구든지 악으로 인해 고통 받지 않고 계명의 어느 하나를 쉽게 깨트릴 수 없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그 옛날 시나이 산에서 주님께 의해 주어진 계명 그대로가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 1반

다윗의 출생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을 상기하도록 한다. 그리고 나단이 다윗에게 비유를 들어 접근했음을 살펴본다. 또한 다윗의 벌과 악으로부터 선이 결코 비롯될 수 없음도 설명한다.

사울이 전투에서 전사한 후에 다윗에게 왕관이 씌워졌다. 다윗도 사울처럼 위대한 전투 용사였으나, 사울처럼 자신을 신뢰하지는 않았다. 다윗이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치루는 전쟁을 모두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 다윗이 점령한 성읍중의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는 이곳을 수도로 삼고, 그곳에 궤를 안치하며 궤를 위한 새 성막도 지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누구인가?
- * 다윗의 고향은 어디였는가?
- * 후에 누가 베들레헬에서 태어났는가?
- * 기름부음을 받을 당시 다윗의 나이는 얼마였는가?
- *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 사울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다윗이 범한 큰 죄는 무엇인가?
- * 주님은 그에게 누구를 보내 견책하셨는가?
- * 나단이 다윗에게 해준 이야기는 무엇인가?
- *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 속의 부자를 어떻게 판결했는가?
- * 그러자 나단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 나단은 왜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먼저 꺼냈는가?

* 다윗의 별은 무엇이었는가?

제 2반

다윗의 생애와 그의 업적에 대해서 살펴본다.

다윗의 첫 수도는 헤브론이었다. 그는 거기서 가나안 땅의 남쪽부분을 칠 년간 통치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고향이며, 거룩한 땅을 정복한 후 분배되는 과정에서 갈렙에게 주어진 성읍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은 후 거룩한 땅의 북쪽지역도 다윗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다윗은 과거 이스라엘이 한 번도 정복해보지 못한 여부스족의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았고 그곳에 궤를 모셨다. 그는 주님께서 그가 성전을 지을 인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까닭에 그곳에 새 성막을 지어 궤를 안치했던 것이다. 주님은 다윗이 순종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적이 그의 발아래 무릎 꿇도록 해주셨고, 이스라엘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넓은 국경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흔히 성경에서 하느님이 번성토록 해준 인물들이 모두 선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들을 영웅적인 인물로 닮아야 할 삶의 표본으로 여긴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경우 본문의 다윗에 관해서는 명확히 설명해낼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다윗이 굉장히 나쁜 일을 저지르는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다윗은 바세바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목격하고 그녀를 아내로 삼고자 했다. 그는 그녀가 이미 결혼했음을 알고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한 뒤 그녀와 결혼했다. 그는 자신이 위대한 왕이어서 자신이 하는 일에는 잘못된 것이 없을 거라고 상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수준에 도달 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예언자 나단은 주님께 의해 다윗에게로 보내졌다. 나단은 다윗 왕이 죄를 지었다고 곧장 지적하지는 않았다. 누군가가 우리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면,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즉시 취하게 된다. 그래서 나단은 우선 다른 사람에 관한 가상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해 주었다. 다윗은 그 이야기속의 부자가 잘못된 행동을 했음을 즉시 알았고 그 부자를 엄하게 판결했다. 그러자 나단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 다윗은 자신이 부자와 같이 행했음을 알게 되어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본문은 여러 가지 교훈을 담고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자신의 행동을 공명정대하게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네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실 때 기꺼이 그 말씀에 응해야 한다는 말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결과를 회피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잘못을 가벼운 벌로 때우고 싶어 한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모든 잘못은 실제로 우리 속에서 자라나올 수 있는 어떤 선을 파괴시키고 만다. 이른바 본문에서의 다윗의 아들이 죽음에 처하는 모습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러한 손실을 허용하실 때 쉬운 방식으로 그것을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의 교훈은 이미 행해진 것은 행동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이켜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면 이미 행해진 과오, 즉 자신의 잘못된 경험이 스스로가 더 강해지고 유용하게 되도록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바세바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솔로몬의 부모가 되도록 허용된 이유인 것이다.

성경의 인물들이 많은 결점과 장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들은 우리와 매우 흡사하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로부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도록 원하고 계신다. 모든 말씀은 본문에서 다윗에게 그분의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것처럼 비유이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에 관해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말씀의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결점을 보고 인정하도록 하여 날마다 더 나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염두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다윗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 * 그는 기름부음을 받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 사울은 다윗의 어떤 재능 때문에 그를 좋아했는가?
- * 그가 단번에 때려눕힌 적은 누구였는가?
- * 그 때 그가 사용했던 무기는 무엇인가?
- * 사울의 궁전에 있었던 그의 특별한 친구는 누구인가?
- * 왜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쳐야 했는가?
- * 죄를 범한 다윗의 벌은 무엇이었는가?
- * 다윗은 자신의 아들의 중병으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 * 그는 아이가 죽자 신하들을 어떻게 놀라게 했는가?

- * 그는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 * 다윗과 바세바의 둘째 아들은 누구인가?

제 3반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에 관한 상응을 살펴본 후 말씀의 이야기로부터의 교훈도 직접 찾아본다.

다윗은 겸손하고 주님을 신뢰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대신 영적인 지각으로 이해된 신성한 진리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다윗이 하프 연주자로서 한 때나마 사울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었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음을 기억한다. 다윗과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우정은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데,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여 죽이려 들자 그를 피신시켜 주었다. 또한 다윗에게 기름 부어지자 주님의 영은 사울을 떠났고 하느님께서 내리신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 이런 연유로 백성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 있는 동안에도 계속 다윗을 사랑했다. 그 후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전사하자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왕으로 추대했다. 그러나 다윗은 남쪽지역의 백성들에 의해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되었다. 이때가 바로 거룩한 땅이 남쪽과 북쪽지역으로 갈라져 성경에서 나타난 때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칠 년간 통치했고, 이스보셋은 그의 측근 대장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런 뒤 북쪽 지역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다윗도 사울처럼 전투하는 왕이었지만, 주님께 순종하여 사울이 패하듯이 전투에서 패하지는 않았다. 그는 나라의 영토를 확장시켰고, 주위의 모든 적을 굴복시켰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항하여 끈질기게 버티고 있었지만, 결국 다윗이 그곳을 점령하여 나라의 수도로 삼았다. 다윗은 그곳에 궤를 모셔 들고, 궤를 위해 새로운 성막을 지었다. 그가 성막을 지은 까닭은 주님께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주님의 명령이 예언자를 통해 전달되었을 때 언제나 순종했다. 그러나 그는 세월이 흐르고 성공을 거듭하게 되자 하느님의 근본이 되는 법인 십계명임을 잊고 말았다. 본문의 배경은 제 11장에 해당된다. 다윗은 이미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지만, 바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되자 그녀 또한 아내로 삼고 싶어 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일부다처가 불법이 아니었다. 그러나 바세바는 이미 헛죽인 우리야의 아내였다. 다윗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먼저 깨트린 후 이를 감추기

위해 전쟁터에서 우리야를 죽게 했다.

다윗의 범죄와 그에 따른 처벌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등장되는 것이 아니라 성서를 쓰기 위한 측면에서였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매우 심각하였고, 심지어는 악하기까지 했다. 주님이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삶 속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것이다. 말씀에서 다윗이라는 인간이 묘사될 때의 의미는 인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인물이 가지는 영적 의미인 것이다.

만약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직선적인 말로 다윗의 죄를 책망했다면, 다윗은 먼저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거나 방어하는 쪽을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이는 그것이 반사적인 행동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적인 책망을 듣게 되면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범죄가 타인의 범죄에 관한 이야기로 다윗에게 표현될 때 다윗의 마음은 올바른 판단을 표하는데 개의치 않게 되었다.

비유의 언어로 예언자를 통하는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과에 대해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사용된다. 우리는 먼저 자신과 마치 관계없는 듯이 여기며 말씀의 가르침과 이야기들을 읽게 된다. 그러면서 자이라는 족쇄가 채워지지 않은 채 말씀속의 사항들에 관한 우리의 판단이 서게 된다. 이렇게 우리의 판단이 형성되면, 주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네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다. 말씀속의 깊은 교훈들은 단순하며 이야기들 속에 내재되어 있다. 이 이야기들은 그 교훈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 마음에 그렇게 놓여져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필요성이 대두되면 그 교훈들은 즉시 살아나 응용되어져 나타난다.

다윗은 위대해지면서 자신이 계명위에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약점에 종속당하기 쉽다. 즉, 우리가 행위적인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서 이웃으로부터 존경받게 되면 마치 자신이 선한 기독교인으로서의 품격을 다 갖추었다고 착각하고 만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강한 욕구가 결립돌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자신 속의 욕구를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계명에 의해 금지된 것, 즉 결립돌이라고 생각된 것을 교묘하게 넘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무의식적으로 “지금껏 잘못된 욕구를 가져 본 적이 없으니까 난 아마 선한 사람일거야. 내가 지금 원하는 것도 반드시 세상에서 선한 일을 더하기 위한 것일 거야. 그러니 이 결립돌을 치운다는 것이 잘못될 리가 없어. 목적이 중요하지 수단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라는 식으로 논쟁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단의 간략한 비유는 다윗의 높은 지위를 겐손의 계곡 아래로 끌어 내렸다. 그의 겐손에 대한 표현이 바로 시편 51편이다. 이 시편의 서두는,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정을 통한 다음 예언자 나단이 찾아 왔을 때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약해지고 방향을 잃었을 때를 상기하기 위해 자주 읽어야 하는 노래이다.

기본 상응 공부

다윗 = 영적 추론으로 보게 되는 신성한 진리의 법칙

제 4반

말씀의 본성과 말씀이 비유로 쓰인 까닭을 설명한다. 그리고 스스로 확신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계명을 순종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결혼의 일반적 의미와 그 반대되는 의미, 악이 항상 처벌을 동반한다는 것,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로 회개하면 죄도 도움이 되는 경험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곧 회개가 선을 가져다주는 것임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스라엘의 둘째 왕 다윗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당히 친숙하다.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영적으로 신성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을 표현한다. 이와 같은 이해성은 하룻밤 사이에 있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울이 주님께 불순종 하자마자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어졌다. 이와 더불어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했지만, 이 후로도 사울은 오랫동안 왕으로 군림했다. 사울이 전쟁에서 죽은 후 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으로 즉위하여 이스라엘 북쪽지역을 칠 년 동안이나 다스려 온 터라 다윗은 여전히 온전한 왕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의 다윗은 남쪽지역에서만 왕으로 추대되어 헤브론에서 통치하고 있었다. 위의 이야기는 우리가 처음 신성한 진리를 이해 할 때 그것의 요구 사항이 적절치 않다고 느끼는 상태, 즉 말씀속의 진리를 보다 깊게 이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실감하면서도 우리의 현실적인 충동이 현상적인 것에 의한 판단을 되풀이하고 있는 우리 삶의 상태를 묘사한다. 결국 우리는 반복되는 실수와 더불어 점차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과거의 습관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윗은 전 국토를 통치하기에 이르자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을 굴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정복해서 레를 그곳으로 옮겼고 영토도 확장했다. 이는 한 때나마 우리의 마음에 정착된 신성한

진리의 영적 이해가 과거 우리를 괴롭혔던 술한 시험들을 제거해 주면서 이전에 꿈꾸지 못했던 넓은 시야와 탄탄한 목적의식을 우리에게 안겨 준다는 의미이다.

이후의 이야기는 다윗의 범죄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만사가 형통되면 순간적으로 망각하도록 유혹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껏 열심히 닦은 인격조차도 구원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것과 자신이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거나 혹은 자신이 상당히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계명을 어길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각오해야 한다. 다윗은 헛족인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그녀를 아내로 삼고자 했다. 다윗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후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왕권을 이용했고, 심지어 전쟁터의 가장 위험한 앞 대열에 우리야를 세우도록 계락을 꾸며 그를 죽게 하여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까지 어기고 말았다.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은 새교회의 성경에 관한 일반적인 교리를 예증해준다. 다윗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름 부은 자였다. 게다가 주님은 그의 후손이 왕위를 이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기도 했다. 이상의 것들을 종합해 보면, 다윗 역시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이상적인 인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을 통해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한 그분의 도구로서 뽑혀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나단의 비유와 그 결과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법과 더불어 말씀이 비유로 주어진 까닭을 명확히 이해하게 된다.

다윗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신성한 진리로부터 비롯된 원리를 상징한다. 그러나 우리가 현상에 의한 판단을 넘어서 영적인 판단에 진입된 상태에서도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성은 다윗이 실수하듯이 여전히 불완전하다. 그리고 이기심이나 편견에 의해 우리의 영적 판단까지도 쉽게 흐려진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판단력은 자신의 바램이 올바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바라며 소유하려는 쪽으로 쉽게 끌려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서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발동하게 된다. 결혼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신성한 사랑과 지혜의 결합을 아주 깊게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의 질서가 전복된다고 함은 악이 진리와 그리고 선이 거짓과 결합하려고 시도함을 표현한다. 우리가 이기적인 바램을 만족시키기 위해 잘못을 행하려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간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예언자 나단으로 상징되는 말씀은 객관적인 형체 속에서 우리의 문제점을 표현해줌으로써 우리의 시야를 정화시켜주고 옳고 그름의 차이점을 우리 스스로 공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제 삼자의 입장에 있는 것처럼 여기고 성경의 인물이나 사건의 움직임을 쉽게 판단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인물과 같은 입장에 처하거나 그런 이야기 속의 교훈을 필요로 하게 되면, 우리는 나단이 “네가 그 사람이다”라고 한 말을 직접 듣게 된다.

다윗은 회개했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가 행한 죄과 그 자체는 면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바세바의 첫 아들이 죽은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든 영적 삶으로 연결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한 뒤 임신한 둘째 아들인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들 중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 이는 순수한 회개와 겸허만이 우리를 위대함으로 인도해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명심해야 할 명확한 판단의 기준인 것이다. 우리는 ‘선은 악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전쟁 또한 필수적인 미덕이다’ 혹은 ‘뭔가 일을 하려면 혈기가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젊은이들의 아우성을 흔히 듣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진정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악은 항상 손실만 초래하기 때문이다. 과정에 상관없이 악의 결과는 오직 손실뿐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선택의 자유 속에는 우리가 손실 후에 악을 뉘우치고 손실을 자신의 교훈으로 선택하여 자신의 길을 수정하게 되면 위대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설사 누군가가 자신이 훔친 물건을 주인에게 되돌려 준다하더라도 그가 행한 잘못을 없던 것으로 하거나 원 상태로 복귀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 잘못을 자신의 쓴 경험 혹은 삶에 대한 경고로 삼고 새롭게 출발할 수는 있다. 따라서 과거의 자신에 대해서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전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 5반

자칫하면 시험에 빠져 넘어지고 마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본다. 그리고 본문과 더불어 에제키엘 18장 20-24절도 읽어 보기 바란다.

이스라엘의 둘째 왕인 다윗은 영적으로 이해된 신성한 진리의 법칙을 상징한다. 이처럼 영적으로 진리를 이해하게 된 것은 사울이 표현하는 것인 진리를 자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적당했음을 실감한 결과인 것이다. 하지만 영적 이해성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규율해 가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다윗의 생애 초기와 관련된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는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던 중 부름을 받아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어졌다. 그는 하프 연주자여서 사울의 궁전으로 불려 지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을 돌팔매로 쳐서 눕혔고, 사울의 아들 인 요나단과 깊은 우정을 나누워 사울의 시기심으로부터 요나단에 의해 건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 속의 세부 사항은 우리 마음에서 있게 되는 신성한 진리에 대한 자연적인 이해성과 영적인 이해성 사이의 첫 번째 상관관계들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앞서 살펴본 바 있는 요셉과 보디발 그리고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와의 관계이다(창세기 39장). 그래서 다윗이 망명해 있던 시기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던 시기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요셉의 사건은 우리 삶의 전반을 표현하는 반면 다윗은 우리 삶의 후반에 해당되는 것을 표현한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뒤에도 즉시 전국을 통치하지 못했는데, 이는 사울의 군대의 대장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위에 앉혔기 때문이다. 이 때 다윗은 남쪽지역의 백성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어 헤브론에서 칠 년간 통치했다. 그리고 칠년 후 이스보셋이 그의 측근들에 의해 살해되자 북쪽지역의 백성들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 이러한 이스라엘 영토의 일시적인 분할은 솔로몬이 죽은 후 있게 될 분단을 예시하는 것이다. 영토의 남쪽 부분은 마음 또는 의지를 표현하고, 북쪽지역은 이해성을 표현한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다. 헤브론에서의 다윗의 통치란 우리의 이해성이 주님께서 우리의 어린 시절에 우리 안에 아껴두신 것인 순진한 심정 상태를 충분히 인정하는 상태에 도달되기도 전에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다윗은 북쪽지역의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었다. 여부스족이 그때까지 견고한 시온성 안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통일 국가의 왕인 다윗은 즉시 그 성을 함락시켜 수도로 삼았고 그곳에 켈을 옮겨 두었다. 또한 그는 그곳을 중심으로 사방의 이스라엘의 적들을 소탕하여 유례없는 영토 확장을 이루었다.

우리는 성공을 거둬헤가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가 사무엘하 11장에서의 갑작스런 변화로 섬뜩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즉, 그가 바세바를 보고 탐이 나자 그녀를 취한 후 심지어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그녀의 남편인 우리야를 전쟁터로 보내 죽게 만들었던 것이다. 다윗은 이때로부터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는 했지만, 내부의 곤경들 곧 그의 아들인 압살롬의 음모를 시작으로 하여 아도니야의 계략에 이르기까지 그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 재난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본문에서 이를 나단이 “야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네 당대에 재난을 일으킬 터이니 두고 보아라.’”라고 예언하고 있다.

다윗의 생애와 업적에서 볼 때 전환점의 시기는 그가 자신의 권력에 자신감을 갖고 계명을 소홀히

다른 순간에서부터였다. 다윗은 계명뿐만 아니라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힘을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지혜나 힘으로부터 이뤄진 것이 아님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세바를 소유하고자 왕의 권력을 남용했으며 계명을 깨트리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간음과 살인이라는 범죄는 영적 생명과 정 반대되는 죽음 그 자체이다. 순수한 결혼 속의 사랑은 모든 천국적인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데서 존재한다. 따라서 이에 반대되는 것은 천국이 닫히도록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진은 천국적인 상태를 이루는 필수 요소이다. 그러나 간음과 살인은 지옥의 특성에 속한다(마태복음 5:21-28 참조). 이 두 범죄의 시험에 노출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주님의 진리를 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도 그것이 남용될 수 있고 자신의 악한 바램을 정당화하는 데에 그것을 오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치닫게 되는 까닭은 ‘내가 거듭나는 삶의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계명을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을 거야’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실사 우리가 거듭나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완벽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었다할지라도 계명에 의거해서 우리의 삶을 항상 비추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욕심을 벗기 전에 즉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은 우리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주님의 선물을 남용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을 타인을 해치는 데에 오용하면 제아무리 거듭나는 삶이 진보되거나 자신의 신앙이 월등하다고 자타가 공인 하더라도 높이 올라간 만큼 더 깊은 지옥의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에제키엘 18:24 참조). 요즘 추세인 근대적 사고 중 하나는 주님의 계명들이 시대에 뒤쳐지는 케케묵은 규정들이므로 시대에 알맞은 규정들로 방향을 재조정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진리를 오히려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 악용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노골적으로 그의 죄과를 물었더라면, 다윗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나단을 제거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단은 이 문제를 제삼자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빚대어 말함으로써 다윗이 그 이야기 속에 들어 있는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했다. 따라서 나단의 비유 속에 다윗의 자아사랑을 건드려 성나게 할 것이 전혀 없었던 고로 그 순간 다윗의 자아 사랑에 의한 판단은 잠시 눈이 멀어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그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분명히 있어졌던 것이다. 그러자 나단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다윗은 스스로를 자유롭게 심판하여 받게 될 처벌이 무엇이든지간에 정당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하게 되었다. 이 방법은 주님이 말씀을 수단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방법이기도

하다. 말씀은 우리에게 닥칠 모든 상황을 비유로 보여주면서 우리 스스로가 처한 상황에 대해 자유롭게 옳고 그름을 판가름 하도록 하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악의 결과까지 보여준다. 그 다음 우리가 예언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말씀은 우리의 악함과 죄들에 관하여 “네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해준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의 글자를 기억 속에 저장해놓고 그 말씀을 삶에 응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문제에 직면할 준비를 갖추게 되며 각 문제점들을 공정하게 판가름 할 실력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불법적인 결합의 소산, 즉 다윗이 바세바와 정을 통해 얻은 첫아들은 결국 죽었다. 생명이 있는 영적 원리는 계명의 글자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어떤 시도로부터도 근원되지 않는다. 즉, 우리에게 매우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 자세히 설명하자면 우리가 어떤 것이 올바른 경로로 획득되고 그것이 순수하고 선하여 움직이더라도 계명의 글자에 대한 순종의 의무를 게을리 한다면 살아 있는 영적 생명이 눈곱만치라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다. 첫아이가 죽기 전에 있었던 그의 단식은 우리가 행한 죄과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자연적 수준에서의 희망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빠진 후 그 죄를 인정한 이상 우리 역시 다윗처럼 새롭게 일어나서 시작해야만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과거의 쓴 경험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새 힘이 우리 안에서 발달된다.

참고 문헌: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10801-10803: “왕권 자체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다. 왕권이 왕국의 법에 따라 집행되는 데에 존재하고 왕국의 법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왕은 슬기롭다. 반면에 법이 자신의 아래에 있다고 간주하는 왕, 즉 자신이 법 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하는 왕은 현명치 못하다. 법이 자신의 아래 있다고 하는 자, 즉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하는 자는 왕권을 자기 속에 있게 만든다. 그는 자신을 법이라고 믿으려하거나 정의로운 법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한다. 그 결과 그는 신성한 것, 신성아래 자신을 놓음으로써 자신에게 신성을 돌리게 된다.”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누구인가?
- 2) 그의 고향은 어디인가?
- 3) 그의 첫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 4) 누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는가?
- 5) 그는 무엇 때문에 사울의 관심을 사게 되었는가?
- 6) 그는 골리앗을 어떻게 때려 눕혔는가?
- 7) 다윗은 어디에서 처음으로 통치를 시작했는가?
- 8) 그는 얼마동안 그곳에서 통치했는가?
- 9) 그는 전 국토의 왕이 된 후 어떤 성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았는가?
- 10) 그가 그 성에 모신 아주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 11)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성취한 업적은 무엇인가?
- 12) 그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 13) 주님은 그를 견책하도록 누구를 보냈는가?
- 14) 나단은 어떤 비유를 다윗에게 들려주었는가?
- 15) 다윗은 비유속의 사람을 어떻게 판결했는가?
- 16) 그런 다음 나단은 다윗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 17) 다윗은 어떻게 나단의 질책을 받았는가?
- 18) 왜 나단은 다윗에게 비유로 먼저 말했는가?
- 19) 사울과 다윗의 상응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다윗 2) 베들레헴 3) 목자 4) 사무엘 5) 하프연주자였기 때문 6) 자갈과 돌팔매로
- 7) 헤브론 8) 7년 9) 예루살렘 10) 궤 11) 주위의 모든 적을 정복했다 12) 바세바와 정을 통했다 13) 나단 14) 부자와 가난한자, 암컷 새끼 양 15) “죽일 놈”
- 16) “네가 그 사람이다” 17) 회개했다 (시편 51편 참조)
- 18) 공정한 판단과 자신의 생명을 보전받기 위함
- 19) 사울 - 진리에 대한 세상적인 생각, 다윗 - 진리에 대한 영적인 생각

솔로몬의 최후

머리말

솔로몬은 다윗과 바세바의 둘째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다. 그의 이름의 뜻, 다윗의 통치와 그의 통치의 상이점, 그의 지혜와 영예 그리고 성전건축에 관하여 언급한다. 그리고 그가 우상숭배로 전락한 원인이 아내가 많아서라기보다는 그의 아내들의 우상숭배 때문이었음을 강조한다. 또한 여로보암이 받은 겔옷 조각과 사울이 찢은 사무엘의 도포조각을 연관 지어 생각해본다(사무엘상 15:27-28).

성 서 본 문: 열왕기상 11장 1-13절, 26-43절

11장: 1. 솔로몬왕은 매우 호색이었으므로 수많은 외국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었다. 파라오왕의 딸뿐 아니라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 등 외국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아 들였다. 2. 야훼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국인들과 결혼을 금지하시고 경고하시기를 “너희는 외국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고 외국 남자를 남편으로 삼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꺾어 그들의 신에게 너희를 유인해 가겠기 때문이다”라고 하신 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 외국 여인들과 깊은 사랑에 빠졌던 것이다. 3. 솔로몬은 무려 칠백 명이나 되는 후궁을 거느렸고 그 외에 수청 드는 여자가 삼백 명이나 되었다. 왕은 여인들에게 빠져 마음이 흐려졌으므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4. 솔로몬은 늙어 그 여인들의 꾀에 넘어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 왕은 선왕 다윗만큼 자기 하느님 야훼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다. 5. 솔로몬은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도렛을 섬겼고 암몬인들의 우상 밀곰을 숭배하였다. 6. 이와 같이 솔로몬은 선왕 다윗만큼 야훼를 따르지 못하였고 야훼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다. 7.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편 산 위에 모압의 우상 그모스의 신당과 암몬의 우상 몰록의 신당을 지었다. 8. 솔로몬은 외국인 왕비들이 하자는 대로 왕비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물까지 드렸다.

9.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노하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를 마음으로부터 저버렸기 때문이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일찍이 그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으며 10. 그 때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일러두었는데 왕은 끝내 야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11. 마침내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마음이 이리하고, 내가 너와 계약을 맺으면서 일러 둔 법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쪼개서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12. 그러나 너의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네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고 너의 아들의 대에 가서 이 나라를 쪼개리라. 13. 그러나 이 나라를 쪼개어 다 내주지는 않고 한 지파만은 네 아들에게 주어, 내 종 다윗의 뒤를 이어 내가 지정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하리라”...

26.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족에 속한 스레다 사람으로서 솔로몬의 신하였다. 그도 또한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 스루이였다. 27. 그가 반기를 든 경우는 이러하였다. 솔로몬이 밀로궁을 건축하고 그의 선왕 다윗의 성을 보수할 때였다. 28. 그 사람 여로보암은 힘센 장사였다. 솔로몬은 그 젊은이가 일하는 것을 보고 그를 요셉 지파의 부역 총책임자로 임명하였다. 29. 한번은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다가 실로 출신의 예언자 아히야를 길에서 만났다. 그 예언자는 말쑥한 새 옷을 입고 있었다. 들에서 단둘이 있게 되자 30. 아히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서 열 두 조각으로 찢었다. 31.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 열 조각을 맡으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하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라. 내가 솔로몬의 손안에 있는 이 나라를 찢어 너에게 열 지파를 주리라. 32. 그러나 한 지파만은 솔로몬에게 주어 내 종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내가 지정한 성읍인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하리라. 33.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이 섬기는 여신 아스도렛과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예배하였다.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내가 보여 준 길을 가지 않았고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았으며 내가 준 규정과 법령을 지키지도 아니하였다. 34. 그러나 내가 뽑아 세운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규정을 지킨 것을 생각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이 나라를 조금도 빼앗지 아니하리라. 35. 내가 장차 그의 아들대에 가서 이 나라를 쪼개어 열 지파를 너에게 맡길 것이다. 36.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리라. 그리하여 나의 종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선택하여 나의 것으로 지정된 성읍인 예루살렘에서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항상 내 앞에서 비추게 하리라. 37. 내가 너의 원대로 너를 택하여 통치자로 임명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 38. 나의 종 다윗처럼 내가 명하는 바를 모두 지키고 내가 지시하는 길을 가며 내 규정과 명령을 지켜 내 앞에서 바르게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한 다윗의

왕조를 든든히 세워 주었듯이 너의 왕조도 든든히 세워 너에게 이스라엘을 맡기리라. 39. 이렇게 하여 다윗의 자손의 머리를 숙이게 해 주리라.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두어 두지는 아니하리라.”

40. 이렇게 되자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찾아 죽이려고 하였다. 여로보암은 하는 수 없이 시삭왕이 다스리는 이집트로 망명하였다,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다. 41.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나머지 역사는 솔로몬왕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42.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간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43.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 그의 선왕 다윗의 성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악과 거짓 속에 빠져있는 이들에게도 그분의 손이 닿도록 항상 노력하고 계신다.
- * 말씀은 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손이 닿도록 썩어져 있다.
- * 진정한 이타애는 만인에게 뻗어나가지만, 선과 악에 똑같이 뻗혀 나가는 것은 아니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이 세상의 누구도 선하고 지혜로워서 시험을 초월하여 죄에 빠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세상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 의지로 천국적인 삶을 선택하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그 삶을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속에 천성적으로 이기적인 경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그것들을 하나씩 극복해감으로서 이러한 삶을 이루게 된다. 우리가 거듭나고 있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속의 더 깊은 악들을 더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악들이 때로 우리에게 곤란과 실망을 안겨 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진보에 대한 표시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온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고 굴복하고 말았다. 그는 부유하도록 축복을 받았으며, 다윗과 바세바의 둘째 아들로써 주님의 지시 하에 아버지 다윗에 의해 선택되어져 다윗이 죽기 전 왕위에 등극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굳이 싸워야 할 필요도 없었는데, 이는 그의 아버지가 적들을 모두 정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통치는 평화와 영예만 있었을 뿐이다. 이를 반영하듯이 솔로몬이란 이름조차도 “평화”라는 뜻이다. 그는 처음 보좌에 올랐을

때 젊고 겸손함과 더불어 자신의 나약함을 인식하여 주님께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그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인해 지혜를 받았는데, 이런 지혜는 결코 인간에게서 비롯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주님은 그에게 큰 부를 더해 주셨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권리도 주셨다.

그러나 솔로몬도 결국 다윗처럼 주님의 법에 복종하기보다 그 법 위에 자신이 군림한 것처럼 느꼈다. 이 느낌은 성공과 번영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거쳐야만 하는 큰 시험인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실례를 주위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시험은 흔한 것이다. 하지만 본과는 이런 시험 속에 든 미묘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우리의 외적 환경조건인 부와 권력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복종해야 하는 것에 본문이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쟁취해야 할 가장 높은 목표는 천국적인 인격이다’라는 것에는 이론적인 반론의 여지가 없다. 사실 이 목표는 재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조건들에 관계없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달성 가능한 목표라는 것이다. 천국적인 인격이라는 목표는 궁극적으로 주님과 이웃의 사랑, 즉 주님의 영을 자기 마음 안에 모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면,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와 영예를 소유하게 된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에 이른 우리가 어떻게 또 다시 시험될 수 있는가?’라는 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본문의 솔로몬이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즉,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랑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말씀의 글자를 꾸준히 공부하면서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여 일이 터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이 시험에 노출되면 그 “왕국”이 우리들로부터 거둬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제 1반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의 이름의 의미, 세 왕들의 이름 그리고 여로보암의 겹옷에 대하여 주로 살펴본다.

다윗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 구약성서는 원래 히브리어로 씌어졌는데, 히브리어의 모든 이름들은 뜻을 가지고 있었다. 히브리어로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이다. 사울과 다윗의 일생은 온통 전투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중 다윗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언제나 전투에서 승리했고,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은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미 평화로워서 싸워야 할 만한 적이 없었다.

어느 날 밤 솔로몬이 왕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소원하는 바를 말해 보라고 하셨다. 그때 솔로몬은 부나 권력 대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만을 구했다. 주님은 그의 소원 내용에 감탄하셔서 그가 요구하지 않은 부와 권력도 더해 주셨다. 그리고 그의 소원은 그대로 이뤄졌다.

솔로몬은 위대하고 부유하며 지혜로워서 못 나라의 왕들이나 여왕들이 그의 영예를 보기 위해서 방문했다. 그들은 그에게 풀기 힘든 난제들을 물어 보기 위해 내왕하기도 했다. 그는 이집트의 왕의 딸과 결혼했고, 그 여자를 위한 집과 자신을 위한 궁전도 건축했다. 주님은 그에게 성막대신에 제를 안치할 성전을 짓도록 허용해 주셨다. 본문이 주는 교훈들 중의 하나는 솔로몬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솔로몬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 * 그는 더 나은 어떤 것을 알아야 했는가?
- *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취해지는 지파는 몇 개인가?
- * 그렇게 취해진 지파들을 누가 다스리게 되었는가?
- * 주님은 이런 일을 여로보암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제 2반

솔로몬의 지혜와 영예를 그의 말기에 행해진 죄와 대비시켜본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다윗과 나단에서 공부한 바 있다. 그리고 과거에 행한 자신의 선함으로 현재의 죄과를 상쇄해서는 안 됨을 강조한다.

솔로몬이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뜻을 지닌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을 소탕하여 솔로몬의 통치는 평화스러울 뿐이었다. 주님은 그가 왕위에 오른 뒤 어느 날 밤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면 좋겠느냐?”하고 물으셨다. 그때 솔로몬은 부와 권력을 요구하지 않고, “명석한 머리를 주시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 흑백을 잘 가려 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소원했다. 주님은 이를 매우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그가 요구한 지혜 외에 부와 영예도 더하여 주셨다. 솔로몬은 아주 슬기로워져서 타국의 왕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기

도 했다. 게다가 그는 큰 부자가 되었고 많은 소유물도 갖게 되었다. 또한 그는 다르셋 상선 대를 조직하여 히람 상선 대와 함께 해상무역에 종사토록 해서 금, 은, 상아, 원숭이 그리고 공작새 등을 사들여 오기도 했는데, 이는 열왕기상 10장 22-23절로 알 수 있다. 솔로몬 왕은 땅위의 어느 왕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부유하고 지혜로웠다. 그리고 궐을 안치할 아름다운 성전을 짓도록 그에게 허용되었다.

우리 모두에게 있을 법한 아주 간단한 경험을 예로 들어 보자. 어느 날이 우리에게 매우 좋은 날이었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는 그날에 매우 행복해 하며 타인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에 과거에 배웠던 것들, 즉 남에게 친절해야 된대거나 금기시 된 사항들에 관한 교훈을 굳이 상기하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 저녁때쯤 어떤 일 하나를 매우 흥미롭게 여기면서 “내가 하루 종일 남을 도와주었는데, 한 가지쯤 내게 재미있는 것을 해도 괜찮을 거야.”하고 생각하고, 그 한 가지가 타인에게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행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주위의 친구나 부모님께서 그 일의 상황을 파악하여 “너는 하루를 좋은 날로 만들어 놓고 한 가지 일로 좋은 날을 망치는구나”라고 우리를 질책하게 된다. 이런 모습이 바로 본문의 솔로몬인 것이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일부다처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주님은 그들에게 적국인 우상숭배 국가들로부터는 결코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엄격히 명령해 두셨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명령에 불순종했다. 주님은 장차 그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알고 계셨다. 솔로몬은 아내들의 꾀에 넘어가 그녀들의 우상들에게 절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적들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여 솔로몬 왕국의 평화를 위협했다. 결국 솔로몬의 부하중의 한 명이 그에게 반기를 들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솔로몬의 아내는 누구였는가?
- * 그는 본문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 * 왜 그 일이 죄인가?
- * 그가 늙자 그의 아내들은 그에게 무엇을 하도록 꾀었는가?
- * 주님은 장차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는가?
- * 언제 그 일이 발생했는가?
- * 솔로몬에게 반기를 든 부하는 누구인가?
- * 솔로몬은 그에게 어떤 지위를 주었는가?
- * 여로보암은 어떤 예언자를 만났는가?

- * 아히야는 어떤 일을 했는가?
- * 이전 성경의 어느 부분에 이와 유사한 행동이 있었는가?
- *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 솔로몬은 그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가?
- * 여로보암은 어디로 피신했는가?
- * 솔로몬의 통치는 몇 년간 지속되었는가?

제 3반

본문의 교리적인 요점은 영적인 의미보다 천적인 의미에서 있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진정한 이타애가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똑같이 대우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간단한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하고, 누구도 불순종에 따른 대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는다.

앞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첫 세 왕들이란 신성한 진리가 우리 삶을 통치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배웠다. 세 왕들은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신성한 진리를 이해하는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진리를 삶에 응용함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발달되고 심오해져서 그 성취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울은 진리에 대한 우리의 첫 이해, 즉 자연적인 이해를 상징한다. 이 이해는 가시적인 현상의 판단에 기초한다. 반면에 다윗은 영적인 이해를 상징한다. 이 이해는 가시적인 현상이 우리를 쉽게 현혹시킴을 인식하고 자연적인 이해 또는 자연적인 현상보다 차원이 높은 영적인 원리들이 있음을 인식하는 데에 기초한다. 사울과 다윗은 모두 인생의 대부분을 싸우는데 보냈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는 “몸을 씻어 정결케 하여라.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깨끗이 악에서 손을 떼어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 이 구절이 사울과 다윗의 일에 대한 요약이다. 즉, 이 구절은 우리 영혼의 적들을 소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성취해야 할 일이다. 그런 다음 이사야서 1장 17절의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찾아라.”라는 구절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구절이 솔로몬의 일에 해당된다.

스웨덴북은 솔로몬이 천적인 왕국이나 영적인 왕국이라는 측면에서의 주님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천적인 원리는 사랑이요 영적인 원리는 진리이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라는 원리가 우리의 삶을 규율한다고 함은 우리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보다 깊은 방법으로 이해된 신성한 진리에 순종하게 됨을 뜻한다. 간단한 예로 이를 이해해 보자. 우리는 신성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십계명임을 알고 있다. 그 중에서 “도둑질하지 마라.”는 계명을 생각해 보자. 맨 먼저 우리에게 타인이 가진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자연적 바램이 있게 된다. 어린아이들도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싶도록 유혹된다. 그러나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소유하는 것, 즉 훔치는 것이 발각되면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훔치는 것을 주저하게 한다. 이런 동기에서 비롯되는 계명에의 순종이 바로 사울로 상징된다. 그 다음 단계는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로 가르쳐진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이다. 다시 말해서, 도둑질을 하면 들키고 처벌을 받게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사울의 단계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도둑질이 잘못된 것이기에 행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원리를 말한다. 이 원리가 바로 다윗으로 상징된다. 우리가 거둬내는 과정을 계속 해가다 보면, 우리는 이웃에 속하는 것을 더 이상 탐내지 않는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게다가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에 즐거워하고 이웃이 더욱 많이 가지며 행복해지기를 바라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도둑질하려던 모든 시험은 없어지고 오직 평화만이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으로 상징된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평화”인 것이다.

앞서 우리는 솔로몬이 주님께 소원한 꿈, 주님께서 지혜 외에 부와 영예도 솔로몬에게 더해주셨던 것, 세바 여왕의 방문, 솔로몬의 영화로움에 관한 세부사항 그리고 성전의 건축 등에 대해서 공부했다. 지금 우리는 이런 화려함을 뒤에 남겨둔 채 솔로몬 통치의 말기에 있었던 침울한 그림자, 곧 그에게 죄를 짓도록 한 것에 관하여 읽고 있다. 우리 모두는 솔로몬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기적인 경향성을 가진 인간에 불과하며, 자신의 죄를 변명하기 위해 자신의 선한 인격에 의존하기도 한다.

솔로몬은 칠백 명의 아내들을 거느린 것에 대해서는 질책 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당시 일부다처제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질책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던 사항, 즉 거룩한 땅에 있는 우상숭배 국가들로부터 아내들을 맞았기 때문이다. 성경 상에서 결혼 전의 여인들은 진리 또는 거짓에 대한 애정을 상징하고, 결혼한 여인들은 각 여인의 남편들이 그려주는 선 혹은 악에 대한 애정을 상징한다. 솔로몬은 초기에 이집트 왕의 딸과 결혼했는데, 이는 진리를 기억 속에 담고 싶어 하는 것에 몰두함을 묘사한다. 이러한 바램은 옳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의 글자로부터 진리를 배워야 하고 배운 교리로부터 선한 삶의 기초를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솔로몬이 주님께서 결혼을 금지하지 않은 국가들로부터 아내들을 데려 왔더라면, 그는 어떤 질책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이란 일반적으로

좋은 측면의 상응을 갖는 국가들이다. 그러나 거룩한 땅 내의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적들이므로, 이 국가들 내의 여인들이란 악과 거짓에 대한 애정을 상징한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행한 잘못을 변명하면서 그에 대한 비평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 번쯤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은 부모와 자녀 간에 흔히 발생된다. 우리는 아이가 끝내 고집을 부리며 잘못을 고치지 않을 때에 “그 아이는 못쓰게 되었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본문의 첫 절에서와 같이 악한 국가 출신의 여인들과 솔로몬이 사랑을 나누는 모습으로 의미된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우리속의 잘못을 인식해서 정정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이 멀어지게 방치한다면, 우리는 솔로몬이 저지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주님은 백성들에게 그들이 금지된 국가들로부터 아내를 취해서 안 되는 까닭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해두셨다(신명기 7:3-4, 출애굽기 34:16). 그 이유는 그 국가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일은 주님의 축복을 가장 크게 받았다는 자 곧 주님께 가장 신실했다는 솔로몬까지도 바꾸어 놓았다. 우리가 계명의 어느 하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것을 조금 어기더라도 별탈이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자신의 마음에 허용하게 되면, 우리는 온갖 종류의 거짓에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 두게 되어 천국적인 삶에서 조금씩 그리고 더욱더 멀리 떨어지게 유도되어 결국 주님의 왕국이 우리로부터 거둬지게 된다.

솔로몬 왕국의 분열은 차후 공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이 분열의 씨가 솔로몬의 죄로 인해 뿌려졌다는 것이다. 앞서 수차례 언급했듯이, 어떤 큰 변화는 갑자기 그리고 한 번에 있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는 것을 목격할 때가 많다. 이것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보좌에 앉아 있도록 허용된 모습이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산더미같이 쌓아져 갔다. 주님은 솔로몬에게 그의 아들이 그가 통치했던 영토의 한 부분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적들이 다시 세력을 얻게 됨을 보았다. 심지어 그는 총애했던 신하중의 한 명인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통치하도록 주님에 의해 약속된 것도 보아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솔로몬의 죄가 초래하게 될 결과들을 방지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이미 사라지고 없었음을 알아야 한다.

기본 상응 공부

솔로몬 = 사랑으로부터 이해된 신성한 진리

결혼 전 여인 = 진리 또는 거짓에 대한 애착

결혼 후 여인 = 선 또는 악에 대한 애착

제 4반

어느 누구도 자아를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주로 살펴본다.

성경에 있는 솔로몬에 관한 사항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는 많은 여인을 거느렸었죠.”라고 흔히들 답한다. 셰익스피어는 “인간이 행한 악은 당사자가 죽은 뒤에도 살아 있는 때가 많고, 선은 그 사람의 뼈와 함께 묻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 그는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솔로몬왕은 땅위의 어느 왕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부유하고 지혜로웠다”라고 평가된다. 게다가 그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이러한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국이 몰락된 원인에 대해서만 기억할 뿐이다.

앞서 우리는 다윗의 범죄와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세 왕들의 잘못에 대한 모형은 모두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모두 성공의 시대가 열리자 주님의 계명보다 자신들을 더 우월하게 여겼던 것이다. 성경의 글자에서 나타나는 교훈 역시 명확하다. 즉, 계명을 깨트림은 결코 그들을 선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성경을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준까지 완전하거나 지혜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다.

본문은 새교회인들을 위해 이 보다 더 깊은 교훈을 설비해 놓고 있다. 뒤의 참고 문헌을 보면 본문에서의 솔로몬 말기에 관한 부분이 주님과 관련된 의미, 즉 가장 깊은 천적인 의미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하시다. 그분의 온유한 자비는 그분의 모든 섭리 속에 함유되어 있다. 주님은 이방인들의 양육된 환경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속에 이타애를 보존하려고 하면 그들을 구해 주신다. 또한 주님은 악 속에 빠진 이들에게도 그분의 사랑이 임하도록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악을 보고 인정하여 그것으로부터 돌아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다. 스웨덴북은 이런 이유로 복수 또는 처벌이라는 용어가 성경에서 쓰인 것이며 일부다처제와 같은 불합리한 사실들이 허용된 것이라고 거듭하여 설명한다. 이들은 그 시대 사람들의 상태에 대한 표본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더 깊은 악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장치도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의 실질적인 표현인 것이다.

한정된 지면으로 공부해야 하는 우리 성경공부의 한계 때문에 공부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말씀에

대한 영적 의미에 국한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각 개인의 영적 상태와 관련되는 의미만을 주로 살펴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문인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 삶에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일까? 앞서 살펴본 바대로 왕이란 진리 또는 거짓이 통치함을 표현한다. 따라서 세 왕들인 사울-다윗-솔로몬의 경우는 거듭남에 따라 있게 되는 우리의 상태들을 의미한다. 즉, 사울은 자연적 수준에서 진리를 이해하여 적용할 때를 의미하고 다윗은 영적 수준에서 진리를 이해하여 적용할 때를 의미한다. 이 두 왕들의 주된 임무는 이스라엘의 적들을 찾아내서 싸워 이기는 것이었다. 거듭나는 삶에 있어야 할 조건은 바깥의 삶 곧 일상생활을 질서 있게 해나가 는 것인데, 이것이 광야 여행으로 그려지는 재구성의 시대이다. 이 시대 다음에는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이해함 속에 자리 잡은 악과 거짓들에 대항하도록 하는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싸움은 단 번에 끝내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수아서와 판관기서는 이런 싸움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묘사해준다. 그리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서는 이러한 싸움이 보다 조직화되어 접전을 시도하여 승리하게 됨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같은 오랜 싸움을 하는 동안 설사 만족할만한 승리의 순간이 많다하더라도 결코 평화를 실감하지 못한다.

결국 모든 적이 정복된 후 솔로몬이 보좌에 오르게 되었다. 솔로몬이란 이름은 “평화”라는 뜻이다. 영적인 평화의 상태는 우리가 주님의 진리에 불순종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두려움으로 인한 순종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주님으로부터 진리가 근원되므로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여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영적인 평화는 오로지 사랑으로부터 곧 주님과 이웃을 사랑함에 서만 비롯된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잘못된 것을 원치 않는 상태에서 평화가 온다. 즉,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악 혹은 거짓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평화 속에 있게 된다. 이런 상태에 대한 묘사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돌은 채석장에서 다듬어 준비했기 때문에 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이나 그 어떤 연장을 다루는 소리도 성전에서 들리지 않았다”라는 구절에 담겨있다. 우리는 이러한 경지에 이른 사람을 목격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고 칭송하며, 세바 여왕이나 기타 다른 국가의 왕들이 솔로몬을 방문했듯이 그러한 경지에 이른 현자에게 조언을 구한다. 우리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인격을 가졌다고 여기며, 그의 삶에서 어떤 시험이나 투쟁 혹은 악함을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시험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초월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타당한 것일까?

본문은 위의 질문에 답해 주고 있다. 영문 성경에서의 본문의 첫 단어는 “but”으로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이 상태에 수반되는 깊고 깊은 시험이 있다는 말이다. 솔로몬은 이 시험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 시험이란 사람 안에 든 선한 것만 보고 악과 거짓에는 눈 감게 되는 것으로서, 누구든지 악과 거짓을 소홀히 하면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망각하게 하는 시험이다. 이러한 시험은 타인의 악을 너그럽게 이해해줌으로써 혹은 타인의 이해성 안에 든 거짓사상을 아무런 비판 없이 무조건 수용함으로써 시작된다. 솔로몬의 아내들이 그를 꺾어 그녀들의 신에게 끌고 갔던 것이 이에 대한 묘사이다. 특별히 선한 인격자라고 주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거짓사상을 수용하게 되면, 그 거짓은 사람들의 굉장한 지지를 받는 격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진정한 사상으로부터 유린해버리게 된다.

우리는 설령 자신의 거듭남이 솔로몬과 같은 상태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할지라도 위에서와 같은 시험에 종종 노출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타인에게 사랑받고 칭찬 받게 될 때 자신의 결점을 변명하며 정당화하려는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 심지어 자신의 장점과 더불어 결점까지도 정당화하려고 한다. 이럴 때에 우리는 솔로몬의 죄와 그 결과를 회상하며, “참으로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하고 자백해야 할 것이다(마태복음 19:17).

제 5반

본문의 영적 의미와 천적의미의 차이점 그리고 악과 거짓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간에 반드시 꼬집어내서 단죄되어야 함을 주로 언급한다.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세 왕들이란 우리 삶에서 신성한 진리가 통치되는 세 가지 단계 혹은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 수준과 거듭남의 발전을 묘사한다. 그리고 신성한 진리는 두 가지 큰 계명 곧 주님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에 함축되어 있음을 명심하자. 우리는 거듭남의 시작 때부터 이 계명이 천국적인 삶의 필수요소라고 인식했을지도 모른다.

먼저 우리의 진리에 대한 이해가 “사울” 단계에 있을 때 주님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며 봉사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계명을 글자대로 순종하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도우려고 하며 자선기금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사울로 상징되는 진리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명확히 눈에 띄는 이기적인 경향들을 다소 극복하도록 해주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겉손보다는 자만 쪽으로 향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마침내 이런 식으로 진리를 이해함이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두 가지 큰 계명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내적 의미의 빛 속에서 그것들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는 다윗의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이해 수준이 이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과거 사울단계에서 발달되어 쌓아 온 선함을 버리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동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순수한 선함인가를 살펴보며 그것들이 단지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려고 행해졌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겸허한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고, 선을 행하되 이웃 속의 선을 보고 그것이 자라날 수 있도록 행하며 무차별하고 식견 없는 자선 행위와 같은 도움은 오히려 이웃속의 악을 조장시키게 됨을 인식하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단계에서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 속의 악을 발견하게 된다. 다윗의 통치는 전쟁과 정복이라는 긴 세월이다. 따라서 이 단계 역시 승리와 더불어 시험이 오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견책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악을 회개하면 결국 솔로몬이 우리에게 탄생된다.

스웨덴북은 「계시록 설명」 제 654-29항에서 솔로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솔로몬은 주님의 천적 왕국과 영적 왕국에 관련된 주님을 표현한다.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란 순수한 이타적인 사랑인 천적인 원리가 중심이 되어 신성한 진리를 이해할 때를 말한다. 즉,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우리의 행위가 타인으로부터 칭찬 받기 위해서 혹은 겸손함이나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저절로 행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타인의 행복을 즐거워하며 그 일로 주님께 깊이 감사하게 된다. 이런 상태야말로 자신의 안 밖에 있는 적들과의 긴 투쟁이 끝나고 진정한 평화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솔로몬의 위대한 지혜와 영화에 관한 성서의 본문은 위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을 표현한다. 이 상태에서 천국적인 인격속의 성전은 이미 다듬어진 재료로 우리 속에서 조용히 건설된다.

이와 같은 높은 인격의 수준에서도 승리는 피할 수 없는 시험을 가져온다. 그래서 본문의 단어는 “but”로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항상 “그러나”가 존재하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천사들은 천국 안에서도 간혹 자신들 속에 이기적인 본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하는데, 이 본성은 단지 주님의 자비로 그곳에서 활동하지 못할 뿐이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주위에서 솔로몬의 단계에 이른 사람들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들은 아마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충고나 권면은 많은 이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그들의 행동은 사회의

모범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 안에 있는 좋고 나쁜 것을 가리지 않고 모두 사랑해버리고 만다. 그래서 그 사람 속의 좋은 것만 보고 나쁜 점은 눈감아 버릴 때가 많다. 그러다 보면 많은 이들이 그 사람의 잘못된 사상까지도 너그럽게 봐주게 된다. 그리하여 잘못된 사상이 외적인 선한 행동 속에 감춰진 채 많은 이들의 사상을 그릇된 길로 끌고 가기도 한다.

「계시록 설명」 제 654항은 솔로몬이 깨트린 율법에 관하여 알려준다. 신명기 17장 15-17절에서는 이 율법이 “너희는 반드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골라주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 같은 동족을 임금으로 세워야지, 동족이 아닌 외국인을 임금으로 세우면 안 된다. 그러나 왕이라고 해도 군마를 많이 기르는 일만은 하지 못한다. 백성을 이집트로 다시 보내어 군마를 많이 얻어 오게 해도 안 된다. 너희가 그리로 되돌아가지 못하리라고 야훼께서 너희에게 일러두시지 않았느냐? 왕은 또 많은 후궁을 거느리지 못한다. 그러면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릴 것이다.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도 안 된다.”라고 서술된다. 이와 더불어 제 47항을 읽어보면, 위 구절에서의 말이 변덕스러운 거짓 지식들을 그리고 아내들이 진리와 선에 관한 애정을 의미하지만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거느릴 경우는 반대적인 의미가 되어 악과 거짓에 관한 애정을 의미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아내들은 남자의 마음을 다른 데로 쏠리도록 만든다고 말해진다. 은과 금 역시 교회 속에 있는 선과 진리를 의미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된다고 언급되는바, 여기서의 은과 금이란 자연적 인간에 근원한 것으로서 악과 거짓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 47항은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이집트로부터 군마를 들여왔고 많은 후궁을 거느림과 더불어 은과 금을 많이 축적하여 결국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가 죽은 뒤 그의 나라는 분열되고 만 것이다.”라고 끝맺고 있다.

솔로몬의 첫 아내는 이집트 파라오의 공주였다. 앞서 명시된 스웨덴본의 저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속의 이집트란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에서 모두 자연적 인간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솔로몬은 주님에 관한 천적 왕국과 영적 왕국을 표현한다. 이 두 왕국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은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통해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고, 그 지식들로 선과 진리를 확증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솔로몬은 이집트의 임금 파라오와 결혼 동맹을 맺었다. 그는 파라오의 딸을 맞이하여.. 그 아내를 다윗성에 두었다’라는 구절을 읽게 된다.”라고 설명한다. 열왕기상 7장 8절에는 “솔로몬은 또 그가 아내로 맞아 데려 온 파라오의 딸을 위해서도 같은 궁을 지어 주었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스웨덴본은 이에 대하여 “이집트는 좋은 의미에서 모든 총명과 지혜의 기초가 되는 지식을 표현한다. 교회속의 사람들이 영적이고 합리적이고 더불어

자연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세 채의 집을 건축했던 것이다. 그중 하나는 하느님의 집 또는 성전으로서 영적인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레바논의 송백나무로 지은 그의 궁은 합리성을 상징하며, 파라오의 딸을 위한 궁은 자연성을 상징한다.”라고 설명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항들은 우리로 하여금 본문의 천적인 의미를 생각해보도록 인도해준다. 천적인 의미란 주님에 관한 이모저모를 뜻한다. 우리는 본문을 공부하면서 “솔로몬은 수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렸는데, 어떻게 그가 주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기도 한다. 「하느님의 섭리」 245항에서 “솔로몬은 우상을 위한 신전을 건설하도록 허용되었다. 이는 그가 만방에 있는 다양한 모든 종교와 더불어 주님의 왕국 또는 교회를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이 영화하신 후 천상천하의 권능을 가지셨던 바, 솔로몬이 이와 같은 내용의 표본이 영화와 장엄함을 나타냄과 더불어 지상의 어떤 왕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소유하며 성전을 짓기도 했던 것이다.”라는 설명이 그 질문에 대한 명백한 답일 것이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종교의 사람들 그리고 선한 자 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게까지 도달하고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법칙은 우리의 자유를 간섭함이 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허용의 법칙은 주님의 법칙이므로, 우리는 이 법칙을 자신의 법칙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 법칙을 사용해서도 안된다. 솔로몬은 개인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도 그가 알고 있는 율법을 깨트렸다. 이로 인해 그와 그의 백성들은 고통을 받게 된 것이다. 「천국의 신비」 제 3246-3항과 4항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전의 교회들에서는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었으나 기독교를 위해서는 허용되지 않았다.”라고 서술된다. 오늘날의 우리 역시 우리에게 밝혀주신 높은 진리들을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다.

참고 문헌: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하느님의 섭리」 제 245항: “솔로몬에게는 우상숭배를 하도록 허용되어졌다. 이렇게 된 까닭은 그가 만방에 있는 다양한 종교와 더불어 주님의 왕국 또는 교회를 표현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국가들과 더불어 구성된 교회는 표징적인 교회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심판과 율례는 교회속의 영적인 것들을 표현했다. 백성들 자체는 교회를 그리고 왕은 주님을 표현했는데, 다윗은 세상에 오시는 주님을 그리고 솔로몬은 승천하신 후의 주님을 표현한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표징이 되도록 솔로몬에게 영화와 장엄함을 나타내주셨고,

그로 하여금 지상의 어떤 왕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지며 성전도 짓도록 해 주셨다. 게다가 솔로몬이 많은 국가의 예배를 허용함으로써 그 예배가 세워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세상에 있는 다양한 종교들이 표현된 것이다. 칠백 명이라는 그의 아내들과 삼백 명이 되는 그의 첩들은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 이유는 말씀 속에서 아내란 교회를 그리고 첩이란 종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다윗과 바세바의 둘째 아들은 누구인가?
- 2)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은 누구인가?
- 3) 이 왕은 주님께 무엇을 요구했는가?
- 4) 주님은 그 요구에 무엇을 더해 주셨는가?
- 5) 그는 예루살렘에 무엇을 지었는가?
- 6) 그는 어떤 죄를 범했는가?
- 7) 그는 그 외에 어떤 죄를 범했는가?
- 8)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9) 주님의 말씀은 그가 죽기 전에 성취되었는가?
- 10) 솔로몬의 왕국 중 몇 지파를 그의 아들이 다스렸는가?
- 11) 누가 나머지 지파의 왕이 되었는가?
- 12) 여로보암은 누구인가?
- 13) 누가 그에게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는가?
- 14) 그는 어떤 징조를 보여주었는가?
- 15)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 16) 여로보암은 어디로 피신했는가?
- 17) 솔로몬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솔로몬의 죄는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솔로몬 2) 솔로몬 3) 지혜 4) 부와 명성 5) 성전 6) 많은 외국여자와 결혼했다
- 7) 우상숭배 8) 나라를 잃는다 9) 성취되지 않았다 10) 1 1/2지파 11) 여로보암
- 12) 솔로몬의 신하 13) 아히야 14) 옷을 찢었다 15) 그를 죽이려 했다 16) 이집트
- 17) 영혼의 평화 18) 악을 소홀히 취급함 또는 악에 대해 변명함

엘리사와 나아만

머리말

우선 열왕기상 12장을 읽고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이스라엘 왕국의 타락이 두 금송아지를 세운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언급한다.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선교 그리고 이스라엘을 끊임 없이 괴롭힌 시리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열왕기하 5장

1.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으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왕이 매우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아합께서 나아만을 들어 쓰시어 시리아에 승리를 안겨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환자였다.
2. 시리아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다가, 한번은 거기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나아만 장군은 그 소녀를 아내의 하녀로 삼았다. 3. 그 어린 하녀가 자기의 주인에게 일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시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그가 문둥병쯤은 쉽게 고쳐 주실 텐데요.” 4.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입궐해서 왕에게,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가 이리이러한 말을 하더라고 아뢰었다. 5. 이 말을 들은 시리아 왕이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 줄 터이니, 장군은 가보시오.” 이리하여 나아만은 은 십 달란트, 금 육천 세겔, 옷 열 벌을 가지고 가서 6. 왕의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친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본인은 이제 이 편지를 들러 본인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문둥병을 고쳐 주십시오.” 7. 이스라엘 왕은 이 서신을 읽고 옷을 찢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란 말인가? 그가 사람을 보내어 나에게 문둥병을 고쳐 달라고 하니, 이것은 그가 나에게 싸움을 걸려고 트집을 잡는 것이 분명하다. 그대들은 이 점을 분명히 살피시오.”
8.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를 나에게 보내 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 주겠습니다.” 9. 그리하여 나아만은 마차를 몰고 엘리사의 집에 이르러 대문 앞에 멈추었다. 10. 엘리사는 사람을 내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요르단강에 가서 그 강물에 일곱 번 몸을 씻으시오. 그리하면 새살이 나와 깨끗하게 될 것이요.” 11. 나아만은 화가 치밀어 발길을 돌리면서 말하였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가 나에게 나와서 자기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부분을 손으로 만져 이 문둥병을 고쳐 주려니 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12. 다마스쿠스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강물보다도 더 좋은 아바나강과 발바르강이 있다. 여기에서 된다면, 거기에 가서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나아만은 크게 노하여 발길을 옮겼다. 13.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그를 막아서며 말하였다. “만일 이 예언자가 더 어려운 일을 장군께 시켰더라면 장군께서는 그 일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장군께 몸이나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14.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 준 대로 요르단 강으로 내려가서 일곱 번 강물에 들어가 몸을 씻었다. 그러자 새살이 돌아 그의 몸은 마치 어린 아이 몸처럼 깨끗해졌다.

15. 나아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돌아 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밖에는 온 세상에 신이 없습니다. 소인이 감사하여 드리는 이 선물을 부디 받아 주십시오.” 16. 엘리사가 “내가 모시는 야훼께서 살아 계십니다. 결코 이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하고 거절했지만 나아만은 받아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도 거절하자, 나아만은 이렇게 말하였다. “진정 받지 못하시겠으면, 이 한 가지 청만은 들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저는 야훼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나귀 두 마리에 실을 만큼 흙을 주십시오. 18. 그러나 한 가지 야훼께 용서를 빌 일이 있습니다. 저는 왕께서 림몬 신전에 예배하러 가실 때에 부축해 드려야 하고 왕께서 림몬 신전에서 예배할 때 같이 옆드려야 합니다. 이것만은 야훼께서 용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19.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걱정 말고 가시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길을 조금 갔는데 20.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 게하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스승께서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바치는 것을 거절하시고 그냥 돌려보내시니 뒤쫓아 가서 무엇이든 좀 받아 오고 말겠다.” 21. 이렇게 생각하고 게하지는 나아만을 쫓아갔다. 나아만은 게하지가 뒤쫓아 오는 것을 보고 마차에서 내려 그를 만나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22. 게하지는 말하였다. “별일 없습니다. 지금 막 에비라임 산악지방에서 예언자 수련생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줄 은 한 달란트와 옷 두벌을 보내 달라고 스승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23. 나아만은 “드리다뿐이겠는가? 한 달란트를 더 드리겠다”하며 은 두 달란트를 억지로 두 자루에

넣고 옷 두 벌을 꺼내어 부하 두 사람에게 돌려 게하지 앞에 세워 보냈다. 24. 게하지가 집 있는 언덕에 돌아 와서 짐을 받아 집 안에 넣고 그 사람들을 돌려 보낸 후 25. 들어 가서 스승 앞에 서자, 엘리사가 물었다. “게하지야, 어디를 갔다 왔느냐?” “소인은 아무데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26.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마차에서 내려 너를 만나기 위하여 돌아 설 때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아느냐? 그래, 너는 돈을 받았다. 네가 그 돈으로 정원을 사서 올리브나무, 포도나무를 심고 양과 소를 사고 하인과 하녀를 거느릴 수가 있겠지만, 27. 너와 네 자손은 나아만에게서 읍은 문둥병을 영원히 앓으리라.” 게하지는 문둥병으로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어 엘리사를 떠났다.

교리 요점

- * 오직 주님만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
- * 진리는 말씀을 수단으로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
- * 자연적인 지식으로는 내적인 악들을 치료할 수 없다.
- * 진정한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우리는 나이 들면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음을 경험을 통해 쉽게 납득하게 된다. 우리는 보람 있게 살아보겠다고 작심하지만 과거부터 지녀왔던 잘못된 사고로 인해 남에게 선을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주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우리는 올바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으로 옮기고자 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마음과 이해성이라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만약 이것들이 제각기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강함과 평화는 결국 쇠퇴하고 만다. 이것은 솔로몬이 죽은 뒤 분열되는 왕국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두 왕국들 중에서 보다 더 따뜻한 남쪽의 왕국은 마음을 그리고 북쪽의 왕국은 이해성을 표현한다. 남쪽 왕국은 유다라고 불렸고, 솔로몬의 계보를 따르며 수도를 예루살렘에 두고 그곳에서의 성전의 예배를 중심으로 삼았다. 반면에 북쪽의 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다. 그 왕국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었는데, 그는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두 개의 금송아지 상을 세웠다. 그를 뒤 이은 후대 왕들 역시 이러한

우상숭배를 계속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오랫동안 양육되어졌던 주님을 예배함으로 쉽게 향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의 이해성은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추론이 있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쉽게 등을 돌리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위대한 두 명의 예언자를 이스라엘 왕들에게 보내셔서 견책하고 경고하도록 해 주셨다. 두 예언자란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이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언자란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히도 이스라엘의 왕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대했던 것처럼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이 기독교 밖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시리아의 나아만에 의해 표현되고 있는 선한 이방인이다. 그는 자신의 문둥병이 치료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것은 선한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깨끗해지고자 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먼저 나아만은 단순히 요르단 강에서 몸을 씻음으로써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았고, 자기 나라의 강물이 그 보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계명을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세상의 추론보다 더 낫다고 말해줄 때 있게 되는 우리의 자연적인 첫 반응이다. 그러나 나아만은 자신의 병이 치료되자 엘리사의 하느님을 진심으로 인정했다.

제 1반

나아만의 어린 하녀를 살펴보고,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주인을 돕고자 했음을 언급한다. 그리고 문둥병과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름에 대해서도 기억해둔다.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도록 보내진 두 명의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였다. 그들은 굉장한 일들을 많이 행했으며, 선한 사람은 돕고 악한 자는 처벌했다. 그들이 이러한 능력을 가졌던 것은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이다. 나아만은 친절한 인격자였음에 틀림없다. 그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린 하녀가 그를 돕고자 열심을 내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본문에서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가?
- * 시리아의 군대 사령관은 누구였는가?
- * 그는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는가?
- * 누가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귀띔해 주었는가?
- * 나아만을 위해 시리아왕은 무엇을 했는가?

- *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했는가?
- * 나아만은 엘리사의 충고를 처음에 어떻게 받아 들였는가?
- * 요르단 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은 후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 * 엘리사는 나아만에게서 어떤 보상을 받았는가?
- * 치료된 후 나아만은 무엇을 서약했는가?
- * 그는 엘리사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청했는가?
- *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왜 그 일이 발생되었는가?

제 2반

성서지도에서 분단된 왕국을 살펴 보면서 공부한다. 그리고 시리아와 다마스쿠스의 위치를 확인한 후 나아만을 위치해서 몇 가지 상응을 검토해 본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국의 왕위에 오른 시작부터 비극적인 실수를 행했다. 그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하러 가서 그곳의 정기 축제에 자주 참석하다 보면 유다 왕국의 왕 르호보암의 통치로 되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는 왕국의 최남단인 베델과 왕국의 최북단인 단에 금송아지 상을 하나씩 세워 놓고 백성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축제나 그 우상에 번제를 바치는 정규예배를 가졌던 것이다. 하지만 북쪽왕국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갔고 온갖 종류의 사악함이 왕국에 득실거리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한 계보를 오래 지속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왕들은 자신들의 부하에게 살해당하기도 했다. 우리는 성경에서 새 왕들에 관하여 “그는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고 부친이 걸었던 악한 길을 그대로 걸었다. 그가 죄를 범함으로서 이스라엘 전체가 같은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언급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왕국에는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들은 이런 왕국의 형편을 타서 다시 득세했던 것이다.

앞서 우리는 엘리야의 선교에 관하여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내리는 견책과 경고를 전달한 후 마지막에 불 수레를 타고 하늘로 들리어졌던 것, 그의 겹옷이 엘리사 위에 떨어졌던 것 그리고 그의 영의 감절을 엘리사에게 약속했던 것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임무를 이어받았는데, 본문은 엘리사의 임무 수행중의 한 부분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북동쪽에는 국력이 강했던 시리아가 있었는데, 그들의 세력은 점차 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나 왕국의 보물들을 강취해 갔다. 시리아의 수도는 다마스쿠스라는 매우 큰 도시였다. 거룩한 땅의 두 왕국의 분단, 각 왕국의 수도의 위치, 두 개의 금송아지 상이 세워진 지역 그리고 시리아라는 새로운 적이 위치했던 지역을 성서지도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는 시리아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의 행동을 관찰하면 그가 엘리사를 전혀 염두 하고 있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오늘날의 우리가 곤란을 처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심지어 우리는 당시의 이스라엘 왕이 그랬듯이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인간적인 궁리나 노력을 경주하고 자포자기하기도 한다.

요르단은 사람들이 거룩한 땅 내로 들어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강이다. 이 강은 우리가 천국적인 삶을 지향하고자 할 때 필요한 진리를 상징한다. 주님께서 이 진리에 대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17절의 “참으로 선하신 분은 오진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라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땅의 입구로서의 요르단 강은 십계명을 의미한다. 따라서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준 충고에는 우리가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가장 먼저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또한 계명을 준수함이 한번만으로 충분치 않음도 암시되어 있다. 즉, 계명을 준수함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나아만으로 하여금 일곱 번 몸을 씻도록 한 구절의 의미이다.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들은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 나라들이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이 최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바나 강과 발바르 강이란 세상적인 생각에 의해 발달된 세상적 지침을 의미한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자신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 내 배가 먼저 부른 게 우선이야.” 혹은 “우리는 사업과 종교를 함께 생각할 수 없어.”와 같은 주장은 우리에게 아주 합당한 것처럼 들린다. 이런 세상적인 지침이 십계명보다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나아만이 “다마스쿠스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강물보다도 더 좋은 아바나 강과 발바르 강 이 있다. 여기서 된다면, 거기에 가서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겠느냐?”고 주장하는 것의 의미이다.

나아만을 낮게 한 대가를 사취한 게하지의 죄는 우리의 어떤 선행도 결코 자신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며 우리를 통해 선을

배푸시는 분도 언제나 주님이심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깨하지는 문둥병자가 되었는데, 이는 문둥 병이란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이기적이면서도 선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 혹은 명분을 세워 의를 행하면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여기며 행하는 정의의 실현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의 공부를 정리해 보자.

- * 시리아의 군대 사령관은 누구인가?
- * 그는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는가?
- * 누가 그에게 병이 치료 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었는가?
- *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왕의 편지를 읽고 난 후 어떤 행동을 했는가?
- *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했는가?
- * 누가 나아만에게 엘리사의 치료 방법을 따르라고 설득했는가?
- * 그 조언에 따른 결과는 무엇인가?
- * 이 결과 나아만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게 되었는가?
- * 엘리사는 나아만이 제공한 보상을 승낙했나?
- *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 * 엘리사의 시종은 무엇을 피했는가?
- * 그의 별은 무엇이었는가?

제 3반

유다와 이스라엘의 상응, 두 왕국의 분열에 따른 상응 그리고 요르단 강과 다마스쿠스에 있는 강의 상응을 살펴본다. 또한 신성모독이란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에 순종하는 대신 사리사욕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것임을 설명한다.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은 한 결 같이 사악했다. 그들의 통치 기간은 매우 짧았으며, 많은 왕들이 신하에게 살해당하면서 왕권이 뒤바뀌기도 했다. 따라서 주변에 없는 듯이 존재했던 적들이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위협했던 것이다. 이 모습은 불만족과 들떠 있는 심정상태가 세상적인 것에 목적을 둔 마음속을 휩쓰는 것을 보여준다.

주님은 위대한 예언자를 이스라엘로 보내셔서 왕과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에게 경고도 해주셨다. 우리는 앞서 공부했던 바인 엘리야를 통해 있었던 여러 가지 경이로운 일들을

기억한다. 또한 우리는 엘리야가 불 말이 끄는 불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의 겹옷과 능력이 그의 계승자인 엘리사에게 내려지는 이야기도 살펴보았다. 열왕기하 2장에서 13장까지의 이야기는 엘리사에 관한 것이다. 본문은 그 중의 한 부분에 속한다.

본문의 당시 시리아인들은 매우 부유하고 국력이 강하여 주변의 국가들이 그들의 발밑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그들의 수도는 대도시인 다마스쿠스였다. 시리아란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지만, 본문과 같이 이스라엘의 적으로서의 시리아란 이러한 지식들이 이기적인 용도로 변해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강이란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에 통용되는 사상들을 뜻한다.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세상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것을 말한다. 나아만은 시리아 왕의 제일가는 충신으로 군대의 사령관이었다. 그런데 그는 본문에서 선한 사람이나 문둥병자라고 서술되고 있다.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은 우리의 인격에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는 좋은 하인이다. 문둥병은 참혹한 질병중의 하나인데, 피부가 점차 생명을 잃어 가는 것이 그 특징이다. 문둥병이 걸린 피부는 처음에 극도로 흰색을 띄우다가 병이 진전되면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데, 손이나 발 심지어는 얼굴의 생김새까지도 부식되어 일그러지게 된다. 그래서 문둥병은 우리의 행함 속에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것 또는 진정한 선함이 없는 상태를 상징한다.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도록 선행이라는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허식적인 옷은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반면에 허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본문의 나아만처럼 때로 자신 안의 그런 실태를 느끼고 변화되기를 갈망하여 선한 인격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들로 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거룩한 땅 밖에 사는 나아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님에 대해 배울 기회를 전혀 가져 보지 못했던 선한 이방인인 것이다.

주님은 올바른 것을 진심으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우신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에 의해 말씀으로 인도되는데, 이러한 주님의 인도는 우연한 기회인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 질 수도 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 온 어린 하녀는 나아만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기회일 것이다. 그 소녀는 아주 어렸을 때 이스라엘에 있는 예언자에 관하여 들었고, 하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배려하여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하도록 주인에게 귀띔해 주었다. 예언자란 언제나 말씀을 표현한다. 나아만이 소녀의 말을 듣고 먼저 찾아 간 곳은 이스라엘 왕궁이었다. 이것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큰 세력을 형성하고 종교계를 주름잡고 있는 듯 보이는 교파에 속한 교회에서 가르침을 얻어 삶의 길에 대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기대로 그 교회에 방문하는 모습과 유사하다. 하지만 그 교회가 세상적으로 되어 말씀과의 접촉을 등한시하고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를 잃게

되어 더 이상 말씀을 의존하지 않게 되면, 이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이 시리아 왕의 편지를 읽고 난 후 허둥대며 갈피를 못 잡아 자기 나라에 있는 엘리사의 존재를 까맣게 잊는 모습과 같게 되는 것이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상기시켜 주었다. 그런 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갔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르단 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 말했다. 거룩한 땅의 경계를 이루는 요르단 강이란 우리가 삶에서 천국적인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순종해야 하는 입문적인 진리들을 상징하는데,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뜻한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을 듣자마자 자기 나라의 다마스쿠스에는 요르단 강보다도 더 좋은 아바나 강과 발바르 강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세상적인 사상들이 계명을 준수하는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함을 의미한다. 나아만이 발길을 돌리려하자 그의 부하는 엘리사가 일러준 쉬운 방법을 시도해 보라고 간청했고, 나아만은 엘리사의 방법을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그 결과 그의 병은 치료되었다. 나아만이 제안한 치료에 대한 보수를 거절하는 엘리사의 모습은 우리가 선을 행하시는 분이 언제나 주님이시라고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우리가 행한 선에 대한 대가와 칭찬을 원하는 결과가 계하지의 이야기로 묘사된다. 그가 문둥병자가 된 까닭은 칭찬과 보상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행한 선한 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거두어 가기 때문이다.

기본 상응 공부

이스라엘 = 이해성

유다 = 의지

시리아 =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문둥병 = 진리를 모독함

다마스쿠스의 강들 = 선에 관한 세상적인 사상들

제 4반

우리가 세상적인 추론의 음험함과 계명의 본성을 의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용할 때 결국 우리의 인격이 상실됨을 강조한다.

누가복음 제 4장에서의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께 기적을 수행함으로써 그들의 능력을 발휘 해보라고 했을 때 그들은 구약성서의 두 가지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시면서 그들이 보시기에 선한 이방인들이 선택된 백성들보다 더 치료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 중의 하나가 바로 거룩한 땅 밖에 위치한 사렘다 마을의 과부에게 엘리야가 기적을 베푼 이야기이다. 또 다른 하나는 엘리사가 시리아 장군 나아만의 병을 치료해준 본문의 이야기이다. 주님의 예언자인 엘리야와 엘리사는 말씀을 표현한다.

말씀에서 시리아는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상징하지만, 본문에서의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 있는 고로 이와는 반대되는 뜻을 가진다. 선과 진리에 대한 우리의 지식들이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면 그 지식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주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나아만의 문둥병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문둥병이란 세상적인 것을 유익하게 여기면서 선을 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선택 속에는 어떤 영적 생명도 존재할 수 없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상이 우세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마냥 좋을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인다. 나아만은 왕을 잘 모시는 충직한 신하였다. 그는 자기 하인들에게 온건했음이 틀림없다. 만약 그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린 하녀가 그에게 권면의 말을 자유롭게 귀띔해주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그는 자신의 치료에 대한 보수를 치르는 데 있어서도 매우 관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병이 치료되었다고 확신하게 되자 이전에 믿었던 옛 신을 버리고 기꺼이 주님을 모시겠다고 선언했다. 한마디로 그는 선한 이방인이어서 치료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의 모습과 반대되는 인물이다. 그는 예언자가 절실히 필요로 한 순간에도 주님의 예언자가 있음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따라서 이 왕이란 교회에서 양육된 사람의 마음을 휩쓰는 세상적인 원리를 표현한다. 그리고 시리아에 포로가 된 어린 하녀란 우리의 필요에 대비하여 주님께서 아껴두신 말씀에 대한 어린 시절숙의 애정을 표현한다.

요르단 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 한 엘리사의 명령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생활 속에 계명이 완전히 배어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삶을 정화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나아만의 모습 중 본받기 힘든 부분은 세상이 주는 교훈보다 계명을 더욱 위대하게 인식하는 것과 이러한 인식 후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정화하고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아만이 물속에 일곱 번 들어갔듯이 계명을 끝까지 행하는

것뿐이다.

본문에는 이 밖에도 흥미로운 세부사항이 있다. 이스라엘의 어린 하녀는 시리아로 붙잡혀 와 그곳에서 살면서 자기 주인을 구해낸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회개하고 거듭나도록 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 해주는 것은 어린 시절 우리 속에 저장된 순진한 상태들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림몬 신전에 예배하러 가는 왕을 부축해 주며 왕과 함께 엎드려 절한 것에 대해 용서를 비는 나아만과 이를 허용하는 엘리사의 모습은 우리의 인간적 약함을 아시는 주님의 자비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누가복음의 부정직한 청지기의 비유를 상기하도록 해준다. 계하지의 범죄와 그에 따른 벌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선함을 결코 자신의 영예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선행의 공적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스스로를 문둥병자로 만드는 것과 같다.

제 5반

나아만의 문둥병과 그 병이 치료된 것에 대해서 주로 살펴본다.

시리아 사람인 나아만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이다. 「계시록 설명」 475-18항에서 그 이야기의 일부에 대한 세부 사항이 설명되고 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주님이 그 이야기를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문둥병자보다 더 쉽게 이방인인 나아만이 치료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구절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대한 그분의 질책중의 하나인 것이다. 말씀에서의 선한 이방인이란 선한 인격을 갖추고자 하나 선행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 즉 선함과 악함에 대해 과실이 없는 자를 뜻한다. 이스라엘의 적일 때의 시리아란 신성한 지혜가 아닌 자신을 의존함으로부터 비롯된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의 왜곡을 의미한다.

나아만은 문둥병자였다. 「천국의 신비」 제 6963항에서는 문둥병이란 진리를 모독함 그리고 진리를 믿으면서도 그 진리와 반대되게 살아서 진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이 정의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문둥병자들이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고 믿는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아만처럼 깨끗해지려는 방법을 찾기 위해 말씀으로 기꺼이 나아가기도 한다.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란 자신의 삶을 수정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레위기 제

13장-14장에서는 치료될 수 있는 문둥병과 치료될 수 없는 문둥병의 종류가 열거되고 문둥병에 관련된 세부 규칙도 설명되어 있다. 그래서 신성모독의 형체의 종류와 그 정도가 아주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중 어떤 것은 정정 가능한 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 아주 깊은 형체도 있다(누가복음 12:10). 「하느님의 섭리」 제 231항에서는 신성모독에 관한 일곱 가지 형태를 보여준다.

본문의 전후를 고려하면 나아만의 문둥병은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그가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사령관의 직무를 수행했고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문제없이 해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가 엘리사에게로 인도되는 수단은 매우 흥미로운데, 그 수단이란 그가 포로로 끌고 온 어린 하녀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우리는 시리아인들처럼 자신의 삶의 방향이나 올바른 것들에 관한 지식에 자신감을 갖게 될 때 종종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다. 즉,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는 권위성에 대하여 논쟁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간혹 그 논쟁에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런 논쟁의 과정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지지해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어떤 것을 교회의 가르침들로부터 획득하기도 한다.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을 거치면서 우리 속 깊은 곳에 남겨 둔 순진한 애정을 갖고 있다. 우리가 영적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면, 주님은 이를 꺼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가도록 사용하신다. 우리를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어떤 것이 바로 나아만의 어린 하녀인 것이다.

나아만은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에게 갔었다. 그리고 치료의 대가로 예물도 내놓았다. 이처럼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큰 교회를 우선적으로 찾게 되고 말씀을 찾으려하기 보다 교회 일에 쉽게 어울린다.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의 영적 궁핍함을 위해 교회를 찾았다더라면,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이 진실로 가르치는 바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을 것이다. 그는 무작정 교회 일에 뛰어들어 실망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교회와 등지며 교회마저 혼란에 빠지도록 만들기도 한다. 이것은 본문에서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자 이스라엘 왕이 결코 그를 만족시킬 수 없어서 매우 놀랐던 것과 같은 모습이다.

요르단 강이란 영적인 삶이라는 거룩한 땅을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는 단순한 가르침을 상징한다. 구체적으로 볼 때 계명은 이 단순한 가르침에 속한다.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거룩한 땅에 들어 설 수 없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그가 자신에게 와서 뭔가 특별한 권능을 보여 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사람을 보내서 메시지만 전했을 뿐이다. 이는 말씀이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음을 의미한다(사도행전 10:34). 말씀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대할 때 다른 방법을 쓰지 않는다. 또한 말씀은 누군가가 특별하다고 해서 그를 단번에 거둬나도록 해주지도

않는다.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요르단 강에 가서 그 강물에 일곱 번 몸을 씻어라.”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가서 계명을 배우고 그 계명이 너의 삶 속에서 작업을 다 마칠 때까지, 너의 인생이 하나님보시기에 깨끗할 때까지 성심껏 계명을 지켜라”라는 것이다.

그러나 엘리사가 일러준 방법을 들은 나아만은 화를 내며 “다마스쿠스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강물보다도 더 좋은 아바나 강과 발바르 강이 있다. 여기에서 된다면, 거기에 가서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우리는 나아만처럼 계명에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사상으로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계명과 결맞지 않을 정도로 발달했다고 여기며, 새 세상에 맞는 새로운 표준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아만의 부하는 그를 막아서며 예언자의 처방을 받아들이도록 권유했다. 우리가 삶에 어떤 새로운 방법이나 지식이 있어야겠다고 느낄 때 혹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실감할 때에 우리의 상식은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치료해준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간단한 방법을 한번쯤 시도해보도록 권면한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방법을 요구함에 있어서 뭔가 새롭고 경이롭게 여겨지는 영웅적인 삶의 형태를 나아만처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문은 삶을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길 곧 삶의 진정한 길은 오직 주님의 법에 꾸준히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즉, 우리가 주님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결코 없음을 실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만은 문둥병이 치료되자 예언자에게 되돌아가 감사의 예물을 내놓았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이는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께 빚진 것을 결코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부분에 해당된다. 우리가 이루는 모든 정의는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은 그분의 선물을 무상으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잘 간직하면서 언제나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간직하며 그것을 이웃에게도 나눠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아만은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약속하면서 떠나갔다. 그러나 엘리사의 시종 게하지는 곧장 나아만을 뒤쫓아 가서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하며 예물을 받아 가지고 왔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은택에 감사하며 그분 앞에 겸허해 하는 상태에 머물게 해주는 영적 경험을 거쳐 간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우리 속의 자연적인 이기심은 우리를 곧바로 뒤쫓아 와서 갓가지 속임수를 써서 영적 체험에 관한 것 곧 바른 행위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 나아만은 게하지가 뒤쫓아 오는 것을 보고 마차에서 내렸다. 이는 우리속의 이기적인 생각들의 자극으로 인해 삶의 새로운 해결책을 시도하도록 해준 가르침을 쉽게 포기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엘리사는 게하지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다. 즉, 말씀이 우리의 이기심을 덮으려고 애쓰는 변명을

깨끗이 본다는 것이다. “주님은 속마음을 들여다보신다.” 말씀의 빛으로 보면 사적인 이익추구의 진면모를 보게 된다. 우리 영혼에 있는 문둥병을 뽑아내어 던지지 않으면, 그 질병은 이기심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모조리 강탈할 때까지 우리 삶의 모든 체계에 확산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게하지는 문둥병으로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어 엘리사를 떠났다.”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다.

참고문헌: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제 475-18항: “ ‘시리아의 문둥병자 나아만’은 말씀에서 온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왜곡시킨 사람들을 의미함과 더불어 그것을 표현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문둥병’은 왜곡시킴을 의미하고, ‘시리아’는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요르단 강물’은 교회를 소개하는 진리들을 의미하고, 교회란 말씀으로부터 온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요르단 강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오게 되는 첫 경계이고, ‘가나안 땅’은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요르단 강물’은 소개하는 진리들을 의미한다. 소개하는 진리란 말씀에서 오는 선과 진리에 대한 첫 번째 지식들이다. 요르단 강물이 이런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나아만은 그 물에 일곱 번 씻도록 명령되었다. 이는 왜곡된 진리들에서 순수해짐을 의미하고, ‘일곱 번’이란 충분함을 뜻한다. 거룩한 것들, 즉 진리는 신성함 등을 의미한다. ‘일곱 번’이 이런 의미를 가진 까닭에 ‘그의 몸은 새살이 돋아 마치 어린아이 몸처럼 깨끗해졌다.’ 새살이 돋는다는 것은 영적 삶을 의미하는데, 이런 경우가 신성한 진리를 통해 거듭나는 이들이 갖게 되는 삶이다.”

질문 정리

- 1) 여로보암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 2) 왜 그는 금송아지를 세웠는가?
- 3) 그 송아지를 세운 곳은 어디인가?
- 4) 주님은 어떤 두 예언자를 이스라엘 왕국으로 보냈는가?
- 5) 본문에서의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가?
- 6) 시리아의 군대 사령관은 누구인가?
- 7) 그는 어떤 병을 갖고 있는가?

- 8) 누가 병이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을 그에게 알려주었는가?
- 9)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했는가?
- 10) 나아만은 처음에 뭐라고 말했는가?
- 11) 그가 엘리사에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2) 그는 엘리사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는가?
- 13) 엘리사의 시종은 무슨 짓을 했는가?
- 14) 그의 별은 무엇인가?
- 15) 이스라엘과 유다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요르단 강물에 일곱 번 몸을 씻는다고 함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두 금송아지 제단을 세움 2)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임
- 3) 베델, 단 4) 엘리야와 엘리사 5) 시리아 6) 나아만 7) 문둥병
- 8) 포로로 잡아온 히브리 소녀 9) 요르단강물에 일곱 번 몸을 씻어라
- 10) 다마스쿠스의 강이 요르단강보다 더 낫다 11) 치료되었다
- 12) “나귀 두 마리에 실을 만큼 흙을 주십시오” 13) 보상을 원했다
- 14) 문둥병자가 됨 15) 마음이 분리되었음 16) 계명에 끝까지 순종하라

시드키야와 예레미야

머리말

이스라엘과 유다를 정복한 두 국가의 이름들을 언급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끌려가 결코 되돌아오지 못했던 반면 유다왕국의 백성들은 모두 끌려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귀환하기도 했음을 설명한다. 또한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지만 나중에 재건되었음도 설명한다.

성 서 본 문: 열왕기하 24장, 25:1-12, 예레미야 21장

열왕기하 24장: 1. 여호야킴이 다스리던 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 와서 여호야킴은 그의 신하가 되었다. 삼년이 지나서 그는 반기를 들었다. 2. 야훼께서는 바빌론 침략군과 시리아 침략군과 모압 침략군과 암몬 침략군을 보내어 유다 전국을 짓밟게 하셨다. 야훼께서 당신의 종인 예언자들을 시켜서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3. 이런 일이 유다에서 일어난 것은 므나שה가 온갖 못할 짓을 하는 것을 보시고 야훼께서 유다 백성을 내쫓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일 따름이다. 4. 그런데다가 그는 무죄한 피마저 흘려 예루살렘을 피바다로 만들었으므로 야훼께서는 용서하실 마음이 없으셨던 것이다.

5. 여호야킴의 나머지 사적과 행적은 유다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6. 그가 선조들과 함께 영면하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7. 이집트왕은 이집트 국경을 흐르는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강에 이르는 땅을 모두 바빌론 왕에게 빼앗기고 다시는 자기 영토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8. 여호야긴은 십 팔 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삼 개월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엘나단의 딸로서 이름은 느후스타라고 하였다. 9. 여호야긴은 아버지가 그러하였듯이 야훼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10. 그 때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쳐올라 와서 포위하였다. 11. 이렇게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을 치러 친히 왔다. 12. 일이 이쯤 되자 유다왕 여호야킨은 자기 어머니와 신하들과 장군들과 내시들을 거느리고 바빌론 왕에게로 나아가 사로잡혔다. 때는 바빌론 왕 제팔 년이었다. 13. 야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바빌론 왕은 야훼의 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화를 털어 갖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야훼의 전에 만들어 두었던 온갖 금기물을 다 부수었다. 14. 또한 예루살렘 전 시민과 고관들과 군인 일만명, 그리고 은장이들과 대장장이들을 사로잡아 가고 가난한 지방민만 남겨 두었다. 15. 그는 여호야킨도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력층과 함께 사로잡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16. 그리고 유력자 칠천 명과 은장이, 대장장이 천 명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는데 그들은 모두 싸우려 나갈 수 있는 용사들이었다. 17. 바빌론 왕은 여호야킨의 삼촌인 마따니야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키야로 바꾸도록 하였다. 18. 시드키야는 이십 일 세 때 왕위에 올라 십 일 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리브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로서 이름을 하무달이라고 하였다. 19. 시드키야는 여호야קים이 했던 것같이 야훼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20. 예루살렘과 유다는 야훼의 진로를 사 마침내 그 앞에서 쫓겨 나고 말았다.

25장: 1. 시드키야가 바빌론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키야왕 구년 시월 십일, 전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을 포위하고 사면에 토성을 쌓았다. 2. 이 포위는 시드키야왕 십일 년까지 계속되었다. 3. 그 해, 성에 기근이 흑심하여 식량이 떨어지자 일반 서민들은 굶주려 죽게 되었는데, 사월 구일에 4. 드디어 성벽이 뚫렸다. 유다 왕은 이를 보자, 바빌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도 그의 전 호위병과 함께 밤을 도와 성을 도주하였다. 그들은 왕의 정원 근처에 있는 “두 성벽 사이”라는 성문으로 빠져 나가 나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5. 바빌론 군대가 왕을 추적하여 예리고의 들판에서 그를 사로잡자 왕의 군대는 산산이 흩어져 버렸다. 6. 바빌론 군대가 왕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데리고 가자 바빌론 왕이 그를 심문하였다. 7. 그는 시드키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데서 살해하고 시드키야의 눈을 뽑은 다음 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8.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제십 구년 오월 칠일, 바빌론 왕의 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들어 와 9. 야훼의 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성 안 건물을 모두 불태웠다. 큰 집은 모두 불탔다. 10. 친위대장을 따르는 바빌론 군인들은 예루살렘을 둘러 싸고 있는 성벽을 죄다 허물어 버렸다. 11. 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성에 남은 사람들과 바빌론왕

에게 행복해 온 자, 그리고 기타 남은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 갔다. 12. 그는 백성들 중 가장 비천한 층의 사람들만 남겨 두어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예레미야 21장: 1. 시드키야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니야 사제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예레미야에게 내린 야훼의 말씀이다. 그들은 이렇게 청했던 것이다. 2.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싸움을 걸어 왔소. 기적을 베푸시어 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야훼께 빌어 주시오.” 3.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야훼께 받은 말씀을 일러 주었다. “당신들은 시드키야 왕께 가서 이렇게 전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한다. 너희는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바빌론 왕의 군대와 싸우려 한다마는, 나 이제 너희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 무기를 이 성읍 한 가운데다 모아 놓으리라. 5. 너무나도 노엽고 화가 나서 내가 있는 힘을 다 기울여 너희를 치리니, 6. 이 도읍에 사는 사람과 짐승이 모두 심한 염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7. 똑똑히 말하여 둔다. 이렇게 염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죽고도 남은 유다 왕 시드키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리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원수들의 손에 너희를 넘겨주리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원수들의 손에 너희를 넘겨주면, 그들은 사정없이 무자비하게 칼로 쳐 죽일 것이다.’

8. 당신들은 또 이 백성에게 야훼의 말씀이라 하며 이 말을 전하십시오. ‘내가 살 길과 죽을 길을 너희 앞에 내어 놓을 터이니 너희는 그중 하나를 택하여라. 9. 이 성 안에 버티고 있다가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가서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바빌론 군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다. 목숨 하나 건지는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10. 내가 똑똑히 말해 둔다. 나는 이 도읍을 잘 돌보아 줄 생각이 없어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이 도읍은 바빌론 왕의 수중에 들어가서 불에 타 없어지고 말리라.”

11. 유다 왕실에게 말한다. 너희는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12. “다윗 왕실에게

나 야훼가 말한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라.

억울하게 착취당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 주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의 꾀뽀한 소행을 보고

내가 화가 나서 너희를 불 태우리니,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하리라.
계곡을 굽어 보는 예루살렘아,
벌판에 우뚝 솟은 바위야!
내 말을 들어라.
‘누가 감히 우리에게 달려드느냐?
이 깊은 곳으로 누가 감히 쳐들어 오느냐?’하고 말한다마는,
나는 이제 너희를 치리라.
나는 너희의 소행을 따라 벌하리라.
똑똑히 말해 둔다.
나는 수풀중에 불을 질러
둘레를 온통 태워 버리리라.”

교리 요점

- * 주님은 각 개인의 의지에 반대되어서는 구원하실 수 없다.
- * 예언서는 우리로 하여금 역사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 * 우리가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께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 * 이해성이 진리에서 거짓으로 변화되면 마음속의 선행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 정복되어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뒤 결코 되돌아오지 못했다. 외국인들이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주 되었는데, 이 외국인들의 후손들이 복음서 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이다. 우리는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 자세히 배우게 될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유다왕국 또한 정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자 선한 왕인 히즈키야는 주님의 도움을 구했고, 그분은 기적으로 포위하고 있는 군대의 대부분을 파멸시켜 주셨다. 그래서 남은 아시리아 군은 그들의 나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후에 히즈키야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바빌론 왕의 사절단을 환대하면서 궁내의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며 자랑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에 관하여 “바빌론 왕이 결국 나라의 모든 보물을 거두어 갈 것이며 히즈키야의 후손들 역시 장래 바빌론왕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그에게 말했다.

약 백 년이 지난 후 이사야의 예언은 성취되었는데, 본문은 그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다. 바빌론의 세력이 우세해지면서 아시리아를 흡수했고, 그들의 지배권은 이집트까지 확장되었다. 히즈키야의 왕위를 물려받은 왕 중 요시아만이 선왕이었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 왕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악해서 주님께서 더 이상 유다를 구원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섬겨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계명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실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위대한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왕국의 말기에 살았었다. 유다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키야가 그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그는 유다왕국의 파국이 이미 임박했다고 말했을 뿐이다. 우리가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에도 언제나 끝이 있게 마련인데, 어느 누구도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삶의 결과가 단 번에 닥아지지 않음을 깊이 되새겨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선택한 것들로 우리 자신을 만든 것만큼 저 세계로 갈 때 가지고 가기 때문이다.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 정복되고 말았다. 왕가와 능력 있는 모든 사람이 끌려갔고, 예루살렘과 성전도 파괴되었다. 남겨진 백성들 중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란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주님의 필요성을 느끼며 겸손한 자들을 표현한다.

제 1반

주님께서 그분을 등진 자와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번성케 하실 수 없음을 설명한다. 예레미야의 이름, 이스라엘왕국과 유다왕국, 아시리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바빌론과 유다를 연관 지어 기억하도록 한다. 또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후 성전과 예루살렘까지 파멸된 운명도 살펴본다.

위대한 예언자인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국을 경고하기 위해 보내졌다. 예언자 엘리사는 시리아의 군사령관인 나아만의 문둥병을 요르단 강물에서 일곱 번 몸을 씻게 함으로써 치료해주었다. 우리는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예언자의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청종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예배하기 위해

곧장 달려갔고 각종 사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적들에 대항해서 그들을 더 이상 도우실 수 없었다. 이리하여 적들은 점차 세력이 강해져 마침내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후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 끌고 갔고 그들 대신 외국인들을 이주시켜 놓았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유다왕국과 이스라엘 왕국 중 어느 왕국이 더 오래 존속되었는가?
- *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에 이르도록 한 죄는 무엇인가?
- * 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인가?
- * 어떤 나라가 유다를 장악하게 되었는가?
- * 유다 왕국의 멸망을 지켜본 예언자는 누구인가?
- * 그 땅에 남게 된 사람들은 누구인가?
- * 예루살렘과 성전은 어떻게 되었는가?

제 2반

분단된 두 왕국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본 후 중요한 사건을 요약해 본다.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 왕국의 지배권이 서쪽으로 확장될 때 썸 있게 된 왕국 백성들의 사악함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이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 왕국에 의해 정복당했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멀리 끌려가서 되돌아오지 못했으며, 어느 누구도 그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의 후예들은 종종 성서에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지파”로서 언급된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동쪽에서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이스라엘에 정착시켰다. 이렇게 이주한 백성들의 후손들은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인 수백 년 후까지도 거룩한 땅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이 곧 복음서에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다.

유다왕국은 이스라엘 왕국보다 더욱 오래 존속되었다. 하지만 유다왕국 역시 일부 왕들과 백성들이 솔로몬의 나쁜 본보기를 닮아서 주님을 예배함과 더불어 우상도 예배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

을 수도로 삼았고, 그곳에는 주님을 상기시켜주는 성전이 있었다. 일부 선한 왕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께 순종하도록 노력하기도 했다. 그 왕들이 바로 아사와 히즈키야 그리고 요시아이다. 또한 위대한 예언자인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유다왕국에 있었다.

그러나 우상숭배와 백성들의 악행이 유다 지역에서도 더욱 득세하기 시작했고, 동방의 나라들인 아시리아와 바빌론도 점점 유다 왕국을 지배하려고 했다. 유다왕국은 그들 스스로 한 때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공물도 바쳤다. 그리고 최후에는 성전과 궁전의 보물들까지 모두 주면서 왕국을 지키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모두 끌려가게 되자 북쪽의 방어는 허술하게 되었고, 이집트 역시 그들을 도울 여력이 없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를 본문 첫 장에서 알 수 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바빌론에 항복하라고 유다의 왕에게 충고했다. 이런 이유로 바빌론 왕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고향에 남아 있도록 허락했던 것이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예레미야는 남은 백성들에게 고향에서 조용히 정착하고 바빌론의 왕에게 순종하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백성들 중 일부는 매우 두려워하고 이집트로 도망쳤는데, 그들은 예레미야까지 강제로 끌고 갔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집트에서 죽게 되었다. 애가서에 기록된 예언들은 그가 죽기 전 이집트에서 그를 통해 주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예레미야서의 일부 마지막장도 이집트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열왕기하 25장 후반부는 바빌론의 왕이 시드키야의 전임자인 여호야킨을 포로 생활 중에 어떻게 우대했는가를 보여준다. 이때로부터 망명 생활은 보다 더 쉬워졌고, 그로부터 칠십 년 후 주님이 바빌론왕의 심중에 거룩한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게 허용되도록 섭리하셨던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유다왕국의 마지막 왕 이전의 왕은 누구인가?
- * 그 왕은 포로로 되어 끌려갈 때 어디로 잡혀갔는가?
- * 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인가?
- * 이 왕은 주님께 사정 하도록 누구에게 특사를 보냈는가?
- *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시드키야는 어떻게 되었는가?
- * 백성의 어느 계층들이 포로로 잡혀갔는가?

- * 유다 땅에는 어떤 계층만 남게 되었는가?
- * 성전은 어떻게 되었는가?
- *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는가?

제 3반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응 그리고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관한 상응을 연관 지어 살펴본다. 그리고 유다의 함락과 예레미야의 연결사항도 살펴본다. 또한 세상적인 야망과 타협하려고 애쓰는 것의 위험성도 지적한다.

시리아는 한 때 니느웨를 수도로 삼고 있는 먼 동쪽에 위치한 아시리아에 흡수된 적이 있다. 여기서 시리아란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상징한다. 그리고 아시리아란 추론하는 것 또는 합리적인 지성을 상징한다. 우리는 이사야 19장 23-24절에서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가는 큰길이 트여 아시리아 사람과 이집트 사람이 서로 오가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예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 다음의 셋째 번 나라가 되어 세상에서 복을 받으리라.”라는 구절을 접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집트란 기억적인 지식이 저장된 지성의 자연적인 평면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영적인 사람의 지성을 상징한다. 이 영적인 사람의 지성이란 거듭남이 꽤 진전된 교회에 속한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의 이사야서의 인용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우리의 지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혹은 우리의 추론능력이 기억 속에든 지식과 서로 연관되어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능력이나 기억속의 지식은 영적인 이해성에 의해 계발되며 관리되어야 한다. 이것은 위의 인용문에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중간에 끼어 복을 받는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스라엘 왕국이 주님을 예배하기를 중단했을 때 그 나라의 기능은 점점 흔들려져 갔고,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 점령당하고 말았다. 즉, 교인의 지성이 빛과 안해를 받기 위해 말씀에 의지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면 그 사람의 추론 능력은 실제로 자기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의 적이 되고 마침내 그의 영적인 이해성이나 자유가 모두 거둬지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귀에 담아 두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아시리아에 포로로 끌려간 후 결코 되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동방으로부터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왕국의 땅으로 데려와져서 그곳에 정착했는데,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이주해서 정착한 외국인들의 후손들을 사마리아 인들이라고 칭한다.

아시리아는 유다왕국 또한 정복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권능에 의해 격퇴되었다. 그 이유는 비록 유다왕국의 왕들이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국과는 달리 한편에서 성전에서의 예배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다는 의지 또는 심정을 상징한다. 그 이유는 거듭나는 상태에 도달한 사람의 심정은 설사 그의 생각이 세상적으로 되고 그의 의지가 이것저것과 섞일지라도 선한 의도가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즉, 세상적인 추론이 선한 의도의 맛을 바뀌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모습은 성서에서 아시리아가 유다를 정복할 수 없었던 역사로 그려지고 있다. 앞서 우리는 유다 왕국 내에 선한 왕들도 있었음을 살펴보았는데, 그 왕들은 백성들이 주님만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다. 자신의 선한 인격이 퇴보되어 간다고 인식한 사람이 새 생활을 시작하기를 거듭 반복하는 모습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시험에 계속 부딪치게 될 때 그의 마음을 떠받쳐 주고 보호해 주는 지성 속의 영적인 원리가 없으면, 선한 의지는 굳건히 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이 아시리아로 모두 끌려 간 후 유다는 극히 쇠약해졌다. 유다왕국의 선한 왕들까지도 적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궁내의 모든 보물을 바치며 심지어는 성전내의 것들까지 보냈지만,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결국 헛수고에 그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식으로 사람들은 조금씩 악과 거짓에 타협하여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때까지 이르게 된다.

유다 왕국의 말기에 왕들은 이집트에 의존하여 버티 보려고 했다. 이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지식에 담긴 진리가 한동안이라도 우리를 지탱시켜줄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롭고 더 강한 적이 결국 아시리아를 뒤엎고 이집트까지 복종시키자 유다왕국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었다. 이 적이 바로 바빌론이다. 바빌론은 지배욕을 상징한다. 지배욕이란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더불어 자신이 원하는 바를 타인들이 수궁해야 한다고 우기는 욕망을 의미한다.

유다왕국 말기의 역사는 이러한 이기적인 욕망이 점차 그 세력을 확장하며 심정 속을 점령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한 때나마 우리의 지성이 말씀의 안내를 받는 것 대신 세상의 추론이 이끄는 길을 허용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위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히즈키야 왕 시대에 이사야에 의해 예언되어졌다(열왕기하 20:16-18).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끌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에 있었다. 이와 관련된 히즈키야 왕의 사건은 앞서 공부한바 있다. 그는 친구인 척하고 사절단으로 온 바빌론의 특사들에게 궁내의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본문의 시대에 모든 보물들이 바빌론으로 옮겨졌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즉각 멸절하지 않았다. 먼저 그는 뛰어난 일부 젊은 왕자들을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그들 중에는 다니엘도 속해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이집트를 손아귀에 넣고 유다를 포위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략하여 유다 왕 여호야긴과 가족들이 항복하자 그들과 함께 용사들, 은장이 또는 대장장이와 같은 유력자들을 모두 데려갔다. 그는 이때까지 예루살렘과 왕국을 보전한 채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니야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 놓고 그의 이름을 시드키야로 바꿔 주기도 했다. 그러나 시드키야가 반역하자 느부갓네살은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까지 불태워 버렸다. 그 후 시드키야의 두 눈이 뽑혔고 그의 아들까지 모두 살해당했다.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해 남겨진 가난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말았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의 마음이 이기심으로 차차 끌려가서 결국 주님을 예배하지 않거나 의를 행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 땅의 가난한 자란 자신이 미약한 존재이고로 주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우리가 거둬나는 삶을 시작한 후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전적으로 파괴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언제나 ‘가난한’ 것의 일부가 존재하도록 해 주신다.

본문의 예레미야는 위와 같은 곤란한 상태에 처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인도해주려고 노력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표현한다. 예레미야는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기심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의 가르침을 경청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들로부터 경멸을 받아 음모에 빠지게 되었고 심지어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다. 또한 그는 물웅덩이에 처박혔고 구타를 당하며 짐승 우리에 가둬지기도 했다. 심지어 그는 음식을 제공받지 못해 죽음의 지경에 처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바빌론이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의해 억지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충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해주었다. 사실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열왕기서보다 그가 쓴 예레미야서나 그가 이집트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는 애가서로부터 자세히 알 수 있다. 본문에는 예레미야서가 더 첨부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예언서 역시 역사의 세부사항을 보충하면서 장차 발생할 일에 대한 이유들을 강조해 줌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언서를 통해서 시드키야가 유다왕국의 멸망 직전까지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인정하여 그에게 특사를 보내서 유다왕국에 대해 주님께 물어보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 전능하신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의지에 반대되면서까지 우리를 도우실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태도에 집착하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정의로 이끄실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사항은

가난한 자들이 그 땅에 남겨졌다는 것과 칠십 여년 후 포로들의 일부가 귀향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 등의 역사 속에 담긴 참된 의미일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아시리아 = 추론, 지성의 합리적인 면
바빌론 = 자아사랑에서 비롯된 지배욕
가난한 자 = 겸손한 자

제 4반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점차적으로 정복되는 모습을 살펴본다. 그리고 그 시대에 예언자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연결되는 것에 대한 의미도 살펴본다.

이스라엘 왕국은 끝내 아시리아에 의해 정복당하고 말았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성이 세상적인 추론에 빨려들고 만 모습을 의미한다. 그 나라 백성들은 모두 끌려가서 결코 되돌아오지 못했다. 이 후 아시리아가 유다왕국을 위협했지만 당시 유다의 왕인 히즈키야가 주님을 성심껏 섬긴 터라 그분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시리아 군대는 기적으로 전멸 당하여 유다왕국은 일시적으로 나라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거듭나는 삶에 일단 진입한 각 개인의 마음은 단순한 세상적인 사상에 의해서 정복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사상들 뒤에는 선한 의도를 전복시킬 수 있는 더욱 막강한 적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바빌론의 왕은 히즈키야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히즈키야의 병세를 물어보는 겉치레적인 인사를 했다. 그때 히즈키야는 그들을 친구로서 영접하며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보물을 보여 주었다. 바빌론은 지배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 곧 지배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타인이 모두 해주어야 한다고 바라는 욕망인 것이다. 이사야는 히즈키야에게 바빌론의 사절단 앞에서 우쭐된 그의 결과를 알려주었다. 이에 대한 것은 열왕기하 20장 16-18절에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다. 바빌론의 왕은 히즈키야가 보여주었던 예루살렘의 보물들이 자신의 것이 될 때까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 본문은 바빌론의 왕이 멀리 이집트까지 모두 정복해버린 후 유다에

대한 마지막 공격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바빌론 왕국의 모습이야 말로 지배욕의 특성인 것이다. 이는 욕망이 우리 삶을 슬슬 기어 다니다가 점차 그 깊이를 더 해가서 결국 우리의 마음까지 휩쓸어 버리는 상황을 뜻한다. 또한 이것은 주님과 말씀에 관한 진정한 이해성이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안정성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진 상태 안에서는 그런대로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상태가 퇴보되면 이기심에 의해 쉽게 잡아먹히게 된다. 그 이유는 이기심이 이해성의 측면과 일상생활면을 이미 침투하여 자리 잡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히즈키야 왕 이후에도 유다에 선한 왕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히즈키야의 증손자인 요시아이다. 앞서 우리는 요시아가 과감히 수행했던 개혁에 관해서 공부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의 뒤를 이은 세 왕들은 모두 악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즈는 이집트로 잡혀갔고, 그를 대신하여 형제인 엘리아킴이 이집트인들에 의해 여호아킴으로 개명되어 왕위에 올라 이집트에 공물을 바쳤다. 하지만 그는 이내 이집트에 반기를 들었고, 그 후 바빌론 왕에게 쫓겨났다. 11년간 지속된 여호아킴의 통치는 잦은 적의 습격으로 인한 괴로움의 연속이었다. 그의 아들 여호야킨은 왕위에 오른 지 석 달밖에 안되어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을 공격받아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바빌론 왕은 왕의 친척들 외에 유다의 지도자들 칠천 명과 은장과 대장장이 천명을 끌고 갔고, 왕가와 성전의 모든 보물들까지도 모두 휩쓸어 갔다. 그는 그 땅을 돌볼 가난한 자들만 남겨 두었다. 느부갓네살은 왕의 삼촌인 시드키야를 새 왕으로 세웠는데, 그는 꼭두각시 왕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시드키야가 구 년 뒤에 반역하자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이 년 후에는 모두를 갈취하고 파괴시켜 버렸다. 시드키야에게 내려진 벌은 열왕기하 25장 6-7절에 기술되어 있다. 이렇게 파괴된 예루살렘의 모습은 순수한 진리를 보는 능력 혹은 어떠한 영적인 발달 능력이 완전히 파괴된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 느부갓네살은 왕이 아닌 총독으로서 요시아의 서기관이었던 사반의 손자 게달리아를 다시 임명했다. 그러나 일부 남아 있던 백성들이 그를 죽인 후 바빌론의 보복이 두려워 이집트로 도망갔다.

이러한 유다의 역사는 자신의 마음에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오도록 허용한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그려준다. 간단한 예로, 한 젊은이가 교회에서 양육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가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면, 그는 고향에 있는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분리되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초기에 자신이 여전히 기독교인이라고 느낀다. 그러나 살다보면 교회에 가는 것을 멈추도록 하는 많은 일들이 그의 주위에서 발생된다. 이때에 그는 “내가 과거에 교회에 나갔던 것은 부모를

따라 다니다보니 자연히 습관처럼 된 것일 뿐 실제로는 교회가 의미하는 바와 내 삶에 있어서 교회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었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예배에 참석하려는 노력을 점점 소홀히 하게 된다. 그런 다음 정규적인 예배가 없는 그의 외적인 삶이 세상의 쾌락 또는 세상적인 의무로 채워지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며 선한 인격자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가 하고자 하는 바가 그에게 올바른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태도가 계속 반복된다 보면 주님의 의지 대신 자신의 의지가 그의 마음의 통치자로서 자리를 굳혀간다.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점령당해 가는 모습이 바로 이를 의미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영적 인격 속에 든 아름다운 것들이 모두 파괴되면서 영적인 진리에 대한 마음의 눈은 소경이 되어 버린다. 이렇게 되면 그는 세상적인 것과 이기적인 원리의 노예가 되고 만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 주님께서 이와 같은 상태의 사람을 향해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겸손한 곳으로 지속적으로 인도하시며 경고 해주시며 관한 것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의지와 반대되어서는 우리를 구해주실 수 없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하면, 정의는 그의 본질인 정의로운 방침을 취해야 한다. 시드키야의 본래 이름인 마따니야는 하느님의 선물이란 뜻이었다. 반면에 개명된 시드키야란 하나님의 정의를 뜻하는데, 이는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다.

제 25장은 내적인 의미를 지닌 구약 성서의 역사적 부분이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약 칠 십 년 후 거룩한 땅으로 유다 백성의 일부가 귀환되도록 인도해줄 징조를 엿 볼 수 있다. 즉, 바빌론 왕 에월브로닥이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호의를 베풀어 감옥에서 내놓고 친절히 대우하였다...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은급을 받아 여생을 살았다”라는 기록 때문이다.

우리가 본문의 전체적인 면에서 인식해야 할 사항은 바빌론에 의해 유다가 정복되는 이야기는 한 사람의 선한 심정을 이기심과 지배욕이 침투해 감을 묘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기심과 지배욕의 침투가 단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또한 선 쪽에 있는 의지는 그 마음이 정복되는 마지막까지도 수차례 진실을 주장한다는 것과 귀환의 가능성이 주님께 의해 보존되고 있음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제 5반

특별히 지배욕이 음험한 경로를 통해 신앙인의 심정으로 들어 갈 수 있음을 살펴본 후 지배욕의 본성을 강조한다.

성경의 모든 부분의 구절들은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몰락은 우리로 하여금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해준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정복당했고, 그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서 결코 되돌아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강제로 이주된 외국인들이 살게 되었다. 그 뒤 아시리아가 유다 왕국까지 점령하려고 했지만 허용되지 않았다. 그 후 한 세기쯤 지나서 바빌론이 아시리아와 이집트를 제압하고 세력을 떨치면서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한 결과 유다가 함락되었고, 그 백성들 중 지배 계층들은 모두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농사나 포도원 경작을 위해 남겨둔 가난한 사람들만이 남겨지게 되었다. 그로부터 칠십 년 후 귀향을 갈망한 일부 포로들은 귀환하도록 허용되었고, 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되었다. 그러나 유대라는 나라는 인간들 중에 존재하는 주님의 교회에 대한 표현성을 잃고 말았다. 여기서 우리가 상기해야 할 사항은 이 때 귀환한 백성들과 남겨진 가난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오랜 뒤에 주님이 탄생하시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과 복음서에서 거론되는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이 시대에 강제로 이주된 외국인들의 후손이라는 것이다.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은 관계적 측면에서 볼 때 교인의 마음과 이해성을 표현한다. 아시리아는 합리적 마음 또는 넓은 측면에서는 추론함을 표현하고, 이집트는 자연적인 마음 또는 기억적인 지식을 표현한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리고 아시리아의 적절한 관계는 이사야서 19장 23-24절에서 “그 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가는 큰길이 트여 아시리아 사람과 이집트 사람이 서로 오가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예배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 다음의 셋째 나라가 되어 세상에서 복을 받으리라.”라고 기술된다. 즉, 질서 잡힌 마음속에서는 추론력과 기억적인 지식이 상호작용하고 이들 사이에 영적인 것들이 있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송아지에 대한 예배로 대체하고 유다왕국과도 분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들이 차지할 축복을 희생시키게 되었다. 만약 신앙인이 잠시라도 행위적인 선만으로 종교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는 선을 행할 모든 힘의 근원인 신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조짐이 싹트면 그의 이해성이나 추론력은 주님이 밝히 알려주시는 것보다 세상적인 학식을 찬양하는 쪽으로 기울게 된다. 그리고 그 기울음이 더 큰 경사를 이루면 그의 마음은 결국에는 교회 밖인 세상의 것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만다.

유다왕국 - 마음 - 역시 우상을 숭배했다. 반면에 이스라엘 왕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주님에 대한 예배가 절멸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은 그들의 진정한 하느님을

되돌아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주님께 신실한 자들도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일부 왕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며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김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고군분투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거듭나는 삶이 주는 행복과 평화를 다소 경험한 마음은 세상적 추론만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다. 아시리아가 유다를 정복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 세기 이상 세력을 운집해 온 또 다른 적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 적은 결국 아시리아를 정복했고, 그곳으로 향하던 모든 공물과 땅까지 점유하고 말았다. 오래 전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었던 갈대아 지역 곧 시날 지방에 위치한 바빌론이 바로 그 적이다. 바빌론은 지배욕을 표현한다. 지배욕이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올바른 것으로 여기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섬겨야 한다고 느끼도록 우리를 자극시키는 자연적 수준에 있는 뿌리 깊은 이기적인 의지이다. 스웨덴북은 바빌론에 대해서 “종교를 남용해서 얻은 지배 또는 교회를 위한 권위를 하느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명령이나 규정들에서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바빌론 왕은 이스라엘이 함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 왕 히즈키아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그의 건강을 묻도록 했다. 사실 이는 겉치레에 불과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즈키아는 자신을 추켜 주는 사절단에 미혹되어 그들을 친구로 환대했고, 궁내 모든 보물들을 보여 주며 자랑했다. 그 뒤 이사야가 히즈키아에게 와서 “언젠가 유다의 모든 보물들이 거두어져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말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게다가 히즈키아의 후손들이 바빌론 궁정의 하인 신세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본문은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광경을 보여준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깊은 속마음에 지배욕이 들어오도록 단 한 번이라도 허용하게 되면, 그 지배욕은 그것을 미끼로 우리의 깊은 마음을 탐낸다. 말씀과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오만함과 지배욕만큼 명백하고 직접적으로 질타를 받는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유다왕국 말기에 있었던 위대한 예언자였다. 이 왕국의 말기에 대해서는 열왕기하에서 간략하게 언급되며, 예레미야서에서 그 내용이 보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인정한 예언자였고, 비록 그 왕이 주님께 순종할 의사가 없었다하더라도 그 왕이 예레미야로부터 조언을 구했기 때문이다. 그 왕과 백성들은 자신들 속의 사악함 때문에 예레미야의 조언을 거둬 거절하면서 그를 참혹하게 다루기도 했다.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여 말씀으로 돌아가되 자신의 뜻함이나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기 위해 말씀을 공부하면,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로 인해 신랄하게 질타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경시하며 거절하기 일쑤다. 주님은 세상에 오실 때 그분을 거절한 그 땅에 오셔야 했는데, 이는 그 땅의 모든 부분들이

상응에 의해 말씀 속에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오셔야만 했다. 따라서 말씀을 지닌 유대인들로 하여금 거룩한 땅에 귀환하도록 하여 성전을 재건시키셔야만 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할 겸손한 자, 즉 가난한 자가 유다 땅에 남겨졌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던 바대로 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뒤 유다라는 나라는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표현하는 역할마저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류와 주님과 연결은 한동안 포로와 포로의 귀환에 관한 예언으로 겨우 유지되었다. 그 후 사 백년 동안은 아주 단순하게 율법과 예언을 믿고 순종해 온 극소수의 겸손한 영혼들에 의해서 유지되었을 뿐이다. 그나마 맥을 유지시킨 이런 예언들마저 바리사이파 사람들 혹은 율법학자들에 의해 가르침 자체가 전복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주님께서 이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던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제 1029항: “다니엘서 2-7장의 구절로부터 알 수 있는 사항은 바벨론 또는 바벨이란 온 세상을 뒤덮었다는 지배욕, 다시 말해서 천국과 주님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지배욕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계속적으로 바벨론이 되어감에 따라 사랑에서 비롯된 모든 선과 믿음에서 비롯된 모든 진리가 황폐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마침내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과 이렇게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며 그 속에서 가르침을 얻고자 주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을 제외하면 그 국가 자체는 우상 숭배국가들 속에 흡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왕국이 천국과의 교통을 가능하도록 한 영적인 것에 대한 표현들인 각종 율법에서 분리되었을 때 그들 모두가 아시리아왕의 수중에 넘겨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은 유다 왕국에도 발생했다. 그들은 믿음 속에 든 선과 진리를 표현한 모든 규정, 판결 그리고 율법 등을 다른 것과 뒤섞거나 모독했다. 이리하여 선과 진리가 그들에게 남겨지지 않게 되었고, 그들의 교회는 차차 바벨론이 되어가서 그 나라 왕과 왕자와 대부분의 백성들 그리고 성전의 모든 보물들 심지어는 집기들까지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수중에 넘어갔던 것이다. 게다가 성전 자체가 불태워지고 말았다. 그러나 주님은 그 나라에서 태어나셔서 말씀이 있었던 곳 곧 교회가 있었던 곳에서 그분을 나타내셔야만 했기 때문에, 칠십 년 후 포로들의 귀환이 허용되었고 성전도 재건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땅에는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교회를 제외하고 어떤 교회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이러한 근거는 주님 자신이

그 나라에 대해 언급한 여러 구절들, 즉 그들이 그분을 영접한 태도 등에서 엿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은 다시 파괴되었고, 성전 또한 다시 불태워지고 말았던 것이다.

질문 정리

- 1)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했는가?
- 2)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3) 이 적에 대항해서 유다왕국은 왜 오래 버틸 수 있었는가?
- 4) 유다의 선한 왕들은 무엇을 추진했었는가?
- 5) 어떤 국가가 유다를 정복했는가?
- 6) 유다의 어떤 왕 시절에 바빌론 사절단이 내왕했었는가?
- 7) 어떤 예언자가 이 사절단의 결과를 예언했는가?
- 8) 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인가?
- 8) 이 마지막 왕은 어떤 예언자에게 조언을 구했는가?
- 10) 예레미야는 이 왕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1) 시드키야는 어떻게 되었는가?
- 12) 어떤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는가?
- 13) 그 땅에 남은 자들은 누구인가?
- 14) 이스라엘과 유다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아시리아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바빌론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그 땅의 가난한 자”는 누구를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아시리아 2) 영원히 끌려갔다 3) 다윗의 계보에 충실했기 때문 4) 개혁 정치 5) 바빌론
 6) 히즈키야 7) 이사야 8) 시드키야 9) 예레미야 10) 예루살렘이 파괴되다 11) 눈이
 뽑혀 바빌론에 끌려감 12) 왕자와 용사 그리고 대장장이 등의 유력자들 13) 가난한 자 14)
 분단된 심정과 지성 15) 세상적 추론 16) 자아사랑에서 비롯된 지배욕
 17) 주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겸손한 자

21

말씀에 관한 시편

머리말

제 2반은 시편을 위한 배경을 충분히 담고 있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본문을 살펴본다. 이 시편에 관한 두 가지 요점은 제 1반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이 요점을 주로 공부한다.

성 서 본 문: 시편 119편

1. 복되어라, 그 행실 깨끗하고
야훼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2. 복되어라, 맺은 언약 지키고
마음을 쏟아 그를 찾는 사람,
3. 나쁜 일 하지 아니하고
그의 길만 따라 가는 사람.
4. 당신은 계명들을 내리시고
온전히 그대로 살라 하셨으니
5. 당신 뜻을 어기지 않고
균균하게 살도록 해 주소서.
6. 그 명령을 낱알이 명심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이다.
7. 당신의 바른 결정을 내가 배워서
진심으로 감사하오리이다.
8. 당신 뜻대로 힘써 살려 하오니,
이 몸을 아주 버리지 마소서.

9.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길을 가오리이까?
당신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면 되오리이다.
10. 내가 마음을 다 쏟아 당신을 찾사오니
당신 명령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
11. 당신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주신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였사옵니다.
12. 아뢰여, 찬송을 받으실 분이여
당신 뜻을 가르쳐 주소서.
13. 친히 내리신 모든 법규를
이 입술로 모두 뒤풀이했사옵니다.
14. 어떤 부귀를 누리기보다도
당신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더 기뻐사옵니다.
15. 당신의 계명을 되새기며
일러 주신 길을 똑바로 걸으리이다.
16. 당신 뜻을 따름이 나의 낙이오니
당신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17. 당신 종을 너그러이 보시고 살려 주소서.
당신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18. 나의 눈을 열어 주시어
당신 법의 그 놀라운 일을 보게 하소서.
19. 땅 위에서 나그네인 이몸에게
당신의 계명을 숨기지 마소서
20. 자나깨나 당신의 결정을 갈망하다가
내 영혼이 지쳤사옵니다.
21. 당신의 계명을 어기는 거만한 자들
그 저주받을 자들을 꾸짖으소서.
22. 내가 당신의 언약을 지켰사오니
이 모욕과 멸시를 벗겨 주소서.

23. 수령들이 모여 앉아 나를 모함하오나
이 종은 당신의 법규를 명상합니다.
24. 당신의 언약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충고자이옵니다.
25. 내 영혼이 먼지 속에 처박혔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26. 내가 살아 온 길 보이매 응답하셨사오니
당신 뜻을 가르쳐 주소서.
27. 당신 계명 따르는 길, 깨우쳐 주소서.
주의 이루신 기적들을 되새기리이다.
28. 나의 영혼이 괴로와 잠 못 이루오니,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일으켜 주소서.
29. 다시는 거짓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법의 은총을 나에게 베푸소서.
30. 진리의 길을 나는 택하였사오니
당신의 결정을 내 앞에 내리소서.
31. 아뢰여, 당신 언약에 내 마음을 붙이오니,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게 하소서,
32. 당신 계명 내 마음 흡족하오니
그 길을 따라 내달리리이다.
33. 아뢰여, 당신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치소서.
그대로 지키고 상급을 받으려 하옵니다.
34. 당신 법을 깨우쳐 주시고 그 법 따라 살게 하소서.
마음을 다 쏟아 지키리이다.
35. 나의 기쁨은 당신의 계명에 있사오니
그 길 따라 곧장 살게 하소서.
36. 내 마음을 잊속에 기울이지 않고
당신의 언약으로 기울게 하소서.

37. 헛된 것에서 나의 눈을 돌리시고
당신의 길을 걸어 생명을 얻게 하소서.
38.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을
당신의 종에게 지켜 주소서.
39. 당신의 결정은 은혜로우시니,
그 몸서리치는 모욕에서 건져 주소서.
40. 당신의 계명을 나는 갈망하였사오니,
정의를 세우시어 이 몸을 살려 주소서.
41. 야훼여, 당신 사랑을 나에게 베푸시고,
약속하신 당신 구원을 내려 주소서.
42. 당신 말씀 굳이 믿고,
나를 욕하는 자들에게 응수하리이다.
43. 당신의 결정에 내 희망을 두오니
진리의 말이 내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44. 당신 법을 언제나
길이길이 끝까지 지키리이다.
45. 당신의 계명을 애써 지켰사오니
내 닮는 발걸음 자유롭게 하소서.
46. 임금들 앞에서 당신의 언약을 선포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으리이다.
47. 당신의 계명은 나의 기쁨,
그것을 나는 사랑하옵니다.
48. 당신 계명 내가 사랑하옵기에 쌍수 들어 반기고
당신 뜻을 언제나 나는 명상합니다.
49.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 잊지 마소서.
나의 희망은 그 말씀에 있사옵니다.
50. 비참할 때, 내가 받는 위로는
내 생명 살리시는 당신의 약속.

51. 교만한 자들이 나를 마구 희롱하여도
나는 당신의 법에 버티고 굴치 않았사옵니다.
52. 그 옛날에 내리신 당신의 결정, 그것을 생각하오면
야훼여, 나는 위로가 되웁니다.
53. 당신 법을 버리는 악인들 앞에서
울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사옵니다.
54. 나그네살이하는 이 내 집에서
당신 뜻을 노래로 따르리이다.
55. 야훼여, 밤에도 당신의 이름을 잊지 않고
당신의 법을 지키리이다.
56.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57. 야훼여 나의 분깃은,
당신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고 나는 말하였습니다.
58. 당신 얼굴 웃음 띠도록 내가 몹시도 힘쓰오니
약속하신 대로 이 몸을 불쌍히 여기소서.
59. 지금까지 걸어 온 내 길을 반성하고
당신 언약의 길로 되돌아옵니다.
60. 빨리빨리 머뭇거리지 않고
당신 계명을 지키리이다.
61. 악인들의 올가미가 내 주위에 두루 있어도
나는 당신의 법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62. 공정하신 그 판결들,
한밤중에 일어나 감사기도 드립니다.
63. 나는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당신 법을 지키는 자들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64. 야훼여,
당신의 사랑이 땅에 넘치웁니다.

당신의 뜻을 나에게 알려 주소서.
 65. 아뢰여,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종을 선대하였사옵니다.
 66. 내가 당신께서 명령하신 것을 굳이 믿사오니
 옳은 판단과 지식을 가르쳐 주소서.
 67. 죄 받아 고생하기까지는 빗나갔사오나
 이제는 당신 약속 그대로 지키리이다.
 68.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이여,
 당신 뜻을 나에게 알려 주소서
 69. 교만한 자, 거짓으로 나를 피어도
 마음을 다 쏟아 당신 계명을 지키리이다.
 70. 그들은 마음에 기름기 끼었으나
 나에게 미각은 당신의 법이옵니다.
 71. 고생도 나에겐 유익한 일,
 그것이 당신 뜻을 알려 줍니다.
 72. 당신께서 가르치신 법이야말로
 천만 금은보다 유익합니다.
 73. 손수 나를 빚어 만드셨으니
 깨우침을 주소서.
 당신께서 명하신 것을 가르쳐 주소서.
 74. 당신 말씀에 희망을 둔 이 몸을 보고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은 기뻐하리이다.
 75. 아뢰여, 당신의 판결은 옳사옵니다.
 나를 괴롭히심은 당신의 성실하심 때문이옵니다.
 76. 일찍이 당신의 종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랑을 내리시어 위로하소서.
 77. 당신의 법이 나의 기쁨이오니
 인자를 베푸시어 살려 주소서.

78. 거짓말로 이 몸을 괴롭히는 교만한 자들일랑 망신을 당하게 하소서.
 이 몸은 주님의 계명을 되새기리이다.
 79.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나에게 오게 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깨우친 이들 나에게 오게 하소서.
 80. 이 마음 당신의 뜻을 따라 깨끗이 살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81. 이 몸이 당신 말씀에 희망을 걸고
 당신의 구원을 향하여 끝까지 가오리이다.
 82. 이 몸이 당신 약속을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언제 나에게 위안을 주시렵니까?
 83. 나 비록 연기 속의 가족부대처럼 되었사오나
 나는 당신의 뜻을 잊지 않으리이다.
 84. 당신의 종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 몸을 박해하는 자들을 언제나 심판하시렵니까?
 85. 당신의 법을 반대하는 교만한 자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팠사옵니다.
 86. 당신의 법령은 조목조목 참되오니,
 거짓이 나를 핍박할 때 나를 도와주소서.
 87. 이 땅에서 저들이 이 몸을 거의 죽여 놓았어도
 나는 당신의 계명들을 버리지 않으리이다.
 88. 당신의 사랑으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친히 일러 주신 언약을 지키리이다.
 89. 아뢰여, 당신 말씀 영원하시고
 변함없이 하늘에 있사옵니다.
 90. 당신의 진실하심 만세에 이르오며,
 손수 만드신 저 땅은 흔들림이 없사옵니다.
 91. 모든 것이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결정 따라 오늘까지 변함없이 있사옵니다.

92. 당신의 법이 나의 낙이 아니었다면
이 몸은 고통 속에서 죽었으리이다.
93. 계명들을 주시어 살려 주셨으니
죽어도 그것을 아니 잊으리이다.
94. 이 몸이 당신의 것이오니 구원하소서.
애써 당신의 계명을 찾으리이다.
95. 악인들이 이 몸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사오나
나는 당신의 언약을 명심하리이다.
96. 아무리 완전한 것도 끝이 있는 줄 나 아오나,
당신의 계명들은 한 없이 넓사웁니다.
97. 당신의 법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자나깨나 나는 그 말씀을 되새깁니다.
98. 계명을 주심으로 당신은 내 것이 되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나를 만드십니다.
99. 당신의 언약을 되새기어서
나의 모든 스승보다도 더 현명해지리이다.
100. 당신의 법령들을 내가 지키어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와지리이다.
101. 당신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온갖 나쁜 길에서 발길을 돌리리이다.
102. 당신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오니
당신의 결정을 거역하지 않으리이다.
103. 당신의 약속은 말부터가 혀에 달아
내 입에는 꿀보다도 더 답니다.
104. 당신의 법령들을 깨우쳐 슬기를 얻었으니
모든 거짓된 길을 역겨워합니다.
105. 당신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웁니다.

106. 나 한번 맹세하였으니
당신의 바른 결정을 지키리이다.
107. 야훼여, 나의 받는 고난이 심하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108. 야훼여, 내 입이 드리는 이 정성을 받으시고,
당신의 결정을 가르쳐 주소서.
109. 나의 생명 항상 내 손안에 있으니
당신의 법을 잊지 않으리이다.
110. 악한 자들이 내 앞에 올라미를 쳐 놓았으니,
나는 당신의 법령들을 어기지 않으리이다.
111. 당신의 언약은 영원히 나의 유산이며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112. 당신 뜻을 따르기로 내 마음 정하였사오니
그것이 영원한 보상입니다.
113. 나는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오며
당신의 법을 사랑합니다.
114. 당신은 나의 은신처, 나의 방패시오니
나는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두읍니다.
115. 악인들아, 나에게서 떠나가거라.
나는 내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리라.
116.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살려 주소서.
나의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지 마옵소서.
117. 내가 기댔 지주 되어 주소서.
내가 살아나리이다.
- 나는 언제나 당신 뜻을 살피리이다.
118. 당신 뜻을 어기고 벗어나는 자, 모두 당신께서 없어 버리시니
그들의 계산은 허황합니다.
119. 세상의 악인들을 모두 찌꺼기처럼 치우시니

나는 당신의 언약을 사랑하옵니다.
 120. 나는 당신이 무서워 떨리웁고,
 당신의 판결이 이 몸은 두렵기만 합니다.
 121. 나는 당신의 결정과 정의를 따랐사오니,
 억누르는 자들에게 넘겨주지 마소서.
 122. 당신의 종을 편들어 잘 되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에게 짓밟히지 않게 하소서.
 123. 당신의 구원을 눈 빠지게 기다리오며
 정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124. 당신 사랑으로 이 종을 대해 주시고
 당신의 뜻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125. 이 몸은 당신의 종이오니 나를 깨우쳐 주소서.
 당신의 언약을 알아차리리이다.
 126. 야훼여, 당신의 법을 사람들이 짓밟았사오니
 나서실 때가 되었사옵니다.
 127. 그리하여 나는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당신의 계명을 더 좋아하리이다.
 128. 또, 당신의 법령을 어김없이 따르고,
 모든 거짓된 길을 역겨워하리이다.
 129. 당신의 언약이 너무나도 놀라와
 이 몸은 성심껏 그것을 지키리이다.
 130. 당신 말씀 밝히시어 빛을 내시니,
 우둔한 자들이 손쉽게 깨닫습니다.
 131. 당신의 계명을 탐한 나머지
 입을 크게 벌리고 헐떡입니다.
 132.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시던 대로
 나에게도 얼굴을 돌이키사 불쌍히 여기소서.
 133. 당신 약속에 힘을 얻어 곳곳이 건게 하시고

악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134. 사람들의 압박에서 이 몸 빼어 주소서.
 당신의 법령대로 살리이다.
 135. 당신의 종에게 웃는 얼굴을 보이시고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소서.
 136. 사람들이 당신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니
 시냇물처럼 눈물이 흐릅니다.
 137. 아훼여, 당신은 공정하시며
 당신의 결정은 언제나 옳사옵니다.
 138. 당신의 언약은 공정하여
 조금도 틀림이 없사옵니다.
 139. 나의 원수들이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니
 나의 정열이 이 몸을 사릅니다.
 140.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진 당신의 약속,
 나에게게는 그 약속이 소중합니다.
 141. 나 비록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당신의 법령들을 잊지 않으리이다.
 142. 당신의 정의는 영원한 정의,
 당신의 법은 언제나 진실됩니다.
 143. 우민과 억압에 짓눌려도
 당신의 계명이 나를 기쁘게 하옵니다.
 144. 당신의 언약은 언제나 공정하시니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을 살게 하소서.
 145. 아훼여, 목청껏 당신을 부르오니 대답하소서.
 당신의 뜻을 따르리이다.
 146. 당신을 부르오니 구해 주소서.
 당신의 언약을 내가 지키리이다.
 147.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 이렇게 부르짖사옵니다.

148. 뜯눈으로 밤을 지켜보며
당신의 약속을 묵상합니다.

149. 야훼여, 당신의 사랑으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판결로써 이 몸을 살려 주소서.

150.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당신의 법을 버리고
음흉한 생각으로 나에게 가까이 옵니다.

151. 야훼여, 당신께서는 나에게 가까이 계시오며
당신의 계명은 언제나 진실됩니다.

152. 영원토록 맺으신 당신의 언약,
나는 옛부터 그것을 익히 알았습니다.

153. 당신의 법을 내가 잊지 않으리니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건져 주소서.

154. 고발당한 이 몸을 변호하시고 구해 주소서.
약속하신 대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155.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는 자들,
그 악인들에게 구원이란 당치도 않습니다.

156. 야훼여, 당신의 인자하심 한없이 크시오니
공정하신 당신의 판결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157. 나를 박해하는 자들과 억압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몸은 당신의 언약을 떠나지 않으리이다.

158. 당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 배신들을 보고 내 마음 심히 불쾌하옵니다.

159. 보소서, 야훼여, 나는 당신의 법령들을 좋아합니다.
당신 사랑으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160. 당신의 말씀은 한 마디로 진실, 그것이오며
당신의 공정한 판결은 영원하십니다.

161. 권세가들이 나를 까닭없이 박해하오나

내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말씀입니다.
 162. 전리품을 얻고서 좋아하듯이
 당신의 말씀 듣는 것을 나는 기뻐합니다.
 163. 거짓은 내가 싫어하는 것,
 나는 당신 법을 좋아하고 실행합니다.
 164. 당신의 옳은 판결, 찬송하오니
 하루에도 일곱 번씩 찬양합니다.
 165. 당신의 법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만사가 순조롭고
 무엇 하나 꺼릴 것이 없사옵니다.
 166. 야훼여, 당신의 계명을 내가 따랐사오니,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167. 당신의 언약을 온전히 사랑하여
 내 영혼이 그것을 지키리이다.
 168. 나의 모든 행실을 보고 계시오니
 당신 법령, 당신 언약을 지키리이다.
 169. 야훼여, 이 울부짖는 소리를 가까이 들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소서.
 170. 당신 어전에 나의 기도소리 이르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건져 주소서.
 171. 당신 뜻을 당신 친히 가르쳐 주시오니
 이 입술로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172. 당신의 법령대로 살기로 결심한 이몸,
 손을 뻗으시어 도와 주소서.
 173. 야훼여, 당신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며
 당신의 법을 기쁨으로 삼으리이다.
 174. 이 몸이 살아서 당신을 찬양하리니
 바른 판단 내리시어 도와 주소서.
 175. 이 몸은 길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양,

어서 오시어 이 종을 찾아주소서.

176. 당신의 계명을 소홀히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사옵니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율법과 예언 그리고 시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 * 주님과 천국의 결합은 말씀을 수단으로 한다. 말씀에 관한 지식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이해를 줄 수 있고, 우리 삶을 바른길로 인도한다.
- * 주님에 대한 믿음은 그분에 대한 지식에 기반 한다.
- * 자아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선은 이타애가 아니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님께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은 모두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는데, 이는 그들이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분을 순종함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전에서의 정규적인 예배를 거절하여 그것을 뒤집었고, 그 대신 각종 지저분한 우상숭배에 빠졌다. 오늘날에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급속 따위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시험에 걸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우리는 옛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것과 비슷한 우상들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배우고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가 섬기게 되는 우상들은 돈, 출세, 쾌락, 남편, 아내 혹은 자녀들일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의 사상, 단순한 육체적인 편함 또는 위로감도 우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주님에 관해 생각하지 않는 것,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것 또는 말씀을 읽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변명들도 우상의 범주로 간주할 수 있다.

본문의 시편은 매 절마다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다. 시편이란 찬양의 노래이다. 시편들은 원래 성전의 찬송이었다. 이 찬송집은 종종 다윗의 책이라고도 불린다. 그 이유는 다윗 왕이 가장 많은 시편을 썼고, 레위가문의 일부를 특별히 지정해서 잘 훈련된 성악가나 연주자를 양성해서

성전의 예배에 참석시켰기 때문이다. 다윗 자신도 하프나 수금을 키는 연주자여서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인”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의 말씀이 자신의 창작이 아닌 주님이 주신 영감이 자기 입에 놓인 것일 뿐이라고 선포했다.

시편 119편이 알려주는 사항은 우리가 하느님에 관한 것, 자신의 본성에 관한 것, 자신의 본성과 하느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 그리고 삶의 목적과 그 의미에 관한 것들을 오직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에 관한 지식 없이는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 즉, 우리가 전 우주를 망라하여 모든 것을 규율하시는 근본 되는 법인 주님의 법에 대한 순종 없이는 어떤 안전이나 평화 혹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편 119편은 알파벳 순서로 된 시편이다. 어떤 영어 성경(King James Version)의 경우 각 문단의 머리에서 히브리어 철자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철자는 22개의 히브리어 철자순서를 따라 있는데, 각 문단은 8절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한 절은 각 문단을 이끄는 글자로 시작된다.

제 1반

시편에 관한 것과 가장 유명한 시편의 저자 그리고 시편들이 성전 예배에 사용되었음을 살펴본다.

인간은 아주 전 옛날부터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때 노래 부르고 싶어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자신의 슬픈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기도 한다.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안전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에 대한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서 이집트의 노예상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즉 그들로 하여금 경이로운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부른 노래일 것이다. 예언자이며 모세와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은 소고를 쳤고, 그녀를 따른 여인들도 소고를 치며 춤을 추었다. 구약 성서에 기록된 유대인의 역사를 볼 때 소고는 히브리 여인들이 아낀 악기중의 하나였다.

성경 중에는 노래로만 구성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시편서이다. 그리고 많은 시편들은 다윗 왕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다윗은 노련한 하프 연주자이기도 해서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인”이라고도 불렸다.

시편서는 성전에서 예배를 위해 불렀던 노래가 수집된 책이다. 그 책에는 총 150편의 노래가 실려 있다. 본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긴 노래에 해당된다. 우리가 이 시편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 그중 하나는 그것이 알파벳 순서를 따른 시편이라는 것이다. 원어인 히브리어로 이 시편을 읽으면 22개의 각 문단이 알파벳의 각기 다른 글자로 시작되고 문단속의 각 절은 똑같은 글자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시편은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로 되어있는 것이다. 둘째로 이 시편을 주의해서 읽어보면 이 시편의 각 구절에 주님의 진리를 언급하는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법, 명령, 길, 판단, 계명 그리고 언약 등이 그 예이다. 본문의 9-16절을 읽으면서 그 단어들을 각자 찾아보기 바란다.

제 2반

시편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과 더불어 본문의 특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시편이 우리 삶에 있어서 밀접한 생명력을 가진 말씀임을 강조한다.

시편이란 노래라는 뜻이다. 우리 역시 예배시간에 자주 이 시편들을 노래한다. 물론 우리는 노래와 더불어 피아노나 오르간의 반주를 겸한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현대와 같은 악기는 없었지만, 그들 역시 오르간 종류에 속하는 악기를 가졌었다. 그 악기는 몇 개의 파이프를 묶어 놓은 관악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오르간이란 단어가 모든 관악기를 망라하여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악기에 관한 사항은 창세기 4장 21절에서 처음 언급된다. 유대인들은 시편을 노래하면서 다른 악기들도 사용했다. 시편의 머리글자를 읽어보면, 그 시편에서 사용되는 악기의 종류가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Neginoth”란 현악기를 그리고 “Nehilth”란 관악기를 말한다. 시편의 머리글자에 있는 어떤 말은 그 시편이 노래로 불리질 때 쓰이는 특별한 곡조인 가락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본문에서의 아엘랏 샤할(Aijelath Shahar)이란 표시는 “새벽 암사슴” 가락으로 부르라는 표시이다. 우리는 역대기서를 통해 레위지와 사천 명을 따로 떼어 내서 예배의 음악 부분을 수행하도록 했던 것과 세 명의 대표자인 헤만과 마삽 그리고 에단이 다윗의 시대에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후계자들은 성악과 연주를 계속하도록 교육되었다. 즉, 노래가 그들의 직업이었다는 것이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음악 행사에 참가했었는데, 이는 시편 68편 25절을 통해 알 수 있다.

많은 시편들이 다윗을 통해 영감 되어 졌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시편서는 종종 다윗

서라고도 불린다. 다윗 왕은 노련한 하프연주자여서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인”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사무엘하 23장 1-2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노래한 시편의 말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 자신이 창작했던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다.

본문은 가장 긴 시편이다. 본 시편은 매 문단이 8절씩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2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어 성경의 경우(King James 번역판) 매 문단 위에 이상한 단어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된 22개 글자들의 이름이다. 히브리어로 읽는 본 시편은 8절이 한 문단을 이루는데, 각 문단을 이끄는 첫 글자는 각 문단 앞에 쓰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본 시편은 “알파벳순으로 쓰인 시편”이라고도 불린다. 이런 형식의 시편은 본 시편을 제외하고도 몇 개가 더 있는데, 사실 그것들은 본 시편만큼 정확하게 쓰이지는 않았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알파벳에 거룩한 어떤 것이 있다고 믿었고, 그들의 이러한 믿음은 진실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언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그 뜻을 담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본 시편의 경이로운 사실중 하나는 한결같이 말씀에 관하여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근원과 말씀의 능력 그리고 우리 삶에 말씀이 결과 되는 것 등에 관하여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본 시편을 유심히 읽게 되면 매 구절마다 주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단어들을 발견할 수 있다. 법, 언약, 가르침, 명령, 계명, 판단 그리고 말씀 등이 그 예이다.

우리는 본문의 시편을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데, 이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이 본문에서 거듭하여 강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시편은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주님에 관한 것과 자신의 삶에 관해서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음을 가르쳐준다. 또한 본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행복도 길게 지속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해준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은 이 세상에서 느끼게 되는 우리의 모든 불행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속의 진리를 공부하지 않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

제 3반

시편 119편의 특성과 교훈을 살펴본다.

본문은 시편서중의 하나다. 시편서는 종종 다윗의 책이라고도 불린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인”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사실 시편서는 성전에서 쓰였던 찬송집인데, 이런 연유로 유대인들이 이 책을 그들의 정경인 율법과 예언서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이 주님의 영감으로 쓰였다고 말했다. 주님 역시 시편이 율법과 예언서와 더불어 그분의 말씀 중 한 부분임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이는 사무엘하 23장 1-2절과 누가복음 24장 44절로 알 수 있다.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시편이며, 알파벳순으로 쓰였다.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22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영어성경인 King James의 번역판에서는 각 문단 머리에 있는 기이한 글자도 볼 수 있다. 이 머리글자는 히브리 알파벳인 22개의 글자들이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본문의 시편은 각 문단안의 각 절이 문단 뒤 머리글자로 시작된다. 스웨덴본은 “히브리 알파벳의 모든 글자가 영계에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하였기에 다윗이 119편을 알파벳 글자의 순서에 따라 썼다.”라고 설명한다. 시편 111편은 이와 유사한 형태를 지니지만, 본 시편의 정교한 짜임새는 갖추지 못했다. 이 밖에도 다섯 편이 본 시편과 유사한 순서를 지니고 있다.

이상의 특성때문에 본 시편이 본문으로 특별히 채택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본 시편을 공부하는 까닭은 이 시편이 말씀에 관한 것, 특별히 말씀의 기원과 우리 삶에 말씀이 어떻게 놓여 저야 하는가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 176절로 구성된 이 시편의 각 구절에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성한 진리를 표현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구절을 선택하여 읽든지 간에 하느님의 말씀에 관한 지침을 얻게 된다. 각 절에는 법, 언약, 길, 가르침, 계명, 판단, 명령, 말씀, 충실, 규례 혹은 주님의 이름 등과 같은 단어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들이 본 시편에 있음을 발견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는 이 시편에서 채택되어 만들어진 찬송을 예배 중에 부르기도 한다. 우리는 본 시편의 전체를 반복해서 읽고 공부하여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말씀이 주님과 우리 영혼의 모든 것에 대한 지침서이자 그분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신성에 관한 모든 지식은 성경의 말씀 또는 성경 이전의 고대 말씀에 근원을 두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밝히 보여 주셔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관계하심에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각자의 마음에 특별한 관계를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의 구절을 통하여 관계를 가지신다. 노아의 이야기에 있는 무지개의 언약을 상기해 보자. 무지개는 작은 빗방울에 햇빛이 비추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영적인 무지개는 우리 기억 속에 있는 말씀에서

비롯된 진리라는 빔방울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순수한 흰빛을 투영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투영된 진리의 빛은 투영되기 이전에는 한 가지색인 흰 색 뿐이나, 우리 속에는 진리를 주님의 빛이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빛은 우리의 심정 상태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 다양한 색깔로 나타나게 된다.

본 시편의 105절은“당신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구절은 말씀이 우리의 지성을 계발시켜주고 우리에게 삶의 올바른 길을 보여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98절에서는 “계명을 중심으로 당신은 내 것이 되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나를 만드십니다.”라고 기술된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시험을 인식하고 싸워나가야 하는 방법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89절에서는 “아훼여, 당신 말씀 영원하시고 변함없이 하늘에 있사옵니다.”라고 기술된다. 이는 말씀 속에 천국의 근본이 되는 질서를 표현해 놓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말씀은 지상의 때와 더불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165절에서 “당신의 법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만사가 순조롭고 무엇 하나 꺼릴 것이 없사옵니다.”라고 기술된다. 이 구절은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로 하여금 내적인 평화 속에서 살도록 해주며 우리에게 오는 각종 불운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정을 잃지 않도록 해줄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편의 각 구절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따라서 시편은 우리 마음에 교훈이 와 닿도록 해주면서 본문 33-34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아훼여, 당신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치소서. 그대로 지키고 상급을 받으려 하옵니다. 당신 법을 깨우쳐 주시고 그 법에 따라 살게 하소서.”

기본 상응 공부

등 = 신성한 진리

판단 = 진리에 관해서

정의 = 선에 관해서

더럽혀지지 않음(완전함) = 이타애로부터 진리를 말하고 행함

제 4반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그 가르침대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방침을 인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누가복음 24장 44-45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은 시편서가 구약성서에서 율법과 예언서와 더불어 동등한 위치를 가짐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다. 다윗이 시편의 많은 부분을 기록하여 시편서가 가끔 다윗의 책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또한 자신이 쓴 시편들이 주님의 영감에 의해 써진 것이라고 말했다(사무엘 하 23:1-2).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과 예언서와 같은 수준의 영감 있는 책으로 시편서를 간주하지 않고 “성문서”로 분류해 놓았다. 그 이유는 시편이 성전의 찬송집으로 사용됨에 따라 율법과 예언서와는 달리 보존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시편 119편은 알파벳순서로 쓴 7개의 시편 중 하나이다. 다른 6개의 시편들은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과 145편이다. 이 시편들 중에서 알파벳순의 형태가 가장 뚜렷하고 완전한 것이 119편인데, 이 시편에 대한 공부는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King James Version 성경에서는 각 문단위에 히브리어를 기록해 두었는데, 이것은 히브리 알파벳 22개를 순서대로 적어 놓은 것이다. 사실 히브리어 시편의 경우는 각 문단 이전에 주어진 히브리어 알파벳이 8절로 이뤄진 각 문단의 시작어로 사용되고 있다. 뒤의 참고 문헌을 보면 알파벳 형태로 된 이 문체에 논리적으로도 옳은 기반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알파벳 순서에 의한 히브리어 글자들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추정해 낼 수 있는 것 이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히브리 알파벳에서 즉시 시편의 각 구절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각 구절을 유심히 읽다보면, 매 구절에서 법 혹은 삶의 길 등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단어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본 시편의 각 문단이나 많은 구절들이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다는 것도 인식하게 된다. 그 이유는 본문에 교회의 예배에 자주 사용되며 일반적으로도 널리 인용되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이다. 본 시편에서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적합한 표현들도 쉽게 발견된다. 또한 우리 자신의 약함이나 좌절을 의식하게 하는 구절들과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 의해 인도되어야 겠다고 각오하도록 하는 구절들 그리고 진정한 휴식과 평화는 말씀속의 질서에 다가가함으로써 있게 된다는 것 등을 발견할 수 있다. 게다가 본 시편에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시험을 만나 말씀에서 도움을 받고자 할 때 그에 대한 보증을 해주기도 한다. 이상의 사항을 염두 하면서 첫 문단을 읽어보기 바란다. 첫 문단은 우리의 복지와 행복에 있어서 말씀의 중요성과 우리의 행복을 성취하고

자 할 때 말씀의 필요성 그리고 말씀이 주는 교훈을 배우고 지켜감에 따라 행복이 있게 됨을 알려준다.

단지 자신의 빠른 성공만을 위해 이 세상에서 질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성경에 관한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데서 오는 손실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하고 행복한 것처럼 비쳐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면 그들의 행복이 전적으로 외적인 조건에 매달려 있음을 보게 된다. 그들이 가지 있는 것들 즉 돈이나 지위를 상실하거나 죽을병에 걸려 신음하게 될 때 혹은 지독히 운이 나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그들이 누린 과거의 평화나 안전은 이것들 중의 어느 한 가지 사건만 닥쳐와도 와르르 무너지고 만다. 한 마디로 그들에게 삶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나 지속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평화나 강건한 힘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되고, 우리가 주님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기 때문일 것이다. 주님은 가장 깊은 측면에서 말씀 그 자체이시기도 하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진짜라고 여기는 이 세계의 쾌락 곧 물질적 평면에서 오는 즐거움에 한정된다. 이러한 우리의 삶은 결국 불확실한 사상누각의 상태에 불과하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 하느님의 본성과 그분의 질서 그리고 삶의 목적과 의미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계의 즐거움에 대해 그분께 감사하면서 보다 더 엄정하고 현명하게 물질이 주는 즐거움들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이나 환난을 영적인 것을 배워 성장하는 기회로써 삼게 될 것이다.

본 시편 9절에는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길을 가오리이까? 당신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면 되오리이다.”라고 기술된다. 그리고 98절에서 “계명을 주심으로 당신은 내 것이 되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나를 만드십니다.”라고 기술되고 있다. 젊은이들이 사회로 진출해 나갈 때에 이 구절을 마음에 담아 두고 늘 암송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외에도 우리가 말씀을 필요로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상기시켜 주시고자 우리 안에 담아 놓은 말씀들이 수 없이 많다. 성경을 배워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이들은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당신의 법령들을 깨우쳐 슬기를 얻었으니 모든 거짓된 길을 역겨워 합니다.”

제 5반

시편이 새교회인들에게 의미 있는 성경이라는 것과 예배에서 시편이 노래로 사용되는 성경임을 강조한다.

시편 119편은 시편들 중에서 가장 길며, 글자적인 면에서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이 시편은 알파벳 형식을 사용한 7개의 시편들 중 가장 완벽하게 알파벳 순서를 따르고 있다. 나머지 6개의 시편은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과 145편이다. 물론 7개의 시편이 번역되면서 이 알파벳을 따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119편만큼은 영어 성경의 경우 각 항목 머리에 순서대로 히브리 알파벳의 철자들이 기록되어 있다. 각 항목 머리에 있는 철자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경우 그 항목내의 매 8절의 머리글자이기도 하다.

이 시편에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본문의 각 절이 주님의 법에 관련된 단어들인 율례, 계명 혹은 길 등의 단어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문의 모든 구절이 말씀을 다루며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 주님께서 요한이 환상을 갖기 전에 하신 말씀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였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어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글자이다. 스웨덴붉은 이에 관하여 「계시록 풀이」 제 38항에서 “히브리어의 모든 철자는 영계에 있는 어떤 것과 천사들의 언어에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다윗은 시편 119편을 알파벳 순서에 따라 지었다.”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철자들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며 타인과 교통하고 후세대를 위해 보존하는데 사용하는 상징물임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모든 글자는 영계속의 어떤 것을 의미한다.”라는 표현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한 알파벳 순서에 따른 이 시편의 진정한 의도는 그 안에 담겨진 주제가 우리에게 강하게 인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편은 “노래 부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음악은 곧 애정의 표현이다. 이는 우리가 노래 부를 때의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사람들은 간혹 자신이 선택한 시편이 노래로 부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불평한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 찬양대에 맡겨지거나 낭독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시편의 말을 바꾸지 않으면 곡을 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영창 형식을 배워두는 것일 것이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시편의 말씀들은 우리의 지성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된다. 반면에 우리가 시편을 노래로 부르게 되면 시편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된다. 다윗 시대에는 일부 레위인들이 성전 예배를 위해 노래나 연주를 전문적으로 훈련받았는데, 이는 성전 예배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관악기와 현악기를 동반하여

노래를 불렀고, 그들 가운데는 여자도 속해 있었다.

시편 119편의 구절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익숙할 것이다. 본문의 첫 문단은 우리가 주님의 법을 배우고 순종할 때만 진실한 행복이 올 수 있다는 진리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구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문단은 자주 인용되는 구절로서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길을 가오리이까? 당신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면 되오리이다”라고 시작된다. 그 다음으로는 이 가르침이 삶에 수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다음 우리 자신의 약함에 대한 인정과 주님의 안내와 도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문단이 뒤따른다. 이 밖에도 본문에는 우리가 거쳐야 할 시험들, 말씀으로부터 얻은 힘에 감사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는 높은 인식과 그 인식을 이뤄내지 못하는 상황, 율법을 배우거나 지키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에 대한 슬픔의 표현과 그들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진실한 노력이 종종 실패함으로 인한 슬픔 등도 포함되어 있다. 본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문단은 아마 92-112절일 것이다. 시편은 이 문단에서부터 더욱 강렬해지며 많은 헌신을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의 165절에서는 “당신의 법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만사가 순조롭고 무엇 하나 꺼릴 것이 없사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다. 본 시편은 말씀을 알게 됨으로 인한 기쁨과 알게 된 것을 수행한 후에 만족한 다음 겸허한 한마디로 귀결 짓고 있다. 즉, “이 몸은 길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양, 어서 오시어 이 종을 찾아 주소서. 당신의 계명을 소홀히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사옵니다.”라는 것이다. 본 시편은 주님이 말씀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노년기까지의 우리 삶에 대해서 밝혀 주신 바대로 그분께 의지하는 중에 있게 되는 완전한 삶의 모형을 그려준다.

주님은 시편의 책이 율법과 예언서와 더불어 동등하게 영감 된 책이라고 말씀해주셨다(누가복음 24:44). 과거 히브리인들은 시편을 율법이나 예언서보다 영감이 덜 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편서를 성서의 일부가 아닌 “성문서”의 범주로 분류해 두었다. 그래서 시편과 다니엘서는 유대인의 정경에 속하지 못했다. 시편이 주로 찬송집으로 사용되었던 또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다니엘서는 거룩한 땅 밖에서의 예언은 영감이 없다는 이유로 정경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반면에 에제키엘서는 거룩한 땅 밖의 포로들 사이에서 예언되었다. 에제키엘은 사제였는데, 그 책 속에서 그의 영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다는 것에 근거하여 정경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애가도 이집트에서 기록되어져 예레미야서로부터 따로 분류해 놓았다. 주님은 다니엘이 예언자임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언급하고 계신다. 따라서 새교회인을 위한 정경은 히브리 정경에 시편과 다니엘 그리고 애가서가 첨부되어 있다.

주님은 시편이 그분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시편 119편은 전체적으로 내적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스웨덴북은 시편과 예언서의 천적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히 밝혀준다. “주님은 율법, 즉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성취하셨다. 이리하여 주님은 미움을 받게 되셨고, 시험으로부터 고통 받게 되셨다. 주님께서 시험으로 고통 받으심으로써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신성으로 만드셨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밝힘」 제 38항: “히브리어의 모든 글자는 영계에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데, 천사들의 언어이기도 하다. 이리하여 다윗은 시편 119편을 알파벳순서 곧 Aleph로 시작해서 Thau로 끝나는 순서로 기록했는데, 이 알파벳은 각 절의 첫 부분에 나타난다. 시편 111편은 이와 같은 형태를 보이나, 정확한 순서는 갖추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불렸고, 사래가 사라라고 불렸던 것이 다. 이렇게 불려 진 까닭은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이 천국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이해되지 못했는데, 이는 오직 신성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도 위의 경우와 같은데, 이는 글자 ‘H’가 무한의 뜻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H’가 기음(aspirate)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기독교 종교」 제 234항: “말씀을 수단으로 주님과 결합이 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말씀이고, 말씀의 본질은 신성한 진리와 그 진리 안에 든 신성한 선이기 때문이다. 이 결합은 글자의 뜻을 수단으로 하여 이뤄진다. 그 이유는 말씀이 글자적 의미 안에서 완전을 이루고 기록하며 권능을 갖기 때문이다. 이 결합은 인간에게 보이도록 나타나지는 않지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와 진리를 지각하는 가운데 존재한다. 글자의 뜻을 수단으로 하여 천국의 천사들과도 교류하게 된다. 그 이유는 글자의 뜻 안에 영적이고 천적인 의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 의미 속에 존재한다. 주님의 영적 왕국에 있는 천사들은 말씀의 영적 의미 안에 존재하고, 주님의 천적 왕국에 있는 천사들은 말씀의 천적 의미 안에 거한다. 인간이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읽으면 이 두 가지 의미들에 의해서 말씀의 자연적 의미가 점차 변화되어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점진적 변화는 동시에 일어나고, 그 결과는 천사와 인간의 교류이기도 하다.”

질문 정리

- 1) 시편은 무엇인가?
- 2) 유대인들은 시편책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 3) 누구를 통해 많은 시편이 기록되었는가?
- 4) 다윗은 시편에 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 5) 주님은 시편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6) 가장 긴 시편은 어느 시편인가?
- 7) 이 시편의 구조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 8) 이 시편의 일반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 9) 이 시편이 우리에게 인상 깊은 원인은 무엇인가?
- 10) 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는가?
- 11) 왜 우리는 말씀의 교훈에 순종해야 하는가?
- 12) 일부 시편들이 알파벳 순서로 기록된 까닭은 무엇인가?
- 13) 말씀의 권능은 말씀의 어떤 의미에 기초하고 있는가?

질문의 답

- 1) 노래 2) 찬송가 3) 다윗 4) 하느님이 주신 말씀이다
- 5) 주님께 관해 예언되어 있다 6) 119편 7) 알파벳 8) 말씀
- 9) 매 구절마다에서 10)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 11) 영원한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 12) 주제에 대한 완벽한 요약에 담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함
- 13) 글자 또는 글자적 의미

벨사살왕의 잔치

머리말

먼저 대 예언서의 일반적인 면을 살펴본 후 본문의 세부사항을 공부한다.

성 서 본 문: 다니엘서 제 5장

5장: 1.벨사살왕이 잔치를 베풀고 만조백관들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일이 있었다. 2. 벨사살은 거나하게 되자 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하여 온 금잔, 은잔을 내 오라고 하였다. 왕은 고관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싶었던 것이다. 3.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에서 약탈하여 온 금잔이 나오자 왕은 그 잔으로 고관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4. 이렇게 술을 마시며 금은동철이나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는데 5.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등잔대 맞은 쪽 왕궁 벽에 붙어 있는 판에 글자를 썼다. 왕은 글 쓰는 손을 보고 6. 새파랗게 놀랐다. 그는 머리가 아뜩해지며 허벅지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떨려 7.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장이들을 불러들이라고 고함쳤다. 재사들이 대령하자 왕이 말했다. “저 글을 읽고 뜻을 풀어 주는 사람은 자주색 도포를 입혀 주고 금목걸이를 걸어 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높은 자리에 앉혀 주리라.” 8. 그러나 불러 나온 왕실 재사들 중 아무도 그 글을 읽고 뜻을 풀어내는 사람이 없었다. 9. 벨사살왕의 얼굴빛이 달라지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고관들은 안절부절 못했다. 10. 그 때 왕비가 고관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연회장으로 올라 가 아뢰었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렇게 안색이 달라지도록 당황하실 것은 없습니다. 11. 임금님의 나라에는 거룩하신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머리가 명석하여 지혜롭기가 하느님 같다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선왕 느부갓네살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술객들과 점성가들과 점장이들의 수령으로 임명하신 일까지 있습니다. 12. 임금님께서 벨트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신 다니엘이 그 사람입니다. 그는 신통력이 놀라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꿈이나 수수께끼나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잘 풀어내는

재주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부르시면 이 글을 풀어 드릴 것입니다.”

13. 그래서 다니엘이 불러 나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유다에서 포로로 끌여 온 다니엘이란 사람인가? 14. 그대는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머리가 명석하여 지혜가 대단하다는 말을 들었다. 15. 나는 재사들과 마술사들을 데려다가 저기 저 글을 읽고 뜻을 풀이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 말 뜻을 풀지 못했다. 16. 내가 들으니, 그대는 무엇이나 다 잘 알아 내고 어떤 수수께끼든지 풀 수 있다던데 이제 그대는 저 글을 읽고 뜻을 풀이하여 보아라. 그리하면 그대에게 자주씩 도포를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 주며 그대를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높은 자리에 앉혀 주리라.”

17.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임금님께서 주시겠다는 선물을 거두시고, 그 사례는 다른 사람에게나 내리십시오. 그래도 저는 임금님께 저 글을 읽어 드리고 뜻을 풀이하여 드리겠습니다. 18. 임금님,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선 선왕 느부갓네살의 나라를 강대하게 하셔서 영화와 영광을 떨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19. 하느님께서 그렇게 선왕을 위대하게 해 주셨으므로 인종과 말이 다른 천하 만민이 모두 선왕 앞에서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선왕께서는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올려 앉히기도 하고 내려 앉히기도 하셨습니다. 20. 그렇게 마음이 높아져서 거만을 떨며 자기 생각만 내세우시다가 그만 옥좌에서 쫓겨 나 영화를 빼앗기고 21. 세상에서 쫓겨 나 그 생각이 짐승과 같아져서 들나귀하고 어울려 지내며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몸을 적시며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는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선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야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22. 그분의 아들이신 임금님께서선 그것을 다 아시고도 겸손해 지시기는 커녕 23. 오히려 하늘의 대주재를 거역하시고 그분의 집에서 쓰던 잔들을 이 자리에 내어다가 대신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 잔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금은동철이나 보석으로 만든 신상들,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임금님의 목숨을 손안에 쥐고 계시는 하느님, 임금님의 일거일동을 지켜 보시는 하느님을 공경하지 않으셨습니다. 24.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손가락을 내 보내시어 저 글자들을 쓰게 하신 것은 그 때문입니다. 25. 저기 쓴 글자들은 ‘므네 므네 드켈’ 그 다음은 ‘브라신’입니다. 26. 그 뜻은 이렇습니다. ‘므네’는 ‘하느님께서 왕의 나라 햇수를 세어 보시고 마감하셨다’는 뜻입니다. 27. ‘드켈’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시니 무게가 모자랐다’는 뜻입니다. 28. ‘브라신’은 ‘왕의 나라를 메대와 페르샤에게 갈라 주신다.’는 뜻입니다.”

29.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자주색 도포를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 주도록 영을 내리고, 다니엘이 온 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사람임을 공포하였다.

30. 바빌론 왕 벨사살은 그 날 밤으로 살해되었고,

6장: 1. 나라는 메대왕 다리우스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 때 다리우스는 육십 이세였다.

교리 요점

- * 주님께서 모든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 주셨다.
- * 다니엘서도 영감 된 말씀중 하나이다.
- * 자아에 대한 확신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는 정반대된다.
- * 겸손은 선함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성경내의 모든 말씀은 근본적으로는 예언이다. 그 이유는 말씀이 전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은 자칫 유대인들의 역사로 보이는 부분에서조차도 우리의 삶, 우리의 약함, 시험에 관한 것과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유일한 근원이 주님이심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예언자인 것이다.

성경에는 예언자로 불리는 수많은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님을 대변하기 위해 뽑혀지고 준비되었던 자들이다. 그들 중 일부는 이름조차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다. 그들의 예언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들의 이름이 성경의 책으로 올라가야 마땅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나단 등이 그 예이다. 구약성서 뒤쪽에는 우리가 예언서라고 부르는 16권의 책이 있다. 그 중 앞의 네 권은 대 예언서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 책들의 부피가 많기 때문이다.

대 예언서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그리고 다니엘서이다. 이사야는 유다 왕 히즈키야 시대에 살았고, 예레미야는 유다왕국이 바빌론에 정복되던 때에 예언했다. 에제키엘과 다니엘 역시 유다왕국 백성이었다. 에제키엘이 사제였던 반면 다니엘은 왕가의 일원이었다. 이 두 명은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예언이 주어졌고 쓰였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와 유사하다. 이 둘은 타국에서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충실했다. 이리하여 주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셨다. 이로 인해 그들은 그 나라의 통치자로까지 부상했다.

바빌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것과 위대해지려는 바벨 그리고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함으로 인해 파멸로 인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뿔뿔이 파멸 앞에서 걸어간다”고 하는 잠언서의 말씀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다니엘 5장은 바빌론의 패망을 보여주는데, 그들의 패망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자 계승자인 벨사살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집기들을 모독함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는 간혹 누군가가 고집스럽게 나아가 재난으로 결과 될 것을 보지 못할 경우 “그 사람은 벽에 뒤통이 쓰여 있는지 읽지도 못하는 자야.”라고 말하기도 한다. 다니엘이 해석한 기이한 단어들은 갈대아어이다. 갈대아어는 바빌론의 통용어이었으나 히브리어와 유사한 점이 많다. 벨사살 왕은 벽에 글을 쓰려고 갑자기 나타난 손 때문에 거의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다. 이는 이기적인 사람이 심판에 관련된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될지라도 그 말에 의해 바뀌지 않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격은 날마다 있게 되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매일 쌓여져서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인격은 한 순간에 바뀔 수 없다.

제 1반

예언자의 역할과 예언자가 보내진 이유 그리고 대 예언서라고 부르는 까닭을 살펴본다.

예언자란 주님을 대변하는 자들을 말한다. 앞서 우리는 사무엘, 나단,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예레미야 등 많은 예언자들에 관하여 공부했다. 주님은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잘못을 행할 때마다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질책하고 경고하도록 해 주셨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행위를 선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며, 우리가 진실로 행복한 길로 가도록 원하시기 때문이다.

나단과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와 같은 일부 예언자들은 주님의 말씀만을 전했을 따름이다. 반면에 또 다른 일부 예언자들은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받아쓰도록 주님께 의해 명령되기도 했다. 이는 그들의 메시지가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과 예언서를 정리해 보자.

- * 구약성서의 끝부분에 있는 열여섯 권의 책들을 총칭하여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 예레미야 애가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 * 우리는 4권의 긴 책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 우리는 12명의 예언자가 기록한 적은 분량의 책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 네 권의 대 예언서의 책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이사야는 유다왕국의 어느 왕 때에 예언했는가?
- * 예레미야는 어느 시대에 살았는가?
- *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어느 나라에서 예언했는가?
- * 바빌론의 통치자가 된 예언자는 누구인가?
- * 본문에서는 누가 바빌론의 왕인가?
- * 그는 무슨 잘못을 행했는가?
- * 그로 하여금 놀라게 한 것은 무엇인가?
- * 그는 먼저 누구에게 기록된 것의 의미하는 바를 물어보았는가?
- * 왜 다니엘이 불러 졌는가?
- * 다니엘은 기록된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 * 그의 예언은 어떻게 되었는가?
- * 왜 주님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예언자를 보내시지 않는가?

제 2반

먼저 유대인의 정경과 세교회 정경의 차이점 그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관한 일부사항을 살펴본다. 그리고 다니엘을 살펴보면서 벨사살의 죄와 써진 글자에 대한 해석을 주로 언급한다.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예언서를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분류하고 있다. 전기 예언서에는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열왕기하서 (룻기서 제외) 까지가 포함되고, 후기 예언서에는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서(애가서 제외, 사실상 예레미야서에 포함됨)까지가 포함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기 예언서는 역사서로, 후기 예언서는 예언서로 분류한다. 그리고 이 예언서를 대 예언서와 소 예언서로 다시 분류한다. 대 예언서는 한 권의 책이 부피가 커서 한 두루마리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대”라는

말을 사용했고, 소 예언서는 한 두루마리 안에 12권이 모두 기록되어 각 책의 부피가 작아서 “소”라는 말을 사용했다.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끌려간 뒤 그곳에서 애가서를 썼다. 그리고 또 다른 두 개의 대 예언서인 에제키엘과 다니엘서는 포로 생활 동안 쓰여 졌다. 에제키엘은 포로가 되기 전부터 사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이유로 그의 책이 유대인의 예언서 안에 속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에제키엘이 환상을 받기 위해 수차례 영의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예언자가 거룩한 땅 밖에서 영감 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의아스럽게 여겼는데, 이런 이유로 애가서와 다니엘서는 히브리 정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경이란 교회를 통치하거나 결정짓는 성경을 말한다.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예언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왕국을 정복한 후 최초로 데려간 포로들 중에 있었고, 왕가의 일원이기도 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을 참고하면 다니엘의 역사초기를 알 수 있으며, 그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예언자가 되었던 과정을 알 수 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모든 마술사나 점성가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는 꿈에 대해 해석할 수 없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주었다. 이로 인해 왕은 다니엘이 나라의 통치자로서 일원이 되도록 했다. 제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꿈에 대해 언급되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한 대로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 18-21절에서도 간략하게 언급된다. 본문에서의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니엘에 관한 것 역시 잊고 있었다. 이리하여 다니엘이 예언한 바대로 메대왕이 왕국을 차지했고, 페르샤의 고레스가 후대 왕이 되었다.

우리는 다니엘이 벽에 써진 글을 해석할 때 그가 단어 「Upharsin」 대신에 「Peres」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단어가 단지 형태만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Upharsin」에 있는 「U」는 갈대어나 히브리어에서는 “and”를 의미한다. 그리고 단어 앞에 이 소리를 놓으면 그 단어의 첫 글자의 소리가 변형된다. 여기서는 “p”와 “ph” 사이에 소리상의 차이가 만들어지고 있다. 언어를 공부하게 되면 단어의 끝부분에서의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바빌론에서 사용한 갈대아어도 히브리어와 거의 유사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예언자란 무엇인가?
- * 왜 주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셨는가?
- *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 * 네 권의 대 예언서의 저자들은 누구인가?
- * 이사야는 언제 살았는가?
- * 예레미야는 언제 살았는가?
- * 예레미야는 어디서 죽었는가?
- * 본문에서 등장하는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
- * 그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 * 무슨 일이 그를 덜덜 떨게 했는가?
- * 그는 처음에 써진 글자에 대한 의미를 누구에게 물어보았는가?
- * 바빌론의 현자들은 그 왕을 도울 수 있었는가?
- * 누가 다니엘을 왕에게 천거했는가?
- * 왕은 그 글자를 해석하면 어떻게 해 주겠다고 다니엘에게 약속했는가?
- * 이 약속에 대해 다니엘은 뭐라고 말했는가?
- *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되었는가?
- * 그의 왕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제 3반

예언서의 전반적인 부분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본문의 이야기의 의미와 지배욕의 최후를 살펴본다.

우리는 예언서를 대 예언서와 소 예언서로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의 기준은 책의 부피에 기초한다. 구약성서 끝 부분에 있는 열 두 권의 책들은 부피가 비교적 작다. 예언자들 중에는 성경의 책이름에 오르지 않은 이들도 상당히 많은데, 나단과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가 그에 해당된다. 사무엘은 예언자이면서 예언자의 수련소를 세우기도 했는데, 성경에서 예언자 수련소의 수련원들을 찾아볼 수 있다.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에 수련원 출신의 예언자들이 두드러지게 등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장 5-7과 15-18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언자 수련생들은 주님의 법과 예배형식에 대해서 공부했다. 그들은 예언자로서의 삶의 방법들을 따르면서 주님이 선택해 주실 때마다 그분을 대변해서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반면에 그들 중에 거짓 예언자들도 있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은 척 하면서 사람들

을 현혹시켰던 사례를 성경에서 엿볼 수 있다. 주님께서 진정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대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러한 말씀들이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받아 쓰도록 명령된 모든 예언들은 전 시대 모든 이들을 위한 말씀인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실제로 보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인 것이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청종하길 원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주님이 재림을 통해 말씀들을 필요로 할 때마다 그분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사실 예언서들은 주님께서 임마누엘 스웨덴복을 통해 세상에 주신 상응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저 알 수 없는 비밀이나 신비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네 개의 대예언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제키엘서 그리고 다니엘서이다. 이사야는 유다왕국의 히즈키야 시대에 살았고,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 말기에 살았었다. 애가서는 성경에서 예레미야서 바로 뒤에 이어지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이집트에 끌려간 후 그곳에서 쓴 책이다. 예제키엘과 다니엘은 포로 생활 동안 예언했다. 예제키엘은 사제였을 뿐만 아니라 예언자이기도 했다.

다니엘에 관한 사항은 다니엘서 1장 1-7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와 그의 세 동료들은 지적 능력으로 인해 다른 포로들과는 다른 대접을 받았다. 게다가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기 전 양육된 가르침에 매우 충실했다는 사실도 다른 이들과 구별된다. 그들은 그들의 성실성으로 인해 주님께 의해 완벽히 보호되었다. 심지어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더불어 예언하는 능력도 부여되었다. 다니엘의 이러한 능력은 바빌론 왕에게 인정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다니엘을 포함한 네 명의 유대인 청년들은 바빌론에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다.

본문은 경이로운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기독교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성경의 이야기들 중의 하나이다. 본문의 내용에서 비롯된 표현 중의 하나는 누군가가 결과가 흰히 보이는 잘못된 길을 고집할 때에 “저 친구 벽에 쓰여 있는 글도 못 읽어.”라고 말하는 것이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다. 그는 자신이 총애하는 세 군주들을 세워 자신의 통치하에 있는 왕국들을 재정립했으나, 다니엘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거만한 왕이었다. 앞서 수차례 언급했듯이, 바빌론은 지배욕을 뜻한다. 본문 제 18-21절에서 다니엘이 언급하는 이야기는 제 4장에서도 언급된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발적으로 배웠다. 그래서 그는 깨달은 후 다니엘을 통해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다니엘의 하느님 앞에서 겸손했다.

벨사살은 그의 아버지만큼 슬기롭지 못했다. 과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금과 은 집기들을 약탈하여 바빌론으로 가져 왔을 때 벨사살은 자기 신전의 보물과 함께 그것을 보관해 두었다(열왕기하 24:13). 하지만 벨사살은 자신이 주체가 되는 축제에서 자신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러한 신성한 물건을 사용하여 신성을 모독했다. 영적인 진리의 포도주를 포함한 성전의 집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며 진실로 그분을 섬기게 하는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상징한다. 이러한 지식들이 이기적인데 사용될 때 곧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드높이기 위해 사용되면, 이 지식들은 모독되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이러한 신성모독에 관하여 많은 설명을 해주고 있다. 신성모독이란 진리를 알고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음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신성모독의 정의에 꼭 들어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의 신성모독을 범하면서 살아간다. 따라서 신성모독은 그 종류와 수준이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벨사살의 행위는 가장 심각한 신성모독의 형태 중 하나를 표현한다. 이러한 신성모독의 행위는 영적인 생명을 파괴한다.

본문의 이야기는 벽에 써진 글자만으로도 우리의 뇌리에 강한 인상을 준다. 즉, 손가락의 갑작스런 나타남과 그로 인해 쓰여진 기이한 단어들은 우리로 하여금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극을 준다. 이 장면은 우리가 벨사살과 같은 신성모독을 범하게 되면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있게 되는 명백한 결과를 표현한다. 벽에 써진 글은 그 자체가 지닌 초자연적인 특성 때문에 벨사살을 새파랗게 질리도록 했다. 그리고 그의 두려움은 다니엘이 재등장되게 했다. 벨사살은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해 준 공로에 대한 보상을 했다. 하지만 성경에는 벨사살이 벽에 써진 글의 해석이 끝난 후 그동안 자신이 행해왔던 행위를 반성하려고 애쓴 기록은 없다. 즉, 벨사살이나 그의 왕국은 다니엘에 대한 호소 또는 다니엘에게 내린 포상으로 구원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 즉, 누구도 두려움으로 인해 행한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진리이다. 그 이유는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행한 것은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을 억압하던 두려움이 지난 후에는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상태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전 생애동안 스스로 진실된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한 순간에 자신을 완전히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성전의 집기들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졌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그의 집권 첫 해에 유대인 포로들로 하여금 거룩한 땅에 되돌아가도록 허용하면서 그들에게 과거 약탈해 온 성전의 집기들도 되돌려 보냈다. 이에 관해서는 에즈라서 첫 장에서 알 수 있다. 이 책은 내적 의미는 없지만, 귀환하는 백성들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기본 상용 공부

성전의 집기들 =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하는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지식들

포도주 = 영적인 진리

벽에 써진 글 = 말씀으로 심판함

제 4반

대 예언서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벨사살과 느부갓네살을 대비시키면서 교훈을 이끌어낸다.

네 개의 대 예언서들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제키엘서 그리고 다니엘서이다. 우리가 이 네 권의 예언서들 앞에 “대”라는 단어를 덧붙이는 까닭은 네 권의 책들이 뒤에 오는 열 두 권의 예언서들과 비교해 볼 때 그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의 부피에 상관없이 모든 예언자들은 주님께 의해 동등하게 영감 되었다. 다만 주님의 필요에 따라 어떤 예언은 길게 주어지기도 했고, 받아 쓰이거나 보존되는 것조차 명령되지 않은 예언들도 많았다. 나단과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와 같은 이들의 예언들은 성경 이야기의 중간에 삽입되어 기록되었을 뿐 그들의 이름을 가진 독립된 책으로는 성경 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은 예언자들도 많다.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든지 간에 말씀속의 모든 것들은 전 시대 전 인류를 위해 존재하는 이상 예언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을 하나의 예언이라고도 생각한다. 그래서 말씀 중의 예언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선택에 따라 우리를 가르치고 축복하며, 질책하기도 하며 경고하고 단죄한다.

예언의 책들은 글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희미할 때가 많은데, 어떤 부분의 경우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 우리로 하여금 의아심을 갖도록 한다. 그러나 우리가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신 주님의 도움을 얻으면,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많은 교훈과 도움을 얻어 낼 수 있다. 그래서 스웨덴북은 ‘우리 모두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하고, 규칙적으로 읽으면서 통독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그 이유는 설사 우리의 현실과 한계를 초월한 내용이 담긴 구절일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빛과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와 함께 거하는 천사들은 우리가 읽는 말씀의 영적 의미들을 이해하기 때문이다(천국의 신비 6333항 참조).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개인에 관한 사항은 유다왕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살펴보았다.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유다 왕국 출신이었지만, 그들의 예언은 바빌론에서 이루어 졌다. 에제키엘은 사제로서 바빌론에 끌려갈 무렵에 이미 성년의 나이였다. 반면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따라 선발되어 뽑혀간 왕가의 젊은이들 중 한명이었다. 이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포로 중에서 먼저 데려가졌는데, 이는 그 지방의 언어나 학식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 본문에서 벽에 쓰인 글은 갈대아어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다니엘이 통역한 단어 「Peres」는 「Upharsin」과 문법적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의 단어이고 「U」는 단지 “그리고”를 뜻한다는 것이다(King James Version과 구번역 성경 참조).

유다왕국의 모든 젊은 왕자들은 전통적으로 사제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렸을 때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의 종교에 아주 능통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종교에 충실한 인물로서 발탁된 자여서 바빌론에 가서도 그 나라의 우상에 끌려가지 않았다. 다니엘서의 모든 이야기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주님에 대한 그의 충실함은 주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며 꿈을 해석하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내리시도록 했다.

앞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큰 형상에 관한 꿈 이야기를 공부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자 다니엘을 바빌론의 통치자로서 그리고 모든 술객들의 수령으로서 임명시켜 주었다. 게다가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의 하느님이 “모든 신의 신”이라고 인정했다. 다니엘이 본문 18-21절에서 언급한 느부갓네살에 관한 이야기는 제 4장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앞서 바빌론이 지배욕을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사실 느부갓네살은 위대했고, 일반적으로 보면 슬기로운 왕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바빌론으로 표현된 사랑에 따라 붙는 자만과 성급함을 가졌다. 이러한 속성은 한 때 그로 하여금 스스로의 위대함을 과시하도록 했으나, 그가 이를 깨닫고 다시 슬기로운 임금이 되어 영광을 떨치며 영화를 누리게 되자 자신을 가르쳐 온 교훈들을 받을 만큼 현명해졌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7절에 있는 그에 대한 마지막 서술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 임금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높이 찬양한다. 하늘 임금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옳고, 가시는 길은 항상 곧아서 잘난 체하는 자들을 꺾으신다.”

위 서술의 마지막 말은 본 반의 적절한 서문일 것이다. 그 이유는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지만 매우 잘난 척했기 때문이다. 느부갓네살은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겸손했다.

반면에 벨사살의 거만은 자신의 허영심을 부추기기 위해 주님의 성전에서만 사용되어야 할 집기들을 잔치의 여흥을 돋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행위가 의미하는 바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견해가 옳고 그것을 높이 세우고자 할 때 자신의 말이 마치 법이라도 되는 듯이 입증해 보려고 혈안이 되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의 사상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말쑥에 관한 지식 혹은 영적인 사항을(성전의 집기)을 사용하면서까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칭송하도록 하여 스스로 우쭐대고 싶어 한다. 우리의 영혼이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수단으로 우리에게 다가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없게 된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 명확해진다는 것이다.

벨사살은 몸체도 없는 손가락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자 거의 정신이 나갈 지경에 이르렀고, 심지어 그와 그의 신하들은 그 글을 해석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그의 아내 - 이는 그에게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함 - 는 다니엘을 기억했다. 비록 다니엘이 왕에게 진리를 말했고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약속한 바대로 포상을 내리며 다니엘의 말을 인정했다 할지라도, 그 자신을 구해낼 수는 없었다. 다니엘의 예언은 그날 밤에 성취되었다. 벨사살은 살해되고, 메대왕 다리우스가 그의 왕국을 차지하게 되었다.

스웨덴북의 ‘누구도 두려움이나 강제 상태에서 거듭날 수 없다.’ 라는 주장을 위의 벨사살의 경우가 입증해 준다. 우리 역시 어떤 사건의 자극으로 인해 깜짝 놀라거나 그 사건으로 자신의 잘못된 점을 점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우리의 욕구는 잘못된 과정을 점검함과 병행하여 그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즉, 우리는 가장 평안한 상태에서 자유로이 선택한 것들에 의해서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 세상에 갔을 때 우리의 마음을 이끈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었다면 지옥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벨사살은 신성 모독을 범했다. 뒤의 참고문헌을 읽어보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될 것이다.

제 5반

대 예언서의 일반적인 지식을 살펴본 후 주제에 따른 토론을 진행한다.

우리는 네 권의 예언서들을 “대 예언서”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이 네 권의 책이 뒤에 따르는 열 두 권의 예언서들에 비해 길기 때문이다. 부피가 많은 책이 부피가 작은 책에 비해 더 많은

내용을 제공할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 예언서들이 언제, 어디서 그리고 누구에 의해 예언되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이사야는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히즈키야왕 시대와 연결된다. 예레미야는 유다왕국이 함락되는 시기에 예언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바빌론 왕에 의해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으로부터 유보되었는데, 이는 그가 백성들에게 바빌론 왕국에 항복하고 공물을 바치며 고향에 머물도록 권유했기 때문이다. 그 뒤 그 땅에 남아 있던 일부 백성들이 이집트로 도망하면서 예레미야를 강제로 데리고 갔다. 그 후 그는 거기서 애가서를 썼는데, 이 예언서가 거룩한 땅 밖에서 쓰여 졌다는 이유로 고대 유대인들은 이 책을 예언서가 아닌 성문서로 분류했다.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바빌론에 끌려간 포로들 중에 속해 있었다. 에제키엘은 사제였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첫 승리 후의 명령으로 유다의 왕가로부터 발탁되어 성전의 보물과 더불어 초기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속해 있었다. 다니엘서 1장 4절을 보면 그와 그의 동료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즉, “흠 없이 잘 생기고, 교육을 잘 받아서 막히는 데가 없으며 무슨 일이나 능숙하고 사리에 밝아 왕국에서 일할 만한 젊은이들을 뽑아 바빌론 말과 글을 가르치게 하였다”라는 구절로 그들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다. 다니엘서는 대화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린이들까지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예언서이다.

앞서 우리는 요셉과 다니엘의 유사점을 살펴보았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명성을 떨쳤다. 다니엘 역시 요셉처럼 어린 나이에 포로가 되었고, 하느님에 대한 충실함으로 인해 주님에 의해 보호되면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어져 왕의 인정을 받아 통치자로까지 임명되었다. 그가 당대에 누린 명성에 관한 사항은 에제키엘 14장 14절과 28장 3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장 일부는 그의 환상들에 관한 것인데,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그 환상들은 당대로부터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까지의 교회의 전 역사에 관하여 예언된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너 다니엘아, 이 말씀을 비밀에 붙여 마지막 그 때가 오기까지 이 책을 봉해 두어라”하고 명령된다.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제 5장에서 봉인이 떼어지는 구절과 연결된다.

바빌론은 지배욕을 상징한다. 스웨덴북은 하나의 교회에 이 지배욕을 적용함으로써 그에 대해 해석하고 있다. 그 교회란 지배욕으로부터 거룩한 것이 인간의 포부를 섬기도록 하여 거룩한 것들이 모독되게 하는 교회를 말한다. 앞서 살펴본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본 큰 형상이 바로 위와 같은 교회가 점진적으로 황폐해짐을 표현하고 있다. 영적인 측면에서의 바빌론의 역사는 「계시록 설명」 제 1029항에서 자세히 기술되고 있다. 본문이 인용된 제 10항에서는 “주님의 교회, 즉 지배욕이 그 교회를 지배하게 되어 계속적으로 바빌론이 되어간다. 바빌론이 된다 함은

믿음속의 모든 진리 혹은 사랑속의 모든 선들이 황폐해진다는 말이다. 이것은 곧 파국을 의미하며,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교회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교회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과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는 이들 그리고 그 말씀에서 교훈을 받는 이들을 제외하면, 그 교회는 한낱 우상숭배국가로 간주될 뿐이다”라고 서술된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속의 큰 형상을 해석하면서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왕이라고 말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왕국을 다룬 방법, 특별히 다니엘을 대우했던 점을 고려할 때 그가 상당히 현명한 왕이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하지만 그는 그의 나라가 의미하는 특별한 성격인 지배욕과 자만심을 가졌다. 이 두 가지 특성은 그 왕을 수차례 타락하도록 했는데, 이는 제 3장과 4장에서 기술된다. 그 중에서도 4장의 사건은 아주 심각한 것이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본문 18-21절에서 다시 언급된다. 느부갓네살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받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며, 다니엘의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도 했다. 한마디로 그는 큰 형상의 금으로 된 머리인 셈이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은 아버지의 자만심과 지배욕은 꼭 닮았으나, 아버지의 지혜는 없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 온 보물들을 신전에 있던 보물과 함께 잘 모셔 두었었다. 반면에 벨사살은 그것들을 끄집어내어 모독했다. 그의 행위에 관한 사항은 뒤의 참고문헌에서 설명되고 있다. 그 문헌을 참고하면 신성모독의 다양한 행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스웨덴본은 신성모독의 정도를 7개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벨사살의 경우는 다섯 번째에 등급에 해당되는데, 이는 신성한 것이 자신의 업적 때문이라고 여기는 자들에 의해 범해지는 신성모독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한 인격 속에 든 지배욕이 유도해 가는 타락중의 하나이다. 또한 교회의 파멸을 야기하며, 그 사람 안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파괴하기도 한다. 벨사살은 몸체가 없는 손가락의 출현과 이해할 수 없는 글로 인해 머리가 아득해졌고 허벅지가 녹는 듯 했으며 무릎도 떨렸다. 하지만 손가락이나 손가락이 쓴 글은 그를 바뀌놓지는 못했다. 스웨덴본은 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두려운 상태 하에서는 거듭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영원한 자신의 인격은 오로지 스스로가 날마다 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행해진 것들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미묘하면서도 치명타를 주는 것은 거만함과 지배욕일 것이다.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벽에 써진 글이다. 「계시록 풀이」 제 313항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금과 은 집기들을 가지고 마신다는 것’과 ‘다른 신을 찬양하는 것’은 선과 진리를 모독함을

뜻함을 알 수 있다. ‘바빌론’ 역시 마찬가지이다. ‘므네’ 또는 ‘세어본다는 것’은 진리의 측면에서 그의 품질을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드켈’ 또는 ‘달아본다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그의 품질을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베레스’ 또는 ‘나눈다 함’은 홀트려 버림을 의미한다.”라고 설명된다. 제 25절의 말은 바빌론의 언어인 갈대아어이다. 이 언어는 히브리어와 매우 유사하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단어 Peres를 다니엘은 브라신이라는 단어로 대체했는데, 이는 같은 단어로서 다른 형태에 불과할 뿐이다. Upharsin에 있는 「U」는 “그리고”란 의미로, 단어 앞에 붙어서 음성학적 혹은 문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뿐이다. 성경 사전에서는 단어 Peres란 페르시아의 황제를 암시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그 황제가 바빌론을 빼앗는 것을 암시해준다고 추정되고 있다. 다리우스 왕 다음에 보좌에 오른 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였다.

예언자로서의 다니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따라서 다니엘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되는 과정과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는 방법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과는 무관하다고 하거나 말씀을 거절하는 이들을 포함해서 실제로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시는가를 묘사해준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하나님의 섭리**」 제 231항: “거룩한 것을 모독한다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이타애의 선과 믿음의 진리를 아는 이들 혹은 위의 사항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이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신성모독을 의미한다. 따라서 말씀을 모르는 이들과 불신앙으로 인해 말씀을 통째로 거절하는 이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은 다음에 열거되는 분류 중에서 첫 분류에 해당될 뿐이다. 신성모독에는 7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은 경미하고 어떤 것은 심각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대략 7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첫 번째 모독은 말씀과 말씀에 관하여 혹은 교회속의 신성한 것을 가지고 농을 만드는 이들에 의해 행해진다. 두 번째 모독은 신성한 진리를 이해하여 인정하면서도 그 진리에 반대되게 살고 있는 이들에 의해 행해진다. 세 번째 모독은 말씀의 글자에 있는 의미를 가지고 악한 사랑과 거짓 원리를 확증하려는 이들에 의해 행해진다. 네 번째 모독은 입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것만을 말하고 억양이나 제스처를 써서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애정이 있는 척하면서도 진정으로 사랑으로부터의 애정을 믿거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에 의해 행해진다. 다섯 번째 모독은 신성한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에 의해 행해진다. 바빌론과 갈대이는

말씀의 여러 곳에서 언급된다. 바빌론은 선에 대한 모독을 그리고 갈대아는 진리에 대한 모독을 의미하는 바, 이 둘 모두는 신성한 것이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부류들을 의미한다. 여섯 번째 모독은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주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들에 의해 행해진다. 일곱 번째 모독은 신성한 진리를 인정하면서 그 진리에 따라 살다가 그 진리로부터 퇴보하여 부정하는 이들에 의해 행해진다. 이는 신성모독 중에서도 가장 나쁜 행위인 것이다.”

질문 정리

- 1) 예언자란 무엇인가?
- 2) 왜 주님은 예언자를 유다와 이스라엘에 보내셨는가?
- 3) 기억나는 예언자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4) 대 예언서와 소 예언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5) 네 명의 대 예언자는 누구인가?
- 6) 이사야는 언제 어디서 살았는가?
- 7) 예레미야는 언제 어디서 살았는가?
- 8) 예레미야는 어디서 죽었는가?
- 9) 애가서는 누가 썼는가?
- 10) 애가서는 어디서 쓰여 졌는가?
- 11) 예제키엘과 다니엘은 어디서 예언했는가?
- 12) 예제키엘의 직책은 무엇이었는가?
- 13) 예제키엘은 환상 속에서 가끔 어디로 데려가졌는가?
- 14) 주님은 다니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 15) 주님은 어떤 이유로 다니엘에게 능력들을 주실 수 있으셨는가?
- 16) 다니엘이 바빌론에 잡혀왔을 때 누가 그곳의 왕이었는가?
- 17) 다니엘은 어떤 일로 인해 왕국의 통치자 자리에 올랐는가?
- 18) 다니엘과 더불어 연상되는 성경상의 인물은 누구인가?
- 19)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자는 누구인가?
- 20) 그는 어떤 큰 죄를 범했는가?

- 21) 무엇이 그를 겁나도록 했는가?
- 22) 벽에 써진 글은 무엇인가?
- 23) 다니엘은 이 글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했는가?
- 24) 본문의 다니엘의 예언은 언제 성취되었는가?
- 25) 벨사살의 행위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26) 벽에 써진 글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주님을 대변하는 자 2) 견책, 경고 3) 나단, 엘리야, 엘리사 등등
- 4) 대 예언서는 길고, 소 예언서는 짧다 5)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다니엘
- 6) 유다왕국의 히즈키야 시대 7) 유다왕국 말기,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
- 8) 이집트에서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9) 예레미야 10) 이집트
- 11) 포로중에, 바빌론 12) 사제 13) 예루살렘 14) 꿈을 해석하는 능력
- 15) 그가 주님께 신실했기 때문 16) 느부갓네살 17) 꿈을 해석했다 18) 요셉 19) 벨사살
- 20) 성전의 집기들을 모독했다 21) 벽에 써진 글 22) 므네, 므네, 드켈, 브라신
- 23) 세웠다, 달았다, 나누었다 24) 그날 밤에 25) 영적인 지식을 이기적인데 사용함
- 26) 말씀으로부터 온 심판

23

사자 굴에서의 다니엘

머리말

먼저 유다왕국이 정복당하는 역사적 시점까지를 간략히 언급하도록 한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1-5장까지를 재고해 본다.

성 서 본 문: 다니엘 6장

6장: 1. 나라는 메대왕 다리우스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 때 다리우스는 육십이 세였다. 2. 다리우스는 지방장관들 위에 정승을 세 사람 임명하여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3. 그 지방장관들에게서 국정 보고를 받으며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보살피게 하였다. 다니엘은 이 정승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4. 다니엘에게는 놀라운 신통력이 있어서 어느 정승이나 지방장관보다 뛰어났으므로 왕은 그에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 5.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장관들은 다니엘이 정사에 무슨 실수라도 하지 않는가 눈을 밝히고 보았지만 그에게서는 트집잡을만한 허물은 하나도 찾아 내지 못하였다. 다니엘은 충직한 사람이었으므로 아무런 허물도 실수도 없었던 것이다. 6.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에게는 트집 잡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으니 그의 종교를 걸어 트집을 잡자고 의논하였다. 7. 정승들과 지방장관들은 왕에게 몰려 와 진언하였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8. 임금님의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앞으로 삼십 일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할 자는 없어야 하므로, 그가 누구든지 사자 우리에 집어넣는다는 금령을 정하시고 9. 그 금령에 서명하시어 수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메대와 페르샤의 법은 수정 못하는 법입니다.” 10. 다리우스왕은 그 금령 문서에 서명하였다.

11. 왕이 그 금령문서에 서명하였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올라가 전처럼 자기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와 찬양을 올렸다. 그는 예루살렘 쪽으로 창이 나 있는 다락방에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드렸다. 12.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13. 왕 앞에 나아가 왕이 내린 금령을 들어 이 일을 일러 바쳤다. “앞으로 삼십 일 동안 임금님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올리면 그가 누구든지 사자 우리에 집어넣는다는 금령에 임금님께서서는 친히 서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메대와 페르샤의 법은 수정할 수 없으니 그 법 또한 움직일 수 없소” 하고 왕이 대답하자 14. 그들은 다니엘을 고소하여 말하였다. “유다 포로 출신인 다니엘은 임금님을 업신여기고 임금님께서 서명하신 금령을 무시한 채 하루 세 차례씩이나 제멋대로 기도를 올립니다.” 15. 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걱정되었으나 다니엘을 살려 내기로 결심하고 그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다. 16. 그러나 그들은 왕에게 몰려 와 주장을 펴는 것이었다.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령이나 법령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이 메대와 페르샤의 법임을 잊지 마십시오.” 17. 그리하여 왕은 영을 내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우리에 집어넣게 하고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굶지 않고 섬겨 온 신이 너를 구하여 주시기 바란다.” 18. 왕과 대신들은 사자 우리의 문을 막은 돌에 봉인을 하여 아무도 다니엘을 건져 내지 못하게 하였다.

19. 왕은 궁으로 돌아 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후궁의 수청도 물리친 채 뜰눈으로 밤을 새웠다. 20. 날이 새자마자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자 우리로 달려갔다. 21. 그는 우리에 다가 서서 목멘 소리로 다니엘을 불렀다. “살아 계시는 신을 섬기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겨온 신이 과연 너를 사자들에게서 살려 내 주었느냐?” 22.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23. 소인이 섬겨 온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소인을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소인은 하느님 앞에 아무 죄도 없을뿐더러 임금님께도 잘못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여 주신 것입니다.” 24. 왕은 다니엘이 살아 있는 것을 크게 기뻐하며 그를 끌어 올리라고 명하였다.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 올리고 보니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하느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다. 25.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처자와 함께 끌어 다가 사자 우리에 처넣게 하였다. 사자들은 그들이 바닥에 채 떨어지기도 전에 달려들어 뼈까지 씹어 삼켰다.

26. 다리우스왕은 인종과 말이 다른 천한 만민에게 영을 내렸다.

27. “너희에게 행운이 있기를 빌며 27. 내가 이제 영을 내린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사는 자들은 모두

삼가 다니엘의 하느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여야 한다.

그분은 살아 계시는 하느님, 영원하신 하느님이시니,
그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며 그 주권은 다할 날이 없으리라.

28. 사람을 살리고 구하여 주시는 분,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로부터 살려 내셨다.”

29. 이리하여 다니엘은 다리우스가 왕위에 있을 때와 페르샤 왕 고레스가 다스리는 동안
그의 이름을 떨쳤다.

교리 요약

- * 주님은 그분께 순종하는 이들만 보호하실 수 있다.
- * 일부 예언적인 말씀은 유대인의 신앙과 반대되는 거룩한 땅 밖에서 주어지기도 했다.
- * 주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준다.
- * 진실로 의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도 본의 아닌 실수를 행할 수 있지만, 순진함은 그에 대한 안전장치이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왕국을 처음 정복할 당시 왕국 내의 왕족들 중에서 일부 뛰어난 젊은이들을 바빌론으로 데려가 갈대아와 바빌론의 학식을 가르쳐 그의 신하로 삼고자 했다. 다니엘은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 중에 속해 있었다. 느부갓네살은 이 젊은이들을 포로나 죄수와 같이 다루지 않고 왕가의 일원으로서 대우해 주었다.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인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 바빌론에 끌려올 당시부터 과거 그들이 양육되었던 조국의 종교법이 금하는 어떤 것도 따르기를 거부했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다. 『활활 타는 화덕』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주님께서 불가마에 던져졌던 이들을 어떻게 구하셨는가를 알 수 있다. 특히 주님은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예언하는 능력을 주셨다. 다니엘은 이 능력으로 인해 나라의 지도자로서 부상하게 되었다.

다니엘은 바빌론이 메대왕 다리우스에 의해 정복된 후에도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본문의 이야기는 다니엘이 궁중의 신하들에 의해 꾸며진 음모에 빠지는 모습에 관한 것이다.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성경의 이야기들 중의 하나이며,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배우고 성실히 순종해 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파괴 하려드는 모든 거짓이나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신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기어이 하고자 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는 ‘사자’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주님의 도움으로 사자들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어느 정도 경험했을 것이다.

본문이 주는 또 다른 분명한 교훈도 있다. 즉, 누군가를 해치고자 하는 사람은 도리어 자신이 해침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마태복음 7장의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씀과도 같은 의미이다.

본문의 또 다른 두 가지 교훈은 다리우스 왕의 측면에 있다. 첫째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잠시 생각해보지 않고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누군가가 위협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의로움으로 굳건히 설 용기를 가진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인정하도록 인도할 수 있고 자신의 삶도 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제 1반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의 역사적 특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시험 속에서도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정복했을 당시 유다왕국이 있는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보물들을 갈취해 갔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남겨두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 중에서 자신의 왕궁에서 훈련시켜 사용하도록 뛰어난 젊은 왕자들만 데리고 갔다. 다니엘은 그 왕자들 중에 속해 있었다.

청소년들은 흔히 친구들에게 설득 당하여 친구들과 비슷한 행위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 나쁜 인격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용감하고 정직했으며, 과거 고향인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주님에 대한 예배를 바빌론에서도 그대로 실천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지혜와 꿈을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이다. 또한 주님은 그로 하여금 바빌론 왕에게 경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그에게 내리기도 하셨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로 인해 그는 바빌론의 통치자가 될 수 있었다. 과거의 요셉 역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았고, 이로 인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바빌론의 장관들은 어떤 법을 승인 하도록 다리우스를 설득했는가?
- * 다니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 왕은 자기의 걱정근심을 어떻게 보였는가?
- * 다니엘은 어떻게 구원되었는가?
- * 다리우스는 다니엘을 포함한 장관들을 어떻게 처형했는가?
- *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제 2반

다니엘서 1-5장까지를 다시 살펴본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왕국을 정복했으나 처음부터 그 나라를 파괴하지는 않았다. 그는 근동의 모든 국가들을 통치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는 슬기로워서 유다 백성들이 그에게 순종하고 공물을 바친다면 그들을 그대로 살게 해주려고 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들으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그들은 예레미야의 권유를 거역했고, 느부갓네살은 마지막 정복의 단계를 강행하기에 이르렀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 1-4절로 알 수 있는 사항은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정복의 초기에 일부 유다 왕가의 뛰어난 왕자들을 바빌론으로 데려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궁전에서 바빌론 식의 교육을 받게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왕자들을 포로로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특별히 대우하면서 교육까지 시켜주었다. 이 젊은이들 중 네 명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는데, 그들은 과거 그들의 나라에서 배웠던 종교에 대한 신념을 버리기를 거절하고 주님에 대한 예배에 더욱 충실했다. 우리는 이 네 명의 젊은이들의 이름을 다니엘서 1 장 6-7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주님은 그들의 신실함으로 인해 그들을 보호하시며 도와주실 수 있었다. 즉,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우상으로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활활 타는 화덕 속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셨던 것이다. 다니엘서 3장은 이 이야기에 관한 것이다. 이 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이로 인해 그는 바빌론 전 지역의 통치자가 되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약간 경시되었다. 그러나 그는 벨사살의 통치 시기에도 다시 유명해졌는데, 이는 그가 벽에 써진 글을 읽고 해석하여 벨사살의 죽음과 그 나라가 메대와 페르시아 왕국으로 분열될 것임을 예견했기 때문이다. 벨사살의 뒤를 잇게 된 메대왕 다리우스는 다니엘의 능력을 인정했다.

본문의 이야기는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첫째는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치려 할 때 우리 자신도 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뭔가를 성급하고 소홀히 결정한 후 차후에 미안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조금 늦더라도 잠시 멈추어 잘 생각해 보고 결정짓는 것이 좋은 생활규범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다리우스처럼 자신이 결정한 결과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인이 제시한 조건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훈은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면 세상속의 악들이 창조해 내는 많은 위험들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후반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의를 행할 용기를 가질 때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타인들로 하여금 올바른 것을 보게 하여 행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문 이후의 다니엘서는 그에게 주어진 몇 가지 예언적인 환상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다. 예언자란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주님을 대신해서 바빌론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전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분의 재림이 이뤄지기에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 질 때 썸 있게 될 교회의 상태까지 다니엘이 예언했다고 말씀하신다. 다니엘서 12장 4절과 계시록 5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또한 다니엘이 진정으로 위대한 예언자였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사람들이 인정했던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그와 동 시대의 예언자인 에제키엘이 언급한 바를 통해 이해해 보도록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제키엘 14장 14절도 읽어보자.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어떤 나라가 유다를 정복했는가?

- * 유다를 정복한 나라의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
- * 다니엘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의 유사점은 무엇인가?
- * 다리우스는 다니엘에게 어떤 직책을 주었는가?
- * 중앙의 관료들이나 지방장관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했었는가?
- * 그들은 왜 다니엘에게서 어떤 결점도 발견하지 못했는가?
- * 그들은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 어떤 술책을 썼는가?
- *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의 특이한 사항은 무엇인가?
- * 다니엘은 특별한 새 법에 순종했는가?
- * 왕은 다니엘을 어떤 인물로 생각했는가?
- * 왕은 자신의 슬픔을 어떻게 보였는가?
- * 다니엘은 어떻게 사자로부터 구해졌는가?
- *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 다리우스는 어떤 새 칙령을 공포했는가?

제 3반

의를 옹호하는 것을 용감히 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본문의 상응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고대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그들의 정경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다니엘이 예언자로서 부름 받았던 때가 그가 예루살렘을 떠난 후였다는 것과 그의 책이 바빌론에서 쓰였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그들은 예언자란 거룩한 땅에서만 영감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주님 스스로 다니엘을 예언자라고 칭하시며 그의 예언이 재림 때에 있게 될 세상의 상태까지도 포함한다고 말씀하신다. 모든 예언자들은 주님에 의해 영감 되어졌다. 즉, 그들은 주님이 선택해주신 단어만을 말했던 것이다. 예언자들이 간혹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자기 시대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들 대부분은 자신이 전하는 예언의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다. 다니엘 역시 위의 사항을 다니엘서 마지막 포로들이 끌려오기 몇 년 전에

다니엘서 1장 1-7절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항은 다니엘이 마지막 포로들이 끌려오기 몇 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데려 가졌던 첫 무리들 중에 속해 있었다는 것과 그가 당시 매우 젊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유다 왕가의 모든 자녀들처럼 사제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그와 그의 세 동료들은 그들의 종교에 충실하여 수차례 큰 위협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때마다 큰 영예를 얻는 일로 전환되었다. 그들이 전화위복을 얻을 수 있었던 까닭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믿는 교회의 교리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될 때 혹은 다른 이들과 자신이 다를 때 주위로부터 냉소를 받게 된다. 이러한 때에 자신의 원리로 굳건히 설 용기를 갖게 되면 지도자로서 간주되며 심지어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본문이 주는 교훈인 것이다.

본문은 이러한 교훈에 대한 아주 명확한 예증을 제시하고 있다. 다니엘은 메대왕 다리우스가 결국 바빌론의 왕권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여 다리우스에 의해 왕국에서 가장 높은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다니엘 하에 소속된 시기심이 가득한 관료들이나 대신들은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안했다. 이는 결점이 전혀 없고 사람들과도 쉽게 조화되는 영적인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의 눈에서는 거슬림을 표현하는 것이다. 메대인이란 교회의 선과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다리우스는 이러한 모략적인 법에 서명했을 때 전혀 다니엘을 의식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치켜 세워주며 아침하는 말에 귀가 솔깃하여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 법에 서명했던 것이다. 메대와 페르샤의 법은 왕이 한 번 서명하면 누구도 바꿀 수 없었다. 즉, 한 번 행해진 것은 하지 않은 것으로 되돌려질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 번 행해진 일은 후에 아무리 미안하다고 말하거나 설사 회개를 통해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미 행해진 말이나 행동이 초래한 결과는 없는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니엘은 결국 사자 굴에 던져졌고, 그 출입구는 봉쇄됐다. 사자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야수이다. 사자 역시 기타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의 두 가지 상응을 지닌다. 사자가 힘 또는 능력을 상징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란 사실 진리 안에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가장 높은 의미에서의 사자란 신성한 진리로서의 주님을 표현한다.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서 주님은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라고 불린다. 나쁜 측면에서의 사자는 자아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짓의 힘을 의미한다. 인간사회에서는 스스로 판단하여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받쳐줄 근거를 찾고자 애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사자”에 해당된다. 사자와 더불어 연상되는 성경의 이야기는 삼손이다. 삼손은 블레셋의 영토로 가는 도중에 사자를 만났다. 그가 사자를 때려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머리털이 잘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의 머리털이란 계명을 표현한다. 즉,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있는 한 거짓추론이라는 사자는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니엘은 사자 굴 안에 밤새 갇혀 있었다. 이는 우리가 자신에게 닥치는 시험을 스스로 겪어 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16절의 다리우스의 경우처럼 시험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충고해 주거나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을 위해 어떤 결정을 대신 해줄 수는 없다. 다니엘이 혼자 사자 굴에서 밤을 새웠듯이, 우리 역시 홀로 시험을 만나야만 한다. 밤이란 정신적인 어두움 또는 의심의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에 아침이란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명확히 보게 됨으로서 갖게 되는 새롭게 밝아지는 새벽에서 이어지는 상태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아침에 “소인이 섬겨 온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소인을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소인은 하느님 앞에 아무 죄도 없을 뿐더러 임금님께도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여 주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결백 또는 순진함은 해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순진함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여 순종하면서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을 때만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다. 우리가 순진할 때 주님의 권능은 우리를 통해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아주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거짓 추론은 우리를 짓누를 어떤 힘도 없게 되고 오히려 그 추론의 어리석음만 드러나게 된다. 이리하여 다니엘의 적들이 사자에게 잡아먹혔던 것이다. 악은 언제나 다른 이를 해치려는 이들에게 되돌려 진다. 다리우스는 다니엘의 하느님을 신중의 신으로 인정하며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께 예배하도록 명령했다. 우리는 자신에게 온 시험을 자신을 위해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타인으로 하여금 주님을 인식하도록 하며 그분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는데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메대 = 교회의 선과 진리에 반대되는 사람들

사자 = 진리 또는 거짓의 힘

제 4반

‘잘못인줄 알지만 남들이 그렇게 하니깐 나도 따라 한다.’라는 식의 연약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리고 다니엘의 신실함을 기억하도록 한다.

바빌론은 지배욕을 의미한다. 유다왕국을 정복한 나라는 바빌론이었다. 유다는 교인의 마음을 표현한다.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란 이기적인 사랑이 교인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하여 그 사랑이 마음의 소유권을 갈취해버린 모습을 의미한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두고 “그 사람의 야망이 그를 거기로 끌고 가버렸어.”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 중에서 지배욕은 반드시 파괴 되어져야만 한다.

“거만엔 재난이 따른다(잠언16:18).”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친숙한데, 성경의 역사가 이 말의 예증을 보여주고 있다. 그 예증들 중 하나가 바빌론에서 보여 지고 있다. 다니엘서는 바빌론의 실제 역사를 통해서 잠언서의 말씀이 운용되고 있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정복했고 자만심으로 가득 했지만, 슬기로우도 어느 정도 지녔었다. 다니엘서 1-4장을 보면, 다니엘이 주님의 권능의 위대함을 그의 경험으로 배울 수 있는 자질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뒤를 이은 벨사살은 예루살렘의 성전집기들을 꺼내다 술을 마셨고, 주님을 모독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의 생명과 나라마저 잃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제 5장에서 서술되고 있다. 자만심이 극에 달한 사람은 하느님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게 되는데, 이때 “벽에 써진 글”이 그에게 다가와 그의 마지막을 예고해주는 것이다. 다니엘은 주님께서 바빌론의 왕들에게 말을 전할 때 쓰였던 예언자다. 그는 여느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말씀을 표현한다. 에제키엘 역시 바빌론에 있는 그의 동포들에게 말을 전한 예언자였는데, 실상 그와 다니엘은 같은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예언했던 것이다. 우리가 말씀에 관하여 배웠던 사항은 설사 이기심이 우리 속에 만연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남아 있어 우리의 지성을 향해 말한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왕 밑에서 높은 지위를 얻었다. 그 이유는 그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주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예언하는 능력을 주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이 벽에 써진 글을 해석하기 전까지는 다니엘을 무시했었다. 그러나 벨사살의 왕위를 이은 메대왕 다리우스는 다니엘의 지위를 자신의 바로 밑의 자리로 회복시켜 놓았다. 이러한 역사의 줄거리는 절대적인 권능을 이용하려는 바램과 종교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 사이를 갈팡질팡하며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을 묘사한다.

다니엘이 다리우스가 만든 법을 복종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다리우스는 자신이 아끼는 가장 현명한 자를 포기해야 하느냐 아니면 자신이 만든 법을 철회하여 자신의 권위를

무너뜨릴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지고 말았다. 이 모습은 이기심이나 자만심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곤경의 한 단면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신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 또는 자신의 길 만이 옳바르다고 고집하지만 때로 그 길을 포기해야 함을 염두 해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자는 힘을 상징한다. 좋은 측면에서의 이 힘은 진리의 힘을 뜻하는 반면 나쁜 측면에서는 거짓의 힘을 의미한다. 만약 우리가 주위의 거짓 충고를 따르고자 하거나 자신 안의 자만심이 성서를 여느 인간의 총명한 소설책 정도로 판단하도록 허용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속의 다니엘을 사자 굴로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은 죽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성경을 대하는 기독교의 역사에 대한 요약이기도 하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말씀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통치자로 삼으면서도 말씀을 파괴하고자 백방으로 골몰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악한 의도로 골몰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으나 성경은 하나도 상한 데가 없다. 위와 같은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인본주의자들에 의해 발전된 논쟁들로 인해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다니엘이 밤새 사자 굴에서 지냈듯이 우리의 믿음은 밤이라는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의심이 사라지는 아침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소인이 섬겨온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소인을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소인은 하나님 앞에 아무 죄도 없을 뿐더러 임금님께도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허울 좋은 추론들이 현혹하려드는 시험 속(사자굴)에서도 주님께 신실함을 보이며 우리의 약함을 그분께 고백하고 힘과 인내를 그분으로부터 찾으려는 순진한 모습으로 우리 속이 무장된다면 우리 주위 혹은 세상에 존재하는 거짓추론들이 결코 우리를 혼란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 하나에도 상처를 입힐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교훈은 다니엘이 주위 환경의 조건에도 불문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용기 있게 지킨 것에 대한 결과이다. 다니엘은 바빌론에 막 끌려왔을 때부터 어린 그에게 밀어닥친 위험과 시험 속에도 항상 주님을 선택했다. 진실로 용감한 사람은 주님 앞에 겸손하며 그분이 가르쳐주시는 정의를 굳건히 지키며 살아간다. 우리가 이처럼 살게 되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함정에 빠지지 않으며 주님의 나라가 지상에 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제 5반

시험을 겪게 되는 신앙인을 주제로 삼는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소홀히 여기는 제 12장도 거론한다.

다니엘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권능이 자신의 삶에 지혜와 안전 그리고 강건함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주님은 그분을 향한 다니엘의 절대적인 신실함 때문에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 말씀하실 수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다니엘은 다른 왕국으로부터 가장 슬기롭고 성품이 곧바른 자로 인정되었고, 그의 전 생애동안 높은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더욱이 그는 그를 제거하고자 하는 많은 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재했다. 또한 이런 다니엘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와 유사한 점이 많다.

사자 굴에서의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성경 이야기들 중의 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극적인 내용 때문에 어린이나 젊은이들에게 강한 호소력을 지니며, 성인들에게도 귀감이 된다. 어린이나 젊은이들은 세상에 나아가면서 주위의 친구 혹은 동료들로부터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도록 쉽게 유혹된다. 따라서 그들의 삶의 시작부터 도덕적 혹은 영적으로 굳세게 설 수 있도록 말씀의 영감이 필요한 것이다. 어린이들 역시 신체적 발육 상태 혹은 독자적으로 원리를 확립 하지 못한 정도에 따라 시험이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적절히 이겨내는 훈련을 쌓아 시험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만약 어린이가 이러한 영적 훈련 과정 중에 친구나 다른 아이들로부터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충분히 신뢰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그 아이는 친구들이 가지는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이런 것들 역시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예증되고 있다.

그러나 본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바빌론이 표현하는 지배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 하에 그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잔치를 더욱 흥겹게 하고자 성전에서만 사용되어야 할 거룩한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신성을 모독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벨사살 왕은 메대 왕 다리우스에게 왕국을 빼앗기고 말았다. 우리가 이를 특별히 어떤 교회나 어떤 교회에 소속된 사람 또는 일반적으로 악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바빌론”은 종교에 속한 것으로 그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의 목적을 달성하는 쪽으로 움직이다 보면, 종교에 있는 모든 믿음이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스웨덴북은 메대인이란 교회의 선과 진리를 반대하는 이들을 표현한다고 설명한다.

다리우스는 다니엘을 정승의 위치에 앉혀 두었는데, 이는 다니엘이 다리우스의 수중으로 바빌론이 넘어갈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이다. 그는 다니엘을 그의 각료들 중에서 가장 슬기로운 자로 인정하며 총복으로 삼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다니엘의 지혜의 근원은 이해하지 못했다. 다니엘은 모든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표현한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 속에 위대한 지혜가 담겨져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지혜를 인간에게 돌리며 자신들의 포부를 위해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들은 인간의 미덕이나 성취가 곧 하느님 자체라고 여기는 “인본주의자들”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교회 속의 선과 진리와는 정 반대되는 것이다.

말씀은 인간주의적인 책동에 짜 맞쳐지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다.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기 특별한 총명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 자랑을 포기해야 함에 직면하거나 자기 총명을 떠맡기기 위해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됨을 발견하게 된다. 어찌됐든 말씀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거절한다. 이 모습이 사자 굴에 갇힌 다니엘로 표현된다.

사자관 좋은 의미에서는 진리의 권능을 표현하는 반면 나쁜 측면에서는 거짓의 권능을 표현한다. 다니엘은 밤새도록 봉해진 사자굴 안에 있었다. 인간적 총명을 추켜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간 말씀은 그들의 잘못된 태도로 인해 오용 또는 악용된다. 오늘날의 많은 선한 사람들 역시 말씀의 근원이나 그 신뢰도에 의심을 가지며 “나는 모르겠다.”라는 식의 어둠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조만간 아침이 밝아온다. 다니엘은 날이 새자마자 사자우리로 달려온 왕에게 “소인이 섬겨온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소인을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소인은 하느님 앞에 아무 죄도 없을 뿐더러 임금님께도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인간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파괴하려고 하든지 간에 말씀은 영속적인 확실성 위에 서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아침과 같은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당신의 법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만사가 순조롭고 무엇 하나 꺼릴 것이 없사옵니다(시편119:165).”라고 고백하게 된다. 말씀을 신뢰한 사람들에게 오는 평화는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들에게도 그 결과를 보여준다. 본문 25-28절을 읽어보기 바란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주님 스스로 다니엘의 예언들이 마지막 심판과 재림의 때까지를 취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본문의 뒤를 잇는 5장의 내용들은 주님이 다니엘에게 기록하도록 주신 예언적인 환상들을 담고 있는데, 이는 첫 기독교회의 모든 역사를 의미한다. 우리는 제12장도 읽어 두어야 한다. 이 마지막 장은 요한계시록 제 5장과도 연관 되어 새교회인들에게 매우 친숙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 부분은 글자에서조차 말씀의 본성에 관해 생각해 보려는 우리에게 명확한

서술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진정한 기독교 종교」 제 754장: “교회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데, 특히 거짓이 진리인 양 행세하는데서 비롯된다. 거짓이 진리로서 나타날 때 본질적으로 선인 선, 즉 영적인 선은 더 이상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이라고 믿어진 선은 고작 자연적인 선, 즉 도덕적인 삶에서 비롯되는 선일뿐이다. 진리가 종말을 고하고, 이로 인해 진리의 선이 파멸되는 주요 원인은 두 가지 영적 사랑과는 정반대되는 두 가지 자연적인 사랑에 있다. 두 가지 자연적인 사랑이란 자아사랑과 세상 사랑이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반대되어 자아 사랑이 우세해지고, 이웃사랑에 정반대되어 세상 사랑이 우세해질 때 극에 달한다. 자아사랑이란 어느 누구도 잘 되기를 바라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세상을 사랑함이다. 이러한 사랑들이 육체를 좀먹어 가는 암세포처럼 우리의 영혼 속에 퍼져갈 때 우리 영혼의 모든 부분은 파괴되고 만다. 이런 사랑이 교회에 침투해오는 것이 바빌론으로부터 명백히 파악되는데, 다음의 구절들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창세기 11:1-9, 이사야 13장과 14장 그리고 47장, 예레미야 1장, 다니엘 2:31-47과 3:17과 6:8-28 그리고 7:1-14, 계시록 17장과 18장 등).

질문 정리

- 1) 다니엘은 누구인가?
- 2) 왜 그는 바빌론에 있게 되었는가?
- 3)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위대해지도록 했는가?
- 4) 어떤 국가가 바빌론을 정복했는가?
- 5) 이 나라 왕은 누구인가?
- 6) 그는 다니엘에게 어떤 직책을 내렸는가?
- 7) 누가 다니엘을 음모했는가?
- 8) 다리우스는 어떤 법령에 서명하도록 설득되었는가?
- 9) 다니엘은 무엇을 계속했는가?

- 10) 왕은 다니엘을 잃기를 원했는가?
- 11) 왜 그는 서명했던 법령을 철회하지 못했는가?
- 12) 다니엘은 얼마 동안 사자굴에 갇혀 있었는가?
- 13) 누가 그를 구원했는가?
- 14) 다니엘을 음모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15) 다리우스는 어떤 새 법을 공포했는가?
- 16) 예언자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사자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예언자가 된 젊은 왕자 2) 바빌론 식의 교육을 시키려고
- 3) 하느님에 신신했던 것 4) 페르시아 5) 다리우스 6) 정승
- 7) 다른 정치 지도자 8) 30일간 기도하지 말라 9) 평상시와 같이 기도함
- 10) 아니다 11) 바꿀 수 없기 때문 12) 밤새도록
- 13) 천사 14) 사자굴에 던져졌다
- 15) 모든 이는 다니엘의 하느님을 예배하라 16) 하느님의 말씀
- 17) 좋은 의미로서는 진리의 권능을 뜻하고, 나쁜 의미로서는 거짓의 권능을 뜻함

성전 재건에 관한 예언

머리말

에즈라서 1장, 3장, 4장, 5장 그리고 6장을 읽은 후 본문의 배경을 이해해 둔다.

성 서 본 문: 즈가리야 제 4장

4장: 1. 나와 말을 하던 그 천사가 돌아 와서 나를 흔들어 깨웠다. 잠이 덜 깬 사람처럼 얼떨떨해 하는 나에게, 2. 그가 물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나는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보인다고 대답하였다. 그 등잔대 꼭대기엔 그릇이 하나 있고,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십지 주둥이가 하나씩 뚫린 등잔 일곱 개가 붙어 있었다. 3. 그리고, 올리브나무 두 그루가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하나씩 서 있었다. 4. 나는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나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하고 물었다. 5. 나와 말하던 그 천사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느냐?”하고 되물었다. 내가 모르겠다고 하자, 6. 그 천사가 나에게 일러 주었다. 6. 이것은 야훼께서 즈루빠벨이 할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은 권세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

내 영을 받아야 될 일이다.”

만군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시다.

“산아, 네 아무리 크다 하여도

즈루빠벨 앞에서는 평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산에서 머릿돌을 떼어 올 때,

사람들은 ‘멋지다, 멋지다’하며 환성을 올리리라.”

8. 야훼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9. “즈루빠벨이 제 손으로 이 집에 주춧돌을 놓았으니, 그가 손수 그 일을 이루리라. 그제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가 만군의 야훼이심을 너희가 알리라. 10. 일이 자잘하게 시작되어 사람들이 빈정거렸지만, 즈루빠벨이 골라 놓은 돌을 보고는 그 사람들도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등잔은 천하를 살피는 야훼의 눈이다.” 11. 나는 그 천사에게 “그러면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는 무엇입니까? 12. 또 금대롱으로 기름을 대어 주는 올리브나무 가지가 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13. 그 천사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느냐고 하기에 내가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14. 그는 이렇게 일러 주었다. “올리브나무 두 그루는 온 세상의 주를 모시도록 기름 부어 성별한 두 사람을 뜻한다.”

교리 요점

- * 성전의 재건은 주님의 강림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 * 소 예언서의 마지막 세 권은 포로들의 귀환 후 예언되었다.
- * 우리는 주님이 그분의 의도하심을 반드시 수행하실 수 있으심을 믿어야 한다.
- * 신앙에는 사랑이 필수이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만약 교인들에게 “소 예언서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잘 알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그 책이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구약성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다는 것, 호세야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난다는 것 그리고 요나가 그 책에 속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소 예언서들의 메시지와 그들을 위해 그 예언서들이 전하고 있는 의미는 이해하지 못한다.

소 예언서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말씀 중의 다른 책들과 영감 된 무게가 다른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책들을 이해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하고 공부해 나가면, 우리는 자주 들었던 인용 구절들이 소 예언서들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즉각적이고 명백한 교훈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소 예언서의 마지막 세 권은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생활에서부터 유다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된 후인 ‘회복의 시대’에 예언되어 쓰인 책이다. 주님은 유다 백성들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위해서 페르샤 왕 고레스를 들어 쓰셨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율법과 예언들을 성취하셔야만 했다. 그래서 주님이

히브리 성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오셨던 것이며, 태초부터의 성경 이야기가 있어왔던 거룩한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바빌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 후에 귀환하도록 해 주셨고,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준비하셨던 것이다.

그들은 귀환 후 곧바로 성전의 기초를 놓았지만, 주님의 집을 짓는 그들의 열성은 이내 식어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집을 짓는데 몰두했다. 이 이야기는 덧없이 짧은 삶을 살면서 그것에 집착하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예언자 하깨와 즈가리야는 귀환한 백성들에게 위의 사항을 일깨워주며, 주님의 집을 짓는 데에 그들이 계속 힘쓰도록 종용하고자 보내진 자들이었다. 본문에서 언급된 즈롭빠벨은 유다 왕 여호아킨의 손자로서 귀환백성의 지도자였다. 그에 대한 즈가리야의 메시지는 “만일 그가 성실히 재건을 계속한다면, 주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어 일을 마무리 짓도록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본문은 위의 사항 외에도 우리를 위해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다. 성경 어디에서나 빛은 진리를 상징한다. 예를 들어,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였고(요한복음 8:12)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5:14). 등잔은 세상에 있는 교회와 말씀을 공부하여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복음 5:14-16).”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등잔에서 타고 있는 기름이 사랑을 표현함은 마태복음 25장에서의 열 처녀의 비유를 상기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즉,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은 가지고 있었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 한편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잔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다. 성경에서 올리브나무와 올리브기름은 사랑에 대한 상징물이다. 그렇다면 촛대 양쪽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와 등에 기름을 대어주는 올리브나무는 무엇일까? 이 질문은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의 심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 큰 사랑은 무엇일까?”라고 질문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에 대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라고 즉시 답해 주신다.

제 1반

포로들의 귀환 역사와 성전재건을 살펴본다. 그리고 소 예언서의 마지막 세책들을 특별히 언급한 후 본문이 주는 교훈도 간략하게 살펴본다.

소 예언서의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유다나 이스라엘 왕국에서 그 백성들이 포로가 되기 전에 살았었다. 그러나 마지막 세 예언자들은 포로들의 귀환 후에 있었던 자들이다. 아시리아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귀환하지 못했던 반면 바빌론으로 끌려간 일부 유다 백성들은 귀환했었다. 바빌론의 왕 다리우스 뒤를 이은 고레스 왕은 포로로 있던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키라는 주님의 지시를 받았다. 그는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강취해 온 성전의 금과 은 집기들까지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서 돌려보냈다. 유다 백성들은 처음에 포로로 되었지만, 바빌론에 정착한 후로는 그들 대부분이 귀환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돈이나 동물 또는 기타 필수품을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주어 그들의 귀환을 도와주었다. 귀환 백성의 지도자는 즈룹빠벨이었는데, 그는 유다 왕 여호야킨의 손자였다.

사만 이 천명 이상의 백성들이 거룩한 땅으로 귀환했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며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 짓기를 도중에 중단하고, 자신들을 위한 집을 짓는데 몰두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성전 재건을 마무리 짓도록 다시 말씀해 주셔야만 했다. 성서의 마지막 세 예언자들은 주님이 말씀을 내리시기 위해 선택하신 자들이기도 하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본문의 예언자는 누구인가?
- * 본문의 환상은 어떻게 그에게 내려왔는가?
- * 그는 무엇을 보았는가?
- * 천사는 일곱 등잔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했는가?
- * 두 그루의 올리브나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 2반

먼저 포로 귀환의 역사적인 사건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성전 재건을 위해 예언자가 보내진 까닭과 예언의 일반성을 살펴본다.

소 예언서의 마지막 세권의 책들인 하깨와 즈가리야 그리고 말라기는 백성들이 포로 신세에서 풀려나 귀환한 후에 예언되어 기록된 책들이다. 메대의 다리우스로부터 바빌론의 왕위를 이어받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그의 통치 첫 해에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귀환해도 좋다는 칙령을 내렸다. 우리는 귀환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에즈라서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에즈라서는 내적인 의미는 없지만 역사적인 자료는 매우 풍부하다. 에즈라는 “주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백성들을 되돌아가게 했는바, 고레스는 자기의 칙령 속에서 주님이 자신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을 짓도록 하는 임무를 주셨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귀환을 원치 않는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위한 예물을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주도록 명령했고, “금과 은과 세간과 가축도 주어서 보내라”하고 명령하기도 했다. 고레스 역시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강취했던 성전의 집기들을 그들 편에 되돌려 보냈다. 에즈라는 그 집기들의 수가 오 천 사 백 개였다고 말한다. 사만 이천 이상의 백성이 마지막 유다 왕국 이전의 두 번째 왕인 여호아킨의 손자 즈룹빠벨의 지도하에 귀환했다.

그러나 귀환한 포로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은 뒤 자신들의 안락을 우선시하여 성전 재건을 지연하며 자신들의 집을 짓기 시작했다. 이후 예언자 하깨와 즈가리야는 백성들을 나무라도록 영감을 받았고, 그들이 성전 재건을 마무리 짓도록 종용했다. 이는 정작 필요한 일은 흥미롭지 않아서 갖가지 이유로 지연하면서 자신의 유희를 만끽하는 데에 정신을 빠트린 우리의 삶과도 유사하다.

이제 본문의 첫 절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는 늘 예언자들이 어떻게 영감을 받는가를 궁금해 한다. 본문은 예언자가 영감을 받는 방법들 중의 한 가지를 보여 준다. 즉, 즈가리야 ‘천사가 자기를 밤중에 깨운 다음 환상을 보여주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 주었다’고 기술한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책들에서 다른 방법들이 언급되고 있다. 예언자들에게는 꿈, 낮 동안에 환상, 환상과 더불어 들려진 음성, 천사와의 대화 또는 아무것도 없이 들려진 소리만으로도 예언이 주어졌다. 예언자들은 꿈, 환상 또는 소리 등 어느 경우에서든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본문의 환상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는 공부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있게 되지만,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두 가지 교훈들은 이내 알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선함을 성취하는 것은 주님의 영이나 힘에 의해서이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꼭 마무리 지으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일을 행하는 노력으로부터 실망하는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와 더불어 신성한 섭리는 어느 곳에서든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역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본문의 10절로부터 배우게 된다. 계시록 5장 6절과 11장 4절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에게도 이와 같은 상징적인 환상을 보여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가 또 하나 짐작할 수 있는 사항은 이러한 환상들이 당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시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어졌다는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즈가리야는 무엇을 보았는가?
- * 즈가리야는 누구에게 메시지를 주었는가?
- * 그는 먼저 즈루빠벨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 * 천사는 일곱 등잔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 * 두 그루의 올리브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 3반

소 예언서와 귀환에 관한 사실들을 본문의 배경으로 삼고, 환상이 가진 상응적인 측면에서 교훈을 찾아본다.

구약성서의 마지막 열 두 권의 책들을 소 예언서라고 부른다. 이 책들은 그 내용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글자대로 이해하기에는 벅찰 때가 많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책들을 말씀의 여느 부분보다 소홀히 다루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예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지 않았더라면 주님께서 그 예언들이 말씀에 기록되지 않도록 하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들 중의 일부는 그 내용이 아주 짧아서 그 책을 기록한 예언자가 살았던 시대에 대한 단서조차 발견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기 전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에 살았었다. 마지막 세 예언자들인 하깨와 즈가리야 그리고 말라기는 성전 재건의 예언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깨서와 즈가리야서에서 언급되는 다리우스는 과거 다니엘을 사자 굴속에 넣은 시대의 다리우스는 아니다. 이 다리우스는 똑같은 이름의 후대 왕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첫 다리우스 후에 바빌론의 왕위를 계승했다. 내적 의미는 없으나 귀중한 역사 자료인 에스라서를 참고하면, 고레스 첫 해에 주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다로부터 끌어온 포로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셨음을 알 수 있다. 주님께서 거룩한 땅과 유대인들 중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유대 왕국이 재 건립되고 예루살렘과 성전도 재건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 포로들 모두가 귀환을 원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 중 일부는 바빌론에서의 생활에 매우 만족했다. 다니엘서나 에제키엘서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의 종교에 신실하여 되돌아가기를 갈망한 이들만이 귀환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바빌론이 가나안보다 살기 좋고 기회나 모든 것들이 풍부하다고 여겼다. 이상의 사항으로 백성들의 부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양육되었으나 세상적인 삶에서 비롯된 만족함에 젖어 그 만족이 자신의 본성으로 된 자들도 있고, 세상적인 삶에 젖어 들기는 했으나 과거의 어린 시절의 아름다움을 가끔 회상하면서 언젠가는 과거의 느낌으로 되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자신의 깊은 곳에 간직한 이들도 있다.

사만 이천 명 이상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 왔다. 그들의 지도자는 유다의 마지막 왕 이전의 두 번째 왕인 여호야킨의 손자인 즈루빠벨이었다. 즈루빠벨은 왕으로 불리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 그 지역이 바빌론의 통제 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고레스는 “하느님 야훼께서.... 유다 나라 예루살렘에 당신의 성전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했고, 돌아가지 않는 일부 백성들이나 원주민들은 자원해서 귀환하는 자들에게 금과 은과 세간과 가축을 들려 보내 도울 것을 명령했다. 그 역시도 과거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할 때 강취해 온 성전 집기들을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돌려 보냈다.

귀환한 백성들의 첫 번째 열성은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이었으나, 그들의 자연적인 이기심은 그들의 마음을 다시 부추기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마리아인들, 즉 과거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후 그들을 대신하여 이주시켜 둔 백성들과 사소한 분쟁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재건을 명령한 고레스가 죽은 후 그의 후계자가 과거에 공포된 선조의 명령 사항을 잊고 있었을 때 보내진 사마리아인들의 투서로 성전재건은 일시 중단되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의 투서를 핑계로 삼아 성전 재건에서 자기들의 집을 짓는 일로 돌아섰다. 즉, 이 백성들은 과거에 그랬듯이 자신들의 이익이 있는 데로 돌아섰던 것이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으시기 위해 세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셨고, 성전 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용기도 불어넣어주셨다.

본문에 있는 즈가리아의 환상은 위의 용기에 관한 것이다. 사실 즈루빠벨은 성전 재건 사업을 중단한 변명으로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를 내세웠다. 본문의 6절은 이 변명에 대한 주님의 답임과 더불어 우리가 자신 속의 천국적인 인격인 “성전 건축”에서 쉽게 낙망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다. 즉, “성전 건축은 권세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 내 영을 받아야 될 일이다. 만군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시험을 극복하기에 또는 스스로 선을 이루기에 이기적이고 나쁜 존재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신다.

우리는 즈가리야의 다섯 번째 환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앞서 성막의 성소에 있는 일곱 가지가 있는 촛대란 우리의 이해성을 계발해 주는 말씀에서 비롯된 신성한 진리를 표현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일곱 등잔에는 “천하를 살피는 야훼의 눈이다”라는 서술이 첨가되어 있다(계시록 5:6을 참고하기 바람). 이 서술은 주님의 신성한 섭리가 세상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을 보고 그에 대한 설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말씀의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해주어 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다음 등잔에 기름을 대주는 두 그루의 올리브나무가 언급된다. 계시록 11장 4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는 온 세상의 주를 모시도록 기름 부어 성별한 두 사람을 뜻한다.”라고 서술된다. 앞서 우리는 기름이 사랑을 표현함을 공부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가지는 사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이 두 가지 사랑이 두 그루의 올리브 나무이며, 이 나무들은 환상 속에서 보인 위치에 정확히 서 있으면서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다. 그리하여 주님을 사랑함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속에서 그분에 관한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이웃을 향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속에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도록 해 준다.

기본 상응 공부

등잔 = 신성한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의 말씀

기름 = 사랑

두 그루의 올리브나무 = 주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

제 4반

신약 성서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귀환의 역사와 예루살렘의 재건을 살펴본다. 그리고 본문이 주는 일반적인 교훈을 언급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 예언서들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이 책들은 구약성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열 두 권의 책들인데, 글자 그대로 읽으면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 요나서는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소 예언서들에 비해 많이 알려져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책들을 다른 부분의 하느님의 말씀처럼 중요한 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말씀에서의 모든 기록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전 인류를 위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의 어느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꾸준히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말씀의 어느 부분든지 경건한 마음으로 읽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는 천사가 그 부분을 영적으로 읽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아서 장차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때 주님께서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에 의미를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특별히 스웨덴북의 도움을 받아 끊임없이 공부해 나가면,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 곧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 받거나 잘못된 것에 빠져있는 자신의 상태를 여실히 보게 된다. 우리는 본문의 경우만 보더라도 천국적인 삶을 이끌어 가는 노력을 신실하고 끈기 있게 해 나가야 한다는 영감을 받을 수 있다.

소 예언서의 마지막 세 권인 하깨와 즈가리야 그리고 말라기서는 회복의 예언이라고도 부른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그 속의 백성들 대부분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후 칠십 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귀환을 간절히 소망했던 이들이 되돌아오게 되었다. 내적인 의미는 없으나 유다인의 귀환 역사를 알려주는 에즈라서를 통해 “야훼께서는 일찍이 예레미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샤 황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레스는 “유다 나라 예루살렘에 당신의 성전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지워주셨다”라고 선포했다. 여호아킨의 손자 느부갓네살이 귀환하는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의 지휘 하에 사만 이천 명 이상이 귀환했다. 고레스는 과거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할 때 가져다 놓은 성전의 집기들을 꺼내서 귀환하는 유다인들에게 돌려 보냈다. 그리고 그는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성전의 재건을 돕기 위해 금, 은, 세간, 가축 그리고 다른 자원을 예물로 협조하라고 명령했다.

시편 126편의 노래와 같이 귀환하는 포로들은 기뻐하며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세웠다. 그러나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아하스에로스에게 유다인들을 고발하는 글을 썼고, 그의 뒤를 이은 아르닥사사에게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이리하여 성전 재건에 대한 중지 명령이 떨어졌던 것이다. 유다인들은 주님께 순종함에는 소극적이었으나 자신들의 안락함을 위해 집을 짓는 일에는 분주했다. 게다가 그들은 과거에 휩쓸렸던 이방민족의 좋지 않은 습관에 다시 빠져들게 되었다. 결국 그들은 예언자 하깨와 즈가리야가 그들에게 경고하고 성전 재건을 마무리 짓도록 재촉하고 나서야 비로소 바빌론에 사절단을 파견해서 과거 고레스왕의 명령을 되새기도록 설득했다. 다리우스 왕 (이 왕은 아르닥사사의 후계자임)은 선왕 고레스의 문서를 발견하고, 메대와 페르샤법이 바뀔 수 없다는 법에 따라 성전 재건을 마무리 짓도록 다시 명령했다. 이리하여 성전 재건은 마무리되었고, 과월절 기념 축제가 성전 재건과 더불어 크게 베풀어졌다.

유다인들의 귀환이 유대교가 거룩한 땅에 재 건립되기 위함이었음은 역사적으로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반면에 성경적으로는 주님이 거룩한 땅의 상응성으로 인해 그곳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다는 것과 율법과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도 말씀을 가졌던 그들 사이에서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포로 귀환과 성전 회복의 이유에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항은 유대 나라는 더 이상 지상에서의 주님의 교회를 표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이유로 포로 신세가 된 이후에 있게 된 그들의 역사가 영감 된 말씀의 부분에 들어 있지 않음도 기억하기 바란다.

본문은 즈루빠벨에게 성전 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해 즈가리야에게 주어졌던 환상이다. 이 환상의 세부 사항의 의미는 참고문헌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계시록 11장 4절에는 “이 두 증인이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이며 두 등불입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스웨덴북은 이를 Latin of Schmidius에 의거하여 “올리브 가지 (olive branches)” 대신 “올리브 나무의 열매들 (sons of the olive tree)”이란 어휘를 사용하고 있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즈루빠벨 처럼 영적인 품성을 갖추려는 노력을 쉽게 포기하고 세상에서의 번영이나 안락에 삶의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성전 또는 주님의 집이란 우리 속에 든 교회 곧 천국적인 인격을 표현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은 두 가지 큰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뤄짐을 상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등잔과 두 그루의 올리브나무에 관한 즈가리야의 환상을 명심하며 늘 상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선함이나 권세 혹은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속의 신성한 진리를

공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영감 받은 진리를 삶에 적용한다면, 주님은 우리속의 성전을 완성하시는 것이다. 6절의 “그것은 권세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 내 영을 받아야 될 일이다. 만군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시다.”하는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을 되새기면서 각자 자신 속에 건축되고 있는 집을 점검하기 바란다.

제 5반

유대인들의 귀환의 이야기와 더불어 고대 유대국가의 소멸을 살펴본다. 그리고 본문 자체가 지니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의미의 중요성도 살펴본다.

소 예언서들은 성경 공부에서 많이 거론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요나서를 제외하면 이야기 형식이 거의 없어서 성인들 역시 그 책들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책들은 말씀의 여느 부분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우리는 이 책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담고 있기에 주님께서 이 책들이 기록되어 보존되도록 섭리하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소 예언서들은 모두 열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세아서에서 시작되어 말라기서로 끝맺고 있다. 이 책들 중 일부는 그 책의 연대가 언급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첫 아홉 권의 책들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언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오바디아는 예루살렘의 함락을 목격하고 포로들에 속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 세 권인 하깨와 즈가리야 그리고 말라기는 포로들이 귀환한 뒤 보내진 예언자들이다. 포로들의 귀환에 관한 역사는 에즈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언급된다. 이 책들은 역사적인 자료로는 충분하나 내적인 의미는 없다. 바빌론의 포로가 된 후 칠십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포로가 된 백성들 중 일부가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되었다(예레미야 25:12, 29:10). 에즈라서의 첫 절에서는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 제 일 년이었다. 야훼께서는 일찍이 예레미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말해진다. 그래서 그는 “유다 나라 예루살렘에 당신의 성전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지워 주셨다”라고 전국에 선포했다. 또한 그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어라. 하느님의 성전에 가져다 바치도록 자원 예물도 들려 보내고 금과 은과 세간과 가축도 주어서 보내어라”라는 명령도 내렸다. 그리고 황제 고레스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다가 자신의 신전에 두었던 야훼의 성전 기구들을 꺼내도록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귀환의 원인과 그것의 주된 목적이 성전의 재건임을 알고 있었다.

사만 이천 명 이상의 백성들이 여호야킨의 손자 즈루빠넬의 지도하에 귀환하여 매우 기뻐하며 성전의 기초를 세웠다. 물론 옛 사람들이 과거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해 그 규모나 장엄함이 초라한 것을 보고 슬피 울긴 했지만, 나름대로 많은 이들의 기쁨 속에서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다. 그러나 본문에서 즈루빠넬이 성전의 재건을 돕고자 하는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거절하자 그들은 바빌론에서 고레스를 승계한 왕에게 거짓으로 상소했다. 이로 인해 성전 건축은 중지되고 말았다. 우리가 예언자 하깨로부터 유대인들이 거짓 상소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신 그것을 핑계로 삼아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집을 짓는데 몰두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하깨의 독려와 더불어 두 번째 다리우스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선왕 고레스의 과거 문서를 찾아냈다.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이 바뀔 수 없는 까닭에 성전 재건을 계속하도록 명령되었다. 그 후 성전이 완성되었고, 과월절 기념행사가 성전 봉헌에서 성대히 행해졌다.

우리가 위와 같은 귀환의 역사를 간략히 재고해보는 까닭은 귀환의 역사가 신약 성서 이야기의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주님은 구약 성서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하여 주님은 성서를 소유한 이들 사이에 오셔야만 했다. 스웨덴북은 이에 대해서 “거룩한 땅은 태고교회와 고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고향이었고 그 지형은 생김새까지도 상응을 지녔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룩한 땅에 오셔야만 했다”라고 부연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귀환과 성전재건을 완성하는 일은 신성한 섭리 하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성전이 완성되었다할지라도 유대 국가가 더 이상 지상에서의 주님의 교회를 표현하지 못함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세 명의 예언서의 기록을 제외한 그 후의 그들의 모든 역사에는 영감 된 말씀이 더 이상 없었던 것이다. 일반 학자들 중에는 특별히 사해에서의 문서 발견 이후부터 기독교 연대 초기 무렵에 있는 팔레스타인 내의 다양한 종파들을 추적하려고 노력하면서 유대국가의 귀환의 역사에도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우리는 이러한 고고학적 고찰에 흥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절한 근본 원인은 그들 자신 속에 있었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웨덴북은 예언과 시편에 관한 요약된 의미에서 “소 예언서들은 고대 유대교회의 완전한 황폐와 그에 따른 주님의 오심과 기독교의 건립을 취급한다.”라고 말한다. 사실 소 예언서들에 관한 서술은 세상에 아주 많이 있다. 특히 후대 유대인들은 이 책들을 그들의 나라가 세상에서 특별해지도록 그들 나라의 필연적인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해석하지만, 이러한 암시는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어디에도 있지 않다.

본문은 위의 사항 외에 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우선 계시록 11장 4절을 읽어보자. 이 구절은 즈가리야의 환상과 요한의 환상 그리고 재림을 하나로 엮어준다. 참고문헌에 있는 계시록 11장 4절의 설명도 주의 깊게 읽어보기 바란다.

개인적인 삶의 측면에서 볼 때 본문은 우리속의 교회인 성전의 재건을 완성하도록 하기 위한 격려와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천국의 신비」 제 9548-4항에서는 “즈루빠벨은 하느님의 집을 기초하고 그 집을 완성한 사람으로서의 측면으로 볼 때 장차 오실 주님 그리고 영적인 천국과 교회를 회복시켜주시길 주님을 표현한다.”라고 서술된다. 우리는 세상적인 필요성으로 많은 요구사항들이 자신에게 주어질 때 혹은 자신 안에 거둬나는 삶과 반대되는 것이 많을 때 실망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성전을 실지로 지으시는 주체는 주님이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본문의 환상을 간직하면 주님께서 우리 속의 성전 건축을 마무리 지어 주신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앞서 계시록 1장의 일곱 등경 또는 촛대는 일곱 교회를 표현함을 언급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 신실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정도만큼 교회이며 등경인 것이다. “일곱 등잔은 천하를 살피는 주님의 눈”이라는 본문의 말씀은 신성한 섭리의 전지전능함을 의미한다. 이 섭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바램을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정도만큼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에제키엘 1:18). 등잔에 기름을 대어주는 두 그루의 올리브나무 또는 올리브 열매란 두 큰 계명 곧 주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제 10절의 “일이 자잘하게 시작된다고 누가 빈정거리느냐?”하는 구절이다. 우리 목적의 강건함을 시험하고 측량하는 것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큰 위기 혹은 시련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게 되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행동, 즉 우리의 사소한 일들을 명심하기 바란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제 638-7항: “이는 즈루빠벨에 의한 성전 또는 집의 기초를 다루며, ‘집’ 또는 ‘성전’이란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등경’이 예언자들에 의해 보여 지는 것이다. 그리고 ‘등잔대 옆의 두 올리브나무’는 계시록에서 요한에 의해 보여 진 바와 같다. ‘두 올리브 나무’와 ‘올리브 열매’는 천적인 선을 의미하는데, 이 선은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혹은 형제나 동료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선을 의미한다. 전자의 선이 ‘등잔대의 오른쪽에 보이는 올리브나무’로 의미되고,

후자의 선은 ‘등잔대의 왼쪽에서 보이는 올리브나무’로 의미된다. 이 선에서의 진리는 ‘온 세상의 주를 모시도록 기름 부어 성별한 두 사람’에 의해 의미된다. ‘온 세상의 주를 모신다’는 그분으로부터 실재와 실체가 있음을 의미한다.”

질문 정리

- 1) 바빌론에서 유대인들은 몇 년간 포로로 있었는가?
- 2) 어떤 왕이 유대인들에게 귀환을 허용했는가?
- 3) 그 왕은 귀환하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했는가?
- 4) 귀환인들의 지도자는 누구였는가?
- 5) 포로가 된 모든 유대인은 귀환을 원했는가?
- 6) 바빌론에 남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귀환하는 동료들을 위해 무엇을 하도록 지시되었는가?
- 7) 왜 성전의 건설은 지연되었는가?
- 8) 그들은 성전 건축 대신 무엇을 행했는가?
- 9)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일깨워 주셨는가?
- 10) 본문의 환상은 즈가리야에게 어떻게 왔는가?
- 11) 그는 환상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 12) 즈루빠벨에게 전달하라고 준 메시지는 무엇인가?
- 13) 천사는 등잔이 무엇이라고 즈가리야에게 말했는가?
- 14) 두 올리브나무는 무엇인가?
- 15) 성전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등잔은 무엇을 그리는가?
- 17) “주님의 눈”은 무엇인가?
- 18) 올리브나무는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70년 2) 페르시아왕 고레스 3) 성전 재건 4) 즈루빠벨 5) 그렇지 않았다

- 6) 자원 예물과 각종 필수품의 공급 7) 자신들의 안락에 더욱 몰두해 있었다
- 8) 자기들의 집을 지었다 9) 예언자를 통해서 10) 천사로부터 11) 등잔과 두 올리브 나무
- 12) “그것은 권세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 내 영을 받아야 될 일이다”
- 13) 주님의 눈 14) 기름 부어 성별한 두 사람(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
- 15) 천국적인 인격 또는 우리속의 교회 16) 말씀, 신성한 진리를 담은 그릇
- 17) 신성한 섭리 18) 주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부터 비롯된 선

25

요나와 아주까리

머리말

요나서의 1장과 2장을 읽지 않고서는 본문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1장과 2장을 반드시 읽어보도록 하자. 요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의문사항들은 흔히 세간의 질문거리가 되며 심지어는 그를 비롯한 이들도 있는데, 이를 명확히 이해해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나서 3, 4장

3장: 1. 야훼의 말씀이 또 다시 요나에게 내렸다. 2. “어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 내가 일러 준 말을 그대로 전하여라.” 3. 요나는 야훼의 말씀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굉장히 큰 도시로서 돌아다니는 데 사흘이나 걸리는 곳이었다. 4. 요나는 니느웨에 들어 가 하루 동안 돌아다니며,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된다.”고 외쳤다. 5. 이 말에 니느웨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고 단식을 선포하였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굶은 배옷을 입고 단식하게 되었다. 6. 이 소문을 듣고 니느웨 임금도 용상에서 일어나 어의를 굶은 배옷으로 갈아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 단식하였다. 7. 그리고 대신들의 뜻을 모아 니느웨 시민들에게 아래와 같이 선포하였다.

8. “사람이나 짐승, 소떼나 양떼 할 것 없이 무엇이든지 맛을 보아서는 안 된다.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8. 사람뿐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굶은 배옷을 입혀라. 그리고 하느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라.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남을 못 살게 굴던 나쁜 행위를 모두 버려라. 9. 하느님께서 노여움을 푸시고 우리를 멸하시려던 뜻을 돌이키실지 아느냐?” 10. 이렇게 사람들이 못된 행실을 버리고 돌아 서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시었다.

4장: 1. 요나는 잔뜩 화가 나서 투명스럽게 2. 야훼에게 “야훼님, 제가 집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르심으로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
다. 하느님께서 애처롭고 불쌍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이시어, 악을 보고 벌하려 하시다가도 금방 뉘우치시는 분인 줄 어찌 몰랐겠습니까?
3. 그러니 야훼님, 당장 이 목숨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4. “아니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화를 내느냐?”하고 야훼께서 타이르셨지만, 5. 요나는 시내를
빠져 동쪽으로 가서 앉았다. 거기에 초막을 치고 그 그늘에 앉아 이 도시가 장차 어찌 되는가
불 심산이었다. 6. 그 때 하느님 야훼께서는 요나의 머리 위로 아주까리가 자라서 그늘을 드리워
더위를 면하게 해 주셨다. 요나는 그 아주까리 덕분에 아주 기분이 좋았다. 7. 이튿날 새벽에
하느님께서 그 아주까리를 벌레가 쏴아 먹어 말라 죽게 하셨다. 더우기 해마저 내리쬘자 요나는
기절할 지경이 되었다. 요나는 죽고만 싶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투덜거렸다.
9. 하느님께서 요나를 타이르셨다. “아주까리가 죽었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다니, 뭘 말이나?”
요나가 대답했다. “어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10.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 아주까리가 자라는 데 아무 한 일도 없으면서 그것이 하루 사이에 자랐다가 밤 사이에
죽었다고 해서 그토록 아까와하느냐? 11. 이 니느웨에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만 해도
십 이만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이 큰 도시를 아끼지 않겠느냐?”

교리 요점

- * 인간을 위한 주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떠한 사랑보다도 더 위대하다.
- * 자기주장을 확증하려는 데에 말씀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주된 요소는 이기적인 사랑이다.
- * 진정한 이타애를 갖는다면 악한 사람이 회개하며 벌을 면하게 될 때 기뻐할 것이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어떤 이들은 요나서를 가지고 “요나와 고래”라는 주제로 진행하여 본문의 내용을 왜곡시키기도
한다. 이것은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이야기는 하느님의 말씀의 일부분으로서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를 장난조의 이야기로 전락시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도움을 강탈당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계명을 깨뜨리는 것 중의 하나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 성경에서 요나를 삼킨 것이 고래라고 말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나서는 “주님이 요나를 삼키도록 큰 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전한다. 과거 전통적인 번역에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고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히브리어로 “큰 고기”를 뜻하는 것이 그리스어로 잘못 번역된 것이다. 이 기적은 주님의 베푸신 기적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경이롭게 여기는 것 중의 하나다. 주님 역시 지상에 계셨을 때 이 이야기가 사실임을 말씀해 주셨고, 주님의 체험으로 장차 있게 될 예언임을 보여주셨다. 이에 대한 사항은 누가복음 11장 29-32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주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사용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믿도록 하여 아무렇게나 다뤄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본문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놀랍게도 이러한 이야기를 비슷한 사람들에게 초점되어 있다. 그 이유는 본문이 자신이 타인보다 월등하다고 느끼며 자신의 두뇌가 명석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의 거짓된 믿음과 사악함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일도 이러한 악을 증거 하는 것이다. 요나는 자신이 주님의 예언자이고, 성경을 가진 선택된 백성들의 중의 한 사람이라고 우쭐댔다. 그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수준에 있지 않는 모든 사람을 멸시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아시리아 사람들의 큰 도시인 니느웨로 가서 예언하라고 분부하셨을 때 순종치 않으려고 애썼다. 그가 큰 고기로 인해 순종해야함을 경험한 후에도 그의 심정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결국 그는 니느웨가 멸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그곳으로 갔다. 하지만 그는 주님께 의해 그곳의 멸망이 유보되자 분노하고 말았다. 우리는 누군가를 경멸하게 되면 그를 가르쳐 주고 도와주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의 결점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다. 주님은 모든 이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다.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은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셨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러앉아 자아 만족으로 자신의 문을 걸어 잠그게 되면, 우리는 마치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가 스스로 초막을 치고 앉아 있는 모습과 같아지는 것이다. 요나가 서늘하도록 자라 올라 그늘을 제공한 아주까리(박넝쿨)처럼 스스로를 꽤 중요한 인물로 혹은 자신이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고 하는 자기만족에 빠져든다면, 결국 그는 스스로의 의구심과 불협을 이루는 생각들로

인해 파멸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잊고 다른 이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노력할 때만이
한없이 행복해 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 1반

우선 요나서의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간략히 정리한 후 4장을 다룬다. 우리가 설사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고통 받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 도덕적으로 볼 때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요나의 잘못된 태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만민을 위하고 있음을 명심하도록 한다.

이스라엘 왕국시대에 요나라는 예언자가 살았다. 예언자란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을 말한다. 당시
요나는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성실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어느 날 주님은
그에게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 경고할 것을 분부하셨다.
그러나 요나는 다른 유다 백성들처럼 이스라엘인이 아닌 자들은 경멸하여 니느웨로 가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는 도망가서 주님으로부터 숨을 작정이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명령 받았을 때 숨거나 다른 핑계를 내세워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요나가 주님의 명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승선한 배는 큰 풍랑을 만나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한 결과 배가 위험에 처한 요인이 요나 때문이라고 밝혀졌다. 선원들을 회개하며
자신을 물에 던지라는 요나의 요청에 따라 그를 물에 던졌다. 그러자 곧 풍랑이 멎었다.

물에 빠진 요나는 큰 물고기에 의해서 삼켜졌고, 물고기의 배안에서 사흘 동안을 밤낮으로 지낸
후 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것은 모두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요나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야
비로소 주님의 메시지를 니느웨인들에게 전달할 준비가 되었다. 니느웨의 사람들에게는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주님의 예언자가 이전에는 없었다. 요나가 그들에게 예언의 말을 전하자 그들은
요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말을 믿고 그들의 죄를 회개 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요나의 예언에 있었던 것과 같은 멸망을 그곳으로부터 유보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만약 우리가 요나와 같은 상황에 처하여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벌을
면하게 되는 것을 볼 때에 기뻐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솔직한 대답은 ‘아니다’ 일 것이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들이 벌 받는
것을 볼 때 내심 기뻐했다.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역시 그와 같은 경험이 있지
않았는지 반성해보아야 할 것이다.

요나는 주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받아 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근처의 산으로 가서 니느웨의 근왕을 지켜보고자 했다. 그가 햇볕아래 앉아 있으면서 고통스러워하자 주님은 박넙쿨이 자라서 그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도록 하셨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에 박넙쿨은 말라 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요나는 몹시 화를 냈고, 이내 주님께 야단맞게 된다. 주님은 니느웨에 사는 생명들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박넙쿨을 사용하신 것이다.

제 2반

요나에 관한 본문의 이야기를 확인해 본 후 그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 그리고 순서를 확인하면서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본다. 또한 본문이 주는 간단명료한 교훈도 언급한다.

우리의 성경에서 요나서는 소 예언서들 중 다섯 번째에 놓여져 있다. 소 예언서들은 저자가 살았던 연대에 따라 배열되어 있지는 않다. 그 예로 요나는 소 예언서의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이른 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추정되는데, 이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엘리사 이후 첫 번째 예언자였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열왕기하를 통해 요나가 주님의 예언자로서 왕들에게 오랫동안 인정받으며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에게 예언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요나의 예언들은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의 일부로 기록되지는 않았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 안에 기록되도록 선택하신 모든 것들은 전 시대의 만민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설사 요나서가 요나라는 개인에 관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라도 그 안에 우리 모두를 위한 예언과 깊은 교훈들이 실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성서를 거듭 공부해 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들을 열어 주신다. 우선 마태복음 12장 38-41절과 누가복음 11장 29-32절을 읽고 요나서에 담긴 깊은 의미를 살펴해보도록 하자.

많은 사람들은 요나서를 단지 “요나와 고래의 이야기”라고 이해한다. 그리고 마지막 3장과 4장 곧 본문이 주는 교훈을 배우기 위해 요나서를 읽는 것을 경시해 버린다. 우리는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흔히 알던 고래가 사실 주님이 요나를 삼키도록 준비하신 ‘큰 물고기’였음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의 어느 구절에서도 고래로 불리지만, 이는 그리스어의 잘못된 번역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큰 물고기’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 번역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해야 하는데, 이는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설사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본문을 공부하는 데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외쳐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는데, 고대 히브리인들은 아시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었다. 그래서 요나는 그곳으로 가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지중해에 있는 먼 항구 다르싯으로 가는 배를 타면 주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탄 배에 큰 폭풍을 보내셨다. 그 배의 선원들은 누구의 과오로 인해 폭풍이 오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는 요나에게 떨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요나는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다에 빠진 그는 죽지 않았다. 이는 주님이 그를 삼키도록 큰 물고기를 준비해두셨기 때문이다. 그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내면서 자신의 죄과를 인정하게 되었고, 주님의 뜻에 반대하여 자신의 뜻을 두어서는 안 됨을 깨달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이 이러한 교훈을 자신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그분께 순종하기로 약속했다. 그리하여 물고기는 그를 해안가에 토해 냈고, 그는 니느웨로 향했다.

니느웨는 성서에서 역사 깊고 유명한 도시인데, 그 지명은 창세기 10장 11절에서도 언급된다. 그곳은 고대 말쑤의 일부도 존재했던 것이다. 니느웨는 아주 큰 도시였는데, 이는 고고학적 발굴로 드러난 그곳의 옛터 주변의 길이가 60마일이었음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성의 중심부까지 가는데 하룻길의 도보 여행이 됐을 것임도 이해할 수 있다.

요나는 주님께 순종해야 함을 배웠지만,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그의 감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 큰 적의 도시가 파괴될 것을 보게 될 것으로 짐작했고, 그 도시에 내리는 자신의 예언도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간혹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을 보고 싶어 하기도 한다. 본문은 이러한 느낌을 결코 가져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행복해 질 수 있는 더 나은 마음의 상태를 갖도록 바라신다. 만약 우리가 더 나은 것을 배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려 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는 벌을 내버려두신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아야 한다. 이런 연유로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분을 매달은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셨던 것이다. 에제키엘서 18장 23절의 “그가 못된 행실을 한 자라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이라도 그 가던 길에서 발길을 돌려 살게 되는 것이 어찌 내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구절을 되새기며 본문의 공부를

마무리 짓도록 하자.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의 공부를 정리해 보자.

- * 소 예언서는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 소 예언서의 첫 책과 마지막 책은 무엇인가?
- * 소 예언서는 성경의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
- *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 * 니느웨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었는가?
- * 왕은 무엇을 했는가?
- * 왕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했는가?
- * 주님은 니느웨에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 * 요나는 니느웨가 재앙을 면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는가?
- * 요나는 니느웨의 근왕을 살펴보기 위해서 어디로 갔는가?
- * 주님은 그에게 그들을 주기 위해 무엇이 자라도록 하셨는가?
- * 무엇이 박멸될을 파괴시켰는가?
- * 이에 대해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 * 그러자 주님은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제 3반

일반적으로 우리는 요나와 같이 자연적인 감정을 갖기 쉽다. 하지만 자연적인 감정은 사실상 무가치하며, 때로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한 감정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기독교인으로서 자기가 싫어하는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본문인 요나서는 소 예언서들 중에서 대부분의 교인들 혹은 교인이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요나서가 전체적으로 대화체 형식의 예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사람들은 요나서의 이야기들을 믿지 않으며 비웃기도 한다. 본문으로 선택 되지 않은 1장과 2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반면 일부 사람들이 요나서를 불신하도록 하는 데에 근거를 주기도 한다. 이것은 사실 요나를 삼켰던 큰 물고기를 고래라고 번역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의 잘못된 그리스어의 번역에 기인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일부

사람들이 고래의 목구멍을 사람이 통과할 수 없다는 과학적인 사실을 토대로 요나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요나서의 원어인 히브리어나 복음서의 원어인 그리스어에서의 이 단어는 단지 큰 물고기 또는 바다 생물을 의미한다. 요나서에서는 “주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고 기술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염두 한다면, 우리는 요나가 겪은 일이 결코 의심할 수 없는 기적에 속함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게 되는 어떤 비판적인 말에 대해서도 똑바르게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사항도 전할 수 있게 된다.

소 예언서의 연대순은 성경의 시대적 순서와는 꼭 일치되지 않는다. 이는 일부 소 예언서들이 언제 어디서 쓰였는지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는 다른 소 예언서들 보다 이른 시대에 속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요나가 엘리사가 죽은 후 있었던 첫 번째 예언자였다는 것과 그가 이스라엘 왕국에서 예언했고 주님의 예언자로서 당시의 왕에게도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나는 요나서에 기록된 것 이외의 다른 예언들도 했었을 것이다. 요나는 자신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는 주님의 성실한 예언자로서 임무를 다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는 전달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나 이 부분이 예언서들의 일부로 수록되도록 선택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요나서가 단지 고대 히브리인이나 니느웨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전 시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9-41절을 보면, 주님께서 요나가 3일간 주야로 큰 물고기의 뱃속에 갇혀 있었던 일은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후 무덤 속에서 3일간 계심에 대한 예언이라고 직접 밝히고 계심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9-32절을 보면, 주님께서 전도하실 때 사람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요나에 관한 기적을 언급하심을 알 수 있다.

요나와 큰 물고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요나서 뒷부분인 3장과 4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요나는 그의 경험을 통해 주님의 뜻에 반하여 자신의 뜻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따라서 그는 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 순종을 약속했다. 그래서 그는 물고기의 입에서 해안가로 토해 졌을 때 니느웨로 가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분의 명령을 순종했다. 그러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바대로 요나는 이방인인 아시리아 사람들을 싫어해서 주님의 명령을 회피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그의 감정은 후에도 바뀌지 않았다. 니느웨는 아주 큰 도시로서, 창세기 10장 11절에서의 고대 교회시대에서도 엿볼 수 있는 역사 깊은 도시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도 이 도시의 옛터가 원경 60마일정도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요나가 도시 중심부까지 열심히 걸어서 하루가 꼬박 걸렸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시리아란 이해성의 추론적인 면을 표현한다. 스웨덴북은 “니느웨란 계발되지 않은 이해성에 속한 애매모호함과 무지로부터 근거된 감각적인 오류에서 비롯되는 거짓들을 표현한다”라고 설명한다(천국의 신비 제 1188항).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계발시키도록 보내졌던 것이다. 그들의 죄는 말씀에 관한 무지로부터 비롯되었는데, 그들은 진리를 듣고 난 후 회개했다. 따라서 스웨덴북은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그들이 반기로 예정된 벌을 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교훈은 성경 전체에서 전하고 있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즉, 무지로부터 행해진 잘못은 비록 피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까지는 상처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옳고 그름을 명백히 알고 행한 잘못은 무지로 인해 행해진 잘못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게 되므로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음을 보고 분노했고, 자신의 경험과 삶이 헛되고 쓸모없다고 느꼈다. 이것은 그가 예언자로서의 권위와 명성을 염두 하면서도 한편으로 니느웨인들이 멸망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나의 두 가지 감정들은 모두 무가치한 것들이다. 우리 역시 이러한 감정들에 유혹되므로 그의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얻게 된다. 우리는 자신이 특별히 싫어하는 자가 잘못을 행하면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그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저것 좀 봐. 내가 저렇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했지. 인과응보지 뭐.”라고 으스스대며 말하도록 시험되기도 한다. 본문 4장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감정이 기독교적인 삶에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실감하도록 해준다.

요나는 도시 밖으로 나가 정황을 살펴보기 위해 초막을 세우고 앉아 있었다. 우리는 때로 경멸하는 자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자아만족이라는 안전한 초막 안에 앉아 그에게 일이날 일을 관망하기도 한다. 요나에게 그들을 주도록 자라 올라운 박 넝쿨이란 요나가 과거부터 가졌던 거만과 그의 불친절 안에 자리 잡은 자기자랑이라는 악한 심정 상태를 표현한다(여기서의 박 넝쿨이란 식물은 잘 시들거나 시들어 죽어 버리는 이주까리유의 식물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 식물을 쏴아먹어 버린 벌레란 악에서 비롯되는 거짓을 말한다. 그래서 벌레가 박 넝쿨을 쏴아먹었다고 함은 이기적인 사람이 안전함을 결코 오랫동안 느끼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나쁜 의도만을 염두하며 산다. 그리하여 그들의 상상은 뜨거운 열풍과 같이 불어 닥쳐 그들이 가졌던 위로감마저 파괴시키고 만다. 따라서 그에 수반되는 분노와 원망은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쬘인 해처럼 되어 스스로를 태워버리고 만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늘 자신만을 위한 것, 특히 자신의 안전감과 중요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본문 마지막 절에서의 요나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요나의 감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열망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얼마나 상반되는가를 보여준다.

기본 상응 공부

니느웨 = 무지한 사람들의 감각적인 오류에서 비롯된 거짓들
아주까리(박넝쿨) = 요나 속에 든 악
벌레 = 악에서 비롯된 거짓

제 4반

심정에 잠재된 이기적인 사랑의 미묘함 그리고 이기적인 사랑을 미묘하게 부추기는 거짓 사상과 태도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요나서는 성서의 다섯 번째에 속해 있는 소 예언서이다. 다섯 번째라는 것은 연대순에 의한 것은 아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요나가 이스라엘에서 주님의 예언자로 활약했음을 알 수 있다. 실상 요나는 엘리사의 사후 곧바로 예언했으므로, 소 예언서의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이른 시대에 속했던 인물로 추정된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의아해 하거나 그 내용 자체를 비웃기도 하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서 요나에 관해서 가르치시는 사항, 즉 요나의 경험이 당시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거절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삼일 동안 무덤에 계실 것임을 예언한 것이라는 내용을 미처 읽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마태복음 12:38-41, 누가복음 11:29-32). 새교회는 스웨덴복음의 많은 확증을 근거로 요나의 이야기가 진정한 예언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요나서의 내용이 믿기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과거 마태복음 번역의 일부에서 “고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서 비롯된 불신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원어인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에서 사용된 단어는 단지 큰 물고기만을 의미하며 요나서에서 “야훼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라고 언급된 것을 안다면 이러한 의심은 갖지 않게 될 것이다(요나 2:1).

본문은 요나서의 후반부에 속하는데, 1장과 2장 보다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요나가 주님의 눈앞을 벗어나 도망치려고 했던 까닭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그분의 명령을 수행함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구약과 신약성서를 망라해서 거듭 발견되는 사항은 고대 히브리인들이 자기 민족 외의 사람(이방인)들을 경멸했었다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계시록 설명」 제 401-36항에서 “예언자 요나 역시 위와 같은 히브리 국가 출신이어서 니느웨로 가게 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의 국가가 말씀을 가져서 그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 즉 그들이 일컫는 이방인들을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교회 밖의 사람들이 ‘니느웨’라는 지역으로 의미되었다. 하지만 유대 국가는 다른 이들보다 더 자아사랑과 이 사랑에서 비롯된 거짓 속에 빠져 있어서 자신들 외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리하여 그들은 이방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요나는 유대 국가의 이러한 속성을 표현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나누어주라고 하신 명령에 분노했던 것이다. 어찌됐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된 경험으로 인해 주님께 순종하게 되었지만, 그 순종은 억지로 인한 것이어서 요나의 심정까지는 변화시키지 못했다.”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우선 본문에서 묘사되는 시험이 이스라엘의 국가나 요나라는 개인의 속성에 한정 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속성에 관한 가르침이다. 요나가 예언자로서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단지 4장에 불과한 그의 경험에 관련된 이야기만이 기록된 까닭은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보다 명석하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속성인 자연적인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설명하자면, 자신의 가문이나 지식을 월등하게 여기면서 예술적인 분야에서의 자신의 취향 심지어는 의복이나 음식에 대한 자신의 취향까지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취향과 다른 사람들을 뒤틀린 시각으로 보며 겉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할지 모르나 마음속으로는 자신과 다른 이들을 경멸하는 습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사실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 편이 적당한 표현일지 모른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를 많이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인간의 태도들에 관한 가르침도 주고 계신다.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극명히 질책하는 사항 역시 거만함이나 자신이 잘났다고 인식하는 우월감이다.

요나와 아주까리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속에 깊이 틀어 박혀 있는 악들을 우리의 눈앞에 보여 주시고 그 악이 기독교인 곧 주님의 제자요 사도라는 이들이 실제 지녀야 할 원리들에 반대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주님의 방법 중의 하나이다. 니느웨가 장차 어찌될 것인가를 볼 심산으로 니느웨 시내를 빠져나가 앉아 있는 요나의 모습은 자신보다 열등하게 여겨지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갖고 싶지 않아 그들에게서 조금 떨어져 있으면서 단지 호기심만으로 그들을 관찰하는 우리 속의 경향성

을 의미한다. 자기 안식처로 요나가 만든 초막이란 자기만족이 우리 속에 들어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 급속히 성장하여 그들을 선사해 요나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해준 아주까리(박넝쿨)란 처음에는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것 같은 거만이라는 악인데, 우월감은 우리 속의 모든 것에 거짓 사상을 인식시키고 만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신 속의 자만함을 만족시킬 선이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믿도록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타인들의 의도 혹은 생각들을 오판하거나 갖은 무례함을 상상하면서 자신의 존엄성을 위협한다고 여기게 된다. 이는 예언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사랑한 요나가 해마져 내리 쫓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느낀 모습과 같다. 이런 거짓 사상이란 아주까리를 쫓아 먹은 벌레들이며, 기절시킬 정도로 내리쬐이는 햇볕이란 요나 속의 자아사랑이 밖으로 노출되어 스스로가 그것을 느끼는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은 마지막 두절에 극명히 나타나 있어서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요나는 “어찌하여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요나는 자신과 세상적인 영예만을 쫓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나에게 주님은 “너는 이 아주까리가 자라는데 아무 한 일도 없으면서 밤사이에 죽었다고 해서 그토록 아까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즉, 지상적인 모든 것들과 같이 요나 속의 것도 하룻밤 사이에 죽어지는 하찮은 물건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주님은 인간의 영혼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데, 그 영혼의 선악에 관계없이 똑같이 지켜보고 계신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분의 사랑은 세상적인 지위, 교육수준, 재력, 그분의 진리에 관한 지식의 유무 혹은 올바른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노력의 정도에 관계없이 똑같은 것이다. 즉, 그분은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별이란 단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고 가는 우리 속의 잘못된 속성을 다른 방법으로 인식하지 못할 때에 허용하실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가 못된 행실을 한 자라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이라도 그 가던 길에서 발길을 돌려 살게 되는 것이 어찌 내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에제키엘 18장 23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하셨다 (마태복음 20:25-28).”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본문의 공부를 마무리 짓도록 하자.

제 5반

스웨덴본의 저서에서의 인용문과 더불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한다. 요나의 이야기에서 주는 가르침은 세상적인 거짓 평가를 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통해 예언자 요나가 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2세 때, 즉 엘리사가 죽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살았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왕에 의해 주님의 예언자로 인정받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예언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요나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록하시기로 선택한 예언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요나서는 예언자 요나의 경험에 관한 것인데, 그 중요성은 마태복음 12장 38-41절과 누가복음 11장 20-32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언급하고 계신다.

주님의 증거가 있고 성경의 다른 기적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요나의 이야기를 불가능한 일로 여기며 한쪽으로 젖혀 두려고 하는 이들도 있다. 이는 과거 성서 번역에서 마태복음 12장 40절의 경우 “고래”라고 잘못 번역된 것에서 근원된 것으로 추측된다. 오래 전 Revised Standard Version도 잘못된 번역에 속하나 최근에 정정되어졌다. 반면에 한국 성경은 옳게 번역되어져 있어서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나서에 관한 히브리어 또는 마태복음에 관한 그리스어의 경우 큰 물고기 또는 바다 생물을 의미함을 재고하도록 하자. 스웨덴본 역시 그의 일기에서 요나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에서 요나의 이야기를 불신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 이야기를 비웃는 사람들을 접하게 될 때 이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요나의 이야기에 매우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본은 「천국의 신비」 제 8481항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있는 선 안에 든 악을 비호하는 거 것이 본문의 ‘벌레’로 비유된다. 그 이유는 거 것이 벌레처럼 쏴아먹어 괴롭히기 때문이다. 천국을 만드는 것에 두 가지가 있듯이, 지옥을 만드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란 악과 거짓이다. 지옥에서 괴로움은 거짓으로부터인바 ‘벌레’에 해당되고, 악으로부터의 괴로움은 ‘불’로 비유된다.” 라고 설명한다. 이사야서 66장 24절 또는 마가복음 9장 43-44절을 읽어보면 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니느웨라는 수도가 있는 아시리아 국가는 마음의 추론하는 측면을 표현한다. 「천국의 신비」 제 1188항에서는 “니느웨가 계발되지 않은 회미한 이해성에 따라 있어지는 감각적인

오류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의미함은 요나가 니느웨로 보내지고 그런 상태에 있는 그 도시가 용서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설명된다.

위에서 스웨덴북은 본문에 있는 벌레나 뜨거운 열풍이 가진 의미인 악과 거짓은 거의 모든 사람이 피하기 힘든 시험으로서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험이라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서, 그 시험이란 자신이 세운 본보기를 마치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표준인 낭 착각하는 것과 자신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게 움직이거나 자신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헐뜯거나 비난해버리는 것을 말한다. 스웨덴북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시험이 심각한 악임을 인상 깊게 기억되도록 그의 저서 곳곳에서 이에 대해서 거듭하여 지적하고 있다. 그 중의 한 예를 들자면, 그는 「천국의 신비」 제 4949항에서 영계에 있는 어떤 이들 곧 “발바닥 밑에 거하는 이들”에 관하여 “이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계속 미끄러져 원위치에 놓이고 만다. 나는 이 사람들이 남들을 자신들과 비교하면서 경멸해온 자들이라고 들었다. 그들은 일종의 우둔함 속에 있는 자들이다. 그 이유는 이런 거만함은 천국의 빛 즉 총명을 소멸시키고 질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되어 니느웨에 주님의 메시지, 즉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된다”라고 선포하여 니느웨의 파멸을 경고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우쭐대면서 그들의 멸망을 지켜보려고 했다. 즉, 그는 자신이 주님의 예언자여서 스스로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착각했던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마음 상태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단 일초라도 행복을 느낄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상대방의 언행에서 공격할 꼬투리를 찾기 위해 자신 속의 거짓된 계산에 골몰하며 자신이 경멸하는 이들을 단번에 찢러 버릴 수 있는 건수만을 찾는 데에 분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게 되면, 우리는 상대방 속에 있는 선한 특질을 인식하고 음미함에서 비롯된 진정한 기쁨들을 놓쳐버리게 된다. 우리 속의 “벌레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이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려는 우리의 경향성이 우리가 지닌 가장 미묘하고도 끈질긴 적들 중의 하나임을 항상 염두 해야 할 것이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경향성 때문에 겸허함과 완전한 사랑에 관한 본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5-28절인데, 우리는 이 구절들을 명심해야 한다. 주님은 당신이 가장 위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를 섬기셨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당신을 못 박은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셨다. 주님은 우리의 의표를 찢러 우리가 당황하는 모습에 쾌감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성공의 길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든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데 기쁨을 느끼신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하고 명령하셨다(마태복음 10:16). 이와 똑같은 교훈은 예제키엘 18장 20-24절에서 우리에게 명확히 전달되고 있다. 앞서 다윗과 솔로몬 편에서 살펴본 바대로, 우리는 자신이 가장 슬기롭고 위대해서 어떤 거짓된 생각이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지점에까지 결코 도달할 수는 없음을 늘 되새겨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를 쏘아 먹는 “벌레”가 모습을 감춘 채 드러누워 있는 장소가 우리의 자만심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된 두 가지 성서 구절들을 읽어보면서 본문의 공부를 마무리 짓도록 하자.

예제키엘 18장 20-24절: 죽을 사람은 죄를 지은 장본인이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받거나 아들의 죄를 받거나 하지 않는다. 바로 살면 바로 산 보수를 받고, 못된 행실을 하면 못된 행실의 보수를 받는다. 그러나 만일 못된 행실을 하던 자라도 제 잘못을 다 버리고 돌아 와서 내가 정해 준 규정을 지키고 바로 살기만 하면 그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나는 그가 거역하며 지은 죄를 다 잊어 주리라. 그는 옳게 산 덕분에 살게 되리라. 그가 못된 행실을 한 자라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이라도 그 가던 길에서 발길을 돌려 살게 되는 것이 어찌 내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옳게 살던 사람이 그 옳은 길을 떠나 나쁜 일을 하여 나 보기에 역겨운 짓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따라 다니며 한다고 하자. 그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나는 그가 이전에 옳게 산 것도 알아주지 않으리라. 그는 나를 배신하여 지은 죄를 쓰고 죽을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25-28절: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하셨다.

참고 문헌: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제 401-36항: “그 국가 속에 있는 악은 나무로 하여금 시들도록 벌레가 쏘아먹은 아주까리(박녕쿨)로 의미되고 있다.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쬘인 해’란 그 국가에 만연된 자아 사랑을 의미하고, ‘뜨거운 열(동)풍’이란 그 사랑에서 비롯된 거짓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주까리를

쏟아먹은 벌레'란 이 악과 거짓의 파괴를 의미한다.”

질문 정리

- 1) 요나서는 대 예언서와 소 예언서 중 어디에 속하는가?
- 2) 요나는 언제 어디서 살았는가?
- 3) 왜 그는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려 했는가?
- 4)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5) 니느웨는 어느 나라에 위치했는가?
- 6)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 7) 왜 그의 예언은 적중하지 않았는가?
- 8) 요나는 기뻐했는가?
- 9) 그는 어디로 갔는가?
- 10) 그가 더위를 면할 수 있도록 무엇이 자랐는가?
- 11) 무엇이 아주까리를 파괴시켰는가?
- 12) 그래서 요나는 분노했는가?
- 13)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4) 아주까리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벌레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우리에게 있어서 요나의 태도와 유사한 점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1) 소 예언서 2) 엘리사 후에, 이스라엘 왕국에서 3) 너무 거만해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다 4) 태풍이 바다에 몰아쳤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다... 5) 아시리아 6)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된다” 7)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 8) 아니다 9) “시내를 빠져나가 동쪽으로 가서 앉았다” 10) 아주까리 11) 벌레 12) 예 13)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4) 안하무인적인 자아도취, 우월감 15) 안하무인적인 자아도취가 옳은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거짓된 생각 16) 자신의 방법이나 생각이 다른 이들의 것보다 낫다고 느끼는 경우

26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머리말

니느웨 사람들에게 대한 요나의 태도를 상기해 보면, 주님의 오심을 필요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복음서에 성탄절에 관한 외부 사건이 없음을 주시하고, 본문 첫 다섯 구절들을 암기해 두기 바란다.

성 서 본 문: 요한 복음 1장

1장: 1.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2. 말씀은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3.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4.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5. 그 빛이 어둠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 본 적이 없다. 6.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7.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8.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9. 말씀이 곧 참 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10.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11.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 주지 않았다. 12.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13. 그들은 혈육으로나 욕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다.

14.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15.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치기를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다”라고 하였다.

16.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17. 모세에게서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은총과 진리를 받았다. 18.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 하느님을 알려 주셨다.

19.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사제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이 때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20.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분명히 말해 주었다. 21.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यो? 엘리야요?”하고 다시 묻자 요한은 또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요?” 그들이 다시 물었을 때 요한은 그도 아니라고 하였다. 22.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말이 있어야 하겠으니 당신이 누군지 좀 알려 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소?” 이렇게 다그쳐 묻자 23. 요한은 그제야 “나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하고 대답하였다.

24. 그들은 바리사이파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 25. 그들은 또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는 거요?”하고 물었다. 26.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베풀 따름이요. 그런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분이 당신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27. 이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이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만한 자격조차 없는 몸이요.” 28.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르단강 건너편 벳다니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29.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한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30.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사실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었다. 31. 나도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는 것이었다.” 32.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 와 이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 33. 나는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성령이 내려 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 33. 나는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성령이 내려 와서 어떤 사람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인 줄 알라’고 말씀해 주셨다. 34. 과연 나는 그 광경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는 것이다.”

35.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 곳에 서 있다가 36. 마침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하고 말하였다. 37. 그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 갔다. 38. 예수께서는 뒤돌아서서 그들이 따라 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라빠, 묵고 계시는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하고 말하였다. (라빠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39. 예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시자 그들은 따라 가서 예수께서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은 거기에서 예수와 함께 지냈다. 때는 네 시쯤이었다. 40.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 간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41.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 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소”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42. 그리고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가자 예수께서 시몬을 눈여겨 보시며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앞으로는 너를 게파라 부르겠다”하고 말씀하셨다. (게파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뜻이다.) 43. 그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래아로 떠나 가시려던 참에 필립보를 만나 “나를 따라 오너라”하고 부르셨다. 44. 필립보는 베싸이다 출신으로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다. 45. 그가 나타나엘을 찾아 가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분을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나자렛 사람이오”하고 말하였다. 46. 그러나 그는 “나자렛에서 무슨 신성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하고 물었다. 그래서 필립보는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권하였다. 47. 예수께서는 나타나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하고 말씀하셨다. 48. 나타나엘이 예수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하고 물었다. “필립보가 너를 찾아 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너를 믿느냐? 앞으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하시고 51.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너희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과 하느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교리 요점

* 주님은 신성한 진리로 세상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느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이다.

- * 지상에서의 주님의 생애는 구약성서의 성취였다.
- *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진리를 우리의 생각과 행동 지침의 지도자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하느님의 진리에 순종하고자 원할 때에만 그 진리를 받을 수 있다.
- * 우리가 주님의 진리에 순종할 때만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은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밀접한 연관성과 구약성서를 알지 못하면 신약 성서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요나의 태도는 이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자랑하면서 다른 민족들을 경멸했고, 온 인류에게 가르치도록 위탁되어 온 영감 된 성서들을 자기들의 소유물처럼 간직하고자 했다. 요나의 시대 이후 수백 년 동안 사제들이나 서기관들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자신들의 중요성을 덧붙임해 주어서 인정하도록 고안한 각종 규정이나 법들을 덧붙여 두었다. 그리하여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단순한 선으로 사는 유대인들조차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영적인 어둠으로 세상이 덮여져 버렸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주님 스스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 속에 있는 신성한 진리를 살아내심으로써 인간 영혼에 빛을 가져다 주셔야 했던 이유이다. 이리하여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은 이들은 그분을 거절했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자 한 이들은 그분을 영접했다.

요한의 복음이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른 사항은 주님의 생애에 관한 외면의 이야기보다 그것이 가진 더 깊은 뜻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제 1장에서는 성탄절 이야기 대신에 하느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여기서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느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받아쓰게 한 영감 된 성서 속에 거하시는 하느님 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례자 요한은 본문에서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있다. 그분은 마리아를 통해 입으신 인성 속에서 살고 계신 동안 그분 스스로 당신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기도 했다. 또한 그분은 하느님을 그분의 아버지로서 칭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분은 인성속의 악을 극복하면서 인성을 조금씩 벗어 가시면서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라고 가르치셨다. 그래서 필립보가 “주님 저희에

게 아버지를 뵈게 하여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라고 간청했을 때에 주님은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나?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대답하셨다. 본문에서의 요한이 이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상천하의 유일한 하느님이시다.

제 1반

우리가 성경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까닭, 요한복음의 첫 절이 의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당신이 세상에 오신 것 그리고 교회 제단 위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본다. 또한 예배의 시작에 말씀을 열고 예배가 끝날 때 말씀을 닫는 이유도 살펴보도록 한다.

본문은 요나의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나는 그의 나라가 아닌 아시리아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요나의 뒤를 이은 그 땅의 종교지도자들 역시 요나의 이방인에 대한 감정을 계속 이어받았다. 사실 그들은 성경을 가졌던 유일한 자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 주위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거듭하여 말씀하시는 바를 따르지 않았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이 진실로 말하는 바를 알지 못했다. 이는 그들 대부분이 글 자체를 읽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학식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사이파인들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대신 자신들의 위세를 드높이기 위한 인간의 규정들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 성경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도달하실 수 없게 되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바리사이파인이나 서기관들의 거저된 가르침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주님의 탄생과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보다 더 위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본문 첫 절을 읽어 보도록 하자. 이 절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첫째, 성경은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이라는 것이다. 둘째, 주 예수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살아 내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느님이시라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진리를 살아내심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성경속의 진리와 그것이 뜻하는 바를 확실히 볼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우리가 무언가를 말할 때 그 말속에는 우리 자신이 들어있다. 즉,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알게 하는 방법인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각과 느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그분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오신 것과 같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제 2반

참고할 성경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공부하길 바란다.

우리는 본문에서부터 요한의 복음을 공부하게 된다.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였고, 주님께서 부르신 첫 네 명의 제자들 중의 한 명으로 “사랑 받은 제자”라고 불렸다. 그 이유는 그가 항상 주님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게 후에 아주 위대한 환상이 주어졌는데, 이를 기록한 것이 바로 계시록이다.

요한복음 첫 장에서는 세상에 오신 주님의 탄생에 대해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성탄절마다 듣게 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구절들과는 다르다. 새교회에서는 성경에 있는 책들 중 주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쓰인 책들을 “말씀”이라고 한다.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도 영감 된 책이라는 것과 유사한 표현인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는 때로 “왜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일까?”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우리는 매일 많은 말들을 사용하며 살아간다. 이는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타인과 소통하게 해 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는 말속에는 언제나 자신의 일부가 존재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분의 예언자들을 수단으로 말씀을 전달하셨다. 예언자들을 통한 말씀은 우리의 이해성에 적합한 모습으로의 신성한 진리인 셈이다. 그리고 우리의 말속에 우리 자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씀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는 교회 제단의 한 중앙에 언제나 말씀을 놓아두는 것이다. 또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펴놓고 예배가 끝나면 말씀을 닫는 이유도 이에 기인된 것이다. 우리는 말씀이 곧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이심을 염두 해 두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있다. 즉, 그분은 완전한 이타적인 사랑 그 자체이시며 완전한 지혜의 분이시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본문 1절에서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라고 기술된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주어진 말씀은 신성한 지혜 또는 신성한 진리인 것이다. 만물을 창조한 것은 다름 아닌 신성한 지혜를 통해서였다. 신성한 지혜가 이룬 모든 것 속에는 반드시 신성한 사랑이 존재한다. 우리가 이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 속이 지식이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계획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의 손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이리저리 지휘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계획 하도록 하는 원동력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바램이다. 요한이 14절에서 “말씀이 사람(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라고 말할 때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와 같이 인간이 글로 쓰인 말씀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말씀속의 신성한 지혜 또는 진리가 인간의 형체로 지상에 내려왔다는 것, 다시 말해서 신성한 지혜가 인간 육신으로 내려오고, 이 육신을 통해 주님은 이미 써진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실 수 있었다는 것이다. 후에 말씀의 부분이 된 복음서들은 주님의 생애에 관한 기록인데, 이 책들이 보존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려는 섭리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책들 속에서 계신다는 것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다. 이 요한에 대해서는 앞서 마가복음 편에서 자세히 공부했다. 요한은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확실히 해 두어야 할 사항은 예수님이 세상이 계시는 동안에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다는 것이다. 또한 하느님께서 그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도 말씀하셨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7-9절에서 볼 수 있다. 세상에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 신성한 진리가 아들이라고 불렸다. 그리고 그분 속에 있는 신성한 사랑은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만 보여 질 수 있었는데, 이 사랑이 바로 아버지라고 불린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언급되는 필립보는 본문의 필립보와 동일한 인물이다.

나타나엘은 열 두 사도의 목록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가 열 두 사도의 목록에서 필립보 바로 뒤에 언급되는 바르톨로메오일 것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바르톨로메오란 “달매의 아들”이란 뜻이다.

마지막으로 “와서 보라”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졌는데, 이를 주목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해진 까닭은 본문 9-12절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인 3장 19-21절을 참고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 구절들이 주님을 믿는 자와 그분을 믿지 않던 자들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더 나은 삶을 필요로 하고 그에 따른 진리를 발견하고자 한 이들은 본문에서 주님이 부르는 이들처럼 주님께 와서 보기를 열망했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꾸준히 받은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기적이고 자만심으로 가득 찬 이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 3반

본문에 대한 상응을 살펴본다.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셨는가’에 관한 주님에 대한 교리도 살펴본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기록한 주님의 생애를 공부하게 된다. 요한은 주님이 부르신 첫 네 명의 제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또한 그는 그분의 변모하심을 목격한 세 명에 속했고, 다른 제자와 분리되어 특별한 훈육을 받기도 했다. 열 두 사도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선택되고 그분을 섬기는데 사용되기로 작정한 우리속의 모든 자질들을 표현한다. 사도들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다. 이들은 믿음과 이타에 그리고 이타에로부터의 일을 표현한다. 요한은 “이타에의 선”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였고, 늙어서는 계시록에 기록된 환상을 받기도 했다.

하느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 주어졌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말씀은 그것을 받는 각 사람들의 심정과 지성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지녀서 그의 복음서는 세 가지 복음서들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 요한복음이 타 복음서들과는 달리 기적들에 대한 기록이 적고, 그가 분명히 알고 있을 법한 비유의 이야기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유다지역에서의 주님의 공생애와 그분의 지상생활 마지막 주간 동안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그 차이점의 예이다.

본문에서는 요한복음과 타 복음서들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본문의 첫 14절은 주님이 세상에 오신 사건에 관한 것이다. 이 구절들은 베들레헴, 요셉, 마리아, 목자 혹은 동방박사들에 관한 것은 알려주지 않고 있다. 반면에 그 구절들은 주님께서 육을 입으신 진정한 이유와 그 목적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써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오셨다. 새교회에서는 영감 된 성경을 “말씀”이라고 칭한다. 그 이유는 사실 예언자들의

서술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예가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이다. 또 다른 이유는 말이라는 것이 가지는 근본적인 의미와 그 쓰임새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말로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말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본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 속에 존재하게 된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단어는 우리 안에 있는 진리 또는 거짓의 형상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언어로 써진 말씀은 신성한 진리의 형상화인 것이다. 따라서 형상화된 말씀은 신성한 진리와 주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이다.

고대 히브리인들만이 구약성서를 가져서 그들에게 대대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명령되었었다(시편 96:3 참고) 그러나 그들은 요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방인들을 경멸했고 자신들만이 성경을 간직하고자 했다. 그들의 이러한 이기적인 거만함은 포로로 된 유다백성이 귀환한 후 수 백 년 동안 과도하게 자라 오르기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여전히 선한 이들, 즉 진리를 배우고자 갈망하며 진리에 순종하려는 겸손한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생격인 바리사이파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성경에다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많은 법들을 추가하여 말씀을 덮어 놓아서 사람들이 성경의 존재조차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은 마태복음 15장 6절의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핑계 삼아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이 위선자들아”라는 구절을 통해 보여 지고 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언어로 써진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인간에게 도달하실 수 없으셨다. 따라서 그분은 새로운 방법으로 그분의 진리를 세상에 주셔야 했던 것이다. 새로운 방법이란 그분 자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셔서 인간들 사이에서 살면서 그들에게 삶의 진정한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말한다. 즉, 14절에서의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다. 주님은 구약성서를 파괴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그분은 말씀인 신성한 진리로 오셨고, 이 말씀은 한 처음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곧 말씀이 바로 하느님이신 것이다.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주지 않았다.”라고 함은 당시에 말씀을 가진 이들이 주님을 거절했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을 거절한 까닭은 말씀이 진실로 가르치는 바를 알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자 그분을 영접한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는데, 세례자 요한은 그들 중에 속한다. 그는 두려움 없이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요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증거 했다. 하느님의 아들이란 신성한 진리를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이다. 세례자

요한에게 주어진 비둘기의 징조는 “믿음의 거룩함”을 표현하는데, 이 거룩함이란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인 믿음의 선과 진리들을 의미한다.

본문의 나머지 부분은 첫 제자들의 부름에 관하여 언급되고 있는데, 타 복음서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나타나엘은 열 두 사도들의 목록에서는 거론되지 않는 이름이지만, 그가 필립보의 뒤를 이어 언급되는 바르톨로메오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다. 그 역시 베드로가 시몬 바르요나 또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듯이 나타나엘 바르톨로메오였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우리는 이름에 상관없이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나타나엘이 부름 받았다는 기록만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무화과란 자연적인 평면에서의 선향을 표현한다. 그래서 이 상황은 나타나엘의 품성을 표현한다. 우리가 이 사건을 접하면서 기억해야 할 말씀은 “와서 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오래 전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기본 상응 공부

요한 = 이타애의 선 또는 일

빛 = 진리

세례 = 진리로 순수해짐

비둘기 = 믿음의 거룩 또는 믿음의 선과 진리

무화과 = 자연적인 선향

제 4반

본문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루되 교리적인 교훈을 주로 살펴본다.

요한의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다. 이는 요한이 사도라는 측면에서 이타애로부터의 선 또는 일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네 번째 제자였다. 그 이전의 세 사람들인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는 믿음과 순종 그리고 이타애를 표현하는데, 이는 거듭나는 질서이기도 하다.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는 먼저 진리를 배워 믿음을 갖는다. 그런 다음 진리에

순종하고, 그 진리를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를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타애로부터 삶을 일구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 상태는 지혜를 마음에 담은 이타적인 사랑의 상태이다. 주님은 이러한 단계에 이른 사람들에게 계발과 더불어 그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가실 수 있다. 그래서 요한의 복음은 외면상의 것들보다는 내면상의 것들, 즉 영적인 실재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요한의 세 서간문들 역시 속뜻은 없지만 여타 서간집들과는 다른 모습인 바, 그는 그 안에서 사랑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 받은 제자”라고도 불리는 것이다.

본문은 세 분과로 나뉘어져 있다. 첫 분과는 육신을 입으신데 대한 영적인 이야기인데, 이는 주님의 탄생에 관한 외면상의 이야기가 아닌 그분에 관한 것과 그분이 세상에 오신 까닭에 관한 근본적인 서술이다. 그리고 말씀이 그분의 육신이 되셨다는 것과 그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곧 하나님이셨음을 서술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것을 우리의 말을 통해 살펴보고록 하자. 우리는 매일 수많은 대화를 하면서 살아간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하는 말속에 존재하게 된다. 우리가 한 말들은 우리의 생각들이다.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떠 오른 이유는 생각들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바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 ← 생각 ← 바램의 역순으로 이뤄진다. 그래서 스웨덴북은 “사람이란 곧 그의 애정과 사고이다”라고 말한다.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육신은 단지 인간 세상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형체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주인은 생각과 애정이고 육신은 종의 신분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친구와 교통하고 싶을 때 그에게 글을 보내든지 말을 해야 한다. 영감 된 성경은 신성한 진리가 글로 쓰인 것으로서 써진 말씀이다. 그리고 육을 입으신 주님은 신체적인 인간 형체 안에 똑같은 신성한 진리가 형상화되어 있는 것인 바,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즉,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간들의 눈앞에서 직접 그분의 진리를 살아내 보여주시기 위함이란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이다. 당대의 사람들은 영적인 어둠속에 살고 있었다. 그 이유는 구약성서를 통해서만 신성한 진리를 배울 수 있었으나 바리새사도들이나 서기관들이 제멋대로 해석과 부가규정을 성경에 덧붙여 놓아 사람들이 더 이상 어느 것이 성경인가를 구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처럼 처참하게 된 성경의 위치를 회복시키시고, 그 순수성이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 신성한 진리로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다. 반면에 그분을 기쁘게 영접한 극소수의 사람들, 즉 진리대로 살고자하며 진리를 똑바로 알고자 갈망한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길을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아 그분을 거절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 18-21절을 참고하도록 하자.

두 번째 분과는 세례자 요한의 증거에 관한 것인데, 이곳에서도 주님이 세례 받으시는 광경 곧 실질적인 사건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주어진 징조인 비둘기가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에 속한다. 스웨덴북은 “주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눈에 보이는 그분의 인성이 그 인성 속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구별되도록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다.”라고 설명한다. 넓은 의미에서 아버지는 신성한 사랑을, 아들은 신성한 진리를 그리고 성령은 신성한 진행이나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행동은 이와 유사하다.

본문의 세 번째 분과는 제자 중 몇을 부르시는 대목이다. 우리가 이에 대해 상기할 수 있는 사항은 마태복음 4장에서의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라고 부르시는 광경일 것이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항은 안드레아가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과 그가 주님에 관해서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그들이 부름받기 전에 말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재구성이라는 단계를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거룩한 땅에 발을 딛기 전에 광야여행을 해야 했듯이 거둢에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복음서에서 재구성이라는 필수적인 단계를 세례자 요한의 설교가 의미하고 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다. 우리는 이로 인해 순종을 표현하는 안드레아가 요한의 제자였고 열 두 명의 사도들 중 안드레아가 주님을 제일 먼저 인식한 자였던 까닭을 이해할 수 있다.

나타나엘은 필립보가 주님에게 데려온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열 두 명의 사도들 목록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가 열 두 명의 목록에서 항상 필립보의 뒤에 언급되는 바르톨로메오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바르톨로메오란 “달매의 아들”이란 뜻이다. 바르톨로메오(Bartholomew)의 글자중 “Bar”는 아들이란 뜻이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시몬 바르요나라고 불린다. 본문에서는 그가 요나(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필립보 뒤에 언급되는 제자가 달매의 아들 나타나엘일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우리는 창세기 28장 12절에 있는 사다리에 관한 야곱의 꿈, 즉 사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느님의 천사들과 사다리가 지상에서 하늘까지 연결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 사다리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 그리고 천사들과 결합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의 말씀을 상징한다. 지금 주님은 그분 자신에 관한 똑같은 사항을 열거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구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주님이심을 함축하여 가르쳐주고 있다.

제 5반

주님에 관한 교리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기회로 삼는다.

복음서들은 주님의 강림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해 준다. 마태와 누가복음은 주로 강림에 대한 외부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요한복음은 강림의 본성과 의미를 다루고 있다. 전체적인 면에서도 요한의 복음서는 타 복음서들과 구별된다. 사실 요한은 그의 개인적인 변화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복음서를 쓰도록 영감(靈感)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가 다른 사도들과 구별된다는 것은 서간집만을 비교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요한의 서간문은 베드로의 것에 비해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랑과 신뢰를 권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적인 의미를 가진 책과 그렇지 않은 책의 차이도 짐작할 수 있다. 요한의 서간집을 읽는 독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이라는 한 개인의 말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같은 인물이지만 복음서에서는 요한이라는 저자가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간혹 계시록에서 인간 요한이 발견되지만, 그 책이 요한의 생각에서 비롯된 글이라는 느낌을 주는 대목은 한 군데도 없다. 오직 기록된 환상의 순수성만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을 뿐이다.

말씀을 담은 글자는 사도 요한에 관한 많은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는 제베대와 살로메의 아들로써 그의 형제 야고보와 고기를 잡던 중에 주님의 부름 받았는데, 이는 베드로나 안드레아의 부름과 거의 같은 때였다. 그는 주님의 변모하신 모습을 목격하도록 선택된 세 사람 중의 한 명으로, 회당장 야히로의 딸을 일으키시는 장면도 목격했다. 또한 그는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의 가슴에 기댄 사랑 받은 제자로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리아를 돌보도록 위탁받기도 했다. 이 밖의 기록들을 참조하면, 그가 주님의 승천 후에도 몇 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가 선교를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 주로 에베소 지역에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고령이 되었을 때 파트모스섬으로 유배되었는데, 거기서 계시록의 책에 기록된 환상들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가 부름 받을 당시 그의 나이는 25세였는데, 그는 대략 95세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가장 헌신적이고 열성적이면서도 주님의 추종자중 가장 영성(spiritual)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도 요한이 가지는 상응은 스웨덴북의 저서들에서도 상당히 많이 언급되고 있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믿음과 이타애 그리고 이타애로부터의 선을 표현한다(AC 2135). 그리고 요한은 “이타애로부터의 선들 또는 이타애로부터의 일들”, “선한 일이라는 측면에서의 교회” 또는 “단순히 선한 일” 등을 표현한다고 한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스웨덴봄이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자비심이나 선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천국의 신비」 10087-2항에서는 “요한으로 표현되는 이타애로부터의 선이란 자발적인 선으로서 선행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계시록 설명」 45항에서는 “가장 높은 의미에서의 요한은 교리적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선이 함유된 일이란 각자의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유발되어서 각자의 이해성 속에 든 주님의 진리에 의해 그 행동의 방향이 설정되어야만 함을 유추할 수 있다.

요한의 복음은 주님의 생애에서 인간의 측면보다 신성한 측면을 다루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인 안에 있는 신성한 사랑과 지혜가 인간들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주님의 공생애 중에서 의지의 높은 평면을 표현해 주는 유다지역에서 이뤄졌던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 대한 그분의 심오한 가르침을 세세하게 알려주는데, 특별히 그분의 지상생활 마지막 주간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종려주일에 있었던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 복음서의 제 12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로부터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 사이의 간격이 무려 6장이나 된다는 점이다. 요한 복음서는 타 복음서들에 비해서 기적들이나 비유들이 적게 기록된 반면 주님을 명백하게 인식하면서 내적인 삶에 응용할 수 있는 원리들에 대한 서술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강림에 관한 요한의 설명은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라는 서술에 함축되어 있다. 스웨덴봄은 「계시록 풀이」 200항에서 “모든 생각과 언어 그리고 글로 쓰여 지는 것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쓰는 당사자로부터 그 본질과 생명이 부여된 것이다. 즉, 그 사람의 본질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말 그리고 글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 속에는 주님만이 계신다.”라고 말한다. 본문은 제일 먼저 말씀이 창조자이신 하느님이심을 확증하고 있다. 이는 신성한 사랑이 신성한 지혜를 수단으로 하여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고 행동하고자 할 때 우리가 가진 지식과 생각을 수단으로 하는 것과도 유사하다. “만물은 신성한 지혜를 수단으로 하는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창조되어졌다(삶에 대한 교리 1항).” 본문에서는 말씀이 한 사람처럼 말해지고 있다. 이는 말씀이야말로 하느님의 참된 형체로서 그 안에 신성한 사랑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수단으로 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도 같다. 그래서 스웨덴볼은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사랑하는 마음(애정)과 생각이 곧 진정한 자아이며, 육신은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의 애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에 불과함을 알고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다음으로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하는 구절이 이어진다. 신성한 사랑은 자연계의 빛과 열이 태양으로부터 있는 것처럼 생명 자체이고, 신성한 지혜는 이 사랑으로부터 있는 빛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계발시키시는 근원되는 지혜의 빛이라는 것과 이 빛은 만민을 위해 있는 빛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이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 왔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 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 강경한 어조로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꾸짖고 계심을 볼 수 있다. 당시의 바리새이파인이나 율법학자(서기관)들은 은근히 자신을 높이도록 계산된 규정의 껍질로 성경을 덮어 씌워 놓아서 하나님의 계명이 이러한 인간의 전통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진정한 효과를 낼 수 없도록 해 놓았다. 그들이 주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그분이 그들의 전통을 끌어 내렸고 순수한 것만을 말씀하시며 그대로 살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속의 이기심과 거만함 그리고 위선을 저주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이유는 우리의 본체인 우리속의 애정이나 생각들 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우리의 모든 애정과 생각의 근원이 주님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속에 살게 되고 저 세상에서도 그분을 부인하는 곳의 일부에 있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지 않더라도 영혼들이 그곳에 가게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진 애정이나 생각 그대로 저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본문은 세례자 요한의 증언과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대목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 이야기 역시 타 복음서와 다른 방법으로 진행된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실제의 사건은 언급되지 않고, 비둘기의 징조가 주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임을 세례자 요한의 증언으로 기술되고 있다. 그리고 이 증언과 연관되어 본문 외의 다른 어느 곳에도 볼 수 없는 사실이 주어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안드레아가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 그가 주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왔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주님께로 인도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 그물을 버리고 나서기 전에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스웨덴볼에 따르면, 베드로는 믿음을 그리고 안드레아는

순종을 표현한다. “회개하라”는 요한의 메시지는 “와서 보라.”와 같이 주님을 가서 알아보고 인정하며 순종하여 그분을 믿는 쪽으로 인도해준다.

나타나엘이라는 이름은 열 두 사도의 목록에서는 거론되지 않는 이름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는 열 두 사도의 목록에서 필립보에 뒤이어 기록된 바르톨로메오일 것이라고 믿어진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이 본문의 첫 구절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이 구절은 창세기 28장 12절의 야곱의 사다리를 떠올리게 해 준다. 앞서 이 사다리는 말씀에 대한 그림임을 설명했다. 우리는 말씀을 수단으로 주님과 결합하게 된다. 이 구절에서 다시 주님이 말씀과 동일함이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후에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요한복음 14장 6절).”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뵈게 하여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라는 필립보의 말에 대한 주님의 “필립보야, 들어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나?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뵈게 해 달라니 무슨 말이나?...”라는 하신 말씀 직전에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각자 본문을 정리해 보기 바란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성경에 관한 교리」 제 100항: “주님이 어떻게 말씀이신지를 이해하는 자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이라고 부르는 말씀속의 이야기에 주님이 존재하시지 않으며 말씀을 수단으로 인간을 가르치고 계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설사 이 사항을 모른다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각자 자신의 사랑으로 존재하는 바 그 사랑은 각자 속의 선과 진리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인간은 이 사랑으로부터 사람으로 존재하는 바, 사람으로 존재하는 인간들 속에는 더 이상의 것은 없다. 천사나 영인들이 사람이라는 것도 인간이 자신들 속의 선과 진리라는 사실로부터 근원된다. 이는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모든 선과 진리의 본질적인 형상이 곧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이 신성한 사랑과 진리 자체이셔서 유일한 사람이시며 이로부터 우리가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요나는 누구인가?
- 2) 왜 그는 주님으로부터 달아났는가?
- 3)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4) 그는 니느웨에 어떤 예언을 했는가?
- 5) 왜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는가?
- 6) 요나는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가?
- 7) 그의 심정과 지성을 그려주는 어떤 사건이 그에게 있었는가?
- 8) 주님은 그 사건으로 요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
- 9)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은 말씀에 무엇을 해 놓았는가?
- 10)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억하고 있는가?
- 11) 영감 된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부를 때의 의미는 무엇인가?
- 12) 우리가 예배를 가질 때 성경을 제단위에 놓고 말씀을 열고 닫는 까닭은 무엇인가?
- 13)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가?
- 14) 본문에서 누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가?
- 15) 어떤 징조가 요한에게 주어졌는가?
- 16) 본문에서 어떤 사도들이 등장되는가?
- 17) 나타나엘은 다른 곳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려졌는가?
- 18) 주님이 세상의 빛이다 함은 무슨 의미인가?
- 19) “하느님의 아들”은 무슨 뜻인가?
- 20) 왜 만인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가?

질문의 답

- 1) 이스라엘의 예언자 2) 너무 거만하여 니느웨를 경고하지 않고 싶어서 3) 큰 물고기가 삼켰다 4)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된다” 5)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 6) 성이 났다 7) 박 넝쿨의 이야기 8)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9) 자기들 사상으로 말씀을 덮어놓았다 10) 성서 참조 11) 신성한 진리가 글로 표현된 형체 12) 주님의 현존에 대한 상징물 13)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되심 14) 세례자 요한 15) 비둘기 16) 안드레아, 베드로, 필립보, 나타나엘 17) 바르톨로메오 18) 그분은 인간의 지성을 계발해 주신다 19)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주님의 신성한 인성 20) 어떤 이들은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임

27

가나에서의 기적

머리말

우리는 성경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생애를 공부해야 하는데, 요한 복음서를 공부하기에 앞서 타 복음서에 있는 그분의 생애 주요 사건들을 재정리 해두어야 한다. 즉, 주님의 탄생, 이집트로의 피난, 나사렛으로의 귀환, 십 이세가 되던 해 성전으로 오신 주님, 세례 그리고 40일간의 광야에서의 시험에 관한 것이다. 또한 기적에 관한 것과 주님께서 기적을 수행하셨던 까닭을 살펴본 후 본문을 공부하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요한의 복음 2장 1-11절

2장: 1. 이런 일이 있는 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래아 지방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 자리에는 예수와 어머니도 계셨고 2. 예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고 와 계셨다. 3.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와 어머니는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다. 4.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5. 그러자 예수와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렀다.

6.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예식에 쓰이는 두세 동이들이 돌 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었다. 7.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마다 모두 물을 가득히 부어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여섯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8. 예수께서 “이제는 퍼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하셨다. 하인들이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었더니 9.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물을 떠간 그 하인들은 그 술을 어디에서 냈는지 알고 있었지만 잔치 맡은 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술맛을 보고 나서 신랑을 불러 10.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이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으니

웬 일이오!” 하고 감탄하였다. 11. 이렇게 예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갈릴래아 지방 가나에서 행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육의 어머니인 마리아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차차 신성화하신 후에 그것들을 점차적으로 벗으셨다.
- * 복음서에서 갈릴래이란 삶의 외부측면을 표현한다.
- * 우리는 영적인 인간이 되고자 하면 신성한 진리에 관한 우리의 자연적인 지식을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이 임하시도록 하여 그것들이 영적인 지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진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쁘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
- * 결혼이란 선과 진리가 하나 됨을 표현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우선 공생애 이전의 주님의 삶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주님은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셨고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 나사렛이었다. 그래서 주님은 헤로데의 유아 학살사건을 피해 이집트로 피하신 몇 년 후에 나사렛으로 되돌아오시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장하셨다. 주님은 삼 십 세 되시던 해에 요르단 강으로 가셔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사십 일간의 시험을 거치셨다. 이후 주님은 그분의 지상 생활에 있어진 공생애 동안 갈릴래아 해변의 가파르나움에 주거를 정하셨다.

주님의 공생애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마태와 누가의 복음에서 알 수 있다. 하지만 요한의 복음은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공생애 이전에 하셨던 일들을 추측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만, 그들이 상상해낸 이야기들은 진리가 없는 단순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복음서들은 이 세상에서 있었던 주님의 삶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서 기록 이상의 어떤 사실을 알기 위해서 골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항은 주님께서 그분의 큰 목적을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분은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시험을 날마다 겪으셨다는 것, 그분이 마리아를 통해 우리의 이기적인 인성을

입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느끼지 못하셨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모든 시험을 하나씩 극복해내심으로써 유한한 인성을 차차 벗어나시면서 신성한 인성으로 대체해 가셨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연유로 본문에서 마리아가 주님께 가지신 능력을 발휘해 보라고 청했을 때 그분께서 “여인이여,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를 글자대로 번역하자면, “저나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마리아를 꾸짖으시고자 하신 말씀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마리아 역시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인 것이다. 즉, 주님의 권능은 그분이 마리아에게 입으신 인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분 속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있는 신성한 인성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주님의 첫 기적은 그분의 능력이 초자연적임을 예증해 주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세상은 그분이 만드셨다”와 같은 말이다. 주님의 제자들은 단순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주님이 주실 진리를 원하며 그분을 믿었지만, 그들 스스로 진리를 발견해서 확고한 믿음으로 바리사이파인이나 서기관들의 논쟁에 직면하지는 못했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그들의 믿음을 확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고 확증하려고만 하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느님이심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의 기적들은 우리를 위한 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그들 각각이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해주실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삶 안에 들어와지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돌 항아리 여섯 개”를 가지고 있다. “돌 항아리 여섯 개”란 공부나 명상으로 인해 의미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말씀의 일반적 개념에 관한 지식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더욱 배우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요구사항이다. 그런 다음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퍼내라.”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진리에 대한 당신의 지식을 일상생활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사용하며 그 진리를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도 나누어주라는 뜻이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삶에 사용하기 위해 더욱 정진해야 한다. 퍼 올리는 과정에서의 물은 이미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게다가 아주 질이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우리가 진리를 사용할 때만이 진리는 우리의 이해성 속에서 변화되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제 1반

주님의 어린 시절을 간략히 상기하면서 본 반을 진행하도록 한다.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곳에서 성장하시지는 않았다. 헤로데 왕은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리라는 예언 때문에 그분을 죽이고자 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통해서 천사로부터 마리아와 예수를 이집트로 데리고 가서 한동안 체류하라는 분부를 받았다. 그들은 헤로데가 죽은 뒤 다시 되돌아 왔지만,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서 거주했다. 그 이유는 그곳이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이었기 때문이다. 나사렛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위치한 유다지역보다 먼 북쪽인 갈릴래아 지역에 속한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다.

주님은 열 두 살 되시던 해에 과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그리고 그분은 삼 십 세 되시던 해에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세례자 요한 앞으로 가셨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오는 환상이 요한에게 주어졌다. 주님은 세례 받으신 후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과 투쟁하며 사십 일을 보내셨다. 이리하여 공생애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었다.

세례자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린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헤로데처럼 주님의 오시기를 원치 않았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실제로 약속된 구세주가 아니라고 믿도록 무척 애썼다. 어찌됐던 주님은 단순하고 선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준 의심을 극복해내도록 기적들을 수행하시기 시작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 기적을 수행하셨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기적이란 무엇인가?
- * 그분은 어디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는가?
- *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는 왜 가나에 있었는가?
- * 몇 개의 물 항아리가 거기에 있었는가?
- * 각 항아리의 용량은 얼마나 되었는가?
- * 주님은 하인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셨는가?
- * 물을 퍼내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제 2반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성서 지도로 주님의 생애를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마태와 누가복음서에서 공부했던 주님의 초기 생애를 상기해 보자.

- * 주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 * 그분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 * 왜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갔는가?
- * 이들의 고향은 어디인가?
- * 주님이 탄생하신 뒤 어떤 위험이 발생했는가?
- * 주님은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어디에 체류하셨는가?
- * 주님은 어디서 성장하셨는가?
- * 그분은 열 두 살 되신 해에 어떤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는가?
- * 그분은 당시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 * 누가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시키도록 미리 보내셨는가?
- * 주님은 언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가?
- * 왜 주님은 가장 먼저 세례자 요한에게 나아 오셨는가?
- * 주님은 세례 받으신 후 사십 일 동안 어디서 지내셨는가?
- * 거기서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매해 주님께서 공생애 이전의 준비 단계로서 가졌던 주님의 초기 생애에 관한 것을 공부한다. 주님 시대의 거룩한 땅은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는 성서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문은 주님이 공생애를 개시하신 후 베푸신 첫 번째 기적에 관한 것이다. 기적이란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말한다. 앞서 우리는 구약 성서를 공부하면서 몇 가지 기적들을 공부했었다. 홍해와 요르단 강이 갈라짐, 광야 여행 동안 만나를 주셨던 것, 호렘의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옴 그리고 시리아 사람인 나아만의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것 등이 그 예다. 주님은 지상에서의 그분의 생애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다. 또한 그분은 제자들에게도 그분의 이름으로 기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주님의 추종자이라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 혹은 주님의 추종자들 대부분이 이러한 능력을 가졌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이리하여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기적을 수행했던 이유와 오늘날 기적이 수행되는 것이 그분의 질서에 어긋나는 까닭을 알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단순하고 선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분을 가까이 영접했음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들 역시 바리사이파인이나 서기관들의 지배하에 있었고, 이들의 지배자들인 바리사이파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공생애가 잘 되어가기를 원치 않았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심으로 가득 찬 지배자들과 선한 이들이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해 논쟁하게 되면, 단순하고 선한 이들은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받칠 재간이 없었다. 주님의 기적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분이 하느님이시라는 증거로 내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주님을 보지 못했으나 그분을 믿고자 한 이들을 확신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한 증거로서 기적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이해성을 통해서 주님이 하느님이심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도 가지고 있다.

주님이 지상에 계신 동안 기적을 수행하셨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주님의 기적들은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복음서의 모든 기적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 그 예를 소경을 살펴보자. 소경이란 진리인 것을 보는 데 무능력함을 표현하는데, 이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인 “저 친구가 눈이 멀었으니까 저런 일을 행할 수밖에...”라는 표현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때의 소경이란 진짜로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아주 명백한 사실을 보는 것 또는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기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상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진리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다. 말씀에 있는 모든 기적의 의미들은 차후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물은 진리를 상징하고,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배운다. 때로 우리는 그 진리들을 마음속에 담아 두는데, 이는 본문에서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모습과 같다. 하인들은 물을 채우는 동안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것임을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해성에 담아둔 진리를 배울 당시에는 그것들이 우리 삶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 다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퍼 올려라.”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 둔 진리를 우리의 이해성 속에서 꺼내어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이웃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고자 노력할 때 단순한 진리였던 물은 우리 영혼을 위한 진리인 “포도주”가 되는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주님의 첫 기적은 어디서 베풀어졌는가?
- * 가나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 * 누가 주님과 함께 가나로 갔는가?
- * 왜 그들은 거기로 갔는가?
- * 마리아는 어떤 일로 주님께 도움을 구했는가?
- * 사람들은 몇 개의 물 항아리를 가지고 있었는가?
- * 주님은 하인들에게 무엇을 지시하셨는가?
- * 물을 퍼내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잔치 맡은 자는 그 포도주에 관하여 뭐라고 품평했는가?

제 3반

본문의 구절은 성경 공부로서는 매우 짧지만, 그 구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살펴본다.

앞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과 비교하여 갖는 상이점을 살펴보았다. 요한복음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주님이 세상에 오셨음을 서술한 후 즉시 그분의 공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주님의 공생애 이전의 삶에 관한 사실들을 다소 알아보기 위해서는 마태와 누가복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후 8일이 되자 그분은 구약성서의 법에 따라 할례를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다. 이때에 나이 많은 시므온과 여 예언자 안나는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증거 했다. 후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러 왔는데, 당시 유다지역의 왕 헤로데는 그들의 방분으로 베들레헴에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헤로데는 새로 태어난 왕을 죽일 작정을 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도록 꿈을 통해서 경고되었다. 그들은 헤로데가 죽은 뒤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 가 정착했는데,

그곳은 베들레헴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들의 고향인 갈릴래아의 나사렛으로 되돌아갔고, 그곳에서 주님이 성장하셨다. 주님은 열두 살이 되시던 해에 그분의 첫 과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주님은 이 방문 기간 중 성전에서 학자들과 한 자리에 앉아 대화하셨는데, 복음서에 그분의 대답에 주위 사람들이 경탄했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뒤 주님은 나사렛으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돌아와서 순종하며 사셨는데, 복음서에는 “예수는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주님의 생애 초기를 굳이 상기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이 공생애 이전에 해당되는 삼 십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험을 겪으시고 극복하시면서 마리아에게서 입으신 이기적이고 유한한 인성을 차차 벗으신 후 그분 안에 내재하던 신성한 인성으로 대체해 가셨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삼십 세 되시던 해에 요르단 강으로 내려 가셔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홀로 광야로 나가셔서 사십일 동안을 지내셨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 기간 동안 있었던 ‘악마’에 의한 세 가지 시험들은 그분의 생애 초기 동안 그분이 느끼시고 극복하신 모든 종류의 시험을 상징한다. 주님은 각 시험에서 말씀으로부터의 인용문을 가지고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으로부터의 인용문을 사용하셨던 까닭은 앞서 공부했던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에서 이해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 다음 주님은 공생애의 중심거점을 가파르나움에 두시면서 이곳저곳을 다니셨다.

주님의 시대 때 거룩한 땅은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래아라는 세 구역으로 구분되었는데, 이 세 지역들은 우리 삶의 세 평면인 의지와 생각 그리고 행동을 표현한다. 이러한 연유로 주님 공생애의 대부분은 갈릴래아에서 거행되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보다 큰 부분이 세상에서의 일상생활 활로서 이 부분에서 주님과 이웃을 섬기려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갈릴래아에서의 공생애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조금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주님의 첫 기적에 대해서 알려준다. 이 기적은 갈릴래아의 가나에서 베풀어졌다. 가나라는 마을은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7마일 떨어진 곳이었다. 스웨덴복음 주님께서 그곳에서 기적을 베푸신 것에 대한 두 가지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는 주님을 믿고자 하는 단순하고 선한 사람들의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고, 둘째는 이러한 기적들이 말씀의 일부로 기록되어 우리가 그분을 믿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 주심을 의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명심해야 할 사항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주님의 적들인 바리사이파인들이 그분의 기적을 목격하고 그분의 권능이 악마에게서

왔다고 주장한 것에서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본문은 매우 짧지만, 그 열 한 구절 안에는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다. 본문의 배경은 갈릴래아인데, 이 지역은 우리의 행동적인 평면을 상징한다. 그 지역 중에서도 특별한 장소는 가나라는 곳이다. 가나란 “갈대가 많은”이라는 뜻이다. 갈대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초보적인 진리들을 상징한다. 그리고 갈릴래아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다. 주님과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는 그곳에 초대를 받았다. 혼인은 언제나 선과 진리가 하나 됨을 그려준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혼인이란 우리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우리 속의 바램과 이해성이 일치될 때라고 간주해도 될 것이다. 위의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가나에서의 결혼이란 우리의 태도 곧 자신의 바깥 삶(일상생활)을 올바르게 하고자 말썽의 단순한 개념만이라도 배워서 순종하기 위해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이 함께 하시기를 원함을 묘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의 제자들이란 우리속의 생각이나 바램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우리에게 접근하시려는 주님의 모든 방법들을 의미하고, 마리아는 교회를 상징한다. 위에 열거된 모든 사람들은 혼인식에 참석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여섯 개의 물 항아리가 있었고, 그 항아리를 채울 풍부한 물도 그곳에 있었다. 물 항아리를 포함한 말썽 속에서 등장하는 모든 그릇들은 우리의 이해성 속에 담겨 있는 일반적인 교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섯이란 선한 삶이 발달해 가는데 있어야 할 질서 있는 단계들을 의미한다. 이는 창조의 육일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공부하려고 하면 우리속의 텅 빈 교리에 채워져야 할 진리가 바로 본문의 물인 것이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여인이여,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라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여인이여, 저나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이 구절은 주님께서 마리아를 꾸짖으시기 위해서 혹은 마리아의 요구를 거절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주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단지 그분이 행하시는 권능이 마리아를 통해 입은 인성으로부터가 아니라는 것이다.

본문에서 주님은 “그 항아리마다 모두 물을 가득히 부어라.” 그리고 “이제는 퍼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하고 명령하고 계신다. 이 명령들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리를 알려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붙들 수 있는 모든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진리를 사용하며 타인에게도 자신이 간직한 진리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항아리속의 물이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한 까닭은 바로 퍼내어 갖다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퍼낸 물이 변하여 만들어진 포도주란 우리가 과거에 맛보았던

어떤 것보다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게 되는 영적인 진리를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영적 진리의 생산은 우리의 이해성 속에 들어 온 진리를 스스로 사용 할 때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 사용하거나 나누어주는 때에 있게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본 상용 공부

갈릴래아 = 바깥쪽인 행동평면

사마리아 = 생각평면

유다 = 의지평면

물항아리 = 이해성 속

제 4반

주님이 하느님이시므로 평생 동안 말씀에 대한 공부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공부한 내용은 주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될 때만이 그분의 진리가 우리 속에서 발달되어 영적 생명이 됨을 강조한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의 삶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주님의 삼 십 세 이전의 생활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요한복음은 강림에 대한 외적인 이야기보다는 그 내면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심지어 요한은 주님의 세레나 세레 직후 있게 된 광야에서의 40일에 관해서도 생략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3장과 4장 1-11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광야에서 있었던 주님의 세 가지 시험이란 시험이라는 전체적인 면모 곧 삶의 세 가지 평면인 의지와 생각 그리고 행동에서 있게 되는 시험들을 통틀어 상징적으로 요약한 것이며, 주님께서 지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부딪치고 극복하신 모든 시험들에 관한 요약이기도 하다. 구약성경은 아주 깊은 뜻(천적인 의미)에서 보면 주님께서 겪으신 시험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주님은 이런 시험들을 통해 마리아를 통해 입으신 유한한 인성을 벗으셨고, 그분의 내면에서 있게 되는 신성으로 그것을 대체해 가셨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화하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 중 주님이 나사렛을 떠나 세례를 받으신 후 가파르나움에 주거지를 정하신 때인 본문에 해당되는 그분의 영화하심의 과정은 그분이 마리아에게 “여인이여,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라고 응답하신 말씀에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마리아를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녀 역시도 그분의 질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웨덴북은 그리스어로 된 이 구절의 번역을 글자대로 직역해서 전하고 있다. 즉, “여인이여 저나 그대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주님이 입으신 유한한 인성과 그분이 능력을 행사하시는 신성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여태껏 살았던 인간들 중 최고의 인간이라는 정도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느님으로서 인식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위의 둘째 문단에서 미리 언급한 주님이 받으신 시험에서 그분이 악마에게 응답하실 때 말씀에서 발췌한 인용문으로 답하셨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요한은 주님의 공생애를 가나에서의 기적에서부터 다루기 시작한다. 주님이 베푸신 첫 기적인 가나에서의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스웨덴북은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는 주님을 믿고자 했던 사람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기적들이 말씀에 기록되고 그것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해 주실 수 있는 것과 그분의 섭리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앞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바리사이파인들이 말씀 위에 덮여있는 각종 규제들을 배제하셨기 때문에 바리사이파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극도로 그분의 행사를 반대했음을 살펴보았다. 주님의 제자들은 단순한 자들이었고, 그들의 삶은 이미 바리사이파인들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제자들은 주님을 믿고자 했지만, 그들 스스로 바리사이파인들이나 서기관들과 믿음에 관해 논쟁하며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지는 못했었다. 주님의 기적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에 확증을 주어 그들의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는 주님을 믿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적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로 그분을 선택하고 각자의 이성적 판단에 의거하여 스스로의 믿음에 대한 확증을 갖도록 원하시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경이로운 의미를 지니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갈릴래아의 가나였다. 갈릴래이란 우리의 바깥 삶인 일상생활의 측면을 표현한다. 단어 가나란 “갈대가 많음”이란 뜻이다. 풀이나 갈대는 진리에 관한 아주 초보적인 지식들을 상징한다. 그리고 본문의 특정한 때는 혼인 잔치이다. 결혼이란 선과 진리의 하나 됨을 표현한다. 주님과 제자 그리고 마리아는 이 잔치에 손님으로 초대받았다. 그곳은 비록 포도주는 부족했지만 풍부한 물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응들을 토대로 가나의 결혼 잔치란 어떤 사람들을 상징하게 된다. 이 사람들이란 선한 삶을 꾸리고자 하는 이들로써 자신들이 소유한 것보다 더 많은 진리를 선한 삶을 위해 원하며, 말씀 속에 진리가 있음을 알고 그분을 찾기 위해 교회에 참석하는 자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무의식중에 느끼는 영적인 목마름을 충족시킬 만큼의 진리에 대한 이해성과 지식을 충분히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여섯 개의 돌로 된 물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 이 항아리들은 우리 속에 든 일반 교리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교리들이란 우리의 영적인 발달의 매 단계에서 진리를 받는 그릇인 것이다. 진리를 받는 과정의 첫 필수요건은 하인이(우리의 능력이나 소질) 물을 가지고 항아리를 가득히 채우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말씀에서 진리를 배울 기회를 열심히 만들며 스웨덴볼의 저서를 기반으로 보다 깊게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을 다시 퍼내야 한다. 그 이유는 기억 속에 있는 진리가 바로 항아리 속에 든 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물을 자신의 일상생활 혹은 이웃을 돕는 곳에 사용할 때 이 물은 주님의 섭리로 포도주 곧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하게 된다. 포도주란 영적인 진리를 표현한다. 이 진리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며,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게 된다.

우리는 가나에서의 기적을 명심해야 한다. 즉,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서 진리를 조금 얻었다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하여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좀 더 노력하고 연구하여 말씀에 관한 것과 말씀으로부터의 우리의 지식을 배가시켜 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얻은 지식을 일상생활의 문제에 적용하며 응용하면서 우리 안에서 이 지식들을 진리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 다음 우리는 만들어진 진리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 기적은 실패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말씀으로부터의 지식들은 우리의 이해성 속에서 더욱 성장하고 충만해지며 퍼낼수록 점차 나은 포도주로 변하게 된다.

제 5반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히 부어라”는 명령을 주로 살펴본다.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인 이타애와 생활에서의 선도 살펴본다.

본문의 기적은 요한의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은 이를 “기적들의 시작”이라고 부른다

(King James 번역 참조).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주님의 적극적인 공생애는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의 시험을 끝내신 직후 즉시 시작되었고 그분이 받으신 세례는 그분이 마리아로부터 유전된 인간성 속에 든 악을 벗으셨음을 상징한다고 전한다. 그러나 요한은 당시에 주어진 세례자 요한의 증거를 다른 복음서에서보다 더 충분하고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준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능력을 발휘해 보도록 요구되었을 때 먼저 지적하신 바는 그분이 마리아와 별개임을 분명히 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스웨덴본은 제 4절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여인이여, 저나 어머니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번역한다(이는 그리스어를 글자 그대로 직역한 것이다). 이 말씀은 마리아를 견책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도우시려는 그분의 능력이 마리아를 통해서나 그녀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님을 함축하는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진리를 숙고해 보도록 하는 질문형식의 답인 것이다(뒤의 참고문헌 참조). 주님의 어머니 역할로서의 마리아는 교회를 표현하는데, 이 교회를 수단으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교회란 본문에서 주님과 잔칫집 사람들 사이의 중매역할을 하는 마리아와 같은 역할을 한다. 주님은 마리아로부터 입으신 유한한 인간성을 수단으로 악과 접촉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서 그 악들을 모조리 극복하셨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를 위해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교회란 사람들이 주님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들 속의 악을 각자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분의 권능으로 진리를 응용하면서 악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다.

악한 경향성들을 극복하여 유한한 인간성을 벗어버린 결과가 아들과 아버지 또는 신성한 진리와 신성한 사랑의 점진적인 결합이다. 이런 이유로 첫 번째 기적이 혼인 잔치에서 거행된 것이다. 그 이유는 가장 높은 의미에서의 결혼이란 신성한 사랑과 지혜의 결합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사랑과 지혜는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진정한 결혼이란 천국에서의 행복의 가장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란 결합을 위한 바램과 더불어 그 바램에 따른 보조물로서의 의미로 창조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는 사랑과 진리가 하나로 되려는 경향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성(sex)으로 뚜렷이 구별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다른 이성들은 결혼하려는 바램을 갖게 되는데, 남자는 지적인 요소를 그리고 여자는 애정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그래서 인간 삶의 가장 높고 깊은 기쁨은 부부에서부터 비롯되며, 인간 삶의 가장 악하고 비참함은 부부의 남용으로부터 비롯된다.

본문의 첫 두 구절은 기적에 대한 경이로운 배경을 제시해 주고 있다. 숫자 3이란 완전함을 묘사한다. 그래서 ‘사흘째’란 때가 왔음 곧 주님이 그분의 적극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 갈릴래아란 삶의 외부평면(일상생활)을 그려준다. 가나란 ‘갈대가 많음’이란 뜻인데, 이는 진리에 대한 외면적인 이해성을 암시한다. 또한 갈대란 말씀의 가장 낮은(말단적인) 의미를 상징한다. 갈대가 망상이라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쉽게 흔들거리며 구부러지는 모습을 떠올려보면 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혼은 선과 진리의 결합을 표현하는데, 이 결혼식에 마리아가 있었다. 이것은 교회가 인식되는 모습을 의미한다. 게다가 주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은 그분과 함께 하고 싶은 바람 그리고 그분에 관한 지식들을 바라는 마음을 의미한다. 위의 세부적인 설명을 종합해보면 어떤 인격에 대한 묘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은 말씀에 대한 외부적인 지식만으로 생활하면서도 올바른 삶을 꾸리고자 간절히 소망한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가서 주님에 관해 알아보고 더 배우기를 소원하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있는 주님과 젊은 부자청년과의 대화를 상기케 한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어릴 적부터 계명을 지켜왔다고 대답하면서 “그런데 아직도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주님께 여쭙었다. 이 청년처럼 주님을 찾아뵙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조건들을 성실히 수행하여서 생활적으로는 성실한 교인들에게 그분이 공급해 주셔야만 하는 부족함이란 무엇일까?

마리아는 주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라고 말했다. 물과 포도주는 모두 진리를 상징한다. 물은 자연적인 평면 수준의 진리를 상징하는 반면 포도주는 영적 평면 수준의 진리를 상징한다. 부자 청년이 준수한 계명은 자연적인 평면에서의 진리들이다. 부자 청년은 그 계명들이야말로 사회생활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고 인정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계명을 잘 준수해야만이 사회적으로 경외 받고 자존심도 보존할 수 있음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부자 청년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그 청년의 재산이란 그가 가진 물질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그의 재산에 그가 계명을 지킴으로서 얻으려고 한 자아 찬양(자존)심과 타인들로부터 칭찬 받고 싶은 욕망이 근간이 되는 지극히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진리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계명이 인간사회의 규범으로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계명들이 곧 주님의 법임을 인식하고 주님의 법이 우리 영혼의 발달과 보존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법임을 인식하게 되어 그분을 신뢰하며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면, 자연적인 평면에 머물렀던 우리 안의 계명은 영적 평면의 수준인 법이나 계명이 되어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을 가져다주게 된다. 한마디로 본문 9절의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다”와 같게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하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본문 5절에서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일렀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주님은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벗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 다음 주님은 잔칫집 안에 있는 그릇을 사용하도록 하셨다. 여섯 개의 물 항아리들이란 우리의 영적 삶의 발달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지식을 표현한다. 주님은 이 항아리들 모두에 물을 가득히 부으라고 명령하셨다. 주님은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를 얻기 위해 하인들을 밖으로 내보내어 구하도록 하는 대신 그들이 이미 가진 물을 사용하도록 하셨다. 이 시점에서 신명기 30장 11-14절을 읽고, 그 내용을 상기하도록 하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리는 이 법은 너희로서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거나 미치지 못할 일은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법을 내려다 주지 않으려나?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할 터인데’하고 말하지 말라. 바다 건너 저쪽에 있는 것도 아니다. ‘누가 이 바다를 건너가서 그 법을 가져다주지 않으려나?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할 터인데’하고 말하지도 말라. 그것은 너희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서 하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구절은 집안에 있는 물로 부족한 포도주를 공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 주님은 “이제는 퍼서 잔치 말은 이에 갖다 주어라.”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선과 진리의 결합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진리를 사용하라는 명령인 것이다. 선과 진리의 결합은 곧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주님의 왕국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의 왕국은 우리속의 선과 진리가 얼마만큼 하나 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지식을 자꾸 사용하면 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즉, 자신의 지식을 남에게 알려주거나 생활에 응용해 가면 그 지식은 더욱 명확해져서 구체성을 띄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물을 퍼서 나누어주니 포도주가 되는 모습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얻고자 최선을 다하며 획득된 순수한 진리를 이웃에게 전달해 주려는 바램을 가지면 주님의 도움을 얻게 되어 진리를 전달하는 동안 오히려 자신에게 영감이 더 확연히 오게 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피할 수 없이 부딪쳐야만 하는 난관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야말로 성경에서 배운 진리를 직접적으로 응용할 기회인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진리를 응용해 간다면, 우리 앞에 그 난관을 해결할 길이 환히

보이게 되고 과거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던 짐이 축복으로 바뀌는 기적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나의 기적이 가르치는 의미이다.

유입(influx)은 유출(efflux)에 비례한다고 한다(AC 5828-3항). 그리고 주님은 만물 가운데 계시 되 그 사물의 쓰임 속에 존재하신다고도 한다.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은 우리가 수행해 가는 모든 쓰임 속에 현존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자연적 지식이라는 물이 영적 진리라는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글자에 있는 진리라는 물이 우리의 외적 삶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같이 말씀속의 내적 진리라는 포도주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10절에서 기술된 바와 같은 경험을 종종 하게 된다. 우리가 외적 동기인 체면이나 겉치레로 인해 봉사를 수행하게 되면, 우리의 열의는 점점 감퇴되고 우리의 포도주는 점차 질이 떨어지게 된다. 반면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참여한다고 생각하면 가장 좋은 포도주가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된다. 새교회인은 “여섯 돌 항아리”, 즉 여섯 개의 일반 교리를 갖고 있다. 우리는 이 돌 항아리들의 가장자리까지 물로 가득 채우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더욱 진리를 배우는 곳에 우리의 이해성을 붙잡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은 주님이 포도나무시리는 것 곧 진정한 포도주는 그분으로부터만 비롯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2649항: “주님이 어머니로부터 갖게 된 인성의 분리가 뒤따르고 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그것이 완전히 제거됨이다. 주님은 그분이 영화 하실 때까지 점진적이면서 계속적으로 유한한 인성을 분리시키고 벗으셨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 어머니로부터 파생된 것을 벗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하느님의 아들임을 의미한다. 이는 잉태에서부터 출생까지를 포함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여호와 자신이었음을 알게 해주신다. 그분이 스스로 어머니로부터 온 인성의 모든 것을 분리시켜 벗으셔서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님은 요한복음에 있는 그분의 말씀으로 명백해진다. 즉,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다.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여자여),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라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억하는가?
- 2) 왜 우리는 영감 된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가?
- 3) 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이 되셨다”라고 부르는가?
- 4)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 5) 왜 주님은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
- 6)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 누가 태어났는가?
- 7) 어떤 징조가 세례자 요한에게 주어졌는가?
- 8) 어떤 제자가 주님을 처음 보았는가?
- 9) 이 밖의 어떤 제자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언급되는가?
- 10) 주님은 어디서 탄생하셨는가?
- 11) 베들레헴은 거룩한 땅의 어느 지역에 속하는가?
- 12) 주님은 어디서 성장하셨는가?
- 13) 나자렛은 그 땅의 어느 지역에 속하는가?
- 14) 유다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지역의 이름은 무엇인가?
- 15) 주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어디서 사셨는가?
- 16) 기적이란 무엇인가?
- 17)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이 있었던 곳은 어디인가?
- 18) 왜 주님은 가나로 가셨는가?
- 19) 잔치에서 무엇이 부족했는가?
- 20) 누가 주님께 도움을 청했는가?

질문의 답

- 1) 성서참조 2)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 3) 그분이 살아있는 진리이시기 때문
- 4) 그분의 진리가 살아 있고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있게 해준다는 뜻 5)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6) 세례자 요한 7) 비둘기 8) 안드레아 9) 베드로, 필립보, 나타나엘(바르톨로메오)
- 10) 베들레헴 11) 유다 12) 나자렛 13) 갈릴래아 14) 사마리아 15) 가버나움
- 16) 주님에 의해 행해진 경이로운 것들 17) 가나 18) 혼인잔치 19) 포도주 20) 마리아

주님과 니고데모

머리말

제 1장에서의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근간으로 본문을 살펴본다. 니고데모는 위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예외에 속했으나 주님을 믿는데 공개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못했다. 본문에는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3장 1-21절

3장: 1. 바리사이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2.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 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3. 그러자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4. 니고데모는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5.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 6.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7. 새로 나야 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8.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9. 니고데모는 다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10.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11. 정말 잘 들어 두어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 12. 너희는 내가 이 세상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두고 하는

말을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 온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 간 일이 없다. 14.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15.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16.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17.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18.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9.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20. 과연 악한 일을 일삼는 자는 누구나 자기 죄상이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고 멀리한다. 21.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데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느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환경을 아시며, 우리의 약함을 위해 그 환경을 허락하시기도 한다.
- * 말씀의 가르침은 우리를 돕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단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 * 우리는 자신 안의 참된 감정을 덮어두려는 심정속의 악을 점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본문의 첫 구절에서 니고데모는 바리사이파인으로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라고 소개된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란 유대 종교회의의 70인을 뜻하며, 이 회의의 의장은 대사제였다. 주님은 이 회의에서 심문을 받고 저주를 당하시게 된다. 바리사이파인들이란 자신들이 종교규율을 가장 엄격히 준행한다고 자랑하던 계층이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선자들과 칭하셨다. 그들은 주님을 적대시켰는데, 이는 그분의 가르침이 백성들을 내려 누르는 바리사이파인들의 이기적인 규율들을 깨트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니고데모는 주님에 관해서 그의 동료들과는 다른 태도를 취했다. 그가 주님께에서 무언가를 배우기를 원했던 것은 사실이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바대로 주님께 공개적으로 나올 만큼의 용기는 그에게 없었다. 주님은 니고데모가 왔을 때 그가 질문할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았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 속에 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처럼 주님은 어느 군중들이 그분께 나왔듯이 니고데모도 역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 왔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태어날 때 가진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들을 반드시 바꾸어야 함을 그에게 보여 주셨던 것이다.

세례자 요한은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물세례란 재구성 곧 우리 삶의 행동 지침을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를 수단으로 하여 정화함을 의미한다. 성령과 불세례란 우리속의 거짓 생각과 악한 바램들을 몰아내고 그 대신 주님의 진리와 이타적인 사랑이 우리의 이해성과 마음속에 들어옴을 뜻하는데,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 중 하나는 주님이 세상에 오신 까닭이 사람들을 단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다. “주님은 심판하는 분이시다”라는 말로 공포심을 조장하여 특정한 종파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자들은 반드시 본문을 읽어보아야 할 것이다. 주님은 결코 어느 누구도 단죄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죄를 받는 것은 자아와 세상을 선택한 것에서 비롯되는 인과응보인 것이다. 그 이유는 이기심과 세상적인 욕심이 지옥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함(경외함)이란 올바르게 선한 것들에 해당되는 것이지 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두려움에는 자신속의 어떤 것을 극도로 사랑하여 일어나게 되는 두려움도 있다.

또 다른 교훈은 니고데모에게도 필요했지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이 교훈은 19-21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 구절은 자신 속에 든 진정한 생각과 느낌을 감추려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신호와 같다. 우리는 자신속의 느낌과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 또는 진리를 공개적으로 말할 용기가 없을 때 다음의 구절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 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과연 악한 일을 일삼는 자는 누구나 자기 죄상이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고 멀리한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데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느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제 1반

먼저 바리사이파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를 살펴본 후 니고데모를 위한 주님의 가르침을 살펴본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중에서 가장 존경받던 계층은 바리사이파인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삶이 어느 누구보다 더 완벽하다고 자부했던 계층이다. 그들은 성경에 있지도 않는 갖가지 규정들을 성경에 덧붙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잘 지키는 자들만이 선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성경을 직접 읽어 보지 못하여 바리사이파인들의 규정이 하느님에게서 온 법이 아님을 알지 못했다.

주님은 바리사이파인들의 규정을 지키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한 체 하는 것뿐임을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해 주셨다. 따라서 이 일은 바리사이파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미워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 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수단을 다 동원했다. 그들은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권능을 부인할 수 없었지만, 그 권능이 악마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바리사이파가 주류를 이룬 가운데도 올바른 것을 행하고자 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한 명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이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지도자급의 인사였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종교를 관장하는 칠십인 의회의 의원이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니고데모는 무엇으로 주님을 믿게 되었는가?
- * 니고데모의 믿음은 어떠했는가?
- * 그는 어느 시각에 주님께 왔는가?
- *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첫 번째 사상은 무엇인가?
- * 니고데모는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했는가?
- * 주님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야 한다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 * 니고데모에게 내리신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상기케 하는가?
- * 영혼과 육체 중 무엇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어야 하는가?
- *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더 건강해지고 발전되는가?

*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제 2반

바리사이파인들과 서기관들이(율법학자)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미워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와야 했던 까닭도 살펴본다.

구약 시대의 종교지도자들 가운데 두드러진 두 그룹은 서기관들과(율법학자들) 바리사이파인들이다. 서기관들은 성경의 사본을 만들고 가르치며 해석했던 자들이며, 바리사이파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엄격하게 종교법을 준행한다고 자부하던 계층이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두 그룹의 사람들을 위선자들과 칭하셨다. 위선자란 자기 속에 있지 않은 것을 있는 척 하는 자들을 의미하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유대인의 지도자는 칠십 인으로 구성된 평의회 의원들로서 나라의 모든 종교업무를 관장했다. 이 의회 대부분의 구성원은 예수가 약속되어 왔던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기를 거절했다. 그 이유나 그들이 원하고 기대한 메시아는 자기들의 나라를 크고 부강하게 해주어 그들에게 큰 명예와 권력을 쥐게 해 줄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들의 이러한 사고방식을 고쳐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그분이 유대인들에게서 불신되도록 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분의 권능을 부정할 수 없게 되자 그분의 권능이 악마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유대인 의회의 부정적인 태도와 의견을 달리한 의원이 바로 니고데모와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이었다. 이는 요한복음 7장 45-53절과 누가복음 23장 50-52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니고데모는 아주 정직하여 예수가 행하신 권능이 하느님에게서 왔음을 알았지만, 동료인 의회 의원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말할 만큼의 용기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비밀리에 만나기 위해서 한 밤중에 찾아왔던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니고데모가 만나는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니고데모가 묻기도 전에 주님이 해답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니고데모 역시 천국에 가는 방법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함은 우리의 바깥쪽과 안쪽의 삶, 즉 우리의 행동지침과 생각 그리고

느낌들을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순수하고 선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이란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영을 의미한다.

14-15절에 있는 광야에서의 뱀에 관한 이야기는 민수기 21장 5-9절에서도 볼 수 있다. 땅을 기어 다니는 뱀이란 우리의 감각적 부분을 상징하는데, 감각적 부분은 언제나 물리적인 세계에 접촉하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바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삶이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항상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본보기는 바로 주님이신 것이다. 주님은 이 내용을 광야에서의 뱀과 비유시켜서 말씀하신다.

여기서는 14-21절의 가르침이 생략되어 있지만, 18장 37절을 읽어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그대로 살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주님을 거절하는 이들 또한 자신의 자유 의지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주님을 거절한 까닭을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를 거절하고 잘못을 행한 우리 행위의 결과가 주님으로부터가 아닌 우리 자신이 만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출생을 거듭남이라고 부른다. 이는 우리가 주님의 법을 배우고 그것에 순종하여 마침내 그 법이 우리의 참 생명이 될 때까지에 이르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 다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부터 의를 사랑함이 이르게 되어 마침내 진정한 의미에서 그분의 자녀가 된다. 니고데모는 일생동안 주님께 신실했었는데, 이에 관한 사항은 19장 38-42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인들은 성경에 무슨 짓을 해 놓았는가?
- * 본문에서 누가 밤중에 주님께 왔는가?
- * 본문의 첫 구절에는 니고데모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 *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가?
- * 누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가?
- * 세례자 요한은 주님께서 베푸신 세례에 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1장 33절 참조)

제 3반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함을 주로 살펴본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주님을 찾아 갔었다. 그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간 이유는 글자 그대로 보면 그분과 연결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면 자신이 몸담고 있는 평의회로부터의 비난과 혹평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란 사제나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칠십 인의 평의회 의원들을 말한다. 영적 의미에서의 밤이란 영적인 진리에 관한 이해성이 무지한 상태를 표현한다.

우리는 니고데모가 사려 깊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가 대다수의 의원들이 주장하는 쪽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은 까닭은 주님께서 명백히 보여준 권능이 하느님에게서 온 것임을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그가 매우 선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그가 주님께 삶의 길에 대해서 여쭙보았고 그의 동료들이 주님을 반대하는 입장과는 달리 자신을 바르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요한복음 7장 40-53절과 19장 39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구절에서의 니고데모의 행동은 명백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반면에 본문에서의 그는 용기가 없었음을 볼 수 있다. 주님은 그가 비밀리에 온 것에 대해 질책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 대한 예비적인 가르침이 있게 된 후 21절에서 그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셨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알고 계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약함으로 인해 일어나도록 허용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허용을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께 미처 고하지 않은 우리 마음속에 든 것조차도 알고 계신다. 주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든 질문 사항을 이미 보고 계셨다. 그래서 주님은 즉시 그 답을 주셨던 것이다. 그 답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그가 질문하는 삶의 길을 주님에게서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답이기도 하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 곧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함은 주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따르며 회개하라는 명령이다. 앞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행이 재구성을 표현함을 공부했다. 재구성이란 우리의 바깥쪽 행동을 질서대로 놓는 것을 뜻하는데, 요한의 물세례도 이를 표현한다. 요한복음 1장 33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자. 거듭남이란 주님의 질서로 우리속의 느낌과 생각을 가져오는 것을 뜻한다. 이 모습은 거룩한 땅의 정복으로 표현되며, 이것이 바로 세례이다. 거듭남이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교훈은 14-15절에서 주어지고 있다. 뱀은 삶의 감각측면을 그리고 구리는 외면에 있는 선을 상징한다. 따라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기둥에 달아 놓도록 명령된 구리 뱀이란 삶의 종류 중 감각적 측면을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을 뜻하며, 올바른 사용이란 영적인 삶을 증진 시키는데 우리의 감각들이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민수기 21:5-9 참조). 다시 말하자면, 구리 뱀이란 주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입으신 유한한 인성을 만드신 것 곧 그러한 사용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리 뱀에 관한 언급은 재탄생과 거듭남에 관한 가르침 그리고 세상에 오신 그분의 목적에 관한 서술과 같은 맥락이다. 주님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빛을 세상에 주시기 위해 아들이라는 진리로 오셨던 것이다. 그 이유는 세상이 길을 잃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만이 말씀을 가졌었는데, 그들이 그들의 전통으로 말씀을 덮어 씌워 놓아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조차도 말씀이 진실로 가르치는 바를 알지 못했다.

이에 대한 명백한 교훈은 19-21절에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신다. 우리가 자신의 고집을 주장하는 쪽으로 향하게 되면, 우리는 진리를 듣고자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둠 중에 걷기를 더욱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의를 행하고자 하면,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며 빛 안에서 걷게 된다. 즉, 우리가 자신 속의 참된 생각과 느낌을 감추려고 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올바른가를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함을 주지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향한 충고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긴 비평에 마음속으로 성내고 성급히 처리하려고 할 때면, 우리는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과연 올바른지를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때로 우리의 친구를 도구로써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 다음의 16-17절을 읽으면서 본과를 정리하도록 하자.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뱀 = 삶의 감각적인 부분

구리 = 외면상의 선

물로 태어남 = 바깥쪽 행동의 재구성

성령으로 태어남 = 거듭남,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바꿈

밤 = 무지한 상태

제 4반

8절을 중심으로 물과 성령을 살펴본다.

스웨덴borg의 저서 「하느님의 섭리」 제 83항에서는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모든 인간은 조상으로부터의 유전으로 인해 갖가지 종류의 악을 갖고 태어난다. 또한 이런 악들을 제거함으로써 영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지니고 태어난다. 자연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되는 것이 다시 태어남 또는 거듭남이다.”라고 설명된다. 그리고 「새예루살렘 교리」 제 174항에서는 “인간은 부모로부터 영적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연적인 생명만을 부여받을 뿐이다. 영적인 삶은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과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는 데에 있으며,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시는 믿음에 의거하여 있게 된다. 그러나 자연적인 삶은 하느님보다 더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데에 있다.”라고 설명된다.

니고데모는 선한 사람이었다. 그의 논평과 질문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쯤 선한 사람들조차도 진리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자연적인 출생외의 다른 출생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한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우리 주변에서도 물질주의로 인해 옛 시대와 같이 불구자가 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본문의 8절은 “내가 볼 수도 없는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라는 질문에 적절한 답을 제시해 준다.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는 없지만, 그것으로 인한 결과로 바람의 존재를 확실히 알게 된다. 우리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추론을 사용하게 되면 영적인 힘의 결과를 보고 느낄 수 있게 된다.

본문에서의 주님의 말씀과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의 세례자 요한의 외침을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그의 외침은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물세례란 바깥 삶을 깨끗이 함을, 성령세례란 우리의 생각을 순수하게 함을 그리고 불세례란 주님과 이웃 사랑으로 자아 사랑을 대체시킴을

의미한다.

주님은 신성한 진리로서 세상에 오셨다. 내적 의미에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은 신성한 사랑과 지혜 그리고 세상에 진행되는 신성한 작용인데, 이와 유사한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지와 생각과 행동이라는 측면이다. 신성한 진리는 곧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이 진리를 인식하여 순종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걷게 된다. 반면에 우리가 이 진리를 거절하면 어둠 속에서 걷게 된다.

주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알게 하시려고 진리로서 세상에 오셨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님을 거절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주님을 거절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합리적인 근거란 있을 수 없고 오로지 이기적인 이유만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주님이 인간이 진리를 사용하고자 하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태초 때부터 언제나 빛을 주어 오셨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의 “너희들은 경청은 커녕, 들으려고 귀를 열어두지도 않았다...”라는 기록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 온 사건에도 우리를 위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 밤이란 니고데모의 무지를 상징함은 이해할 것이라고 본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받게 될 비난을 두려워했다.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신의 믿음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야말로 자신을 평가해 볼 시기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올바른 생각을 가졌으나 그 생각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는 이기적으로 생각 하고 느끼면서도 그러지 않는 척 애쓰기도 한다. 우리가 위의 어느 경우에 속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교정이 필요하다.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악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친절히 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정직하게 드러내도록 인도하신다. 주님은 남들 몰래 밤에 찾아오는 니고데모의 비겁함을 그 자리에서 질책하지시지 않으셨다. 하지만 주님은 그의 결점을 명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21절에서 볼 수 있다. 이제 요한복음 7장 45-53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이 구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 그분을 지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장 39절을 보면, 본문의 사건이 니고데모로 하여금 주님의 신실한 추종자로 남도록 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제 5반

사람들이 주님을 거절하거나 받아들였던 이유, 개혁과 거듭남의 의미와 필요성, 주님이 오신 목적 그리고 사람들이 단죄되거나 구원되는 이유를 살펴본다.

니고데모는 바리사이파인으로서 유다 지도자 중 한사람이었지만, 주님이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 주님을 찾아 갔었다. 바리사이파인은 종교 규율을 글자 그대로 준수하는 것에 집착했던 계층이다. 또한 그들 대부분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위선자로서 율법의 형식은 준수하면서도 그 정신은 무시했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성경에 무지했음은 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데서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으로부터 배우고자 했다. 그가 밤에 찾아 왔다고 함은 말씀에 대한 그의 무지한 상태를 상징한다. 니고데모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 까닭은 그분의 인격에 관한 이해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분이 베푸신 기적에 있었음을 제 2절을 통해 알 수 있다. 주님은 밤중에 찾아 온 그의 비접함을 즉시 지적하지 않으셨고, 단지 신성한 인내로 그의 상태가 어떠한지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그분의 가르침이 그를 21절로까지 인도해 갔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그의 약점을 보여주셔야만 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젊은 부자 청년에게 “너의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라 오너라”하고 말씀하신 것같이 그분은 니고데모에게도 직접적으로 충고하지 않으셨고, 단지 그의 내적인 태도를 바꿔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셨던 것이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진심으로 따랐다는 것은 후에 그가 주님을 옹호하려고 시도했다는 것과 십자가에 달리신 후 그분의 시신을 돌본 두 부자들 중의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사실로 입증된다(요한복음 7:50, 19:39). 주님은 우리를 덮어 쓴 외적 조건이나 우리의 한계성을 항상 인식하고 계신다. 이는 열왕기하 5장 18-19절에서 시리아 장군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통해 주어진 기적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내가 아버지께 원하는 것은 그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마에게서 지켜 주시는 일입니다”라는 기도를 통해서도 이를 이해할 수 있다(요한복음 17:15).

말씀의 전반에서 자연적인 출생과 성장은 거듭남과 유사한 관계를 지닌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물론 그들의 조상인 옛 고대인들은 그 지식을 갖고 있었다. 재 출생에 해당되는 거듭남은 갑자기 혹은 단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태아로

된 후 출생되고 성장하는 것처럼 점진적이며 조금씩 향상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본문에 대해서 「주님의 섭리(Divine Providence)」와 「새예루살렘과 그의 천국적인 교리 (the New Jerusalem and its Heavenly Doctrine)」에서 다음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이유는 인간이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는 유전적 형질에는 온갖 종류의 악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악을 제거함으로써 영적으로 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태어난다. 만약 인간이 영적으로 되지 않으면 그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자연적인 존재로부터 영적 존재로 되는 것이 다시 태어남 또는 거듭남이다” Divine Providence 83

“인간은 부모로부터 영적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생명만 부여받는다. 영적인 생명은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사랑하여 이에 따라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게 되어 이를 기초로 그분이 말씀에서 가르치신 믿음을 갖는 데에 존재한다. 반면에 자연적인 생명은 자아와 세상을 이웃보다 심지어 하느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데에 존재한다.”

New Jerusalem and its Heavenly Doctrine 174&179

그리고 본문 5-8절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스웨덴북의 「천국의 신비」 제 10240항을 참고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재구성과 거듭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앞서 이스라엘 후손들의 광야에서의 배회생활과 거룩한 땅의 정복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이다. 재구성은 우리의 첫 의무인데, 이는 말씀에서 얻은 진리대로 자신의 삶을 질서 있게 놓는 작업이다. 거듭남은 우리가 우리의 심정과 지성 속에 든 우리의 적인 악과 거짓을 인식하여 싸우고 몰아냄으로써 주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 오미 본문에서 바람에 비교되고 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을 볼 수는 없지만, 들어와 계신 후에 있게 되는 결과는 인식할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여러 곳에서 “영(Spirit)”으로 번역되는 그리스어가 8절에 있는 바람과 같은 어원의 단어라는 것이다. 즉, 원어인 그리스어는 바람과 영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재구성과 거듭남은 세례자 요한의 일과 주님의 일 사이의 차이점으로도 기술된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본문에 있는 단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1- 15절에서는 주님의 영만이 인간을 천국으로 들어 올릴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광야에서 높이 들려진 구리 뱀이란 주님이 모든 시험을 정복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 주시고자 높이 들어 올려 진 그분의 감각적인 형질에 대한 상징이다. 주님이 세상에서 입으신 인성은 위에 기술된 질서와는 정반대되는 것이지만, 그분은 이 세상 삶 속에서 입으신 감각적인 형질을 차츰 영화 하셔서 진정한 질서가 무엇인지와 그 질서에 따른 삶을 형성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이다. 두 번째 출생은 우리 속에서 작업하시는 주님의 영에 의해 새로운 인격으로의 출생인데, 우리는 이로써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들은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다.”라고 말씀되고 있다.

우리가 우리 속의 이기적인 충동들에 반대되는 말씀의 가르침을 따름을 고되게 여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우리는 주님을 저주하시는 분처럼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총명하셔서 저주하시지 않으심을 명심해야 한다. 신명기 6장 24절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며 모든 규정들을 지키라고 분부하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주님이 아들이라고 일컬으신 인성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분의 사랑의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며, 우리가 그분의 길을 막고 서 있는 우리속의 악을 한쪽으로 치워 내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주실 수 있음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며, 자아 추구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신다. 따라서 주님은 그분의 모든 권능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바, 때로는 기적이나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세상에서의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믿으면, 그분의 충고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행복해질 수도 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된다. 여기서의 저주란 주님께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자아 추구만을 선택한 우리의 결정으로 인해 초래되는 저주이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은 우리를 영원한 불행으로 몰고 간다.

어떤 사물의 이름은 그 사물의 특성을 가리킨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함은 그분의 특성을 믿는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이 명백하게 가르치신 사랑과 겸손 그리고 온유와 친절 등이 신성의 참된 특성이며, 우리가 적극 배양해야 할 미덕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를 믿지 않으면, 그분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미 죄인으로 판결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그분의 미덕 대신에 자아와 세상을 사랑하는 자체가 바로 지옥의 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9-21절은 매우 쉽게 이해되도록 서술되어 있다. 우리가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 아집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충고도 경청하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진리의 빛을 원치 않게 된다는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믿지 않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자신의 삶을 고치거나 자신의 악을 기꺼이 인정하지 않아서 주님을 거절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생각 그리고 느낌들을 무조건 옹호하며 감싸려고 할 때마다 이를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위험신호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데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새예루살렘 교리」 제 179항: “모든 사람은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을 가지고 있다. 내적 인간은 영적 사람으로 그리고 외적 인간은 자연적인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각각이 거듭 나아져서 온전히 한 인간이 거듭나게 된다. 거듭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자연적인(외적) 인간이 그 사람 전체를 통치하게 되고, 그의 내적(영적) 인간은 다만 섬길 뿐이다. 반면에 거듭 나아가는 사람은 내적(영적) 인간이 통치하게 되고, 외적 인간은 섬기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로부터 명백해지는 사항은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삶의 질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적 인간이 그를 통치하고 외적 인간이 섬겨야 하는 질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 질서는 인간이 구원되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있게 되는 거듭남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질문 정리

- 1) 바리사이파인과 서기관이란 어떤 사람인가?
- 2) 그들은 성경에 무슨 짓을 했는가?
- 3)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 4) 왜 그들은 주님을 반대했는가?
- 5)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사이파인의 이름은 무엇인가?

- 6) 그는 어떤 직책을 가졌는가?
- 7) 왜 그는 밤에 주님을 찾아 갔는가?
- 8) 왜 그는 주님을 믿게 되었는가?
- 9) 주님은 그가 어떤 질문을 원한다고 보셨는가?
- 10)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 11) 주님은 “다시 태어남”에서 무엇을 의미하셨는가?
- 12) 주님은 광야에서의 구리뱀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주님은 당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 14) 이미 죄인으로 판결된 이유는 무엇인가?
- 15) 우리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그리고 행동을 두둔하려 들 때 잠깐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16) “물로 태어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7) “성령으로 태어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8) 세례자 요한의 일과 주님의 일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질문의 답

- 1) 바리사이파인 - 아주 엄격한 종교계층, 서기관 - 성경을 베끼는 사람
- 2) 자기들 사상을 첨가시켰다 3) 위선자 4)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셨기 때문
- 5) 니고데모 6) 의회 의원 7) 동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8) 기적들
- 9) 하늘로 가는 길 10) 다시 태어나야 한다 11) 회개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라
- 12)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13)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14) 믿지 않는 것
- 15) 십중팔구 자신의 고집대로 원할 것이기 때문 16) 바깥쪽 삶을 깨끗이 함
- 17) 안쪽 삶을 순수하게 함
- 18) 세례자 요한 - 바깥 삶을 깨끗이 함
주님 - 자아사랑을 주님과 이웃 사랑으로 대체시키고 생각을 순수하게 함

야곱의 우물가에서의 주님

머리말

본문은 몇몇 성경의 이야기들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는데, 야곱과 요셉의 죽음 그리고 아시리아에 의한 이스라엘 왕국의 정복 등이 그 예다. 이에 대해서는 창세기 33장 18-20절과 48장 21-22절과 50장 24-26절, 출애굽기 13장 19절, 여호수아 24장 32절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24-41절을 참고하도록 하자.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4장 1-42절

4장: 1.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얻으시고 세례를 베푸신다는 소문이 바리새인과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다. 2. (사실은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었다.) 3.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래아로 가기로 하셨는데, 4. 그 곳으로 가자면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하였다. 5.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시카르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옛날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인데 6.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먼 길에 지치신 예수께서는 그 우물가에 가 앉으셨다. 때는 이미 정오에 가까와 있었다. 7. 마침 그 때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으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다. 8.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시내에 들어가고 없었다. 9.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께 “당신은 유대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10.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솟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하고 대답하시자 11. 그 여자는 “선생님,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다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으시면서 어디서 그 샘솟는 물을 떠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12. 이 우물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마셨고 그 자손들과 가축까지도 마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하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13. 예수께서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하셨다. 15.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자는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으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하고 청하였다. 16.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 오라고 하셨다. 17. 그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는 말은 숨김없는 말이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19. 그랬더니 그 여자는 “과연 선생님은 예언자입니다. 20. 그런데 우리 조상은 저 산에서 하느님께 예배드렸는데 선생님네들은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21.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23.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24.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25. 그 여자가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 주시겠지요.” 하자 26. 예수께서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27. 그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돌아 와 예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무엇을 청하셨는지 또 그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물어 보는 사람은 없었다. 28.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돌아 가 사람들에게 29. “나의 지난 일을 다 알아 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봅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알렸다. 30.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모여 들었다. 31.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무엇을 좀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32. 예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33.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누가 선생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 하고 수군거렸다. 34. 그러자 예수께서는 “나를 보내신 본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35.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 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 말을 잘 들어라.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이미 다 익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36. 거두는 사람은 이미 삯을 받고 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알곡을 모아 들인다. 그래서 심는 사람도 거두는 사람도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37. 과연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는 속담이 맞다. 38. 남들이 수고하여 지은 곡식을 거두라고 나는 너희를 보냈다.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하였지만 그 수고의 열매는 너희가 거두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39.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가 자기의 지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 맞히셨다고 한 증언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40. 예수께서는 그들을 찾아 와 자기들과 함께 묵으시기를 간청하므로 거기에서 이틀 동안 묵으셨는데 41.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42. 그리고 그 여자에게 “우리는 당신의 말만 듣고 믿었지만 이제는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하고 말하였다.

교리 요점

- * 우리가 주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
- *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의 생명수가 솟는 우물이다.
- * 이타애는 믿음 또는 진리와 함께 하여야만 그 실재가 가능하다.
- * 이타애가 바탕 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 * 이타애와 믿음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서로 떨어져서는 그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주님은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뒤 제자들과 더불어 과월절을 기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 가셨다. 본문은 주님께서 갈릴래아로 되돌아가는 여행길에서 발생된 사건에 관한 것이다. 주님 시대의 지도를 보면, 남쪽에는 유대와 북쪽에는 갈릴래아 그리고 이 두 지역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은 사마리아 성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전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을

모두 포로로 끌려간 후 그 지역에 외국인들을 이주시켜 그곳에 살도록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외국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에 거주한지 칠백 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의 하느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인정하며 유대인의 성경에서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었다.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으나 호의적이어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 놓고 있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대부분의 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성의 있게 주님을 믿었음을 알 수 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이었다. 그녀와 그 마을의 주민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분을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원자로서 받아들였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할 때만이 야곱의 우물로 표현된 하느님의 말씀에서 길어 올린 진리의 물을 영원한 삶에 필요한 생명수로 변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것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심을 보고 인정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성경에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찾겠다고 자부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분의 시대나 조건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분이 우리의 시대에 사셨더라면 아마도 다르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지금까지 살아 온 모든 인간들 중에서 최고의 인간으로서만 간주하고, 그분의 것보다 자신의 견해가 시대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상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물동이인데, 이런 사상은 깊은 우물로부터 힘들여 소량의 물만을 끌어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때나마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유한한 인간성 속에 사셨던 하느님이심을 믿게 되면, 우리는 그분께서 항상 영원한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것과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삶에 응용했을 때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삶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분의 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제 1반

야곱이 사들인 우물터의 역사를 통해 구약시대의 인물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를 상기해 본다. 사마리아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에게 경멸 받았던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본문 9절을 이해하도록 한다. 생명수란 주님과 천국에 관한 진리이고, 그 진리가 우리 영혼에 필요한 진리의 물이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들이 기꺼이 주님을 믿었다는 사실도 강조한다.

주님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이 있었던 가나에서의 결혼식이 끝난 후 과월절을 기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다. 주님은 갈릴래아로 되돌아가시는 도중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거치서 야만 했는데, 그곳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잠시 쉬시게 되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며 아브라함의 손자이다. 야곱은 본문의 시대보다 훨씬 이전의 시대에 사마리아 지역 중심부 근처의 땅을 조금 사서 거기에 우물을 팠다. 그는 죽을 무렵 그 땅을 아들인 요셉에게 물려주었다.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에서 죽게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자신의 몸을 이집트에 묻지 말고 자손들이 가게 될 고향에 묻으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그의 시신을 썩지 않게 보관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 낼 때 요셉의 시신도 함께 운반했다. 그들은 광야 여행 동안에도 요셉의 시신을 운반했고, 거룩한 땅을 정복한 후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서 받은 땅에 그를 안장했다. 따라서 야곱의 우물은 상응으로 볼 때 주님이 쉬셔야 할 최적의 장소인 것이다.

하지만 주님의 시대에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렸던 자들이 다. 이들은 과거 이 지역에 수도를 가졌던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 정복당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다음 강제로 이주된 외국인들의 후손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때로부터 약 칠백 년이 지난 본문의 시대까지도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던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 * 주님은 그 여인이 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 사마리아 여인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를 이해했는가?
- * 생명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의 종교에 관하여 알고 있었는가?
- *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교에 대해서 알고 있음을 입증하는 그녀의 질문은 무엇인가?
- * 주님은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 * 주님께서 그녀의 마을에 머물면서 가르치시자 그곳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제 2반

본문과 더불어 참고 성경 구절을 공부하면 더욱 흥미로울 것이다. 또한 물에 대한 두 가지 상응도 기억하도록 한다.

요한복음의 제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가 끝난 후 과월절을 기념하시
고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음을 알 수 있다. 제 3장의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있던 사건들이다.
그런 다음 주님은 갈릴래야로 되돌아가시려고 출발하셨는데, 그 후가 바로 본문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구약 성서의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창세기
33장 18-20절과 48장 21-22절과 50장 24-26절, 출애굽기 13장 19절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야곱이 샀던 세겔 근처의 조그만 땅은 후에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장소가
되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땅이 사마리아인에게 속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원래 이스라엘 왕국에 속했으나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 왕에 의해 정복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되돌아오지 못하게 되자 아시리아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외국인들을
그곳에 이주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주된 외국인들의 후손들이 본문의 사마리아인들이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친하지 않았던 이유인 것이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의 거주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경멸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사항은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가 장차 오실 것임과 주님을
기꺼이 메시아로 믿으려고 했던 것이다. 이것은 비록 사마리아 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지 않았다할지라도 유대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사마리
아인들이 유대교에 대한 믿음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음은 열왕기하
17장 24-33절을 참고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은 것보다 훨씬 더 기꺼이 주님을 믿었다. 이 모습은 과거
요나의 말을 믿고 회개한 니느웨의 이방 사람들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지혜를 드러내어 뽐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간혹 어떤 이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길 원하나 그 사람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처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가르쳐지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샘솟는 물’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물이 진리를 상징함은 수차례 설명한 바 있다. 우리는 주변에서 “지식에 갈급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목격하기도 한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체가 매일 물을 필요로 하듯이 진리를 매일 필요로 한다. 또한 우리는 주님과 천국에 관한 지식 그리고 옳고 그름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야곱의 우물에 있는 물이 의미하는 바다. 따라서 야곱의 우물은 하느님의 말씀이며, 그 속의 물은 주님의 진리를 담은 지식들을 상징한다. 우리는 꾸준히 이러한 지식을 배워가야만 한다. 어떤 이는 말씀의 글자에 관한 지식은 상당한 반면 실제의 삶은 선택지 못한 경우도 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에 관한 자신들의 지식을 뽐냈으나, 자신들 속의 악을 고치려는 데에 말씀의 진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심장 속에 말씀을 담지 않았던 것이다.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그분의 진리를 원한다. 이들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 진리를 배우려고 주님께 나아오는데, 이럴 때 말씀에 관한 지식은 샘솟는 물이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오직 주님에게서 진리를 꾸준히 받고 그에 순종함으로써만이 그 진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주님의 시대 때 거룩한 땅은 어떻게 나뉘어져 있었는가?
- *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어느 지역에 속했는가?
- * 나사렛과 가나는 어떤 지역에 속했는가?
- * 주님은 공생애 동안 갈릴래아의 어떤 성읍에 주로 거주하셨는가?
- * 유다와 갈릴래아 사이에 어떤 지역이 놓여 있었는가?
- * 주님은 어디서 쉬기 위해서 멈추셨는가?
- * 누가 물을 길으러 우물가로 나왔는가?
- * 주님은 그 여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 * 왜 그 여인은 놀랐는가?
- * 주님은 그 여인이 무엇을 그분께 여쭙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은 이 ‘샘솟는 물’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은 그 여자 자신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그 여자는 주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가?

- * 주님은 하느님에 관하여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은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셨는가?
- * 주님은 그분의 양식에 관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제 3반

구약 성서에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응과 본문의 상응을 살펴본다. 그리고 주님이 모든 선함과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이심을 인식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한다.

주님과 제자들이 과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때가 바로 본문에 해당된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제 4절의 “그곳으로 가자면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하였다”라는 구절이다. 앞서 우리는 복음서 시대에 거룩한 땅은 세 구역인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래아로 나뉘어져 있었고 이들 세 지역은 우리 삶의 세 평면인 의지와 생각 그리고 행동을 표현함을 공부했다. 주님께서는 유다와 갈릴래아 사이를 여러 번 여행하셨는데, 그분은 그때마다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러함을 알 수 있다. 즉,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그 바램을 행동 상에 나타내려면 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속의 의지나 동기들이 우리의 삶 또는 행동 지침에 초래하게 될 결과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생각이나 추론을 거치지 않고 의지를 행동으로 나타나게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생각은 동기와 행동을 연결해주는 고리에 해당된다.

의지를 표현하는 유다와 행동을 표현하는 갈릴래아의 중간 지역에 사마리아인들이 거주해 왔다. 사마리아인들이란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 왕에 의해 정복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간 후 외국인들이 그곳으로 이주되어 거주하게 되었는데, 후에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다. 또한 이것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이기도 했다. 이들은 어떤 국가 형태 속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지는 않았지만, 유대교를 그들의 종교로 받아들이며 어느 정도 실천하기도 했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이 외국인들이 처음 그 땅에 이주했을 때 사자로 인해 입게 된 큰 피해를 그 땅의 하느님들을 예배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아시리아왕은 잡혀온 사제들 중 한 명을 돌려보내 그들에게 하느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치도록 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원래 믿던 신과 더불어

여호와를 경배하는 일을 더했던 것이다. 열왕기하 17장 41절에서는 “이 민족들은 한편으로는 야훼를 공경하면서 동시에 저희의 우상들도 섬겼다. 그들의 후손들도 대대로 이날까지 선조들의 풍습을 그대로 지켜 내려왔다.”라고 기술되고 있다. 이 구절은 본문 9절에서의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알려준다.

위의 열왕기하 17장 41절은 본문에 대한 내적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성장하며,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의 진리에 관한 어떤 지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온갖 종류의 세상적인 지식과 혼합된다. 어떤 경우는 말씀에 관한 지식이 우리의 자연적인 마음의 주된 원리인 이기심에 걸맞을 것 같아서 받아들여진 지식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야훼를 공경했다”는 구절이 이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진리를 구할 수 있는 순수한 진리의 근원도 가지고 있다. 이는 본문 7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필요할 때마다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으러 오는 모습에 해당된다. 우리가 구약성서를 공부하면서 기억해야 할 사항은 주님과 야곱을 연관시켜 볼 때 야곱이 우리 삶의 자연적인 평면을 표현하고 우물은 말씀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창세기 33장 19절을 보면, 야곱이 우물 주위의 땅을 히위족인 하물의 아들들에게서 샀음을 알 수 있다. 히위족이란 고대 교회의 선한 나머지 중의 하나이다. 야곱이 임종직전 여분으로 요셉에게 물려준 땅이 바로 그곳이기도 하다(창세기 48:22). 이스라엘 후손들은 요셉의 유언에 따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요셉의 뼈를 함께 가지고 와서 그곳에 안장했다(여호수아 24:32, 창세기 50:25-26).

시카르라는 마을은 세겜과 실로의 옛 위치 부근에 있었다. 세겜은 과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 왔을 때 첫 제단을 쌓았던 곳이다. 실로는 과거 여호수아가 거룩한 땅을 정복한 후 성막을 세운 곳으로서,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리짐산이 있는 곳이다. 이제 야곱이 샀던 조그만 땅이 성경에서 중요한 이유가 이해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그곳이 언급되고 있다. 제 26절에서는 주님을 통해 그분이 바로 메시아심이 간단명료하게 서술되고 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6절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메시아라고 직접적으로 주장하신 구절이 성경에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해성 부분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상징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성에 말씀을 담아가지고 있으므로 진리를 필요로 할 때마다 그곳으로 가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으로 표현되는 상태 곧 진리를 알고자 하나 진리가 이해성 속의 거짓 사상과 혼합되게 되면, 우리는

진리를 찾기 위해 거듭하여 말씀으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량의 물(진리)만 걷어 올려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된다. 그러던 중 우리는 우물가로 나가서 거기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여태껏 자신이 받아온 가르침에 따라 진리를 얻으려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해야 하는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곧 나의 하느님이시라는 결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샘솟는 물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말씀속의 진리들은 마침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우리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되는 부분을 형성하게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속의 진리가 신성한 지혜 그 자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근원되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우리에게도 있는 현상이다. 즉, 우리가 새로이 받아들인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여인은 애정을 그리고 남자는 생각을 상징한다. 주님이 제 18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신상에 관하여 말씀하신 까닭은 사마리아 여인이 선택하려는 마음으로 올바른 것을 모색하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헤매고 다니는 믿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 즉 올바른 것을 모색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만족시켜 주는 진리를 찾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그 여인의 신상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신 사건은 그녀로 하여금 그분이 예언자이심을 확신하도록 해 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과 대화하면서 더욱 더 깊이 그분을 믿게 되었고,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 자신의 이웃들도 데려왔다. 우리가 주님에 관해 계속 배워 가면, 우리 역시 이와 같이 된다.

제자들과 있게 된 소소한 사건은 본문의 이야기로 균형을 맞춰 준다. 제자들은 이미 주님을 믿고 있었다. 즉, 그들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타애에 관해서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물이 진리를 표현하는 반면 성경에서의 양식은 선함을 표현한다. 제자들이 양식을 샀다고 함은 그들이 선함이나 이타애를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생각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사온 양식을 받지 않으셨고, 진정한 선함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살 수 없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또한 선함은 오로지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된다는 것도 가르쳐주셨다. 즉,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구절은 우리 속의 선함과 진정한 이타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세상에서 행하도록 하고 그것을 행하기 위한 힘을 그분께 구함으로써 이뤄진 모든 선의 근원은 그분이시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기본 상응 공부

“이” 물 = 자연적인 진리

“샘솟는” 물 = 주님이 진리 안에 현존하심을 인식할 때의 진리

제 4반

사마리아인의 상태를 주로 살펴본다.

본문은 제 2장의 가나에서의 기적보다도 깊은 교훈이 담겨져 있다. 가나에서의 기적과 야곱의 우물에 앉아 계신 주님의 이야기 사이에 있는 사건은 그분이 과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거듭남 또는 재탄생의 필요성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신 것이다. 주님의 시대 때의 거룩한 지역은 세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 중 유다는 우리의 의지나 동기를, 사마리아는 생각을 그리고 갈릴래이는 바깥 행동이나 행동 지침을 표현한다. 주님께서 갈릴리의 가나에서 있었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는 우리가 진리를 일상생활에 사용할 때만이 올바른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유다에서의 니고데모에 대한 훈육을 통해서 우리의 동기를 이기적인 곳이 아닌 천국적인 곳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다. 이제 주님은 갈릴래이로 되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치셔야만 했다. 이는 주님의 교훈이 우리 생각의 평면에도 있어야 함을 함축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해성은 우리 인생 초기에는 “땅을 갈지 않은” 상태에 있게 된다. 우리는 인생 초기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말씀을 기반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을 우리의 이해성 안에 담게 되는데, 이 지식이 바로 5절의 “야곱이 요셉에게 물려준 조그만 토지”에 해당된다. 우리는 이해성 속에 “야곱의 우물”도 가지고 있다. 이 우물이란 글자로서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 우물이 있는 이 땅은 사마리아인들이 소유하고 있다. 비록 사마리아인들이 유대교의 교훈을 많이 알고 인정할지라도, 그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이방인들이었다. 사마리아인들은 오래 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후 그곳으로 이주해온 외국인들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이다. 열왕기하 17장의 이야기는 사마리아인들의 종교적인 배경을 설명해 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경멸하며 그들과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복음서 전반에서 마음씨 고운 이들로 지칭되며, 주님의 가르침을 받음에 있어서 유대인들보다 더 개방적이었다고 기술된다. 스웨덴북은 ‘새로운 종교적인 처방은 앞에 처방된 종교속의 선한 나머지 속에서 시작되지만, 실질적인 성장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있게 된다.’라고 말한다. 이는 첫 기독교회에서 진실로 판명된 바, 새교회의 성장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기독교 국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이방인적인 상태가 존재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에 있어서는 아주 혼동된 상태에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런 상태는 18절의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구절로 의미된다. 앞서 성경에서 여인은 애정을, 남자는 생각을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올바른 (제) 남편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처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의지할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여 여러 교회를 배회하게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러한 혼동된 신앙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새교회인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곡식이 이미 다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된 밭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다. 이 두 부류는 대칭을 이루고 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으러 갔는데, 이는 선의지 또는 이타애가 반드시 진리를 구해야 함을 표현한다. 주님을 진리로서 이미 받은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시내에 들어가고 없었다.” 이는 제자들이 선함을 구하면서도 주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선함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함을 표현한다. 또한 이것은 믿음이 반드시 이타애와 하나를 이뤄야 한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이들이 선함의 근원을 마치 자기인 것처럼 여기며 선함과 그것을 실체화하는 방법을 세상에서 찾는 경우가 흔하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사가지고 온 음식을 받지 않으시는 31-33절의 내용이 이를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셨다. 즉, 진정한 이타애란 눈에 보이는 선행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모든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에 있게 되는 그분에 대한 순종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본문에서 가장 경이로운 구절은 아마도 13절과 14절에서의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일 것이다.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말씀으로부터 물(진리)을 길어 올리면 고작 사소한 진리만 얻게 될 것이다. 말씀의 우물은 깊고, 우리의 물동이는 그 용량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느님이시고 모든 진리와 선함의 근원이 그분이심을 알고 믿게 되어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뵈게 되어 우리 안에서 말씀속의 진리는 샘솟는 물이 된다. 그리하여 말씀은 우리의 이해성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주목해 두어야 할 구절이 있다. 우리는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여태껏 존재한 인간들 중에서 가장 선한자로 간주하거나 그분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 우리는 이때에 우리와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해주신 요한복음 4장 26절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제 5반

우리가 말씀에서 생명수를 발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식하고 믿어야 함을 언급한다. 또한 유대인들의 마음은 닫혀있던 반면 사마리아인은 그분을 영접했음도 살펴본다.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 정복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 결코 되돌아오지 못했다. 아시리아 왕은 그들이 끌려가고 난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동방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켰다.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이 외국인들이 사자로 인해 곤란을 받다가 하느님을 믿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사자들로 인한 고통의 원인을 그들이 정착한 새로운 땅의 신들을 예배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출신의 사제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되돌아온 후 여호와를 예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섬겨왔던 신도 섬겼다.

그들은 이로부터 거의 칠백 년이 지난 본문의 시대에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이주민으로 간주되며, 바리사이파인들이 세운 전통이 그들에게 금해지고 있었다. 사마리아 지역은 거룩한 땅의 세 지역 중 중간, 즉 갈릴래아와 유다 사이에 위치하여 있었다. 유다는 우리 삶의 평면 중 깊은 곳인 의지나 동기를 의미하고, 갈릴래아는 외부적인 곳인 행동을 의미한다. 이 둘 사이에 위치한 사마리아는 우리의 생각에 해당된다. 본문은 ‘주님이 유다를 떠나 갈릴래아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거치셔야만

했다'라고 전한다. 이는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를 수행할 수 있기 전에 그것들을 먼저 생각해 볼 때만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생각 없이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행동으로 바로 시도하게 되면 그 결과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뒤죽박죽되어 버림을 경험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다. 거룩한 땅이 우리 속에 있는 교회를 그린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천적인 교회를, 사마리아는 이해성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교회를 그리고 갈릴래이는 행동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외적인 교회를 의미한다. 영적 교회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애정) 안에 존재하고, 그 마음에 연결된 선은 이웃을 향한 이타애로부터의 선이다(천국의 신비 2702-5, 계시록 설명 375-42항 참조).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영적인 교회는 사라지고 말았다. 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주된 이방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다소 갖고 있었지만 진리에 대해 무지한 상태였다.

주님의 시대 때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을 향한 이타애로부터 비롯된 선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상징했다(계시록 설명 375-42항). 이에 대한 의미를 밝혀주는 성경의 구절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다. 본문에 등장한 여인은 다섯 번이나 결혼했고 그나마 같이 사는 남자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을 행하려는 사람이 갖가지 종교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서도 진리에 대한 그의 이해가 그가 바라는 선에는 여전히 미흡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마리아 여자의 물동이는 한정된 교리를 표현한다. 본문에서 명확히 보여주는 사항은 사마리아인이 주님에 대한 소식을 기쁘게 듣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주님으로부터 신성한 진리를 받으려 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표현한다. 겸손하고 가르침을 바라는 그들의 마음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보다 주님을 더욱 기꺼이 영접했던 것이다. 이는 기독교회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성장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들이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가졌다는 것과 예루살렘에서나 사마리아 산에서의 예배가 영이신 주님에 대한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스웨덴북역시 새로운 교회가 비록 이전 교회에 속해 있던 소수의 선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을지라도 선한 이방인들 사이에서 발달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것은 진정한 새교회라고 부연한다. 사카르 마을 주변은 신성시되는 곳이었다. 이 지역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인 히위 사람 하물로부터 사들인 한 구획의 토지였는데, 야곱은 이 땅을 요셉에게 여분으로 물려주었다(창세기 48:22). 이곳은 출애굽 때에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가 묻혔던 곳이기도 하다. 야곱의 우물은 “야곱의 샘”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신명기 33장 28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야곱의 우물은 말씀에 대한

상징이다(천국의 신비 2702-5항 참조). 주님의 시대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이 우물을 소유하며 사용했었다. 이는 성경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이 우물은 상당히 깊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의 양이 노력한 정도에 비해 아주 적었다고 함은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끌어내려 할 때 애쓰는 갖가지 방법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외적인 지식은 설사 그것이 성경에 관한 외적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님이 우물가에 앉아서 우리에게 생명 있는 물을 주셔야만 한다. 이는 우리가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이 현존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서 성경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의 외적인 의미 곧 글자적인 의미만을 보게 되면 성경을 고된 명령들 혹은 악에 대한 징벌뿐인 것으로 여기거나 전쟁 또는 파괴만을 일삼는 이야기들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를 새롭게 해줄 성경으로부터의 진리의 양은 아주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을 뵈고 악이 주는 섬뜩한 파괴를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악들을 피하도록 해주심을 분명히 알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설사 고집을 부려서 주님으로부터 한없이 멀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길로 되돌아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진리를 제공하고 계심을 실감하게 된다. 따라서 성경의 진리는 우리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도록 해준다. 또한 사랑이신 주님의 목적과 섭리는 우리의 마음상태가 그분의 인도에 관한 지식을 변화해 갈 때마다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게 된다.

계시록 22장 17절에서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주님의 초대는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 즉,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시십시오.”라는 것이다. 인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생생한 현존에서 솟아오르는 기독교회는 곧 내적인 교회이다. 이 교회는 예배의 외적 형체를 종교 자체라고 주장하지 않고, 마음과 이해성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그 형식을 지켜나간다고 인식한다. 하느님은 영이시므로 그분의 안내와 힘을 얻기 위해 그분을 찾는 이들이 해 놓은 선한 일들 속에 이미 거하시는 것이다. 즉, 주님이 생명수를 주실 준비를 갖추고 계셔서 우리가 그분께 요청하기만 하면 과거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그와 똑같이 섭리하신다는 것이다.

본문에는 흥미로운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주님은 진리를 바라는 선함을 의미하는 사마리아 여인과는 물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신 반면 진리로 훈육된 사람을 의미하는 제자들과는 생명의 양식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 사항은 대비되는 내용이다. 제자들이 시내로 가서 구입하여 되돌아와 주님께 드린 양식은 자연적인 선함을 상징하고, 야곱의 우물에서 여인 스스로 길어 올리려던 물은 자연적인 진리를 상징한다. 그래서 주님은 자연적인 물을 생명수와 대비시키셨듯이 제자들이 산 양식을 그분의 양식과 대비하여 보여 주신 것이다. 여인은 이타애를 가졌지만 믿음이 필요했다. 제자들은 믿음을 가졌지만 이타애가 필요했다. 그리고 주님의 양식 곧 그분의 생명에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즉, 우리의 고집대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영체 곧 우리의 천국적인 인격에 자양분을 공급하여 우리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느라 자이를 잊게 되면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교훈은 35-38절에서 다시 주어지고 있다. 스웨덴북은 「계시록 설명」 911-16항에서 ‘이 구절은 새교회의 건설을 다루는 것이며, 실제로 새교회의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속에 포함될 뿐이다.’라고 해석한다. 앞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배웠듯이 씨를 뿌리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뿌림을 받을 뿐이다. 그 다음 본문 마지막 문단에서는 주님의 영이 일하심에 대한 명확한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기를 그분께 간청했던 것과 그들이 세상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로서 그분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처음에 여인의 증거로 믿게 되었지만, 차후에는 그분에게서 직접 들어서 믿게 되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의 첫 번째 받아들임은 우리의 마음이 자극되어져 있어 진다. 그러나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받아들임이 이해성에 의해 다시 받아들여져야 함을 가르쳐 주신다. 제 26절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다. 그 이유는 주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 “예수는 그분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천상천하의 유일한 하느님으로서 주님을 인식하는 것만이 모든 성경을 조화롭게 해주어 성경으로부터의 진리가 우리를 안내해 주고 강건해지도록 힘을 준다는 확신과 더불어 말씀을 대하도록 해준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씀에서 기쁨을 얻게 된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제 1074-2항: “신성한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세 천국을 거쳐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려와 기록됨과 더불어 각 천국에서도 말씀이 있게 되어 각 천국을 하나로 묶어주고, 천국은

세상에 있는 교회와 하나를 이루게 된다. 그 이유는 말씀이 어느 곳에서나 똑같으나 천국의 수준에 따라 영화로움과 지혜의 완전성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신성은 천국을 거쳐 그분의 신성과 말씀의 거룩함을 인정하며 말씀을 읽는 세상 사람에게로 흘러간다. 그래서 인간이 지혜를 사랑하는 만큼 주님 또는 천국 자체로부터 받아들이듯이 말씀으로부터 훈육되어져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천사들이 공급받는 양식과 같은 양식으로 먹여져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바, 다음의 말씀을 참조하기 바란다.

*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다(요한복음 6:63).

*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요한복음 4:14)."

질문 정리

- 1) 주님의 시대 때 거룩한 땅의 세 지역은 어떻게 구분되었는가?
- 2) 중간 지역은 어디인가?
- 3) 사마리아 사람이란 누구인가?
- 4) 본문에서 주님은 어디에서 어디로 여행하시고 계신가?
- 5) 그분은 어느 곳에서 쉬시기 위해 멈추셨는가?
- 6) 야곱의 우물이 있는 땅 구획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7) 주님이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누가 왔는가?
- 8) 주님이 물을 달라고 하자 그 여인은 왜 놀랐는가?
- 9) 주님은 그녀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 10) 주님이 예언자임을 알도록 그녀에게 보여준 그분의 말씀은 무엇인가?
- 11) 주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그녀에게 말씀하셨는가?
- 12) 주님은 그분의 양식이 무엇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가?
- 13) 무엇이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해주었는가?
- 14) 야곱의 우물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생명의 물이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갈릴래아, 사마리아, 유다 2) 사마리아 3) 아시리아 왕에 의해 이주된 외국인들
- 4) 유다로부터 갈릴래아로 5) 야곱의 우물 6) 야곱이 사서 요셉에게 준 땅
- 7) 사마리아 여인 8)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
- 9) 10절 참조 10) 다섯 명의 남편 11) 나는 그리스도이다
- 12)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 13) 그분의 말씀들
- 14) 말씀 15) 생명 있게 하는 신성한 진리

30

베짜타 못

머리말

본문 이전의 사건은 주님의 두 번째 기적에 관한 것인데, 이 구절 역시 읽어두기 바란다.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면, 주님이 과월절을 기념하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을 알 수 있다. 이는 4장 45절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그리고 요한은 주님의 첫 방문 시에 성전을 정화하셨다고 말한다(2:13-16). 본문 이전의 이러한 사항들은 주님께서 유다와 갈릴래아를 자주 오고 가셨음을 보여준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5장 1-16절

5장: 1. 얼마 뒤에 유다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 가셨다. 2. 예루살렘 양의 문 곁에는 히브리말로 베짜타라는 못이 있었고 그 둘레에는 행각 다섯이 서 있었다. 3. 이 행각에는 소경과 절름발이와 중풍병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4. 이따금 주님의 천사가 그 못에 내려 와 물을 휘젓곤 하였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라도 다 나았던 것이다.) 5. 그들 중에는 삼 십 팔 년이나 앓고 있는 병자도 있었다. 6. 예수께서 그 사람이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아주 오래된 병자라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낫기를 원하느냐?”하고 물으셨다. 7. 병자는 “선생님, 그렇지만 저에겐 물이 움직여도 물에 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는 동안에 딴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8. 예수께서 “일어나 요를 걷어 들고 걸어 가거라” 하시자 9. 그 사람은 어느새 병이 나아서 요를 걷어 들고 걸어 갔다. 그 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다. 10. 그래서 유다인들은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요를 들고 가서는 안 된다” 하고 나무랐다. 11. “나를 고쳐 주신 분이 나더러 요를 걷어 들고 걸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꾸하자 12. 그들은 “너더러 요를 걷어 들고 걸어 가라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물었다. 13. 그러나 병이 나은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 준 사람이 누구지 알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미 자리를 뜨셨고 그 곳에는 많은 사람이 붐볐기 때문이다. 14. 얼마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자, 지금은 네 병이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욱 흉한 일이 너에게 생길지도 모른다” 하고 일러 주셨다.

15. 그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쳐 주신 분이 예수라고 말하였다. 16.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신다 하여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우리의 이해성 안의 말씀에 관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 * 어린 시절에 획득한 말씀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베짜타 못가”이다.
- * 우리가 진실로 자신의 과오를 인식하고 그것을 고치려 하면, 말씀의 지식은 이때 우리의 이해성을 휘젓게 된다.
- * 우리는 자신의 과오 중 하나가 고쳐진 후 또 다른 과오와 싸우기 위해서 전진해야 한다. 이렇게 지속해나갈 때 우리는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악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전보다 더 큰 악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게 되더라도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싸움이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이뤄주기 때문이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주님은 유대인의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1888년 경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양의 문으로 알려진 곳 근처에 위치한 고대 기독교회를 수리하는 토굴 작업 중 연못을 발견했다. 그들은 발굴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섯 개의 행각과 그 벽에 본문의 기적을 프레스코 화법으로 그려진 것이 빛이 바래 있었던 것도 발견했다. 그래서 이 못이 요한복음의 베짜타 못일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이다.

베짜타 못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만 언급되는데, 그 이야기는 성서에 나오는 물에 관련된 세 번째 교훈이다. 물은 진리를 상징하는 자연물 중의 하나이다. 연못에 집합된 물은 기억 속에 집합된 진리를 표현한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양의 문 곁에 있는 베짜타라는 연못은 주님께 관련된

사항과 올바른 것에 관한 지식을 상징한다. 이러한 지식은 순진했던 우리의 어린 시절에 받은 가르침으로 인해 우리의 기억 속에 놓이게 된 것이다. 다섯 행각이란 우리의 오감을 뜻하는데, 이러한 지식들은 오감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져 감동을 주게 된다.

그렇다면 병이 낫기를 기다리며 못 가에 누워있는 병자들이란 누구일까?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병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에게는 많은 결점들이 있고 그 중에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결점도 있다. 우리가 진심으로 결점(잘못된 습관)을 고치고자 하면, 주님의 천사 곧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역사 하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연못 속의 물을 휘저어 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안의 기억속의 진리가 휘저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를 재빨리 본 후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삶에 응용하면 우리의 결점이 치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 속에 더 깊은 악들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인식해서 인정해야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이야. 태어난 대로 살아야지.”라는 식으로 말하며 포기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못의 물이 움직여질 때 재빠르게 못으로 뛰어들지 못한 채 삼십 팔 년 동안 허약해진 무기력한 사람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며 늘 우리 곁에 서 계심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렇게 서서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째로 주님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선한 인격이 되고자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낫고자 결심하게 되면, 주님은 “일어나 요를 걷어 들고 걸어 가거라.”하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다. 즉, 우리의 무기력함을 타지면서 제자리걸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속의 악함을 극복하고자 결심 할 때 그 악을 극복할 올바른 것도 충분히 알아야 한다. 두 번째로 주님은 베짜타 못의 병자에게 “자, 지금은 네 병이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욱 흉한 일이 너에게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해 주신다.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한 가지 시험을 정복했을 때 자신을 온전한 인간이라고 착각하려는 것을 방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속의 더 깊고 깊은 곳에 틀어박혀 있는 악들을 보고 싸워나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이는 우리 삶의 목적이며 도전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항은 주님이 우리를 그 싸움에 홀로 두시지 않고 언제나 도와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제 1반

요한복음서의 두 번째 기적을 언급한 후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한다.

본문을 보면 주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분은 갈릴래아로 되돌아 가셔서 거기서 또 다른 기적인 고관의 아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셨다. 이후 주님은 또 다른 명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셨다.

어린 아이들은 아플 때를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가 하루 종일 시중을 들어 주기를 바란다. 그들은 때로 전혀 필요치 않은 일을 해 달라고 보채며, 병이 다 나은 후에도 아플 때에 받았던 관심을 즐기기도 한다.

사실 본문의 병자는 자신의 힘으로 병을 고쳐보고자 진실로 노력하지는 않았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일해줄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고 먼저 물으셨고, 그로 하여금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이후 주님은 그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욱 흉한 일이 너에게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일러 주셨다. 우리의 나쁜 습관은 우리 영혼의 병인 것이다. 우리는 때로 자신속의 나쁜 습관들을 고치려는 노력을 포기하거나 그 일에 상당히 더디기도 하다. 이는 부모들이 어린 아이에게 어떤 것을 충고해 줄 때 아이가 본문의 병자와 같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는 경우와 같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치고 선한 인격을 진정으로 도모하고 싶은가를 먼저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자 늘 우리 가까이 계신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예루살렘 양의 문 근처에는 어떤 못이 있었는가?
- * 몇 개의 행각이 그 둘레에 있었는가?
- * 이 못 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가?
- * 이 물에 가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이 물이 휘저어질 때 먼저 그 물로 들어간 병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 * 본문의 병자는 얼마나 오래 앓고 있었는가?

- *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물으셨는가?
- * 왜 그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다고 말했는가?
- *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종교 지도자들은 그에게 무슨 질문을 했는가?
- * 그는 뭐라고 답했는가?

제 2반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까닭을 재고하면서 14절과 연관지어 본다.

주님은 갈릴래아로 가셔서 두 번째 기적을 베푸신 후 또 다른 종교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셨는데, 여기서부터 본문이 시작된다. 기독교의 많은 학자들이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연못이 본문에 있는 못임을 확신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 의심은 사라졌다. 성서사전에서는 이 못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못은 양의 문과 안토니아 탑에서 과히 멀지 않은 예루살렘 베짜타 쪽에 있는 St. Anne 교회를 수리하던 1888년경 발견되었다. 제 4세기경에 지었던 성마리아 프로바디카 회당 폐허에 있는 못으로 그리스도께서 병 고치시는 기적의 모습을 퇴색된 벽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본문을 읽으면서 물이 진리의 상징물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많은 물이 모여 있는 것, 즉 바다나 호수 혹은 연못 등은 우리의 기억 안에 모아져 있는 많은 진리들을 상징한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연못은 주님께 관련된 사항과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를 가르치시는 진리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다소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베짜타 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양은 순진과 온화함을 상징한다. 우리가 순진하고 온화한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의 진리는 우리 기억 속에 잘 저장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그분의 진리를 듣기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잘못을 행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마. 그게 나쁜 짓인 줄 너도 잘 알잖아.”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 소리가 바로 우리의 기억 안에 있는 진리를 휘젓는 주님이 보내신 천사 또는 특사인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뜨여서 순종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못 속에 들어가 병을 고친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나쁜 습관들은 영적인 병과 허약이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나쁜 습관을 자신보다 더 강하게 여기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신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한 후 스스로를 팽개쳐 버리고 만다.

우리가 선행하고자 한 후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으로 자신의 나쁜 점들을 고치려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를 도와주심을 기억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이를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게 된다.

십계명에 있는 안식일에 관한 명령을 상기한 후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안식일의 의미를 배워야 할 것이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6일 동안 해오던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즉 세상의 삶을 위해 필요한 종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셨다. 이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그분에 관해 더 배우기 위해 안식일을 보내고, 그분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에 관해 배우며 6일 동안 행하지 못했던 타인을 위한 일을 안식일에 행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이 구절은 주님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셨다는 것과 그분이 안식일에도 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므로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마태복음 12:12).”라고 선포하셨다.

주님은 그 사람의 육체만을 정상적으로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올바른 것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다. 만약 극악한 사람의 신체가 이전보다 건강해지게 되면, 그는 악한 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전보다 훨씬 악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 속의 나쁜 모든 것들을 단 번에 고칠 수 없으며, 한 번에 하나씩 고쳐나갈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나쁜 습관 중 하나를 제거했다할지라도 또 다른 나쁜 습관과 투쟁하기 위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은 어느 지역을 거치셔서 유다에서 갈릴래아로 가셔야 했는가?
- * 주님은 가시는 도중 쉬시기 위해 어디에서 멈추셨는가?
- * 누가 물을 기르기 위해 우물에 왔는가?
- *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는가?
- * 주님이 그녀에게 줄 수 있다고 하신 물은 어떤 종류의 물인가?

- * 생명 있는 물이란 무엇인가?
- * 주님은 그녀의 신변에 관해 무엇을 말씀해주셨는가?
- * 주님은 당신이 누구라고 그녀에게 선포하셨는가?
- * 주님은 어떤 양식에 관해 제자들에게 말씀해주셨는가?
- *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 * 베짜타 못 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가?
- *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 * 천사란 단어는 무슨 뜻인가?
- *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병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 * 못가에 있는 한 사람은 얼마동안 앓고 있었는가?
- *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물으셨는가?
- * 그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 * 주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 그가 그렇게 하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언제 기적이 수행되었는가?
- * 왜 유대인들은 주님에 대해 분노했는가?
- * 주님은 성전에서 고침을 받은 병자를 보시고 그에게 뭐라고 당부하셨는가?

제 3반

우리의 나쁜 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상응으로 살펴본다.

주님은 사마리아에서 이들을 보내신 후 갈릴래아로 가셨는데, 요한은 그곳에서 그분이 두 번째 기적을 수행하셨다고 기록한다(4:43-54). 주님이 갈릴래아에 도착하시자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했다. 요한은 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모두 보았기 때문에 환영했던 것이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주님이 공생애 시작 이후 예루살렘으로 처음 가셨을 때도 기적들을 수행하셨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해준다. 또한 갈릴래아인들도 유대인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내러 갔던 것으로 알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갈릴래아인들은 이방인들이었다. 그래서 갈릴래아는 “이방인의 갈릴래아”라고도 불렸다. 주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요한복음에서는 복음서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그분이 나귀타신 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다음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기도 한다. 이 사건 외에도 이러한 경우는 허다하다. 그러나 우리는 사건의 역사적 순서보다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의 순서가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사건들의 순서는 내적인 의미에서 볼 때 어떤 장의 사건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큰 명절의 하나를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과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이라는 세 가지 큰 명절이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베짜타 못은 주후(AC) 4세기 경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발굴 작업이 있었던 1888년에 발견된 못이 바로 베짜타 못이라고 판명되었다. 1888년에 발굴된 이 연못은 본문에 기록된 기적을 프레스코 화법으로 그려 장식한 다섯 개의 행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 연못은 “양의 문”으로 알려진 곳의 근처에 있었다. King James 번역에서는 이 양의 문(gate)을 market으로 번역하기도 했는데, 이 둘은 모두 합당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원문에서는 단지 “양의 것 근처”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도 그 연못의 영적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단어 “양”의 상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말씀에서 언급되는 신체의 모든 질병이나 고통은 우리의 영혼이 앓고 있는 다양한 질병들을 상징한다. 특히 본문은 주님의 시대에 있던 교회의 모습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이 교회의 상태는 3절에서의 소경과 절름발이와 중풍병자 등 많은 병자들이 연못 주위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베짜타 못, 특히 예루살렘 양의 문 곁에 있는 베짜타 못이란 순진했던 우리의 어린 시절에 우리의 기억 속에 축적된 삶의 방법이나 하느님에 관한 지식들을 의미한다. 이 못에는 다섯 개의 행각이 있었다. 숫자 다섯이란 말씀에서 항상 “적음”을 의미하지만, “아껴둔 것 또는 남겨둔 것”을 의미하는 숫자 열과 항상 연결된다. 여기서의 아껴두신 것이란 주님께서 우리의 어린 시절에 우리 안에 심어두신 진리에 대한 지식과 선에 대한 느낌들로서, 우리가 장차 구원에 이르도록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속 깊은 곳에 그분이 친히 감추어 (아껴) 놓은 것들을 말한다. 베짜타 못으로 인도하는 다섯 행각이란 두 가지 측면의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는 우리가 가진 다섯 개의 감각을 의미한다. 모든 지식이 감각들을 통해 우리의 이해성으로 들어오게 됨을 생각하면 쉽게 납득될 것이다. 둘째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있어서 이를 통해 구원에 도달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다섯 개의 행각을 가진 베짜타 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나쁜 습관들이나 악함이 못 주위에 누워 있는 병자들로 묘사된다. “이 연못에는 이따금 주님의 천사가 내려 와 물을 휘젓곤 하였다.”라는 구절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주님의 천사가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진리를 휘저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천사는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가 가진 “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문에서의 병자는 물이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을 집중하여 보고 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특별한 나쁜 점에 관심을 두며 그것을 고쳐서 악을 극복하려고 긴장하고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다.

우리 속에는 앞서 묘사된 나쁜 점들보다 훨씬 더 극악하고, 우리의 마음에 고착되어 있는 것들도 있다. 우리는 때로 이러한 나쁜 점들을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속의 악들은 마치 우리의 일부가 되어 그것들을 떼어 버리는 것을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과 같이 느끼고 그것들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삼십팔 년이나 앓고 있는 병자가 의미하는 바다. 주님은 이 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신다. 다시 말해서, “너는 네 속의 악을 제거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다. 그러자 7절에서 병자(우리)는 자신의 병이 낫지 못한 이유를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주님은 이에 대해 “일어나 요를 걷어내고 걸어가라.”하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서, “너의 생각을 주님에게로 높이 들어 올려라. 네가 자랄 때 네 속에 담긴 종교 원리를 기억하라. 그리고 잘못된 것 대신 올바른 것을 행하라”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는 이를 거뜬히 해낼 수 있게 된다.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다.” 안식일이란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한 후 갖게 되는 쉼과 평화의 상태를 표현한다. 그래서 주님은 종종 안식일에 병자를 낫도록 해 주셨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날을 단지 자신들이 만든 불필요한 형식에 불과한 율법을 준수하는 날로 여겼을 뿐 안식일의 근본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다. 주님은 그들의 이런 전통을 쓸어내시고 안식일을 주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날로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는 사실 주일을 보내는 것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주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다. 주님 역시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참석하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이런 본보기를 따라야 할 것이다. 주일은 주님을 예배하며 그분께 관해 더 배우고 이웃을 돕는 날이 되어 우리의 영적 진보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못 = 기억에 모아진 진리

다섯 = 조금이지만 아껴두신 우리속의 선한 상태

침상(요) = 우리가 받은 교리

제 4반

우리 의지의 모든 부분이 주님에 의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치게 될 문제이다. 영적 발달에 대한 책임 회피는 흔히 발견되는 우리의 인간적 습성임을 염두해 둔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주님은 공생애 동안 유다와 갈릴래아 사이를 자주 오고 가셨다. 요한복음은 이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요한복음서가 주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에 있어진 가르침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도 주님이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본문의 말씀이 물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물에 관한 것이다. 갈릴래아 가나에서의 혼인 잔치에 있었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은 우리의 바깥쪽 행동평면에 관계된 진리의 발달에 관한 것이고, 야곱의 우물가에서의 내용은 지성적 측면에서의 진리의 발달을 의미한다. 본문에서는 의지적 측면에 관계된 진리의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면서 수많은 병자들로 채워져 있는 다섯 행각을 가진 예루살렘 양의 문 곁에 있는 베짜타 못이란 주님의 강림 때에 있었던 교회의 상태를 표현한다. 양의 문이란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어린 시절의 상태인 순진과 신뢰 안에 담긴 진리로부터의 지식을 상징한다. 숫자 다섯이란 “비록 적지만 충분함”이란 뜻이다. 이것은 당시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이 말씀속의 순수한 진리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아주 적은 틈만을 남겨두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것은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입증되고 있다. 그래서 교회라는 몸은 소경, 절름발이 혹은 중풍 등의 질병으로 차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제각기 가능한 방법으로 못가에 모여 누군가를 치료해 줄 주님의 영광의 접촉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날의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들 역시 본문에 언급된 못가에 모여 든 사람들과 유사하다. 우리는

자신의 결점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고쳐야 나가야 함을 알고 있다. 우리가 자신속의 결점을 보고 인정하면, 우리는 어린 시절에 배워 둔 말씀의 진리인 양의 문 근처 예루살렘의 베짜타 못가로 가게 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못의 물을 휘저어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특별한 결점을 고치기 위한 진리를 보여 주신다.

본문은 38년이나 못가에서 기다리며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결코 제때에 물속으로 들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믿게 된 약해지다 못해 지쳐버린 사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내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속에 마치 우리의 일부분처럼 느껴지며 아주 깊숙이 자리 잡은 악들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흔히 이러한 악들에 대하여 “나는 이런 식으로 태어나졌어, 태어날 때 가진 것을 난들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결론지으며 포기해 버리기도 한다. 세상의 어두운 상태 혹은 개인의 영혼에서 최악의 질병은 스스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실망이란 것이다. 이것은 본문에서 38년간이나 못가에서 기다린 환자가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서 제때에 물속으로 들어 갈 수 없었다고 느낀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 사람을 위해 새 날이 밝아서 주님이 못가에 나타나시게 된다. 스웨덴북은 ‘숫자 30이란 전투의 어떤 것 또는 남겨두신 것이 충만함을 상징한다.’라고 말한다. 본문의 사람 역시 재구성을 위한 희망 너머에 있는 자는 아니다. 즉, 그 역시 스스로를 바꾸고자 결심하게 될 때마다 재구성이 가능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낮기를 원하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셨다. 여덟째 날은 한 주일이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8이란 숫자는 “각 단계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 요를 걷어내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한계점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명령하고 계신다. 일어남이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자연적 수준 이상으로 들어 올림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어 쉬는 요(침대)란 삶의 기초로써 받아들인 교리를, 걷는다는 것은 전진함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 주님을 찾으며 이전에 배웠던 기독교의 원리를 기억하여 지속적으로 전진해 나가면 그분께서 우리 앞에 놓인 악들을 극복할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정복에 패배한 후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쓴 채 저물 때까지 야훼의 궤 앞에 엎드려 있었다.”라는 구절을 상기할 수 있다. 이때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 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사항은 실망이란 지옥의 근원이며 지옥이 주는 것은 죄 뿐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곤경에 빠지도록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것들을 극복하게 해 줄 의지의 박약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후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치료받은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셨을 때 하신 “자, 지금은 네 병이 말끔히 나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욱 흉한 일이 너에게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온전하다고 판단될 때 과거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야기토록 한 우리속의 악을 자기반성과 검증을 통해 밝혀내서 그것이 차후에 재발되는 것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안식이란 승리 뒤에 있는 평화와 쉼의 상태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안식의 상태에 머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한 주간인 7일이 끝나면, 또 다른 한 주간이 시작되는 8일째가 온다. 우리는 이 8일째 되는 날 지난 주간과 마찬가지로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와 새롭게 인식하고 싸워야 할 우리속의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된다. 안식일이란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 자신을 도와주신 주님의 은총으로 그분을 찾는 때를 의미함과 더불어 자아 검증과 새로운 해결책을 위한 날을 의미한다.

제 5반

우리가 제 14절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과 실망이란 것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악임을 언급한다. 또한 제 2절의 번역 상의 차이점과 베짜타 못의 규명도 살펴본다.

우리는 본문에서 물에 관련된 사항을 또 다시 배우게 된다. 본문에서의 못에 모여진 물이란 기억 안에 수집된 진리 또는 말씀에 관한 우리의 지식에 해당된다. 베짜타 못은 예루살렘 양의 문 근처에 있다. 이 구절은 우리 안에 수집된 지식이 우리 이해성의 거룩한 성 안에 있으며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있는 순진을 사랑하는 마음과 연계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순진했던 시절 곧 마음이 열려있던 아주 어린 시절 우리 안에 저장된 말씀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미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못 주위에 있는 다섯 행각에서도 암시된다. 그 이유는 숫자 다섯이란 “매우 적은 또는 아껴두신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설사 모든 인간의 마음들이 말씀 자체에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신성한 섭리는 말씀에서 오는 진리의 집합체인 연못을 가지도록 설비해주신다.

베짜타 못 주위의 행각들에는 병든 사람들로 붐볐다. 이는 우리 각자의 영적인 상태를 그려준다. 소경, 절름발이 혹은 중풍병자 등의 환자들이란 질병에 시달려 무기력해진 우리의 애정들과 생각들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 안의 병든 부분을 치료하고자 주님께서 우리 속 깊은 곳에

저장해 두신 진리를 상징하는 작은 못 주위에 운집해 있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이따금 주님의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젓곤 하였다”라고 전한다. 신성한 진리를 담은 우리 속의 못은 우리의 이해성 속에서 많은 세월동안 조용하게 머물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나 주위 환경이 그 진리로 인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가늠되면, 주님의 특사인 천사 또는 우리 안에서 역사 하시는 그분의 영이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못으로 내려오셔서 그것을 휘저어 우리로 하여금 못 속에 있는 진리를 인식하도록 해 주신다. 스웨덴북은 이에 대해서 “물이 휘저어짐은 믿음과 인식을 통해 활력이 있게 됨을 상징하고, 그로 인해 진리를 통해 순수해짐을 표현한다(천국의 신비 10083-4).”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속의 어떤 나쁜 점은 치료된다.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병약자 또는 물의 움직임에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는 자들은 우리속의 고쳐야 할 것들 중에서도 쉽게 고쳐지는 것들을 의미한다. 즉, 이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고 느껴지는 나쁜 점들이어서 우리가 고쳐야 한다고 인정하며 노력하겠다는 결심으로 인해 진리를 재빠르게 이해하게 되어 다른 것들보다 더 쉽게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속의 나쁜 점들을 단 번에 모두 지적해 낼 수는 없다. 따라서 스웨덴북은 ‘순수한 회개란 우리가 죄인임을 일차적으로 고백한 후 더욱 회개해 나갈 때 가능한데, 이는 우리속의 특별한 어떤 것을 제거한 후 또 다른 하나를 맞이해 싸워 나가는 식으로 계속되어져야 한다(참된 기독교 525항).’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거듭남은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 28장 10절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배짜타 못가에는 38년이나 기다려 무기력해지고 지쳐버린 병자도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물이 움직이는 시기를 결코 맞출 수 없다고 믿고 있었다. 이 병자는 우리가 우리 속에 든 악들 중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싸워내기 힘들다고 느끼는 깊은 악들을 상징한다. 즉, “난 내 속의 그것만은 어떻게 할 수 없어. 본시 가지고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라고 중얼거리며 그것들을 마치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마는 우리 속 깊숙이 뿌리내려진 악들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모두 이러한 악들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숫자 38년이란 우리에게 희망을 암시해 준다. 숫자 30이란 우리가 해 보겠다고 결심하면 우리 속에 남겨있는 선함과 진리가 그 악을 대적하는 데에 충분하다는 것을 표현한다. 그리고 숫자 8이란 대적한 후 새로운 시작도 가능성을 표현한다. 하지만 본문의 요점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가 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너는 네 속에 뿌리박혀 있는 악을 뽑아내고 싶으냐?” 라고 물으신다는 것이다. 이 질문은 달리 표현하자면, “너는 네 거듭남을 송두리째 다 끝내고 싶으냐?” 또는 “너는 남들이 뻔히 알 수 있는 피상적인 악들을 고치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외의 것에는 너의 능력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핑계로 네 속의 심각한 악들을 방치하려느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들의 변명에 대한 주님의 답은 단호하셨다. 주님은 38년간 못가에서 주거하였던 병자에게 “일어나 요를 걷어 들고 걸어가거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공격에서 실패했을 때의 모습일 것이다. 그때 주님은 낙심하여 있는 그에게도 “일어 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스웨덴볼의 저서에 따르면, 일어남이란 올림(높임 또는 향상) 곧 악에서부터 선으로 혹은 무지에서부터 총명으로 올려 짐을 의미한다고 한다(천국의 신비 2401, 4481).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을 세상적인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영적인 회미함으로부터 끌어올려 주님의 약속과 권능에 신뢰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누워있던 요 곧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추켜들고, 자신 속의 악들과 정면으로 대결하러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린 다윗이 주님이 자기편임을 믿고 거인 골리앗을 정면으로 맞서 개울가의 자갈을 날려 쳐 죽였듯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를 물었을 때 그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고 답하셨다. 이 구절에서의 산이란 있는 그대로의 자신, 즉 자기 자신의 특질들 또는 자신의 사상에 만족해버림을 의미한다. 우리는 때로 자신 속의 깊고 깊은 악들을 가지고 은밀히 즐기기도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결점을 마치 자신의 일부처럼 여기며 그것이 자신을 남들과 다르게 또는 우월하게 해주는 좋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아만족은 우리의 영적 진보의 길을 가로 막고 선 큰 산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진실로 원하는가’를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확신 있게 찾으려 하면서 우리가 지닌 모든 진리를 가지고 과감하게 전진하게 된다.

본문의 기적이 진행되는 가운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이 안식일에 행해졌음을 지적하며 주님을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안식일에 관한 계명에 그들의 전통을 추가시켜, 전통과 안식일이 같은 것으로 여겨지도록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주님은 이들이 첨부한 전통을 무시하셨고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주님은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마가복음 2:27-28).”라고 말씀하셨다. 안식일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드신 것이다. 따라서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과 자아에 폭 빠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깨트리는 사람에게 약속된 죽음, 즉 모든 영적 생명의 죽음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7일중 하루는 세상적인 업무나 관심을 한쪽에 내려놓고 주님과 그분의 왕국에 관해 배우고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이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 영혼이 치료받고 소생되는 날이 되도록 그분께서 특별히 안식일을 지정하여 주신 것임을 가르쳐주시기 위해 안식일에도 많은 기적을 수행하셨던 것이다. ‘주일에 해야 하는 것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끊이지 않는 질문들 중의 하나이고, 전통이나 관습이 미묘하게 얽힌 기독교 사회 속에서는 더욱 끈질긴 질문거리이기도 하다. 국가, 공동체 또는 각 가정마다 안식일에 관한 나름대로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사항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까지 전통들을 안식일의 의미에 첨가하게 되면 복음시대 때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에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변명으로 안식일에 관한 주님의 서술을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안식일에 대한 본보기 속에는 나태함 또는 이기적인 탐닉으로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됨을 결코 인정해주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즉,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6절의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서서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 가셨다”라는 구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안식일에 세상적 생각과 활동으로부터 쉬면서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야 한다. 우리는 안식일을 그분에 관해서 배우고 생각하는 기회의 날로, 우리 영혼의 집을 짓기 위한 재료를 채취하는 날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양하는 날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다가오는 주일을 준비하는 데 좋은 방안들을 강화시키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일어나 요를 걷어두고 걸어가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10360-8항: “주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분의 인성을 신성자체와 하나 되게 하셨을 때 그분은 표현에 불과한 예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 같은 안식일을 폐기시키시고, 그 날을 믿음이나 사랑에 속한 교리를 가르쳐주시는 날로 만드셨다. 이것이 요한에 의해 쓰인 구절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병을 고치심’이란 악으로부터 그리고 악에서 나오는 거짓으로부터 인간을 순수하게 하심을 의미하고, ‘침대 또는 요’란 교리를 의미하며, ‘걸는 것’이란 생활을 의미한다.”

질문 정리

- 1) 사마리아는 거룩한 땅의 어느 부분인가?
- 2) 사마리아 사람의 선조는 누구인가?
- 3)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래아로 가시던 도중 어디서 멈추어 쉬셨는가?
- 4) 주님이 물을 달라고 사마리아여인에게 물으셨을 때 그녀는 왜 놀랐는가?
- 5) 주님은 그녀에게 물에 관해 무엇을 말씀해주셨는가?
- 6) 주님은 그녀에게 자신에 관한 무엇을 말씀해주셨는가?
- 7)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양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8)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 9) 베짜타 못은 어디에 있는가?
- 10) 못 주위에는 몇 개의 행각이 있는가?
- 11) 어떤 이들이 행각에서 기다렸는가?
- 12) 그들은 무엇을 기다렸는가?
- 13) 물이 휘저어질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4)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이 못에 있었는가?
- 15) 주님은 그에게 먼저 무엇을 물어보셨는가?
- 16) 그는 뭐라고 답변했는가?
- 17)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18) 그가 그렇게 하자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 19)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꾸짖었는가?
- 20) 주님은 고침 받은 사람을 다시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1) 종교지도자들은 이 병자를 고친 사람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는가?
- 22) 우리속의 베짜타 못은 무엇인가?
- 23) “일어나 요를 걷어 들고 걸어가거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중간지역 2) 외국인 3) 야곱의 우물
- 4)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 5) 4장 10절 참조
- 6) 나는 그리스도이다 7)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8)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 9) 예루살렘 10) 5 11) 병자들 12) 물이 휘저어지기를 기다림
- 13) 먼저 물에 들어간 병자는 치료됨 14) 38년 15)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 16)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17) “일어나 요를 걷어 들고 걸어가라”
- 18) 치료되었다 19) 그는 안식일 법을 깨트렸다 20)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 21)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22) 기억 속에 저장된 하나님의 방법에 관한 지식
- 23) 너의 생각을 끌어 올려라, 네 삶을 기초한 교리를 추켜 들어라, 앞으로 전진하라.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머리말

본문은 기적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도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본문 전체를 기억하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9장

9장: 1.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만나셨는데 2.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저 사람이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다. 3.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4. 우리는 해가 있는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 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5.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6.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땅에 침을 뱉아 흙을 개어서 소경을 눈에 바르신 다음 7.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라”하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자”라는 뜻이다.) 소경은 가서 얼굴을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 왔다. 8. 그의 이웃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 노릇을 하고 있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하고 말하였다. 9. 어떤 이들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을 닮기는 했지만 그 사람은 아니라고도 하였다. 그 때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यो”하고 말하였다, 10.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하고 묻자 11. 그는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시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12.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소?”하고 물었으나 그는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13. 사람들은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14.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였다. 15. 그래서 이번에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또 그에게 눈을 뜨게 된 경위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 주신 뒤에 얼굴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14. 바리사이파 사람들 중에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하는 사람도 있었고 “죄인이 어떻게 이와 같은 기적을 보일 수 있겠소?”하고 맞서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17. 그들이 눈멀었던 사람에게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니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하고 다시 묻자 그는 “그분은 예언자입니다.”하고 대답하였다.

18.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본래는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고 마침내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19. “이 사람이 틀림없이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물었다. 그의 부모는 “예, 틀림없이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저의 아들입니다. 21. 그러나 그가 어떻게 지금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눈을 뜨게 하여 주었는지는 모릅니다. 다 자란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 보십시오. 제 일은 제가 대답하겠지요” 하였다. 그의 부모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작정하였던 것이다. 23. 그의 부모가 “다 자란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 보십시오”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은 소경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 놓고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죄인이요.” 하고 말하였다. 25.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앞뚝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잘 보게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26.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일을 했소?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했단 말이요?”하고 그들이 다시 묻자 27. 그는 “그 이야기를 벌써 해드렸는데 그 때에는 듣지도 않더니 왜 다시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28.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마구 욕설을 퍼부으며 “너는 그자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29.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지만 그자는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른다.”하고 말하였다. 30. 그는 이렇게 대꾸하였다.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도 모른다니 이상한 일입니다. 31.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청은 안 들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실행하는 사람의 청은 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2.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여 준 이가 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33. 그분이 만일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도저히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34.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너는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훈계하려 드느냐?” 하며 그를 회당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35. 눈멀었던 사람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그를 만났을 때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36. “선생님, 믿겠습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하고 대답하자 37. 예수께서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38. “주님 믿습니다.” 하며 그는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렸다. 39. 예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40.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사이파 사람 몇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들도 눈이 멀었던 말지요?” 하고 대들었다. 41. 예수께서는 “너희가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눈이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교리 요점

- * 고난은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발달을 위한 기회인 것이다.
- * 눈이 먼 채 태어난다고 함은 영적으로 볼 때 신성한 진리를 배우고 이해할 기회를 외부적인 환경면에서 박탈되었음을 뜻한다.
- * 결함이 있는 영혼은 하나도 없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어떤 교회에서는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세례에 의해 그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고 가르친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모든 질병이나 불행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로서 주님께 의해 인간에게 가해진 것이라고 가르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교리들은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과는 전혀 다르다.

본문은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혼란 질문에 확실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즉, 주님께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대답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

음 6장 29절에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느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도 말씀해주셨다. 위의 두 구절이 본문에서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육체의 눈이 먼 소경보다 훨씬 더 심각한 소경이 많이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평생 보지 못하고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선한 사람은 육신이라는 껍질을 벗어버리면 곧바로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그의 영혼이 언제나 볼 수 있었기 때문인데, 새교회의 교리는 이에 대해서 보다 확실히 설명해 준다.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여 받아들이면 우리 영혼은 이미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간혹 품행이 나쁜 아이에게 “네가 조금만 더 착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면 훨씬 더 행복해 질 수 있음을 너는 보지 못하고 있어.”라고 충고하기도 한다. 그 아이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유일한 까닭은 그가 그렇게 되고자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바리사이파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교훈이 바로 이와 같다. 그들은 진리를 알기를 거절했는데, 이는 진리가 그들의 이기적인 자만이나 포부와는 반대되었기 때문이었다.

본문의 소경은 겸손하며 올바른 것을 알고자 했으며 그대로 실천했다. 본문에서 주님이 그를 보았다는 말은 그분이 그의 마음과 생각들을 보았다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다. 주님은 그에게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도 주셨다. 본문의 소경이 자신의 경험을 곰곰이 생각해보도록 인도되었을 때 주님에 대한 그의 이해성이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는 먼저 주님을 “예수라 불리는 사람”정도로만 알았다. 그 다음 그는 그분이 예언자이심과 그분의 능력은 하느님에게서만 올 수 있는 것임을 알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느님의 아들 곧 육을 입으신 하느님이시며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어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렸을 때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느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면, 우리의 이해성 안에서 위와 같은 경로로 주님이 일어나셔야만 한다. 외적인 고난은 우리와 주님이 접촉되는 수단일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해주며 주님이 그분을 신뢰하는 이들을 도울 준비를 완료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도움을 요청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난은 죄에 대한 벌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무지로 야기된 것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으심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담이 저질렀던 원죄와 우리의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제 1반

소경의 의미와 더불어 전체적인 줄거리를 살펴본다.

앞서 우리는 베짜타 못의 사람, 즉 삼십 팔 년 동안 병을 앓고 있으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그 병을 낫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님이 “일어나 요를 걷어 들고 걸어가거라.”하신 말씀에 그가 순종하자 그는 완쾌되었다. 본문은 그 사람과 비슷한 절망 속에 있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뭔가를 하라고 요구할 때 자녀는 어머니에게 그 일을 해야 하는 까닭을 묻는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이유를 설명해주면, 자녀는 “알았습니다”라고 답하며 그 일을 행한다. 여기서 “알았습니다”는 영어로는 “I see”에 해당된다. 하지만 자녀는 어머니가 시키신 일을 원하지 않을 때 그것을 보지 못한 척 하기도 한다.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우리의 눈은 뭔가를 보는데, 우리의 마음 역시 뭔가를 본다. 주님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며 행하지 않을 때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고통은 무엇인가?
- *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눈이 멀어 있었는가?
- * 제자들은 주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가?
- *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주셨는가?
- * 누가 이러한 주님의 치료에 반대했는가?
- * 바리사이파인들은 주님이 소경을 치료하셨던 것을 믿었는가?
- * 소경은 주님의 권능이 어디서 비롯되었다고 확신했는가?
- * 바리사이파인들은 그를 어떻게 했는가?
- * 예수께서 소경을 다시 만났을 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 * 그러자 소경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제 2반

자신에게 솔직한 태도와 뭐든지 이는 척하며 건방진 태도를 살펴본다. 또한 겸손한 마음과 진지한 노력 그리고 마음을 여는 태도야말로 주님 앞에서의 미덕임도 강조한다.

본문에서 주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그때는 성막절인 수확절기였다. 주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그분을 적대하는 사람들과 토론도 하셨는데, 통상 있었던 바대로 그들은 그분을 파괴하려고 노력했다. 즉, 그들은 돌을 던져 그분을 치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을 해칠 수 없었는데, 이는 이 세상에서의 그분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제 18장 마지막 절에서는 이에 대하여 “이 말썽을 듣고 그들은 돌을 집어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피하여 성전을 떠나 가셨다”라고 기록된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에는 우리를 위한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질병이나 불운은 죄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믿기도 한다. 하지만 주님은 본문을 통해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다. 수많은 선한 사람들이 질병을 앓았는데, 그 원인은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탓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님은 이에 대한 이유를 “하느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히셨다. 어떤 아픔이나 불운도 주님께 의해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허용된 적이 없다. 단지 주님께서 그 당사자나 타인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수단이 된다고 예견하실 때만이 허용되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볼 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딛고 일어서서 사회적으로 유명해진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또한 우리는 지체부자유자들이 타인의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격려하면서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의 인생 상담사 또는 친구의 역할을 해주는 경우도 보게 된다.

본문에 있는 소경의 경우 주님께서 그의 고통을 사용하여서 세상에 깊은 교훈을 가르치시고 계신데, 이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주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쳐 주셨듯이 그 역시 고쳐 주셨다. 이 반에서는 그를 고치시는 과정에서의 세세한 사항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생략하도록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를 고치시는 과정을 접하면서 그 의미의 일부를 이해했으리라고 본다.

본문의 마지막 세 구절은 고침을 받은 소경과 바리사이파인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 후의 사건 그리고 소경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이 구절은 성경의 내적 또는 영적인 의미가 글자 상에 드러나 있기도 하다. 상응에 대한 특별한 공부 없이도 소경이란 진리에 대해 무지함을 뜻한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서기관)와 바리사이파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소유했던 것을 무척 자랑하는 계층이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성경을 이해하고 타인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고 자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그들과 대면하여 그들이 순종하고 싶지 않아 슬쩍 건너뛴 성경의 말씀을 꼬집어내셨을 때 그분이 보여주시는 진리를 똑바로 보기를 거절했다. 주님은 언제나 성경 속의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대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의 전 생애와 가르침은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심판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주님께서 진리를 보도록 해 준 사람은 본문의 소경과 같이 진리가 보일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 순종하는 자이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으로 눈멀게 된 사람은 자신이 진리를 가장 잘 이해한다고 떠들면서 정작 자신 안의 이기적인 것들을 질책하는 진리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닫아거는 자들이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우리의 나쁜 점을 고치라고 충고하는 말을 듣게 될 때마다 본문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역시 스스로의 악에 관계된 진리를 환영하기 싫어서 슬며시 조는 척 눈을 내려뜨게 됨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예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보셨는가?
- * 그분의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했는가?
- * 그분은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 * 주님은 어느 날에 소경을 치료해 주셨는가?
- * 이로 인해 바리사이파인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 * 그들은 이 기적을 확인하기 위해 누구를 심문했는가?
- * 왜 그 사람의 부모는 주님께 관해 말하기를 주저했는가?
- * 당사자는 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 * 그는 어떤 논쟁을 사용했는가?
- * 바리사이파인들은 그를 어떻게 했는가?
- * 주님은 자신에 관해 그에게 어떻게 말씀해주셨는가?
- * 그 다음 그는 어떤 행위를 했는가?

제 3반

기적의 상응을 주로 살펴본다. 또한 소경과 바리사이파인의 극명한 차이는 주님을 기쁘게 받아들인 여부에 있었음을 강조한다.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의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는 여덟 개의 기적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여덟 개의 기적들 중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신 두 가지 기적만이 다른 복음서들의 기록과 중복될 뿐 나머지는 다른 기적들이다. 이러한 여섯 개의 기적들은 요한복음의 특성이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미도 담고 있다. 본 반에서는 그 중 네 가지만을 공부하도록 한다.

본문의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도록 한다. 설령 천국의 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소경이 무지를 의미한다는 것쯤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일상 대화 속에서 무지한 사람을 뜻하는 말로 소경이란 단어가 자주 사용되기 때문이다. 본문의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그의 이러한 신체조건은 우리가 태어나 양육되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무지를 표현한다. 우리는 문명이 닿지 않은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이나 말씀에 관해서 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될 때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쉽게 수긍한다. 그러나 사실 우리 주변에도 말씀에 무지한 사람이 많이 있다. 그들이 무지한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려는 이가 없었고 말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설명 속에서 양육되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시대 때의 유대인들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성경에서 “주님이 누군가를 보셨다”라고 하는 구절의 의미는 그분이 단순히 근처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를 보셨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겉모습과 더불어 그의 속마음까지 보시고 계신다는 것이다. 본문의 소경의 마음은 겸손하며 착했다. 그가 말씀의 글자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는 담고 있었지만, 그의 이해성이 말씀에 관한 거짓 사상으로 가르쳐져 있어서 사실상 자신이 가진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소경이었다. 그가 앉아 있는 땅이란 말씀에 대한 글자적인 믿음에 기초를 둔 그의 마음속에 든 선함을 표현한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침은 말씀의 글자로부터 온 진리를 표현하고, 토양의 성분인 진흙은 진정한 진리의 한 조각으로 인해 다시 형태를 잡게 되는 인간 마음 안의 선함을 표현한다. 주님의 진리로 개어서 된 진흙이 그 사람의 눈에 발라진 후 실로암의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도록 명령되었는데, 여기서의 연못이란 기억 안에 수집된 진리를 표현한다.

그는 이 물에 눈을 씻자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소경이 눈을 뜬 기적과 연관되어 본문에 담겨진 다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자. 제 2절에서의 제자들의 질문은 우리가 의아해하는 질문중의 하나이다. 즉, “질병이나 갖가지 신체적 장애 또는 불운으로 인해 받게 되는 고통이 당사자나 그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죄에 대한 벌인가?”라는 것이다. 주님은 이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대답하신다. 주님은 종종 잘못을 저지른 인과로서 고난을 겪도록 허용하시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잘못의 결과로 겪는 고난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을 멈추게 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한 후 잘못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또한 주님은 선한 사람에게는 그가 받게 될 고난이 그를 영적으로 강건케 하며 그의 인격을 수양하도록 해주면 이를 허용하신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태해지거나 자만심에 한 번이라도 빠져들지 않고 복 가운데에만 거하는 자는 없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은 주님께서 하느님의 일을 그 사람 안에서 드러내시기 위해 고난이 우리들에게 오도록 간혹 허용하신다는 것이다.

소경의 이웃들이 소경에게 베풀어진 기적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다양했다. 기적을 있는 그대로 믿었던 자도 있었고, 그렇지 않았던 자도 있었다. 이는 기적에 의해서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의지와 상반되면 그에게 주님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의 후반부에서는 바리사이 파인들과 이기적인 사람 곧 자기만족에 빠진 자들은 눈뜬 자를 통해서도 자신들의 견해 또는 자기들의 삶의 길과 상반될 경우 그것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불신임 쪽으로만 우겨가게 됨을 보여준다. 우리는 본문을 명심해야 하는데, 이는 세상을 살아갈수록 주님을 믿지 않으려는 자들의 논쟁이나 행동강령 속에서 본문의 교훈이 거듭하여 입증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바리사이 파인들에게 많은 사건들을 통해 그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눈이 목격한 것을 부인하며, 그것들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분을 거절해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심같이 주님을 보게 되고 한때나마 그분을 인식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지반 위에 굳건히 서게 되었다.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빛을 위해 주님을 찾는 이들은 그분에게서 더욱 많은 것을 받게 된다. 반면에 주님을 거절하며 스스로가 현명하다고 착각하는 이들은 결국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만다. 이러한 그들의 영적 소경 상태는 그들의 눈이 먼 행동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마지막 절이 의미하는 바다. 바리사이파인들은 그들 자신에 의해 저주받은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8-21절을 읽고 본문을 마무리 짓도록 하자.

기본 상응 공부

소경 = 무지

주님의 침 = 말씀의 글자로부터 온 진리

제 4반

순종하고 싶지 않은 진리를 털어 버리고자 하는 우리의 경향성을 주로 살펴본다.

스웨덴북은 말씀이란 마치 우리가 옷 입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 말한다. 즉, 대부분이 우리의 옷에 가려져 있으나 손과 얼굴은 드러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말씀이 내적 의미를 드러내기 보다는 숨기고 있는 부분이 더 많지만 진심으로 주님의 교훈을 얻고자 말씀으로 다가오면 누구나 말씀 안에서 힘과 도움을 얻기 위해 필요한 내적인 의미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이다. 본문은 내적인 의미가 드러나 있는 말씀 중의 하나인데, 이는 표면상으로 드러난 깊은 의미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본문을 읽으면 말씀의 영적 의미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본문의 영적 의미에 대한 열쇠는 마지막 세 구절에서 발견된다. 이 구절에서 주님은 신체적 소경이 아닌 영적인 소경 곧 신성한 진리에 대한 소경에 관심을 두고 계심을 명확히 보여주고 계신다. 우리가 이를 염두 해 두고 본문을 공부해 나간다면, 우리는 본문 속에서 더 깊고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본문의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져 있었는데, 이는 갖가지 이유로 인해 단 한 번도 신성한 진리를 배우거나 이해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제 2-5절에서의 제자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사람이 겪게 되는 고난이나 역경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도록 해준다. 기독교는 수세기 동안 소경과 같은 지체부자유자 혹은 질병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교리를 발달시켜 왔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그 교리가 주님의 뜻이 아님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교리는 “원죄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죄론이란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의 후손들인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원죄는 오직 세례식으로만 제거될 수 있고, 세례 받지 않고 죽게 될 경우 설사 유아들이라 할지라도

사후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님은 본문의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것은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탓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즉, 주님은 원죄론을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빛을 주시는 주님의 방법은 뒤의 참고 문헌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본문의 소경이 치료된 후 그의 태도와 그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태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자. 소경은 자신의 신체에 있게 된 일을 공정하게 받아들일 만큼 정직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비방이나 곤란을 겪게 될 것을 관여치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지식을 밝힐 수 있는 용감함도 지니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신성한 진리가 보여 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를 계속 주시해 가다보면, 그의 이해성이 자라나서 점점 더 심오한 상태로 바뀌게 됨을 알게 된다. 그는 제일 먼저 “내가 바로 그 사람ियो.”라고 말한다. 이는 그가 자신이 눈뜨게 됨을 실감했다는 것, 즉 그가 조금 전까지도 가망 없는 소경이었지만 짧은 순간에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됨을 의미한다. 그 다음 그는 예수라는 분이 자신을 고쳐주셨다고 말한다. 그는 단지 주님의 이름만을 알고 있었을 뿐이다. 이후 그는 자신에게 일어 난 일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일련의 질문들을 갖게 되고, 그 사건이 평범하지 않음을 실감하면서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주위 사람들 특히 바리사이파인들이 그들의 종교원리로 기적을 부정하려 하자 자신의 눈을 열어 준 능력은 하느님으로부터가 아니면 있을 수 없었다는 믿음을 확증하면서 그들의 원리를 부정하는 성경의 참 교리를 대담하게 사용한다(제 30-33절). 이로 인해 바리사이파인들은 그를 회당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이리하여 그는 그동안 자신을 양육시켜온 거짓의 사슬로부터 풀려나게 된다. 그런 다음 그가 예수를 뵈었을 때 그분께서 당신이 누구임을 그에게 말씀해주시자, 그는 “주님, 믿습니다.”라고 선언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렸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과거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분의 신성을 선포하였듯이 바리사이파인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주님, 믿습니다”라는 결론을 맺기 전 유대교회당과 작별을 고하는 일을 먼저 해야 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즉, 마태복음 9장 16-17절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덧붙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위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제 3절에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상기해 보도록 하자. 즉,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부분이다. 이 구절과 더불어 6장 28-29절에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라고 한 질문과 예수께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하고 대답하신 두 구절을 한데 묶어 요약해 보도록 하자. 먼저 주님께서 선한 사람들에게도 시련이나 고통을 허용하신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시련이나 고통을 통해 겸손해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 그분으로 하여금 그들이 청한 도움에 응하실 수 있게 하며, 그들이 더욱 깊고 총명하게 그분을 믿을 수 있음을 그분만이 예견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본문에서 등장하는 소경 이외의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날마다 소경을 가까이서 지켜본 이웃들 중 일부는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과거의 그 소경이 아닌 다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부모 역시 아들에게 일어난 엄연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한 정당성을 밝히지 못하고 두려워했다. 사람들은 눈먼 자가 눈을 뜬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되자 주님의 권능이 악마에게서 왔다고 주장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을 참조하면 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본문의 교훈은 마지막 절에 함축되어 있다.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그분이 세상에 가져오신 심판의 진정한 의미는 그분에 의해 인간 위에 덮어 씌워지는 심판이 아니라 아주 바깥 수준 또는 가장 밑바닥 수준에서 신성한 진리를 새롭게 밝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확실히 알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실로 진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주님의 오심이요 심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진리를 발견했는데 이기적인 욕심, 즉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도 주님의 오심의 의미하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읽어보면 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양자택일 곧 진리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회도 유보해 두셨다. 즉, 우리는 이기적인 편리함을 위해 주님을 거절할 것인가 아니면 손해가 될지라도 주님을 믿을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제 5반

소경의 영적 의미, 고난의 원인, 주님을 믿는 신앙의 필요성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주로 살펴본다.

본문의 기적과 그 결과가 긴 세부사항으로 말씀에 기술된 바는 본문의 교훈이 아주 복잡적이고

본문과 별 상관없을 듯 한 교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의 첫 세 구절을 읽으면서 이를 실감할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고난이 그에게 허용된 까닭을 궁금하게 한다. 게다가 순진한 심정을 소유한 것 같은 이들에게 있어지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더 그 의미를 되묻게 한다. 그래서 세상 속에 널려져 있는 슬픔이나 악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신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도록 유혹되기도 한다. 본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믿는다는 다른 사람들 역시 인간이 겪는 고난들이 죄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벌이라는 것 이상의 명확한 설명을 해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고난의 원인이 개인 혹은 환경에서 비롯되었는가를 고민할 뿐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명확히 대답해주셨다.

본문에서 소경의 치료를 통해서 당시의 모든 사람들과 이후의 후세들에게 교훈되는 바는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신성한 섭리에 의해 인도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보다도 더 깊은 보편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유전적으로 받은 악한 경향성 혹은 태어난 환경이 나빠서 거짓 속에서 자라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환경조건들은 우리의 삶이 놓이게 되는 터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고난들과 고통들은 우리의 인격을 발달시키기 위한 기회로서, 하느님의 놀라우신 일을 드러내기 위한 기회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사항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즉 자신 속의 악한 경향성을 인정하고 그것과 싸우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그리고 진리를 만나서 인식한 후 재빨리 그것을 추켜드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하는 우리의 선택인 것이다.

우리는 본문을 읽어가면서 본문에 등장한 소경의 인격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주님은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그의 인격을 이미 알고 계셨다. 본문은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만나셨는데...”로 시작된다. “주님이 누군가를 보셨다”라고 함은 그분이 그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든 겸손과 선함 그리고 그가 진리를 간절히 알고자 함을 보셨다는 의미이다. 소경의 고난은 그로 하여금 자만으로 가득한 바리사이파인들과는 달리 겸손과 온화한 속성을 지니도록 해 주었다.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소경의 심정은 믿음에 대해 열려 있었고, 이로 인해 “하느님의 일”이 그에게서 드러났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중에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것들의 목적이다. 신성한 섭리는 우리가 방향을 바꿀 때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려는 우리를 점검하셔서 우리의 악과 약함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의 길 뿐임을 알려주신다.

눈이 멀었다고 함은 무지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오늘날의 대화에서도 흔히 사용되어 상응이란 단어를 설명하는 데에 가장 간단한 예증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나는 본다(I see)”라는 표현은 실상 “나는 이해한다(I understand)”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난 정말 눈이 멀어 있었어.”라고 말하는 것은 사건의 진척 상황에 자신이 무지해 있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어떤 행동이나 사건의 인과관계에 무지한 사람을 두고 “시야가 짧다”라고 말한다. 본문의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 있었다. 이는 그가 영적 진리에 무지했음을 뜻하나, 그의 무지함은 사실 그의 탓이 아니었다. 소경이란 단지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여 무지해짐을 표현하는 것이다. 주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수행하셨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언급되는 옥도란 주님이 인간의 마음 안에서 보신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문의 진흙은 선을 표현한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물인 침이란 인간의 외부상태에 걸맞은 형태로 표현되는 신성한 진리, 즉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 안에 든 진리들”을 표현한다(계시록 설명 239-19.) 그리고 소경이 자기에게 발라진 진흙을 씻어낸 실로암 못이란 말씀의 글자에서 온 진리를 수단으로 거짓 사상을 제거함을 표현한다. 이 못도 베짜타 못처럼 우리의 이해성 속에 저장된 말씀의 글자에 관한 지식을 표현한다. 이 못의 물이란 당시 예루살렘의 수원이 되는 물의 일부로서 새롭게 솟아나는 물이었는데, 이는 말씀의 글자에 관한 지식이 우리 영혼 속의 거룩한 성을 씻기고 만족시켜줄을 상징한다. 이와 같은 지식은 앞서 살펴본 바대로 주님께 의해 우리 속에 저장되어 있으나, 진정한 영적 가르침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지식의 용도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 안에 지식이 존재함을 알게 될지라도 그것을 단순히 인간이 만든 도덕적 규범 정도로 간주해버리고 만다. 그가 주님의 진리를 이렇게 간주해 버리면, 그 진리는 그 안에서 결코 주님과 천국의 연결을 이룰 수 없다. 우리가 말씀에 의거한 삶을 정립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어서 우리의 삶을 말씀의 질서대로 정착시키며 생명을 주시는 그분과의 만남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한 번 번쩍 열리게 되면 우리를 확실함 속으로 인도해간다.

본문의 나머지 부분은 소경이 이처럼 번쩍 뜨인 눈을 가진 후 갖게 되는 믿음의 발달에 대한 경이로움을 보여준다. 바리사이파인들은 그 사람의 체험 자체보다 가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들이 기적의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이후 그들은 기적이

수행된 수단을 부정한 것으로 만들려고 했고, 결국 그를 무지한 죄인이라고 칭하면서 회당에서 쫓아냈다. 근대의 바리사이파인들 역시 그때와 마찬가지로 진리에 무감각하다. 이들은 영적인 깊이는 체험을 가진 사람과 접하게 될 때 먼저 그 체험을 논리로서 반박하려 하고, 그것을 자연적인 것이나 영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원인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상대방을 바보로 간주해 버린다. 바리사이파인은 단순히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아서 그것을 거절했던 것이다. 반면 본문에서 눈을 뜬 자는 그러한 논박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이는 그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앞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잘 보게 되었다는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한다. 사람의 내적인 눈이 체험에 의해 영적인 진리를 보도록 열릴 때에 그 사람은 영적 진리의 실재를 확신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그에게 그가 체험한 것이 단순한 자연적인 현상이었을 뿐이라고 깎아 내리는 천박한 논쟁을 격파하도록 하는 힘을 준다.

본문의 눈뜬 자는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에 역이용했고, 결국 자기 경험의 근원을 스스로 분명히 인식해 나갔던 것이다. 그가 주님에 관해 고백한 첫 마디는 “예수라는 분이...”였다. 바리사이파인들의 질문은 그로 하여금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해보도록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분은 예언자입니다.”라고 두 번째로 고백하게 되었다. 이후 바리사이파인들이 주님을 부정하게 하려고 애쓰자 그는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더욱 더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그분이 다시 나타나시자 그는 그분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증만 필요했던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자 그는 “주님, 믿습니다.”라고 세 번째로 고백하며, 예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렸다.

소경이 눈을 뜨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과정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는 어느 순간 말씀에서 빛이 나옴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다음 그 경험과 반대되는 것들 곧 바리사이파인들의 것과 같은 세상적인 추론 혹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들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더욱 명료하게 하고 격려해주기도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으로서 주님을 받게 된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보통 사람들처럼 예수도 인간이셨다는 사상으로 신앙생활을 출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려는 진실된 바램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계속 공부하면, 우리는 예언자로서 주님을 먼저 인식하는 데로 인도된다. 그런 다음 어떤 방법으로도 신성으로서의 주님과 궁극적으로 하느님 자체이신 주님을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주님은 자만심과 교만으로 그분을 마음속으로 거절하는 고백을 하는 추종자들에게 “너희가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

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눈이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신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제 239-19항: “누구든지 말씀 속의 영적 또는 내적 의미를 알지 못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란 교회 밖에서 태어나 주님께 관한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또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흙을 개어서 만든 진흙’이란 말씀의 글자적 의미에서 오는 진리를 수단으로 이뤄지는 재구성을 의미한다. ‘땅’이란 말씀이 존재하는 교회를, ‘진흙’이란 신성이 형성되는 가장 바깥쪽을,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바르심’이란 가장 바깥 쪽에서 진리에 대한 이해가 주어지는 것을, ‘실로암 못’이란 글자적인 의미로서의 말씀을 그리고 ‘실로암 못에서 씻는다’는 것은 거짓과 악들로부터 순수해짐을 의미한다.”

질문 정리

- 1) 빠짜타 못은 어디에 있는가?
- 2) 그 못에는 몇 개의 행각이 있는가?
- 3) 누가 행각에 모여 있었는가?
- 4) 왜 그들은 거기에 있었는가?
- 5) 어떤 이는 얼마나 오랫동안 아파왔는가?
- 6)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물으셨는가?
- 7) 그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 9) 그가 순종하자 어떻게 되었는가?
- 10) 그 후 주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11) 본문의 소경은 언제부터 눈이 멀었는가?
- 12) 제자들은 그 사람을 보고 주님께 무엇을 질문했는가?
- 13)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 14) 소경의 눈은 어떤 과정을 거쳐 보게 되었는가?
- 15) 이 기적에 대한 반론은 어떻게 제기되었는가?
- 16) 눈을 뜨게 된 자는 이 반론으로 인해 자신을 치료해주신 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도록 인도되었는가?
- 17) 소경의 부모가 주님을 노골적으로 찬양하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인가?
- 18) 그들이 기적의 사실을 부인하지 못했을 때 그분의 적들은 주님을 어떻게 몰아붙였는가?
- 19) 눈뜬 자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 20)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 21) 그 후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해주셨는가?
- 22) 눈뜬 자는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응했는가?
- 23) 본문에서는 주님이 세상에 오셨던 까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 24) 바리사이파인들은 무엇을 물었는가?
- 25)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해주셨는가?
- 26) 소경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27) 우리는 이 세상 삶에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질문의 답

- 1) 예루살렘 2) 5 3) 병자들 4) 치료받기 위해 5) 38년
- 6)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7)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 8) 일어나, 요를 걸어들고, 걸어가라 9) 치료되었다 10)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 11) 태어날 때부터 12) 누구의 죄 탓입니까? 13) 누구 탓도 아니다
- 14) 진흙을 바르고 못에서 씻음 15) 안식일에 행했다는 것 16) 예언자
- 17)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서 18) 그는 죄인이다 19) 32절 참조
- 20) 쫓겨났다 21)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22) 그분을 경배했다
- 23) 심판을 위해 24) 우리가 눈이 멀었던 말이요? 25) 41절 참조 26) 무지
- 27) 주님을 믿을 것이냐? 또는 믿지 않을 것이냐?

선한 목자

머리말

본과의 제목은 남녀노소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 다시 읽을 때마다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제 10장

10장: 1.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양 우리에게 들어 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딴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이다. 2. 양치는 목자는 문으로 버젓이 들어간다. 3.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4. 이렇게 양떼를 불러 낸 다음에 목자는 앞장 서 간다. 양떼는 그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뒤따라간다. 5. 양들은 낯선 사람을 결코 따라 가지 않는다. 그 사람의 음성이 귀에 익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피하여 달아난다.” 6.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7.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8.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9. 나는 문이다.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10. 도둑은 다만 양을 훔쳐다가 죽여서 없애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11. “나는 착한 목자이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12. 목자가 아닌 샅꾼은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쳐 버린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 가고 양떼는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 13. 그는 샅꾼이어서 양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14.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15.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16.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어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데려 와야 한다. 그러면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마침내 한 때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17.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결국 나는 다시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18.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치는 것이다. 나에게는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은 명령이다.” 19.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다시 논란이 일어났다. 20. 많은 사람이 “그는 마귀가 들렸소. 그런 미친 사람의 말을 무엇 때문에 듣는 거요?” 하고 말하는가 하면 21. 어떤 사람들은 “마귀 들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소? 더구나 마귀가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단 말ियो?” 하고 말했다.

22. 때는 겨울이었다. 예루살렘에서는 봉헌절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23. 예수께서는 성전 구내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는데 23. 유대인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당신은 얼마나 더 오래 우리의 마음을 조이게 할 작정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25. 그러자 예수께서는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나를 증명해 준다. 36. 그러나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27.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 온다. 28.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29.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 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아무도 그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30.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31. 이때에 유대인들은 다시 돌을 집어 예수께 던지려고 하였다. 32.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께서 맡겨 주신 좋은 일들을 많이 보여 주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못마땅해서 돌을 들어 치려는 것이냐?” 하고 말씀하셨다. 33. 유대인들은 “당신이 좋은 일을 했는데 우리가 왜 돌을 들겠소? 당신이 하느님을 모독했으니까 그러는 것이요. 당신은 한갓 사람이면서 하느님 행세를 하고 있지 않소?” 하고 대들었다. 34.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불렀다’ 하신 기록이 있지 않느냐? 35. 이렇게 성서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신이라고 불렀다. 성경 말씀은 영원히 참되시다. 36.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만은 믿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39. 그 때에 유대인들이 다시금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몸을 피하셨다. 40. 예수께서는 다시 요한이 전에 세례를 베풀던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41. 그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 와서 서로 “요한은 기적을 보여 주지 못했지만 그가 이 사람에 관해서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고 하면서 42.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교리 요점

- *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을 겸손하며 신뢰하는 상태로 간직해야 한다.
- * 주님의 가르침 위에 자신의 생각 혹은 타인의 사상을 얹어 놓는 사람은 그분에게서 진리를 훔치는 것이다.

가정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시편 23편은 읽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사랑을 느끼게 해준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유아기 때의 경험을 우리의 깊은 곳에 아껴두신 상태, 즉 순진과 신뢰의 상태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호소되기 때문이다. 아껴두신 것은 주님의 어린 양으로 상징화되고 있다. 우리는 때로 어린아이를 두고 “내 새끼” 또는 “내 어린 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주님의 어린 양이란 그분께서 우리 속에 아껴두신 것으로부터 자라나도록 허용된 우리에게 있는 미덕인 것이다. 여기서의 미덕이란 우리가 무지하고 약한 존재임을 겸손히 인식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상태들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추세는 위와 같은 겸손한 상태, 즉 어린 시절의 상태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오직 자기 확신이나 자기주장만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나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바는 우리가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을 겸손과 신뢰의 상태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 갈 수 있게 된다.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산적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도 의를 행하는 까닭은 그로부터 있게 되는 어떤 이득, 즉 사회단체에서의

명성 혹은 존경 등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진실로 선함을 사랑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이 의를 행할 때 개인적인 손실이 뒤따를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그들이 가진 의로움에 대한 원리는 즉시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서는 8절에서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가르침 앞에 어떤 명사의 사상을 놓거나 자기의 묘안을 갖다 놓으려는 자들은 그분의 것을 훔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주시는 진리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를 참된 안전과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마음의 문을 연 자 혹은 그 음성을 따르려는 심정을 지닌 자들만이 그분의 양떼들이다. 이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울안에 있는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저 세계에 들어 갈 때 그분에 관해 다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문의 바리사이파인들 같이 이 세계에서 배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더욱 중요해서 혹은 자신의 지식이 최고여서 귀를 막고 있던 자들은 저 세계에서도 귀를 막고 있어서 가르쳐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26절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또한 주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가르치셨다. 바리사이파인들과 한통속인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되새겨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느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고 했다. 우리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세상의 모습이 같음을 알아야 한다.

제 1반

동물의 특성을 살펴본 후 양의 상응에 대해서 주로 언급한다.

양은 온순하며 유용한 동물이다. 그들의 고기는 식용으로 알맞으며, 그들의 털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매해 겨울이 되면 양의 털들은 아주 두껍게 자라나 추위로부터 양의 몸을 보호해 준다. 양의 주인들은 봄이 오면 양털을 깎아서 팔거나 그 털로 담요 혹은 옷을 만들어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주님이 계셨던 때의 거룩한 땅에서는 양이 아주 중요했었고, 그 후로도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양들을 매우 중요시했다. 봄철에 목자들은 양들을 풀밭으로 인도하여 그것들과 함께 살았다. 그들은

낮에는 그것들을 야생동물로부터 지켰고, 밤에는 그것들을 우리 안에 넣어 그것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밤새 불침번을 섰다. 목자들은 그들의 양떼들을 사랑하여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양떼들은 그들을 돌보는 목자들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의 인도를 따른다.

사람들이 때로 그들의 아기를 “어린 양” 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아기들이 어린 양 같이 온순하며 순진하여 자연스럽게 생겨난 표현이다. 주님께서도 그분의 추종자들을 “내 양들” 이라고 부르셨다. 이에 관한 구절인 10장 1-14절을 다시 읽어 보도록 하자.

양과 어린 양은 순진을 표현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양으로 상징되는 특질이 우리를 자아신뢰 대신 주님을 신뢰하는 데로 인도해준다. 목자들은 양떼를 인도하며 지켜주는데, 이는 위의 특질인 순진을 가꾸며 보호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주님의 탄생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베들레헴의 목자들도 이와 같은 의미를 표현한다.

목자가 자신의 양떼를 알며 사랑하듯이 주님 역시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시며 사랑하신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 그분이 인도하는 곳으로 기쁘게 따라가야 한다. 구약성서 중에서 본문과 연결되어 특별히 연상되는 부분은 시편 23편이다. 이 시편은 때로 “목자 시편”이라고도 불린다. 이 시편은 주기도문 다음으로 많이 암송되며, 사랑받고 있는 부분이다.

과월절에 먹은 고기가 어린 양인 것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 그 음식은 결국 우리의 일부가 된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해성과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일부가 된다. 주님께서 성경 시대 때에 사람들에게 하도록 명령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적 강건함을 위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여러 가지 동물들은 우리 인격속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표현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 ‘돼지’라고 표현할 때에 돼지의 의미를 상기하면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양이나 어린 양이 순진을 의미함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목자가 자신의 양들을 사랑하듯이 주님 역시 우리 모두를 알고 사랑하신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먹여 주시고 안전하게 해 주실 수 있게 된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거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내용이 바로 9절의 “나는 문이다”라는 말씀에 함축된 의미이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들어가고 나감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늘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과월절이 기념되도록 처음 명령된 것은 성경의 어느 책인가?
- * 첫 과월절이 기념된 이유는 무엇인가?
- * 이스라엘 민족은 과월절에 무엇을 먹었는가?
- * 주님의 어린 양은 누구인가?

제 2반

양 그리고 양과 목자의 관계를 상응으로 살펴보면서,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헤아려 본다.

John Worcester의 저서 「성경 속의 동물」에서는 “동방의 목자들은 양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주는데, 양들은 이내 그 이름을 배워 응답한다. 많은 목자들은 건조한 계절에 양떼를 몰고 샘가에서 정기적으로 만난다. 그러면 양떼들이 혼잡을 이루며 물을 마신다. 모든 양들이 충분히 물을 마신 후 목자들은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는데, 그때 그들은 양들을 부른다. 그러면 양들은 즉시 자신들의 목자 뒤를 따르는데, 그들은 혼잡 속에서도 그들의 목자를 찾는 것에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 양들의 특성 중 하나는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 쉽게 인도되며 곤경에도 쉽게 빠진다는 것이다. 그들은 떼 지어 몰리면 놀란 것처럼 보이고, 더 몰리게 되면 더욱 놀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지도자가 앞을 향해 출발하면 따라간다. 목자에 대한 양의 애정은 양들 간의 사랑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양들은 자기 친구들 보다 목자를 더 따른다.”라고 설명된다.

제 10장 첫 구절에서 언급되는 ‘양 우리’란 양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울타리를 말한다. 우리는 당시에 양을 훔쳐가려는 도둑이나 강도가 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고, 특히 늑대나 야생동물로부터 양떼의 안전을 지켜야 했음은 자명한 일이다.

주님께서 당시 그분의 청종자들에게 친숙한 자연물들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사실 그 말씀을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 따라서 그분의 말씀은 당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미래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간을 초월하는 언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이가 아기를 보고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게 된다. 이것은 단지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은 아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유아가 양의 특성과 상응되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양의 특성이란 순진과 신뢰이다. 이러한 특성은 자기의 보호와 보살핌

을 위해 누군가를 찾으며 누구도 해치려고 하지 않는 바램을 가진다. 아기는 머지않아 이런 상태를 벗어나 자라게 되고 자신의 길을 원하기 시작하며, 이것이 좀 더 진행되거나 강해지면 설사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받게 된다할지라도 자신의 주관을 관철하려고 든다. 이 후자의 특성이 전자에 비해 좋지 않고 아름답지도 않음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본문은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할 때 요구되는 특질은 순진과 신뢰라고 말하고 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면 양들이 목자를 신뢰하여 따르듯이 그분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서 먹여 주실 것임을 노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항상 주님의 보호와 돌보심 하에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하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경청하기를 거절하면, 우리는 안전으로부터 떨어져 배회하게 되어 이기적이고 잔인한 느낌, 즉 “늑대”들에게 유린되고 만다.

위의 질문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 구절의 영적 의미를 알 수 있다. 도둑이나 강도란 목자로부터 양들을 훔치려는 자들이다. 이는 어떤 사람이 주님을 하느님으로 받기를 거절하거나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치 않으면서 다른 방법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고자 시도할 때인데, 이런 사람은 도둑과 같이 행동하여 주님으로부터 그분의 것을 훔치려 하면서 그분의 양으로 인도되는 것을 거절한다. 싹꾼이란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면서도 세상으로부터 그분의 추종자라는 평판을 얻는데 주력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 순종함이 자신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예상될 때는 자기 책무를 쉽게 내던지고 만다.

제 10장의 후반부는 주님께서 성전 구내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실 때 그분의 적과 가졌던 일련의 대화로 구성된다. 10장 후반부의 줄거리는 주님께서 당신을 두고 “나는 문이다” 또는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보여준다. 주님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가를 알려주신 다음 선한 사람만이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음을 말씀해주신다. 이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며 그분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행하려 애쓴다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어 안전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그분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기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안전과 평화가 무엇인가를 알 수 없다. 그렇다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내 자신이 얻은 것에 싫증내게 되고, 또 다른 것을 계속 원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결코 만족하거나 행복해질 수 없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과월절에 어떤 고기를 먹게 되는가?
- *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을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 누가 베들레헴에서 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첫 번째 메시지를 들었는가?
- * 시편 23편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 * 제 9절에서 주님은 당신을 뭐라고 부르셨는가?
- * 주님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들을 뭐라고 부르셨는가?
- * 이 외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가?(12절)
- * 주님은 늑대가 나타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 * 그들은 자기들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주님께 요구했는가?
- * 왜 주님은 그들이 그분을 믿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가?
- * 결국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주셨는가? (제 30절)
- * 그러자 그들은 어떤 짓을 하려고 했는가?
- * 왜 그들은 자기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했다고 말했는가?

제 3반

양과 어린 양의 상응을 기반으로 순진과 이타애의 의미를 살펴본다.

양과 목자를 포함하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그 예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아벨은 이 이야기에서 양을 지키는 자였고, 양떼 중 첫째 새끼를 주님께 바쳤다. 그 다음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때 주님은 이삭 대신 수양을 제물로 준비해 주셨다. 그리고 야곱이 형 에사오를 피해 도망가서 하란의 샘터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버지의 양떼를 샘터로 몰고 온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다. 출애굽기에서는 과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어린 양고기를 먹었다는 것과 시나이 산에서 제정된 법속에 있는 각종 제물에 양과 어린 양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무엘서에서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보내졌을 때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던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기도문 다음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시편 23편은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시작되고 있다. 신약성서에서 상기될 수 있는 사항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에게 주님의 탄생 소식이

알려진 일이다. 그 다음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세례자 요한이 주님께서 오심을 보고, “보라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한복음 1:29).”이라고 외쳤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계시록에서 수차례 “어린 양”으로 불리셨다.

주님이 어린 양 또는 목자라고 불리신 까닭은 양이나 어린 양이 표현하는 특질이 그분의 가장 깊은 특질이며,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 개인 속에 그분께서 보존해 두시며 발달되게 하시려는 특질이기 때문이다. 이타애(charity) 또는 순수한 선함의 특질은 양으로 상징되며, 이타애나 순수한 선함은 어린 양이 상징하는 순진이라는 특질에서 발달된 것이다. 순진이란 단어는 “해치지 않음”이라는 뜻인데, 여기서의 해치지 않음이란 순진의 특질 자체라기보다는 그 특질의 결과에 해당되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순진 또는 이타애란 우리가 자신 속에 어떤 선이나 지혜가 있지 않고 오로지 주님으로부터 모든 선함과 지혜가 비롯된다고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정은 우리가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며, 타인에게 피해가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경향을 조심스럽게 다루도록 해준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마치 동방의 양떼가 목자를 따르듯이 주님을 따르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특질을 잘 활용하면,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며 이기적이고 잔인한 충동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다. 이는 마치 양들이 이리들로부터 보호받는 모습과 같다.

양 우리란 천국에 대한 상징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문이다. 그분만이 안전하게 그 문을 지키실 수 있는데, 이는 그분만이 순수하고 이타적인 사랑 곧 신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주시기 때문이다. 이 외에 우리가 따르기로 선택하게 되는 보호자는 강도나 도둑이어서 주님과 천국으로부터 우리를 훔치려 들뿐이다. 목자보다 수준이 낮은 샅꾼들도 선함과 진리를 섬긴다. 하지만 그들은 명성이나 안위를 위한 목적으로 선을 행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이 위협받게 되면 선한 행위를 즉시 내팽개치고 만다.

이 세상에는 순진한 특질을 가진, 즉 선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도 갖가지 이유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진정한 목자로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 1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다른 양”들인 것이다. 스웨덴북은 이런 사람들은 저 세계에서 진리로 훈육된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들이 지상에 사는 동안 자기들의 마음과 이해성을 진리와 선을 향해서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사실 천국에는 아주 많은 사회 곧 많은 양 우리들이 있다. 하지만 천국의 백성들은 모두 다 주님의 양이요, 그들은 그분만을 자기들의 목자로 인정한다.

본문 후반부에서의 성전 내에서 있게 된 주님의 대화는 그분의 양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우리는 주님의 신원이 무엇이나고 물은 사람들의 의도가 진리를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을 공략할 구실을 찾기 위함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스스로를 상당히 현명하며 선한 존재라고 여겼는데, 이런 연유로 그들은 순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다. 자신의 지혜나 선함을 뽐내는 그들의 자만심이 그들의 이해성과 마음을 닫히도록 했던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진리로 가르쳐질 수 없다.

기본 상응 공부

목자 = 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호하며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
 이리 = 순진과 선함에 반대하여 그것을 파괴하려드는 악

제 4반

주님과 그분의 가르침만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음을 강조한다.

본문에서 “양떼는 그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뒤 따라간다”라는 말씀과 “나는 문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양과 어린 양은 순진과 진정한 선함 그리고 순진에서 발달된 이타애를 표현한다. 그리고 순진과 이타애의 기본 바탕은 겸손이다. 하지만 현대 문명사회에서 겸손은 대중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미덕이라고 생각조차도 안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적 측면, 사업적 측면 또는 전문직에서 강조되는 것은 자기 확신과 자기주장을 펼치는 것일 때가 많다. 현대인들이 ‘사람들이 양같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에 그 표현은 사람들이 겸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 표현은 사람들이 대중이 행하는 것을 쉽게 따라야 함을 의미하는데, 오늘날 광고의 대부분이 이런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양에 관하여 깊이 사고해보도록 한다. 양들은 이끌고 가기보다는 이끌리는 것을 쉽게 따른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목자 없이 이리들에 의해 파괴되거나 도둑에 의해 쉽게

강탈된다. 그러나 양들은 진정한 목자의 소리를 인식할 수 있고, 기꺼이 그 목자를 신뢰하며 따른다. 이는 겸손함을 지닌 이들만이 천국의 울타리 안으로 인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뒤의 참고 문헌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지혜나 선함을 믿는 자들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막고 파괴라는 길을 자신의 고집대로 가게 된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자기만을 신뢰하는 자들이 한 때나마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행운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성취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인물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가 한 때나마 자신의 마음속에 순진과 선함이라는 기초를 가진다면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진정한 목자를 찾는 일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23장 1-4절의 “이 저주받을 것들아, 양떼를 죽이고 흩트려 버리는 목자라는 것들아, 야훼의 말을 들어라. 내 백성을 칠 목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서 말한다. 내 양떼를 돌보아야 할 너희가 도리어 흩뜨려서 헤매게 하니, 너희의 그 꾀잡한 소행은 어찌 벌하지 않고 두겠느냐! 똑똑히 들어라. 나 비록 나의 양떼들을 이 나라 저 나라로 헤매게 하였지만, 그 중에서 살아남은 것을 모든 나라에서 본래의 목장으로 다시 모아 들여 크게 붙어나게 할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참 목자들을 세워 주리라. 그러면 내 양떼는 겁이 나서 무서워 떠는 일 없이 살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말이다, 어김이 없다.”라는 말씀을 참고하도록 한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짓 목자는 본문에서 언급되는 강도나 도둑 그리고 샅꾼까지 포함한다. 샅꾼이란 주님을 섬기겠다고 나서지만 자신의 중요성이나 자신의 이득에만 관심을 갖는 자들을 말한다.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목자이시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자세로 말씀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며 최선을 다해 그것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말씀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다.

주님은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종종 여러 교파들의 집회에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보다 과거 어떤 유명인사가 했던 말을 더 많이 늘어놓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된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사항은 천국에 들어 갈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과거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 즉 30절에서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또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필립보에게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나?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아주 간단한 진리로 이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음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가능하면 빨리 자신의 두 가지 삶의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가 영원히 간직할 것을 생각하는 것에 귀를 막든지 또는 주님이 우리에게 제공해주신 보다 더 깊고 높은 우리속의 영적인 자질의 가능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자신이 얻게 되는 명예나 물질을 사용해서 갈 것인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한 가능성을 발달시켜 가면, 우리 주위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기도 한다. 심지어 그들은 “저 친구 참 우둔하군, 주어진 떡도 못 먹으니...”라고 비웃기도 한다. 그러나 주님은 본문을 통해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주님은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의 속 상태를 꿰뚫고 계신다.

제 5반

스웨덴봄의 문헌과 더불어 다른 성경인용을 살펴봄으로써 본문의 의미를 심도 있게 이해해본다.

스웨덴봄의 저서에서 양은 다양한 측면으로 설명된다. “천적인 것들”, “이타애와 믿음을 지닌 이들”, “의지로부터의 선” 또는 “단순히 선 가운데 있는 이들” 등이 그 예다. 어린 양은 특별히 순진한 선, 즉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지녀야 할 가장 깊은 선함을 의미한다. 순진한 선이 가장 높은 천국의 천사를 통치하는 원리인 것이다(계시록 설명 314항; 천국과 지옥 276-283참조). 가장 높은 천국의 천사들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인도 받기 위해 오로지 주님만을 찾는 온유하며 사랑스러운 영들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지닌다. 그래서 그들은 이기적으로 소원하는 바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그들의 특질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깊은 특질을 표현하여 성경에서 그분이 자주 어린 양이라고 불리시는 것이다(요한복음 1:29,36; 이사야 53:7; 계시록 5:6, 7:17). 이러한 주님의 특질은 그분에 대한 진정한 예배의 필수 사항으로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매일 흠 없는 어린 양 두 마리를 바치도록 명령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구약의 규정을 매일 밤낮으로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시고.”라고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제사의 의미를 지켜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서 주님 혹은 이웃을 상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격리되도록 바래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바램은

우리로 하여금 악과 거짓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준다. 이와 같은 연유로 어린 양이 과일절의 고기로 사용된 것이다(출애굽기 12:3-10). 그리고 유아는 이러한 사랑이 외형상으로 구체화된 것으로서, 어린 양은 어린 아이의 출생에 가장 적합한 제물인 것이다(레위기 12:6)

어린양으로 표현되는 순진한 사랑을 흠모하며 지키는 이들이 목자라고 불린다. 본문을 보면 주님이 으뜸가는 선한 목자이심을 잘 알 수 있다. 이 밖의 여러 말씀에서도 그분은 목자라 고 불리신다(시편 23, 이사야 40:11). 그 중에서도 기억되는 말씀은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관한 누가복음 15장 3-7절과 누가복음 10장 3절의 “떠나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구나”라는 구절일 것이다. 이러한 염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사랑은 언젠가는 늑대가 새끼 양과 어울려 사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다(이사야 11:6, 65:25). 이 말씀은 우리의 심정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언젠가 우리 속의 악한 애정들을 완전히 억눌러 줄 것임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기억해야 할 말씀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씩 되물으시면서 “내 양과 어린 양을 잘 돌보아라.”하고 당부하신 말씀이다(요한복음 21:15-17). 이 말씀은 우리가 자신속이나 타인 속에 있는 온순하며 고결한 애정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곧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의 강령을 맨 처음 알린 이들 역시 베들레헴 주변에서 밤새 양떼를 지키는 목자였음도 기억해야 한다. 이는 무지와 악한 세상 속에서도 순진의 선을 흠모하며 지키겠다는 이들이 주님을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말씀은 창세기 46장 34절의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선조 대대로 저희는 어려서부터 가축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고센 땅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도대체 목자라면 꺼려서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라는 것이다. 이는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집트로 이주하면서 파라오에게 말하도록 일러준 말이다. 이 구절이 묘사하는 바는 자연적인 마음이 가축 때로 표현되는 유용한 일을 사랑함을 가치 있다고 인식할 수 있으나 마음속에 있는 내적 특질은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말씀의 전반에 있는 주님의 섭리는 진정으로 선함을 사랑하는 마음을 먹여 키우시고 흠양 하시는 것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지닌 이들을 인도해주 시며 보호해주시는 것에 있다.

예레미야 23장 1-4절에서는 주님의 양떼를 흠트러지게 하고 모두 죽게 만들어 자신의 책무를 게을리 한 거짓 목자에 대한 저주를 보게 된다. 이와 더불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 양 떼를

양 우리로 다시 모으는 것임도 알 수 있다. 본문에서 주님은 위의 예레미야서 예언의 성취로서의 그분 자신을 표현하고 계신다. 앞서 우리는 그분이 어린 양이심을 살펴보았다. 이는 그분의 가장 깊은 사랑이 순진이라는 말과 같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는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말이다. 또한 그분은 분이신데, 이는 그분이 진리이심을 뜻한다. 우리는 이 진리에 의해서만 그분의 양 우리로 통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양 우리란 곧 천국이다. 주님을 인식하지 않으면서도 천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은 마치 도둑이나 강도와 같고 그분께 속하는 것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겨댄다. 주님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마음이 순진한 사람들이란 주님을 하느님으로 인식하여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님은 그분의 양을 부르실 때 양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즉, 그분은 우리 각자속의 진정한 특질을 인식하고 계신다는 말이다. 이름으로 양을 부른다고 함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지혜의 상태를 지닌 정도에 따라 이타애의 선을 가지며 그 정도에 따라 각 개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의미한다(주님의 섭리 230).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라는 구절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근접되고 우리의 삶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기도문 중의 하나인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을 이때로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시옵소서.”라는 부분을 상기케 한다. 주님처럼 진정한 목자인 사람들은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 속이나 타인 속에 있는 천국적인 순진이 위협될 때마다 이기적인 바램을 희생시킨다는 것이다. 반면에 샅꾼 곧 양떼를 지키고 돌봐줌으로써 뭔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위험한 때에 양떼를 저버리게 되는데, 이는 그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이 흑자로 계산될 때만 양떼를 돌보기 때문이다.

“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이란 지성이 충족되어야 하는 사람, 특별히 강령에 관한 이야기에 서 별을 보고 찾아 온 동방의 박사로 묘사된 자와 같은 이들을 의미한다(천국의 신비 3969). 본문은 시편 23편과 같이 널리 알려져 사랑받는 성경의 이야기들 중 하나인데, 이는 사람들이 본문을 이해하는 정도에 관계없이 본문의 이야기가 주님께서 우리의 어린 시절에 우리 속 깊은 곳에 저장해두신 순진한 상태에 직접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상태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인식케 하는 첫 번째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인들은 주님의 양들이 아닌 악한 목자요 샅꾼이었다. 그들이 주님께 여쭙본 목적은 진리를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그분에게서 허점을 찾아내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불성실을 지적해주는 방법 또는 그들의 행동과 그 원인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답해주셨다. 주님은 본문의 대화 속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연구해 보고 판단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분의 일에 어떤 흠이 있나 찾아보라고 까지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명백하게 선포하셨다. 이 이야기에서 바리사이파인들은 “당신은 한갓 사람이면서 하느님 행세를 하고 있지 않소?”라고 반박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모독죄로 주님을 기소하려 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늘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주님의 가르침을 신성한 진리로서 수락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그분의 주장을 연구하는 적하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시작부터 이미 작정되어 있어 그분의 신격에 관한 직접적인 서술에 부딪치면 “그건 불가능해. 아무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없어. 이런 따위는 모두 사도들이 짜낸 가공품에 불과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들은 본문의 바리사이파인들처럼 그분께서 이루신 일들을 그분의 권능에 대한 증거로서 수궁하기를 거부한다. 따라서 그들은 그분의 양떼가 아니다. 즉,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분의 소리에 마음을 열어 줄 순진하며 신뢰하는 선함과 겸손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란 의지에 원칙적으로 존재한다는 교훈을 깨고해보아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신 것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분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반면에 자신이 우월하여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어떤 형태의 증거에 의해서도 확신될 수 없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과 지옥』 제 276-280항: “이 세상에서 순진과 그 본성에 대해 알고 있는 자는 극히 드물다. 그리고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것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사실 순진은 어린이들의 얼굴, 언어 혹은 몸짓에서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순진이 무엇이며 인간 안에 저장된 천국이 순진인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를 알기 위해 [우리의 삶을] 순서대로 살펴보자. 즉, 어린 시절에 있는 순진을 생각해 본 다음 지혜의 순진을 차례로 생각해 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의 상태는 순진과 관계있음을 고려해 보자. 어린 시절의 순진 또는 어린 아이들 속에 있는 순진은 순수한 순진은 아니다. 그 이유는 그 순진은 내적 형체가 아닌 단지 외적인 형태로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순진이 무엇인가를 그것으로부터라도 배우게 된다. 그 이유는 순진이 어린이들의 얼굴과 몸짓 그리고 언어에서 빛나고 그들의 순진이 어른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천국에서

나에게 전해진 사상은 아이들이 특별히 주님의 창조를 받고 있다는 것, 그들은 순진 자체인 가장 깊은 천국으로부터 유입을 받는다는 것, 그 유입이 그들의 내면을 통과하여 간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통과 되는 동안 그들의 내면이 순진만으로 영향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순진이 그들의 얼굴이나 동작에서 보여 그 유입이 명확히 보이게 되는 것이다. 지혜의 순진이란 순수한 순진인데, 이는 그것이 내적이며 마음 그 자체 곧 의지 자체에 속하면서 의지로부터 이해성에게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천국에서 순진의 거처는 지혜라고 말해진다. 따라서 천사들은 지혜를 가진 만큼 순진도 가진다고 한다. 이는 순진의 상태 속에 있는 이들이 자신들로부터는 선한 것이 결코 생성되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받은 것이며 그분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에서 입증된다. 또한 그들은 그분에 의해 인도되기를 원하고 자신을 스스로 인도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선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진정한 모든 것에서 기쁨을 발견하는데, 이는 그들이 선한 것을 사랑함 곧 선을 뜻하고 행함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 정도에 관계없이 만족 하며 살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선이 존재하는 만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근심도 없다. 순진은 자아가 아닌 주님에 의해 인도되는 때에 존재한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모든 이들은 순진 속에 있다. 그 이유는 거기서 주님에 의해 인도되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자신을 스스로 인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것에 의해 인도되는 것임과 자신이 소유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 2) 주님은 진정한 목자는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3) 주님은 양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 4) 그분 앞에 온 이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5) 주님은 목자 외에 자신을 뭐라고 부르셨는가?
- 6) 그분이 어떻게 문이 되시는가?
- 7) 샅꾼은 어떠하다고 말씀하시는가?
- 8) 그분이 가진 다른 양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9) 유다인은 주님에게 무엇을 대답해 달라고 요청했는가?

- 10) 주님은 하느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1) 왜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가?
- 12) 주님과 아버지께 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분을 무엇으로 기소했는가?
- 14) 주님이 목자라고 불리신 성경의 또 다른 구절은 무엇인가?
- 15) 어린양과 양은 각각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순진을 영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질문의 답

- 1) 선한 목자 2) 자기 양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른다
- 3)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4) 도둑이며 강도 5) 양 우리의 문
- 6) 우리가 그분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 7) 양을 돌보지 않는다
- 8) 양 우리에게 있지 않다 9) 당신이 그리스도이냐? 10) 그분의 일
- 11) 그분의 양이 아니므로 12)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 13) 하느님 모독 죄 14) 시편 23편
- 15) 어린양 - 순진의 특질이 자라남, 양 - 생활 속에 있는 순수하며 선한 특질
- 16) 모든 선함과 지혜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쁘게 받아들임
(글자적으로 볼 경우, 헤치지 않음)

다시 살아난 라자로

머리말

본문은 미래의 삶에 대한 교리를 배우기에 적절하다. 먼저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주님께서 라자로를 일으키신 까닭은 우리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우리의 의식을 옮겨 갈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가르치시고 계신다는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11장 1-46절

11장: 1. 마리아와 마르타 자매가 사는 베다니아 동네에 라자로라는 병자가 있었다. 2. 앓고 있는 라자로의 마리아의 오빠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 드린 적이 있는 여자였다. 3. 마리아와 마르타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앓고 있습니다” 하고 전했다. 4. 예수께서는 그 전갈을 받으시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5. 예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고 계셨다. 6. 그러나 라자로가 앓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서 더 머무르시다가 이틀이 지난 뒤에야 7. 제자들에게 “유다로 돌아가자”하고 말씀하셨다. 8. 제자들이 “선생님, 얼마 전만 해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그 곳으로 다시 가시겠습니까?” 하고 걱정하자 9. 예수께서는 “낮은 열 두 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낮에 걸어 다니는 사람은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10.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하시며 11. 이어서 “우리 친구 라자로가 잠들어 있으니 이제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12.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 라자로가 잠들어 있었다면 곧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13.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라자로가 죽었다는 뜻이었는데 제자들은 그저 잠을 자고 있다는 말로 알아들었던 것이다.

14. 그래서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라자로를 죽였다. 15. 이제 그 일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잘 된 일이다. 그곳으로 가자.” 16. 그 때에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가 자기 동료인 판 제자들에게 “우리도 함께 가서 그와 생사를 같이 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17.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러 보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뒤였다. 18. 베다니라는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안 되는 곳이어서 17. 많은 유대인들이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마르타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20.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타는 마중을 나갔다. 그 동안 마리아는 집 안에 있었다. 21. 마르타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22.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느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23.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24. 마르타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5.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26.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르타는 27. “예, 주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믿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28. 이 말을 남기고 마르타는 돌아 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껏속말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하고 일러 주었다. 29.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달려갔다. 30.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마중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던 것이다. 31.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해 주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가 꼭하러 무덤에 나가는 줄 알고 뒤따라 나갔다.

32.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찾아 가 뵈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33. 예수께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 온 유대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 34.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시자 그들이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35.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36.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것 보시오. 라자로를 무척 사랑 했던가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37. 또 그들 가운데에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라자로를 죽지 않게 할 수가 없었던 말인가?” 하는 사람도 있었다.

38. 예수께서는 다시 비통한 심정에 잠겨 무덤으로 가셨다. 그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었고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다. 39. 예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자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40. 예수께서 마르타에게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시자 41.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제 청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42. 그리고 언제나 제 청을 들어 주시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기 둘러 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 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43. 말씀을 마치시고 “라자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시자 44. 죽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손발은 베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45. 마리아를 찾아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46. 그러나 더러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일러바치기도 하였다.

교리 요점

- * 죽음이란 부활로 인도되는 일종의 “잠”이다.
- * 우리가 걱정해야 할 “죽음”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야 할 선함이 죽는 것이다.
- *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속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바람들을 방치하게 되어 영적인 사람이 되어 갈 회망까지도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본문은 우리가 말씀 속의 것들을 기꺼이 믿을 때만이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도울 수 있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 본문의 가르침 중 한 가지는 믿음이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간혹 주위에서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말을 듣게 된다. 사실 이러한 말을 뱉은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문의 마리아와 마르타 그리고 라자로의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님을 기꺼이 믿고 있었다. 반면에 대사제나 바리사이파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참된 믿음이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함을 포함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의 변화라는 중대한 일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모든 사람은 사후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어떤 심판을 기다렸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일어나는 것임을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 본문에서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라자로는 잠들어 있다”라고 하신 후 “라자로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두 가지 서술은 모두 진실이다. 그 이유는 죽음이란 이 세상에서는 잠자러 가는 것과 같고 더욱 많은 아름다움과 행복한 세계에서 깨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주님께서 라자로가 앓고 있음을 전해 듣고 “그 병은 죽을병이 아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라자로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셔서 다시 깨우실 것임을 의미한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학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느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도록 우리의 영혼을 다듬으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를 희망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하지만 그러한 바램의 목적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영적 진보를 이루고 많은 선함을 쌓기 위해서라면 더욱 참된 것이다. 누군가가 아무리 장수한다 할지라도 지상에서의 그의 삶의 전부는 영원한 삶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들 각각에게 영원한 삶으로 이전되는 최적의 시기를 결정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때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과 가까운 누군가가 죽을 때 그를 잃어서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죽음에 임하는 그 사람에게는 항상 축복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죽음이란 우리 마음 안의 선함이 죽어 가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우리 속의 모든 가능성을 죽이는 우리 속의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구를 방치하는 위험에 처하게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 1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목적과 죽음의 의미를 살펴본다.

주님은 큰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그때마다 예루살렘이 아닌 그곳에서 약 2마일정도

떨어진 작은 읍인 베다니아로 가서서 그분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머무르셨다. 그분의 친구는 나자로라는 남자와 두 자매인 마르타와 마리아였다. 이들의 이름은 복음서에서 수차례 언급된다. 본문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일어난 일에 관한 것과 주님이 그를 위해 기적을 베푸셨던 사건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음에 처할 때 그를 잃게 되어 아주 슬퍼한다. 그리고 그가 떠남으로서 우리 삶에서의 어떤 변화가 이뤄지기도 한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나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가 죽도록 방치하셨다’고 하는 식의 느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주님께서 각 개인을 위해 항상 최선의 것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라자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는데, 이는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 두어야 할 두 가지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첫번째 사항은 25절에서 기술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에 관한 것인데, 이는 모든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됨을 의미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어느 누구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죽는다고 함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죽은 것으로 보이지만 저 세상에서는 깨어남을 의미한다. 영계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인격의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잠시 지상에 존재할 뿐이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면 저 세상에서 우리를 깨워 주실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택했다면 깨어나서 가게 될 본향이 예전보다 더 아름다운 고향임을 발견하게 된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라자로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왜 주님은 라자로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베다니아로 가는 것을 지체하셨는가?
- * 누가 주님을 만나러 갔는가?
- * 마르타는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는가?
- * 그녀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 * 주님은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은 무덤에 이르러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은 사람들이 입구의 돌을 치워내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제 2반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될 것, 죽으면서 가져야 할 태도 그리고 죽는 시기의 결정 등을 주로 살펴본다.

본문은 모두가 놀랄 만한 또 다른 기적에 관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만 언급되고 있다. 이 사건은 주님의 지상생활 말기에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본문 끝에서 과월절이 다가왔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의 12장에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려주일 사건을 접하게 된다.

베다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약 2 마일가량 떨어진 작은 마을이다. 그곳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늘 묵으시던 마리아와 마르타 그리고 라자로의 집이 있던 곳이다. 우리는 앞서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마르타와 마리아에 관해서 살펴보았다(누가복음 10:38-42). 요한복음 12장 1-8절을 읽어보면 본문 2절을 알 수 있다.

죽음이란 마치 이 세상에서의 잠자는 것과 같고 다만 깨어나는 세상이 예전과 다를 뿐이다. 사실 저 세상은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며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살면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인격을 만들면서 저 세상에서 살아갈 방법을 배우게 된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 유용해지기 위해서와 더욱 나은 자신의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래 머무르기를 바라는 것은 과히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죽음이 내일 찾아온다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의를 행하려는 삶을 꾸리고 있다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종에게 말씀하시는 “잘하였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자,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는 비유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날을 희망하면서 이 세상 삶의 끝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을 하직하는 최적의 시기를 우리를 위해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본문에서의 라자로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 4절을 참고하면 이해될 것이다. 라자로는 실제로 죽었지만, 주님은 그를 저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서 다시 깨우기로 작정하셨던 것이다.

마르타와 마리아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며, 주님이 많은 기적들을 수행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주님은 이전에도 이미 죽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두 번이나 살리셨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 11-14절과 그 밖의 복음서를 통해 살펴보았다. 누가복음 8장 41-42절과

49-56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마리아와 마르타 역시 이 기적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두 사건 모두 사람이 죽고 난 직후에 일어났다. 하지만 두 자매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자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에 대해서는 결코 알 수 없었다. 본문 39절은 두 자매가 생각했던 바를 알려준다. 이 기적에 따른 결과는 47-53절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대사제나 바리사이파인들도 이 기적이 사실임을 인정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위상을 백성들이나 로마 통치자 앞에서 유지하는 것에만 주력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적은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어떤 이들에게도 그분을 믿는 확신을 주지 못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의 공부를 정리해 보자.

- * 라자로는 어디서 살고 있었는가?
- * 누가 그와 남매지간이었는가?
- * 그들은 라자로가 앓고 있다고 누구에게 연락했는가?
- * 주님은 4절에서 그를 깨우심에 대한 어떤 이유를 말씀하시고 계신가?
- * 주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라자로는 이미 무덤에서 얼마동안 있었는가?
- * 마르타는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는가?
- * 마르타는 라자로가 언제 다시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가?
- * 마리아는 주님께로 가서 뭐라고 말했는가?
- * 라자로는 무덤에서 나올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 *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를 어떻게 하라고 분부하셨는가?
- *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제 3반

부활절과 연관시켜 본문을 살펴본다.

우리는 55절의 “유대인들의 과월절이 다가오자...”라는 구절로부터 본문의 기적이 주님의 지상생활 마지막 시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장에서는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사건인 종려주일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된다. 12장 9절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는 것 보다 다시 살아난 라자로에 관심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근거로 본문의 기적이 얼마나 널리 알려졌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기적이 있었던 곳은 베다니아인데,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누가복음 10장 38-42절의 마리아와 마르타에 관련된 교훈도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큰 절기를 지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늘 베다니아에서 묵으셨는데, 그분의 지상생애 마지막 주간 때도 그곳에 머무르셨다. 마리아와 마르타 그리고 라자로를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있었다. 그들은 그분이 병을 고치는 기적을 베푸셨음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라자로가 앓고 있을 때 주님께 사람을 보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그녀들은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주님이 제 때에 오셨더라면 라자로를 치료하실 수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들은 주님이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된 라자로를 회복시키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믿음, 즉 육체 안에 생명이 있다고 여기며 육체가 썩기 시작하면 그 육체는 모든 사람의 육체가 일어나게 되는 “마지막 날”에 가서야 다시 살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이 사항에 관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위와 같이 믿고 있음을 종종 보게 된다.

우리는 제 14-15절을 토대로 주님이 고의적으로 베다니아에 늦게 도착하셨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과거 주님은 죽은 자를 두 번이나 살려주셨다. 한 번은 죽자마자 살려주셨고, 또 한 번은 사후 시간이 지났으나 매장되기 이전에 살려주셨다. 따라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이미 매장된 라자로를 일으키신 것은 주님의 권능이 삶을 초월함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를 한 걸음 더 진전시켜 주었다. 또한 제자들이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준비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가 물질적인 것으로 자신이 빠지도록 내버려둘 때 그에게 영적인 것 곧 물질 뒤에 엄연히 존재하는 영적인 것의 이모저모를 이해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실감케 한다.

예수께서는 마르타에게 “나는 부활과 생명이라.”라고 말씀하셨다. 즉,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신 것이다. 앞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4절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생명과 물질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곧 가상적인 생명까지도 주님으로부터 근원된다는 것이다. 주님께서 베다니아로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라자로가 잠들어 있으니 이제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라고 하신 후 “라자로를 죽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상 짧은 수면에 불과하며 그 잠에서 깨어나면 영계에서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삶을 위한 우리의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알고 계신다. 우리는 간혹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익사했다가 어떤 치료나 인공호흡으로 인해 생명이 회복되게 된 경우와 거의 죽었다고 판정된 사람이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이렇게 살아난 사람의 주변 친구나 가족들은 “자네는 하느님이 살려주신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아마...”라고 말하기도 한다. 본문 4절에서 주님은 라자로에 대해 “그 병은 죽을병이 아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다시 살아난 당사자나 그 주변의 목격자들은 되살아났다는 사실로부터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된다.

부활절에 관한 본문은 위와 같은 기적의 의미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상응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무덤과 돌 그리고 수의 등에 관한 상응이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음에 직면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은 말씀에서 죽음이나 매장은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이 생각하듯 생각하고, 천사들이 느끼듯 느끼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죽음에 임한 당사자가 더욱 충만하고 아름다운 삶 속에서 깨어날 것이므로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한동안 그 사람을 보지 못해 슬퍼한다할지라도, 이와 같이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본문 4절, 15절, 41절 그리고 42절을 주의 깊게 읽어본 후 우리가 갖게 되는 모든 체험들을 말씀이 지켜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체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도록 주님께서 바라시고 계심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의 마음이 자아와 세상적인 성공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설사 주님을 배울 체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배우지 않게 된다. 본문 47-53절과 12장 10-11절을 읽어보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접한 바리새이파인들의 태도와 자신의 이익에 치중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지도록 인도하는가를 알 수 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두 가지 큰 선물을 주셨다. 즉, 자유와 합리성이다. 합리성이란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옳고 그른 것 중에서 어느 하나를 스스로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가 주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이 통치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주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도록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이 첫 번째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말씀을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토대로 일상의 삶을

검토한 후 깊게 생각하여 방향을 정하고 원칙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주님의 재림에서 우리에게 알려 주고 계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 공부해야 할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돌을 던짐 = 좋은 측면으로 볼 때 악을 질책하기 위해 단호하게 사용된 진리들
= 나쁜 측면으로 볼 때 진리를 뒤집거나 부정함
라자로 = 주님을 향해 마음 문을 여는 것 또는 이타애
라자로를 일으킴 = 교회 속에서 라자로가 가진 위의 특성을 회복시키심
죽음 = 부활의 “잠”

제 4반

자신의 죽음을 올바르게 관조하는 습관을 배양하는 것을 토의해 본다.

앞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을 치료해주신 주님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에서 그 기적의 당사자와 그것을 목격한 종교지도자들에게 그것이 미친 영향이 아주 상이했음을 살펴보았다. 본문의 기적은 그와 같은 맥락의 교훈 속에 보다 더 경이로운 본보기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이 사건은 주님의 지상생활 마지막 주간쯤에 발생했는데, 사실 본문 역시 종려주일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 12장과도 매우 근접해 있다. 그리고 본문의 교훈은 부활절의 내용과도 매우 유사하다. 본문에서는 대사제나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처치해야겠다고 결정한 이유도 제시되어 있다.

우리가 복음서를 반복해서 읽고 깊이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생애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분의 권능이 더욱 경이로운 일을 하시며 그분이 입으신 인성을 통해 그분에게 접근된 계속적인 시험의 극복으로 있게 되는 그분 속의 신성에 대한 자각 역시 더욱 깊어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열두 살 되시던 해에 성전에서 학자들과 토론을 하는 중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라고 대답하셨고, 그분의 지상 생활 마무리 직전인 본문에서는 마르타에게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라고 하시며, 이후 14장 9절에서 필립보에게 “니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그분이 입으신

인성의 얼마가 그분과 더불어 아직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해지기 때문이다. 그 눈물도 사랑이 만들어 낸 것임은 분명하나,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부터라고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분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미칠 효과 때문에 많은 것을 말씀하시며 행하셨음을 볼 수 있다. 이를 염두하고 4절, 6절, 11-15절 그리고 41-42절을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

죽은 자를 일으키신 사건은 본문 외에도 두 차례나 있었다(누가복음 7장 11-15; 8:49-56). 그러나 그 두 사건들에서는 매장된 사람을 일으키시지 않으셨다. 이러한 상이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과에서 비중의 차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사람들 역시 육체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육체를 떠나서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는데, 이는 당시의 사람들이 사상적으로도 아주 외적이었기 때문이다. 마르타와 마리아는 주님의 친구로서 그분의 기적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썩기 시작한 육체에 생명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어떤 권능도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이런 사상은 주님의 제자들도 가졌으므로, 주님께서 죽으실 때 죽음이 당신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미리 실감시켜 주셔야만 했다. 우리는 결국 제자들이 주님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열려졌음을 성경에서 알 수 있다.

본문에서의 교훈은 아주 단순하고 명백하다. 주님은 두 가지의 진리를 동시에 말씀하셨다. 즉, “라자로는 잠들어 있다”와 “라자로는 죽었다”라는 것이다. 우리가 죽는다고 함은 단지 우리의 영혼이 잠드는 것일 뿐이다. 이는 우리가 매일 밤 또 다른 하루를 위해 잠들어 휴식을 취한 후 힘을 얻어 지상의 각종 문제나 시험과 싸워 나가기 위해 다시 깨어나는 반면 죽음 이후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문제나 시험들을 뒷전에 두고 지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한 세계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다.

주님은 이와 같은 영원한 세계에 라사로를 보낼 때가 도래되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다. 라사로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과 이룩해야 할 진보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 4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우리의 때 역시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시편 31:15).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우리가 죽는 시간이 처음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거나 혹은 우리가 자신의 죽음에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날마다 죽음에 관한 어떤 선택을 계속하고 있고 주위의 사람들도 그 선택에 일익을 담당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어나는 대신 영계에서 깨어날 최적의 때를 주님께서 보시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위와

같은 선택의 상황을 다른 국면으로 몰고 가도록 한다. 우리는 누군가 죽었다는 사실에 슬퍼하며 억울하다는 듯 통곡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죽음을 보고 들으면서 그것을 주님과 천국을 자신 속에 더 가깝게 끌어당기는 계기로 삼기도 한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적은 선택과 준비들에 관한 우리의 때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장수하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우리는 장수함에 앞서 최선의 것을 행하기 위해 주님을 신뢰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죽음이란 우리의 영원한 삶에 비교해 보면 유치원의 졸업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시편 90편을 읽고 본 반을 마무리 짓도록 하자. "...우리에게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시편 90:12).

제 5반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몇 가지 주제를 뽑아 정리해본다.

복음서에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세 가지 권능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즉,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누가복음 7장 11-16)과 회당장 야히로의 딸(마태복음 9:18-26, 마가 5:22-43, 누가 8:41-56) 그리고 본문에만 기록된 라자로이다. 두 가지 첫 번째 기적은 갈릴래아에서 있었는데, 이는 외적인 측면에서 우리 삶 속에 죽어 있는 생각과 애정을 살리시는 주님의 권능을 의미한다. 라자로는 예루살렘 부근인 베다니에 살았고, 그는 마르타와 마리아와 더불어 주님이 사랑한 친구였다. 주님은 그들의 집에서 자주 묵으셨다. 따라서 본문의 기적은 보다 더 내적이며 영적인 일을 묘사한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이라는 것, 사건이 벌어진 시기가 주님의 지상 생활의 마지막 무렵이었다는 것 그리고 사건의 주요 인물이 주님을 믿는 자들과 그분의 친구들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본문을 읽다보면 그 사건을 지배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비록 많은 사람들이 본문과 비슷한 기적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지만 그분을 반대한 이들은 그 기적의 결과로 더 악랄해졌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에서 아브라함이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누가복음 16:31)."라고 한 말로 의미된다. 누가복음의 라자로가 바로 거지 라자로인데, 본문에서 주님이 사랑한 라자로와 이름이 같아서 내용의 일치를 글자에서까지도

엿볼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다. 스웨덴북은 본문을 위해서 비유에서의 거지의 이름을 라자로로 주님이 선택하셨을 것이라고 말한다.

본문의 이야기 전반을 통해 명백히 드러나는 사항은 기적이 수행된 목적이 라자로의 생명을 이 세상에서 몇 년 더 연장시켜 그를 즐겁게 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죽음을 넘어서는 주님의 권능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이 사항은 본문의 기적에서 끌어내야 할 가장 명확한 글자적인 교훈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존재하며 우리의 때는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시편 31:15) 그리고 비록 참새 두 마리가 한 낮에 팔리지만 그런 참새 한마리라도 너희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마태복음 10:29) 등이다. 이와 더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육신의 생명이 영혼의 생명과 비교해 볼 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상 영혼의 생명은 육체가 죽을 때까지 거의 눈에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는 도중 죽음을 낭독할 때 천사들에게는 언제나 부활로 이해된다. 죽음에는 또 다른 종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두 번째 사망”이라고 부른다. 이는 영적인 죽음이고, 이 죽음은 우리 속의 선함과 진리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의지 속의 악이 이해성 속의 거짓과 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러한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 이에 대한 사항은 에제키엘서를 참고하도록 하자. “죽을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사람이 죽는 것은 나의 마음이 언짢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살려느냐? 마음을 고쳐라.” (18:32).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의 진리는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에 의해 전복되어 있어서 올바르게 행하기를 원하는 이들조차 영적인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준수해야 할 진리를 그들 스스로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도 이런 상태의 일부를 엿볼 수 있다. 마르타와 마리아는 주님을 모시고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마르타는 외적 부분을 그리고 마리아는 내적 부분 곧 애정의 영적 부분을 표현한다. 그들의 오빠인 라자로를 그녀들이 가졌던 진리를 그려주는 바, 그가 병들어 죽었다는 사실은 라자로로 표현되는 진리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녀들은 주님께 사람을 보내어 오빠를 살려 보려고 했는데, 주님은 그녀들이 오빠를 회생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까지 가는 것을 일부러 지체하셨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자신들보다 해박한 이들로부터 신앙에 대해 공격을 받아 난처해지게 되면 자신의 신앙이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교인들이 본문의 마르타와 마리아가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주님께서

계시기만 하면 자신들이 공격받은 논리로부터 구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와 혼합되어 양육된다.

주님은 고의적으로 지체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속마음을 알고 계시나, 우리가 우리의 낡은 신앙 속에 생명이 없음을 확신할 때까지 곧 때가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런 다음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신뢰하면서 본문의 마르타와 마리아 같이 “예, 주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분은 권능을 베푸셔서 우리의 신앙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무덤 안에서 라자로의 시신을 동여뒀던 수의 곧 우리를 얹어뒀던 낡은 생각이나 편견을 벗어버리게 해주신다. 스웨덴북은 “라자로를 일으키심은 보다 넓게 보면 이방인들로부터 새교회를 일으키심까지 포함한다.”라고 말한다. 첫 기독교가 일으켜지기 전에 있었던 모든 유대교회는 소멸되어야만 한다. 또한 새교회가 일으켜지기 전에 있었던 첫 기독교회 역시 모두 없어져야만 한다. 각각의 새교회는 옛것은 죽은 것임을 실감하면서 주님을 믿어야 하며 순종과 신뢰로 그분을 의지하는 이들 사이에서 발달되어 왔다.

라자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바는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 사항에 즉시 응답해주시지 않는 까닭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요구하는 특별한 사항보다 더 지고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창고에 저장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일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르타와 마리아 역시 주님이 라자로를 죽지 않게 해주기를 원했으나, 주님은 그들에게 그분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시기를 원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37편 7절의 “주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하는 말씀에서 배워야만 된다. 즉,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하시고 가르쳐 주실 수 없는 자포자기나 손실을 입는 따위가 결코 없게 됨을 배워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마지막 부활 때까지 죽어간 모든 이들은 무덤에서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는 교리를 믿는 이들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대하게 된다. 즉,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위 구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육체의 죽음에 관해 언급하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실지로 인식하기 전에 물질적인 생명을 한쪽으로 치우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위 구절은 영적인 죽음을 언급한 것이다.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은 주님으로부터의 생명인데, 이 생명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경우가

바로 영적인 죽음이다. 주님을 믿고 그분과 더불어 살면서 자신의 마음과 이해성을 그분의 법도에 따라 바로 잡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물질적인 몸을 한쪽에 놔두게 됨으로서 장차 천국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전혀 간섭 받지 않게 됨을 쉽게 인식하게 된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명백히 드러나 있다. 즉,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 대두되는 질문 중의 하나가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면, 왜 그분은 아버지께 기도하며 고통 받으러 나타나셨을까?”라는 것인데, 본문은 이에 대한 답도 제시하고 있다. 본문은 “예수께서는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오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전하고 있다. 또한 41절에서 “아버지, 제청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둘러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에 계신 동안 우리들 같이 유한한 인간성을 입으셨음을 알고 있다.

Bruce 목사는 그의 저서 「요한복음 주석」에서 “주님이 비통해 하심이나 우심과 같은 사실은 그분 속의 신성이 일하는 것에 대해 그분의 유한한 인성이 갖게 되는 자연적인 반작용이었다.”고 말한다. 이는 우리가 신성한 사랑과 지혜에 관해 아는 것을 삶에 이행해 보려고 할 때의 노력이 우리의 보다 낮고 이기적인 바램의 차원을 더 비통해 하거나 몸부림치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과 같다. 주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분께서 구해주려고 하신 사람들의 방자함과 불성실함 그리고 눈먼 행동들 때문에 인간적으로 슬퍼하셨는데, 이 슬픔은 그분에게 있는 가장 심한 시험 중 하나였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남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게 해주신 이유는 주님 역시 그분의 지혜가 인간에게 이식해놓은 자유의지로 인해 방자해져서 일으키는 충동을 거절하시면서 그에 따른 모든 시험을 극복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에게 우리의 생각을 강제로 주입시키려 할 때 위의 주님이 받으신 시험과 같은 것을 겪기도 한다. 주님은 그분의 투쟁을 보여 주심과 동시에 즉시 승리하셨음을 보여주시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로서 투쟁과 승리의 근원도 보여주셨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2343항: “모든 거듭남 곧 새 삶으로 있어지는 구원은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됨이

교회에 알려져 있지만, 그렇게 믿는 자는 거의 없다. 그 까닭은 인간이 이타애의 선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타애의 선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기란 마치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모습과도 같다. 이타애의 선이야말로 믿음의 씨앗을 위한 옥토에 해당된다. 진리와 선은 일치하나 진리와 악은 결코 일치하지 못한다. 그들의 본성은 반대적이어서 서로를 등지게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인간이 선 안에 있는 만큼 진리 안에 있을 수 있고, 인간이 이타애 안에 있는 만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특별히 모든 구원이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된다고 믿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더욱이 악한 자들 또는 악하게 사는 이들은 모든 구원이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됨을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독교계에서 올라온 저 세상 사람들로 인해 나에게 분명해졌다. 또는 육체를 지니고 사는 동안 입술로 위의 믿음을 고백했던 자들로부터도 확실해졌다. 이들은 주님 없는 구원은 없다는 믿음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면서도 악한 생활을 일삼았던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끝없는 난해함의 기운이 즉시 그들을 감쌌던 것이다(그 이유는 저 세상 삶에서는 영들이 단지 생각만으로도 지각되고 그 자체로부터 그 기운이 방산되어 그들이 생각한 믿음의 종류가 명백해지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라자로는 누구인가?
- 2) 누가 그의 자매들인가?
- 3) 그는 어디서 살았는가?
- 4) 본문의 기적은 예수님의 생애 언제쯤 베풀어졌는가?
- 5) 라자로는 심히 아프게 되자 주님은 즉시 베다니아로 가셨는가?
- 6) 주님이 도착하셨을 때 라자로는 죽은 후 며칠이나 지났었는가 ?
- 7) 마르타가 주님을 뵈자 뭐라고 말했는가?
- 8) 이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9) 마르타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가?
- 10) 주님은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1) 라자로를 살리셨던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12) 대사제와 바리사이파인들은 그분을 어떻게 하자고 모의했는가?

- 13) 왜 주님은 베다니아로 가시는 것을 지체하셨는가?
14) 왜 주님은 처음에 나자로가 잠들었다 말씀하셨고 후에는 그가 죽었다고 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예수님의 친구 2) 마르타와 마리아 3) 베다니아 4) 그분 생애의 말기
5) 아니다 6) 4일 7) “만일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8) “다시 일어난다”
9) “마지막 날에...” 10)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1) 돌을 치우고, 큰 소리로 부르시자, 나자로가 걸어 나왔다
12) 죽이려고 음모했다
13) 죽음을 넘어서있는 그분의 권능을 보여 주시려고
14) 죽음이 이 세상에서 잠들고 영계에서는 다시 깨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34

종려주일(4)

머리말

요한복음에는 종려주일에 관한 기록이 짧은 편이다. 따라서 타 복음서에 있는 종려주일의 부분을 읽고 보충하길 바란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12장 12-50절

12장: 12. 명절을 지내러 와 있던 큰 군중은 그 이튿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13.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

찬미 받으소서!”

하고 외쳤다. 14. 예수께서는 새끼 나귀를 보시고 거기에 올라 앉으셨다. 이것은 성서에,

15.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임금의 이름이 너에게로 오신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16. 예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야 이것이 모두 예수를 두고 기록된 것이며 또 이런 일들이 그대로 예수께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7. 예수께서 라자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 일을 증언하였다. 18. 군중이 예수를 맞으러 나간 것도 예수께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 주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19. 바리새이파 사람들은 “자, 이제는 다 틀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따라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며 서로 걱정하였다.

20. 명절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 왔던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 사람도 몇이 있었다. 21. 그들은 갈릴래아 지방 벳싸이다에서 온 필립보에게 가서 “선생님, 예수를 뵈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22.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이 말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예수께 가서 그 말을 전하였다. 23.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24.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25.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26.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도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27.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건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28.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그 때에 하늘에서 “내가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드러내리라” 하는 음성이 들려 왔다. 29. 거기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군중 가운데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천사가 예수께 말하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30.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려 온 음성이다. 31.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32.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리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33.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암시하신 말씀이었다. 34. 그 때에 군중이 “우리는 율법서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시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사람의 아들이 높이 들려야 한다고 하시니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35.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빛이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잠시뿐이니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가라. 그리하면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어둠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36. 그러니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피하여 몸을 숨기셨다. 37. 예수께서 그렇게도 많은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건만 그들은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38.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께서 보여 주신 능력을 누가 깨달았습니까?”

한 말이 이루어졌다. 39. 그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이유를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40.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을 가지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여
 끝내 나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고
 나한테 온전히 고쳐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42. 이것은 이사야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말한 것이며 또 예수를 가리켜서 한 말이었다.

42. 유다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드러내 놓고 하지는 못하였다. 43. 회당에서 쫓겨 날까 겁이 났던 것이다. 43. 그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광보다도 인간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44.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뿐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까지 믿는 것이고 45.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도 보는 것이다. 46.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47.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단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을 단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48. 그러나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단죄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세상 끝 날에 그를 단죄할 것이다. 49.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라고 친히 명령하시는 대로 말하였다. 50. 나는 그 명령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러 주신 대로 말하는 것뿐이다.”

교리 요점

- *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본보기로 삼고자 한다면, 우리는 자신만을 먼저 챙기려 드는 시험을 정복해야 한다.
- * 우리는 육체를 단지 도구로서 간주해야 한다. 이 세상의 삶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적인 모습으로 이뤄지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악은 실제로는 선을 이길 힘이 없다.

가정 예배를 위해 보모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의례적으로 읽는 성경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첫 종려주일에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다음의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첫째, 수많은 군중들이 일요일에 주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한 후 다가오는 금요일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까닭은 무엇일까라는 것이다. 둘째는 주님께서 그들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용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이다. 주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인 요한복음서에서 주고 계신다.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했던 까닭은 그분이 베푼 기적들, 특히 죽은 나자로를 일으키신 기적 때문이었다. 그들은 오늘날의 우리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인간의 불운 중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그들이 오로지 세상적인 번영이나 건강 등에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기대해 온 메시아란 로마의 권세를 깨트리고 유대인들의 나라를 다시 한 번 위대한 나라로 부상시켜줄 지상의 왕으로 오시는 강력한 군주였다. 우리는 주님의 아주 가까운 제자들까지도 그분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 가운데 누가 주님의 좌우편에 서게 될까를 다투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그분을 버리고 도망쳤다. 본문 42절을 보면 유다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를 믿었던 자들까지도 회당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지지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광보다도 인간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주님을 환영한지 며칠 이 채 지나지도 전에 그분에게서 등을 돌렸던 이유이다. 또한 이것은 모든 시대에 걸쳐 도덕적 혹은 영적인 겁쟁이가 존재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첫 질문에 대한 답보다 더 진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늘나라는 자신만을 사랑하는 대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25절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치신다. 주님께서 오신 까닭은 우리에게 이 구절을 가르쳐주시기 위함이었다. 즉,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에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에 있다는 말이다. 주님은 우리들과 같이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입으셨고, 그 인성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시험을 느끼셨다. 우리는 이를 본문 27절의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건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주님은 언제나 시험을 정복하셨는데, 우리에게 정복의 본보기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 오셔서 시험을 정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이다. 그분은 죽음까지도 통과하셔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죽음이란 우리의 계속되는 삶에 있게 되는 필수적인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육체를 벗어 던져서 그 속의 신성한 인간이 보이도록 하셔야만 했다. 그분은 그분의 적들이 최악의 짓들을 행하도록 내버려두셔야만 하셨는데, 이는 악이 선함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능이 전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시편 118편은 악에게 어떤 권능이 없음을 “야훼께서 내 편이시라.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나니 누가 나에게 손을 대리오?”라고 노래한다.

기독교인이라고 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워 그분께 순종하여 그분을 자신의 이상향으로 간직하며 그분의 본보기를 닮아 가는 매일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삶의 연속은 32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같이 있게 되리라”하는 주님의 약속으로 이르게 된다.

제 1반

지상에서의 주님의 삶의 목적, 사람들이 그분을 사랑하거나 미워했던 까닭,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 그리고 그분께서 장차 있어날 일을 이미 알고 계셨음을 살펴본다.

종려주일은 교회에서는 아주 특별한 주일에 해당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주간 동안 지상에서의 주님의 생애가 끝나는 마지막 주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오래 전 우리의 주 예수로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엮어져야 하는가를 보여주셨다. 그분은 당신이 아기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하셨고, 우리처럼 성장하셔서 우리가 죽듯이 죽으셨고 우리가 죽음에서 일어나듯이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삶을 공부함으로써 그분이 사신 바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참된 사람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도울 준비를 완료하고 계심을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시며 자신의 길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방법이 옳지 않다고 그분이 말씀해주시는 것을 그들이 싫어하여서 많은 적들을 가지셨다는 것도 알고 있다. 우리 속 어딘가 혹은 이런 속성이 우리에게서 언젠가 드러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항은 당시의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이 주님을 미워해서 결국 그분을 죽음에 처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주님은 하느님이셔서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 주님은 일요일에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그 주일이 그분의 마지막 주간의 시작이었다는 것과 당신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도 모두 알고 계셨다.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분의 입성을 열렬히 환영했던 군중들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타 복음서(마태복음 21:1-11, 마가 11:1-11, 누가복음 19:28-40)도 참고하면서 주님의 예루살렘입성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기 바란다. 또한 본문 12-24절도 다시 읽어보도록 하자.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본문에 언급되는 명절은 무엇인가?
- *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 * 왜 우리는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가?
- * 주님은 어떤 동물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 * 본문은 군중들이 주님을 뵙고자 갔던 까닭은 그분이 행하신 어떤 기적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 * 주님은 밀알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우리가 밀알의 비유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제 2반

24절을 주로 살펴보면서 주님의 지상생활의 목적과 그분이 죽으신 이유 그리고 우리 삶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또한 강령에 관한 예언을 찾아보고 하느님 자신이 그것을 약속하셨음도 강조한다.

종려주일에서 부활절까지에 있는 성경의 내용은 주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삶에 관한 것이므로, 이때까지의 그분의 삶에 관한 일반적 사실들을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서 재고해 보도록 하자.

- * 주님은 어디서 탄생하셨는가?

- * 어떤 두 계층의 사람이 그분의 탄생을 말했는가?
- * 그분은 헤로데의 분노를 피해 어디로 피신하셨는가?
- * 그분은 어디서 성장하셨는가?
- * 그분은 열두 살이 되시던 해에 어디로 가셨는가?
- * 왜 그곳으로 가셨는가?
- * 공생애를 떠실 때의 주님의 나이는 몇 세이셨는가?
- * 누가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도록 미리 보내셨는가?
- * 그분은 공생애 동안 어디에 본거지를 두셨는가?
- *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셨는가?
- * 요한복음 제 1장에서는 그분에 관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 *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는가?
- * 왜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들은 그분을 미워했는가?

우리는 네 복음서 전반에 언급된 종려주일에 관한 이야기에는 상당히 익숙한 편이다. 이는 그날이 그분께서 지상생활 마지막 주간 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 날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환영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호산나란 “지금 구하소서”라는 뜻이다. 종려주일에 “호산나!”라고 외치며 주님을 환영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과 입술을 가지고 예수가 그들의 왕이요 장차 구세주로서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사야 9장 6절, 25장 9절, 예레미야 23장 6절, 미가 5장 2절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서 그분에 관해 말해진 예언의 부분들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자. 그들이 그분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그분이 하느님 자신이었음을 인지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조차도 자신만을 위해 생각하는 부류들에 속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죄에서 구원되기보다는 세상적인 고생에서 구원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왕위에 올라 로마의 권력을 깨고 그들의 나라를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 부상시켜주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종려주일에는 왕으로서 주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으면서도 한 주일도 채 지나기 전에 그분을 못 박은 당시의 군중들과 흡사해지는 때가 많다. 우리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받는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고통에 직면하게 될 때 또는 큰 좌절로 실망하게 될 때 그런 불행들의 이유를 주님께 돌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그래도 나는 선한 인생을 꾸리려고 몸부림쳤는데...” 또는 “나 정도만 선택해도 세상이...”와 같은 푸념들을 늘어놓으며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분을 뭐 하러 예배해...”라고 불평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우리가 이럴 때마다 드러내는 태도는 하느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놓아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을 모두 알고 계시고, 늘 그러하듯이 그 마음들의 미래도 알고 계신다. 주님은 종려주일에 의기양양하게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지만, 금요일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도 알고 계셨다. 요한복음서는 이에 대해 타 복음서보다 더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본문 23-33절까지의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

제 24절에 있는 밀알 하나의 비유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허용하셨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밀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씨눈이다. 씨눈의 바깥 부분은 살아있는 밀알 씨의 눈에 자양분을 주면서 보호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즉, 바깥 부분의 역할이 씨눈이 충분한 발달을 이룰 때까지 발달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씨가 땅에 심어져 때가 차면 이 씨는 바깥 부분을 벗어 던진다. 각 개인에게 있어서 씨눈은 영혼이며, 육체는 껍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 위해서 껍질을 벗어 던지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야만 한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삶은 각자가 되고자 하는 특별한 씨눈이 발달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곳에 있는 동안 선하고 유용한 식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잡초나 독 있는 식물로 될 것인가 중에서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일단 껍질을 벗어 던진 후의 밀알은 그 상태와 본성이 바뀔 수 없다.

주님의 영혼은 하느님 자신이었다.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동안 그분은 당신께 닮은 모든 시험을 하나하나 정복하시면서 항상 올바른 것을 행하기를 선택하심으로써 당신의 인성을 신성한 인성으로 만드셨던 것이다. 그분은 신성한 인간이 충분히 형성되었을 때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야 하듯이 죽음을 통과하심으로써 육체라는 껍질을 벗겨야만 했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입으셨던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보이는 한 그 육체에 국한되어 있는 우리의 사상은 언제나 불완전하게 형성된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내용들은 부활절 공부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제 3반

종려주일과 그리스 사람 그리고 안드레아와 필립보 사건에 대한 상응을 살펴봄으로써 육체보다 영혼의 복됨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한다. 영혼의 복됨에 대한 필요성은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본보기인데, 이것은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중요사항이기도 하다.

요한복음서에는 주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사건이 겨우 네 구절로만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타 복음서에는 보다 상세하게 기술되어져 있다. 본문의 이야기는 짧지만 우리의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와 타 복음서의 내용을 읽고 종려주일에 대한 사실들을 재정리하고 그에 따른 의미도 재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주님께서 그분의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 초에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즈가리야 9장 9절에 있는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다. 그분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새끼 나귀란 자연적인 진리를 상징한다. 새끼 나귀를 타셨다고 함은 그분이 외관적으로 입으신 인간 본성이 가진 경향성, 즉 육체의 눈으로 확인된 것을 기초로 결정하는 것 곧 자연계에 나타나는 외관에 의해 사물을 판단하려는 인간의 경향을 완전히 통달하셨음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들고 나온 종려나무 가지란 “최종적인 것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 또는 “말씀의 글자적 의미에 나타나 있는 신성한 진리”와 상응된다. 유대인들은 성서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장차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을 말씀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왕으로서 열렬히 환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세속적인 왕만을 염두하고 있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권세를 짓부수고 그들의 나라를 세계 최강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행동으로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심을 명백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종려주일에 왕으로 그분을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 금요일에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소리쳤던 것이다.

우리가 늘 상기해야 할 사항은 주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어떤 이가 누리는 꾸준한 번영이나 건강이 주님께서 보기에 그에게 영적으로 해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분 역시 번영이나 건강과 같은 세속적인 축복을 허용하신 것을 행복해 하실 것이다. 또 다른 경우는 주님께서 역경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예견하시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종종 세속적인 번영이나 건강을 허락하신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에게 역경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점검할 기회를 갖게 되거나 우리의 영적인 힘과 이해성 그리고 동정심이 역경 속에서 자극 받아 발달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이 종려주일에 관해 강조하는 사항은 그 날에 있었던 주님의 가르침이다. 우리는 자칫 이 부분을 예수를 뵈자고 한 그리스 사람의 요구로 인해 있게 된 것처럼 여기고, 이러한 그리스 사람의 요구가 본문의 이야기에서 그분에 의해 무시된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 당시의 그리스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사마리아사람과 마찬가지로 선한 심정을 가졌으나 그 심정을 인도할 진리를 가지지 못한 이들을 상징한다. 그리스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보다 나은 총명함을 지니고 있다. 스웨덴북은 필립보에 관한 상응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필립보라는 이름의 뜻은 “말(horse)을 사랑하는 자”이다. 말이란 우리의 보다 높은 추론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필립보란 교인이 가지는 총명을 표현할 것이라고 추측된다. 필립보가 캐묻기 좋아하는 성질을 지녔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가 등장되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참고 1:43-46, 6:5-7, 14:6-11). 반면에 안드레아는 순종을 표현한다. 우리가 주님을 뵈고자 하면, 이 두 사람의 자질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그래서 주님의 대답은 이방인들이 찾고 있었던 것에 대한 진정한 답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지상의 왕이 아닌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삶에 관한 진리의 길을 자신들의 이해성에 올바르게 인식시켜 줄 선생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그분은 죽음을 통과하셔야 하는 까닭을 보여 주셨다. 그 이유는 인간의 육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육체 안에서 발달되는 영혼이 어떤 종류가 될 것인지를 볼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가르침은 24-26절에서 아름다운 비유로 언급된다. 이 구절이야말로 우리가 거듭하여 읽고 되새겨보아야 하는 것이다. 즉,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라는 것이다. 우리는 되도록 지상 삶의 초기부터 우리의 육체가 일종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삶은 우리 속의 이기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내던지는 반면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천국의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을 형성시켜 가는 기회임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 두어야 할 구절이 바로 42-43절이다. 우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진정한 것 혹은 올바른 것을 변호하고 옹호하는데 두려워하거나 소극적일 때가 많다. 주님은 이에 대한 빛과 본보기가 되어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영원히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 주신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다. 간혹 어떤 이들은 주님을 근엄한 심판자로 여기며 그분의 진리를 받지 않는 자를 단죄하시는 분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문과 더불어 성경 전반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당신이 심판하거나 저주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다.

이는 그분의 유일한 관심사가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저주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을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자아를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우리 자신임을 다시 한 번 염두 하길 바란다.

기본 상응 공부

새끼 나귀 = 자연적인 진리

필립 = 총명

안드레아 = 순종

제 4반

본문에는 흔히 우리가 듣거나 제기하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토대로 본문을 살펴본다.

종려주일은 기독교인들이 “성주간”이라고 부르는 주간이 시작되는 날로서, 우리는 이날을 주님의 지상생활의 마지막 주간의 시작으로 기념한다. 주님은 이 날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오는 주일에 부활하셔서 성주간이 끝을 맺는다. 예루살렘의 입성과 부활 사이에는 그분을 거절하고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어두운 이야기가 깔려 있다. 종려주일이 되면 의례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상되는 두 가지 의문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일요일에 주님을 왕으로 열렬히 환영했던 이들이 어떻게 금요일에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외쳤던 것일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왜 적들이 당신을 죽이도록 허용하셨을까 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주님은 위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직접 답을 하고 계신다. 우리가 우선 주목해야 할 사항은 새끼나귀와 종려나무 가지이다. 새끼 나귀를 타셨다고 함은 세상에 나타난 그대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즉 자연적인 추론을 완전히 종속시키셨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고 나온 종려나무 가지란 말씀의 글자에 나타난 대로의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주님이 베푸신 기적 때문에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고,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계셔서 즈가리야 9장 9절에 있는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분께 갈채를 보냈던 것이다. 그들은 메시아에 관하여 성경의 글자대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의

나라를 한 번 더 세계 최강의 국가로 부상시킬 지상의 왕으로서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제 40절에서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다. 즉,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을 가지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여 끝내 나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고 나한테 온전히 고쳐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하는 것이다. 제 34절에서의 그들의 질문은 이 세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저 세상에 관한 문제에는 관심이 결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심지어는 주님의 가르침을 경청하고자 한 사람들까지도 그분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를 두려워했다. 이는 41-42절에서 “회당에서 쫓겨날까 겁이 나서” 그리고 “그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광보다도 인간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술된 바로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명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 역시 자신이 올바르게 아는 것을 드러내려는 용기가 결핍되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영적인 겹쟁이는 칭찬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즉, 믿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과 믿고자 하지만 주위 사람의 눈총을 두려워하여 드러 내놓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두 계층은 제 29절에서 기술되고 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의 음성에 대해 한 계층이 ‘천둥이 울렸다’고 했고, 또 다른 계층이 ‘천사가 예수님께 말했다’라고 한 것으로부터 그들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역시 그들처럼 영적 진리를 거절하거나 환영하게 된다.

주님께서 죽음에 놓이도록 허용하심에 대한 이유는 제 23-28절에서 서술되고 있다.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죽음은 태초로부터 예견된 그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 즉, 주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오신 것이다. 그분의 적들이 그분께 최악의 짓을 하도록 내버려두신 이유는 악이 선을 이길 능력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주님은 육체의 죽음이란 영혼의 끝없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고 실제의 힘은 영혼에 있음을 인간에게 보여주셔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악을 단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거절한다면, 이는 하느님을 거절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거절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사후의 삶에서도 어두운 데에 거하도록 자신을 스스로 저주하게 된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말씀 전반의 가르침에 대한 상징적인 구체화이다. 이것은 우리가 영혼이 육체보다 중요하여 이 세상에서의 쾌락, 지위 혹은 편안 등 무엇이든지 간에 영혼의 중요함을 고수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고 주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모습이다. 기독교인이라고 함은 그리스도의 본보기와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말한다. 주님의 본보기나 가르침 속에는 세상욕이나 자아중심을 위한 변명이 결코 들어 있지 않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라고 외치신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이것은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암시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구절도 염두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의 “죽음”, 즉 “밀알이...죽으면,” “자기 목숨을...미워함,”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리라...” 등에서와 같은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그분이 입으셨던 인성 속에 든 이기적인 자극 모두가 죽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25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이다.

제 5반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는 존재에 포함되어야 하는 절대명제이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입성하시는 사건의 기록은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 각 복음서는 그 세부 사항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요한은 주님께서 이 사건에 관련시켜 죽은 나자로를 일으키신 것과 이 기적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환영했다고 말한다. 우리가 영적 죽음에서 되돌아서게 하는 주님의 권능을 실감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 속의 “거룩한 성”에 왕과 구세주로서 환영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이때에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게 된다. 이는 자연적인 추론을 복종시킴에 대한 상징이다. 나귀란 자연적 이성을 표현한다.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종려나무 가지란 말씀의 글자적 의미에 있는 신성한 진리를 그려준다. 그래서 이 나무 가지를 흔든다고 함은 주님의 진리가 행복과 생명을 가져다주심을 실감한 결과로 있게 된 기쁨을 암시한다. 호산나란 “곧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다.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역사시대의 어떤 왕, 즉 그들의 적을 몰아내고 나라를 일으켜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왕으로 여겼다. 우리 역시 주님을 처음으로 인식할 때 이와 같이 생각하게 된다. 즉, 처음에 우리는 자신의 복지나 구원만을 고려하여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주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은 그 “마지막의 시작”이었다. 주님을 충분히 인정하는 우리의 첫 단계는 이전에 알았던 어떤 심한 시험보다 더 강한 것이 즉시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는 우리가

자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동기를 순수하게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성전을 깨끗케 하심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 생각들을 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말라죽은 무화과나무 사건은 열매를 생산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시고 주님이 슬피 우심은 우리가 주님의 통치하에 자신을 가져다 놓자마자 그분에게서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가를 실감하게 되는 우리의 상태를 의미한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그분을 진실로 따르고자 할 때 특별히 우리 속에서 거행되어야 할 변화의 깊이를 가르쳐주고 있다.

먼저 우리는 19절에서와 같은 바리사이파인의 역작용을 가지게 된다. 즉, 우리 속의 바리사이파인 곧 무익함과 자아만족이라는 것들이 주님과 깊은 연합에 대항해서 뒤틀어지고 휘저어지는 반작용을 일으킨다는 말이다. 19절 뒤의 이방인들 곧 우리 속의 이방인이란 인도해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채 있는 우리 속의 선한 호소력을 말한다. 그리스 사람이란 주님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진리를 지적으로 필요로 함을 뜻한다. 이들은 먼저 필립보에게 호소했다. 필립보란 이름은 그리스어로 “말(horse)을 사랑하는 자”란 뜻이다. 필립보란 총명의 성질을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주님을 소개받는다. 안드레아란 순종을 표현한다. 우리가 그분에 관한 것과 그분의 제자 된 도리에 관한 진정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스스로를 가져다 놓는 것이 바로 순종과 총명인 것이다. 제 23절 이하에 있는 주님의 강연은 그분의 지상생활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의 바람에 대한 대답이다.

주님의 전 생애와 그 목적에 대한 가장 간단한 설명은 밀알의 비유일 것이다. 우리 속에 살아 있는 알맹이는 곧 영혼이다. 이 영혼은 그 발달을 이를 때까지, 즉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 영혼을 덮고 있을 마음과 몸이라는 외적인 덮개가 필요하다. 이 영혼은 적절한 성장으로 이어질 때만이 그 가치를 지닌다. 영혼의 성장이란 밀알의 씨눈을 싸고 있는 것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혹은 껍질을 벗어 던짐으로서 밀알의 궁극인 열매를 생산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주님에게 있어서 내적으로 살아있는 알맹이란 신성 자체이었다. 그리고 이 신성을 싸고 있는 바깥 껍질은 유한한 인간성이었다. 그분의 신성한 인성이 권능을 충분히 발휘하시기 위해서는 이 유한한 것들을 완전히 벗으셔야만 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죽음을 통과하셔야만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죽음은 바깥 껍질을 벗는 최후의 행동일 뿐이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주님은 그분의 삶 속의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점차적으로 유한한 인성을 벗으시고 그것을 신성으로 대체해 가신 것이다.

우리 역시 주님과 비슷한 작업을 해가고 있다. 우리가 영적인 것들에 세속적인 것들을 종속시켜 간다면, 우리는 자신의 의지 대신 주님의 의지를 우리 속에 심어가서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연적인 사람이 아닌 영적 사람으로 점점 대체되어 간다. 우리가 미워해야 할 목숨(생명)이란 태어날 때 가졌던 이기적인 본성들을 의미한다. 우리가 영원한 삶에까지 간직하고자 할 목숨(생명)은 우리가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거듭난 본성이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 위의 두 가지 본성의 밀고 당기는 힘, 즉 더 낮은 세상적인 것과 더 높은 천국의 힘이 있음을 느껴야 할 것이다. 그 둘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는 우리의 자유이다.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거절하는 것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본문은 주님 역시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그분의 참 목적을 두고 느끼셨음을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다. 즉,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건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라는 것이다. 앞부분의 말은 그분의 유한한 인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뒷부분은 그분의 신성한 인성에 근원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영혼도 갈광질광하는 혼란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신 것이다. 본문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자유롭고 어떤 권위나 운에 의해 강요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설명되고 있다. 즉,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를 명백히 알도록 해준다. 주님을 따르고자 한 이들은 그분의 기적과 가르침 속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빛 속에서 믿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분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던 이들은 진리에 눈이 멀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신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분을 따르지 않게 되면 그들의 죄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이 눈먼 상태에 머물도록 허용하셨던 것이다.

제 47-48절에서 주님은 눈이 멀게 된 원인이 우리에게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계신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진리를 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갖도록 해주고 구원받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주님은 어느 누구도 단죄하시지 않으신다. 그분의 사랑과 진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 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에 마음의 문을 열기로 한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이 그들에게 표현될 때 그분의 진리도 보게 된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셨다. 이리하여 진리 곧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판이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의 생명인 자아사랑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자아만을 사랑할 것인가 중에서의 선택이 우리 영혼을 천국의 형체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지옥의 형체로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덮어쓰고 있던 바깥 덮개를 죽음이라는 것으로 벗을 때 우리 스스로 만들어 왔던 그 형체가 우리의 마지막 고향을 결정짓게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의 주님의 입성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 영혼의 진정한 왕으로 인식하고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에서 있게 되는 천국과 세상 사이의 진정한 싸움으로 안내 받음을 의미한다. 이 싸움은 죽음에 대한 싸움, 즉 우리 속의 천국이나 세상의 것이 죽는 것이며, 그 결과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제 899-14항: “인간이 사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 역시 죽으신 뒤 삼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은 목적 측면에서 보면 어머니로부터 가진 모든 인성을 벗으시고 신성한 인간을 입으시기 위함이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어머니로부터 입으신 인성 모두를 시험에 의해 거절하시며 마지막으로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벗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은 그분 안에 계신 신성 자체로부터 인성을 입으심으로써 그분의 인성을 신성화하셨다. 즉, 그분의 인성이 신성이 되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천국에서는 그분의 죽음이나 그분을 묻으신 것들이 죽음이나 매장을 의미하지 않고 그분의 인성을 깨끗하게 하심과 영화 되셨음을 의미한다. 이런 사항들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밀알의 비유로 가르쳐지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주님의 공생애는 몇 년인가?
- 2) 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자주 가셨는가?
- 3) 왜 주님은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 초에 그곳으로 가셨는가?
- 4) 주님은 그날 어떤 동물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 5) 왜 사람들은 그분을 환영했는가?
- 6) 사람들은 어떤 가지를 들고 그분을 환영했는가?

- 7)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는가?
- 8) 호산나란 무슨 뜻인가?
- 9) 왜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는가?
- 10) 누가 그분의 입성을 보고 화를 냈는가?
- 11) 어떤 이방인들이 그분을 보고자 했는가?
- 12) 어느 제자가 그들을 주님께 안내했는가?
- 13) 주님은 죽음의 필요성을 무엇으로 설명하셨는가?
- 14)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15)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들은 왜 진리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가?
- 16) 주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그분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인가?
- 17)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무엇인가?
- 18)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함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9)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3년 2) 축제 때문에 3) 과월절 4) 나귀 5) 주님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 6) 종려나무 가지 7) 호산나 8) 지금 구하소서 9) 왕의 표시, 예언의 성취
- 10)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 11) 그리이스인 12) 필립보와 안드레아
- 13) 밀알의 비유 14) 이기적인 삶을 버려야 한다 15) 원하지 않았기 때문
- 16) 인간의 칭찬을 사랑했기 때문 17) 신성한 진리
- 18) 세상적인 추론 또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성을 종처럼 여겨야 함 19) 말씀의 글자적 의미에 있는 신성한 진리

포도나무의 비유

머리말

모든 생명과 선함이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됨을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과 연관 지어 보면서 이를 확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제 15장

15장: 1.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2.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조리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잘 가꾸신다. 3. 너희는 내 교훈을 받아 이미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다. 4.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 나를 떠난 사람은 잘려 나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 7.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또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8.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왔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10.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11.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13. 벼를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14.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벼이 된다. 15.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벼이라고 부르겠다.

좋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 주었다. 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 주실 것이다. 17.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도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 두어라. 19. 너희가 만일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은 너희를 한집안 식구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가려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20. 좋은 그 주인보다 더 나를 수가 없다고 한 내말을 기억하여라. 그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21. 그들은 너희가 내 제자라 해서 이렇게 대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보내신 분을 모르고 있다. 22. 내가 와서 그들에게 일러 주지 않았던들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게 되었다. 23.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24. 내가 일찌기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앞에서 하지 않았던들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나와 또 나의 아버지까지 미워한다. 25. 이리하여 그들의 율법서에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26.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 너희에게 보낼 협조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27.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교리요점

- * 모든 생명과 모든 선함은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된다.
- * 우리가 주님의 본보기를 따를 때만이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생산된다.

가정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주님께서 선택하신 열 두 명의 제자들은 그분의 공생애 기간 동안 그분과 함께 각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목격하며, 그분이 가르치시는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과 더불어

지냈다. 게다가 주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시기도 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군중들이 제각기 흩어진 후 제자들을 따로 불러 놓고 군중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의 의미를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음을 복음서들에서 수차례 접하게 된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3장 1-23절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에 대한 설명일 것이다. 주님은 종려주일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지상생활 마지막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여느 때보다 더 많은 직접적이며 깊은 교훈을 주셨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에서만 발견된다. 본문은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후에 유다가 밖으로 나가 그의 마지막 배신을 마무리 짓는 동안 예루살렘의 이층 방에서 하신 말씀이다.

말씀 전반에서 지상의 교회는 포도밭으로 상징화된다. 이사야 5장 1-7절에서는 포도밭의 모습으로 교회가 위탁된 신성한 진리로 행해야 할 것이 예언자에 의해 말해지고 있다. “들포도”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성경이 명령한 진정한 이타애의 삶에 대체 시켜놓은 잘못된 요구사항들을 의미한다.

지금 주님은 지상 삶을 마무리하시는 일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그들이 새교회를 기초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위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신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진정한 포도나무이므로 당신의 가르침을 엄두 하지 않으면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가 하느님의 말씀을 표현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므로, 그분은 곧 신성한 진리요 선과 천국적인 삶에 관한 우리 지식의 유일한 근원이 되신다. 우리가 얻으려 하는 포도들은 이타애로부터 열매 맺어 진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에는 가시적인 유익함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 안에는 하느님에 관한 진정한 생각이 내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신이 선하여 선한 일들을 행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속에는 결코 선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단호히 명한 임무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님의 분부는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분의 삶과 말씀들을 공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본모습을 따르려 애쓸 때만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 1반

자아로부터의 선과 주님으로부터의 선이 갖는 상이점을 포도나무와 포도 그리고 가나에서의 기적을 통해 살펴본다.

포도는 다발로 이뤄져 있고, 당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영양도 풍부하다. 우리는 포도를 있는 그대로 먹기도 하지만, 즙을 짜서 주님의 성만찬을 위해 포도주로 사용하기도 한다.

포도주는 주님이 지상에 계실 당시 과월절 축제나 기타 축제 때에도 사용되었다. 앞서 우리는 주님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음을 공부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는 포도가 없었다. 그 이유는 주님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데 포도가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다. 본문을 보면 주님께 포도가 필요치 않았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본문 5절이 전하듯이, 우리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열매는 선행이지만, 선행은 그분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선행에 대해 주님이 아닌 자신을 칭찬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선한 행위는 결코 선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변질된 선한 행위 곧 열매는 모두 인공적인 열매이어서 눈에는 아름답게 비춰질지는 모르나 먹을 수 없는 열매인 것이다.

우리가 자신이 행한 선함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참된 포도나무에서 스스로를 잘라내는 가지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행실이 무엇인가를 배우며,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분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말할 때마다 우리가 그분의 가지인 것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한 열매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분께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이다.

제 2반

상응이라는 단어와 그 원리와 응용에 친숙해지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과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는 목요일 저녁 사이에 대한 기록이 다섯 장이나 할애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불과 며칠 밖에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한 기록이 이처럼 길어진 이유는 요한이 주님의 지상생활에 대한 외부적인 사실보다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더 많이 그리고 깊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성주간 동안에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본문은 이와 같은 깊은 교훈들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환 사실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이뤄질 수 있었을까

하고 의아해 했을지도 모른다. 주님은 본문에서 이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있다. 즉,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다. 이 짧은 문장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성서 공부를 더해 갈수록 이 문구의 무게를 차츰 느끼게 될 것이다. 본문을 공부하면서 다소나마 그것을 살펴볼도록 하자. 주님은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도록 해주시며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은 곧 그분의 생명이 된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염두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접하게 되는 물질적인 것들을 마치 그 자체로 존재하는 듯 느끼기 쉽기 때문이다. 주님은 유한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의 전능하심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사용하셨다. 이것은 그분이 베푸신 많은 기적들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기도 하다.

주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계의 모든 것들은 각기 그분 안의 어떤 것이 바깥쪽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래서 스웨덴북은 ‘자연계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 있게 된 원인이 되는 영적이거나 신성한 것과 상응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공부를 거듭하면서 이 상응에 관한 극히 일부이지만 조금 더 깊이 있는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상응에 관한 일부를 이미 배웠다. 간단한 예로 불이 사랑에 그리고 빛이 진리에 상응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한다. 이를 상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3-9절과 18-23절을 다시 읽어 보도록 하자. 이 구절들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씨는 말씀에서 온 진리에 그리고 씨로부터 생산되는 열매는 우리가 말씀에서 배운 진리에 의거하여 자신의 삶을 발달시켜 이론 선에 상응된다고 설명하셨다.

성경에서 거듭해서 언급되는 식물의 열매는 세 가지가 있다. 즉, 올리브와 포도 그리고 무화과이다. 이 세 가지의 열매는 우리 삶의 세 가지 평면에서 있게 되는 선과 상응한다. 즉, 우리의 의지와 생각 그리고 행동 평면을 말한다. 이제 이사야 5장 1-7절을 읽어보자.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약성서를 주셔서 진리를 알도록 해 주셨고 알게 된 진리를 수단으로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대신 이 포도밭은 “들포도”를 생산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을 굳히는데 성경을 사용했을 뿐 성서를 통해서 선한 인격이 되는 방법을 알고자 하는 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돕는 것과는 무관했다. 그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였던 것이다.

이제 16절을 주의 깊게 다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하자. 이 구절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간혹 교인들 중에서는 “나는 교회에 다니고 사회에서도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최소한 교회에 나가지 않고 사회에서 대수롭게 않게 평가받는 사람들보다는 더 낫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보다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신이 행한 선함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어 모든 선함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공으로 만든 과일은 먹어 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열매가 겉으로 보기에 좋게 보이더라도 본문의 포도나무의 가지에 달린 열매같이 그 열매 안에는 주님의 생명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이 선하다고 은근히 추켜보려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조차도 우리 속에 생기지 않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각자 노력하기 바란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해 보자.

- * 주님은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는가?
- *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 본문에서 주님은 어떤 특별한 명령을 주시고 계신가?

제 3반

세상에서 주님의 가지가 되고자 하는 바램을 갖도록 노력한다.

본문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과일절 기념을 마치신 후 사도들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 중의 일부이다. 이 때 유다는 이미 주님을 배반하는 일련의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떠나 있었다. 그래서 남아있는 열 한 명의 제자들이 기독교회를 기초하는 작업에 참가하게 된 것이다. 포도나무는 말씀에서 수차례 언급된다. 이 나무에 대한 가장 높은 의미는 신성한 진리의 측면에서 주님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는 우리 삶의 차원에서 보면 이타에 곧 스웨덴불이 말하는 “진리의 선”을 표현한다. 앞서 우리는 이타에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이타에란 우리가 우리 속에 선함이나 지혜가 있지 않고 모든 선함과 지혜가 주님 안에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선한 것을 배우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때만이 이웃에게 선을 베풀 수 있음을 마음으로 깊이 느껴 인식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렇게 인식할 때만이 참 포도나무인 주님에게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 포도인 이타에의 순수한 일을 생산하게 된다.

우리는 위의 설명들로부터 본문에서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거나 그분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등의 언급이 많은 까닭을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내가 교회에 계속 다니면서 이웃에 친절하고 타인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이 뜻하시는 선한 사람일거야.”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심지어 “내가 성경공부를 오랫동안 해왔고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했으니 이제 더 이상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도 내 믿음은 진전 될 거야.”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됨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노력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만들지 못한다. 그 이유는 이런 사람들의 대다수가 요한복음 12장 43절의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광보다도 인간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하는 데로”라는 말씀처럼 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인도를 위해 주님이 아닌 누군가를 쉽게 찾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잘려나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버리게 되는 것이다.”

가지는 포도나무가 확장된 것이다. 사도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진리를 세상으로 전파해야 했다. 주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신 것은 그분의 진리를 자신의 사상과 바꿔놓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제 16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이는 우리가 자신의 의지로 하는 대신 주님의 의지로 해보려고 노력할 때만이 성공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며 그분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자신이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억측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님은 포도나무가 가지를 뺏쳐 내듯이 우리 각자가 사도가 되어 세상에 뻗어나가길 원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자신 외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분의 일을 행하도록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징조와 때를 준비해 두셨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성실히 공부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말씀 속의 계명에 충실해 나가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의 모든 행함 안에 자연스럽게 있어서 유익하고 좋은 열매를 삶에서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이나 행위가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기어이 하고 싶은 충동 때문에 행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일을 행함이 재미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불안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늘 불편하게 했을 것이다. 우리는 젊은 시절에 어른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면 일이 훨씬 더 수월할 것이라고 판단할 때도 있지만, 이러한 우리의 미숙한 판단에 의한 선택이 오히려 불행을 초래하게 됨을 경험하기도 한다.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항은 주님께서 계명을 지켜나가면 언젠가는 편한 세월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도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두어라”하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다양한 집회에서 자신의 원리를 내세워 주위 사람들로부터 기발한 생각이라고 칭찬을 받아 은근히 우쭐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면 그분은 과거 맞보지 못한 더 깊은 내면의 행복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된다. 주님에게서 비롯된 행복과 용기는 타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한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우리가 타인의 말과 행동에 관계없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주님만이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과 어떻게 느끼고 처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진실로 말씀해주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시며 진실로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따라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계에서도 우리에게 천국의 행복을 가져다주실 수 있다.

기본 상응 공부

포도나무 = 신성한 진리로서의 주님

포도 = 이타애의 일

제 4반

새교회 이전에 선행된 네 교회들의 물락을 헤아려보면 본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숙한 우리의 의무임이 명확해 질 것이다.

“한편, 노아는 포도원을 가꾸는 첫 농군이 되었는데...”라는 창세기 9장 20절을 설명하는 부분은 뒤의 참고문헌에 수록되어 있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포도밭과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 등이 언급되는 첫 번째 구절에 해당된다. 아담과 이브와 그 후손들로 묘사되는 태고 교회는 “천적인 상태”, 즉 주님만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 마음 상태로서 그분이 그들의 마음 안으로 유입시켜 주시는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인간들이 계발되던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의지(마음)가 이기적으로 되어 버리자 그분으로부터 유입된 진리가 그들의 변질된 의지로 인해 거짓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태고교회는 거짓과 악이라는 큰 홍수로 멸망했던 것이다. 그 후 주님이 인간 안의 의지와 이해성을 분리시켜 주셔서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이 느낀 그대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교회는 노아로 대표되는 고대 교회였다. 고대 교회는 “영적인 상태”였다. 고대 교회란 인간이 진리를 이해성 속에 받은 다음 그 진리를 수궁하여 순종함으로써 새로운 의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해주셨던 시대를 뜻한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9장 20절에서 노아가 포도밭을 가꾸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포도밭은 영적인 교회를, 포도나무는 영적인 진리를 그리고 포도는 영적인 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세기 9장 21절에서 는 “하루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라고 기록된다. 이는 고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경이로운 진리들을 자신들을 찬양하는데 이용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경향의 끝이 바벨탑의 이야기로 전개되고, 결국 고대교회도 황폐해진 후 흩어져 멸망하고 말았다.

앞서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본 이유는 그 내용이 본문의 내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주님은 고대 교회의 말기 썸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 새 말씀을 세상에 주셨는데, 그 국가는 진정한 교회가 아닌 단지 진정한 교회를 표현하는 교회에 불과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교회가 다시 포도밭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이사야 5장 1-7절을 통해 명백히 알 수 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 위에 덮어 씌워 놓은 그들의 전통들이 위의 구절에 있는 진정한 열매대신 생산된 “들 포도”인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교회 역시 그 끝에 가까웠고, 주님은 그분의 사도들을 통하여 세상에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예비하고 계셨다. 우리는 본문의 가르침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유다가 마지막 배반의 계획을 실행하러 나간 다음 성만찬이 끝난 직 후에 열 한 제자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임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이 열 한 제자들에게 진실로 말씀하신 바는 “이전 교회들이 해왔던 일을 되풀이 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진리가 너희 스스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착각하지 말며 내 진리에 너희들의 사상을 섞지 말라”라는 것이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라고 거듭하여 당부하셨다. 가장 높은 의미에서 포도나무란 “신성한 진리로서의 주님”을 표현한다. 앞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음을 배웠다. 그래서 그분은 같은 복음서인 이곳에서 “나는 포도나무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공부하지 않고 우리의 인도를 그분께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 곧 눈에 보이는 모든 선 안에 결코 생명이 없게 된다. 한마디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도들은 주님이 맡기신 임무에 충실했으나, 뒤의 첫 기독교회는 아주 오래 전의 교회들이 했던 것 같이 그분의 가르침을 거절하거나 뒤집기 시작하여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스스로 분리 되어졌다. 주님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견하셔서 파트모스섬에 있는 요한에게 주어진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미리 묘사해 주셨던 것이다. 우리는 간혹 주변에 있는 교회의 설교나 가르침의 기초들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보다 오히려 바울이나 후기 사람들이 언급했던 것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는 듯 한 느낌을 갖게 된다. 이런 느낌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의 기초 교리는 서기 325년경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우리는 그것이 결국 인간들의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나무 가지에 불과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주님은 이런 인위적인 전통들과 뒤튼린 역사적 흐름을 정화하심으로써 신성한 진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이해성으로 말씀을 읽도록 해주시기 위해 다시 오셨다. 새교회의 모토는 “믿음의 신비에 대해서 지적으로 접근하여 이해하는 것이 이제 허용되었다”라는 것이다 (참된 기독교 508-3). 그렇다할지라도 이 말이 우리가 신성한 진리를 새로운 방법으로 이상하게 비꼬아 보려고 하거나 그것을 우리의 편리에 맞춰 보겠다는 심산에서 나온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이 천 여 년 전 그분의 마지막 만찬에서 열 한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나를 떠난 사람은 잘려나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버린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라고 당부하신다. 이러한 새로운 진리에 대한 공부를 접한 이들이 장차 새교회인이 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섭리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항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열매가 헛되다는 것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는 주님의 말씀이다.

제 5반

최초의 교회에서 첫 기독교회까지의 하락 과정을 간략히 살펴본 후 주님 안에 거하라는 명령을 확인해 본다.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가나에서의 기적을 다시 상기해 보자. 거기서 포도주는 물과 대비되면서 영적인 진리를 표현한다. 영적인 진리란 주님에 관한 진리,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진리 그리고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재탄생 혹은 거듭남에 영향을 주는 근원이라고

일컬으시며 우리가 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진실한 선을 결코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시는 진리이다.

스웨덴붉은 포도밭과 포도나무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천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가 있다는 것 곧 전자는 자기들 의지 안에 주님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이고 후자는 자기들 이해성 안에 먼저 그분을 받아들이는 삶들로 되어 있음을 알고 있지 않으면, 위의 포도밭과 포도나무의 의미 역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게다가 성경에서 올리브 밭은 천적인 교회를 그리고 포도밭은 영적인 교회를 상징한다. 태고교회는 천적인 형태이고, 고대 교회는 영적인 형태에 속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노아가 포도밭을 가꾸는 농군이 되었다고 말하는 이유이며(창세기 9:20), 그가 고대교회의 상징적인 기초자가 되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와 더불어 기억해야 할 사항은 야곱이 하란에서 거룩한 땅으로 귀환한 후 그에게 주어진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며 그 이름이 영적인 교회를 의미하도록 성경에서 사용되어졌고 그 교회를 유대교회가 표현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구약 성서전반에서 포도밭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연결되어 언급된다(예레미야 2:14, 21:호세아 10:1). 주님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도록” 진리로서 오셨다(누가복음 2:32). 즉, 주님은 영적인 진리에 관한 지식을 세상에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참으로 “잎만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교회에 위탁된 진리의 전복이 조심스럽게 일구어 놓은 포도밭에서 예상된 포도대신에 들 포도만 생산된 모습으로 이사야 5장 1-7절에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의 전복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5장 20-23절에서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포도밭의 모습은 시편 80편에서 선하고 순진한 심정 상태와 구원자의 필요성을 묘사하기 위해 재사용된다.

이런 연유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해력에 도달되는 형태로 진리가 옷 입은 모습이 바로 참 포도나무인 것이다. 신약성서는 포도밭이라는 아름다운 비유로 영적인 교회를 취급하기도 한다(마태복음 20:1-16, 21:33-45, 마가복음 12:1-12, 누가복음 20:9-16). 게다가 계시록 14장 17-20절에서는 “날카로운 낫을 들어 포도원에서 포도송이들을 거두어들이는”라는 것으로 심판을 묘사하기도 하다. 포도밭, 포도나무, 포도 그리고 포도주는 말씀에서 자주 언급된다. 우리는 스웨덴붉은 저서에서도 그에 관한 많은 자료를 찾아 볼 수 있다(특히 천국의 신비 제 1069, 5113, 9139 참조하기 바람). 본문에서 주님은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칭하시며, 아버지는 농부이시다고 말씀하신다. “아버지”란 신성한 사랑을 뜻하며, 이 사랑이 포도밭을 일구고 유지시키

며 돌봐 주신다는 것이다. 반면에 “아들”이란 신성한 진리를 뜻하며, 이 진리를 수단으로 포도와 포도주가 생산됨을 의미한다. 우리가 어떤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영적인 진리를 배우며 세상의 어떤 사람의 사상 혹은 자신의 사상을 따르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진리만을 따라 우리의 이해성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거하는 것, 즉 주님의 가르침을 아는 것 외에도 한 가지 반드시 지녀야 할 것이 있다. 제 10절에서 주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계신다. 즉,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스웨덴붉은 이 말씀에 대해 그의 저서 「참된 기독교」 제 70항에서 역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인간은 어디든지 동시에 있게 되는 신성한 힘으로부터 질서에 따라 사는 만큼 하느님 안에 있게 된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어느 곳에서나 계시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은 신성한 질서에서 나오는 형태로 창조되어서 하느님은 인간 안에 계시기도 한다. 단지 인간이 신성한 진리에 일치되게 살아가는 정도에 따라 하느님이 인간 속에 거하시는 충만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그 인간이 신성한 질서에 일치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람 안에 계신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 사람의 가장 높은 영역에 거하신다. 이리하여 그 사람이 진정한 것을 이해하며 선한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된다. 즉,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는 능력과 사랑으로 기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질서에 반대되어 사는 만큼 그는 자신의 마음의 보다 낮은 영역 쪽으로 통하는 문을 닫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보다 낮은 영역까지 주님의 현존하심으로 채워 주시려는 그분의 하강이 방해받게 된다. 그 결과 하느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느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르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해박하다할지라도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여서 우리의 영혼은 차차 시들어지고 우리 속의 악은 우리를 주님에게서 잘려 나가게 만들어 결국에 우리를 불태우고 만다. 주님은 이에 대해서 “나를 떠난 사람은 잘려 나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다. 따라서 열매를 맺는 일이 지상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유일한 목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라고 강조하신다. 이쯤해서 우리가 본문의 가르침 중에서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즉,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단지 외적으로 주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분은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이러한 구절의 글자에서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놓이시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이 우리의 경우와 같이 날마다 그분께 있었던 이기적인 충동이나 생각들을 내려 누르신 모든 일들에 상징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그래서 1절에서 주님은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조리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잘 가꾸신다.”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하신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는 우리로 하여금 매일의 삶에서 튕겨 오르려 하는 우리 영혼 속의 이기적인 바램과 포부를 내려놓으라고 하신 말씀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지옥으로 가고 싶지 않아서 계명을 지키거나 의무적인 측면에서 혹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느님이 벌을 주실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인해 억지로 그분을 순종하는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서 그분의 벗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분의 벗이 된다고 함은 그분의 계명에 내 영혼이 순종하되 그 계명을 이해하고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사랑해서 순종하면,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된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이뤄지는 계명을 순종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질서 안에 놓는 순종의 삶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우리의 영혼이 이러한 차원에 있게 되면, 우리 역시 주님이 먼 옛날 세상을 다 이기셨듯이 세상적인 것을 모두 극복해낼 수 있게 된다. 그분은 우리의 삶이 쉬울 것이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승리가 확실함을 16장 33절에서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강조하셨다.

본문을 마무리 짓는 단원에서 거듭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 안에 주님을 인식하는 것과 그분에 대한 순종이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 선함 또는 선한 일도 진정한 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주님의 진리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사항은 주님의 계명인 것이다. 또한 우리가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할 것은 어떤 유명인사의 연설문이나 자신이 생각해낸 기발한 사상 같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한 친절로 인해 주위에서 칭찬받게 될 때마다 우리 속의 우쭐댐이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런 소리가 들려 올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내적으로 이기적인지 그리고

자신이 행한 선함이 과연 얼마나 주님께 근거하여 이뤄진 것인가를 즉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타에 역시도 이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때에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하고 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마태복음 7:21-23). 교회에 가는 일, 주님의 법을 지키는 것, 근면하고 정직함 또는 이웃에게 친절하고 관대함 등이 어떻게 악한 일이 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아마 그것을 행한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러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선행처럼 보이는 일이 실상 자신의 명성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한 일은 그 동기 역시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 「하느님의 섭리」 제 215항에서 주님과 이웃 사랑에 근거한 선한 일과 세상적인 것에 목적을 둔 선한 일을 인조 과일에 비교하여 “이 과일은 외형상으로는 진짜 나무에서 따온 과일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 과일 안에는 먹어서는 안 될 것을 함유한 밀초가 발라져 있다. 반면에 진짜 과일은 맛을 내서 기쁘게 해주고 좋은 향을 지니며, 더욱이 그 안에 씨를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1069-5항: “포도나무는 영적인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교회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이타애이다. 이타애 안에는 주님이 현존하신다. 주님은 이타애를 수단으로 인간과 결합하신다. 따라서 오직 그분만이 모든 선을 역사 하신다. 주님은 당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며, 교회 속의 사람 또는 영적인 교회도 묘사하고 계신다(요한복음 15:1-5,12). 영적인 교회의 의미는 이 구절로부터 확실해진다.”

질문 정리

- 1) 본문은 주님의 어느 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졌는가?
- 2) 본문에서 주님은 당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3)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부르셨는가?
- 4) 주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5)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 6)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7) 주님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까닭은 무엇인가?
- 8) 주님은 그분의 계명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9)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삶이 쉽다고 말씀하셨는가?
- 10)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주셨는가?
- 11) 포도나무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2) 포도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2) 포도나무 3) 가지들
- 4) “내안에 거하라” 5) 밖에 던지워... 6) 그분의 계명에 순종
- 7)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8) 서로 사랑하라 9) 아니다
- 10) 세상에 의해 미움 받고 박해 받는다 11) 신성한 진리 12) 영적인 선택

36

부활절 (4)

머리말

요한복음에서 강조된 부활 사건은 마리아가 일어나신 주님을 인식한 것 그리고 토마의 의심과 그것의 해결이다. 본과에서는 부활의 일반적인 의미와 제자들의 상태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고록 한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20장

20장: 1.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의 일이었다.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무덤에 가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다. 2. 그래서 그 여자는 달음질을 하여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가서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하고 알려 주었다. 3.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곧 떠나 무덤으로 향하였다. 4. 두 사람이 같이 달음질쳐 갔지만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가 먼저 무덤에 다다랐다. 5. 그는 몸을 굽혀 수의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6. 곧 뒤따라 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 가 그도 역시 수의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7.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수의와 함께 흩어져 있지 않고 따로 잘 개켜져 있었다. 8.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9. 그들은 그 때까지도 예수가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성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10. 두 제자는 숙소로 다시 돌아갔다.

11. 한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12.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체를 모셨던 자리 머리맡에 앉아 있었고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13.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누군가가 제 주님을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14. 뒤를 돌아다보았더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인 줄은 미처 몰랐다.
 15.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줄 알고 “여보시오, 당신이 그분을 옮겨 갔거든 어디에다 모셨는지 알려 주시오. 내가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는 예수께 돌아 서서 히브리말로 “라뵤니” 하고 불렀다. (이 말은 “선생님이여” 라는 뜻이다.) 17.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내 형제들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 곧 내 하느님이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하고 일러 주셨다. 18.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 뵈은 일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일러 주신 말씀을 전하였다.

19.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단아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 오셔서 그들 한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20.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21.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22.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24. 열 두 제자 중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다. 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자 토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어 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 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토마도 같이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들어 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27. 그리고 토마에게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 보아라. 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28. 토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대답하자 29.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30.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들도 수없이 행하셨다.
 31.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교리 요점

- * 우리는 사후 영의 몸을 가지고 계속 살게 된다.
- * 주님은 그분의 인성을 신성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영화를 이루셨다.
- *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생각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절 첫 주일에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신 후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사건이 사실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이유는 모든 역사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세상으로 뛰쳐나갈 용기를 불어넣어 곳곳에 기독교회의 기초를 세우도록 해주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이 육체가 죽은 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에 대한 확실성이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은 이 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님이 막달라 여자 마리아를 부르자 그녀는 곧 그분을 알아보았다. 그 때에 주님은 그녀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녀가 주님을 과거 세상에서 모셨고 사랑했던 친구이자 스승으로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님은 그녀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셔서 그녀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했던 것이다. 우리는 과거 필립보가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나?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답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수세기 전 지상에 사셨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가 아닌 천상천하의 유일한 하느님으로서 여겨야 한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지상에 오신 까닭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심으로써 모든 시험을 극복해 가심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분이 이제 그 인성을 벗으심으로써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한다. 따라서 설령 우리의 육체적 눈이 그분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우리의 모든 투쟁과 실망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신다.

마리아와 제자들은 그의 육체적 눈으로는 일어나신 주님을 알아 뵙지 못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듯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셨던 것이다. 그분이 일으키신 몸이란 세상에 계시면서 점차 신성한 몸으로 대체해 가신 몸을 뜻한다. 그래서 그분은 잠겨 있는 문을 통하여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이다. 주님은 지금도 그분을 인식할 준비를 갖춘 사람들에게 그 때와 같이 나타나고 계신다. 이런 사상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준다. 우리는 주님께 관해 열심히 배워 순종함으로써 그분을 뵈 준비를 갖추 때만이 그분을 뵈게 된다. 만약 우리가 더욱 신실해진다면, 그분은 우리의 지성 속에서 일어나셔서 “길ियो, 진리이며 생명”이 되어 주실 것이다.

제 1반

‘영적인 것들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논의해본다.

주님은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라고 외치며 그분을 왕으로 환영한 군중들이 며칠 후 그분을 “십자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황을 믿지 못했고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주님께서 목요일 밤에 그분의 적들에게 붙잡히셨을 때 그분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까지도 그분을 버리고 달아났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내걸 용기는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며 죽음은 만사의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자 이제는 그분을 결코 뵈 수 없고 만사가 끝났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단념했던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했던 몇몇의 여인들은 그분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위해 뭔가 할 일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당시에는 매장한 사신을 위해 어떤 향료를 준비하는 관습이 있었다. 그래서 일요일 아침 여인들이 향료를 가지고 주님께서 안장된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무덤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누구인가?

- * 그녀는 무덤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 그녀가 제자들에게 이 광경을 말하자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 * 그들이 집에 돌아 간 후 마리아는 무덤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 * 그 때 누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말을 했는가?
- * 누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손으로 확인해야 믿겠다고 말했는가?
- * 주님은 그에게 어떤 식으로 확신을 주셨는가?
- *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었는가?

제 2반

성주간의 사건과 주님의 생명 그리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재정리하며 부활을 살펴본다.

주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까닭에 대한 비유를 들은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당시의 여느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태어날 때 주님이나 천국에 관한 어떤 지식도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였을 때 이런 사항들에 관해 배우지 않으면 육신의 생명이 마치 전부인 듯 생각하게 되고, 죽음은 만사의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우리는 성장 후에 잘못 형성된 생각이나 습관을 바꾸기가 무척 어렵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느님과 미래의 삶이 있음을 아는 때조차도 ‘그게 정말 사실일까?’하고 의아해하며 이 세상 삶만이 실재인 듯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당신이 죽음에 처하게 되고 삼일 만에 다시 일어날 것임을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해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기며 그러한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성주간의 사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 주님은 첫 이틀간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베다니아로 나가셔서 마르타와 마리아 그리고 죽음에서 일으켜준 라자로의 집에서 묵으셨다. 주님은 그분을 반대하는 무리가 늘어나 베다니아에서 묵으셨고, 목요일 저녁에는 과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까지는 성안에서 묵지 않으셨다. 주님은 과월절 기념식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후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의 동산으로 나가셨다. 거기서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여 그분은 대사제가 보낸 무리들에게 넘겨져 체포되었다.

제자들은 주님이 체포되시자 그분을 버리고 도망쳤고, 금요일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완전히

낙망했다. 이는 그들의 희망이 그분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주님이 적들로부터 자신을 구하지 못하셨을 때 그분을 신뢰했던 것을 큰 실수로 여겼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불행하게 느끼며 희망도 잃었다. 우리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구절을 통해 이를 이해할 수 있다. (누가복음 24:20).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지상의 왕으로서 착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그분 자체를 사랑했다. 다시 말해서, 그녀들은 지상에서 위대해지는 것과 같은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그녀들 역시 그분을 다시 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들은 자신들보다 주님을 더 생각하여 그분을 위해 여전히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들은 관습에 따라 시신을 위한 향료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그녀들은 일요일 이른 아침에 향료를 들고 주님께서 안장된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녀들이 일요일 아침에야 비로소 무덤으로 간 까닭은 안식일에 무덤으로 갈 수 없다고 하는 유대인의 율법 때문이었다. 부활절 아침 무덤에 처음 도착한 사람은 과거 주님이 일곱 마귀를 쫓아내 준 여인인 막달라 여자 마리아였다(마가복음 16:9, 누가복음 8:2).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주님께서 그분의 육체에 속한 것을 무덤에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토마에게 손의 못 자국과 허리의 부상을 가지고 나타나셨다는 것이다. 또한 마리아가 처음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과 제자들이 방문을 잠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죽음은 주님의 끝이 아닌 것 같이,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죽는 때에 즉시 영체를 가지고 영계에서 계속 살게 되기 때문이다. 스웨덴본은 영계에서의 삶이 지상에서의 삶과 아주 흡사하다고 간증한다. 그러나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상이점이 있다. 즉, 우리는 죽을 때에 육신을 남기게 되어 더 이상 이세상과 의식을 가지고 접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주님께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 혹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한 사람에게 우리가 가까이 있음을 느끼게 해주시도록 허용하실 때만 가능하게 된다. 주님 역시 마리아로부터 입으신 육신을 벗으셨지만, 그분은 그 육신을 신성한 몸으로 대체시키셨다. 이런 연유로 주님은 누군가에게 나타나실 때 특정한 사람이 그분을 인식할 수 있는 형체를 입으시고 나타나실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죽음이란 삶의 한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과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교훈을 배우게 된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주님은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 초에 어떤 동물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 * 군중들은 그분을 어떻게 환영했는가?
- * 군중들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가?
- * 그들은 뭐라고 환호했는가?
- *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메시아가 무엇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는가?
- * 주님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고 계셨는가?
- * 주님은 당신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해 어떤 비유를 사용하셨는가?
- * 부활절 아침 무덤에 처음 도착한 여인의 이름은 무엇인가?
- * 그녀는 무덤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 * 그녀는 누구에게 이 사실을 말했는가?
- * 베드로는 무덤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 마리아는 후에 무덤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 * 누가 그녀에게 와서 말했는가?
- * 그녀는 처음에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 * 그녀는 언제 그분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
- * 그분은 언제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
- * 어떤 제자가 거기에 있지 않았는가?
- * 그 제자는 왜 다른 제자의 말을 믿지 못한다고 했는가?
- * 주님은 그를 어떻게 확신시켜 주셨는가?
- * 주님은 어떻게 믿는 것이 더 낫다고 토마에게 말씀하셨는가?

제 3반

세상적인 판단 위로 우리의 생각을 일으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요한복음 제 19장 끝 부분에서 언급되는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유대 종교의 대의원인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허가를 얻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유대인들의 장례 풍속에 따라 향료를 바르고 고운 베로 감아서

장사지낸 일이 없는 새 무덤에 그분을 모셨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서는 이 무덤이 요셉의 소유였다고 전한다. 그 후 그 무덤은 큰 돌을 굴려 봉인되었다고 한다. 이 돌에 관한 사항은 마태복음 27장 62-66절에서 자세히 언급된다. 앞서 우리는 종려주일을 공부하면서 주님이 죽음을 통과하셔야 했던 이유를 살펴보았다. 말씀에서의 매장 또는 무덤이란 선한 사람의 경우 부활이나 거듭남을 표현한다. 이 사항은 우리가 죽어서 무덤 속에 놓여 졌을 때 천사들이 그곳에서 우리가 깨어나는 것을 보며 영계로 들어오는 사람을 환영하는데 이때의 천사들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가장 쉽게 이해될 것이다.

우리를 떠난 누군가에 관하여 이세상에 아직 있는 우리가 가지는 생각들이 요셉과 니고테모가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기 전 시신을 싣 고운 베로 그려져 있다. 향료란 진리를 표현하는데, 특별히 심정의 선함에서 근거된 보다 내면에 속한 진리를 표현한다. 주님에 관한 요셉과 니고테모의 생각은 전적으로 그분의 지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제 19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이 주님을 믿으며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네 복음서들에서 볼 수 있는 공통된 사항은 무덤을 봉인했던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것과 여인들이 가장 먼저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 있지 않았음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여인은 애정을 표현한다. 돌은 좋은 측면에서 기초가 되는 진리 또는 가장 낮은 수준의 형체 속에 있는 진리를 표현한다. 본문에서의 무덤을 막은 돌이란 그분이 매장되어 꿈쩍 못하도록 하려고 그분의 적들이 사용한 진리, 즉 남용된 진리를 표현한다. 주님의 적들은 그들의 의도하는 바를 성취시키기 위해 성경의 글자를 거짓으로 바꿔 놓았던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면, 큰 지진이 있었고 주님의 천사들이 입구의 돌을 굴렸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결국 주님의 부활에 의해 전복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여인들이 이 사실을 처음 발견한 까닭은 주님이 진정한 진리를 보여 주실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인 그분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심정 속에 있어야 함을 상징하기 위함이다. 이 여인들은 남자들이나 제자들에게 사실을 알렸는데, 이는 우리의 애정이 지성의 측면에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은 후 영체를 가지고 영계에서 계속 살게 된다. 물질세계에서 살았던 우리의 몸은 뒤에 남겨지게 된다. 반면에 주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신 후에도 계속해서 물질세계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셨다. 주님은 여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그 밖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며 그들로 하여금 당신이 일어나셨음을 알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그분은 물질적인 몸마저 남겨 두시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부활하신 그분을 처음에 알아보

지 못했다. 주님은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 누가복음을 보면, 엠마오로 향한 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걷고 있으면서도 한참동안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그분과 식사를 할 때야 비로소 그분을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주님은 지상에서의 모든 삶을 통과하시면서 그분이 마리아에게서 입으셨던 유한한 인간 본성들을 신성으로 대체해 가셨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시험들을 하나씩 극복하실 때마다 유한성을 벗으심으로써 그것을 신성으로 대체해 가셨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주님의 이러한 과정을 옷 한 벌에 비교하여 ‘옷의 실을 한번 빼내고 그 대신 금실로 대체하는 작업을 계속 되풀이하면, 결국 그 옷은 금 옷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주님은 일어나셨을 때 입으셨던 모든 인성 곧 물질적인 몸까지 포함해서 남겨두신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그분은 자연계 안에서 언제나 현존하실 수 있는 신성한 인성을 이루셨던 것이다. 따라서 마태복음서의 “내가 시대 끝날 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마지막 구절은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이다. 주님은 영들이나 천사들과는 달리 이 세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것을 보시며 알고 계신다. 그 이유는 주님이 신성한 인성으로 세상 안에 계실 수 있기 때문이다.

무덤에 남겨진 것은 오로지 그분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과 수의뿐이었다. 수의(고운 베)란 우리가 말씀의 글자에서 발견하게 되는 주님에 관한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건이란 복음서에 기록된 바대로 지상에서의 그분의 외적인 삶에 관한 기억들을 의미한다. 주님은 이 두 가지 물건들을 남겨 두셨는데, 이는 우리가 그것들을 진리의 증거로서 추켜들고 검사하라는 섭리인 것이다.

이제 본문 24절부터 29절에 있는 토마에 관한 작은 사건을 공부하고 기억하도록 하자. 오늘날 누군가가 “내가 직접 보기 전에 믿지 못해.”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너는 의심 많은 토마와 같아”라고 말하기도 한다. 토마가 주님을 직접 뵈어야 믿을 수 있겠다고 하자 주님은 직접 나타나심으로써 그에게 부활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지극히 지상적인 생각을 칭찬하지도 않으셨다. 주님은 그분에 관해 생각하며 그분에 대해 열심히 배워온 선한 이들에게 나타나시지만, 그분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물질적인 수준에 제한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것에 관련된 사항은 17절에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과 29절에서 토마에게 하신 말씀에 드러나 있다. 주님에 관한 우리의 생각은 말씀으로부터 그분에 관하여 더욱 더 배우게 될 때 지상적인 생각과 포부라는 수준이상으로 향상된다.

기본 상응 공부

여인 = 애정
매장 = 부활 혹은 선한 인격의 경우 거듭남
고운 베 = 자연적인 인간 속의 진리
향료 = 선으로부터 비롯된 내면에 든 자연적 진리
수건 = 자연적 인간의 기억

제 4반

하느님에 관한 진정한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제로 삼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활절에 관하여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삶이 사후에도 계속 이어져 죽음에 어떻게 처해졌는지 간에 그것이 비극이 아닌 더 새롭고 풍요로운 삶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진실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명백한 교훈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위의 사항 외에도 주님의 부활에서 더 깊이 있는 교훈도 얻을 수 있다.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당시 선한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에 속한 용어가 아닌 선함을 전혀 생각해내지 못했다. 삼 년 동안 줄곧 주님을 따르며 그분에게서 배웠던 제자들까지 역시 그분이 말씀하시는 왕국을 지상의 왕국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죽게 되시자 모든 희망이 끝난 것처럼 느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은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의 체험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녀는 일찍이 주님께서 일곱 마귀를 내쫓아 준 여인이었다. 그녀 역시 제자들처럼 주님을 믿고 사랑했으나, 그들과 같은 출세에 대한 기대는 없었다. 그녀는 주님이 가버린 후에도 미래에 관심이 있었고, 그분의 시신을 위해서라도 뭔가 일하여 그분을 섬기려고 했다. 그녀는 본문 이전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교육수준이나 세속적 지위가 높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상 이상의 높은 지성도 소유하지 않았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의 시신을 감은 고운 베란 그분에 관한 자연적인 사상을 표현한다. 그리고 시신에 바를 향료란 그들의 심정 속에 든 선함에 의해 자연적인 사상에 추가되는 품성들을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향료는 “선으로부터 온 내면에 있는 자연적인 교리”를 표현한다. 즉, 우리가 배우고자 하여 얻게 된 진리는 억지로

배워서 얻은 진리보다 더욱 깊게 우리를 감화시켜 준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많은 이들이 말씀의 글자로부터 진리를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할 때가 흔하다. 무덤을 봉인한 돌이란 종교지도자들에 의해 말씀의 글자로부터 얻은 진리를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여 왜곡된 진리들을 뜻한다.

주님의 부활은 여인들에게 처음 알려졌는데, 여인이란 애정을 표현한다. 그리고 여인들로 인해서 남자들에게도 부활이 알려졌다. 이는 우리의 심정에 사랑함이 없으면 어떤 영적인 시야도 결코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주님을 즉시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후 그분을 뵈 최초의 실제 인물이다. 그녀는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그분을 알아보았다. 말씀 속에서 이름이란 어떤 인격의 전반적인 특질을 표현한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각 개인의 특질을 알고 계신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내 형제들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 곧 내 하느님이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고 전하여라”라고 이르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전달하라고 하신 이유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이들이 그분을 인간이 아닌 하느님으로 인식할 때까지 그들이 가졌던 세상적인 생각 수준이상으로 그들의 주님에 대한 생각을 들어 올려야만 함을 제자들에게 지적해 주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 하느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가 여느 사람들과 같이 자연계의 힘을 지니고 계신 분으로 하느님을 간주한다면, 우리의 모든 이상향이나 열망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존재하게 된다. 설사 우리가 선하며 유용한 인격자가 되려고 결심할지라도, 우리는 단지 타인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만을 최선의 목표로 설정할 뿐이다. 만약 우리가 복음서 속의 많은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일부 종파와 같이 우리의 하느님이 당신을 경배하고 헌금을 바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으로서 간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주실 수도 있는 분으로 비쳐지게 해서 그분을 매우 강경한 통치자시며 협소한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타인을 다룰 때도 위와 같은 하느님의 특성을 본떠서 그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느님이 만물의 최초의 원인 곧 최초의 물질적인 세포를 창조하셔서 어떤 것이 어떤 법칙에 따라 발달되어졌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믿어야 할 것과 행동해야 할 것을 스스로 결정지어야 한다고 여기며 한 인간의 사상이 다른 사람의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판단하게 되어 결국 어떤 고정된 진리도 세상에 없다고 결론짓게 된다. 게다가 우주에서 활동 중인 무한한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이

계시지만 인간이 유한하여 그분에 관해 전혀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결국 위와 같은 사람들에 속하고 만다.

기독교인 사이에도 그리스도에 관해 믿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즉,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인정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지금까지 존재한 사람들 중 최고의 인간정도로만 간주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사항은 주님의 가르침 중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은 받아들이면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분 역시 국한된 나라나 사람들을 위해 가르치셨어. 그분이 오늘날 가르치신다면 아마 조금은 달라지실 거야.”라는 식으로 생각하며 자기에게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가르침을 배제할 자유가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어떤 구절은 과장시켜 말하고 또 다른 구절은 왜곡시키거나 과소평가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이 되신 분이므로 하느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대로 살아내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확실히 지녀야 할 이상향을 주셨다. 또한 그분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삶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과 진정한 영혼의 형체를 만들기 위해 육체가 사용되는 것만이 중요함을 보여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창조주 하느님이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사상을 오래 전 지상에 계셨던 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이상의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끌어올리되 그분이 하느님이시요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고 생각하는데 까지 이르러야 한다. 주님은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제자들에게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본문의 토마에게 베풀어 주셨던 바와 같이 그분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적합하게 그분을 맞추어 주신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여 그분을 보는 능력과 이해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면 그분은 우리의 이해성 속에서 일어나시게 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사는 이 새 시대에 우리의 이해성에서 일어나시되 가장 확실한 일어나심(부활), 즉 말씀의 내적 의미를 열어 놓으셨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말씀의 합리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우리를 위해 설비해 놓으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받도록 배려해 두신 것이다. 우리가 이 수단들을 사용한다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더 밝아지고 말씀에 대한 공부는 언제나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더해 줄 것이다. 비록 우리가 자아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 앉혀져 이 세상에 있다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살게 된다.

제 5반

부활의 일반적인 의미와 부활 후 주님의 나타나심까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누가복음의 부활 사건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살펴본 사항은 사도들에게 부활이 미친 결과였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뵈 후 세상으로 뛰쳐나갔다. 우리가 이 사항을 상기해 보아야 하는 까닭은 부활로 세상에 오신 신성한 힘의 영향에 따른 외적인 증거를 느끼기 위함이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있는 부활 사건은 거듭나는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응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사료된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유한한 인성에 집중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유한한 인성의 배경을 공부하다가 자극 받기 쉽고, 인류적 차원이나 지리학적 측면에서 그분을 상상해보는 것이 그분을 더욱 잘 이해하며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는 “예수께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로 요약되어 표현되었는데, 이들은 역사적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전부라고 느낀다. 사실 사도들은 이런 신앙 속에 있었다. 주님이 그들에게 일러주신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의 물질적인 몸이 무덤에 놓이게 되자 그분을 완전히 잃었다고 느꼈던 것이다. 주님은 부활로 그들이 잘못 생각했음을 가르쳐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바는 그분이 입으신 인성에 집착하여 우리의 생각을 한정짓지 말라는 것이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이른 새벽 동 트기 전에 무덤에 가보았을 때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다. 아침이란 항상 새로운 상태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함은 그 여자의 마음이 아직 무지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들어 있던 일곱 마귀가 쫓겨서 나간 후의 마리아란 시험을 통해 깊이 순수해진 심정을 표현한다. 주님이 무덤에 묵이실 수 없음을 맨 먼저 발견하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싶어 하는 상태이다. 무덤이란 말씀의 글자 자체를 의미한다. 이 무덤을 조사해보는 것이 시몬 베드로와 요한으로 그려지는 지성 속의 자질들이다. 이 두 사람이 무덤에서 발견한 것은 수의였다. 우리 속의 자질들이 말씀의 글자 속을 탐험해서 얻는 것은 글자상의 주님에 관한 진리들을 알게 해준다. 그러나 천사들을 알아 본 것은 마리아 곧 사랑하는 심정이었고, 이 심정이 글자 상에서도 살아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더욱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뵈 사람 역시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처음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곧바로 그분을 인식했다. 이 구절은 비록 처음에 현존하시는 영원한 구세주를 잘 알지 못 하더라도 우리 속의 애정 깊은 마음이 결국 그분의 실재를 느끼게 해줌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에서 주님이 먼저 일어나신

후 우리는 그분의 제자 된 도리를 행하기 위해 세상에 계실 때의 그분의 생애를 공부하고, 그분의 본보기를 따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께 계속 신실하게 되면, 우리는 이천년 전 지구 어느 부분에서 거니시던 누군가로 그분을 생각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지금 우리와 함께 세상에 현존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해주시는 분으로서 그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일어나심은 우리가 일어난다는 것과 다르다. 우리는 죽게 될 때 뭔가를 뒤에 남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계에서 하나의 영인으로 일어날 때 이 세상에서 우리를 듣게 해주고 보게 해주던 우리의 도구들을 세상에 남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감각적인 것까지 영화 하셨다. 즉, 그분의 물질적인 본체를 신성한 본체로 대체해 가셔서 무덤에 남기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그분의 머리털 하나까지 모두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보다시피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라고 확인시켜주셨다(참조 천국의 신비 10252-7, 6135; 천국과 지옥 316). 그리하여 그분은 그분의 신성한 인간성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보시며 듣고 계신다. 따라서 일어나신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고, 그들이 보고 만질 수도 있었던 것이다. 신성이신 그분의 인성은 무한하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간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에 묶여 있는 유한한 몸인 것과는 달리 전 시대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실 수 있다. 따라서 그분의 현존은 단지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내가 시대 끝날 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처럼 실재하는 것이다.

복음서들은 부활 후 주님이 나타나심에 대한 몇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주님 부활의 첫 목격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였다. 마태복음서에서는 그녀 외의 다른 여인들에게도 보여 졌다고 기록된다. 같은 날 오후 그분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도 보이셨는데, 이에 대한 사항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34절에서 언급된다. 마가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부활 첫날 저녁식사에서 나타나셨다고 전한다. 요한복음에서는 비록 토마가 식사 때에 그 자리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8일 후 토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다고 전한다. 마태복음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에게 말해진 갈릴래아의 산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요한복음은 티베리아 호숫가(갈릴래아)에서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도 전하고 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우리는 배우는바, 그분은 부활후 사십 일 이상 보여지셨다는 것,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6-7절에서, 그분은 오백 명이 넘는 교우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뒤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세상에서의 그분의 현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되며, 그 외의 많은 사항들도 기록되도록 섭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증거를 가지도록 해주셨다. 그러나 주님은 토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보게 해주는 육체의 눈보다 더 깊은 것을 보는 눈과 듣는 귀보다 더 깊게 듣는 귀가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이해성이 주님의 진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생명을 받게 되면 과거 이 천년 전 주님을 직접 육체의 눈으로 뵈었던 이들 혹은 육체의 눈으로 그분을 뵈는 것보다 우리가 그분의 현존에 대한 훨씬 더 높고 깊은 확신을 갖게 된다는 말이다. 육을 입으시고 계셨던 주님을 본 대다수는 그분을 거절했다. 주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던 이들은 부활하신 그분을 본 이들의 증거 역시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만약 그들이 주님에 대한 환상을 그들 스스로 갖게 되었다면, 그들은 그 환상들을 돌려대느라 급급해했을 것이다. 믿음은 의지 속에 존재한다. 주님에 대한 사랑 혹은 자아사랑 중에서 선택은 언제나 선택하는 사람의 자유인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0-31절에서는 요한이 기록한 증거들이 주님의 신격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른 많은 표적들도 행해주셨음을 보여준다. 요한복음서 마지막 절에는 만약 주님이 하신 일들을 낱알이 다 기록한다면 세상을 채우고도 남을 것이라고 전한다.

지상에서의 주님의 삶은 꾸준하면서도 적극적인 섬김의 하나였다. 그분은 갈릴래아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설교하시며 병든 자를 치료해주셨다. 복음서에는 그분의 말씀과 하신 일의 극히 일부만이 기록되어 있다. 이 소량의 기록은 신성한 섭리로 선별되어 그분의 일에 있는 모든 국면을 글자 안팎 예증해주고, 글자속인 말씀의 영은 신성한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섭리로 선별된 말씀 속에서 기꺼이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이다. 앞서 본과 처음 부분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주님의 유한한 인성의 측면만을 생각하려는 경향이 다분하다. 이런 경향성은 우리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고 경건하다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를 할 때 주님 생애의 일부분인 소년 시절을 마음대로 그려서 동네 소년과 노는 모습과 같은 것을 연구한다거나 청년 목수로 아버지 요셉을 돕는 모습 등과 같은 것을 덧붙인다면 이는 우리 안에 엉뚱한 상상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영적 가치가 있었다면 말씀에 이미 수록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지상 삶에 관해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만을 알려고 애써야 한다. 사실 주님은 인간이 자기 이해성 밑에다 그분을 놓는 일 곧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틀 안에 그분의 유한한 인성의 수준만을 끌어넣으려는 경향성을 제재하지는 않으신다. 주님은 인간존재와 동등한 수준에 놓이셨으나, 그 마음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서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살아 계시며 현존하시는 구세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으로 인식할 때까지 “줄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제 687-18항: “천사들이 무덤에서 보인 바, 한 천사는 주님의 머리 부분에서, 그리고 또 다른 한 천사는 그분의 발치에서 보였다(요한복음 20:12, 마가복음 16:5). 이렇게 보여진 것들은 주님의 영화하심에 대한 표본물이며, 그분에 의해 천국을 소개받는 것에 대한 표본물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돌’이 무덤을 봉인했고 그 돌이 천사에 의해 굴러졌는데, 이는 신성한 진리 또는 말씀이 유대인들에 의해 닫혀져 있었음과 주님이 그 닫힌 말씀을 여셨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이 계셨던 무덤 또는 통상적으로 말해지는 무덤은 영적 의미로 볼 때 부활 또는 거듭남을 의미한다. ‘천사’라는 단어가 말씀에서 언급될 때에 신성한 진리를 뜻하여 한 천사가 주님의 시체를 모셨던 자리 머리말에 있었고, 또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던 것이다. ‘머리말에 있던 천사’란 처음에 해당되는 것들 속에 든 신성한 진리를 뜻하여 이 두 가지 모두 주님에게서 발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신성한 진리가 받아들여질 때 거듭남이 그 결과로 있게 되는바, 그것에 부활이 존재한다.”

질문 정리

- 1) 주님은 종려주일에 어떤 동물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 2) 군중은 뭐라고 소리쳤는가?
- 3) 군중들은 주님이 무엇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었는가?
- 4) 군중들이 주님이 지상 왕국의 왕이 아니심을 발견하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5) 주님은 어느 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 6) 십자가에서 내려진 주님의 시신은 어디에 모셔졌는가?
- 7) 누가 주님의 시신을 모셨는가?
- 8) 누가 일요일 이른 아침 처음 무덤에 갔는가?
- 9) 그 여자는 왜 무덤에 갔는가?

- 10) 그녀는 무엇을 발견했는가?
- 11)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무덤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12) 마리아는 무덤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 13) 주님은 그녀에게 나타나실 때 당신을 어떻게 알도록 하셨는가?
- 14) 왜 주님은 그분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 15)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 16) 이 때 어떤 제자가 그곳에 있지 않았는가?
- 17) 토마는 주님이 살아 계심을 어떻게 해야 믿겠다고 말했는가?
- 18) 주님은 그를 어떻게 확신시켜 주셨는가?
- 19) 그 후 주님은 토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0) 요한은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은 일들에 관해 뭐라고 말했는가?
- 21) 매장함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22) 무덤을 막은 돌이란 무엇을 표현하는가?
- 23) 수의(고운 베)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나귀 2) 호산나 3) 로마를 정복함 4) 그분을 거절했다 5) 금요일 6) 새 무덤에 안장되었다.
- 7) 아라마태아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8) 막달라 여자 마리아 9) 향을 시신에 바르려고 10) 돌이 굴러져 있었다 11) 수의 12) 두 천사 13) 이름을 부르심으로 14) 아직 올라 가지지 않았기 때문
- 15) 닫혀 있는 문으로 들어오셨다 16) 토마 17) “나는 내 눈으로 보고...내 손으로 만져 보아야...”
- 18) 다시 나타나심으로 19)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20) 기록하기에는 너무 많다 21) 부활 22) 하느님에 관한 거짓 사상 23) 주님에 관한 제자들의 사상

37

여자와 용

머리말

본문에는 아주 인상 깊은 묘사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를 먼저 기억해 두면 점차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12장

12장: 1. 그리고 하늘에는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별이 열 두 개 달린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나타났습니다. 2. 그 여자는 뱃속에 아이를 가졌으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3.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고 머리마다 왕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4. 그 용은 자기 꼬리로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막 해산하려는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그 아기를 삼켜 버리려고 그 여자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5.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었습니다. 별안간 그 아기는 하느님과 그분의 옥좌가 있는 곳으로 들려올라 갔고 6.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곳은 하느님께서 천 이백 육십 일 동안 그 여자를 먹여 살리시려고 마련해 두신 곳이었습니다.

7. 그 때 하늘에서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천사 미가엘이 자기 부하 천사들을 거느리고 그 용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 용은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맞서 싸웠지만 8. 당해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그들이 발붙일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9.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계를 속여서 어지럽히던 늙은 뱀인데, 이제 그놈은 땅으로 떨어졌고 그 부하들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10. 그 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들은 쫓겨났다.

밤낮으로 우리 하느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들이 쫓겨났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나타났고
 하느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11.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진리의 힘으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싸웠다.
 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악마가
 크게 노하여 내려갔으니
 땅과 바다는 화를 입을 것이다.”

13. 그 용은 자기가 땅에 떨어진 것을 깨닫자 그 사내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14.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가지고 있어서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 가 거기에서
 삼년 반 동안 그 뱀의 공격을 받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15. 그 뱀은 그 여자의 뒤에서
 입으로부터 강물처럼 물을 토해 내어 그 물로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 했습니다. 16. 그러나 땅이
 입을 벌려 용이 토해 낸 강물을 마시어 그 여자를 구해 냈습니다. 17. 그러자 용은 그 여자에
 대하여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위해서 증언하는 일에 충성스러
 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떠나 가 18. 바닷가에 섰습니다.

교리 요약

- * 물질주의라는 이 큰 용은 우리가 신성한 진리를 무시해버리게 하는 묘책을 수단으로 우리를 시험하려 고 우리 곁에 언제나 현존하고 있다.
- * 만일 우리가 일상 생활을 우리의 참 교리에 머물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이 용은 우리를 해칠 수 없다.
- * 새 교회 조차도 “믿음 만의 교리”를 수단으로 살아보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롭지는 않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 장차 그들이 기독교회를 기초하게 될 때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가르침을 진실로 지키기를 당부하셨다. 사도들은 이 부분에 충실했지만, 그들이 기초한 교회들은 그렇지 못했다. 우리는 계시록 3장과 4장을 통해 1 세기도 지나기 전에 거짓 가르침이나 생활 속의 악들이 기독교 모임들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계시록에 기록된 환상들은 사도 요한이 고령이 되었을 때 주어졌던 것들이다. 이 책은 첫 기독교에 발생하게 될 일들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계시록은 첫 기독교 역시 먼 옛날의 교회들이 그들 속의 이기심이나 세상욕으로 인해 전복되었듯이 그렇게 전복될 것이라는 것과 그로 인해 이 교회가 어떻게 심판되며 종말을 초래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새교회가 일어서게 된다는 예언적인 환상들에 관한 것이다.

본문의 환상은 천국에 있는 새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이 새교회가 지상에서 부딪치게 될 반대자들에 관해 알려준다. 성경의 전반에서 교회란 여자와 신부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 등 주님의 배우자로서 묘사된다. 특별히 본문의 여자는 새교회를 표현한다. 성경 전반에서 이기적인 사랑, 특별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뱀으로 묘사된다. 이는 에덴의 동산의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것으로서, 뱀이 이브를 설득시켜 주님께 불순종하게 만듦으로써 시작되는 것이다. 본문에서 큰 붉은 뱀이란 위의 뱀과 같은 “늙은 뱀”으로, 전 세계를 악마 또는 사탄으로 현혹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스웨덴북에 따르면 본문의 예언은 1757년에 말씀의 봉인을 떼시는 주님의 재림으로 지상에 새교회를 건립하시게 된 것으로 성취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건립된 새교회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게 된 것을 의아해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까닭은 약 이 천 년 전 주님의 강림이 성취되었을 당시 그분의 오심을 믿었던 이들이 극소수에 불과했던 이유를 성경에서 접하게 되면 조금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강요당하여 그분에 관한 지식을 얻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그 지식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 늙은 뱀은 큰 붉은 뱀으로 되어 진리를 파괴하고자 미묘한 논쟁으로 우리의 신실함을 시시각각 시험하려고 우리와 늘 붙어 다닌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며 계명에 충실해온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과 천사들에 의해 보호되었다. 그래서 본문의 여자와 같이 용의 접근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영적 이해라는 날개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다.

제 1반

계시록이라는 책을 주의 깊게 살펴본 후 용에 관한 사항도 간략하게 언급한다.

요한은 “사랑받은 제자”로 불렸는데, 이는 그가 주님께 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요한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머무르다가 나중에 소아시아로 옮겼고, 거기서 건립된 일곱 교회의 지도자로 활약하며 장수하기도 했다. 로마 총독은 요한이 90세가 될 무렵에 요한을 파트모스 섬에 유배시켰다. 주님은 거기서 그에게 경이로운 환상을 주셨는데, 이 환상이 계시록이라는 책 안에 기록되어 성경의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다.

맨 먼저 요한은 주님 곧 자신이 세상에서 따라 다녔던 예수이지만 새롭고 영화로우신 모습의 예수를 보았다. 그리고 주님은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위한 메시지를 그에게 주셨다. 그런 다음 그의 영은 하늘로 들려져서 우리가 악마에 저항할 수 없을 때 주님과 천사들이 어떻게 그 악마를 지배하시며 끌어내리시는가를 보게 되었다.

요한이 본 환상은 하늘에서 운행된 거대한 활동사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과 악에 관한 것을 가르쳐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을 선택하며 악한 것을 미워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보여 진 것이다.

우리가 본문에서 본 큰 붉은 용이란 역사 초기에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주님을 불순종하게 만든 늙은 뱀이라고 한다. 우리는 잘못을 행하도록 유혹될 때마다 이 늙은 뱀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라고 외치게 되면, 행하려 했던 잘못도 멈추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다면, 주님과 천사들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행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본문에서의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 여자는 어떤 모양으로 서 있었는가?
- * 그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었는가?
- * 무엇이 그 여자를 위협하기 위해 나타났는가?
- * 용에 관한 사항을 아는 대로 설명해보자.

- * 여자는 어디로 도망갔는가?
- * 그 여자의 아이는 어떻게 되었는가?
- * 누가 용과 대항 하였는가?
- * 무엇이 그 여자를 돕기 위해 주어졌는가?
- * 용은 어떻게 그 여자를 잡으려고 했는가?
- * 땅은 어떻게 그 여자를 도왔는가?

제 2반

재림이 1757년에 거행되었다는 것과 그것이 임마누엘 스웨덴볼에 의해서 증거 되었음을 언급한다. 여자와 용이 현재대에서도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하면, 신앙을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요한은 열 두 명의 사도들 중 가장 나이가 어렸을 뿐만 아니라 장수했던 인물이다. 그는 교령이 되었을 때 소아시아에서 발달된 일곱 기독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로마인들에 의해 기독교인이 박해당하는 동안 소아시아의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파트모스 섬으로 유배되었다. 주님은 거기서 계시록이라는 성경의 마지막 책에 기록된 일련의 경이로운 환상들을 그에게 주셨다. 때로 이 책은 묵시록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계시록에 대한 그리스어에 해당된다.

우리는 계시록의 제 1장을 정규적으로 읽어야 한다. 그 이유는 제 1장이 주님에 관한 요한의 환상뿐만 아니라 그가 본 것을 어떻게 받아써야 하는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제 2장에서부터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 옥좌에 관한 환상, 봉인된 책 그리고 네 승마자와 봉인이 떼어지는 순서로 이어진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곱 봉인이 떼어질 때에 일곱 천사가 나타났고 각 천사가 지닌 나팔을 불었을 때 격렬한 재난이 뒤따랐다. 봉인이 떼어진다고 함은 말씀의 속뜻이 열림을 뜻한다. 나팔을 분다고 함은 말씀의 속뜻이 열려 더 깊은 진리들이 선포됨을 뜻하는데, 이 진리들은 사람들의 심정 속 깊은 곳에 감춰 두었던 악이 드러나 보이게 됨을 의미한다.

본문은 마지막 봉인이 떼어짐에 따라 있게 되는 환상중의 하나이다. 계시록은 첫 기독교회의 역사에 관한 예언인데, 그 교회가 이전의 교회들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이탈되어 파멸에 이르러 새교회가 지상에 일어나게 되는 과정에 관한 예언서이다. 본문의 여자는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 그분에 의해 건설된 새교회에 관한 그림이며, 여자의 이야기는 건설될 교회 속에 있는 순수한 진리를

뜻한다. 이에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차차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이제 9절과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 보도록 하자. 우리 모두는 창세기의 이야기에서 무엇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여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익히 알고 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일이 잘못된 것임을 명백히 자각하면서도 그것을 행하고자 고집한다. 이때에 우리의 양심은 그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호소한다. 반면에 우리 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 “이만한 일은 세상에 비교하면 어린아이의 장난에도 미치지 않아” 또는 “우리 부모는 역시 구시대 사람이니까.”라고 또 다른 작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속삭인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 속의 어떤 소리에 솔깃하여 행동선상에 잘못을 조금씩 옮기다 보면, 나쁜 습관이 우리 속에 형성되어 그것이 나쁘다고 자각하고 극복하려고 할지라도 이미 때가 늦어 버리고 만다. 이러한 일은 종류나 형태만 달리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부추기는 주체가 바로 본문에서의 큰 붉은 용이다.

요한이 환상에서 본 새교회는 1757년 주님이 재림을 이루신 때부터 지상에 건립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밝히셨던 진리들이 우리들에게도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이기심 곧 늙은 뱀, 악마 혹은 사탄이라 불리는 것들은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이해성 속에 들어오자마자 그것을 해치우려고 발버둥 친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거짓된 논쟁들은 15절에서 용이 토해낸 “강물(flood)”에 해당된다. 하지만 “그러자 땅이 입을 벌려 용이 토해낸 강물을 마셔버렸 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이 밝히신 진리를 우리의 삶에 응용하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이해성은 이기적인 추론들이 거절되었음을 명백히 알게 되고 우리의 의지가 그것들을 쉽게 거절하여 유혹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요한은 제일 먼저 무엇을 보았는가?
- * 여자의 발밑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 * 그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었는가?
- * 다음에 무엇이 나타났는가?
- * 용은 몇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가?
- * 뿔은 몇 개였는가?
- * 그 용은 꼬리로 무엇을 했는가?
- * 용은 무엇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가?

- * 여자의 아기는 어떻게 구원되었는가?
- * 여자는 어디로 도망갔는가?
- * 누가 용과 싸웠는가?
- * 싸움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 * 무엇이 그녀를 돕기 위해 주어졌는가?
- * 땅은 그녀를 어떻게 도왔는가?

제 3반

계시록이 “새교회의 헌장”임을 강조한다.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고령이 되었을 때 로마 제국에 의해 강제 추방되어 그가 소아시아의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파트모스 섬에 유배당했을 당시 주님에 의해 그에게 주어진 경이로운 환상의 시리즈로 기록된 책이다. 기독교의 역사동안 모든 사람들은 계시록의 환상이 주는 어떤 힘을 느껴왔다. 이는 계시록 1장 19절에 있는 구절로부터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계시록은 교회들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책이며, 예언서로서 많은 이들이 그 책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노력해 왔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특별한 전쟁이나 정복 등 인간의 역사적인 사건을 이 책에서의 예언의 세부사항과 연결 지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 책의 내적 의미는 주님의 재림을 통해 그분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계시록은 첫 기독교회의 역사에 관한 예언이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라는 것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당신 스스로 인간에게 밝히실 것이라는 것(이사야 9:6, 요한복음 4:25-26, 14:9) 등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요한이 주님을 뵈는 환상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런 다음 소아시아에 건립된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요한에게 주어졌다. 그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서기 100년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이미 주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각기 다른 사상을 덧붙여 발달시키며 진정한 제자의 도리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음을 알도록 해준다. 이후 요한의 영은 하늘로 들리어져 교회속의 거짓된 사상과 악한 실체가 그 교회를 완전히 뒤집게 될 때 그 첫 기독교회 위에 집행될 심판에 대한 위대한 환상을 보게 된다. 이 환상은 맨 처음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으로 말씀이 보여 지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 봉인을 하나씩 떼시게 된다.

그러면서 인간 안의 깊은 악들이 밝혀지고 심판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광경들은 마지막 심판에 관한 예언인데, 대부분의 기독교회들이 여전히 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북은 이 심판이 서기 1757년에 이미 거행되었다고 말한다.

본문의 내용은 새교회의 시작에 관한 것이다. 스웨덴북은 서기 1770년 6월 19일 주님과 세상에서 함께 지내왔던 열 두 명의 사도들이 그분의 재림으로 밝혀진 교리들을 전파하기 위해 영계의 전역으로 파견되었다고 전한다(참된 기독교 791항). 이로 인해 새교회가 가장 먼저 영계에서 건립되었는데, 우리는 이를 근거로 6월 19일을 “새교회 날”이라고 부른다. 새교회는 지상에 내려오기에 앞서 영계에서 먼저 건립되어야 했던 것이다.

본문의 첫 절에서 영계에 있는 이 새교회는 태양을 입고 있는 여자로 묘사된다. 달을 밟고 있는 모습은 지상의 인간의 이해성 속의 어둠을 비출 새교회의 신앙을 상징한다. 그 여자가 쓴 월계관에 달린 모든 별들은 이 새교회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진리들 표징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먼 옛날인 태고교회인들이 직접적인 영감으로 가졌었던 진리 곧 창조의 넷째 날에 나타났던 해와 달과 별에 관한 진리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여자가 낳으려는 아기는 새교회의 교리를 표현한다.

그런 다음 큰 붉은 용이 등장한다. 이 용은 제 9절에서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계를 속여서 어지럽히던 늙은 뱀”이라고 불린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주님을 불순종하여 금지된 열매를 먹도록 유인해 그들의 낙원을 상실케 만든 뱀의 논쟁을 기억한다(창세기 3:1-5). 이 뱀이란 이 세상에서 획득되는 것에 만족을 보이는 사랑 또는 이 세상에 속한 물질적인 외관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한다. 뱀과 이브의 논쟁은 결과적으로 “주님이 너에게 말해둔 것을 믿지 말라... 그분은 너를 네 스스로 생각하려는 것을 못하게 할 뿐이다...”라는 식으로 뱀이 이브를 미혹한 것이다. 그래서 이 뱀이 표현하는 바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거짓의 출발인 것이다. 따라서 본문의 늙은 뱀이란 인간의 이기심이 자라면서 더불어 자라난 뱀이다. 이러한 논쟁들은 자연계에 관한 인간의 지식이 자라나면서 거세지기도 하는데, 그 모습이 결국 일곱 머리와 열 뿔 그리고 일곱 개의 왕관이 씌워진 큰 붉은 용이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항은 우리가 새교회의 교리를 원치 않은 이들에게 진리를 말해주려고 할 때마다 이 큰 붉은 용이 우리와 싸우려고 별떡 일어날 것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용은 천국에서 쫓겨난 반면 아기는 무사히 천국에 보존되었다. 그리고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여자에게 주어졌는데, 날개란 영적인 이해성을 뜻한다. 이 이해성은 용의 접근으로부터

여자를 높이 들어 올려준다. 그리고 땅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정직하고 신실한 심정이라는 “옥토”만이 용의 입이 토해내는 거짓이라는 홍수(강물)를 처리해 버릴 수 있음을 뜻한다. 우리가 새교회의 교리를 공부하면서 그것을 삶에 응용하고자 노력하면, 이 용은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되며 우리의 삶은 주님이 지상에서 새교회를 건설하시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 * 여자 = 새교회
- * 여자의 아기 = 새교회의 교리
- * 용 = 세상사랑
- * 날개 = 영적인 이해성
- * 홍수 = 거짓 추론들

제 4반

상응으로 본문을 해석함으로써 이해의 깊이를 더해 가도록 한다.

계시록의 앞부분은 첫 기독교회의 타락에 대한 묘사, 즉 그 교회들이 진정한 포도나무인 주님으로부터 더 그들 스스로 잘려 나가게 된 과정과 그로 인해 그분께서 말씀을 봉하고 있던 봉인을 떼심으로서 그 교회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거행하게 되심을 보여준다. 요한의 환상은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 영계에서 실제로 거행될 것에 관한 예언이기도 하다. 스웨덴북은 “항구적인 기독교 천국은 말씀속의 더 깊은 진리가 밝혀질 때까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며 고백하면서 자신이 구원되었다고 확신했던 모든 기독교인들은 진정한 진리의 빛으로 그들의 진정한 마음 상태를 비춰보고 알게 될 때까지 “가상적인 천국”에서 살도록 허용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선과 악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 분리됨으로써, 악한 자는 지옥에서 자신의 거처를 발견하게 되고 선한 자는 천국에서 자신의 영원한 거처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스웨덴북은 “이 심판은 서기 1757년에 거행되었고, 1770년 6월 19일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분을 추종했던 열 두 명의 사도들을 영계의 전역으로 파견하여 새교회를 건립하게 될 교리를 선포하도록 명령하셨

다. 이 일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지상의 새교회도 출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본문에서의 태양을 입은 여자가 이러한 새교회를 상징한다. 태양이란 주님을 사랑함에서 비롯된 영화로움과 상응되고, 이 영화 속에서 천국에서의 새교회가 이뤄지게 된다. 그 여자의 발아래 있는 달이란 지상의 새교회 사람들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총명과 믿음을 그린다. 그 여자의 왕관에 달린 별들은 이 새교회가 소유하게 될 신성한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상징한다. 우리는 간혹 이 새교회가 말씀 속에서 신부 또는 주님의 아내라고 불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는 새교회의 교리를 의미하고, 이 아기를 위협해 온 큰 붉은 용이란 이전 교회에서 발달된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추론으로 이 새 교리와 싸우려 하는 악을 상징한다. 이 싸움으로 인해 이전 교회는 몰락하게 된다. 이는 세상의 악의 근원에 대한 책임이 있는 “늙은 뱀 (창세기 3:1-5)”과도 같고, 이것이 연속된 교회는 타락과 몰락을 초래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 몰락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바램과 영적인 사고가 아닌 세상적이고 과학적인 논리성으로 추론하고자 하여 초래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용”을 거둬들이 만나게 된다. 이 용은 인간속의 이기심이 자라는 만큼 커져갔고, 물리적인 세계에 관한 인간의 지식이 늘어감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인간의 자만심과 더불어 인간의 영적 성장에 대항하는 강력한 적이 되었다. 스웨덴북은 “이 용은 특별히 “믿음만으로”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한다. 이것은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 부르는 개혁교회의 핵심 교리에 해당된다. 이 교리의 본질은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성취된 속죄는 이 세상에서 가진 인간의 삶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신앙 고백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 교리를 가진 교회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이 교리 대로 살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교리는 여전히 많은 기독교회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며, 안타깝게도 영적인 가치보다 세상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변명의 여지를 제공해 준다. 간혹 우리는 “주님은 정말로 사랑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언젠가 모든 이를 천국으로 끌어 올려주시지 않겠어? 그러니 나 또한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괜찮을 거야”라는 논쟁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러한 주장의 기초가 되는 “믿음만 으로의” 교리는 허점을 드러내고 만다. 예전의 시대이후 이 용은 일곱 개의 머리와 열 개의 뿔을 획득해왔다. 여기서 머리들이란 추론의 다양함을 그리고 뿔들이란 용이 가진 추론의 힘을 상징한다. 그의 머리들에 있는 왕관이란 자신의 논쟁에 대한 근거를 위해 말쑥을 비꼬아 만든 각종 서술들을 의미한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백히 제시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 곧 주님 안에

거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는 “하느님과 그분의 옥좌가 있는 곳으로 들려 올라갔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비록 새교회의 교리가 말씀의 내적인 면 혹은 외적인 면인 글자 상에서 가르쳐지더라도 천국에 새교회가 건립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은 이 용에 대항하여 싸워서 그를 땅에 떨어뜨렸다.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뒤의 참고문헌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용에 저항할 때 천사들이 우리를 돕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그 다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여자에게 주어져서 “삼 년 반 동안” 견딜 수 있는 자양분을 공급받는 광야에 그녀의 처소가 주어졌다. 독수리의 날개란 영적인 것에 관련된 생각과 지적인 시야에서 비롯된 보호와 힘을 상징한다. 우리 교회의 가르침은 세상적인 것 위로 우리의 사상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더 높은 이해를 주고 있어서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계획과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준다. 여인이 삼 년 반 동안 받는 자양분이란 새교회의 초기시대동안 그 교회가 작고 약해서 당장 파괴될 것처럼 위험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지상의 새교회를 돌보시며 보호하실 것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땅은 입을 벌려 용이 여자를 파괴하려고 입에서 토해낸 홍수를 삼켜버렸다. 여기서의 홍수란 먼 옛날 태고교회인들을 멸하게 한 때의 홍수와 같이 이기심과 세상욕으로 발달된 거짓의 큰 덩어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땅은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상징이다. 참 교회는 진정한 교리를 받아들이며, 그 교리를 사랑하는 각 개인의 삶 속에서 건설되어져 왔다. 용이 내놓는 각종 거짓논쟁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즉시 명백해지고, 그들의 이해성 속에 이미 알고 있는 진리만으로도 완전히 분쇄되고 말 것이다.

제 5반

본문에는 세계교회주의 운동에 대한 새교회의 태도가 포함되어 있다. 자연적 수준에서 타인과 협동하는 것과 교리적인 차원에서 협동하는 것이 서로 상반됨을 주지하도록 한다.

앞서 우리는 계시록이 초기 기독교회의 상태들에 관한 예언들임을 배웠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에는 초기 교회 사람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가졌던 첫 믿음과 그로부터 이탈되어 일곱 봉인의 때어짐으로 써 그 교회의 마지막 심판을 가져오게 될 때에 관한 예언적인 환상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우리는 스웨덴북의 저서로부터 이 심판이 1757년 영계에서 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심판 이후 항구적인 기독교인의 천국이 건립되어 선한 자는 그들의 천국에 그리고 악한 자는 그들의 지옥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스웨덴볼이 목격한 바대로 1770년 6월 19일에 열 두 명의 사도들이 영계의 전역에 두루 파견되어 진정한 기독교인의 교리를 선포하도록 하셔서 천국에서의 새교회가 시작되었고, 이로부터 지상에도 새교회가 내려오게 되었다(참된 기독교 791).

본문은 위의 새교회에 대한 준비와 지상의 새교회가 직면하게 될 반대 세력에 관한 예언적인 환상이다. 이 환상에 대한 스웨덴볼의 해석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선교의 필요성과 그 본성에 관한 것을 생각해보도록 하고 타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결심을 하도록 해준다. William Worcester 목사가 계시록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이 책을 “새교회의 헌장”이라고 주장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래 전 유대교의 한 랍비가 스웨덴볼의 저서를 읽고 새교회의 목사들에게 “스웨덴볼이 유대인에 관해 언급한 것을 읽고 불쾌하게 여겨 그 책을 치워버렸으나, 나중에 다시 그 책을 읽어보니 그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나 로마 카톨릭에 관한 나쁜 점도 언급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했고, 이후 그의 마음이 좀 더 편안해졌다. 새교회인은 스웨덴볼의 이러한 서술과 그 타당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스웨덴볼의 저서에 의하면, 태양을 입은 여자는 천국에 있는 주님의 새교회 곧 새 천국을 상징하고 그녀가 태양을 입은 까닭은 그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님을 사랑함이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다. 그녀의 발아래서 달이 보이는 것은 지상에 그 교회가 천국의 교회와 아직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달은 자연인 안에 있는 총명 또는 믿음을 의미한다. 그녀의 왕관에 있는 별들이란 새교회의 말씀으로부터의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에 관한 지식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을 의미한다. 말씀 전반에서 여자는 교회 곧 남편이 주님인 신부나 아내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졌다. 이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야 54장 5절과 요한복음 3장 29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2절과 9-10절을 참고하도록 하자.

여자가 낳게 될 아들은 새교회의 교리를 표현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용이 파괴하고자 원했던 대상이 여자가 아니라 그녀의 아들이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새교회의 힘은 그 교리 안에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아기는 하느님과 그분의 옥좌가 있는 곳으로 들려짐으로써 구원되었다. 이는 새교회의 교리가 주님에 의해 보호되고 천국의 천사에 의해 수호됨을 뜻한다.

스웨덴볼은 “큰 붉은 용이란 특별히 하느님을 셋으로 만드는 개혁교회의 사람들로서, 주님을 둘로 만들어 이타애를 믿음으로부터 분리시켜 믿음만으로 구원될 뿐만 아니라 이타애와 믿음이 공존해야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이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개혁교회란 후에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린 교회이다. 주님을 둘로 만든다는 것은 주님의 인성을 그분의 신성에서

분리시킨 것을 뜻한다. 용이 붉다고 기술된 이유는 여기서의 붉음이 탐욕의 악에서 비롯된 거짓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용이 가진 머리들이란 말씀의 진리를 거짓화하고 모독하여 비롯된 광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열 뿔이란 그 광기에 따른 더 많은 힘을, 일곱 왕관이란 거짓화되고 모독된 말씀속의 모든 진리들을 의미한다. 우리는 자신 혹은 타인의 세상욕과 이기심을 허용하며 그것을 변명하기 위한 각종 논쟁을 지지하기 위해 말씀을 인용하여 빚낼 때 이러한 거짓과 모독이 발생하게 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다는 것은 말씀속의 진리를 거짓화하여 그들이 교회로부터 비롯된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영적인 지식들을 제쳐두고 거짓을 응용시켜 교회속의 모든 영적인 것들을 파괴해버렸음을 의미한다.

스웨덴북은 「계시록풀이」 제 548항에서 “미카엘이란 한 개인으로서의 천사가 아닌 천국의 성직자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주님이 천상천하의 하느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와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이듯 한 분이심을 말씀에서 확증 받은 이들로 구성된다.”라고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이들의 신앙은 인간이 십계명의 명령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과 그로 인해 이타애와 믿음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고 믿는 것이라고 말한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은 이 용을 하늘로부터 내쫓았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천국적인 상태에 진실로 있는 한 프로테스탄트주의가 기초한 “믿음만”의 교리의 거짓들 곧 용의 입에서 토해내는 홍수가 우리를 넘나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땅 곧 진정한 교리로 이루어진 교회는 그것을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 여자의 처소는 광야에 있었는데, 이는 새교회가 먼저 주님의 신성한 섭리 속에서 극히 적은 무리들 중에 있을 것임과 그 무리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전 교회의 거짓들이 먼저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진리들은 거짓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으므로 미처 거짓이 제거되기 전에 받아들여 이식된 진리들은 진리로 남아 있지 못할 것이 자명하며 거짓과 섞인 진리는 결국 거짓(용)에 의해 분해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공부하는 사항들 중에서 현 시대상황과 가장 근접한 부분은 본문일 것이다. 게다가 본문은 정직한 사고력이 가장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간혹 우리는 “프로테스탄트교회는 더 이상 믿음만의 교리를 전파하거나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진실이 아님이 분명하다. 물론 우리는 개신교 내에서도 자신의 삶에서 믿음만의 교리를 확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들이 지적으로 그 교리를 붙들고 있으면서도 자신 혹은 친구나 사랑하는 이들 속의 악을 곰곰이 생각해 본 후 위로 받고자 그 교리에 의존하기도 함을 보게 된다.

본문은 믿음보다 이타애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의 교리를 더 이상 지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이타애의 의미가 선행의 의미와 혼동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모든 선행은 그 속에 이타애가 없어도 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 안에 이타애가 반드시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누군가가 행한 이타애가 사람들의 눈에 반드시 선행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믿음이란 단어 역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값을 치루기 위해 죽으셨음을 입술로만 인정하는 믿음만의 교리와는 전혀 다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새교회가 지상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은 그 교회의 교인들이 이타애와 외적인 선행을 구별하는데 따른 시험을 인식하고 싸우며 대중적인 생각에 합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자세를 수궁하려는 시험에 단호히 저항할 때만이 가능하다. 우리는 날마다 용을 대면하게 됨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선이 진리로부터 비롯된 모든 특질들을 받게 된다는 것과 진리는 결코 거짓과 공존할 수 없다는 명백한 두 가지 원리로 일상생활을 규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밝힘」 제 548항: “전쟁이란 영적인 전쟁 곧 거짓된 것과 진리와의 전쟁을 의미할 뿐 그 외의 다른 전쟁은 천국에 있지 않다. 미카엘이란 한 개인으로서의 대 천사를 의미하지 않으며, 가브리엘 또는 라파엘도 이와 같다. 이들은 천국에서의 성직임무를 의미한다. ‘미카엘’로 의미된 성직임무란 말씀으로부터 확증을 얻은 이들이다. 성직임무는 말씀으로부터 주님이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느님이시라는 것, 하느님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이심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인 것과 같다는 것, 인간이 십계명에 의해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이타애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등을 확증한 이들에 의해 수행된다.”

질문 정리

- 1) 요한은 누구인가?
- 2) 그는 고령이 되었을 때 어디로 유배되었는가?
- 3) 주님은 거기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 4) 그에게 주어진 첫 환상은 무엇인가?
- 5) 계시록 전체는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가?
- 6) 첫 기독교회에 자라난 악들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 7) 본문에서 요한은 먼저 무엇을 보았는가?
- 8) 이 환상의 일부를 설명해보자.
- 9) 여인과 그 아이를 위협하기 위해 무엇이 나타났는가?
- 10) 용의 모습은 어떠한가?
- 11) 그 아기는 어떻게 구해졌는가?
- 12) 누가 용에 대항하여 싸웠는가?
- 13) 여인은 어떻게 구해졌는가?
- 14) 여인과 그 아이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용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가장 사랑 받은 사도 2) 파트모스섬 3) 환상 4) 영화 되신 주님
- 5) 재림 6) 봉인이 떼어짐으로 7) 태양을 입은 여자
- 8) 달을 밟고, 열 두 개의 별이 달린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9) 용
- 10) 일곱 머리, 열 뿔, 일곱 왕관 11) 천국으로 들려올라 갔다 12) 미가엘과 천사들
- 13)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광야에 있는 처소로 날아갔다
- 14) 새교회와 그 교회속의 진리 15) “믿음만으로”의 교리

두 짐승이 정복되다

머리말

본문은 제 12장과 연관되어지며 우리 마음속의 악과 이해성 속의 거짓이 우리 안과 세상에서 발탈하려는 교회에 맞서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는가를 보여준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13장, 19장 11-21절

13장: 1. 또 나는 짐승 하나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이 열 개이고 머리는 일곱이었습니다. 그 뿔에는 각각 관이 하나씩 씌워져 있었으며 그 머리마다 하나님께 모독이 되는 이름이 씌여 있었습니다. 2.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았는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짐승은 그 용으로부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3. 그 짐승은 머리 하나에 치명상을 입어서 거의 죽게 되었었지만 그 상처가 나았습니다. 이것을 본 온 세상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며 그 짐승을 따라 갔습니다. 4. 그리고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짐승에게도 절을 하며 “이 짐승처럼 힘센 자가 어디 있는가? 누가 이 짐승을 당해 낼 수 있겠는가?” 하고 외쳤습니다. 5.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지껄일 입을 받았고 마흔 두 달 동안 세도를 부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6. 그래서 그 짐승은 하느님을 모독하기 시작했고 하느님의 이름과 하느님의 집을 모독했으며 하늘에서 사는 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7.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길 힘을 받았고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8. 그러므로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천지창조 때부터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자들은 모두 그에게 절을 할 것입니다. 9.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10. “잡혀 갈 사람은 잡혀 갈 것이며 칼을 맞아 죽을 사람은 칼을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11. 이번에는 또 다른

짐승 하나가 땅에서 올라 오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었으며 용처럼 말을 했습니다. 12.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과 땅 위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회복된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13. 또 그 짐승은 여러 가지 큰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땅에 불을 내리게도 하였습니다. 14.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기적을 가지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또 땅 위에 사는 사람들더러 칼을 맞고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15. 그리고 둘째 짐승이 권한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게도 하였습니다. 16. 또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낙인을 받게 하였습니다. 17. 그리고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표시하는 숫자의 낙인이 찍힌 사람 외에는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18. 바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리한 사람은 그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이해 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 수는 육백 육십육입니다.

19장: 11.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흰 말이 있었고 “신의”와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12.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썼으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분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13. 그분은 피에 젖은 옷을 입으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14.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회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15. 그분의 입에서는 모든 나라를 쳐부술 예리한 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친히 쇠지팡이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느님의 분노의 포도를 담은 술틀을 밟아서 진노의 포도주를 짜내실 것입니다. 16.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모든 왕의 왕, 모든 군주의 군주”라는 칭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17. 나는 또 태양 안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늘 높이 날고 있는 모든 새에게 큰 소리로, “자, 다 같이 하느님의 큰 잔치에 오너라. 18. 왕들과 장성들과 장사들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과 모든 자유인과 노예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살코기를 먹어라” 하고 외쳤습니다. 19. 또 나는 그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흰 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0. 그런데 그 짐승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잡이로서
 기적을 행하여 짐승의 낙인이 찍힌 자들과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 자들을 현혹시킨 그 거짓
 예언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산 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21.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흰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온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교리 요점

- * ‘용’과 ‘짐승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애쓴다.
- * 말씀이 열린 이유는 위와 같은 설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 * 우리 모두는 우리 앞에 펼쳐진 열려진 말씀이란 “잔치”에 초대되어져 있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한 마리는 바다에서 그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땅에서 올라오는 두 마리 짐승의 환상은 지상의
 사람들이 용이 외쳐대는 거짓 추론에 솔깃하게 될 때 있게 될 결과에 관한 묘사이다.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느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해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타고난 이기심이
 매우 강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부추기는 추론을 검증 없이 쉽게 받아들이 일쑤다. 이런
 것 중 어떤 것은 첫 짐승과 같이 자신의 깊은 속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우리의 총명은 그러한 것들을 거절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자극시켜준다. 이런 모습은 3절에서
 “머리 하나에 치명상을 입어서 거의 죽게 되었었다”라고 묘사되지만, 그 치명상은 다 나왔다.
 우리는 어떤 규칙을 위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위한 변명을 곧잘 찾아낸다. “모든 이가 그렇게
 하는데 난들 어때...”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하는 변명일 것이다.

우리의 또 다른 나쁜 경향성은 위선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부유해 보이는
 동네를 발견하고 자신의 사업장으로 적합하다고 여기는 도중에 건물이 웅장한 교회를 발견하여
 그곳에 참석하며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그가 자기 사업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교회 활동이라는 선한 행위를 했을 때 그의 심정상태는 과연 어땠을까?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성경구절을 열심히 외우고 공부하면서 성경의 어느 구절을 타인을 질책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선한 인격의 소유자임을 은근히 드러내기 위해 인용하려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11절의 “어린양처럼 두 뿔”이 있는 둘째 짐승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흰말을 타신 분 곧 주님만이 이 짐승들을 쳐부술 수 있으시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들을 올바로 파악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발견된 진리로 그분의 지도하에서 자신에게 오는 위와 같은 시험들에 당당히 맞서게 되면, 우리는 자신 속의 숨겨진 이기심을 진실로 인식하여 그것에 붙어 다니는 거짓 추론을 무찌를 수 있게 된다.

주님은 말씀의 속뜻을 우리에게 보여 주심으로써 천국을 열어 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그분의 “잔치”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삶을 거치되 허우적거릴 필요 없이 주님의 진리가 비춰주는 환한 빛 속에서 삶의 여정을 똑바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제 12장의 여인처럼 인간의 견해라는 짙은 안개 너머로 우리를 들어 올려 줄 날개를 받아 더 높고 더욱 순수한 영의 세계를 갖게 될 것이다.

제 1반

용과 짐승 그리고 주님과 천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공부하도록 한다.

앞서 우리는 계시록 12장을 통해 태양을 입은 여자와 그녀를 위협한 큰 붉은 용 그리고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용과 맞서 싸워 천국 밖으로 그것을 던져 버림으로써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구원되었음을 공부했다.

요한의 환상은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 속에서 진행되는 것들에 관한 묘사이다. 이러한 환상들이 주어진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천사들이 우리를 보듯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의 여자와 아들은 우리 속의 선한 느낌과 생각들을 상징하게 된다. “늙은 뱀”인 용이란 자신이 하려는 일이 잘못된 것인 줄 명백히 알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변명을 뜻한다.

본문의 환상은 해괴망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는 그 짐승이 여러 동물의 부분으로 조립된

형상을 지니며 용이 그것을 돕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이해성 속에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상응적인 묘사이다. 용은 세상 초에 사람을 유혹한 늑은 뱀과도 같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당화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속삭이는 소리가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 소리가 곧 용의 소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자신이 하려는 일을 생각해보지 않고 곧장 행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화를 미치게도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정 속에서 이 짐승이 저지르는 일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서,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 속에 든 이기적인 사랑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짐승의 속성인 것이다.

위와 같은 일을 행한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용이 짐승을 도와주는 소리에 해당된다. 만약 우리가 위의 사항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 노력한다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짐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본문에서 흰말을 타신 분이 바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이다. 흰말을 타신 분이란 주님이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모습을 그린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그분의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이라 하였다”라고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요한은 바다에서 무엇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는가?
- * 이 짐승이 용과 같은 점은 무엇인가?
- * 이 짐승의 부분은 다른 동물의 어떤 부분과 같았는가?
- * 누가 이 짐승과 맞서기 위해 천국에서 출현했는가?
- * 이 승마자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자.
- * 그분에게는 어떤 세 가지 다른 이름들이 주어져 있었는가?
- * 누가 그분과 함께 있었는가?
- * 어떤 일이 짐승에게 일어났는가?
- * 이 짐승이란 우리 심정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 * 흰말을 타신 분이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 * 우리는 어디서 주님의 도움을 발견할 수 있는가?

제 2반

각자의 경험에서 용과 짐승이 가진 영적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자.

본문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본과에서는 용과 두 짐승의 상호관계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우리는 여자란 새교회를, 그녀의 사내아이란 새교회의 진정한 가르침을 그리고 용이란 우리의 이해성 안에 있는 진리를 파괴하려드는 이기적인 추론임을 살펴보았다. 용으로 상징되는 이기적인 추론에 항상 뒤따르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다. 이것이 바로 짐승들로 상징된다. 첫 짐승은 큰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추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 성경에서 표범이란 남이 눈치 채기 전에 파괴해버리는 모습을 의미하고, 곰이란 바깥 행동 면에서 거칠게 나타나는 모습을 의미한다. 따라서 첫 짐승이란 자신 혹은 타인이 쉽게 알아챌 수 있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 각자의 속에도 내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짐승이 가진 머리들 중 하나가 생사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부상을 입었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기적인 욕심들이 나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둘째 짐승은 어린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있었다. 양이란 순진을 의미한다. 그래서 둘째 짐승의 모습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들 중 겉으로 순진하게 나타나 그 욕심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주님이 18절에서 “영리한 사람은 그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이해보라”라고 말씀해두셨던 것이다. 만약 우리가 진실로 현명하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에 몰입하도록 하는 자기변명들을 스스로 관조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우리는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변명을 늘어놓을 때조차도 스스로를 철저히 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세상적인 추론의 세력이 현 세상에서 막강하다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옳다고 동의함을 인식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짐승의 숫자를 알아야 할 것이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말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세상과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오신 바로 그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신 의와 진실”이신 분이다. 또한 그분은 진리를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이시며, “모든 왕의 왕, 모든 군주의 군주”로서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는 모두 이기적인 상태로 태어난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짐승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고 우리의 이해성은 용의 논쟁에 쉽게 솔깃해진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진리를 배우며 그에 따라 삶을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시게 되어 실패 없는 승리만을 얻게 될 것이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제 12장에서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 무엇이 여자와 아들을 위협했는가?
- * 그 아들은 어떻게 구원되었는가?
- * 누가 용에 맞서 싸웠는가?
- * 용은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 * 여인은 어떻게 구원되었는가?
- * 용이 토해낸 홍수는 어떻게 되었는가?
- * 우리 속의 용이란 무엇인가?
- *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무엇을 보았는가?
- * 짐승은 용과 어떻게 모습이 같았는가?
- * 짐승은 어떤 동물들의 부분으로 되어 있었는가?
- * 용은 짐승을 어떻게 도왔는가?
- * 첫 짐승과 둘째 짐승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 * 이 짐승의 추종자들은 어떻게 표시되었는가?
- * 제 19장에서 하늘이 열릴 때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 처음에 승마자는 무엇이라고 불렸는가?
- * 둘째로 어떤 이름이 그에게 주어졌는가?
- * 셋째 이름은 무엇인가?
- * 승마자는 누구인가?

제 3반

스스로의 삶에 본문의 의미를 응용해 보도록 한다.

동물은 우리의 애정과 상응된다. 제 13장에서의 환상에 있는 두 짐승은 용의 말에 솔깃해질 때 지상의 사람들에게 발달되는 일련의 애정(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누군가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을 인도해 줄 진리를 찾는 것을 중단하게 되면, 그 사람 속에는 해보려고 하는 이기적인 것들을 부추기는 사상들이 발달하게 된다. 그런 다음 이 사상들은 그의 마음과 이해성 속의 모든 것들이 정작 존재해야 할 것들과 완전히 반대될 때까지 그의 마음속의 악을 증가시킨다. 그 예로 타인이 소유한 것들을 자신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이유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있는 이기심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탐내지 말라” 혹은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자신을 매여 놓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속의 이기심이 나쁘며 그것과 싸워야 함을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누군가는 “우리는 이기적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굳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듣게 되면, 그 주장의 논리에 슬그머니 자신을 내버려둔다. 게다가 우리는 그러한 주장에 솔깃해서 그에 따른 행동을 삶에서 전개하며, 점점 더 부정직해지고 관대해지지 못하게 된다. 결국 우리는 부와 권력 그 자체를 자신의 인생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지경에 이른다. 이러한 것은 교인이더라도 예외일 수가 없다.

첫 기독교회는 이기적인 권세에 대한 바람으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전의 교회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 타락의 원인은 주님을 예배하겠노라고 고백하며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내 안에 거하라”라는 그분의 분부 대신 이기적인 인간의 논쟁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이기적인 욕심을 탐닉하려는 마음을 변명하기 위해 발달된 교리가 바로 “믿음만의 교리”라고 불린다. 이 교리의 가르침은 천국을 받을 만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본시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 값을 지불하여 아버지의 분노를 가라 앉히셨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물임을 인정하며 이로 인한 그분의 용서를 진실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믿음만의 교리”의 핵심이다.

스웨덴불은 용이 표현하는 것이 곧 이 교리라고 말한다. 두 짐승이란 그 교리를 믿으며 계명에 불순종하는 핑계로 “믿음만으로”라는 교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스웨덴불은 첫 짐승은 그 교리 속에 거하는 평신도며, 둘째 짐승은 성직자들이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둘째 짐승이 “어린양처럼 두 뿔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말은 그 교리에 속한 이들이 자신들의 교리가 진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말씀을 인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 말씀에는 선함이 결코 우리에게서 비롯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구절들이 많다. 만약 우리가 용이 가르치려 하는 바를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구절들의 일부를 통해 그 용의 논쟁이 타당하다고 여기게 된다. 이러한 경우의 예는 마태복음 19장 25-26절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보시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에서 엿볼 수 있다. 우리는 이 구절과 이 구절이 속한 전 장을 연관 지어 두루 살펴보면 우리에게 해야 할 뭔가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힘주어 외침으로써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 돌아서서 그분의 안내와 도움 그리고 힘을 구하면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며 우리의 임무를 다할 때 그분이 우리를 도울 준비를 완료하고 계신 분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짐승의 모양은 믿음만의 교리에 기대고 살 때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다. 우선 차후에 기본이 되는 상응공부를 읽고 세 동물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기 바란다. 숫자 666은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이며,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말해진다. 따라서 이 숫자란 인간이 주님의 것 대신 누군가가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것에 자기 사상의 근거를 두면 결국에는 그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지지하는 쪽으로 말씀의 모든 것을 왜곡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이들이 이 13장의 마지막 절을 읽고 혼란스러워 하는데, 그들 역시 이 구절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들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당황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숫자를 그 자체로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동기와 방법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나는 그의 수를 다 읽고 있지...” 또는 “나는 그의 의중을 간파하고 있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숫자들에 담긴 의미 또는 의도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제 19장은 결국 주님께서 세상에서 더욱 강해져 사람을 사람답게 하지 못하고 짐승으로 만드는 거짓 추론들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실 것임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서두에서 읽게 되는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이다. 주님은 하늘을 여셨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말씀 속의 내적 의미 또는 천국적인 의미를 여셨다는 것이다. 즉, 주님께서 성경이 진정으로 무엇인지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를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시기 위해 말씀을

여시는 방법으로 두 번째 오셨다는 것이다. 흰 말이란 성경을 진정으로 이해함을 뜻하며, 그 위에 타신 분이란 모든 왕의 왕이며 모든 군주의 군주이신 주님인 것이다. “피에 젖은 옷”이란 서로 이용하기 위해 찢어지고 남용된 말씀의 글자를 의미한다. 주님은 17절과 18절에서 성경의 열람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것, 즉 경이로운 잔치에 참석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초대장을 주고 계신다. 우리가 이 초대장을 받아 주님의 잔치에 참석한다면 짐승들은 모두 던져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탐닉을 변명하고자 거짓으로 해석한 성경을 명백히 보게 되어 ‘내가 어떻게 한순간이라도 그런 교리에 빠졌을까?’라고 의아해 하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 표범 - 말씀 속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사랑함
- 곰 -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 사자 = 나쁜 측면에서 말씀을 왜곡시키는 악의 세력
- 666 - 말씀 속의 모든 진리가 왜곡됨

제 4반

원리를 판단하는 것과 어떤 개인을 판단하려는 것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특별히 “군중을 따라야 한다”는 시험을 경계해야 함을 언급한다. 이런 시험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흔히 이타애라는 명분을 뒤집어쓰고 우리의 의지의 약함을 발판 삼아 다가온다.

제 12장에서 기술된 환상은 새교회가 기독교 세계에서 발견하게 될 지적인 반발을 묘사해 준다. 본문은 12장의 환상에 뒤따르는 것인데, 이는 옛 교회의 “믿음만의 교리”가 뒷받침해줄 때 마음속에 든 이기심으로부터 있게 되는 더 깊은 반발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개혁신 또는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스스로 분리되어 나왔으며 그 교리의 기본적인 근거는 로마 가톨릭에서 연유된다는 점이다. 사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위의 믿음만의 교리를 추종하지는 않았지만, 그들 역시 또 다른 방향인 사제직을 지상의 영적인 권위자로 삼는 방식으로써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 악이 파괴하는 것은 계시록 17과 18장에서 기록된 환상에서 묘사된다. 스웨덴북은 ‘제 13장의 두 짐승이란 개혁신교회의 성직자와 평신도들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모든 프로테스탄트교회의 성직자들을 일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주된 교리인 “믿음만의 교리”를 자신들의 삶에서 확증한 사람들만을 의미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한 개인이 지상의 어떤 교회 조직의 일원이 됨으로써 구원받게 된다 혹은 저주받게 된다는 등의 주장을 해서는 안 됨을 명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얼마나 발달시켰는지 그리고 그렇게 발달시킨 사랑을 자신의 삶에 얼마나 적용했는가에 따라 인간이 구원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교회 조직이든지 간에 그 속에는 거듭 나아가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관련된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교회도 좋고 저 교회도 좋다”라고 하는 대중적인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을 인도할 진정한 진리를 갈망하며 진리를 획득한 만큼 더 나은 행복을 찾게 될 것이다. 새교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느님으로 인정하며 말씀의 내적 의미에 든 순수한 진리 위에 기초를 둔다. 우리는 주님을 최대의 권위자로 인정하며 그분의 진리들을 공부하여 삶에 놓는 정도만큼 새교회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선 참고문헌을 주의 깊게 읽어보자. 이 문헌을 보면 믿음만의 교리를 받아 삶에 응용하는 사람은 본문에서 그려진 짐승같이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표범이란 말씀 속의 진리를 왜곡시키려는 탐욕 또는 애정을 의미한다. 곰이란 말슴의 글자를 읽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해 나타나는 오류의 범람을 의미한다. 사자란 좋은 측면에서 신성한 진리의 권능을 의미하지만, 본문에서는 추론으로 인해 진리와 같은 겉모습을 한 거짓의 권능을 의미한다.

그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받은 치명상은 성경에서 이타애와 선한 일이 끊임없이 명령되고 있는 사실과 관련된다. 그리고 이 치명상이 치료되었다고 함은 교리의 머리가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율법을 성취할 수도 없어서 또 다른 구원의 수단이 설비되었다. 그 수단이란 인간이 그리스도의 자비와 의를 믿는 것이며,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해 고통 받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를 거두셨다는 것 등을 믿으면 된다.’라는 추론들에 의해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성직자들을 표현하는 둘째 짐승이 어린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말슴을 말하고 가르치고 쓰는 것 등을 마치 주님의 신성한 진리인 듯 여겨 진리가 왜곡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위의 인용문을 토대로 환상이 표현하는 것과 그 환상의 세부사항 속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보편적인 이해를 갖게 될 것이다. 그 세부사항을 모두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특별히

18절만 살펴보도록 한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생각 속에 감춰진 어떤 행동의 동기나 방법을 빨리 읽고 있을 때 “나는 그 자의 수를 깨고 있어...”라고 말한다. 우리가 정말 슬기롭다면, 우리는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교의 근원이 되는 거짓을 뒷받침하는 것들과 그 교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여전히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기간을 염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숫자 666이란 말씀 속의 모든 진리가 위의 것들로 인해 거짓으로 뒀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은 천국 밖으로 용을 내던졌으나 그 용은 여전히 지상에 살아남아 있었다. 두 짐승은 이 용이 적극성을 띤 결과인 것이다. 우리는 제 19장에서 천사들의 사회가 돕는다할지라도 이 짐승을 쳐부숴 주실 분은 오로지 주님뿐이심을 발견하게 된다. 스웨덴북은 “거짓 예언자”를 둘째 짐승과 동일시한다. 제 11절에서 ‘천국이 열렸다’는 말은 주님의 재림으로 말씀의 내적 의미가 열려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흰 말을 타신 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될 주님에 관한 것이다. 주님이 잔치에 초대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뜻이다.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응하면,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의 홍수로부터 들이닥치는 시험들을 똑바로 보도록 하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된다.

제 5반

새교회의 기초와 책임을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제 12장의 환상에서는 지상에 관한 것보다 천국에 관한 사항을 보여준다. 반면에 본문의 환상은 용의 출현과 그 교묘함으로 지상에 있게 된 결과를 보여준다. 제 13장에서의 두 짐승이란 믿음만의 교리를 자기들 삶에서 확증한 프로테스탄트교회 내의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을 묘사한다.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그리고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는 평신도가 교회 속의 교리 중 외부적인 사항에 해당되고 성직자는 그것의 내부적인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첫째 짐승을 형성한 여러 가지 동물들은 거짓을 사모하는 각기 다른 마음의 형태이다. 그들 중 표범이란 교회를 파괴시키는 전혀 다른 이론을, 곰이란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오류들을 그리고 사자란 거짓에다 추론을 더해 진리처럼 보이게 하는 거짓의 힘을 의미한다. 둘째 짐승이 가진

것은 어린 양과 같은 두 뿔이었다는 것은 성직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읽고 쓰지만 그것이 모두 왜곡된 진리일 뿐임을 의미한다. 즉, 첫째 짐승에게 권세를 준 것이 용이어서 둘째 짐승이 용처럼 말했다고 하는 것이다.

「계시록 풀이」 576-577항에서는 그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 거의 죽게 되었었지만 그 상처가 나았다는 것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나머지 머리는 교리의 요점을 뜻하는 것으로, 인간이 율법을 수행하지 않고도 믿음만으로 구원되며 의로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의 여러 부분에서 율법을 수행하도록 명령되고 있으므로, 위의 교리는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거의 죽게 되었었지만 그 상처가 나았다는 것은 교리라는 머리를 다음과 같은 추론으로 낮게 했음을 뜻한다. 즉, 자신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과 선을 행하는 대신에 다른 수단이 설비되었다는 것 곧 인간을 위해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율법이 줄 단죄를 거두신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믿으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특별히 제 13장의 마지막 절을 명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새교회인이라면 말씀의 내적 의미의 열람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과 그 재림에서 스웨덴불이 단순한 도구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이었음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스웨덴불의 계시록의 환상들에 대한 해석은 그의 머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영감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 해석에서 거론되는 로마 가톨릭이나 개혁신교들의 상태나 조건들은 스웨덴불이 직접 목격한 것들이 아닌 것이다. 그것들은 주님께서 보신 것들로서, 오늘날까지 지속되면서 더욱 명백해진다. 우리가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 눈을 감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그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로마 가톨릭의 악들이 노출되어 심판되는 것은 제 17장과 18장에 기록된 환상의 해석에도 적용된다. 만약 새교회가 지상위로 자라고자 한다면, 그 교인들은 환상 속의 사실들에 직면하게 되며 용과 짐승같이 불쾌하고 위협적인 사실이 부각되기도 할 것이다. 스웨덴불은 진리가 일반적으로 수용되기 전에 먼저 거짓이 노출되어 거절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계시록 풀이」 제 547항을 읽어보도록 하자.

만약 우리가 슬기롭다면, 우리는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이해보라.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수는 육백 육십 육이다”라는 구절에 담긴 뜻을 납득하게 될 것이다. 숫자란 질(quality)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666이란 말씀 속의 모든 진리가 그들로 인해 왜곡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말씀이 왜곡된 모습을 근대 학자들의 논문, 많은 설교집, 잡지 혹은 광신자들의 논쟁 등에서 엿볼 수 있다. 우리가 슬기롭다면 진리들이 이타에라는 탈을 쓰고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낼 때 우리의 눈을 슬그머니 감고 못 본척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그것들과 대면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주님이나 우리의 이웃 혹은 새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거짓과 타협하지 않기 위함이다.

짐승의 정복은 주님의 일이다. 천국의 열림이란(19:11) 말씀의 내적 의미가 열림을 뜻하며, 흰 말이란 말씀의 내면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승마자의 세세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친숙할 것이라고 본다. 불꽃같은 그분의 눈은 “주님의 신성한 지혜”를 의미한다. 머리에 있는 많은 왕관이란 “말씀의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이름이란 내면에 있는 말씀의 특질인데, 이 특질은 주님만이 알고 계시고 밝혀주신다. 피에 젖은 옷이란 “말씀의 말단 의미에 있는 신성한 진리 또는 인간이 난폭하게 다루는 것이 허용된 말씀의 글자”를 의미한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칼이란 “주님으로부터 온 교리가 거짓을 산산조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묘사들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새교회가 세워질 반석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느님이시라는 것과 말씀의 열림은 그분이 하시는 일로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지상의 교회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찾을 때만이 모든 것을 위한 힘을 가진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를 앞에 잔칫상을 마련해 놓고 계신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혜와 힘이 필요함으로 주님의 잔치 초대에 기쁘기 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 잔치에 핑계를 대며 응하지 않는 자들 사이에 속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누가복음 14:12-24).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밝힘」 제 571항: “ ‘그 머리마다 하느님께 모독이 되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는 것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부정하고 교회의 교리가 말씀으로부터가 아닌 인간의 총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함을 의미한다. 일곱 머리들이란 거짓에서 오는 정신착란을 뜻한다. 이러한 정신 착란자가 모독하며 그렇게 말하는 때란 교회의 교리를 말씀에 근원하지 않고 인간의 총명에서 끌어낼 때 그리고 주님의 인성 안에 그분의 신성이 있음을 부정할 때이다. 먼저 주님의 인성 안에 계신 신성을 부정하는 모독을 살펴보자. 이렇게 부정하는 까닭은 위의 사항이 전 기독교에서 받은 믿음, 즉 아타나시우스 회의에서 발표한 조항과 반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의 교리를 말씀에서 끌어내지 않고 인간 총명이 모독한다고 한 까닭은 교회가 말씀으로부터 있고 교회의 내적상태 역시 말씀을 이해함에 따라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만의 교리 곧 율법을 실천하지

않고서도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된다는 교리는 말씀으로부터가 아닌 바울이 표현한 구절이 잘못 이해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로마서 3:28). 교리의 모든 거짓은 인간 총명 외의 다른 곳에 근원되어 있지 않다. 말씀이 넓게 가르치고 있는 사함은 악을 금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 아닐까? 하느님과 이웃 외에 사랑해야 할 명확한 대상이 있을까? 어느 누가 주님의 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모를 수 있을까? 어느 누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모를 수 있을까? 이웃을 사랑함 속에서 주님 스스로 인간과 결합하고, 인간 스스로 주님과 결합된다. 즉, 이 사랑 속에서 주님과 인간은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제 12장에서 요한은 먼저 무엇을 보았는가?
- 2) 무엇이 여자를 위협했는가?
- 3) 용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 4) 여자의 아기는 어떻게 구원되었는가?
- 5) 여자는 어디로 갔는가?
- 6) 누가 용과 싸웠는가?
- 7) 누가 승리했는가?
- 8) 여자는 어떻게 구해졌는가?
- 9) 본문에서 무엇이 먼저 등장되는가?
- 10) 짐승의 모습은 어떠한가?
- 11) 그의 머리에 무엇이 발생했는가?
- 12) 둘째 짐승은 무엇과 같았는가?
- 13) 이 환상에서 용은 어떤 부분을 담당했는가?
- 14) 짐승의 수는 무엇인가?
- 15) 둘째 본문에서 천국이 열리자 무엇이 나타났는가?
- 16) 승마자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 17) 승마자는 어떤 세 가지로 불리는가?
- 18) 누가 흰말을 타신 분을 뒤따르고 있는가?

- 19) 어떤 잔치가 주어졌는가?
- 20) 짐승은 어떻게 되었는가?
- 21) 두 짐승은 각기 무엇을 그리는가?
- 22) 숫자 666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23) 하늘이 열림은 무엇을 뜻하는가?

질문의 답

- 1) 태양을 입은 여자 2) 용 3) 일곱 머리, 열 뿔
- 4) 하느님에게 들려 올라갔다 5) 광야 6) 미가엘 7) 미가엘
- 8) 독수리 날개 9) 모든 세에게 하느님의 큰 잔치에 오너라
- 10) 짐승 11) 일곱 머리, 열 뿔, 열 왕관 12) 상처받았다
- 13) 어린양처럼 두 뿔이 있다 14)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 15) 666 16) 흰말 17) 불꽃같은 눈, 많은 왕관, 피에 젖은 옷
- 18) 신의와 진실, 하느님의 말씀, 왕의 왕 19) 군대들
- 20) 불못에 던져졌다
- 21) 첫 짐승 -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기적인 바램
둘째 짐승 - 겉으로 순진한 듯 나타나는 이기적인 바램
- 22) 말씀 속의 모든 진리가 왜곡됨 23) 말씀의 내적 의미가 밝혀짐

요한 환상의 끝

머리말

성경을 마감하는 구절에 다음의 간단명료한 몇 가지 교훈들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우리 모두가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주님의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 여부가 자유로운채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신의 총명이나 의지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천국적인 행복에의 길이다. 다섯째, 선택은 우리의 것이지만 그 선택은 이 세상에서 행해져야만 하며 사후에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섯째, 죽음에서 일어나서 영화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하느님으로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느님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혹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2장 8-21절

22장: 8.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나서 나에게 이것들을 보여 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9. 그러자 그는 “이러지 말아라. 나도 너나 네 형제인 예언자들이나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중에 지나지 않는다. 경배는 하느님께 돌려라”하고 말했습니다. 10. 그는 이어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때가 가까왔으니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아라. 11.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어라. 올바른 사람은 그대로 올바른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라.” 12.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자기 행적대로 갚아 주기 위해서 상을 가지고 가겠다.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얻고 성문으로 그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이 빠는 사람은 행복하다. 15. 개들과 마술장이들과 음란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일삼는 자들은 다 문 밖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16.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모든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에서 돋은 그의 자손이며 빛나는 샅별이다.” 17.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도 “오소서!”하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시십시오. 18.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말해 둡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실 때에 이 책에 기록된 재난도 덧붙여서 주실 것입니다. 19. 또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떼어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 대한 그의 몫을 하느님께서 떼어 버리실 것입니다. 20. 이 모든 계시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21. 주 예수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말씀의 속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봉인을 떼심으로써 말씀의 내적 의미를 밝혀 두셨다.
- * 우리의 육체가 영혼의 성장과 거듭남을 위해 필수적이듯이, 세상에 조직된 새교회는 내적 교회의 존재와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성경을 마감 짓는 본문에는 말씀속의 모든 가르침이 함축되어 있다. 우리는 성경의 첫 장 첫 구절인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동일한 하느님께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규명하시고,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시다’라고 하신다.

그분이 한 처음에 창조하신 하늘과 땅에는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혼속의 하늘과 땅, 즉 우리의 천국적인 부분과 지상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지상적인

부분은 발달시키려고 하면서도 천국적인 부분의 발달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때가 허다하다. 주님은 본문 11절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천국적인 부분을 발달시키지 않으면 사후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는 성서의 앞부분에서 에덴의 동산과 그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와 큰 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동산은 뱀이라는 감각적 욕구에 귀를 기울여 주님께에서 자아로 관심을 돌리기 이전의 지상에 존재했던 태고 교회 사람들의 아름다운 상태에 대한 상징적 묘사이다. 우리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공부하면서 그들이 주님께에서 멀어져가는 과정과 주님이 자비로서 그들을 따라 내려오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며 타락한 그들의 자아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신 과정을 살펴보았다. 결국 주님은 말씀이 육을 입고 세상으로 오셔서 인간의 눈앞에서 신성한 진리를 살아 내심으로써 그들에게 자신들 속에 있는 악을 인식하여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셨다. 그분의 오심은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바뀌게 할 만큼 큰 사건이었다.

우리는 성경을 마감 짓는 장의 첫 구절에서 또 다시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의 강과 나무는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 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있게 된다. 이 예언은 성취되었는데, 이는 주님께서 봉인을 떼셔서 말씀의 내적 의미를 밝혀 주셨기 때문이다. 거룩한 성이란 “태양을 입고 있는 여자”가 발달되어 이뤄지는 새교회를 의미한다. 스웨덴북은 본문에서 약속된 주님의 재림은 1757년경에 거행되었다고 간증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은 거룩한 성 새예루살렘에서 취해진 새교회 또는 새 예루살렘교회인 것이다.

우리는 생명의 물을 마시기를 거절하는 이들에 속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기적인 자들의 추론을 신성한 진리에 더하거나 그 진리를 제거하려는 자들에 속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얻고 성문을 통해서 그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두루마기(계명)를 빼는(행하는) 복 받은 사람에 속해야 할 것이다.

제 1반

머리말의 여섯 가지 항목을 주로 살펴본다.

요한에게 주어진 마지막 환상은 아름다운 성에 관한 것이었다. 그 성은 거룩한 성 새예루살렘으로

불리며, 하느님께로부터 천국을 통해 내려오는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이름인 새예루살렘의 근원이 바로 이 구절임을 기억해야 한다.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될 천국적 삶에 대한 상징적 묘사이다.

본문은 성경의 마지막 장이다. 계시록 22장은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의 묘사로 시작된다. 이 강의 양쪽에는 달마다 열두 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다. 천사는 이 모든 것들을 요한에게 보여 주었고, 요한은 이 환상이 어떻게 끝나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요한을 인도한 천사 역시 자신이 지상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상은 우리 역시 올바른 것을 행하며 바르게 산다면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배우면서 준수하여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얻고 성문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 도성의 문이 항상 열려져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성에서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즐기기도 한다. 우리 역시 때로 그런 사람들에 속할 수 있는데, 이는 아름답고 선한 것들보다 찌그러지고 나쁜 것을 좋아함을 의미한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자유 의지에 달려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항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사후에 우리가 천사가 될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주님의 계명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만 한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생명수의 강과 나무는 성경의 어느 또 다른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는가?
- * 사마리아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주님께 요청했다면 그분께서 주실 생명수를 기억하는가?
- * 생명 있는 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요한복음에서 열매 맺는 나무에 관하여 공부한 사항은 무엇인가?
- * 누가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가?
- * 주님은 누구에게 초대장을 보내시는가?
- * 성에 들어가기로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인가?
- * 요한의 천사는 자신에 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제 2반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을 살펴본다. 특별히 하느님이“주 예수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것을 요지로 삼는다.

본문은 성경의 끝인 요한의 환상 끝부분에 이르고 있다. 앞서 우리는 계시록의 21장과 22장을 공부했다. 만약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 번 읽어보기 바란다. 그 이유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아름다운 환상이 거기에 언급되어 있고, 그곳은 새교회 이름의 근원이 되며 하느님께로부터 천국을 통해 내려오고 있는 성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성은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의 강이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좌로부터 나왔고, 강 양쪽에는 열두 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의 시작부분에 있는 에덴의 동산에서도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었음을 기억한다. 우리는 이러한 새예루살렘의 모습과 에덴의 동산의 모습을 우리의 기억 속에 소중히 간직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거룩한 성은 천국에 있는 그대로의 새교회에 대한 묘사이다. 그 성내의 강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진리를 뜻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란 갖가지 종류의 순수한 선함을 의미한다. 지상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받아 기꺼이 그 진리대로 산다면, 이 성은 이내 우리에게로 내려와 진다. 그래서 이 성은 지상의 진정한 새교회에 대한 상징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새교회에 속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천사는 이 모든 것들을 요한에게 보여 주었다. 제 8절은 천사들이 한 때 지상의 사람들이었음을 명백히 알려주는 말씀의 구절들 중 하나이다. 따라서 그 구절은 우리가 그들처럼 산다면 천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님은 봉인되어 온 말씀의 책을 이제는 봉인하지 말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신다. 이는 누구든지 진실로 진리를 원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심에 대한 환상이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곧 천국에서 사는 아름다운 삶을 선택하는 여부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 선택을 반드시 이 지상에서 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사후에 우리의 근본적인 인격이 바뀔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은 당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수차례 일컬으셨다. 알파와 오메가란 그리스 알파벳의 처음과 나중 철자로서, “시작과 끝 또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의미이다. 창세기의 첫 구절의 네 단어를 살펴본 후 성경의 마지막 두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예수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요, 처음과 마지막

이신 것이다.

주님이 야곱의 우물가에 계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분께 요구했다라면 생명의 물을 어떻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를 상기해보자. 신성한 진리는 말씀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제공되며, 누구든지 그것을 찾아서 얻으면 천국적인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 그분의 계명을 배우려 하지 않는 것 혹은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단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씀에 무엇을 보태거나 말씀에서 무엇을 떼어내는 것은 옳고 그름에 관한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에 관하여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우월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들은 모두 불행한 결과 곧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이유는 오직 주님만이 모든 사랑과 지혜로서, 그분의 방법만이 언제나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앞서 성경의 첫 절을 공부했으므로, 성경의 마지막 절도 쉽게 이해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은총이란 “받아들임”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시작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바대로의 삶을 만들어 가겠다는 기도로 마무리 지음으로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삶의 진정한 목적인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제 8절에서 요한은 무엇을 했는가?
- * 천사는 요한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 * 누가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수 있는가?
- * 누가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는가?
- * 제 18-19절에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언급 된 두 가지 사항은 무엇인가?

제 3반

자신의 영적 발전과 더불어 지상에서 새교회의 발달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한다.

우리의 공부는 요한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는 성경의 마지막 두 장, 즉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는 21장과 22장을 마지막 단원으로 끝맺고 있다. 거룩한 성은 천국에 있는 새교회

이고, 이 교회를 수단으로 하여 지상의 새교회도 건설된다. 우리는 성경의 첫 장의 첫 구절인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는 구절을 기억한다. 이는 우리 속에 하늘과 땅이 있다는 것 또는 우리 안에 천국적인 부분과 지상적인 부분이 있음을 의미한다. 주님의 기도에는 “당신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리이다.”라는 부분이 있다. 이는 우리가 지상에서 순수한 선을 행하고자 하면 선함과 진리를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에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주님의 “신부” 또는 “태양을 입고 있는 여자”인 거룩한 성은 지상의 사람들이 열려진 말씀속의 진리를 배우고 그에 따라 살면서 그것을 얼마나 빨리 사랑하느냐에 따라 하늘로부터 내려와지는 시기가 결정된다. 이것은 새교회인으로서의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따라서 교회 조직으로서의 새교회는 진정한 새교회를 이루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체가 영혼에 필수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항은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진리에 순종할 때만이 진정한 새교회가 된다는 것이다.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제 22장의 첫 구절에서 요한이 본 생명수의 순수한 강과 그 강 양쪽에 생명나무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 이 생명나무들은 에덴의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와 같은 나무이다. 이는 생명나무가 신성한 사랑의 측면에서의 주님이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순수한 선한 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명수의 강이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되는 그분의 진리를 의미한다. 생명수의 물은 과거 주님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여인에게 언급하신 생명수이기도 하다.

이제 본문 14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만약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배워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성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지상에서 순수한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사후에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며, 그 성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요한이 거룩한 성과 그 성의 경이로움을 보여준 천사에게 절하러 하자 천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자기 역시 요한처럼 지상에 있었던 한 사람에 불과하며 단지 말씀의 계명을 지켜온 것뿐이라고 말한 것이다. 간혹 어떤 교회에서는 천사들이 지상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보다 높은 창조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들은 시편 8편 5절의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Thou hast made him a little lower than the angels(King James version)”를 그들의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천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Elohim”은 사실은 “하느님”이란 뜻이다. 우리 모두는 천사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제 10절의 “때가 가까 왔다”와 12절의 “내가 곧 가겠다”라는 구절을 접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의미함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 책을 봉하지 말라고도 말해진 것이다. 재림이란 주님이 말씀을 여심으로써 내적 의미를 밝혀 주심을 뜻한다. 어떤 이들은 “그렇다면 지상의 새교회가 이다지 규모가 작은 까닭은 무엇인가?” 또는 “왜 사람들이 주님이 밝혀주신 경이로운 말씀의 내용들을 보지 못할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답은 본문의 후반부에서 열거되고 있다.

“이것이 진실 된 것이야.”라고 확신하며 진리를 명백하게 인정할 때마다 그 진리에 따라 살아야 할 책임이 부가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눈먼 소경 쪽으로 붙으려고 한다. 앞서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공부했다. 우리는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후 바리사이파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주님은 당신이 말씀을 열어 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즉시 변화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은 본문 11절에서 이 내용을 또 다시 언급하고 계신다. 우리는 자기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제 17절에서 주어진 초대장은 만민에게 보내지고 있다. 이는 말씀의 진리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도달 가능하도록 장치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8절과 19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계신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말씀에 덧붙이거나 또는 어느 부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것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아닌바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없으실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주시지도 못하게 된다. 즉,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 주님의 소홀함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다.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47-48절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단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을 단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단죄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에 그를 단죄할 것이다.”라고 당부해 두셨다.

기본 상응 공부

생명나무 = 신성한 선으로서의 주님

생명나무의 열매 = 순수하게 선한 일

강 = 말씀으로부터의 진리

천사 = 주님의 특사

제 4반

새교회의 근본이 되는 세 가지 요건은 유일하신 하느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말씀의 영감을 믿는 것 그리고 천국적인 삶의 필수 요건으로 계명에 순종해야 함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본문의 구절들을 인류에 대한 주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여기기도 한다. 비록 주님의 재림은 계시록이 쓰인 후 1700년이 지나서까지도 거행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본문을 통해 그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는 것과 그 예언을 받는 길도 미리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님은 본문에서 우리를 격려해주실 뿐만 아니라 깊이 새겨야 할 엄숙한 경고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새교회 안에서 양육되거나 이 교회로 인도되는 사람이 주님에 의해 택해졌음을 의미하는데, 새교회인이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그들에게 부여된 특별한 능력이 주님의 새교회가 발달되는데 유용하게 쓰이도록 만들어졌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 해야 할 고유의 일을 각자 찾으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교회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심을 모색해 간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에 대한 지혜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책임을 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선택은 제 11절에 표현되어 있다. 주님은 많은 이들이 그분의 재림에서 그분을 영접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계셨다. 주님은 그분의 진리를 원치 않은 이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데,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스웨덴북은 ‘새교회는 매우 천천히 성장할 것이며, 그 교회의 진리는 아주 오랫동안 소수에 의해 존속될 것이다’라고 명백히 말한다. 이 말은 새교회인이 겪게 되는 시험들 중의 하나가 그 안에 있음을 암시해 주기도 한다. 즉,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서 실망하는 시험일 것이다. 게다가 이 실망은 또 다른 시험을 야기한다. 이에 대한 경고가 제 18절과 19절에서 언급된다. 주님이 발달시키 시려는 영적 교회와는 별개인 인간에 대한 찬양, 실적을 위한 출판, 외부적 활동 혹은 교인 수 등의 것에 자신이 매이도록 유혹되는 것 역시 새교회인에 대한 시험인 것이다. 이는 그러한 것들이 우상숭배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으로 위와 같은

우상들에게 스스로를 굴복시키는 것에 대한 근거로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에 알맞게 가르침을 해석하거나 수식해 보려고 하는 것 등은 새교회인들에게 있어서 큰 시험인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시험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더 이상 새교회인이 되지 못한다. 게다가 우리는 유일하신 하느님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예배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신성한 진리로서 더 이상 찾지 않으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결국 자아와 세상을 예배하게 되고 만다.

주님은 제 13절에서 또 다시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성서 첫 구절에서 우리 앞에 놓인 이상향은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는 것이었다. 이 말씀은 인간 안에 천국적인 본성과 지상적인 본성이 있고 그것들이 에덴의 동산이 의미하는 상태로 발달되어 감을 의미한다. 큰 강이 에덴의 동산을 적시우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은 주님 대신 자아 쪽으로 돌아서서 천국적인 상태에서 더욱 멀어져 갔는데, 이러한 인류의 악은 모든 것을 멸할 정도로 되어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여야만”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런 다음 비록 느리지만 위쪽으로 상승되기 시작하여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순수한 강을 다시 발견하는 “하느님께서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예루살렘에 관한 요한의 환상이 있을 때까지 이어진다.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고 순종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확신케 해준다. 요한이 절해야겠다고 인식했던 천사는 자신역시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요한에게 말했다. 그리고 주님은 16절에서 천사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심으로써 명백히 하고 계신다. 그래서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의 응답이 그러하도록 성경의 마지막 절에서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하시며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주 예수의 품위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라고 기록된 것이다.

제 5반

몇 가지 주제를 다루면서 본 반을 진행하도록 한다.

우리는 계시록 제 21장에서 거룩한 도성 새예루살렘이 신랑을 맞는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읽었다. 그리고 우리는 제 12장을 공부하면서 새교회가 “태양을 입고 있는 여자”로서 묘사됨을 배웠다. 「계시록 풀이」 제 533항에 의하면,

이 여자가 교회로서 의미된 까닭은 교회가 주님의 신부 또는 아내로 불리기 때문이며 그 여자가 태양을 입고 있는 이유는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인데, 이는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며 그 순종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거듭하여 발견되는 사항은 사랑이 진리로부터 그것의 품질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교회에 관한 마지막 그림은 성에 관한 것인데, 이는 성이 교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제 22장 첫 절에서 요한은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의 강과 그 강은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좌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강은 에덴의 동산을 적시는 강과 마찬가지로 주님으로부터 온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이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이 나무 역시 에덴의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와 같은 것이다. 이 나무는 신성한 사랑의 측면에서의 주님을 상징하며, 그 나무의 열매는 이타애와 사랑의 선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 즉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약이란 합리적인 진리로 인해 악과 거짓에 빠져 있는 자들이 건전한 삶으로 인도되어 그에 걸맞게 살아감을 의미한다(계시록 풀이 926).

본문인 22장의 마지막 구절들은 새교회에 속한다고 고백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 구절들이 말씀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요약하고 있으며 새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자칫 망각하기 쉬운 가르침들의 중요성도 명백히 보여준다.

요한이 자신을 안내해준 천사에게 절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천사가 그의 절을 거절하는 사건이 기술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19장 10절에서도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천사들로부터 온다는 것과 그들이 다양한 영적 방법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천사 역시 사람처럼 유한하여 실수를 범한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삶의 정확한 안내를 위해 꾸준히 말씀을 공부해야 할 것이다.

「천국의 신비」 제 543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즉, “성숙한 사람 혹은 노령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교리적인 것들로 불리는 교회속의 진리를 점검해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교리들의 진정성을 따져 본 후 그에 따라 살겠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억적인 지식에 따라서만 행하게 될 때 점검하지 않은 교회속의 진리만큼은 이루지 못하고 보류된다. 그 진리들은 단지 자연적 기억 안에만 남아 있거나 그들의 입술에만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이 그 진리를 표현할 때 그 말은 내면에 속한 사람 또는 마음으로부터 말하는 것이 아닌 단지 외면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즉 입으로만 말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교회속의 진리가 진정한

것임을 믿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즉, 설사 자신이 진정하다고 믿는 것처럼 여길지라도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의 근거는 그가 의존한 다른 것으로부터 거짓 혹은 진정성이 확증된 것이다. “재주밖에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이런 확증이다. 따라서 새교회인이 권위를 유일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말씀 속에서 말하시는 주님이시이다.

위의 사항과 더불어 상기되는 사항들이 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설교의 내용들이 복음서보다 서간문에 근간을 두고 있음을 의아해 여기기도 한다. 이러한 설교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내용이 서간문 혹은 서기 325년의 니가야 종교회의에서 있었던 결정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도들과 기독교회의 초기 지도자들은 주님이 하느님이셨음을 느꼈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 2장 9절의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는 하느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는 바울의 서신같이 이러한 믿음은 그들의 저술에서도 발견된다. 오늘날에도 위와 같은 느낌을 갖고 표현해야 하며 그 시대로 되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잎 곧 열린 말씀이 설비해 놓은 말씀의 합리적인 이해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들 모두의 지성은 자연적인 관념이라는 구름으로 싸여 있을 뿐이다. 또 다른 예로 요한의 서간문을 들 수 있다. 우리는 요한이 주님의 제자들 중 가장 사랑 받으며 그분과 아주 가까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편지들로부터 그가 그리스도 외의 어떤 것에 하느님에 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요한은 그의 복음서 곧 영감을 받아 기록한 그의 책에서 필립보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라고 기록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 의해 기록된 서간문에서는 주님을 하느님의 아들인 메시아로서만 생각한다. 즉, 그는 주님을 천국에 가겠다는 자와 못 온다고 하는 자 사이에 있는 중재자로서 생각한 것이다. 사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한 인간으로서 간주할 때 결국 그 교리는 주님을 참된 창조주 하느님으로 보지 않는 교리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나 요한은 영감으로 기록된 계시록에서는 “그 때 옥좌에 앉으신 분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다(21:5-6).’”라고 기록했다. 이 말씀은 본문에서도 똑같은 분인 “나, 즉 예수”에 의해 반복되고 있고, 그 약속에 대한 응답이 20절의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인 것이다.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명확한 사항은 인간이 주님을 믿는 여부를 선택할 자유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저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선택한 진리를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비록 생명의 물을 거저 마실 수 있고 도성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책에 무엇을 덧붙이거나 떼어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얻게 된다. 우리는 이 경고가 특별히 모든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인정하는 자들 혹은 교회에 소속된 자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고는 주님의 재림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그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두루마기를 빼는 사람(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새교회에 속한 이들을 위한 그분의 계명들이란 그분께서 말씀을 여심으로써 우리에게 밝혀주신 삶의 길에 관한 것들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심과 세상욕은 우리가 말씀에 읽은 것들, 즉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들이 오역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자극한다. 18절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에 의해 열려져 이 책의 교리에 속한 진리를 읽어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외의 다른 신을 인정하며 그분과 그 진리를 파괴할 어떤 것을 말씀에 첨가하는 자들은 이 책에 기술된 재난도 더불어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 책에 기록된 말씀에서 “무엇을 떼어버리는” 경우도 위와 같은 차원의 것이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공적인 승인 같은 것이 “다른 신들”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교회 조직 혹은 자신을 위해 영적인 절충안이나 주님께의 불순종이라는 비용을 치르려고 허둥대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이 아닌 인간에 중심을 두면, 우리는 거룩한 성으로 입장하는 데서 그만큼 멀어지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천사가 요한에게 “이러지 말아라. 경배는 하느님께 드려라.”라고 당부한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밝힘」 제 954항: “‘나는 다윗의 뿌리에서 돋은 그의 자손이며 빛나는 셋별이다.’라고 함은 세상에 태어나셔서 빛이 되셨던 주님 그리고 새 빛으로 거룩한 예루살렘인 그분의 새교회 앞에 드러나실 분을 의미한다. ‘다윗의 뿌리에서 돋은 그의 자손’이란 세상에 태어나셨던 신성한 인간으로서 계신 주님 자신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 그분은 ‘다윗의 뿌리와 자손’ 그리고 ‘다윗의 가지’라고 불린다(예레미야 23:15). 또한 이사야 1장 1-2절에서는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난다.’라고 말해진다. ‘빛나는 셋별’이란 거기에 빛이셨다는 것과 새 빛으로 오실 것, 즉 거룩한 예루살렘인 그분의 새교회 앞에서 새 빛으로 일어나실 것을 의미한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데에서 그분은 ‘빛나는 별’ 과 ‘빛’이라고 불린다. 별에 대해서는 민수기 24장 17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빛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4-12절, 3장 19절, 21장, 4장, 5장,

12장 35-36절, 마태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2장 30-32절 그리고 이사야 9장 2절과 49장 6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그분은 그분으로부터인 새예루살렘, 즉 새교회 앞에 나타날 빛으로부터 ‘새별’이라고 불리신다. 그 이유는 ‘별’이란 그분으로부터 오는 빛을 의미하고, 이 빛의 본질은 지혜와 총명이기 때문이다. ‘아침’은 그분의 오심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곧 새교회이다.”

질문 정리

- 1) 본문에서 요한은 환상을 보여준 천사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 2) 그 천사는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3) 알파와 오메가란 무엇을 뜻하는가?
- 4) 누가 생명나무를 차지하고 거룩한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 5) 주 하느님은 누구이신가?
- 6)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초대를 하고 계신가?
- 7) 그분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사항은 무엇인가?
- 8) 우리 교회는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 9)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배우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인가?
- 10) 강과 생명나무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1) 왜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친숙한가?

질문의 답

- 1) 자기가 경배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2) 하느님께 경배하라
- 3) 처음과 마지막 4) 주님께 순종하는 이들 5) 예수 그리스도
- 6) 나에게 오라 7) 성경의 말씀을 더하거나 떼어버리는 것
- 8) 거룩한 성 9) 우리는 여기서 영원한 선택을 하기 때문
- 10) 강 - 말씀의 진리, 생명나무 - 신성한 사랑 11) 축도문에서 사용되기 때문

새교회 날(2)

머리말

본과는 매해 6월 셋째 주일을 위해 계획된 것이다. 새교회의 이름의 의미와 그 이름이 주어진 까닭을 주로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1장 1-12절

21장: 1. 그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2.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 그 때 나는 옥좌로부터 울려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느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느님이 되셔서 4.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5. 그 때 옥좌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하고 말씀하신 뒤 다시금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6.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7. 승리하는 자는 이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8. 그러나 비겁한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 흉측스러운 자와 살인자와 간음한 자와 마술장과 우상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장자들이 차지할 곳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9. 마지막 일곱 가지 재난이 가득히 담긴 일곱 대접을 손에 든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그 신부를 너에게 보여 주겠다”하고 말했습니다. 10. 그리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 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에 싸여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백옥 같았습니다. 12.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 두 대문이 있었고 그 열 두 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있었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교리 요점

* 오늘날 전 세계는 새교회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데, 새교회인들은 그 가르침을 알고자 하는 이들을 도와야 한다.

가정 예배 편

앞서 우리는 성막과 성전 그리고 거룩한 성에 대해서 공부했다. 요한은 계시록 21장 22절에서 거룩한 성에 관하여 “나는 그 도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양이 바로 그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의 청년기는 마치 광야를 배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영적이고 영원한 고향을 추구하면서 구름과 불기둥에 의해 인도된다. 이때에 우리는 주님을 막연히 이해하면서 그분을 인정한 상태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의 거주지는 이동이 용이한 천막으로서 여기저기로 오가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될 때까지 곧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두 기둥들의 인도를 성실히 따라 간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우리의 성전을 갖게 되어 단단한 기반이 있는 예배장소와 평화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 후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지식이 발전될 때마다 더 많은 의문을 갖게 된다. 우리는 그때마다 의문의 답이 말씀 속에 있음을 인식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추구하여 얻게 된 해답으로 곤란을 겪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노력을 중단하고 이 세상의 우상들을 예배하는 쪽으로 향하기도 한다.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해답을 추구하기도 한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해답을 추구한 자들 중의 한 사람이 바로 철학자이면서 과학자였던 임마누엘 스웨덴불(1688-1722)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분의 재림을 알리는 도구로서

그를 사용하셨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지니시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셨는데, 이는 삶의 진정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다. 첫 기독교회는 이러한 본보기에 기초된 것이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그분이 다시 육으로 오실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그분은 제자들에게 “나는 아직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 너희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도 말씀해두셨다. 그리고 그분은 “권능과 영광과 더불어 하늘의 구름에 오신다.”라고 예언하셨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처럼 예언하신 재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늘의 구름”이란 말씀의 글자를 의미한다. 우리는 지상의 하늘이 구름으로 덮여 있을 때 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한 때 그 해가 구름을 뚫고 내리 비칠 때 그 햇볕에 고무되듯이 내적 의미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의 문단을 통해 용기를 얻게 된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부분이다.

주님은 18세기 중반에 인류가 과거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말해주더라도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이해할 만큼 세상의 학식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되었음을 보셨다. 또한 인류가 과학이나 철학으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져 가는 것도 보셨다. 그래서 주님은 스웨덴북의 눈을 여심으로써 영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 영의 세계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내향의 삶을 뜻하고, 우리의 경우 지상에 속한 육체를 한쪽에 놔두게 될 때 볼 수 있게 되는 세계를 의미한다. 그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세계이기도 하다. 주님은 스웨덴북으로 하여금 모든 인류가 말씀의 내적 의미를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써서 출판하도록 그를 훈육하셨다. 스웨덴북은 스스로를 일컬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라고 했다. 그의 저서들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혼동을 일으키는 단원에 대한 열쇠의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그의 저서들은 우리로 하여금 구름 너머의 빛나는 해를 보게 해준다.

우리는 6월 19일을 “새교회 날”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스웨덴북이 주님께서 1770년 6월 19일 열두 사도들을 영계 전체에 파견하시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 사도들은 “주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복음, 그분의 나라가 세세토록 존재할 것이라는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성 새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되신다. 만약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간다면, 우리 역시 영원히 그 도성에 살게 되는 것이다.

제 1반

거룩한 성에 관해 것과 새교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배되는 교회임을 언급한다. 또한 교회란 주님을 사랑함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가르쳐지며, 그분에 의해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주어지는 곳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6월 19일이 있는 주일에 “새교회 날”을 기념하는데, 이는 1770년 6월 19일에 새교회가 천국에서 지상으로 내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본문은 이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고 있는데, 요한은 새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성으로서 그것을 보았던 것이다.

예루살렘은 “평화로운 곳”이란 뜻이다. 평화란 사랑스럽고 행복하며 다툼이나 비웃음이 없는 상태로서, 타인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으며 항상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그렇다면 불행이란 무엇일까? 불행이란 우리가 나태해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기어이 행함으로써 처벌받게 될 때일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를 지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빼앗어진 것 대신 올바른 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는 대신 타인의 행복을 보고 즐거워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평화를 얻은 후 거룩한 성에서 살게 된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본문에는 새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내려온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 * 비유란 무엇인가?
- *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누가 주님의 재림을 목격하고 그 의미를 전하는 도구로서 선택되었는가?
- * 주님의 인도 하에 스웨덴불이 한 일은 무엇인가?
- * 새교회의 날의 기원은 언제인가?
- * 솔로몬의 성전은 어디에 세워졌는가?
- * 새교회의 진정한 이름은 무엇인가?
- * 새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무엇을 뜻하는가?
- *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무엇을 통해 주어지는가?
- *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예언된 주님의 재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하늘의 구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 2반

재림의 이유를 강조한 후 새교회에 주어진 새로운 지식이 현 세계에 필요하다는 것과 새교회인이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함을 설명한다.

앞서 우리는 계시록 21장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면서 아름다운 성이 천국적인 상태에 관한 묘사임을 살펴보았다. 만약 우리가 재림하신 주님이 말씀의 내적 의미를 통해서 주시는 빛으로 밝혀주신 진리를 공부하여 그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천국적인 상태에서 살게 된다. 우리는 매해 6월 19일을 “새교회 날”이라고 칭하며 그 날을 기념한다. 이는 1770년 6월 19일 새 기독교 천국의 건설이 영계에서 선포되었고, 그 천국으로부터 지상에도 새 교회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스웨덴봄이 증언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첫 다섯 구절 안에 담긴 내용이다.

우리는 모두 학교에 다녀야 하는데, 우리의 유아기 시절에는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지식을 배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지지도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적절한 시기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유아기 때에 생각해 보지 못한 지식들을 매해 배워나가게 된다. 모든 이들은 이러한 성장 과정을 거치는데, 인류 전체의 성장역사도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처음 창조될 당시의 인류는 아주 단순하고 순진했는데, 그들은 마치 오늘날의 유아와 같았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모두 주셨다. 그들이 성장하여 독립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더 많은 가르침, 즉 더욱 복잡한 종류의 가르침들까지 주셨다. 오늘날 역시 이와 같아서 그분으로부터 배우고자하는 이들 곧 그분이 옳다고 하신 것들을 행하려는 이들은 더욱 슬기로워지는 반면에 자신의 고집대로 하고자 하는 이들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곤란을 초래하게 되고 그들 스스로도 불행해지게 된다.

주님은 세상으로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아직 나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은 물리적 세계에 관한 사항들을 알며 늘 배워간다. 하지만 인간은 이러한 세상적인 지식들로 인해 교만해져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고, 단순한 사람들은 그러한 지식들을 가진 자들의 논쟁을 이겨낼 만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자 다시 오셨던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육에 의해서가 아닌 그분께서 선택한 종 곧 임마누엘 스웨덴봄의 저술을 수단으로 하여 말씀의 내적 의미를 보여 주심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진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큰 책임을 주신 것이다. 즉, 새로운 이해의 빛으로 성경을 공부하여 그분께 순종하면서 습득한 지식을 타인에게도 전하여 자신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거룩한 성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 책임을 주신 것이다.

이제 본문을 다시 읽고, 이 새로운 빛 속에서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앞서 공부한 바대로 거룩한 성은 지상에 건설되기 위해 하느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교회를 의미한다. 이 교리에 진실로 소속된 이들은 진정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이 주님을 사랑할 것이다(2절). 주님은 이 교회 중심에 계신다(3절). 우리는 주님이 만물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알기 때문에 지금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게 된다(4-7절).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항을 알면서도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이 아닌 지옥에 살게 된다(8절). 그 도성의 성벽은 말씀의 글자인데, 특별히 주님께서 시작 초부터 인간에게 주신 법인 십계명을 뜻하며, 지금 우리는 새 빛 속에서 이 계명을 이해하여 주님사랑에 의거하여 순종하게 된다(9-12절).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

- * 누가 거룩한 성의 환상을 가졌는가?
- * 거룩한 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 그 도성에는 얼마나 많은 문이 있었는가?
- * 문에는 뭐라고 써어 있었는가?

제 3반

새교회의 선교활동을 강조한 후 우리 모두가 주님과 그분의 계명에 신실해야 할 것을 결론으로 삼는다.

앞서 우리는 거룩한 성 새예루살렘의 일반적인 의미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기술된 그 성의 세부사항에 관한 의미를 살펴보았다. 본 반에서는 이 거룩한 성 새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했던 까닭을 살펴보도록 한다. 우리는 스웨덴북을 통해 1770년 6월 19일 본문의 첫 절에서 주어진 예언의 성취가 발표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6월 19일을 “새교회 날”로 기념한다.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는 사람들을 늘 혼란스럽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우려하고 그분께서 뜻하신 삶을 살고자 말씀을 읽는 이들에게는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 줄 충분한 빛이 구름을 뚫고 비치고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 질서로운 삶에 있는 불변의 법칙이 십계명이란 것도 알게 해주었다. 초기의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고 선한 자들로서 주님 안의 어떤 것을 자연에 있는 모든 것에서 보면서 그분으로부터 살았다. 선한 이들 곧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자유롭게 선택한 이들과 더불어 이 지식들은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조금이나마 존속되었다. 또한 태고 교회 교인들의 지식이 고대 말씀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로부터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이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세계를 공부해가면서 충분히 알았다고 자부하면서 주님께 관한 사항을 점차 잊게 되었고, 결국 말씀의 진정한 의미에 관한 지식마저 잃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점차 슬기롭지 못하고 주님께 순종하려는 이들까지도 확실한 길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주님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오신 것이다. 이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이로 인해 그분께서 인간에게 삶의 올바른 방법을 주신 것이다. 하지만 주님은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임을 예견하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즉,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첫 오심에서 사람들이 모두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있다. 게다가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자만심과 이기심이 그분을 거절하면서 그분을 십자가형에 처하시게 했다. 첫 기독교회 곧 선한 자들 사이에서 시작된 교회조차도 스스로 통치하기를 추구하면서 분리되어 여러 그룹으로 분열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인간들이 세상적인 지식을 더욱 발달시킴으로 인해 선한 이들이 더욱 많이 이해하지 않고서는 말씀에 대한 그들의 진정한 믿음을 존속시키기 힘든 시기가 초래 되었다. 그래서 주님은 단지 지상의 지식만으로 슬기롭다고 자부하는 이들로 인해 선한 이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말씀의 내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한 번 더 인간에게 주셔야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다.

말씀의 내적 의미가 발하는 빛 속에서 말씀을 새롭게 이해함이 하늘에서 하느님께로부터 지상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예루살렘이며, 이 내려옴은 지상의 선한 이들을 주축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새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교회의 선교란 삶을 공부하고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 새 빛에 의거하여 돕는 교회인 것이다.

본문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새 빛을 받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의한 통치를 원하지 않고 자신의 잘난 맛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천국은 이들을 위한 곳이 아니다. 하지만 거룩한 성의 문은 그 성안에서 살기를 진실로 원하는 자들을 위해 영원히 열려 있다. 다시 말해서, 속으로부터 빛을 발하는 백옥같이 빛나는 그 도성의 벽 안쪽에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도성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다.

제 4반

유명한 철학자 혹은 과학자가 주장하는 영계나 성경에 관한 말에 쉽게 현혹되지 않도록 경고한다.

앞서 우리는 거룩한 성의 세부사항을 살펴 보면서 그 성이 우리가 속하는 교회의 이상향을 묘사한 것이며, 그 묘사는 인류가 세상적인 과학이나 철학 같은 부분에서 큰 진전을 이루는 중에 있게 될 새 시대를 위해 주님 당신에 의해 주어진 삶의 모형이라는 것을 공부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이상향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새로운 진전을 만들 때마다 자신을 찬양하려는 쪽으로 쉽게 유혹되기 때문이다. 이런 자아찬양은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행동할 힘이 주님으로부터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한다. 만약 우리가 이룩한 업적들을 선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안내를 주님께에서 찾으며 그분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학과 같은 고등 교육을 받으면서 배워야 할 세상적인 지식이 많음을 보고 허둥대다가 자신의 삶이 영원에 비해 얼마나 짧은가를 망각하게 되는 유혹에 빠진다. 또한 우리 영혼이 살아야 할 세계에 관한 지식에 흥미를 잃기도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즐기도록 원하시며, 그 안에 있는 것이 유용해지를 바라신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은 우리가 날마다 향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과 주님께 연결되게 해 줄 우리 속마음의 더 높은 평면을 희미하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 중간부분인 8절에서 주님의 법칙에 순종할 의무를 잇는 이들에 대한 꾸짖음이 발견된다. 많은 이들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성취해낼 때까지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거나 성경을 시대에 뒤떨어지는 책으로 간주하고 소홀히 다룬다. 또한 이 세상의 삶 너머에 뭔가가 있다면 사후에 발견하게 될 때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하면서 영적인 것들에 관한 것을 배우기를 등한시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짐작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영원히 갖게 될 인격을 매일 형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내일의 것은 내일에, 그렇게 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체 그럴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동의 한 바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두신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인간을 본능적으로만 행동하는 동물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의 인간의 시작 초부터 그분의 존재와 질서에 관해 진보해 가는 계시를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인간이 소경 상태에서 결코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해두셨던 것이다.

현대에 접어들어 우리는 공부하고 배워야 할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이를 통제하여 방향 짓게 해줄 천국의 지식도 많이 갖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며 생명의 물을 거저 마시는 대신 지옥 쪽으로 인도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이는 우리의 과오인 것이다.

제 5반

현 세계에서의 새교회의 필요성과 새교회의 가르침을 배우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하늘을 통해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에 대한 요한의 환상은 하느님 말씀의 최정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우리는 말씀 전체가 하느님의 본성과 그분의 뜻을 인류에게 점차적으로 밝혀 주시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서, 이는 무지한 유아가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한 성인의 상태로 발달되는 것과 같다. 인간은 마치 어린아이가 한꺼번에 많은 지식을 수용할 수 없듯이 단계적으로 발달하며 성년이라는 그릇에 다다를 때까지 점진적으로 훈육되어져 왔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까닭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와 합리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자질은 하느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에 대한 의미이기도 하다. 스웨덴북은 주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간을 위해 꼭 보존해 두셔야 했던 것이 선택의 자유라고 말한다. 주님은 인간을 멸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있는 악의 발달을 예방하실 수 없으셨다.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사랑이 아니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마지막 계시(밝히 알게 함)는 인간이 정신적으로 충분히 발달된 때에야 비로소 가능해졌다. 그 때에 주님은 지상에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심 없이 다시 오셨다. 그분 스스로 예언하셨듯이, “권능과 큰 영광과 더불어 하늘의 구름에” 오신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말씀의 글자라는 구름을 통해 빛나는 내적 의미로 오심을 의미한다. 스웨덴북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치하신다고 1770년 6월 19일 천국에 선포되었고, 이로부터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성이 있게 되었다”라고 증거 한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는 매해 6월 19일을 “새교회 날”로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학의 발달 속에서 인간의 교만에 기초된 철학들, 프로테스탄트 혹은 로마 가톨릭이 기초를 둔 교리들은 인간 지성의 발달과 함께 본질적으로 주님이나 그분의 말씀에 대한 설명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음을 주시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새 시대 속에서 주님에 관한 지식이 새 계시에 의해 얼마나 절실한지 그리고 주님 만에 대한 예배의 절실함을 실감하기 위함이다.

새교회의 선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며, 그 책임은 실로 중대하다. 거룩한 성이라는 가르침을 공부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전달해주는 것은 우리 삶의 필수 요건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지상의 교회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이다. 주님께 꼭 붙어서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진정한 기독교 종교 제 791항」: “주님은 이 일이 끝난 후 세상에서 그분을 따르던 열 두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분은 다음날 그들을 영계 전체에 파견하여 주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복음을 전하도록 하였고, 이 왕국은 다니엘서 7장 13-14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예언과 같이 영원무궁토록 군림하실 것임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도 선포되었다(계시록 19:9). 이 일은 1770년 6월 19일에 거행되었다. 이것이 주님의 다음 말씀에 대한 의미이다. 즉, 그가 뽑은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을 것이다.”(마태복음 24:31)

질문 정리

- 1) 오늘 우리는 어떤 날을 기념하는가?
- 2) 왜 우리는 6월 19일을 “새교회 날”이라고 부르는가?
- 3) 우리 교회의 이름의 근원은 무엇인가?
- 4) 누가 거룩한 성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을 통해 내려오는 모습을 처음 보았는가?
- 5) 성은 무엇에 상응하는가?
- 6) 성벽은 무엇에 상응하는가?
- 7) 단어 예루살렘은 무엇을 뜻하는가?
- 8) 왜 세상은 마지막 계시를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는가?
- 9) 세상의 지식과 주님에 관한 지식 중 어느 것이 보다 더 중요한가?
- 10) 주님은 재림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 11) 왜 주님은 인간에게 선택하는 자유를 주셨는가?

- 12) 주님이 악을 허용하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 13)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큰 시험은 무엇인가?
- 14) 새교회인으로서의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새교회 날 2) 순정기독교 791항 참조 3) 거룩한 성 새예루살렘
- 4) 사도 요한 5) 교리 6) 말씀 글자 7) 평화의 장소
- 8) 인간이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9) 주님에 관한 지식
- 10) 말씀의 내적 의미를 밝히심으로
- 11) 주님과 이웃사랑은 반드시 자유롭게 선택되어야 하므로
- 12) 인간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13) 자기 총명의 자랑
- 14) 말씀과 스웨덴불의 저서를 수단으로 이웃이 주님께로 인도되도록 도움

